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of Basic Necessities

CLOTHING

한국 의식주 생활 사전

의 생활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의식주 생활 사전

의생활

국립민속박물관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7034698)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의 생활 ①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of Basic Necessities

CLOTHING

발행일

2017년 12월 19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전화 02. 3704. 3141

발행인

천진기

총괄

이관호

기획

강경표

편수원

백민영, 은현정, 김혜영, 류건옥, 손동기

윤문·교열

도서출판 평사리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인트로 /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262-01

ISBN

978-89-289-0175-3 91380 : 비매품

978-89-289-0172-2 (세트)



한국 의식주 생활 사전

의생활

국립민속박물관

발간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민속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 민속문화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환기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편찬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여섯 번째 주제인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의 ‘의생활 편’ 사전을 발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전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여 전승되어 내려온 의생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 해설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립민속박물관은 2002년부터 시작된 사전편찬 사업을 통해 이미 <한국 세시풍속사전>, <한국민속신앙사전>, <한국민속문학사전>, <한국일생의례사전>, <한국민속예술사전>을 발간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의 민속을 집대성한 《한국민속대백과사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발간될 <한국의식주생활사전 : 식생활·주생활 편>, <한국생업 기술사전> 그리고 <한국민속사회사전>까지 이 모두가 지금까지의 한국 민속학 연구 성과를 집대성 하는 계기일 뿐 아니라, 새로운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또 다른 창조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본 사전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자, 자문위원, 감수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 기관과 사전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전편찬팀, 그리고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신 우리 관 직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

발간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민속을 크게 8개의 주제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주제인 <한국세시풍속사전> 전5권을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발간하였고, 2009년부터 제2주제인 <한국민속신앙사전> 편찬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9년에 ‘무속신앙편’(1·2권), 2010년에 ‘마을신앙편’(1·2권), 2011년에 ‘가정신앙편’(1·2권)을 발간하였다. 2012년에 제3주제인 <한국민속문학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같은 해 ‘설화편’(1·2권), 2013년에 ‘민요편’과 ‘판소리편’을 발간하였다. 2014년에는 제4주제인 <한국일생의례사전> (1·2권)을 발간하였고, 2015년에는 제5주제인 <한국민속예술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민속극편’과 ‘민속놀이편’을 발간하였고, 2016년에는 ‘음악·농악·무용·민화편’을 발간하였다. 올해는 제 6주제인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의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첫 결실인 ‘의생활 편(1·2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한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의생활 편’은 표제어 448항목, 원고 6,000여 매, 사진 820여 장으로 구성하였다. 사진자료는 집필자로부터 이용권을 구입한 사진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사진, 타 기관에서 제공한 사진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이 사전은 관내·관외의 의생활 연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사전편찬팀에서 선정한 표제어의 적합성을 검증 받았고, 여기에서 빠진 중요한 표제어를 추천 받는 등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의생활 분야를 전공한 74명의 연구자가 원고를 집필하였다.

수합한 원고는 사전편찬팀의 검수를 받은 후 전문가의 교정·교열·윤문을 거쳤다. 최종 원고는 각 분야에서 출중한 연구업적을 쌓은 외부 학자의 감수를 거쳤으며 감수위원단이 문제점을 제기한 원고는 수정·보완하여 사전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사전은 의생활을 크게 모자, 상의, 하의, 겹옷, 속옷, 대, 신발, 장신구, 머리모양, 화장, 일습, 직물, 염색, 무늬, 용어로 구분하였다.

사전은 발간사와 발간개요, 일러두기와 목차, 그리고 본문과 색인으로 구성하였다.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으며, 집필자란을 마련하여 필자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의 전체 구성

<한국의식주생활사전 : 의생활 편>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어 선정 및 범주

1. 표제어는 <한국의식주생활사전 : 의생활 편>에 독립항목으로 배열되는 단어를 말한다.
2. 표제어는 모자, 상의, 하의, 겹옷, 속옷, 대, 신발, 장신구, 머리모양, 화장, 일습, 직물, 염색, 무늬, 용어의 범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3. 표제어는 관내의 자문회의를 통해 그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여 선정하였다.
4. 이 사전에서 사용되는 표제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따랐다.

표제어 배열 및 목차

1. 본문에서의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목차는 가나다 차례와 분야별 차례 두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분야별 차례의 경우는 각 분야 안에서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가표제어

주표제어와 거의 대등하게 불리는 이칭을 가표제어로 선정하였다. 가표제어도 목차에 같이 제시하였다. 가표제어와 관련된 주표제어 쪽수를 제시하여 사전 이용자의 검색 접근성을 향상 시켰다.

표기방법

맞춤법과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교육과학기술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2008년 10월 발간)’을 따랐다.

사진과 자료

사진, 도표, 삽화 등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제공처)를 밝혔다.

분야별 도판

분야별 도판을 수록하여,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는 순서로 의생활 관련 사진과 그림, 물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속담·관용구

의생활 관련 속담과 관용구를 정리·제시하여 의생활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색인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해당 쪽수를 기재하여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필자

필자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집필한 표제어와 해당 쪽을 기재하여 필자란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제공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간송미술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경찰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수목원, 국립여성사전시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눈빛출판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대전시립박물관, 돌실나이,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아일보, 명동성당, 부산시립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성주 이씨 대종회, 세종대학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안동대학교박물관, 안동민속박물관, 앙드레킴 아틀리에, 어진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영월책박물관,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우리들의 벗, 원불교역사박물관, 육군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일조각, 자연염색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조선일보, 중앙여자고등학교, 진주 강씨 백각공파 종친회, 천안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충현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미사진미술관, 합천박물관, 해남 윤씨 대종회

자문위원과 감수위원

1. 관내 자문위원은 김영재, 최은수가 맡았다.
2. 관외 자문위원은 고부자(단국대), 금기숙(홍익대), 김명자(안동대), 김문식(단국대), 김문자(수원대), 김시덕(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남경미(원광대), 박성실(단국대), 송미경(서울여대), 윤양노(중부대), 이경미(한경대), 이문현(한국고전학연구소), 이민주(한국학중앙연구원), 이은주(안동대), 장인우(인천대), 조효숙(가천대) 교수가 맡았다.
3. 감수위원은 강순제(가톨릭대), 박성실(단국대), 유송옥(성균관대) 교수가 맡았다.

가나다순

차례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의생활

기역



가리마	20
가사	21
가족	23
가족버선	24
가체	25
간단복	27
갈모	28
갈무리	30
갈옷	32
감물	34
감발	35
감투	36
갑사	37
갑신의제개혁	39
갑오의제개혁	40
갓	42
강사포	46
개구멍바지(풍차바지)	709
개두	48
개량복	49
개량한복	51
개신교복	52
개오기	53
개짐	54
거들치마	55
건	56
건괘	57
견마기(결마기)	63
경대	58
경사	60
경찰복	61
결마기	63
계	65
계례복	65
고	66
고깔	67
고단	68
고무신	69
고사	70
고의	71
고이댕기	71
고쟁이	72
곤룡포	73
곤충무늬	76
공단	77
공복	78
공정책	80

과대	81
과두	82
과실무늬	83
관례복	86
관사	87
관자	88
광목	89
광사	90
괘자(괘자)	676
과화	91
교복	92
교힐	96
구군복	96
구두	98
국민복	100
국사	101
굴레	102
궁녀복	103
계계	105
귀고리	106
규	109
금동신발	110
기녀복	112
기저귀	115
기하무늬	116
길짐승무늬	118
까치두루마기	120
까치[저고리](색동저고리)	457
꼭두서니	121

나은



나막신	122
나사	123
나일론	124
난삼	125
날실(경사)	60
날염	127
날짐승무늬	128
남바위	130
남전	131
납힐	132
너울	133
넥타이	134
노리개	135
노방주	137
노파리	138
녹피혜	139

농악복식	139
뉴똥	143
능	143
능목면	144

디글



다듬이질	145
다리미질	147
다리속곳	148
다회	148
단	150
단령	151
단발령	155
단발머리	157
단삼	158
단속곳	159
닭의장풀	160
담복	161
답호	162
당의	164
당항라	166
당혜	166
대	167
대구	169
대륜식입식관	170
대삼	173
대수	173
대숨치마	174
대자	176
대창의(창의)	648
대한제국의제개혁	177
댕기	179
더그레	181
도롱이	182
도토리	184
도투락댕기	184
도포	186
돌띠	188
돌복	189
동곳	191
동구니신(역신)	220
동다리	192
동달이(동다리)	192
동동구리무	193
동의대	194
동자무늬	194
동파관	196

두건	197
두렁치마	198
두루마기	199
뒤꽂이	201
등거리	202
뺨은머리	203
떠구지	204
떨잠	206

리을



라	207
레이온	208

미음



마고자	208
마미두면	209
마전	211
말군	211
말뚝댕기	213
말액	214
망건	214
매염	216
맥고모자	217
먹물	218
메리야스	219
역신	220
면류관	220
면복	222
면사	226
면주	227
명반	228
명주	228
모단	230
모던걸	230
모던보이	233
모란무늬	234
모분단	236
모슬린	236
모시	237
모자	239
모직물	246
목걸이	247
목공단	249
목도리	250
목판댕기	251

목화	252
몸빼	254
몽두리	255
몽두의(몽두리)	255
몽수	256
무명	257
무복	259
무지기치마	262
문관대례복	263
문관복장규칙	265
문자무늬	267
물푸레나무	269
미용실	270
미투리	271

비음



바느질	272
바지	275
박가분	277
반물	278
반비	279
반지	280
방건	282
방립	283
방심곡령	285
방염	286
배넛저고리	286
배씨댕기	289
배자	290
백라관	292
백반	293
백의	293
백일옷	294
버선	295
벥거지	296
벨벳	297
변형모	298
보(홍배)	758
보배무늬	300
복건	302
복두	303
복식금제	305
볼끼	307
봉지	309
봉황무늬	309
비녀	311
빋	313

시옷



사	432
사계절꽃무늬	433
사군자무늬	434
사규삼	436
사모	437
사방관(방립)	283
사선	439
산동주	440
삼베	440
삼팔주	442
삿갓	443
상	443
상관	445
상모	446
상복(喪服)	447
상복(常服)	450
상장	452
상투	453
상투관	455
새양머리	456
색동저고리	457
색복장려운동	459
생고사	461
생머리(새양머리)	456
생활한복	462
서양사	463
석	464
석회	465
선매염	466
선염	466
설빔	467
설피	468
세조대	469
세탁	470
소고의	472
소골(변형모)	298
소방목	473
소창의	474
속옷	475
속적삼	476
속치마	477
송낙	478
수의	479
수화주	483
속고사	484
스란치마	485
승복	486

시계	488
시복	490
신발	491
신식군복	493
심의	496
쌍계	498
쓰개치마	499
씨실(위사)	553

이용



아얌	501
안경	502
안경집	503
애편(안경)	502
액주름포	505
앵삼(난삼)	125
야자대	506
양관	507
양말	509
양복	510
양복점	513
양장	514
양태	517
어깨허리(조끼허리)	617
어사화	518
어여머리	519
엷은머리	520
연꽃무늬	523
연미복	525
연지	526
염색	527
염의	532
오매	532
오목버선(타래버선)	679
오미자	533
오방장두루마기(까치두루마기)	120
오배자	534
옥대	534
옥사	535
옥양목	536
와이셔츠	537
왜사	538
왜증	539
외투	539
요질	541
용무늬	541
우뎃기	543

운동화	544
운혜	545
울금	546
원불교복	547
원삼	549
원유관	551
웨딩드레스	552
위사	553
유	554
유건	555
유혜	557
윙	558
윙복	558
은조사	559
을미의제개혁	560
이발소	563
이염	564
익선관	565
인견	566
인염	567
입(ᄃᆞ)	42

지옷



자락치마	568
자미사	569
자연산수무늬	570
자초	572
잠	573
잠녀옷(해녀복)	724
잠방이	575
장갑	575
장도	576
장삼	577
장신구	579
장옷	582
장화	583
재봉	585
젯물	587
저고리	588
적관	591
적삼	592
적의	593
전	597
전대	598
전립	599
전모	601
전복	602

전행웃치마	603
절풍(변형모)	298
정	604
정동벌립	605
정자관	606
제복(制服)	608
제복(祭服)	611
제비부리댕기	615
조끼	616
조끼허리	617
조바위	618
조복	619
조우관	622
족두리	624
주	625
주립	626
주머니	627
주사	629
주의(두루마기)	199
중단	630
중산모	631
중절모	632
중치막	634
직령	635
직물	638
진주사	642
짚신	643
쪽	645
쪽머리	647

치옷



창의	648
책	650
챙머리	651
처네(천의)	653
천담복(담복)	161
천의	653
천주교복	655
철릭	657
첩리(철릭)	657
첩지	658
첩지머리	659
초립	660
최상	661
최의	662
추석빔	664
출토복식	665

충정관	669
치마	671
치자	673
치포관	674
침염	675

키읔



콩즙	676
쾌자	676
큰댕기(도투락댕기)	184
큰머리	678

티을



타래버선	679
탈춤복식	680
탕건	683
태사혜	684
털범것	686
토시	687
토주	688
통천관	688
통치마	689
투혜	691

피윸



파마머리	692
팔사단	693
팔찌	693
패랭이	696
패옥	696
팬티	697
편복	698
평천관(면류관)	220
폐슬	700
포	701
포목점	703
포선	705
포플린	705
폴리에스테르	706
푸새(풀먹이기)	706
풀먹이기	706
풍댕이(풍차)	708
풍차	708

풍차바지	709
플란넬	710

히읇



하부다이	711
하이칼라머리	711
하피	713
학창의	715
한랭사	716
한복	717
한삼	721
합사주	723
항라	723
해녀복	724
행진	728
행주치마	729
향갑	730
혁대	731
협힐	732
혜	733
호건	736
호박단	737
호슬	737
훈례복	739
흘	742
홍화	743
화	745
화관	747
화장법	749
화장재료	750
활옷	751
황련	754
황벽	754
회염	755
후수	756
휘양	757
홍배	758
흑피화	762

분야별

차례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의생활



가리마	20
갈모	28
감투	36
갓	42
개두	48
건	56
고깔	67
공정책	80
굴레	102
남바위	130
너울	133
대륜식입식관	170
동파관	196
두건	197
마미두면	209
말액	214
망건	214
맥고모자	217
면류관	220
면사	226
모자	239
몽수	256
방건	282
방립	283

백라관	292
범거지	296
변형모	298
복건	302
복두	303
불끼	307
사모	437
사방관(방립)	283
삿갓	443
상관	445
상모	446
상투관	455
소골(변형모)	298
송낙	478
쓰개치마	499
아얌	501
양관	507
원유관	551
유건	555
이엄	564
익선관	565
입(갓)	42
장옷	582
적관	591
전립	599
전모	601
절풍(변형모)	298
정동벌립	605
정자관	606
조바위	618
조우관	622
족두리	624
주립	626
중산모	631
중절모	632
책	650
처네(천의)	653
천의	653
초립	660
총정관	669
치포관	674
탕건	683
털범것	686
통천관	688
패랭이	696
평천관(면류관)	220
풍댕이(풍차)	708
풍차	708
호건	736
화관	747
휘양	757



견마기(겉마기)	63
겉마기	63
과두	82
까치저고리(색동저고리)	457
당의	164
동의대	194
등거리	202
배넛저고리	286
색동저고리	457
소고의	472
와이셔츠	537
유	554
장갑	575
저고리	588
적삼	592
조끼	616
최의	662
토시	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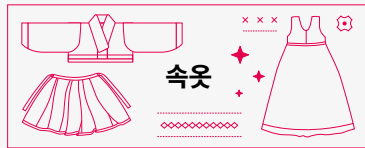


개구멍바지(풍차바지)	709
거들치마	55
고	66
두렁치마	198
말군	211
몸뻐	254
바지	275
붕지	309
상	443
스란치마	485
어깨허리(조끼허리)	617
자락치마	568
잠방이	575
전행웃치마	603
조끼허리	617
최상	661
치마	671
통치마	689
풍차바지	709
행전	728
행주치마	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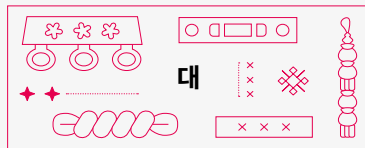


가사	21
강사포	46
곤룡포	73
괘자(괘자)	676
까치두루마기	120
난삼	125
단령	151
단삼	158
담복	161
답호	162
대삼	173
대창의(창의)	648
더그레	181
도롱이	182
도포	186
동다리	192
동달이(동다리)	192
두루마기	199
마고자	208
몽두리	255
몽두의(몽두리)	255
반비	279
배자	290
사규삼	436
소창의	474
심의	496
액주름포	505
앵삼(난삼)	125
염의	532
오방장두루마기(까치두루마기)	120
외투	539
원삼	549
장삼	577
적의	593
전복	602
주의(두루마기)	199
중단	630
중치막	634
직령	635
창의	648
천담복(담복)	161
철릭	657
철리(철릭)	657

괘자	676
포	701
학창의	715
활옷	751



개집	54
고의	71
고쟁이	72
기저귀	115
다리속곳	148
단속곳	159
대숨치마	174
대자	176
메리야스	219
무지기치마	262
속옷	475
속적삼	476
속치마	477
팬티	697
한삼	721



과대	81
대	167
대구	169
돌띠	188
세조대	469
야자대	506
옥대	534
요질	541
전대	598
혁대	731



가족버선	24

감발	35
고무신	69
구두	98
금동신발	110
나막신	122
노파리	138
녹피혜	139
당혜	166
동구니신(역신)	220
역신	220
목화	252
미투리	271
버선	295
석	464
설피	468
신발	491
양말	509
오목버선(타래버선)	679
운동화	544
운혜	545
유혜	557
장화	583
정	604
짚신	643
타래버선	679
태사혜	684
투혜	691
혜	733
화	745
흑피화	762



고이댕기	71
관자	88
귀고리	106
규	109
넥타이	134
노리개	135
다회	148
댕기	179
도투락댕기	184
동곳	191
뒤꽂이	201
떠구지	204
떨잠	206
말뚝댕기	213

목걸이	247
목도리	250
목판댕기	251
반지	280
방심곡령	285
배씨댕기	289
보(홍배)	758
비녀	311
사선	439
시계	488
안경	502
안경집	503
애체(안경)	502
어사화	518
잠	573
장도	576
장신구	579
제비부리댕기	615
주머니	627
첩지	658
큰댕기(도투락댕기)	184
팔찌	693
패옥	696
폐슬	700
포선	705
하피	713
항갑	730
홀	742
후수	756
홍배	758



가체	25
건곶	57
괘계	105
단발머리	157
대수	173
땃은머리	203
상투	453
새양머리	456
생머리(새양머리)	456
쌍계	498
어여머리	519
엷은머리	520
쪽머리	647
챙머리	651

첩지머리	659
큰머리	678
파마머리	692
하이칼라머리	711



경대	58
동동구리무	193
박가분	277
빋	313
연지	526
화장법	749
화장재료	750



구군복	96
개신교복	52
경찰복	61
계례복	65
공복	78
관례복	86
교복	92
궁녀복	103
기녀복	112
농악복식	139
돌복	189
면복	222
무복	259
문관대례복	263
백일옷	294
상복(喪服)	447
상복(常服)	450
수의	479
승복	486
시복	490
신식군복	493
양복	510
양장	514
연미복	525
원불교복	547
웨딩드레스	552

응복	558
제복(制服)	608
제복(祭服)	611
조복	619
잠녀옷(해녀복)	724
천주교복	655
탈춤복식	680
편복	698
해녀복	724
혼례복	739



가죽	23
갑사	37
계	65
고단	68
고사	70
공단	77
관사	87
광목	89
광사	90
국사	101
나사	123
나일론	124
노방주	137
뉴동	143
능	143
능목면	144
단	150
당향라	166
라	207
레이온	208
면주	227
명주	228
모단	230
모본단	236
모슬린	236
모시	237
모직물	246
목공단	249
무명	257
벨벳	297
사	432
산동주	440
삼베	440
삼팔주	442

생고사	461
서양사	463
수화주	483
숙고사	484
옥사	535
옥양목	536
왜사	538
왜증	539
용	558
은조사	559
인견	566
자미사	569
전	597
주	625
주사	629
직물	638
진주사	642
토주	688
팔사단	693
포플린	705
폴리에스테르	706
플란넬	710
하부다이	711
한랭사	716
합사주	723
항라	723
호박단	737



감물	34
개오기	53
괴화	91
교힐	96
꼭두서니	121
날염	127
남전	131
납힐	132
닭의장풀	160
도토리	184
마전	211
매염	216
먹물	218
명반	228
물푸레나무	269
반물	278
방염	286

백반	293
석회	465
선매염	466
선염	466
소방목	473
염색	527
오매	532
오미자	533
오배자	534
우뎃기	543
울금	546
인염	567
자초	572
잣물	587
쪽	645
치자	673
침염	675
콩즙	676
협힐	732
홍화	743
황련	754
황벽	754
회염	755



곤충무늬	76
과실무늬	83
기하무늬	116
길짐승무늬	118
날짐승무늬	128
동자무늬	194
모란무늬	234
문자무늬	267
보배무늬	300
봉황무늬	309
사계절꽃무늬	433
사군자무늬	434
연꽃무늬	523
용무늬	541
자연산수무늬	570



간단복	27
갈무리	30
갈옷	32
갑신의제개혁	39
갑오의제개혁	40
개량복	49
개량한복	51
경사	60
국민복	100
날실(경사)	60
다듬이질	145
다리미질	147
단발령	155
대한제국의제개혁	177
모던걸	230
모던보이	233
문관복장규칙	265
미용실	270
바느질	272
백의	293
복식금제	305
상장	452
색복장려운동	459
생활한복	462
설빔	467
세탁	470
씨실(위사)	553
양복점	513
양태	517
위사	553
을미의제개혁	560
이발소	563
재봉	585
추석빔	664
출토복식	665
포목점	703
풀먹이기	706
푸새(풀먹이기)	706
한복	717

가리마

정의 부녀자들이 쓰는 납작한 책갑 형태의 머리쓰개.

내용 가리마는 검은색이나 자색 비단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접어 그 사이에 종이를 두텁게 넣어 납작하게 만들어 책갑(冊匣) 모양으로 생긴 쓰개이다. 명칭의 표기가 다양하여 궁중발기류와 <한양가>에 ‘가리마’, 진주 하씨 묘 출토 17세기 인간의 ‘ㄱ리매’ 등 한글 기록이 있다. 한자 표기로는 『정조실록(正祖實錄)』에는 ‘加里耳’, 『순화궁가례시절차(順和宮嘉禮時節次)』에는 ‘加里馬’, 진찬의궤류에 ‘加里麻’로 기록되었다. 이외에 같은 모양을 뜻하는 이칭으로 『국조속오례의서(國朝續五禮儀序例)』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는 두수(頭簪)가 나온다. 『상방정례(尙方定例)』에서는 수파(首把)라 하였고,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는 머리 위 앞가르마를 덮는다는 뜻으로 차액(遮額)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왕실 여성을 비롯하여 양반가 부인과 기녀들이 애용하다가 18세기 이후에는 의녀(醫女)나 기녀(妓女), 침선비(針線婢)와 같은 낮은 신분의 여성들만 사용하게 되었다.

영조 대의 『국조속오례의서(國朝續五禮儀序例)』 흉례(凶禮) 상복조(喪服條)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습(襲), 성복조(成服條)에는 왕비의 수의용 머리쓰개로 마련한 ‘두수’에 대한 설명과 도설 기록이 있는데, “겉은 모단(冒緞)을 안에는 자색 토주(紫土紬)를 사용한다. 길이는 포백척(布帛尺)으로 1척 3촌이고 너비는 7촌이다. 앞으로 3촌을 접어 내려서 1척으로 만들고, 귀통이 양끝 1촌 5분을 사선으로 접어 넣어 양끝을 꿰맨다. 별도의 1푼 너비의 모단(冒緞) 끈을 단다.”라고 설명하여 책갑 형태의 가리마가 연상되며 두수 도설은 가리마와 같은 모양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왕비의 머리쓰개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왕가 여성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가 여성도 특별한 날에는 가리마를 하였다. 진주 하씨의 묘에서 출토된 17세기 편지글 중에 남편 곽주가 부인 하씨에게 형님이 하씨를 보러 가시니 머리를 꾸미고 ‘ㄱ리매’ 즉 가리마를 써서 손님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로 보아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보다는 좀 더 예의를 갖출 때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기녀나 내인들이 애용하였는데, 『정



신윤복 | 청금상련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조실록』 1788년(정조 12) 10월 3일 기록에 따르면, 각 궁방(宮房)의 무수리(水賜里)·내의녀(內醫女)·침선비와 각 영창과 읍(邑)의 기녀들은 머리를 땅아 위에 얹고 그 위에 가리마를 착용하되, 내의녀는 모단, 그 외에는 검은 삼승포(三升布)를 사용하게 하였다. 『임하필기(林下筆記)』 문헌지장편에서 “우리나라 부인은 검은색이나 자주색 비단은 폭 2자 2치를 가운데에서 접어 두 겹으로 하고, 안에 두꺼운 종이를 넣는다. 이것을 이마에서 정수리를 덮고 뒤에 드리워 어깨를 덮는데, 이를 차액(遮額)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설명에서 가리마의 형태와 착장 모습이 연상된다.

가리마는 출토유물로 조선 전기부터 이용하였음을 확인하는데, 대표적인 유물로는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파평 윤씨 묘와, 수원박물관 소장 안산 이씨 묘에서 출토된 가리마가 있다. 모두 16세기 양반가 여성의 것으로 아청색 공단 또는 화문단을 겹으로 하여 사이에 두텁게 종이심을 넣어 만든 직사각형이며 안쪽에는 풀솜으로 짠 솜을 부착하였다. 크기는 조선 후기의 기록보다는 작은 편이다. 이런 모양은 16세기 후기의 <기영회도(耆英會圖)>에서 기녀가 머리에 쓴 가리마에서 착장법을 연상할 수 있다.

반면 조선 후기의 가리마로는 문헌 기록은 있으나 실제 유물은 전해지지 않는다. 대신 그림 자료에서 착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크기는 조선 전기보다 큰 편이다. 대표적으로 역대 진찬의궤(進饌儀軌)류의 도설과 기록에 있는 상궁들이 썼던 머리쓰개인 ‘加里麻’와 18세

기 후반의 신윤복申潤福의 <청금상련聽琴賞蓮> 등에서 가리마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가리마는 검은 비단이나 혹은 자색 비단의 전폭全幅을 반으로 접고 그 사이에 두꺼운 종이를 넣어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마에서 머리를 덮어 착용하는 납작한 책갑 형태의 여성용 쓰개이다. 조선 전기에는 가리마가 이마와 머리를 덮는 정도의 크기이며, 조선 후기에는 머리 위에서부터 목뒤까지 늘어지는 형태로 후대로 가면서 크기가 커졌다. 착용법에도 차이가 있어 조선 전기에는 가리마를 머리에 엮고 머리카락을 둘러 고정하였던 것이 조선 후기에는 가리마 앞의 좌우에 달린 끈으로 머리 뒷부분에 고정하였다. 조선시대에 왕실 여성을 비롯하여 양반가 부인과 기녀들이 애용하였던 것이 18세기 이후 낮은 신분의 여성들만 사용하게 되었으며 조선 말기 이후 점차 사라졌다.

참고문헌 國朝喪禮補編, 國朝續五禮儀序例, 尙方定例, 林下筆記, 17세기 전기 현풍 곽씨 집안의 의생활에 대한 소고(이은주, 복식51-8, 한국복식학회, 2001), 기영회도에 나타난 16세기 조선시대 복식에 관한 연구(최지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정미가례시일기 주해(황문환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0),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양가(강명관, 신구문화사, 2008).

필자 이명은(李明恩)

가사

架紗

정의 승려들이 의식을 행할 때 장삼 위에 입는 옷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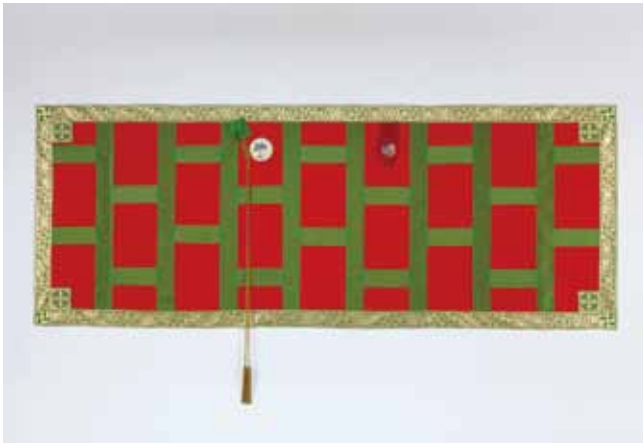
역사 가사는 승려복식 중 가장 상징적인 법복法服이다. 기원전 500년경 인도 카필라국의 태자 고타마 싯다르타가 출가할 당시 입고 있던 부드럽고 윤기 나는 비단 옷을 사냥꾼의 거칠고 다 해진 옷인 카사야kasaya와 바꿔 입은 것에서 유래되었다. 인도에서 가사는 하나의 긴 천을 둘러 입는 형태였지만 중국은 인도와 기후 조건이 다르고, 유교가 먼저 대중화된 중국의 문화적 특수성 탓에 인도에서처럼 맨살을 드러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중국 내의 주류 종교였던 유교와 도교의 신봉자들이 보기에는 불

교가 낮은 종교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형상 눈에 띄는 승려들의 복식服飾부터 중국화해야 했다. 그래서 당시의 일반적인 중국 복제服制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가사는 겉옷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착장구를 만들고 외형을 간단하게 하면서 직물과 색채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국화된 가사는 중국의 포교승과 한국의 유학승에 의한 불교의 전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국내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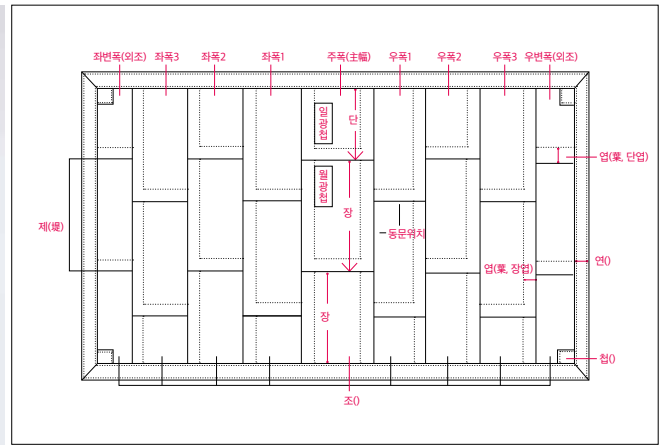
내용 가사에 사용된 직물은 누더기인 분소의糞掃衣로 소가 씹은 옷, 쥐가 잡아 먹은 옷, 타서 눌은 옷, 월경이 묻은 옷, 출산으로 더러워진 산부의 옷, 사당에 버린 옷, 새가 물어 가거나 바람에 날려 주인이 없는 옷, 신불에게 발원을 하고 버린 옷, 직책이 바뀌어 이전의 직의職衣가 쓸모없어서 버린 옷, 관에 걸쳤던 옷 등 열 종류이다.



서산대사 진영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가사 | 2016 | 박춘화



9조 가사 전개도 및 명칭

가사

그 당시 불교 수행자는 일체의 욕심을 버리는 방편으로 분소의를 선택함으로써 부끄러움 없는 수행자의 자세를 견지하고자 했다. 가사의 색채는 오정색五正色인 청靑·황黃·적赤·백白·흑黑을 피하고 색을 무너뜨린 괴색壞色을 사용하였으며, 동아시아 지역으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였다. 가사의 형태는 할절의 割截衣에서 전상의田相衣 형태로 발전했다. 할절의는 분소의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새 옷이 아닌 헌 옷을 주워 착용했기 때문에 낡고 조각난 옷을 꿰매어 입음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전상의는 불교 교단이 커지고 분소의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시주물施主物로 대체되면서 논밭의 형태를 본 따 만든 가사형태를 말한다. 가사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그림은 9조 가사 전개도 및 명칭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條는 세로로 이어 붙인 천을 말하며 규격을 상징한다. 하나의 조에는 긴 부분의 장조長條와 짧은 부분의 단조短條가 있다. 제堤는 가로로 선을 말하며, 엽葉은 조와 조 사이에, 제와 제 사이에 있는 부분을 말한다. 장엽長葉은 세로의 엽이고, 단엽短葉은 가로의 엽을 말한다. 폭幅·福은 가사를 정면에서 볼 때 중앙에 위치한 조를 주폭主幅·主福, 왼쪽의 조를 좌폭左幅·左福, 오른쪽의 조를 우폭右幅·右福이라 한다. 주폭에서 가까운 쪽부터 좌폭1, 우폭1의 순서이며 가장자리 조는 좌변폭左邊幅·左邊福·우변폭右邊幅·右邊福이라 한다. 폭幅과 복福은 같은 의미로, 가사를 ‘복밭’이라고 한 데서 연유하였으며, 각각의 조각을 ‘복전福田’이라고도 한다. 연緣은 가사의 가장자리에 천을 붙인 것을 말하며, 첩貼은

가사에 덧붙이는 장식물인데 일월광日月光이 수놓인 일월광첩日月光貼과 천왕이 수놓인 사천왕첩四天王貼이 있다. 통문通門은 통문불通門佛이라고도 하는데, ‘부처가 다니는 길’이라는 뜻이며, 통문에 자리한 불·보살이 진리로 통할 수 있도록 문門의 역할이 되어 준다는 의미도 있다. 가사의 여밈 형태는 빗장장식, 세 쌍·두 쌍·한 쌍의 끈, 연봉매듭을 사용했다. 가사의 종류에는 금란가사金欄袈裟, 산수납가사山水納袈裟, 마납가사磨納袈裟, 출수납가사出水納袈裟, 자황첨상복전가사紫黃貼相福田袈裟, 수가사繡袈裟, 첩상가사貼相袈裟, 낙자絡子, 구품가사九品袈裟, 만의縵衣가 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 초기까지의 가사는 바탕색과 다른 색채를 엽葉 부분에 사용하여 만든 첩상가사가 주를 이루었으나, 조선 중기 이후 가사의 바탕직물과 엽을 같은 직물로 사용한 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선 후기에 홍색(색채), 견(직물), 일월광첩의 부착 위치, 사천왕첩 등 한국적인 가사의 주요 구성체계가 정립되었다. 불교에서 해의 상징은 일광보살, 달의 상징은 월광보살로 표현되며, 불화에서 약사여래藥師如來의 협시보살挾侍菩薩로 표현된다. 가사에는 일광·월광을 상징하는 해와 달을 수놓아 부착했다. 이러한 상징물이 문양화되어 가사에 나타나게 된 배경은 가사가 신앙의 대상이 됨으로써 신격의 상징물을 부착하여 가사를 신성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월광첩의 부착 위치를 보면 고려시대에는 주폭을 중심으로 좌우에 위치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주폭의 좌

측에 부착되었다. 이는 가사의 조수와 상관없이 가사를 착용했을 때 일월광첩의 위치가 왼쪽 어깨 밑으로 나란히 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부착 위치와 수織의 구성은 우리나라 홍가사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전해오고 있다.

참고문헌 가산불교대사람1(이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8), 국역 고려도경(민족문화추진회, 경인문화사, 1978), 돈황석굴에 표현된 가사의 양식적 특성(강선정, 아시아민족조형학보11, 아시아민족조형학회, 2012), 불교학대사전(홍법원 편집부, 홍법원, 1994), 조선중기 이후 가사의 유형과 변천(강선정,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홍가사(한국불교 태고종 종단사간행위원회, 중도, 2009).

필자 강선정(姜先貞)

가죽

정의 동물의 피부를 벗겨 내어 가공한 복식 소재의 한 종류.

내용 의복 재료로서의 가죽은 크게 ‘날가죽’과 날가죽에서 털을 제거하고 무두질한 가죽을 총칭한 ‘피혁皮革’,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무두질한 ‘모피毛皮’로 나눈다. 우리 민족은 북방 기마민족 시절 북방 호복 계통의 의복을 착용하였으며 기마·유목·수렵 생활을 통해 얻은 가죽을 사용해 만든 간단한 형태의 가죽 의복을 착용해 왔다. 가죽옷은 농경 생활을 시작하고 직물이 발달하면서 점점 쇠퇴하였고, 의복 외 다양한 복식 소품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모전毛典, 피전皮典 등 동물의 털가죽을 다루는 전문 기관이 있었으며, 『이계집耳溪集』에 적구피赤狗皮를 여름이나 겨울에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함경도와 제주도에서는 개가죽으로 만든 옷 유물이 발견된 바 있어 두 지역에서 개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착용하는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 기록을 보면 모의장毛衣匠, 모관장毛冠匠 등을 두어 털옷과 모피로 만든 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신하들에게 하사했으며, 당상관堂上官에게는 겹감은 단緞, 안은 초피貂皮(담비 가죽)로 만든 이엄耳掩을, 당하관堂下官에게는 겹감은 초緞, 안은

서피犀皮(무소 가죽)로 만든 이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사서인士庶人은 이조차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으므로 초피가 가장 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조선 명종 대에 당하관 및 사족은 이엄을 서피·왜산달피倭山獺皮(검은담비 가죽)로 만들게 하고, 제학관원諸學官員·군사軍士·서얼庶孽·이서吏胥는 적호피赤狐皮·향산달피鄉山獺皮로, 공장工商·천례賤隸는 산양피山羊皮·구피狗皮·묘피猫皮·지달피地獺皮·이피狸皮·토피兎皮로, 특히 천여인賤女人의 모관毛冠·차수遮首도 재료를 공장천예의 경우와 같게 하여 신분에 따라 사용 가능한 가죽을 상세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명종실록 권15 명종 8년 9월).

지역사례 모피 및 피혁류 복식은 특히 제주 지역에서 발달했다. 목자牧者의 겉옷인 긴 포 형태의 가죽옷은 모피로 제작되었으며, 가죽감태·가죽버선·가죽신·가죽발레·가죽주머니 등은 주로 털이 제거된 피혁 상태로 제작되었다. 제주 지역의 모피·피혁류 복식은 중산간 지역의 목자들이 1900년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착용했으며, 현재 제주 소재 박물관에는 노루·오소리·개·소·말 등으로 제작한 다양한 모피·피혁류 복식이 보존되고 있다. 가죽옷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 말을 키우는 목자·사냥꾼·화전민 등이 주로 착용했으며, 주로 소재는 개나 소가죽을 사용하여 장례를 치르러 갈 때 방한용이나 눈비가 올 때 방수용으로도 착용했다. 특히 개가죽 옷은 가슴과 등 부분에 모질이 좋은 개가죽을 사용했다. 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가죽감태는 겨울 중산간 지역의 추위로부터 뒷목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 앞보다 뒤를 길게 제작했으며, 가죽이 얇고 가벼우며 보온성 및 방수성이 좋은 오소리, 노루 등을 주로 사용했다. 가죽신은 짚신과 같은 형태인데 가죽의 털을 모두 제거한 가죽으로 제작했고, 가죽버선에 비해 귀해서 아무나 신지 못해 부유층에서만 사용했다. 이에 비해 비교적 흔한 가죽버선은 버선과 같은 형태로 만들며 주로 겨울에 농사일을 할 때, 한라산에 소나 말을 돌보러 갈 때 신었다. 이를 제작할 때 의복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소가죽 등의 털을 모두 제거하고, 바닥 부분에 코걸이 기법으로 가죽을 바느질해 연결하면 살이

닿는 부분이 불편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죽발레는 바짓가랑이만 있는 바지로, 몽골 지역에서 말을 탈 때 추위로부터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투고套袴와 형태가 유사하다. 이는 중산간 지역에 다니는 소나 말을 돌보는 목자 또는 사냥하는 사람들이 가시덩굴 속을 다닐 때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루가죽·개가죽·소가죽 등으로 만들어 착용한 것이다. 실제로 가죽발레는 1702년(숙종 28) 때 제작된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에서 <공마봉진貢馬封進>, <산장구마山場驅馬>, <별방조점別房操點>, <명월조점明月操點> 등에서 목자들이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특징 및 의의 귀한 신분의 경우 모직물과 마찬가지로 가죽 의복은 방한용의 갖저고리·배자·두식·족식 외에는 흔히 사용되지 않았으며, 군인의 갑옷인 피갑皮甲, 목자의 가죽옷·가죽감태·가죽버선·가죽신 등의 소재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耳溪集, 朝鮮王朝實錄,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연구(고순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中國織繡服飾全集5(中國織繡服飾全集編輯委員會, 天津人民美術出版社, 2005).

필자 장현주(張賢珠)

가죽버선

정의 제주도 지역 목자牧者들이 방목放牧한 목축을 돌볼 때 신었던 목이 긴 버선 꼴의 가죽신.

역사 수렵 생활을 했던 고대古代 사람들에게 가죽은 옷으로, 살은 먹을거리로 삼는 ‘피의육식皮衣肉食’은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 사항이다. 『신당서新唐書』에도 “탐라인儋羅, 耽羅人은 의견시피衣犬豕皮한다.”라고 하였는데, 옷을 개나 돼지가죽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 사람들이 가죽옷을 입은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증거이다. 제주에서 피혁皮革 제품이 많이 쓰였던 것은 목초지대로 알맞은 한라산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목축牧畜정책과 관련이 깊다. 1273년(원종 14)에 원元나라가 제주를



가죽버선 | 길이 28 너비 30 | 근대 | 제주대학교박물관

점거한 후 목마장牧馬場을 설치하고 몽골말[蒙古馬]을 들여와 다루가치達魯花赤에게 관할하게 하면서 더욱 발달하였다. 제주에서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이용한 의관류衣冠類 및 생활용구를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것은 목자들에게 산이나 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특히 추운 겨울 방한모자나 신 등 피복被服이 필요했고, 아울러 그 재료를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멜표류기』(1668)에 당시 제주 목사牧使 이원진李元鎭이 “표류인漂流人들에게 신 두 켤레와 두툼한 겹옷 한 벌, 가죽보선 한 켤레씩을 주었다.”라는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에도 이용되었음이 입증된다.

피혁 제품 중에서도 만들기 쉬운 것들은 자급자족 하였으나, 특수 기술이 필요한 ‘가죽보선’이나 ‘가죽신’ 등은 주로 전문 기술자들에 의해 완성되었다.

내용 ‘가죽버선’이라 함은 ‘재료가 가죽[皮]이고, 생김새가 버선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반용 다른 신류(화靴·혜鞋·리履)의 틀(구조構造)은 발목·발등·바닥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가죽버선은 옷감으로 만든 버선처럼 바닥 부분이 따로 없고, 좌우左右 두 조각을 맞대어 꿰맨 것이 특징이다.

재료와 길이는 남아 있는 유물遺物을 보면 조금씩 다르다. 주재료는 가죽인데 대부분 구하기 쉬운 개가죽이다. 가장 좋은 것은 노루 가죽이고, 다음으로 어린 말, 즉 망아지 가죽인데 부드럽고 윤이 나서 곱다. 재료를

가죽으로만 한 것과, 가죽과 옷감(목면木棉)을 혼용하되 발목 아래는 가죽인데 위는 면櫛을 댄 것도 있다. 길이는 버선처럼 발목 위까지 올라온 긴 것(장화長靴)과, 조금 짧은 것(단화短靴)이 있다.

가죽버선을 만들려면 가죽다루기가 가장 중요하다. 가죽에 소금을 치고 부드럽게 펴 가며 손을 본 다음, 가죽 위에 버선본을 떠서 송곳으로 촘촘하게 구멍을 뚫는다. 바느질은 버선본대로 마름질한 좌우 양쪽을 맞춘 다음 가늘고 길게 오린 가죽·침·마·면으로 마련된 끈으로 겉에서 바느질로 꿰맸다. 발목에는 긴 ‘가죽 끈’을 달았다. 이 끈은 신바닥이 판판하지 않은데다가 목이 버선처럼 길고, 또 뒤축이나 바닥에 따로 버팀목이 없는 가죽버선이 험한 곳을 걷다 보면 벗겨지기 쉽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전통시대에는 짚신처럼 가죽을 가늘게 오려 만든 ‘감실신’을 신었고, 후에는 자동차 타이어 낡은 것이나, 폐棄처리 된 고무로 만든 짚신 꼴의 ‘국시신’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한편 바닥이 판판하지 않기 때문에 눈 쌓인 곳에 갈 때는 더 안전하고 편한 ‘태왁(설피)’을 덧신었다. 발에 신을 때는 먼저 기름을 고르게 바르는데 이는 가죽이기 때문에 쓰지 않고 두면 굳어서 뻣뻣해지므로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이며, 주로 ‘돼지기름’을 썼다. 신지 않을 때는 ‘죤’이 쓸지 않도록 아궁이 벽에 매달아 두고 연기를 쏘였다.

특징 및 의의 겨울철 제주 목자들은 외출할 때 가죽버선과 더불어 머리에 ‘가죽감티’(목덜미를 가리는 털모자)를 쓰고, 몸에 ‘가죽두루마기’를 입고, 종아리에 ‘가죽발레’를 찼다. 김승의 가죽이나 모피를 이용한 방한용 피복류는 제주에서 많이 입었으며, 남아있는 유물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특히 털모자나 가죽옷의 모피 처리가 북방北方의 만주나 몽골 것은 털이 안으로 사용된 것이 보통이지만, 제주 것은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참고문헌 제주도 복식의 민속학적 연구(고부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제주도 의생활의 민속학적 연구(고부자,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7-의생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필자 고부자(高富子)

정의 별도의 머리카락이나 여러가지 재료로 만든 장식을 덧붙여 얹어 고정한 머리채 모양의 장식.

개관 가체加髻는 그 연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오래된 수식首飾이다. 중국의 『당서唐書』 동이전東夷傳에는 신라의 여인들이 “미발美髮을 머리에 감고[繒首] 주채珠釵로 장식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723년(성덕왕 22) 신라가 당나라로 보낸 예물 목록에서 수식용首飾用 머리카락 ‘미체美髻’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이후 869년(경문왕 9)에는 4척 5촌 길이의 두발 150냥과 3척 5촌 길이의 두발 300냥을 역시 당나라로 보내면서 그 용도를 머리 꾸밈으로 명시했다.

조선 후기 이익李瀾이 쓴 『성호사설星湖僞說』 「만물문萬物文」에는 “신라, 백제, 고구려 때 가발을 만들어 머리에 둘렀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동국부녀수식변증설東國婦女首飾辨證說에는 “신라 부인들이 아름다운 가발을 머리에 감았다.”라는 기록을 통해 가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과 이규경이 가체를 중국은나라의 유제遺制로 본 것과 달리 1756년(영조 32)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고려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몽골의 제도”라고 기록되었으며,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를 쓴 이덕무李德懋 역시 “다리를 땅아 머리 위에 얹는 것은 몽골 사람들이 남긴 풍습”이라고 설명했다.

내용 머리채를 꾸미기 위해 덧붙이는 별도의 머리카락은 체髻, 수체首髻, 체발髻髮, 월자月子, 다리, 다래, 달비 등으로 불리며, 이를 통칭하여 가짜 머리카락, 즉 가체假髻라 한다. 조선 중기 이후 가체는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하는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신분이나 계급의 구분 없이 많은 양의 다리를 사용해 장식하는 풍습이 확산되면서 잘라 파는 머리카락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그 위에 장신구를 덧붙이는 사치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부녀자들의 가체 사용이 금지된 것은 1756년(영조 32) 1월의 일이다. 당시 『조선왕조실록』에는 “사대 부가의 사치가 날로 성하여, 부인이 한 번 가체를 하는데 몇백 금을 썼다. 갈수록 서로 자랑하여 높고 큰 것을 숭상하기에 힘썼기 때문”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때 영조는 부녀자의 머리 모양을 바꾸어 가체 사용을 막고 족두리로 대신하게 했다. 하지만 1763년(영조 39) 11월에 다리 대신 사용한 족두리를 보석으로 꾸미면 가체에 드는 비용과 다를 바 없다 하여 족두리를 폐하고 머리 모양을 본래대로 되돌렸다. 이후 1788년(정조 12) 10월에 비변사(備邊司)에서 가체신금절목加髻申禁節目을 올려 가체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려 했으나 풍속이 바로잡히지 않아 조정의 논의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가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혼인을 미루고 혼인을 한 후에도 시부모 뵈는 현구고례(見舅姑禮)를 치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가체는 사치를 부추기고 인륜을 폐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당시의 가체 사치에 대해 이덕무는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부유한 가정에서는 머리 단장에 돈을 7~8만 냥이나 소비한다고 하는데, 다리를 널찍하게 서리고 옆으로 빙빙 돌려서 한쪽으로 기우뚱한 머리채를 만들고는 웅황판(雄黃板)이나 옥으로 만든 비녀 등으로 꾸며 그 무게가 거의 힘으로 지탱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가장은 이를 금하지 못하여 부녀자들은 더욱 사치를 하고 그 머리가 남의 것보다 작을까 걱정한다.”라고 기록했으며, “한 부잣집에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나이가 겨우 13세였다. 그는 다리를 얼마나 높고 무겁게 하였던지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므로 갑자기 일어서다가 다리에 눌러서 그만 목뼈가 부러졌다. 이렇듯 사치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사치스러운 가체와 그로부터 야기된 부작용을 비판했다. 이익 또한 “지금 풍속은 반드시 남의 머리털을 취하는데, 남자 것인지 여자 것인지도 가리지 않고 부인들이 장식품을 만드니 이는 아주 불가한 짓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규수(朴珪壽) 역시 『거가잡복고(居家雜服考)』에 “남의 머리털을 훼손시켜 자신을 꾸미는 것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에게는 그 부모가 물려준 몸을 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가체 | 가로 12 세로 14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미인도 | 조선 후기 | 해남 윤씨 종가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가하는 것이어서 인서(仁恕)를 둘 다 상하게 하는 도리”라는 점을 들어 가체의 폐단을 지적했다.

특징 및 의미 인모(人毛) 가체는 한 사람의 머리카락 일부를 잘라 묶거나 여러 사람의 것을 모아서 만들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윗부분을 모아 묶은 뒤에 옷감으로 감싸거나 꿰매어 고정했는데, 다리의 크기는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길이가 20~30cm 내외로 짧은 것부터 두께가 5~6cm, 길이가 1m 내외에 이르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다리는 머리카락을 모아 전체를 하나로 땀은 것, 머리카락을 잘라 윗부분만 묶은 것, 궁중

장신구 첩지 고정용으로 붙인 것, 땅아서 쪽진 모양으로 만든 것 등이 있으며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제작했다.

다리를 이용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이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땅으면서 손가락 굽기의 다리를 반복적으로 넣어 길이와 부피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런 모습은 신윤복의 그림 <계변가화溪邊佳話>에 잘 나타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예 땅거나 쪽진 모양으로 만든 가체를 자신의 머리카락 위에 얹거나 덧붙여 고정하는 것이다. 이런 가체는 끝부분을 20~30cm쯤 남기고 자주 색이나 검은색의 가느다란 땀기를 넣어 함께 땅은 뒤에 모양을 정리한다. 다리에 땀기를 넣어 땅으면 짧은 머리카락이 가장자리로 튀어나와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끝부분에 머리카락이 몽툰하게 남지 않아 본래의 머리채에 붙여 마무리하기가 쉽다. 1788년(정조 12) 가채신금절목이 시행된 이후에는 머리카락 대신 나무로 만든 띠구지나 머리카락과 옷감을 엮어 만든 다리가 사용되기도 했다.

참고문헌 居家雜服考, 士小節,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靑莊館全書, 선비와 피어싱(조희진, 동아사이, 2003),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조희진(趙熙眞)

간단복 簡單服

정의 일제강점기에 착용했던 간편한 부인복 또는 아동복이나 간편하게 입는 복식 일반.

내용 간단복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여름에만 입는, 간편한 원피스로 된 부인복”이다. 일본어로는 ‘簡單服’·‘アッパッパ’로 표기되었다. 1930년대 말 일제가 전시체제에 들어서자 이전에 착용되었던 다양한 양장은 사라지고, 간단복이 일반 여성에게 권장 또는 강요되었다. 간단복은 거추장스러운 장식이 없으며 몸에 꼭 끼지 않고 활동성이 좋아 여름에 입기 편한 옷이었다. 간단복 착용을 지시하며 남자에게는 국민복을, 여자에게는 몸빼를 입혔다는 기록이 있지만, 간

단복이나 몸빼를 ‘밀리터리 룩’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간단복을 전시에 착용해야만 했던 검소한 복식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간단복’이라는 말은 『동아일보』 1933년 5월 31일에 처음 등장하였다. 동아일보 학예부에서 주최하는 재봉 강습에 관한 내용 중 ‘가정부인의 간단복’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를 통해 여성복식에 사용된 단어였음을 알 수 있고, ‘가정부인’이라고 한정된 데서 기혼 여성 복식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 운동복, 와이셔츠 등과 함께 간략하게 표현된 것을 볼 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간단복이라는 개념이 특정 복식을 칭하는 명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에는 경기도청에서 ‘여자 간이복’을 제작하여 ‘여자 국민복’으로 정식 승인을 얻었다는 내용이 있다. 허리에 띠가 있는 작업 본위의 것이라고 하는데, 전시에 입어야 했던 국민복과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간단복의 의미는 좁게보면 1930년대 말부터 전시에 일제가 강제하였던 단순한 형태의 여성 원피스이고, 넓게는 1930년대 이후에 착용된 단순한 형태의 서양식 의복으로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착용했던 것이다.

간단복을 대개 여름에 착용한 복식으로 이해하는데, 양재봉강습회洋裁縫講習會에서 춘추부인春秋婦人 간단복 제작 과정이 있던 것으로 보아 여름용 복식으로만 한정할 수 없고 봄, 여름, 가을 모두 간단복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간단복 형태는 허리에 벨트가 달리고 양 옆에 포켓이 있는 원피스로 현재의 간호복과 비슷한 형태였다. 이것은 서구의 유틸리티utility 룩, 유틸리티 드레스와 형태가 유사하다. 이에 더하여 “동여 싸던 여자 의상도 일제가 들어오면서 한 겹 두 겹 벗어지기 시작했다…… 흰 적삼에 짧은 검정치마는 신여성의 상징이 되어오다간 간단복이라는 솜털이 영성한 병아리같이 훌렁훌렁한 옷이 양장의 시초로 나타났다.”라는 기사로 보아 간단복의 형태는 헐렁하고 편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 일제강점기 여성 간단복의 형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복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한 가지는 양장洋裝으로 상의와 치마가 허리에서 붙어 있는 앞트



여름철에 실용적인 간단한 부인복 | 1940. 7. 5 | 동아일보

임 원피스 형식이고, 칼라가 달려 있거나 달려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개 여름용이므로 소매는 반팔이고 허리에 허리띠가 착용되고 치마 길이는 무릎을 가리는 정도이다. 또 한 가지는 역시 양장인데 앞에 서술된 형태보다 훨씬 더 험렁한 형태로 허리띠가 없는 원피스형이다.

어린이 복식 중에도 간단복이 있다. 1937년 『동아일보』 기사에 20~30분 안에 제작할 수 있는 4~5세 어린이의 간단복 제작법을 소개하였고, 1938년, 1940년 길을 잃은 어린이를 찾아가라는 기사에 ‘다울지 간단복’, ‘푸른빛이 약간 섞인 간단복을 입고 검은 운동화를 신은’ 어린이들을 묘사한 것을 보면, 어린이도 간단복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동용 간단복의 형태는 다양하다. 밑이 막혀 있고 다리가 전부 드러나며 멜빵이 달려 등 뒤에는 모아지고 앞에서 벌어져 고정되어 있다. 상체 앞뒤를 가리는 것으로 주머니를 달기도 하였다. 겨드랑이가 터져 있고 멜빵 끝에 단추를 달아서 멜빵을 고정했다 풀었다 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여름용 원피스형도 있다. 일본 자료에는 어린이용 간단복에 긴소매가 달린 활동이 편리한 원피스형도 있었다.

간단복의 소재는 ‘다울지, 강감, 포푸링’ 등인데, 일반적으로 구하기 쉽고 값도 비교적 저렴하였다. 간단복 제작은 각자 집에서 하기도 하였고, 기성복도 있었다.

광복 이후 1949년 서울시의 신생활대책회 의류분과위원회에서는 5월 27일 섬유 부족 등 제반 사정 때문에 의류 생활의 간소화를 꾀하고자 여름 남녀 복장

제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발표하여 각 산하 기관에 시달한 바 있다. 남자는 갑호상의甲號上衣에 노타이, 반팔, 하의는 긴바지 또는 을호상의乙號上衣에 노타이, 반팔, 하의는 반바지로 하였다. 여자 상의는 적삼으로 깃이 있는 것과 깃이 없는 것이 있고, 깃이 있는 것을 접어서 착용할 수 있으며 하의는 통치마이다. 여자 복식은 이소담 씨가 디자인하였다. 이 복식을 간이복 또는 간단복으로 서술하기도 하였는데, 1949년에 발표된 복식 중 여자 복식은 일제강점기의 간단복과는 다른 형태로 우리옷 적삼이 변형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간단복은 193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복식이다. 좁은 의미로는 일제강점기에 여성복 또는 어린이 복식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였다. 간이복의 의미로도 쓰이면서 넓은 의미로는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활동적인 복식 전체를 포함한다. 간단복이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후에 널리 쓰이지는 않았으나, 1949년 신생활대책을 위해 개발한 복식을 간이복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검소함과 활동성이 요구되는 복식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고 활동에 편리하게 제작되었다.

참고문헌 1920~1930년대 한국 여성 패션과 소비문화의 변화(김은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생활한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최경순·김선령, 한국의류산업학회지1-1, 한국의류산업학회, 1999), 한국여성양장변천사(유수경, 일지사, 1990), 현대패션 110년 1900~2010(금기숙 외, 교문사, 2012), 양재봉강습회(동아일보, 1934. 4. 1), 上田式家庭用兒童服自由裁断型(上田泰嗣, 1920).

필자 남경미(南瓊美)

갈모

정의 비를 피하거나 햇빛을 가리기 위해 갓 위에 덮어 쓰는 고깔 모양의 쓰개.

역사 갈모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갓의 사용은 조선 초기까지 소급할 수 있으며, 선조 때 이제신李濟臣(1536~1583)의 『청강선생후청쇄어淸江先生鯁鱗瑣語』에는 명종 때를 전후한 입제笠制의 설명 중에 우

모雨帽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 조선 중기에 이미 갈모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1504년(연산군 10) 6월에 갈모는 “갓 위에 덮어쓰는 우구雨具로서, 유지油紙로 만들며 원추형圓錐形이고 정점頂點으로부터 아래로 방사형放射形으로 많은 주름이 있어 접으면 쥐는 부채와 비슷한 모양이 된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현재 남아 있는 유물과 비교해도 그 형태가 변하지 않고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록에는 1478년(성종 9) 1월부터 1675년(숙종 1) 6월까지 갈모에 관한 기사가 10여 건이 나오고, 우모雨帽 용어도 우구雨具, 우의雨衣와 함께 1779년(정조 3)의 기사에 나온다. 갈모는 실록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에 팔아서 여비로 쓰는 용도(1478년 1월)로 썼다는 내용, 갈모의 형태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1604년 6월), 군사들에게 내리는 하사품[1510년(중종 5) 4월, 1537년(중종 32) 3월, 1541년(중종 36) 11월] 혹은 중국 사신 선물용[1609년(광해군 1) 5월]으로 사용하거나 무역품[1675년(숙종 1) 6월] 등으로 사용하는 기록이 나온다. 그 이후의 자료로는 1900년 초 사진이나 1930년대 그림에서 착용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 갈모의 원래 이름은 갓 위에 쓰는 갓모자[笠帽]이며, 비 올 때 써서 ‘우모雨帽’, 기름종이로 만들어서 ‘유모油帽’라고도 했다. 갈모의 모양은 펼치면 위가 뿔죽하여 고깔 모양이 되고, 접으면 절부채처럼 된다. 기름을 먹인 갈모지(환지) 또는 한지에 가는 대나무를 붙이고, 꼭대기에 닭 벼슬처럼 생긴 꼭지를 달아서 만들었다. 비가 올 때 우산처럼 펴서 갓 위에 덮어쓰고 실끈으로 턱에 매었는데,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유물에는 값비싼 갓끈 같은 것을 단 것도 있다. 갓 없이 쓸 때는 갈모테를 쓴 다음에 썼다. 갈모테는 유물에서 살펴보면 90도쯤 구부린 대오리에 다섯 개의 대오리살을 만들어 꼭대기에 모으고, 안에 형겅으로 틀어 만든 미사리를 달아 접었다 폈다 하는 것으로 갈모를 편 모양과 비슷하다.

현재 남아 있는 유물로 봤을 때 갈모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부채처럼 한쪽 방향으로



① 갈모와 갈모테 조선 후기



② 갈모 쓴 우체부

③ 갈모 쓴 노인

갈모 | ① 갈모 길이 38 | 국립민속박물관, ② 영월책박물관, ③ 국립민속박물관

만 접어서 만든 것과, 다른 하나는 맞주름치마처럼 두 개의 접은 주름이 서로 마주보게 접어서 만든 것이 있다. 재료는 종이에 기름을 먹여서 만들거나 완성한 이후에 기름을 먹이는 방법도 있다. 가늘게 쪼갠 대나무살은 접은 종이 사이사이에 하나씩 붙여 가며 만든다. 이후 종이를 한 장 더 발라서 대나무살은 보이지 않게 한다. 기름은 생들기름을 발라야 색도 잘 나오고 끈적거리지 않으며 종이에 기름이 잘 먹는다. 이는 1537년에 갈모를 만들 때는 들깨기름을 먹이라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지공예가 윤서형과 염색공예가 이병찬이 구슬한 갈모 만드는 방법(2017년 3월 조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지를 원형으로 재단한다.
2. 일정한 간격으로 종이를 접는다.
3. 얇게 손질한 대나무살을 한 칸에 한 개씩 한지의 선을 따라 붙인다.
4. 대나무살은 위아래의 간격을 맞추어 붙인다.
5. 대나무살 위에 한 장의 한지를 덧대어 붙인 후 도침을 한다.
6. 한지를 우산 형태로 접은 후 지승끈을 안쪽 면에 5cm 간격을 남기고 붙인다.
7. 갈모의 꼭지를 한지로 감싸고 지승끈으로 묶어 고정한다.
8. 한지가 비에 젖지 않도록 생들기름을 발라서 마감한다.

특징 및 의의 갈모는 원래 비 오는 날 갓을 보호하기 위하여 썼다고 하지만,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계절과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해가 내리쬐는 더운 여름에는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눈 내리는 겨울에는 눈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최은수(崔銀水)

갈무리

정의 옷가지를 충해와 얼룩, 구김이 가지 않도록 잘 개키거나 걸어서 보관하는 일.

개관 유교 사상이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던 조선시대에는, 청결이 곧 ‘예禮’임을 강조했기에 의복을 깨끗하게 손질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다. 조선 후기 문헌에 옷을 보관하는 방법, 보관할 때 넣는 향궐을 만드는 방법, 옷에 이나 좀 같은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옷의 보관은 중요했다. 대표적인 문헌인 『규합총서閤閣叢書』에서는 여러 가지 갈무리 법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 옷을 갈무리하는 도구는 생활 형편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여유가 있으면 옷을 걸어 보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개켜서 보관하는 농·반달이·고리작·함·궤 등을 사용하였다.

형태와 크기는 대부분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 썼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으며, 재료는 느티나무로 만든 것이 견고하여 최상으로 쳤다. 궤는 보통 대물림하였는데, 궤를 마련하는 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매우 힘들었다. 궤를 마련할 형편이 못되면 왕골이나 대나무, 칩 등으로 엮은 동고리를 사용하였는데, 동고리에는 종이를 바르거나 떨어진 옷가지를 발랐다. 이도 없을 때는 헛대를 이용하였다.

수시로 입는 외출복을 걸어두었던 헛대는 중요한 의복 수납공간의 하나로 방벽에 설치하여 사용했다. 주로 나무로 만들었으며, 충해 방지에 좋은 오동나무가 많이 사용되었다.

1. 방충: 옷가지 보관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충해와 얼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다. 그중에서도 충해로 좀 먹는 것을 막는 일이 제일 중요했다. 좀이 스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거풍擣風을 하거나 약초류를 함께 두었다. 방충약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좀이 슬지 않도록 담뱃잎이나 박하, 장뇌를 옷 사이사이에 끼워 두었다.

특히 가죽이나 모피, 비단 같은 동물성 단백질로 이루어진 소재의 경우, 오늘날의 나프탈렌처럼 방충제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법이 있었다. 좀이 스는 것을 막기 위해 팔꽃나무의 꽃, 산초나무 열매, 쑥, 담배 줄기와 잎, 궁궁이잎(미나리과), 재 등을 방충제로 사용하였으며, 쪽물을 들인 백포白布로 감싸기도 했다. 곰팡이나 쥐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였는데, 곰팡이는 풀기가 있거나 습한 곳에 잘 생기기 때문에 옷을 입다가 둘 때에는 반드시 빨아서 풀기를 빼고 보관하였다.

2. 관리: 털옷은 가는 대나 반반한 막대로 털을 두드려 별 뵈기를 자주 하여야 털이 빠져 상하는 일이 없다. 자주 헛별에 쏘이더라도 두드리지 않으면 털이 빠진다고 제시한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방법이 사용된다. 우의나 우모는 사용한 후 곧바로 잘 털어서 대나무 장대에 건 뒤,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잘 말려야 한다. 다만

햇볕을 직접 쬐면 옷이 상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족 신은 신발 바닥을 말려서 써야 하며 습해지면 금방 바스러진다. 진흙이 묻었을 때는 반드시 젖은 걸레로 진흙을 닦아 내고 바람 부는 곳에서 말려야 한다. 그리고 돼지기름으로 가족을 잘 닦고, 기름으로 신발 바닥도 닦아 두어야 한다.

보관하던 옷을 햇볕과 바람에 쬌는 거풍 풍습도 있었다. 거풍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있었던 의복에 공기와 햇볕을 통하게 하는 작업으로서 좀이 슬거나 옷이 상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거풍은 일반 의복에도 적용되었지만, 주로 수의壽衣에 엄격하게 적용하여 관리에 신경을 썼다. 수의는 명주로 만드는데, 특히 명주는 좀이 잘 슬기 때문에 신경 써서 보관하고 거풍한다. 거풍은 기회가 있으면 자주 하였으나, 거풍하기 좋은 날은 음력 칠월칠석이라 하여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시기를 음력 칠월 칠석으로 택한 것은 이 시기가 절기상 장마가 끝난 직후라, 습해진 의복을 꺼내 거풍하기에 가장 적절했기 때문일 것이다.

3. 보관: 의복을 개어 보관할 때에는 붉은 실로 상하의에 따라 표시하고 격식대로 개었다. 두루마기나 저고리 등 윗옷에는 ‘상上’ 자로, 아래옷일 때는 ‘하下’ 자로 표시하여 징겼다. 이 표시가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었으며 개개인마다 표시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쌍으로 되는 버선이나 토수 등은 짝을 맞추고 십+자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혼례복이나 수의처럼 오랫동안 입지 않는 의복은 각각 종이에 하나씩 싸서 큰 상자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렇게 자주 입지 않는 의복은 방보다는 광에 보관할 때가 많았다.

보관하는 도구는 많지 않았다. 그만큼 의료衣料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주로 보관하는 것은 명절빔이나 외출용, 계절에 따른 옷 정도였다. 옷을 보관할 때는 주로 장藏이나 고리짝을 이용하였다. 장은 대부분 이층장이었는데 주로 혼인 때 마련한다. 장은 이층장, 삼층장 등이 있었으며 나무로 만든 반닫이나 첩, 대나무 등을 얹어서 만든 동고리 등이 사용되었다. 궤의 형태와 크기는 대부분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 썼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 재료는 느티나무로 만든 것



다듬이질과 다리미질 | 국립민속박물관

이 견고하여 최상으로 쳤으며, 보통 대물림하여 사용하였다.

궤를 마련할 형편이 못되면 왕골이나 대나무, 칩 등으로 엮은 동고리를 사용하였는데, 동고리에는 종이를 바르거나 헤진 옷을 발라 사용했다. 자주 입는 옷은 햇대에 걸어 두었는데, 지금의 옷걸이에 해당한다. 햇대는 주로 굵은 대나무로 만들어 방에 설치하였는데, 끈을 이용해 방벽에 수평으로 매달아 사용하였다. 이 경우 벽의 습기로 인해 옷이 상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이르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갈무리에도 남존여비男尊女卑사상이 남아 있었다. 즉, 남아男兒가 사용했던 포대기나 옷은 동생에게 물림이 되지만, “여아가 입던 옷을 남아가 입으면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사용을 꺼려했다. 남아가 입었던 것은 길복吉福이라 여겨 많이 이용되었다. 남아 중에서도 장남 것이 좋고, 특히 장손 것이 더 효험 있다 생각해 소중히 간직하였다가 시험 보러 갈 때, 재판정에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용하였다.

옷 만들 때, 다림질할 때, 빨래할 때도 남자 것이 우선이었다. 그 이유는, 여자 것을 남자 것보다 먼저 할 경우, 또는 여자 물건이 남자 물건 옆에 있으면 남자의 출셋길이 막히고 재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듯 옷을 보관할 때에도 남존여비 사상에 따른 금기가 있었기 때문에 남녀의 복식은 결코 함께 보관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경기민속지-의식주(경기도박물관, 2001), 문헌으로 본 한국 전통 의복 관리법 연구(한지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의생활(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한국복식 2천년(국립민속박물관, 1996).

필자 윤지원(尹智嫻)

갈옷

정의 제주濟州 사람들이 흰옷에 ‘감물’(시즙柿汁)을 들이고 햇볕에 바래서 입던 노동복.

개관 제주에서 언제부터 갈옷을 입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다. 노인들의 푸념 중에 “개(견犬)날 듯(해亥)날 골갱이(호미) 놓는 날 어서 늙드단 보난 저승질이 앞이어.”라는 말이 있다. ‘열심히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죽음이 앞에 닥쳤음’을 탄식한 말이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1954)에 “남녀 간 작업복은 전부가 시즙柿汁으로 염색한 주황색 목면복木綿服이니 풀 먹일 필요도 없고, 노동하다가 먼지가 묻으면 입은 채로 목욕하면 물도 금세 빠지고 붙은 먼지도 빠져 실로 경제적이지요. 또 위생적인 의복으로서 노동자에게 무상無上의 고안考案”이라 했다. ‘제주갈옷’이 노동복으로 탄생한 것은 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이 지역의 실정을 대변하는 자생自生의 이치이다. 야생野生 감나무가 농가農家나 ‘덧밭’ 울타리 안에 한두 그루씩 있는 것도 그 증거물이다.

갈옷은 1950년대까지 제주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며, 여성들에게는 일상복화가 될 만큼 많이 이용되었다. 이는 어느 옷보다 위생·경제·실용적이고 환경친화력을 담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1930년대부터는 몸뻘에 감물을 들인 ‘갈몸뻘’을 많이 입기 시작했다. 따라서 1960년대가 되면 여성용 하의下衣였던 정통正統 ‘갈굴중이’는 거의 사라진다. 더구나 1980년대에 이르르면 갈옷을 입은 사람조차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농사일이 줄어 필요성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교련복이나 향토예비군복, 와이셔츠나 학생들 입던 낡은 옷들을 활용하거나, 또 이전에 입었던 옷에 감물만 들이면 되므로 굳이 옛날처럼 갈옷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도 큰 이유였다.

갈옷은 산업의 발달과 서양문물의 범람에 따른 사

회변혁으로 그 수요가 잠깐 사라졌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현대의 요구와 감각에 맞춰 새로운 ‘갈염법’으로 감물을 들여 만든 옷·신·모자·가방·침구류 등 일상생활품으로 갖가지 다른 새 장場을 열어 가고 있다.

내용 제주도에서 ‘갈옷 색’을 내는 과정을 “갈옷 바랜다.”라고 한다. 사전辭典에는 ‘바랜(래)다’는 ‘햇볕이나 습기를 받아 빛이 변하다, 별에 쬔어 빛이 변하게 하다.’(동아국어대사전, 1977)로 원래의 고운 빛(색色)이 퇴색退色하여 나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갈염’에서의 “바랜다” 함은 색을 더 곱게, 짙게하는 일은 의미한다. 또한 갈염에서 ‘바래는 과정’은 다른 염색물과 달리 매염媒染이나 축염제促染劑를 쓰지 않으므로 염색 중 유일하게 인체人體나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무공해無公害 자원을 개발해 낸 셈이 된다.

옷의 꼴(형태·모양)은 한복 중에서 여름용 기본 홀옷이다. 옷웃은 남녀공통의 ‘적삼赤衫’, 아래웃은 남성용으로 ‘바지(고의袴衣)’와 여성용 ‘단(속)속곳’으로 하였다. 이 옷들에 감물을 들여 남자 것은 ‘갈적삼·갈중이’, 여자 것은 ‘갈적삼·갈굴중이’라고 했다. 용어 중에 ‘갈중이’와 ‘굴중이’는 바지를 뜻하는 제주 말(언어言語)이다.

갈옷은 의례儀禮나 정식 방문이 아닐 때는 일상복으로 어디든지 입고 다녔다. 특히 여자들은 밭일 가는 도중에 볼 일이 있을 땐 갈옷을 입은 위에 치마를 덧입고 갔다가 일을 본 후 벗으면 다시 일복(노동복勞動服) 차림이 된다.

갈옷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는 크게 염액染液 재료인 ‘감’과 옷을 만들 ‘옷감’, 두 가지이다. 이 재료들로 옷이 완성되기까지는 옷만들기—감물들이기—바래기 세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 중에 첫 번째는 옷 만들기이다. 옷감은 무명으로 하는데, 1950년대 이후 베를 사용이 줄어들면서 시중市中에 나온 ‘광목廣木’으로 대체되었다. 옷을 만든 다음에는 감물을 들이기 전에 반드시 안과 밖이 바뀌게 뒤집어 둔다.

두 번째인 감물들이기는 감따기—바수기—치대기—털기—손보기—바래기 과정까지 계속된다. 이 때 ‘어깟죽지가 빠지게’라는 말이 덧붙는데, 그만큼 힘이 든다는 뜻이다. 또 그 시기를 일컬어 ‘대갱이가 와삭 와삭



남성 갈적삼과 갈중이



여성 갈적삼과 갈굴중이

갈옷 | 2013 | 고부자

벌리 질 때'라고 하는데, 이 때는 7~8월 머리가 깨질 만큼 태양열이 강한 한더위 무렵인 것이다. 이쯤에는 '감 씨'는 여물었으나 딱딱해지기 전이며, 타닌(tannin) 성분이 가장 많다.

감물 들이기부터 바래기까지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1. 감 따기: 초 새벽에 날씨를 보며 따다. 떨어지거나 오래된 감은 타닌 성분이 떨어지므로, 쓰지 않는다. 감은 지름 3~4cm 정도에 씨는 5~8개쯤 들어 있고, 뚝어 먹을 수가 없다.

2. 바수기: 딴 '풋(풋)감'은 꼭지를 대충 뜯어낸 다음 '남도구리'(나무로 만든 함지박보다 큰 그릇)에 놓고, '덩드렁막개'(나무로 만든 둥근 방망이)로 80%쯤 바수어 감물을 만들어낸다.

3. 치대기: 바순 감덩어리들을 옷 위에 펴 놓은 다음 감물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올라 옷 갈피를 뒤적거리면서 주무르고 치댄다. 감물이 부족하면 물을 조금 부어 조절한다.

4. 털기: 감물이 골고루 배었으면 옷에 묻은 '감쥬시'(찌꺼기)를 깨끗이 털어 낸다.

5. 손보기: 감쥬시를 털어 낸 다음 옷을 겉으로 뒤집는다. 뒤집은 옷은 주름을 펴고 모양을 정리한 다음 발로 밟거나, 손바닥에 올려놓고 반반하게 손으로 친다. 이 과정은 다림이나 방망이질과 같이 매우 중요하다.

6. 바래기: 약 5~10일 걸리는데, 품질의 성공 여부가 달린 과정이다. 손보기를 마치고 다시 반반하게 펴서 대부분 집 마당과 같이 편편한 곳에 '멍석'을 깔고 낸다. 들이나 밭일을 나갈 때는 '허벅'에 물을 길고 가서 물을 축이면서 바래다. 바래 때는 물을 옷에 듬뿍 먹인 다음 앞판과 뒤판을 고르게 벌이 쏘이도록 뒤집는다. 뒤집기는 물을 축일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데, 색의 농도가 뒤집기 횟수나 빛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뒤판의 색이 고르지 못하면 약한 쪽을 더 집중적으로 바래다. 강한 햇볕에서는 처음 한 시간 정도만 바래도 색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바래기를 반복할수록 색이 짙어지고, 강도도 풀을 먹인 것처럼 점차 뽀뽀해진다. 특품(特品)은 색이 '붉은 빛이 도는 벽돌이나 홍시'처럼 발강게 나는 것으로 밤에 밖에 널어서 '이슬'을 맞힌 것이다. 바래는 동안 바람이 불어 접히거나 휘말린 곳은 색이 덜 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금속성 쇠붙이는 색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금물이다.

특징 및 의미 '옷' 앞에 '갈' 자를 덧붙인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다만 노동복이라는 기능성과, 색색이 벽돌이나 낙엽처럼 갈색(褐色)으로 변한 것, 거친 베(갈포葛布)가 가진 상징성을 담고 있는 점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추측할 뿐이다.

갈옷은 무엇보다도 하늘과 사람의 정성이 빛은 공동결과물이며, 무공해자원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자랑이다. 순수한 천연 염액인 감물과 자연 광선 태양太陽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자연조건과 바래기의 정성에 달렸다. 바래기의 최적 상황은 가뭄이며, 최소한 5~10일은 매달려야 한다.

또한 갈옷은 자연과 환경·인체人體에 순응하는 마력魔力을 안고 있다. 잘된 것은 처음에는 뽀뽀하고 황토 빛이지만, 차츰 갈색으로 변하면서 부드러워진다. 처음 입을 때는 촉감이 거칠지만 풀 먹인 새 옷을 입는 느낌이며, 몸에 달라붙지 않아 시원하다. 따라서 풀을 먹이는 등의 다른 잔손질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감물은 방부제가 되므로 땀이 뻘 옷이라도 쉽게 썩거나 상하지 않으며, 썩은 냄새도 나지 않는다. 흙 색깔과 비슷하여 더러움도 덜 타고 더러워져도 눈에 띄지 않으므로, 세탁을 자주하거나 비누를 쓰지 않아도 된다. 갈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옷을 손으로 주물러서 빨면 묻어 있던 오물이나 땀기도 잘 빠진다. 뽀 다음 꼭 짜서 그 자리에서 입어도 된다. 가시덤불이나 풀밭에서도 걸리거나 상처를 입지 않으며, ‘보리가스랭이’ 등 거친 오물도 쉽게 달라붙지 않고 붙어도 쉽게 떨어진다.

더욱이 재생再生은 이 옷이 가진 또 하나의 특혜特惠다. 한 벌이면 2~3년간은 입을 수 있다. 옷을 일 년쯤 계속 입으면 색이 바래고 후줄근해진다. 이럴 때 새 옷에 감물을 들이고 쓰다 남은 ‘감쭈시’에 물을 타서 현 옷을 담가 감물을 들이고 바래기를 하면 다시 새 옷 같은 맛이 나며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갈옷의 생명력은 가늠할 수 없다. 입다가 낡은 옷은 성한 쪽을 발라내서 대바구니에 바르기도 하며, 떨어지거나 헤진 작은 곳을 땀질하면 몇 년 더 쓸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옷의 최종 값어치는 대물물림이다. 제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몸에 묻은 오물만 닦아 낸 다음 3일 동안 몸에 바람이 들지 않도록 꼭 싸매 둔다. 이때 남성의 하의인 갈중이로 싸맨다. 아기의 머리를 갈중이의 가랑이 아래쪽에 살짝 걸치도록 두고, 두 가랑이로 아기 어깨와 배를 좌우로 덮는다. 다음은 허리로 아기 배에서 가슴 위까지 덮은 다음 아기의 몸을 둘둘 말아 단

단히 감싼다. 이는 “첫째, 추위를 막음이고, 둘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초생아初生兒의 몸을 교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목욕을 시키지 않아 몸이 가렵지만 갈옷이 방부제 역할을 해주기에 걱정 없다.”라는 것이다. 또 칙칙한 색은 “오물이나 더러움도 눈에 쉽게 띄지 않아 안정 맞춤”이라 한다.

이제 더 이상 쓸모없이 된 것은 아궁이에서 ‘불쏘시개’로 쓰거나, ‘두엄’에 버린다. 마지막 한 올까지도 인간에 유용한 연료와 퇴비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참고문헌 남국의 세시풍속(진성기,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9), 원대정군지(고병오·박용후, 박문출판사, 1968), 제주도 복식의 민속학적 연구(고부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제주도 의생활의 민속학적 연구(고부자,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7-의생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필자 고부자(高富子)

감물

정의 덜 익은 감에서 나는 뚝은 즙汁으로 황적색계 갈색褐色을 내는 염료.

내용 ‘염액染液’이란 옷감에 물을 들여 색色이 나게 하는 액체液體이다. 감물도 그중 하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염액이라 할 수 없다. 염액의 첫째 조건은 곱고 맑아야 하는데, 감물은 감을 잘게 바순 찌꺼기인 ‘고형固形물질’과 함께 섞여 있는 ‘뽀뽀한 액체인 시즙柿汁’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발색發色 과정에서 다른 것은 염액이 침투되면 바로 색이 나오지만, 감물은 반드시 여러 날 햇빛 아래서 물에 적시며 바래기 과정을 여러 날 거쳐야하므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일반 염색은 흔히 염액을 물에 끓여 우려내는 방법을 쓴다. 색은 대부분 처음부터 홍紅이나 황黃·청靑 등 제 빛갈色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료 자체에서 구분된다. 하지만 감물은 다른 염재와 달리 매염이나 축염제를 쓰지 않고도 햇빛에서 바래면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더 진해진다. ‘꽃감’의 ‘타닌tannin 성분’은 햇빛과 만나면 방부제 효과로 섬유의 부패를 억제하며, 섬유를 뽀뽀하게 굳혀서 풀 먹일 필요가 없어지고, 통기성을 좋게 한다.

감물은 서민들의 생활과 가장 친밀한 염액재液材

이다. 다른 염료와 달리 쉽게 구할 수 있고, 오염이 덜하며 세탁이 쉽고, 시원하며 위생적이어서 주로 노동복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지런하고 재간 있는 여인들은 평소에 입다가 낡아서 후줄근해진 모시나 삼베옷에 감물을 묶게 들여서 바래 입기도 하였는데, ‘색이나 촉감이 상큼하고 보기도 좋아 새 옷을 입은 것처럼 호사였다’라고 한다.

오래전부터 옷 외에도 사용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방충·방수·방균 성질이 있어서 오래 보관하는 문서文書는 갈색포褐色布나 갈지葛紙로 만들어 썼고, 종이를 바른 바구니나 방바닥 위에 치대기도 했다. 형지염型紙染에 적힌 불경佛經, 우산, 밧줄, 그물 등 생활 전반에 매우 많이 활용活用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제주濟州의 ‘갈옷’이다. 그러나 제주에서도 ‘정통正統 갈옷’ 만들기는 1960년대를 지나면서 거의 사라진다. 잠깐 침체기가 지나고, 1900년대 말부터 새로운 갈염법이 등장한다. 이 갈염법은 육지陸地 일부와 제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옷감에 감물을 들여 바랜 것으로 옷·모자 등 의류부터 가방·신·버선·침구류 등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지역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제주도 외에 경상북도 청도에서는 반시가 이용되고 있다. 반시는 수분 함량이 많고 씨가 없어서 염색 재료로 아주 적합한데, 태풍으로 떨어진 뽕은 감을 찢어 사용하고 있다. 2002년부터 청도에서는 염색의 견뢰도·방충·방수·항균성 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교육을 바탕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감물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이미 알려진 방충·방부 외에 아토피 등 피부병과 천식·면역질환 증상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한국 여러 지역과 일본 교토의 감물을 실험 조사한 결과, 제주 ‘토종土種감’을 비롯한 국내산 감은 ‘일광조사日光照射’시간이 증가에 비례한 농도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염착농도는 제주의 토종감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특징 및 의미 감은 감나무에서 열리는 1년생 과일로 우리나라 전역에 있으나 지역에 따라 모양이나 크기, 종류, 먹는 시기도 다르다. 육지 감은 식용食用이며, 제주 감은 한두 그루씩 농가의 ‘텃밭’에 자생自生하고 있는데 주로 갈옷 만드는 염색용으로 쓰였다.

제주에서 감을 염색재료로 쓸 때는 7~8월 머리가 깨질 만큼 더울 때이다. 이때 감을 덜익은 감이라는 의미로 ‘풋감’이라고 하는데 3~4cm 정도로 잘고, 씨가 5~8개 쯤 들어 있다. 제주의 감은 씨가 여물기 전에 소금물에 우려먹기도 하지만, 홍시紅柿가 되기 전에는 떼어서 먹을 수 없다. 이 떼은 것은 타닌이 많기 때문이며, 염색의 강도를 높이는 성분이 된다. 또한 일반 염색에는 주로 소금이나 식초·백반·철 등 공해 물질인 축염제나 매염제를 넣어 색의 선명도나 탈색을 방지하는 등 2차 염색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감물은 다른 염제들은 쓰지 않는 순수한 ‘무공해’라는 강점이 있다.

요즈음 제주에서 감물로 만든 옷들을 ‘갈옷’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옷들은 ‘정통제주갈옷’과 구분되어야 한다. 정통제주갈옷은 면綿으로 만든 옷에다 ‘풋감물’(시즙柿汁)을 먹이고, 햇볕에 여러 날 바래어 색을 낸 노동복이기 때문이다. 염색 기법과 지역·시대·용도·사용자계층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제주에서 감물 추출은 모두 기계로 하며, 8월 중 풋감 수확 때 만들어 냉동冷凍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하고 있다. 먼저 감을 ‘믹서기’에 넣어 바순 다음, 고운 망에 담아 ‘짤순이’에 넣고 감물을 받아 낸다. 바수어 짜낸 감물의 비율은 약 10:1 쯤 된다. 원액源液은 플라스틱 병에 담아두었다가 감물을 들일 때 물을 타서 조절하며 수시로 쓴다.

참고문헌 제주도 의생활의 민속학적 연구(고부자,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풋감물 염색의 염색성과 색채 연구(김영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풋감물 염색의 염색성과 색채 연구(이양섭·김영희, 아시아민족조형학회 논문집1, 아시아민족조형학회, 199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7-의생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필자 고부자(高富子)

감발

정의 먼 길을 떠나거나 추위로부터 발을 보호하고자 발에 감는 천.

내용 감발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짚신을 신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발을 보호하고자 버선

신은 발에 덧감아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감발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주로 소설이나 시 등에 등장한다. “감발과 감발/ 짚신과 짚신”, “다들 형짚쫓가리로 감발을 한 게 고작이었다.”, “짚신에 감발 치고 패랭이 쓰고”, “호롱불 밑에서 푼 감발이 시뻘건 핏빛으로 보였다.” 등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북간도 아리랑>에 “감발을 하고서 백두산白頭山 넘어 북간도北間島 별판을 헤맨다.”, “감발을 하고서 백두산 넘어 북간도 별판을 달려보세.”, “감발을 하고서 주먹을 쥐니 용감하게도 넘어간다.”, “감발을 하고서 백두산 넘어 북간도 별판을 헤매인다.” 등이 있어 북간도와 감발의 애환을 읽을 수 있다.

둘째는 추운 겨울에 버선 위에 천을 덧감아 추위로 부터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감발이다. 예를 들면 추운 겨울 북간도 독립군들이 일본군과 전투를 할 때 제대로 된 군화가 없는 독립군에게 북간도의 한인들이 감발을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처럼 양말과 장갑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손과 발에 감아 추위를 이기는 것을 모두 감발이라 하기도 하였다.

감발은 발에 감는 천이라는 명사로, ‘감다’라는 동사의 어간 ‘감-’에 명사 ‘발’이 합쳐진 합성어이다. 장승옥은 신발이란 말이 짚신과 감발에서 나온 말로 보기도 한다. 즉, 감발은 발감개 또는 발감개를 한 차림새를 뜻하고, 발감개는 버선이나 양말 대신 발에 감는 좁고 긴 무명 형짚을 말한다. 그래서 짚신을 신고 감발을 하는 것을 ‘신발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심부름을 해 준 대가로 주는 돈을 ‘신발차’라고 하는데, 심부름을 하면 신발이 닳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감발을 발싸개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신발이 발달하지 않았고, 방한도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 감발은 발을 보호하는 유일한 도구였다. 따라서 감발은 장거리 여행, 추위 등 극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참고문헌 김형관 피디의 중국 조선족 아리랑(김형관, 술과학, 2017), 미망(박완서, 문학사상, 1990), 방언사전의 편찬 방향-표제어 선정과 뜻풀이를 중심으로(조남호, 한국사전학23, 한국사전학회, 2014), 보부상, 그들은 누구인가(조재근, 내일을 여는 역사62, 내일을 여는 역사, 2016), 소설어 사전-한국 현대소설(최동호·김윤식,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재미나는 우리말 도사리(장승옥, 하늘엔 못, 2004), 조선의 민요(성경린·장사훈 엮음, 국제음악문화사, 1949).

필자 김시덕(金時德)

감투

정의 직물, 가죽 등으로 챙이 없이 머리를 덮는 쓰개.

내용 감투[坎頭]는 예전에 쓰던 의관의 하나로 폭넓게 해석되며, 벼슬이나 직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현재까지도 사용한다.

감투는 중국의 한·漢나라의 양웅·楊雄이 당시 각지의 방언을 집록한 『양자방언·揚子方言』에 ‘상자류·箱子類’라 하였고, 중국 송나라의 운서·韻書(한자의 운을 분류하여 일정한 순서로 배열한 서적)인 『광운·廣韻』에는 ‘머리를 덮는 것’이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감투는 『고려사·高麗史』 여복지·興服志에서 확인되는데, 녹관·祿官(녹만 받는 관원) 근무 시 삼관·三官의 각 영위정·領尉正은 “감투·고정립·高頂笠·직령·直領·전대·纏帶를 착용한다.”라는 관복의 규정에 처음 등장한다. 이 기록을 통해 감투는 고정립 즉 다른 쓰개와 함께 착용했던 받침용 쓰개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16년(태종 16)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보통 때 감투를 쓰는 향리를 두고 평민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여 당시 감투가 낮은 계층이 사용하는 쓰개로 통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무예훈련의 도감인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관복도설에는 도식과 함께 착용 모습이 있어 무술을 연습할 때도 착용하던 쓰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상이 아닌 곳에서 사용되는 감투의 의미는 벼슬자리나 높은 지위를 의미하여 조선시대에 사용된 감투의 용도와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감투가 다양한 한자 표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도 상관이 있다.

감투는 조선시대 어휘집을 통해 형태·용도·재료 등을 유추할 수 있다. 1810년 청소년의 학습을 위해 지은 책인 『몽유편·夢諭篇』에 ‘전모·감토·소모’라 하였고, 『사류박해·事類博解』(1855)에는 ‘소모·전모·감두·모점모·양모모·모자·감토’라고 기록되어 있어 감투와 관련된 유의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선 말기 한국어를 표제어로 하여 편찬된 최초의 국한대역사전인 『국한회어·國漢會語』에는 ‘탕건, cap’으로 풀이하고 있어 탕건과 연관성도 확인할 수 있다.



① 무예도보통지 | 1790

② 가족감티 | 근대



③ 채용신 | 최익현 초상 | 190

감투 | 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② 앞길이 21.5 뒷길이 41 너비 41 | 제주대학교박물관, ③ 국립중앙박물관

감투에 대한 유사 어휘를 살펴보면 양모를 사용하여 만든 쓰개를 지칭한 사례가 많다. 만주어 사전인 『한청문감漢淸文鑑』에도 ‘전모毡帽’로 풀이하여 양모로 만든 쓰개라고 하였다. 어휘사전인 『물명고物名攷』에는 ‘혼탈모渾脫帽’를 ‘즉금양모모 담감토’라 하고 있어 ‘감토’ 중에서도 양모로 만든 것을 ‘담감토’라 불렀으며 이것 또한 모직물로 만든 쓰개임을 알 수 있다.

감투의 유사 어휘를 통해서 소모小帽와 연관성이 확인되며, 그 형태를 유추할 수 있다. 중국에서 소모는 명대明代之 일반 남자 복식에서 확인되는데, 챙이 없이 모체가 육판·팔판·원추형으로 구성된 형태이다. 계절마다 다른 소재를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이는 청대까지 이어 사용되었다. 특히 여섯 조각으로 연결하여 만든 것은 명대 ‘모자’라는 명칭과 함께 도식으로 기록되었

다. 이러한 소모는 조선시대 출토유물에서 확인되며 모자, 소모자 또는 육합모로 지칭되고 있다.

조선시대 출토유물을 통해 감투는 견직물 중에서도 공단을 사용하고 육판을 이어 만든 중국의 모자, 소모자의 형태이거나 모직물을 재료로 하여 원추형으로 제작된 형태였다. 대부분 유물은 임진왜란 전의 분묘에서 확인되었다.

특징 및 의의 도식, 유물을 통해 확인한 감투는 챙이 없으며 머리 형상에 맞게 제작한 쓰개이다. 감투의 재료는 견직물·모직물·가족·말총이며, 특히 모직물과 관련된 감투는 전모·양모모·담감토 등의 명칭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가족으로 된 감투를 사용하였는데, 오소리 가족이 최상품이었으며 겨울철 사냥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감투의 형태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별되는데, 여섯 조각을 이어 모체를 만들고 아랫부분에 직선의 단을 둘러 마무리한 것, 이은 선이 없는 고깔형, 원통형으로 제작 후 정수리 네 부분을 박은 고깔형, 원통형으로 제작 후 윗부분의 네 곳을 집은 고깔형으로 제작되었다. 조선시대 풍속화에서는 투정, 옷놀이 등 일상을 즐기는 장면에서 남자들이 착용하고 있으며, 고깔 모양으로 묘사되었다. 감투는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활용된 쓰개로 각 나라별로 한자 표기와 약간의 형태적 차이는 있지만, 머리모양에 맞는 형으로 챙이 없고 직물이나 펠트를 사용하여 제작한 쓰개라는 점이 공통된 특징이다. 오늘날에는 관직을 빗대어 이루는 말로 사용되며 특정 형태의 쓰개를 지칭하지는 않는다.

참고문헌 감투에 관한 연구(김은정·강순제, 복식57-6, 한국복식학회, 2007), 무예도보통지(등문선, 1998), 조선시대 복식유물에 관한 연구-소정현황을 중심으로(박진영,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조선시대의 관모(온양민속박물관, 1988),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中國古代服飾史(周錫保: 中國戲劇出版社, 1984).

필자 김은정(金恩姘)

갑사
甲紗

정의 평직平織과 익조직棼組織을 혼합하여 제작한 얇은 견직물.

내용 1796년(정조 20)에 “조사朝士의 장복章服으로 반드시 갑사甲紗를 사용한 것은 30년 사이에 불과하며 전에는 상방尙房에서 구하더라도 얻기가 어려웠으니, 어찌 매우 귀하지 아니하겠는가.”라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록으로 미루어 갑사는 1730년대 무렵부터 이미 사용되었으며, 귀한 옷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갑사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의대발기」(의대는 궁중에서 왕·왕비·왕세자·왕세자비의 의복을 칭함), 「의복발기」, 「의궤儀軌」 등의 궁중 기록은 물론 <춘향전>, <한양가> 등의 고소설, 『만기요람萬機要覽』, 『탁지준절度支準折』, 『홍재전서弘齋全書』, 『하재일기荷齋日記』 등의 여러 문집류에도 남아 있다. 갑사는 「의대발기」와 「의복발기」에 기록되어 있는 직물들 중에서도 등장 빈도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조선 말기의 대표적인 옷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문헌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용도별로 정리해 보면 갑사는 임금의 면복 안감과 폐슬, 강사포와 같은 예복에 사용되었다. 그 외에는 소고의, 동의대, 배자, 주의, 창의, 철릭, 쾌자, 군복, 남성의 바지, 여성의 치마와 속바지 등에 다양하게 사용된 기록이 나타난다. 문헌 기록의 명칭을 분석해 보면 사용한 실의 정련精練 여부에 따라 크게 생갑사, 숙갑사로 분류한다.

「발기」에 기록된 갑사는 무늬의 종류에 따라 백복문갑사·수복문갑사·백접문갑사·인접문갑사·수접문갑사·화접문갑사·접문갑사·별문갑사·운문갑사·운학문갑사·운학용봉문갑사·칠보문갑사·화학문갑사 등이 있다. 특히 복문蠡紋이 많았는데 백복문은 박쥐를 가

득 차게 도안한 무늬를 뜻하며, 수복문은 수壽자와 박쥐무늬가 교대로 도안된 무늬를 뜻한다. 접문 종류도 많은데 접은 나비[蝶]와 창살[櫺]의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있다. 백접문白蝶紋은 나비가 많은 무늬이며, 「의대발기」에서와 같이 한자 접櫺으로 표시된 경우는 기하학 무늬인 창살무늬로 생각된다. 유물에도 이러한 두 종류의 갑사가 남아 있다. 그 외에 별문갑사와 같이 별문別紋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원래 별문은 ‘원형의 쌍용문’, ‘원형의 쌍봉문’ 같이 둥근 원형의 무늬로 알려졌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둥근 원형무늬 이외에 궁에서 즐겨 쓰는 특별한 무늬라는 의미로 변형되었다. 20세기 초반의 유물 중에 원형의 수壽자와 호리병박 넝쿨무늬가 아름답게 도안된 옷감 끝자락에 ‘별문사別紋紗’라고 직조한 흔적이 남아있다. 그 외에 모란꽃이 시문된 화문갑사도 많이 사용되었다. 갑사는 조선 말기 영친왕가 유물에서도 많이 남아 있다. 관복·두루마기·전복 등의 남성 복식은 물론, 치마·저고리·속옷의 여성 복에서도 갑사가 많이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미 갑사는 현재까지도 한복용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통옷감이다. 숙고사나 생고사와는 달리 평직과 익조직을 전후좌우 교대로 복잡하게 배열하여 직조하므로 위사가 위·아래 지그재그로 들어간다. 따라서 바탕에 격자무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언뜻 보면 마치 거북이 등껍질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외관 특성에서부터 ‘갑사’라는 명칭이 유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갑사에 무늬를 넣기 위해서는 바탕은 변형된 익조직이며 무늬 부분을 평직 또는 능직, 부직으로 표현하였다. 사용된 무늬는 유물에서 알 수 있듯 나비·꽃·구름·표주박·용·학·운학·봉황·봉·매화·난초·만귀자·수壽자 보배무늬 등 매우 다양하다. 주로 여름과 봄 가을 한복감으로 사용되는데, 예복과 평상복, 속옷과 쓰개류 및 아동복에 이르기까지 복식 전반에 걸쳐 널리 애용된다. 또한 무늬를 넣지 않고 바탕조직으로만 이루어진 무문갑사는 비늘 같은 외관 때문에 특별히 ‘순인純鱗’이라고도 불렸다. 1925년에 쓴 『조선朝鮮』에는 ‘경사經絲는 생사로 위사緯絲는 연사를 사용하였으며 변형된 사직紗織’이라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옛날 친왕용으로 친왕부에서 거둬들였



갑사 | 국립민속박물관

기 때문에 ‘부사’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조선 말기 순인은 우리나라에서 제직된 것이 많으나, 1924년경에는 일본산 순인도 수입된 자료가 있다. 현대에 생산된 갑사는 원사가 좋지 않아서 갑사로 만든 유물에 나타나는 독특한 성질을 보이지 않는다.

참고문헌 萬機要覽, 儀軌, 朝鮮王朝實錄, 度支準折, 荷齋日記, 弘齋全書, 발기, 의대발기, 의복발기, 우리나라 전통무늬-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조효숙(趙孝淑)

갑신의제개혁

甲申衣制改革

정의 갑신년인 1884년 윤5~6월에 있었던 의복 간소화 개혁.

내용 ‘의제개혁’은 ‘복식제도에 관한 개혁’이라 풀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역사상 존재한 복식제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갑신년인 1884년(고종 21), 갑오년인 1894년(고종 31), 을미년인 1895년(고종 32)에 단행된 근대적 개혁을 지칭한다. 이 시기 의제개혁의 저변에는 근대 서구문물의 유입과 채택이라는 기조가 깔려 있고, 이 점이 이전의 복식제도 개혁과는 차별화된다.

갑신년의 개혁은 윤 5월 24일 흑단령(黑團領) 착용에 관한 고종의 전교(傳敎)로 시작되어, 6월 3일에 예조(禮曹)에서 ‘사복변제절목(私服變制節目)’을 마련하여 당일 고종의 비준을 얻고, 7월 10일 이후 새 제도를 적용하여 광수의(廣袖衣)를 입지 못하게 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내용은 관원들이 집무복으로 입는 관복(官服)인 단령(團領), 관원 및 기타 신분이 사적으로 입는 사복(私服)에 관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윤5월 24일 고종은 흑단령 착용 전교를 내린다. 흑단령은 오래전부터 써 오던 간편한 것이므로 『경국대전(經國大典)』과 『대전통편(大典通編)』의 예를 따라 착용하고, 당시 입던 홍단령을 입지 못하게 한다. 또 흑단령은 착용 상황에 따라 다시 구분한다. 여러 조의(朝儀)에 진현(進見)할 때와 대궐 안팎의 공적인 일(公故)이 있을 때는

흑단령에 흉배(胸背)를 더하여 문관과 무관을 구별하고, 더불어 품계를 구별하게 한다. 즉 평소에는 흉배가 없는 좁은 소매(窄袖) 흑단령을 입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 품계에 따른 흉배를 부착하게 하였다.

고종은 다음 날 25일 다시 사복을 개혁할 것을 명한다. 고종은 “조례(朝禮)와 제례(祭禮) 및 상례(喪禮) 때 입는 옷은 모두 선성(先聖)의 유제(遺制)이니 이것은 변통할 수 없는 것이다. 때에 따라 알맞게 만들어 입는 사복은 힘써 그 편한 대로 따르는 것이니 이것은 변통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복인 도포·직령(直領)·창의(裳衣)·중의(中衣) 같은 옷의 겹겹의 넓은 소매(廣袖)는 주선하는 데 불편하고 옛것에서 찾아보아도 너무 차이가 있다. 지금부터는 좀 변통하여 단지 착수의(窄袖衣)와 전복(戰服)과 사대(絲帶)를 착용하여 간편한 대로 따르는 것을 정식으로 삼도록 할 것이니, 해조(該曹)에서 절목을 갖추어 들이게 하라.”라고 하였다. 즉 관원이 입는 조복(朝服)과 제복(祭服)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입는 상복(喪服)은 함부로 고치면 안 되지만 평상시 입는 도포·직령·창의·중의 등은 불편함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당시 가장 중요한 개혁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도포 등 사복의 넓은 소매를 좁히는 것이었다. 또 큰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문화도 바꾸고자 했다.

고종의 명에 따라 사복 개혁의 구체적 내용이 준비되고, 6월 3일에 예조에서 ‘사복변제절목’을 마련하여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 바로 비준한다. 절목은 총 12조항으로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복으로는 귀천을 막론하고 소매가 좁은 옷, 즉 착수의(窄袖衣)를 입고, 도포·직령·창의·중의 등의 옷은 폐지한다는 것이다. 또 관원의 사복은 착수의(窄袖衣)에 전복(戰服), 搭護를 덧입은 후 사대를 매게 하였다. 이 외, 관청의 서리들이 단령을 입는 것을 폐지하고, 유생(儒生)은 왕을 알현할 때 입는 옷, 재복(齋服)(재계할 때 입는 옷), 유건(儒巾), 화鞞(靴)는 이전과 같지만 나머지 상황에서는 반령착수(盤領窄袖)에 실띠(絲帶)를 매게 하였다. 생원(生員), 진사(進士), 유학(幼學)도 사복의 소매를 좁게 하였다. 서민은 언제나 소매 좁은 옷을 입고, 그 외 옷의 가선장식·띠·갓끈과 상복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이때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옷 중 도포는 제례를 위해 필요하다는 영의정 김병국의 건의에 의해 폐지되지 않았다.

‘사복변제절목’이 공포됨으로써 갑신의제개혁에서 시도한 관복 간소화에 관한 기본 규정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종실록高宗實錄』 기사에 의하면 당시 고종의 강경한 실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반포된 후 7월 27일까지의 두 달 사이에 약 24건의 반대 상소가 올라오고, 절목을 마련해야 할 예조에서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반대 의견이 매우 강하였다. 더구나 이때 개혁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그 해 10월에 일으킨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보수파 무마책의 일환으로 갑신의제개혁이 철회된다. 1884년(고종 21) 6월 3일 사복변제절목은 다음과 같다.

1. 사복은 소매가 좁은 옷으로 하는데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입을 수 있고, 도포·직령·창의·중의와 같은 상복은 이제부터 마땅히 모두 없앤다.
1. 벼슬이 있는 사람은 전복을 덧입으며, 관직에 있는 서역胥役들도 같다. 서리胥吏의 단령도 없앤다.
1. 유생이 진현할 때 입는 옷, 재복, 유건, 화靴는 이전과 같으며, 그 외에는 반령盤領에 소매가 좁은 옷을 입고 띠는 실띠를 맨다. 생원, 진사, 유학의 사복도 소매가 좁은 옷을 입는다.
1. 서민은 소매가 좁은 옷만 입으며, 시역廝役도 같다.
1. 소매가 좁은 옷은 혹 다른 색깔로 가선[緋]을 달거나 혹은 가선을 달지 않기도 하여 모두 편리한 대로 한다. 가선의 너비는 포백척布帛尺으로 1촌寸이다. 도예徒隸는 가선을 달지 못한다.
1. 벼슬이 없는 사람은 기縹·리羅·능綾·단緞의 종류는 입지 못하며, 관직에 있는 서역도 같다.
1. 띠는 넓은 띠[廣帶]를 쓰는데, 고리와 단추를 달아 옷을 묶고, 띠의 제도에서 (묶고 나서 남은) 나머지는 주척周尺 1척을 넘지 않게 한다. 혹 실띠를 쓸 경우 술[紉]은 주척 1척을 넘지 못한다.
1. 문무 당상관의 띠는 홍색과 자색紫色을 쓰고, 당하관은 청색과 녹색이며, 유생은 흑대로 하되 편리한 대로 한다.
1. 갓끈은 좁은 직조물을 쓰는데, 사紗나 백帛이나 구슬로 단단히 매어서 늘어진 부분이 없게 한다.
1. 옷고름은 단단하게 맬 정도로만 하고 넓고 길게 하지 말며, 혹은 직물[絲紬]이나 금속단추[金釦]를 쓴다.
1. 상복喪服을 입는 사람의 상복常服 및 조복弔服은 소매가 좁은 흰옷을 입고 띠는 백색을 쓰며, 벼슬이 있는 사람은 열

은 색 전복을 덧입는다. 상복喪服을 입는 사람은 혹 삼베로 만든 띠대[麻布帶]를 매되 길게 늘어뜨려서는 안 된다.

1.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관원들의 관복은 단령에 품대品帶를 두르고, 머리에는 사모紗帽를 쓰며, 화靴를 신는 것이 기본 차림이었다. 단령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형태가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변화는 소매에서 나타난다. 전기에는 좁은 소매였던 것이 후기로 가면서 점점 넓어져 옷 길이의 절반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 넓은 소매는 활동의 불편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래서 근대에 들어 관복의 간소화가 논의될 때 가장 중요하게 수정이 가해진 것이 바로 소매 너비였다.

조선 말기에 서구 문물의 유입으로 사회 분위기가 점점 실용성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서 고종은 지금까지의 크고 넓은 옷을 개혁하여 간소화하고자 한다. 고종이 추진했던 복식 간소화는 갑신의제개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갑신의제개혁은 관복과 사복을 색, 옷의 종류, 형태 등에 있어 종합적으로 간소화하고자 하였다. 비록 신하들의 강한 반대와 더불어 갑신정변의 실패까지 더해지면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복식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시도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 이러한 노력이 있어 10년 후의 갑오의제개혁, 을미의제개혁이 실효를 거두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갑신의제개혁 이전 일본 파견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의 복식 및 복식관(이경미, 한국의류학회지33-1, 한국의류학회, 2009), 개항기 전통식 사례복 연구(이경미, 복식64-4, 한국복식학회, 2014), 우리나라 문관의 전통식 관복 착용 소멸에 관한 소고(조상준·최연우, 한국복식3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4), 우리 생활 100년·옷(고부자, 현암사, 2001), 의관에서 패션으로(김도훈,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1,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비평사, 1998).

필자 최연우(崔然宇)

갑오의제개혁 甲午衣制改革

정의 갑오년인 1894년 6~12월에 있었던 의복 간소화 개혁.

내용 ‘의제개혁’은 ‘복식제도에 관한 개혁’이라 풀 수 있고, 이렇게 본다면 역사상 존재한 복식제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갑신년인 1884년(고종 21), 갑오년인 1894년(고종 31), 을미년인 1895년(고종 32)에 단행된 근대적 개혁을 지칭한다. 이 시기 의제개혁의 저변에는 근대 서구문물의 유입과 채택이라는 기조가 깔려 있고, 이 점이 이전의 복식제도 개혁과 차별화된다.

갑오년의 개혁은 6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됐다. 내용은 관원들이 폐하 알현 시의 복식과 사복私服에 관한 것이다. 이때의 개혁은 이듬해인 1895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되므로 두 해의 의제개혁을 연계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1894년 6월 28일에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정부 이하 각 아문衙門의 관제官制와 직무에 관한 의안議案을 올린다. 주요 내용은 신분제 및 노비제 폐지, 문무관 차별 폐지, 연좌제 금지, 조혼早婚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등이다. 이 중 복식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조정 관리의 의복 제도에서 폐하를 알현할 때의 의복은 사모紗帽, 장복章服(깃이 둥글고[盤領], 소매가 좁다[窄袖]), 품대品帶, 화자靴子로 하고, 한가히 지낼 때[燕居]의 사복私服은 검은색 갓[漆笠], 담호[搭護], 실띠[絲帶]로 한다. 사인士人和 서인庶人의 의복 제도는 검은색 갓, 두루마기[周衣], 실띠로 한다. 군사[兵卒]의 의복 제도는 근래의 규례를 따르되 장수와 군졸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신분적으로 관원, 사인과 서인, 군인에 관한 복식을 규정했다. 관원의 옷은 궁궐에 들어가 왕을 알현할 때 입는 옷과 궁궐 밖에서 입는 사복으로 나눠 규정했는데, 왕 알현 시의 복식은 사모, 반령에 착수 형태의 장복, 품대, 화靴 차림이고, 사복은 검은색 갓, 담호, 실띠 차림이다. 사복은 두루마기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담호 안에 받쳐 입었을 것이다. 왕을 알현할 때의 옷에 좁은 소매의 단령을 쓰게 한 것으로 보아 1884년 갑신의제개혁과 마찬가지로 단령은 좁은 소매 한 가지로만 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규류편法規類編』에 의하면 7월 10일부터 넓은 소매옷[廣袖衣]을 금한다. 위 의안이



소매 좁은 단령과 담호를 입은 관원들 | 개화기와 대한제국 | 눈빛출판사

확정된 10여 일 후 본격적으로 넓은 소매를 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직에 있지 않은 사대부와 서민들은 검은색 갓, 두루마기, 실띠 차림으로 규정한다.

군사의 의복은 근래의 규례를 따른다고 하였는데, 1895년(을미년)에 가서야 육군복식이 서구식으로 바뀌므로 위에서 언급한 ‘근래의 규례’가 의미하는 형태를 분명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1881~1882년에 설치된 근대식 군대 별기군別技軍이 전통식과 서구식을 혼합한 절충형 군복을 입었다. 모자, 상의, 바지,화로 구성되는 군복에서 상의와 바지는 전통식이고 모자, 허리띠, 상의의 단추 등은 서구식이었다. 1894년은 별기군이 해산한 10여 년 후이지만 ‘근래의 규례를 따른다.’고 했으므로 별기군이 돌아간 본대인 오군문五軍門에서 그 복식을 채용해 유지했고, 이 전통식과 서양식이 절충된 군복을 갑오의제개혁에서 채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혹은 전통식 군복을 입었다면 동다리 위에 담호를 입는 형태이다.

또 이 날은 일반관부와 별도로 궁내부宮內府를 설치한 날로 비록 궁내부 관원의 복식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당시까지 일반사무와 왕실사무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았던 전통으로 보아 궁내부 관원 복식은 일반관복과 구별이 없었을 것으로 본다.

같은 해 12월 16일에는 칙령 제17호가 내려지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선朝臣의 대례복大禮服은 흑단령을 쓰고, 궁宮에 들 때의 통상에복은 두루마기[周衣]에 답호인데 흑색 토산 주紬와 베[布]를 쓰며, 또 사모와 화靴가 있다. 명년 정월 초하루부터 시행한다.”

여기서 이전에는 없던 ‘대례복’ 용어가 등장한다. 관원의 대례복은 다른 품목에 관한 언급 없이 흑단령만 언급했지만, 6월의 군국기무처 의안과 같이 흑단령 위에 품대를 두르는 것으로 규정했을 것이다. 또 궁에 들 때의 통상에복은 사모, 두루마기, 답호, 화로 규정된다. 이제까지 사모는 단령을 입을 때만 쓰던 관모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두루마기와 답호를 입은 채 사모를 쓰도록 한다. 이 내용은 1895년 을미의제개혁에서도 다시 규정된다.

위 갑오의제개혁은 칙령 제17호에서 18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나, 의제衣制가 1895년까지도 계속 수정되고 있어 실제 시행은 그 이듬해부터 이루어졌을 것이다.

특징 및 의의 갑오의제개혁은 10년 전의 갑신의제개혁이 실행에 한계가 있었던 것에 비해, 이듬해인 을미년까지 이어지는 개혁 이후 실행에 옮겨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목할 것은 이 해에 국가사무를 보는 의정부와 별도로 왕실사무를 전담하는 궁내부가 설치되면서 정치체제가 이원화되고, 이는 향후 관원들의 복식이 이원화되는 단초가 되었다. 복식 용어상으로는 ‘대례복’이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용어는 이후 대한제국기 복식제도까지 계속 사용된다. 복식의 구성에 있어서는 단령이 아닌 두루마기와 답호를 입을 때 사모를 쓰게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法規類編, 개화기와 대한제국(박도, 눈빛출판사, 2012), 대한제국기 궁내부 대례복 연구(최규순, 정신문화연구 3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우리나라 문관의 전통식 관복 착용 소멸에 관한 소고(최연우·조상준, 한국복식3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4), 우리 생활 100년·옷(고부자, 현암사, 2001), 의관에서 패션으로(김도훈,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비평사, 1998).

필자 최연우(崔然宇)

갓

정의 조선시대에 성인 남자들이 일상 통행 시에 착용한 대표적인 관모.

개관 갓의 한자 표기는 ‘입笠’이다. 원래는 햇볕이나 비바람을 가리기 위해 식물성 재료를 거칠게 엮어 머리에 쓰기 시작했던 ‘실용적인 용구’로서의 쓰개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사대부들이 일상 통행을 할 때 착용한 대표적 관모인 ‘흑칠한 갓’ 즉 흑립黑笠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협의로는 입笠의 발달단계에서 최종 단계의 것인 흑립만을 ‘갓’이라고 지칭한다. 또한 입자笠子란 갓을 한결 격식 있게 부르는 용어로서, 주로 흑립의 이칭으로 사용된다.

입笠은 착용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 『설문해자說文解字』, 『양사전良耜傳』, 『무양전無羊傳』에 “입笠은 더위와 비를 막는 데에 쓰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발생 초기에는 용기나 도구로서의 요소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점차 재료가 다양화되고 제작 방법이 발전하면서 종류와 용도가 확대된다.

입笠 착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자료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당기고 있는 고구려의 감신총龜神塚 벽화 인물과, 차양에 손을 대고 나는 새를 쫓는 매를 바라보고 있는 안악 1호분의 수렵 인물에서 확인된다. 형태는 모정이 둥글고 차양이 넓으며, 끈을 턱에 걸어 맨 듯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 『삼국유사三國遺事』 원성왕조에 ‘착소립着素笠’의 기록이 있다. 『고려사高麗史』 지권26 여복輿服에는 1367년(공민왕 16) 9월 “백관시착립조알白官始着笠朝調”이라는 기록과 함께 흑초방립, 백방립 등도 관리들의 관모로 등장한다. 따라서 몇 종류의 입笠은 고려 말에 이르러서 점차 신분이나 관직을 나타내는 사회적 기능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모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흑립, 곧 갓이 등장하게 된다.

흑립이라는 용어가 처음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1367년(공민왕 16)에 품계에 따라 정자장식頂子裝飾(입식)에 차이를 둔 흑립을 관리의 관모로 제정하면서부터

터이다. 그러나 이때의 흑립은 대우와 양태의 구분이 명확한 평량자형平凉子型일 것이라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고, 재료나 형태 측면에서 조선시대 흑립과의 공통점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정자장식은 원래 원나라 관리들이 많이 착용한 발립鉢笠에 특징이 보이며, 고려 말 인물의 초상화에서도 발립을 착용한 예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발립의 수용은 고려시대 여러 종류의 입笠이 점차 사회적 기능을 갖게 되는 것과 관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조선 입제의 대사회화 과정으로 확대되면서 조선시대 사대부 관모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흑립의 생성을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태종실록太宗實錄』 1417년(태종 17) 12월의 기록을 보면 “대소 관리는 아침(출근) 길, 눈비가 오는 날(雨雪日)이 아닌데도 입笠을 착용하는 자가 있어 미편未便하다(편안하지 않다).”라고 했으므로, 태종 때에는 입笠을 쓰고 궁궐에 출입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써 입笠은 이미 우설雨雪 중에도 쓸 수 있는 칠漆을 올린 입자, 즉 흑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의장조儀章條에 “일품에서 삼품까지는 금, 옥의 관자와 입영立纓을 사용하고, 입식笠飾은 은을 사용하며, 대군은 금을 사용한다…… 사헌부, 사간원, 관찰사, 절도사의 입식은 옥정자, 감찰은 수정정자를 사용한다.”라고 하였으니 조선 초 성종 때까지의 흑립은 고려 말에 제정된 정자 장식의 흑립과 그 제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경국대전』에 마미립馬尾笠, 부죽립付竹笠, 죽지립竹織笠, 승결립繩結笠 등의 기록,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종립鬃笠,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는 죽립竹笠, 승립繩笠, 이라립裏羅笠 등의 기록을 통해 입자의 재료나 제작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써 조선의 입제는 성종 대를 지나면서 점차 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성종 때부터는 입양笠樣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갓은 둥근 모정에 테가 넓은 원정광첨圓頂廣簷 모양이었다. 이 모습은 곧 조선 초 인물인 김시습金時習의 초상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입자, 즉 흑립의 모정은 편평해지고, 모부帽部는 위가 조금 좁고 아래는 넓은 상협하관上狹下寬의 원통형을 갖추게 되었다. 모



발립 | 이승인 영정 | 성주 이씨 대종회

부의 높이와 입첨의 광협廣狹은 시대에 따라 계속된 논의와 변화를 보이며 조선 말까지 대표적인 관모로 사용되었다. 이는 갓이 조선의 관모 중에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조선 말에 이르러 개화운동과 함께 모든 의관문물衣冠文物의 서구화 과정에서 점차 사라져 버렸다.

내용 입笠은 형태상으로 대우(모자집)와 양태(입첨)의 구별이 없는 방립형方笠型 갓인 샛갓(노립蘆笠)·방갓(방립方笠)과 그 구별이 뚜렷한 평량자형平凉子型 갓인 평량자(平凉子·蔽凉笠·패랭이)·초립草笠·흑립으로 분류한다. 또 흑립과 기본 형태는 동일하나 색깔에 변화를 주어 만든 주립朱笠·백립白笠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입제와 근원은 다르나 군용軍用으로써 고려 말, 조선 초부터 사용되면서 조선 입제의 한 부분으로 자리한 전립이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의 갓이라고 하면 방립형과 평량자형에 속하는 모든 종류의 입笠을 포괄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패랭이·초립의



높이 20.5 지름 72.3 | 19세기 초반

흑립 | 국립민속박물관



높이 10.7 지름 40.3 | 19세기 말



백립 | 높이 16.5 지름 17 | 1995

갓 | 국립민속박물관



갓집 | 높이 14 지름 41.3 | 조선



입영(갓끈) | 조선

입영·입식 | 국립민속박물관



입식(호수) | 길이 38 | 조선



갓 쓴 양반들 | 김홍도 | 연광정연회도 중 부분 | 19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되어 조선시대 대표적인 관모로 발전한 흑립을 지칭하며, 이에 조선시대의 입笠으로서 대표성을 가진 흑립만을 일반적으로 ‘갓’ 혹은 ‘입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1. 갓(흑립黑笠)의 제작: 흑립은 통상 대나무를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오린 세죽사나 말총으로 대우(모자집)를 만드는 과정과 세죽사로 양태(입침)를 각각 짜는 과정 및 갓방에서 이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 이 세 과정의 분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우와 양태를 모은 밀뿌리에는 홍사紅絲나 청사靑絲, 녹사綠絲를 돌려 붙이고(합사 돌린다), 밀뿌리의 대우 안쪽에는 따로 미리 만들어 둔 은각을 붙인다(땀새).

완성된 갓의 모자집은 모정이 편평하며 위가 조금 줄어든 상협하관의 원통형이고, 입침은 아래로 약간 우긋하게 곡선을 이루게 된다. 각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어교칠, 먹칠, 옷칠 및 싸기 올리기, 입침인 양태의 모양을 아래로 우긋하게 버렁 잡은 일(트집 잡기) 등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다.

흑립은 다시 제작 과정에서의 거칠고 섬세함[精粗]이나 싸기의 종류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구분된다. 이들은 각기 신분과 용도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다.

2. 종류(싸기의 종류와 제법상의 정조精粗에 따른 분류)

1) 진사립: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죽사로만 대우와 양태를 네 겹으로 엮고 그 위에 중국산 축사를 한 올 한 올 입혀 칠을 한 갓이다. 왕이나 귀인이 착용하는 극상품의 갓으로 왕이 쓰는 어립御笠에는 대우와 양태를 연결한 부위에 당사唐絲를 물들여 꼬아 홍사를 돌렸다. 이를 ‘합사 돌린다’라고 한다.

2) 음양사립: 진사립 다음 등품으로 모자집은 말총으로 곱게 엮어 만들고 양태는 죽사를 쓴다. 양태에는 견사의 일종인 축사를 올려 옷칠을 하고 대우와 양태를 연결한 부위에는 청사를 두른다.

3) 음양립: 음양사립 다음 등품으로 말총으로 엮은 모자집(총모자)에 양태는 죽사를 쓰나 양태 위에 축사 대신 생초를 입혀 옷칠을 한다. 대우와 양태를 연결한 부위에는 녹사를 두른다.

4) 마미립[鬃笠, 馬鬃笠]: 말총으로 대우와 양태를 한 고급

품이다. 마미립은 『경국대전』에 처음 사족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대전속록』 형전에도 “종립鬘笠 시산조사時散朝士 허착許着”이라 하였으며, 『대전후속록』 금제조에는 당상관 외에는 종립의 착용을 금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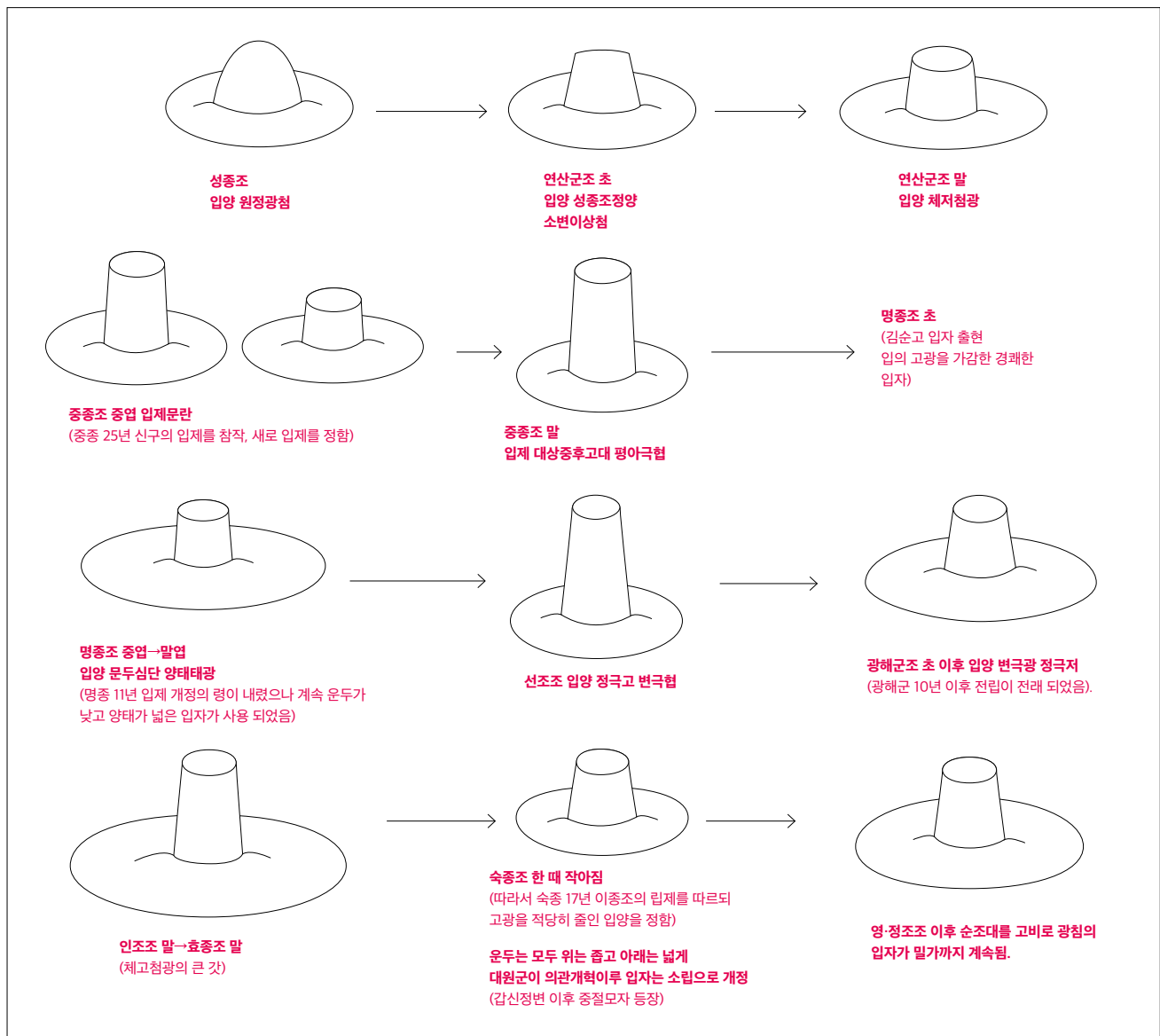
5) 기타

- 포립: 총모자에 죽사의 양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태 위에 명주를 입힌 것이다.
- 부족립: 『경국대전』 예전禮典 잡령조雜令條에 사족士族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죽직립, 승결립: 『경국대전』 예전 잡령조에 서인庶人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형태 변화: 시속時俗에 따라 대우의 높고 낮음과 양태의 넓고 좁음에는 자주 변화가 있었다. 갓의 모양에 대하여 처음 논의가 된 것은 1485년(성종 20) 3월 “입笠 모양이 승립僧笠과 같으니 이를 개정하라.”라고 하는 기록에서부터이다. 당시의 갓은 정상이 둥글고 테가 넓은 형태였다. 연산군 초에는 둥글던 모정이 조금 뾰족하게 변하였고 이후 점차 모자집의 모양은 위가 좁고 아래는 넓은 상협하관의 원통형에 가까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갓 모양의 변화를 역대 왕조별로 보면, 연산군 말에는 대우가 낮고 양태가 넓은 형인데, 중종 말에는

갓



흑립 변천 과정

대우가 극히 높고[臺上極重厚高大] 양태는 좁아진다[坪兒極狹]. 이어 명종 중기에서 말에 이르면 다시 대우가 매우 낮고[雲頭甚短而] 양태는 넓어지나[涼臺太廣], 선조 때는 대우가 높고 첨이 극히 좁아진다. 광해군 때에 다시 양태가 크고 대우가 낮은 입자가 유행하였고[邊極廣 頂極低], 인조와 효종 때는 큰 갓[帽子極高 涼台太闊]이 유행하였다. 이후 숙종 대에 이르러 한때 작아졌으나 영·정조 대의 갓은 그 시대의 풍속도에서 볼 수 있듯이 양태가 비교적 넓으며, 순조 말기에는 더욱 넓어져 종전의 어깨를 덮을 정도에서 얇은 사람을 완전히 덮을 정도가 되었다. 대원군 때에 이르러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종래의 큰 갓은 작은 갓으로 바뀐다.

4. 수식: 갓의 제작이 정교해짐에 따라 이를 꾸미는 장식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입식笠飾에는 정자頂子, 맥수麥穗나 호수虎鬚, 공작미, 상모 등이 있으나, 일상 통행시에 착용했던 갓, 즉 흑립에는 입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갓끈(입영笠纓)에 대한 호사를 중요시했다.

갓끈에는 턱밑에 묶는 실질적 역할의 비단 끈 외에, 각종 옥을 꿰어 가슴 밑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형상의 패영貝纓이 있다. 갓은 머리 위에 얹는 형상으로 쓰기 때문에 갓을 머리 위에 고정시키는 데는 실질적 역할의 비단 끈이 일차적이나, 갓의 부속물로서 중요한 것은 치렛거리로서의 역할을 다한 패영이다. 패영의 재료로는 대모玳瑁·밀화蜜花·금파金波·상아象牙·수정水晶·유리琉璃·옥玉·마노瑪瑙·산호珊瑚·호박琥珀·대나무[竹] 등이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갓은 머리카락처럼 고운 세죽사로 짠 반투명의 섬세한 죽세공품이다. 갓 착용 시 모자집은 머리 위에 단정히 얹혀진 형태이므로, 망건의 정중앙 위쪽에 달린 풍잠을 모자집 속으로 밀어 넣어 갓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검은색의 비단 끈을 턱 밑에 매어 갓을 고정시킨다. 여기에 밀화나 호박, 대모 등으로 만든 갓끈을 가슴 밑으로 내려뜨려 그 멋을 한층 더하였다. 또한 옷칠을 올려 단단한 형으로 정형화된 상협하관의 모자집과 아래로 우긋한 모양의 곡선을 이루고 있는 양태는 긴장감과 함께 여유로움을 준다. 더욱이 반투명의 멋스

러움마저 갖는 흑색의 갓은 백색의 복식과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조선시대 남자복식에서의 에로티시즘과 절제미의 상징물이며 동시에 조선 최고의 미적 산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모자람이 없다.

흑색의 갓, 즉 흑립은 사실 비기능적이며 비실용적인 모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갓 아래로 길게 내려뜨린 패영으로 멋을 더하고 비가 오면 그 위에 갈모를 쓰며, 잘 다듬은 육중한 목제나 생피 갓집에 보관하는 등, 갓에 대한 사랑과 갓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지대한 것이었다. 또한 갓이 걸려 있는 곳은 항상 상석임을 표현할 정도로 갓에 대한 존경과 정성은 곧 의관을 존중했던 당시대의 복식 규범에서 연유한 것이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명선-중(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우리 관모의 시말에 관한 연구(강순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우리나라의 관모(강순제, 한국의 복식문화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학연문화사, 2006).

필자 강순제(姜淳弟)

강사포 絳紗袍

정의 강색 비단으로 만든 곧은 깃의 대수장포大袖長袍로 왕과 황제의 조복용 표의.

내용 강사포絳紗袍는 왕의 원유관遠遊冠, 황제 통천관通天冠과 함께 일습으로 가례嘉禮와 길례吉禮, 흉례凶禮때 착용하였다. 정조와 동지, 탄일, 납비, 관례, 기로소 입소 등 경사시 조하朝賀를 받을 때 백관 4품 이상은 조복을 입고 왕은 강사포를 입어 조복朝服으로 착용하였다. 친제親祭 시에는 거가車駕 출궁과 입궁, 희생犧牲을 살필 때 등 다양한 의례에 착용하였고 국장 시에는 소렴의小殮衣로 사용되었다. 강사포의 사전적 의미는 여름용 얇은 비단[紗]으로 만든 강색의 장포長袍이며 강색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대적大赤이라 하여 짙은 홍색을 의미한다. 1411년(태종 11)에 강색은 소목蘇木으로 염색하는데 수입품이므로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현재 강사포 유물은 남아있지 않으나 문헌과 사진 자료를 통하여 다

홍색이나 진홍색의 라·항라·숙초·무문사·갑사·공단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으나 관행적으로 강색인 강사포라 명칭 하였다.

강사포는 『후한서後漢書』 여복지에 천자의 조복으로 통천관이 있고 원유관은 제왕들이 쓰는 것이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370년(공민왕 19) 명 태조가 보내준 원유관복 일습이 최초의 기록으로 확인된다. 칠량七梁 원유관·강사포·방심곡령放心曲領·홍상紅裳·백사중단白紗中單·폐슬蔽膝·홍혁대紅革帶·백가대白假帶·백말白襪·흑석黑烏 일습이었다.

조선에서는 1395년(태조 4) 친제親祭를 위해 종묘로 출궁할 때 강사포를 입었고, 1398년(태조 7)에는 세자가 왕위를 물려 받은 후 강사포로 갈아입고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1400년(정종 2)에는 강사포 차림으로 종묘에 향과 축을 전하였고, 1401년(태종 1) 고명과 금인을 가지고 온다는 예부의 자문咨文을 받고 군신의 하례를 받을 때 강사포를 착용하였다. 1438년(세종 20) 10월에는 주청한 원유관복을 받았고, 1441년(세종 23)에는 사여받은 구량九梁 원유관복에 대한 사은 표문을 올렸는데 이는 조선의 유일한 사여 기록이다. 반면 『명사明史』 조선열전에는 1438년(정통 3) 8월 세종에게 원유관과 강사포, 옥패玉佩, 적석赤烏을 보낸 구체적인 기록이 있다. 명에서는 1393년(홍무 23)부터 피면복皮弁服으로 개정되었으나 조선식의 원유관복이라 명칭하였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1474) 가례조嘉禮條에는 전하의 원유관복이 도설圖說되어 있고,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1751)에는 왕세자의 원유관복 도설이 있다. 정조대 『춘관통고春官通考』,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에도 보이며, 영조 대 『상방정례尙方定例』에는 강사포 착용시 원유관 재료를 포함하여 부속제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다.

왕의 원유관복은 규圭·원유관·의(강사포)·폐슬·상·대대·중단·패[玉佩]·수[後綬]·말과 석 일습이다. 규와 패, 수, 대대, 말, 석은 면복과 동일하였고 이후 옥대가 추가되었다. 방심곡령은 면복 일습에 제례용으로 포함하였다. 왕의 규는 청옥이었으나 17세기 초부터 백옥으로 바뀌어 영조 대 전하의 백옥규는 길이 9촌, 너비 3촌, 머리를 뾰족하게 깎는 염수剡首는 1.5촌으로 규정



강사포 | 고종황제 어진 | 1918년경 | 국립고궁박물관

하였다. 원유관은 둥근 형태의 모자 틀에 검은색[玄] 라로 짜고 황·창·백·주·흑색의 5색 구슬 9줄을 앞뒤로 배열한 9량관에 금잠을 꽂는다. 왕세자는 3색 8량관으로 구분하였다. 강사포는 직령 교임형으로 소매가 넓고 길이가 길다. 강라絳羅로 만들었으나 점차 계절에 적합한 비단으로 만들었으며 동일한 옷감으로 깃, 수구, 도련을 둘렀으며 문장紋章이 없다. 상은 전3폭, 후4폭의 주름치마로 문장이 없다. 중단은 소재의 라로 만들어 깃과 소매 끝, 밑단에 홍색으로 선[緋]을 들렀으며 깃 중심에 불문黼紋 11개, 왕세자 7개를 니금으로 그렸다. 한편 1882년 왕세자 순종의 가례 기록인 「궁중발기」에는 청삼靑衫으로 되어 있다. 폐슬에도 문장이 없으나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1758)에는 가장자리에 오색사로 선을 둘렀으며 고종황제 강사포 착용 사진에도 오색 다회가 확인된다. 대대는 걸 비라緋羅 안 백라로 합

쳐 만들었으나 숙종대에 표백리홍(表白裏紅) 대대로 개정하였다. 『상방정례』에는 다홍색과 초록색 운문단으로 되어 있다. 옥패는 면복과 동일하며 소수(패대)와 후수는 중국의 홍화금(紅花錦)으로 만들었으나 영조 대에 5색 단으로 직조하여 사용하였다. 적말과 적석은 면복과 동일하였으며 석은 단화(短靴) 형태이다.

대한제국 성립과 함께 황제용 조복으로 바뀌어 5채옥 12량 통천관에 옥잠도를 꽂는다. 소사(素紗) 중단에 불문(黼紋) 13개를 부금한다. 적석(赤鳥)으로 운두가 낮은혜(鞋) 형태이며 나머지 부속 제구는 면복과 동일하였다.

유물은 국가민속문화재 제274호 ‘의왕 원유관’이 있다. 의화군에서 의왕(의친왕, 1877~1955)으로 책봉 받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자색 비단 바탕에 적·백·창색의 3채 7량관으로 16개의 유리옥이 있다. 『상방정례』에는 원유관 재료로 대죽(大竹), 잠(簪)을 포함하여 오색각주 26개 등 구체적인 기록이 있다. 또한 화재로 소실된 순조 원유관복 어진이 있으며 검은색 바탕 원유관에 5채옥의 흔적이 남아있고 교의 손잡이 아래로 패옥 일부가 확인된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에는 통천관복 차림의 고종황제 흑백 사진과 채색된 통천관복 초상이 있는데 초상은 사진과 유사하다. 그러나 통천관 12량이 백색이며 대대와 조대, 밑자락의 모호한 선단 처리, 적석이 아닌 흑화를 신고 있고 배경에 일본풍이 감지되는 등 문제가 있다. 1922년 4월 영친왕비가 순종 황제와 황후에게 조현례를 올리고 촬영한 황실가족 사진 가운데 순종황제 통천관복 차림을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강사포는 원유관과 일습으로 착용하는 왕의 조복으로 군신들의 조하를 받을 때 주로 착용하였다. 고려 말 1370년부터 1922년 순종 황제가 입은 통천관복까지 장기간 착용하였던 관복이다. 명명 친왕 관복에 준한 것이었으나 이미 피변복으로 개정된 상황에서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원유관복 제도를 준용하였다. 대한제국 성립으로 황제 통천관복까지 조복의 제도를 유지하여 왕실 관복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참고문헌 高麗史, 國朝喪禮補編,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國朝五禮儀序例, 宮中撥記, 大明會典, 明實錄,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국립고궁박물관, 2010), 고종대례의궤(서울대학교규장각, 2001), 국역 중국정사여북지(민속원, 2014), 문화재대관(문화재청, 2006), 상방정례(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어진에 옷을 입히다(난사전통복식문화재연구소, 민속원, 2016),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적색계 색명의 의미(남윤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필자 박성실(朴聖實)

개두

蓋頭

정의 입자(笠子) 위에 천을 덮어서 만든 것으로, 조선시대 여성이 상복(喪服)을 입을 때 머리에 썼던 쓰개의 하나.

내용 우리나라에서 개두(蓋頭)가 언제부터 상복에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보면 조선 태종 때 여성의 상복용 쓰개로 개두가 처음 언급되었다. 1408년(태종 8) 태조가 승하하면서 예조에서 상복을 상정하였는데, 정비전(靜妃殿, 원경왕후)·대비(大妃, 성비(誠妃)·숙빈(淑嬪)·궁주(宮主)·옹주(翁主)와 각전(各殿) 시녀(侍女)의 상복에 개두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른 것으로,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의(凶禮服制)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었다. 개두를 조금 가는 생포(稍細生布)로 만들어서 왕비 이하 내외명부까지 쓸 수 있었고, 시비(侍婢) 이하에게



① 국조상례보편



② 국조속오례의서례

③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상) | 1689

개두 | 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③ 국립중앙박물관

는 금하였다. 대상大祥을 지낸 이후에는 흑개두를 썼다. 1892년(고종 29) 신정왕후神貞王后 상제 때 상의원에서 중궁전에 올린 「의차발기衣次發記」에도 흑개두가 보이며, 조라皂羅 여섯 자가 소요된다고 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의에서 개두를 우리나라 여자의 입모笠帽로 대신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임하필기林下筆記』를 보면, 조신曹伸의 『소문쇄록謏聞瑣錄』에 “우리나라 사족의 부녀가 밖에 나갈 때는 모두 조라阜羅로 원립圓笠을 덮고 사방으로 한 자 남짓씩 드리우고 쓰는데,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대개 당唐나라의 맥리羈羅와 유모帷帽, 혹은 개두라고도 한다.”라고 하여 여자의 입모, 즉 너울과 개두가 같은 제도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장도감의궤國葬圖監儀軌』의 행렬도에 그려진 궁녀들의 모습에서도 확인된다.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에서는 개두를 속칭 너울이라고 하였다.

1744년(영조 20)에 편찬된 『국조속오례의서례國朝續五禮儀序例』의 흥례, 상복을 보면 개두의 그림과 더불어 형태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개두는 청죽靑竹을 사용하여 모고帽高를 만드는데, 위는 뾰족하게 하고 아래는 넓게 한다. 안은 흰 비단으로 쓴다. 또한 조금 가는 생포 열두 자를 사용하는데, 잘라서 여섯 폭을 만들고 나서 다시 열두 폭으로 자른다. 한쪽 머리는 좁게 한다. 좁은 머리를 위로 향하게 하여 그것을 잇달아 꿰매어 모帽 위에 씌운다. 또 포布 석 자를 사용하는데, 이를 세 조각으로 나누어 꽃잎 모양을 만들어 모정帽頂에 붙인다. 속칭 여립모女笠帽이다.”라고 하였다. 이 제도는 1752년(영조 28)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이르러 “개두는 베를 사용하며 최관衰冠과 같다. 대나무를 사용하여 모대帽壘를 만드는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다. 포백적으로 베 열두 자를 여섯 폭으로 나누고, 열두 폭으로 자른다. 그것을 장군長君과 같이 연결하여 꿰매서, 모대에 덮어씌우는데 참취斬衰는 가장자리邊를 꿰매지 않고, 재취齊衰 이하는 가장자리를 꿰맨다. 별도로 사방 다섯 치의 베 세 조각을 각각 둥글게 마름질하여 모정帽頂에 포개어 붙인다.”라는 내용으로 수정, 보완되었다.

특징 및 의의 개두는 입자 위에 천을 덮어서 만든 것으로, 너울과 같은 제도이고, 중국 당대 여성의 맥리·유모에

기원한다. 국상 때 시비侍婢 이하의 사람은 개두를 쓰지 않은 것을 볼 때, 가례 때의 너울과 마찬가지로 개두가 격이 높은 쓰개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國葬都監儀軌, 國朝喪禮補編, 國朝續五禮儀序例, 林下筆記, 朱子家禮, 增補四禮便覽, 고문서집성1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여성 쓰개의 역사(홍나영, 학연문화사, 1995), 조선조궁중풍속연구(김용숙, 일지사, 1987),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조선시대 왕실문화 도해사전(kyujanggak.snu.ac.kr).

필자 김지연(金知娟)

개량복 改良服

정의 개화기 이후 법령에 의하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전통복식을 간소화하여 경제성 및 활동성을 추구한 복식.

내용 개량복改良服이란 전통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된 것으로, 복식의 기본 틀을 부분적으로 서서히 변형하며 개량을 진행하는 복식을 말한다. 복식 개혁처럼 복식의 기본 틀을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주로 법령에 의해 강압적으로 시행되는 데에 비해, 복식 개량은 법령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발적인 사회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이루어지는 한복 개량에 관한 논의는 개화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지만, 복식 개량은 이미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활발하게 논의하던 주제이기도 하였다. 이때는 ‘개량’ 혹은 ‘개혁’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는데 조선시대에서 의복 형태나 제도의 변화는 곧 사회적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실학자들은 검소하고 절약하는 풍속을 이루고, 허례를 벗어나 시대 변화에 따른 편의와 융통성을 지니며, 불편함을 벗어나 기능성을 추구하는 복식 개량 안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개량은 개화기의 복식 개량과 유사하게 기능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띤다. 이익李瀾은 소매가 좁고 옷자락이 짧은 부인복을 편리하며 현실의 풍속이라는 점에서 인정하였으며, 관직자의 단령 색을 검소하게 개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지원朴趾源은 철릭의 소매가 넓고 한삼이 길어 용

복으로서 비실용적이므로 개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덕무李德懋는 갓의 제도가 높고 넓어 볼품이 없을 뿐 아니라 불편하여 이 점을 개량하고, 패랭이는 더 실용적이고 품위 있는 형태로, 전립은 실용적인 형태를 취하고 계절에 따라 구분하여 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적삼 끝의 한건汗巾이 일하기에 불편하므로 없애야 하며, 사모紗帽의 각이 길고 단령團領의 소매가 넓으며 품대品帶가 험령하여 개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 복식 제도의 개량 및 개혁론은 사회 전반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개인의 가문이나 문벌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친 경우가 많았지만, 아주 느린 속도나마 이들이 주장한 대로 서서히 변화되기도 하였다.

전통복식 개량이 다시 적극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된 시기는 개화기였다. 갑오개혁의 복제개혁과 갑신 의제개혁에서는 주로 남성복을 중심으로 관복을 비롯한 전통 일상복이 간소해지고 양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남녀 일반인의 복식 개량은 느리지만 점진적이고 자발적인 변화로 일어났다. 관복은 좁은 소매의 흑색 단령으로 통일하고 일반인의 전통 겹옷은 좁은 소매의 흑색 두루마기로 통일하였다. 당시 선교사들은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으로 염색하도록 한 것을 일본 복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하였다. 남성의 국민 예복으로는 1908년 중추원中樞院에 건의된 두루마기 형태에 단령의 깃으로 소레복을 참고한 형태가 있었으며, 총독부에서는 남성의 혼례복으로 개량 도포, 개량 단령, 그리고 남녀 개량 상복喪服을 제시하였다. 일반인 사이에는 간편한 마고자가 애용되었다. 또한 서구 문화가 유입되면서 전통문화와의 혼합 현상이 일어나, 전통복식에 서양복식의 요소를 혼합하거나 서양 복식 디테일이 수용된 개량복도 있었다. 남성복에는 양복 조끼를 나름대로 변용하여 주머니와 단추가 있는 한복용 개량복으로 정착되었으며, 양복 주머니를 한복에 혼용한 형태 등 서구 복식 문화와의 혼용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전통복의 개량화는 여성복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개화사상과 서구 기독교 유입 등에 의한 여성 의식 개혁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기독교 전도부인의 옷과 여학생 교복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의 개량복으로 제안된 내용들은 주로 장옷

과 쓰개치마의 폐지, 남성복이었던 두루마기와 마고자 착용, 긴 저고리와 통치마, 어깨허리가 달린 짧은 통치마, 서양 옷과 전통한복이 절충된 철릭 형태의 원피스, 짙은 색상으로 염색하는 것 등이 있었다. 여성 교육을 목표로 한 여성단체인 찬양회에서 1898년 공개적으로 쓰개치마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필두로 1911년에는 모든 여학생들이 쓰개치마를 벗게 되었다. 두루마기와 마고자는 남녀평등 실천이라는 사상적 목적과 보온 효과라는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구한말 이후 여성들에게 착용되기 시작하였다. 양규의숙養閨義塾에서는 1906년에 개교하면서 남성의 적삼과 같은 길고 짙은 청색 적삼에 치마를 교복으로 착용하게 하였다. 1906년 정부에서도 여성 복식을 상하 동색으로 하고 저고리 길이를 길게 하여 살이 보이지 않게 한다는 개량 방안이 제시되었다. 전통의 긴 치마를 통치마로 개량하는 것은 1907년 『제국신문』 논설에 제의된 바 있다. 한복 치마의 어깨허리는 1911년 이화학당의 교사 월터 A. J. Walter와 파이 O. F. Pye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것은 긴 치마의 허리끈이 풀어져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가슴을 압박하는 위생과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체육 시간에 착용하였으나 곧 일반 여성에게도 급속하게 전파되어 개량복으로 정착되었다. 어깨허리가 부착되고 길이도 짧아진 통치마 개량복은 그 후 1914년 이화학당 체육 수업에도 사용되었으며 일상복으로도 확대되었다. 이 검정 통치마의 주름은 서양 주름스커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치맛단까지 굽은 주름을 잡았다. 한편 1906년에는 전통복 염의와 서양복식이 혼합된 개량복으로 저고리에 주름치마를 연결한 원피스가 제안되었는데, 동서와 고금을 절충한 의복제도와 하였지만 오히려 서양복식과 유사하였다. 1925년의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에는 서양복식을 응용한 개량 앞치마, 아이 개량복이 수록되어 있지만, 개량복보다는 서양복식을 수용한 의복의 개량 방안이라 볼 수 있겠다.

일제강점기의 개량복은 민족 자주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여 개화기의 개량복에 비해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긴 저고리와 짧은 통치마, 색채 옷이 장려되고 고름 대신 단추를 다는 등 소극적인 개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의 전시 체제 아래

에서는 물자를 절감하기 위해 길이와 폭을 조정하고, 1939년에는 방공 훈련을 위해 여성의 간단복, 몸빼가 등장하였다. 광복 이후에도 한복 개량화 운동은 적어도 1950년대까지 계속되어 동정과 깃이 없는 적삼, 농어촌 부녀의 개량 바지 및 저고리가 개량복으로 제안되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개량 시도 이후 구한말과 개화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복의 개량화에서 추구된 가치는 각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학자들의 복식 개량안은 절약과 검소함, 기능성, 품위와 예의, 시대 변화에 따른 편의성과 융통성, 현실성, 실제성을 추구하는 합리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즉, 습속에 따라 현실에 적응하며, 형식적인 것보다 실제적인 의생활 그리고 복식을 개량하여 기능적이고 편리한 의생활이 되기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개화기 이후의 복식개량론은 개화사상의 대두에 의한 일종의 사회개혁으로서, 전통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인식에 의해 구습을 타파하고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화기의 개량을 통하여 추구된 바는 활동성, 간소화, 경제성, 위생, 예의, 절약, 검소, 다양성 등이었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절약과 검소함에 집중되었으며, 광복 이후 1950년대까지 근대 한국사회에서의 개량복 역시 간소화, 절약, 활동성이 추구되었다. 한복 개량 운동 결과 오늘날까지 사회적으로 수용된 개량한복 형태는 어깨허리 통치마, 고름이 없어지고 길이가 길어진 저고리, 서양 포켓의 수용, 양복 형태의 조끼, 소매통이 좁은 흑색 두루마기 등이 있다. 긴 기간에 걸쳐 시도된 개량복 중에서 여성복의 경우에는 전통성을 지닌 개량복이 수용된 반면, 남성복에서는 동서양이 혼합된 양식이 수용되어 차이를 보인다.

참고문헌 개화기 복식의 변천과 그 요인(이송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생활한복의 형성배경과 그 내용적 특성에 대한 고찰(정혜경, 복식51-2, 한국복식학회, 2001), 조선재봉전서(김숙당, 호문사, 1925), 조선후기 실학파의 복식제도론(정혜경, 한국의류학회지21-6, 한국의류학회, 1997), 한국 개화기 여성복식의 변천요인(김경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한국현대여성복식제도의 변천과정연구(남윤숙,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한복 개량 운동에 관한 고찰(홍나영, 복식15, 한국복식학회, 1990).

필자 정혜경(鄭惠敬)

정의 개화기 이후 서구 합리주의와 기능주의를 접하면서 전통 한복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량하기 위해 제작된 한복의 통칭.

내용 개량한복(改良韓服)이란 통상적으로 개화기 이후 이루어진 한복 개량화 작업으로 제작된 한복을 일컫는다. 당시에는 개량복, 신생활복 등으로 불렸으며, 개량한복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그보다 훨씬 후의 일로 보인다. 광복 후인 1960년대에 근대화 기치를 내세우고 산업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전통이란 낙후된 것이며 개량되고 개혁되어야 될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그에 따라 다시 한복 개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개량한복의 변화를 개화기, 광복 이후, 1960~1970년대 산업화 시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개화기의 개량한복은 전통한복에 기능성, 간소화, 경제성 및 활동성 등을 추구한 일상복이라 할 수 있다. 통상적인 남자 개량한복은 소매가 좁은 흑색 두루마기와 간편한 마고자, 서양 조끼의 양식을 도입한 한복 조끼, 고름 대신 단추가 달리고 주머니가 달린 한복, 두루마기 형태에 단령이 달린 국민 예복 등이 있었다. 여성 개량한복은 긴 적삼, 상하동색의 한복, 어깨허리가 달린 긴치마, 어깨허리가 달린 통치마와 긴 저고리, 서양 주름스커트의 영향을 받아 치맛단까지 굽은 주름을 잡은 검정 통치마, 고름을 없애거나 단추를 단 저고리, 남자의 두루마기와 마고자를 모방한 것 등이 있었다. 광복 이후 남성복은 양복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강해져 개량한복은 주로 여성복을 대상으로 시도되었다. 1949년 신생활장려추진위원회에서 여성복으로 동정과 깃이 없는 적삼과 통치마를 제정하여 간이복이라 칭하였다. 1954년에는 국민생활 간소화운동이 전개되어 여성복은 통치마에 옷고름이 폐지되는 안이 제시되었다. 1958년에는 농어촌 부녀의 개량바지와 저고리가 제안되었다. 개화기 이후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복 개량화에서 추구된 지향점은 주로 활동성, 간소화, 경제성, 획일화, 아름다움, 위생, 예의, 절약, 검소함을 추구

한다. 1960년대에는 그 외에도 실용화, 다양화, 예복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추가되었다.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들어선 1960년대 역시 개량한복은 여성복에 한정되어 1960년대 초에는 신생활 디자인쇼에서 개량 두루마기와 아리랑 드레스가 등장하였다. 1961년에 제안된 신생활복은 어깨허리가 달린 통치마에 볼레로식 저고리와, 서양복 구성이 더해진 저고리가 등장하였다. 이 개량한복은 기존의 한복 형태를 부분적으로 변형시키면서 서양복 구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스타일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복 고유의 특성을 상실하고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함도 여전하자, 1965년 이후에는 오히려 전통적인 복고풍 한복으로 예복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1970년대 전반에 개량한복은 외출복으로서 양장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기능성과 간편함을 추구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활동적인 여성상의 강조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실용적인 의복이 추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후에는 산업화 과정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복은 예복의 기능이 강화되어 장식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실제적인 생활복인 개량한복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그런데 1984년에 또다시 한복의 생활화라는 이름으로 이리자의 ‘개량한복연구 발표회’ 등 다양한 개량한복 디자인이 나왔지만, 이 시기에는 민족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개량한복으로서 생활한복이라 불리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개량한복은 비합리적인 내용을 합리적인 것으로 개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전통한복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그에 따라 한복의 개량이 시작된 개화기에는 서구의 기능주의와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근대화의 영향으로 기능성, 활동성, 경제성 등을 개량한복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처럼 개량한복은 1970년대 전반까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1980년대 생활한복의 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복 개량운동의 대표적인 결과, 여성 개량한복은 어깨허리 통치마에 고름이 없으며 길이가 긴 저고리로 전통적 특성을 유지한 것과, 남성 두루마기와 마고자의 도입으로 인간의 평등을 구현한 것을 들 수

있다. 남성 개량한복의 대표적인 형태는 소매와 고름 등 디테일이 간소화된 전통한복과, 서양복 조끼를 나름대로 개척 변용한 한복조끼 및 서양복 주머니를 전통복에 혼용한 형태 등 서구적 혼용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경제발전과 복식의 서구화와의 관계연구-한국 여성복을 중심으로(전양진, 한국의류학회지23-8, 한국의류학회, 1999),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고정민·채금석, 한국의류학회지23-5, 한국의류학회, 1999), 생활한복의 형성배경과 그 내용적 특성에 대한 고찰(정혜경, 복식51-2, 한국복식학회, 2001), 한복 개량 운동에 관한 고찰(홍나영, 복식15, 한국복식학회, 1990).

필자 정혜경(鄭惠敬)

개신교복 改新教服

정의 개신교 성직자와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이 예배의 직능을 수행할 때 입는 의복.

내용 개신교복은 개신교 예배 특징에 맞추어 예배 집례를 맡은 성직자와 예배 순서를 담당한 신자들이 입는 옷으로 여러 교파의 특징에 따라 사용 유무나 형태에 차이가 있다. 또한 예배의 내용과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예복에 착용하는 장식과 색깔을 달리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개신교 예복의 기원은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루터의 개혁 사상에 기초해서 갱신된 루터교 전통의 예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종교 개혁 운동의 핵심 원인은 로마 가톨릭의 오랜 종교·제도적 관습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기인했다. 특히 로마 가톨릭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였던 희생 제사로서의 미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미사와 관련된 예복 역시 거부되었다. 더욱이 급진적인 개혁 세력은 성직 계급에 저항하였기 때문에 계급을 표시하는 성직자의 예복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재세례파가 이에 해당하는데, 성직자를 일반인과 구별하는 복장이나 예배 집례 시에 예복의 착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루터는 가톨릭교회의 예배 의식과 예복을 단순화했지만, 상당 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가톨릭 사제가 착용했던 검은색 가운을 성직자

가운으로 채택했고 옷깃 모양도 차용했다. 특히 예배의 형식적 측면에서 고정된 성만찬 예문의 사용과 강조는 가톨릭의 예배요소와 연속선상에 있었고, 예복 사용에서도 연속성을 일정 부분 유지한 것이다.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칼뱅도 루터와 마찬가지로 검은색 가운을 예배 집례를 위한 성직자의 공식 가운으로 채택했다. 검은색 가운은 16세기 교수, 법관, 관리들과 수도승들이 사용하던 외출복을 변형한 것이다. 검은색은 “하나의 거룩하고 세계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의 전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목회 자에게 부여된 사도적 전통의 계승과 그 권위를 표상한다. 칼뱅이 목회하였던 제네바 교회에서는 일명 제네바 가운을 입었다. 제네바 가운은 검은색 바탕에 소매가 넓은 긴 예복으로 그 위에 흰띠를 둘렀다. 그러나 성례전의 집례나, 부활절, 성탄절의 경우 흰색 가운을 사용할 수 있었다. 스톨stole은 예복 위 어깨에 두르는 긴 천으로 교회가 지키는 교회력敎會曆(그리스도의 구세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기념일이나 축일을 일 년간에 배당한 달력)에 따라 흰색·적색·녹색·흑색으로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한국 장로교에 많은 영향을 준 미국장로교의 가운은 칼뱅 전통에 기반을 두고서 제네바 가운 위에 스톨을 반드시 착용함으로써 성직 수행과 교회력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스톨의 상단에는 교단의 마크를 새겨 넣는 것이 통례적 사용 방법이다. 대부분 한국 장로교 목사들도 이와 같은 방법을 따른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서 기독교 토착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예복 사용도 변하게 됐다. 토착화는 기독교와 현지 문화와의 융화를 시도하며 기독교가 현지 문화에 쉽게 다가가도록 하는 선교 방법이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예배 시 사용하는 예복으로 한복을 개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교회인 경동교회의 예복을 들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개신교복은 통일된 사용지침이나 의복이 없고, 강제력 또한 없다. 예복 착용의 기본 목적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함이다. 특히 설교자의 가운 착용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전하는 자로 성별된 사명과 그 수행을 구별하고 표현하는 데 있다. 찬양대

의 가운 역시 성별된 사명의 이행을 알리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기독교 예복에 관한 기독교인의 의식 조사(이은옥·이현정·오경화, 복식 53-3, 한국복식학회, 2003), 예배의 신학(정장복,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예배의 재구성(박은규,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필자 연규홍(延圭鴻)

개오기

정의 홍화로 염색된 직물의 색을 잿물로 게워내서 다른 직물에 신국을 쳐서 물들이는 기법.

내용 개오기는 1809년 빙허각 이 씨가 지은 『규합총서 閏閣叢書』에 다른 나라에 없는 독창적인 기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홍화 꽃잎에 잿물을 쳐서 물을 우려내면 빨간 색이 짙게 나온다. 무명에 우선 넣어서 물을 들인다. 그리고 찌꺼기 물은 버린다. 직접 들이면 물빛이 곱지 못하므로 물빛을 머금은 무명조각에 잿물을 쳐서 명주에 들이면 선명해진다. 또한 『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 및 『천공개물 天工開物』에 따르면 홍화는 침향이나 사향을 대단히 두려워하므로 홍화로 물들인 의복을 이런 향료와 함께 간직하면 한 달 사이에 색이 바랜다. 또 홍화로 물들인 견직물의 색이 감색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물에 적서 소다수나 벗짚의 잿물 수집 방울을 견직물 위에 떨어뜨리면 홍색이 완전히 빠져 원래의 흰 바탕으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빠진 물을 녹두 가루에 스며들게 하였다가 다시 이를 써서 홍색으로 염색하면 한 방울도 허비되지 않는다. 염색집은 비방이라 하여 바깥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다. 실제 녹두 가루는 염액을 흡수하여 가두는 성질이



녹두가루에 염액 저장



잿물로 무명의 홍색소 추출

개오기 | 충북 단양 | 2009 | 김영열

탁월하다. 홍색의 직물에 잿물로 빼낸 염액이나 홍화 꽃의 잿물로 빼낸 염액도 녹두 가루에 가두어 놓을 수 있다. 가두어 놓은 홍색소를 잿물로 빼내고 오미자초나 매실초를 넣으면 거품과 함께 발색하여, 고른 염색의 염직물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견뢰도(堅牢度)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그 외 솜에 홍색소를 가두었다가 위의 방법으로 빼서 물들이는 법도 있다.

특징 및 의의 홍화의 염색은 천연 소재 직물에 가능하다. 천연 소재로는 동물성 및 식물성이 있다. 동물성 소재의 견 종류에는 황색소와 홍색소가 동시에 염색이 되고 식물성 소재에는 홍색소만 염색되는 성질이 있는데, 개오기 염색법은 두 가지 직물에 가능하다. 대홍색으로 염색된 직물이나 작품에 보관상 이상이 와서 다시 물들여야 할 경우와 염색하면서 미처 물들이지 못한 경우에 염액을 무명에 계속 먹도록 하여 손실 없이 색소를 모아 잿물에 뺀 후, 오미자초를 넣어 맑은 홍색소만으로 물들이는 기법이다. 이 방법으로 물들이면 순수한 홍색소만 염색되므로 밝고 아름다운 색을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閨閣叢書, 林園經濟志, 천공개물(송응성, 최주 역, 전통문화사, 1997).
필자 김경열(金景烈)

개짐

정의 여자의 월경 혈을 받아내기 위해 접거나 꿰매 살에 차는 형질.

내용 조선시대에 중국어 발음과 뜻을 한글로 옮긴 어휘 사전 『역어유해(譯語類解)』에는 ‘月布 조흔세답’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답(洗踏)’은 원래 ‘빨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개짐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 흔히 사용되었다. 개짐의 재료로는 무명이 가장 널리 쓰였으며, 기저귀감처럼 부드럽고 흡수성이 좋은 옷감을 선호했다. 경우에 따라 낡은 무명옷을 재활용하거나 오랫동안 입어 부드러워진 삼베옷을 잘라 여러 겹 겹쳐 썼는데 삼베



개짐 |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개짐은 무명에 비해 사용 후 혈흔을 제거하기가 한층 수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짐은 대개 옷감 조각을 여러 차례 접거나 꿰매 직사각형의 작은 기저귀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월경에 대한 공개적 언급이 드문 만큼 개짐의 형태와 제작법이 제시된 문헌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현지조사를 통해 개별적인 제작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만들어 쓴 사람에 따라 모양과 재질, 사용 기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현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개짐 만드는 방법은 크게 ‘접기’와 ‘접어서 꿰매기’로 나뉜다. ‘접기’는 일정 크기 이상의 옷감을 여러 번 접어 두툼한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각형 옷감 가운데에 약 10cm 정도의 폭을 남긴 채 대각선으로 겹쳐 접는 방법도 있다.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작은 옷감 여러 장을 부분적으로 겹친 뒤에 개짐의 형태를 만들기도 했다.

‘접어서 꿰매기’는 개짐을 접은 뒤에 일정한 형태와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자리를 바느질 해 고정하는 것이다. 드물지만 월경 혈이 흐르거나 옷에 묻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옷감을 두껍게 접고, 전체를 격자모양으로 누벼 사용한 예도 확인할 수 있다. 접어 만든 개짐은 사용 후에 펼쳐서 세탁하고 다시 개켜 보관해야 하지만, 접어서 꿰매거나 누빈 개짐은 빨래를 할 때 뜯을 필요가 없고 건조 후 반복해서 정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개짐을 살에 고정하는 방법은 아기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개짐에는 움직일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고리를 다는 등 약간의 편의성을 더한 점이 다르다. 직사각형이나 대각선으로 접어 꿰맨 개짐의 양쪽 끝에는 별도의 가느다란 옷감 고리를 만들어 달고

거들치마

여기에 끈을 꿰어 허리에 돌려 묶었다. 대각선으로 접은 개짐은 뽕죽하게 나온 양쪽 끝을 안쪽으로 접어 실로 꿰맨 다음 그 자체를 고리로 활용했다. 고리를 다는 대신 허리에 묶은 끈 사이로 길게 접은 개짐의 양쪽 끝부분을 빼내어 걸쳐두는 방식을 사용한 예도 있다.

일반적인 빨래와 달리 개짐에는 혈흔이 남기 때문에 얼룩을 깨끗하게 지우기가 쉽지 않았다. 사용한 개짐은 젖물에 넣어 삶아 빨거나 오줌에 담가 혈흔을 완전히 빼내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넣어 말렸다. 월경을 하지 않을 때는 개짐을 접어서 작은 상자나 옷궤 구석, 시집을 때 가져온 세숫대야에 넣어 보관하고, 외출할 때는 기름종이에 싸서 별도의 주머니에 넣거나 옷감으로 말아서 휴대했다.

지역사례 전라남도 진도에서는 가뭄이 심해지면 마을 여성들이 개짐을 장대에 내걸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늘을 찌르는 시위를 했다. 평안북도 영변 지방에서는 “길 가다 개짐을 주우면 재수가 좋다.”라는 말이 전해진다. 평소에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깊숙이 넣어 보관하는 개짐을 길에서 우연히 줍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운이 좋다는 뜻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에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재앙이 닥치면 이웃마을을 디딜방아를 훑쳐 거꾸로 세우고 그 사이에 개짐을 걸쳐두었다. 개짐이 공개되는 것에 하늘이 놀라 나쁜 기운을 거두어 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월경은 후세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식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산多産한 여자의 피가 묻은 개짐을 얻어서 살에 차면 아들을 낳거나 많은 자손을 얻는다는 믿음이 있었다. 남자의 상여가 나갈 때 길잡이 역할을 하는 공포公布로 개짐을 만들면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남아로 바꿀 수 있다는 속설도 널리 퍼져 있었다. 산삼 캐러 다니는 심마니들이 아내의 개짐을 몸에 지니고 산에 오른 풍습 또한 여자를 좋아하는 산신을 꾀어 산삼을 찾아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고문헌 譯語類解, 선비와 피어싱(조희진, 동아시아, 2003).

필자 조희진(趙熙眞)

정의 조선시대 여성들의 예장용 치마, 혹은 긴 치마를 걷어 올려 입는 방법을 가리키는 말.

내용 조선시대 출토복식 가운데 치마폭이 넓고 길이가 긴 예복용 치마 중 앞보다 뒤가 길어 땅에 끌리게 만들어어진 치마를 ‘거들치마’라고 한다. 예장용 거들치마는 앞은 걷기에 편리하도록 바닥에 닿는 길이지만, 뒤로는 20cm 가까이 끌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방식의 치마들은 뒤가 부피감이 있도록 만들어 우아한 실루엣을 연출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전세前世 유물 중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치마는 보이지 않는다.

예장용이 아닌 일상용 거들치마는 긴 치마를 입고 길을 걸을 때 치마가 끌리지 않도록 치마폭을 가슴 부분으로 걷어 올린 후 허리띠를 묶어 입는 방식 혹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은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풍속화에서 거들치마를 입고 외출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예장용 거들치마는 주로 16세기 분묘에서 출토된다. 출토유물을 고찰하면, 치마의 앞과 뒤의 길이 차이가 나도록 만들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앞뒤 폭의 길이 차이를 만들기 위해 앞쪽에 깊은 가로 주름tuck을 잡아 앞부



거들치마 | 길이 135.6 폭 544.5 허리 99 | 남양 홍씨 묘 출토 | 1400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분만 들어 올리게 만든 것이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소장 남양 홍씨 배위 유물이 이에 속한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앞뒤 폭의 길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 뒤폭의 옆선에서 가로 방향의 다투dart 주름을 잡아 앞폭과 같은 길이로 만든 것이다. 문경 옛길박물관 소장인 국가민속문화재 제254호 평산 신씨 묘 출토 예복용 치마가 여기에 속한다. 일상용 거들치마는 양반이나 기녀들이 실내에서는 땅에 끌리는 긴 치마를 입고 생활하지만, 실외로 나갈 때 치마가 땅에 끌리지 않게 길이를 걷어 올려 입은 것에서 생긴 것이다.

참고문헌 명선-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박성실·조효숙·이은주,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조선조 치마-저고리 특별전(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7).

필자 홍나영(洪那英)

건

정의 형짚 따위로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역사 건巾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당서唐書』 동이전 신라조에 “신라의 남자는 머리를 깎아 팔고 흑건黑巾을 썼다.”라는 데에서 확인된다. 고려시대에는 우왕 대에 직급에 따라 오건烏巾을 착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장위복(군복)에도 주로 낮은 계급 사람들이 문라건文羅巾을 착용했다. 진사복進士服은 사대문라건四帶文羅巾, 농상복農商服은 사대오건四帶烏巾을 썼는데, 빈부에 따라 포부에 굵고 가는 차이가 있었다. 민장복民長服에는 문라건을 썼다고 하는데, 여기의 문라건은 사대문라건과 같은 것으로 사대四帶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사복道士服에는 조건사대阜巾四帶를 썼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흑건黑巾 또는 조건阜巾·백건白巾·자건紫巾 등에 대한 기록들이 보인다. 흑건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여사輦士 30인은 자의紫衣에 흑건”을, 『문종실록文宗實錄』에 국상 중 “생원生員도 또한 백의白衣·흑대黑帶·흑건”을 착용, 『단종실록端宗實錄』에 경전에 대해 강론 시 “여러 유생儒生은 흰 옷에 흑건”을 쓰고, 『단종실록』에



① 흑건 · 고구려



② 머릿수건 · 고구려



③ 조건순니장 · 조선 후기

건 | ① 덕흥리 고분, ② 각저총, ③ 신윤복 | 주사거배 중 부분 | 간송미술문화재단

발인반차의 및 애책哀冊과 사詞를 올릴 때 “자의에 흑건을 착용, 여사가 10인이니 곧 근장近仗이다. 자의·흑건” 『세조실록世祖實錄』 발인반차의에서 “자의에 흑건”, 『예종실록睿宗實錄』 발인 시 “30인은 자의에 흑건을 착용한다. 여사 40인은 자의에 흑건을 착용한다.”, 『영조실록英祖實錄』 별감과 각 차비인의 상복 “25개월의 상제 뒤에는 천담복을 입고, 흑건을 쓰고”, 『순조실록純祖實錄』 왕세자의 성복을 행하다 “생원生員·진사進士·생도生徒는 학교學校에 들어갈 때에는 백건白巾으로, 전내殿內에 들어갈 때는 흑건을 쓰도록 하고” 등의 기록들이 있다. 『숙종실록肅宗實錄』과 『경종실록景宗實錄』에 “줄곡卒哭 뒤에 선인選人이 조건阜巾과 청대靑帶를 하는 것” 이외 홍례 의식에 백의와 백건을 착용했다는 기록들도 곳곳에 보인다. 자건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에 “소친시 별감小親侍別監 12인이 자의에 자건을”, 『단종실록』에 “소친시 12인과 별감 40인이 모두 흑의와 자건을 착용, 유생은 흰 옷에 흑건을”, 『세조실록』에 “봉지 별감捧持別監 4인이 서로 바꾸는데, 흑단령黑團領·자건”, 『예종실록睿宗實錄』에 “시위 군사侍衛軍士 청의靑衣에 자건”,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에 근인들이 “자의에 자건을”,

『영조실록英祖實錄』 “위졸衛卒이 자의·자건”, 『순조실록』에 “입번入番한 액정서의 하례가 번을 비우고 뛰어나가 홍의紅衣에 자건” 등이 있다.

내용 건의 용도는 주로 머리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점차 일정한 틀을 유지하면서 관모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 인물이 쓴 검은색의 뒤에 자락이 달린 것을 흑건으로 볼 수 있으며, 쌍영총 연도 벽화 여인들의 머릿수건에서 머리 주위만을 두르는 형태와 수건을 접어서 머리의 주위 및 상부까지를 덮어 뒤에서 맺는 형태의 두 가지 착용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와서 건巾의 사용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조건阜巾(검은색 건)은 왕에서 하인까지 착용한 두건으로 계급에 따라 비단·마포·갈포 등 재료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두건에 달린 대帶의 수로 구분한다. 귀족 계급은 양대兩帶, 일반인들은 사대四帶였다. 고려경高麗鏡 뒷면의 인물도에는 뒤에 뻗어 있는 2개의 끈(양대)으로 보아 귀인의 조건을 표현한다. 이제현李齊賢(1287~1367)의 편복 차림 초상화를 보면 검은 건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조건을 착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색은 흑색·자색·백색 건을 사용하였고, 일정한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나장이 착용한 머리쓰개가 건의 모습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건은 주로 관모로 이행되기 전 단계의 것으로 정해진 형태 없이 평상복으로 사용되었으며, 점차 관모화되어 일정한 틀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건은 후드hood 혹은 머릿수건으로 현재까지 일반인들에게 다양하게 애용된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역사인물초상화대사전(이강철, 현암사, 2003), 한국미술전집4-벽화(김원룡, 동화출판공사, 1980),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개론(김문자, 교문사, 2015), 朝鮮古蹟圖譜(朝鮮總督府編, 靑雲堂, 1916).

필자 김문자(金文子)

정의 다른 이의 머리카락을 덧넣어 머리를 장식하는 고구려 부인의 머리모양 중 하나.

내용 ‘幘’을 ‘괵’으로 읽어 ‘건괵’이라고도 하며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이다. 『구당서舊唐書』 동이전東夷傳 고려조高麗條와 『신당서新唐書』 동이전 고려조에 “고구려 부녀가 머리에 건귀巾幘을 했다.”라는 기록으로 등장하며, 옛날에는 ‘차次’, ‘피被’ 또는 ‘체계髻髻’라고도 하였다. 차次는 길고 짧은 머리를 순서대로 맞춘 것으로 ‘머리털을 차례차례로 한다’라는 의미로 머리털이 적은 사람이 덮어서 머리털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체계의 계髻는 ‘머리를 묶어 만든 것’을 의미하므로, 건귀는 머리카락을 실로 짜듯 만든 후 모자처럼 두발 위에 올리는 일종의 장식적인 가발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때 여자들의 간단한 머릿수건 정도의 쓰개로 주장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조선시대의 큰머리와 같이 필요에 따라 머리 위에 얹어 두발을 크게 장식하는 가계假髻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는 자신의 두발을 기초로 하여 다리 등을 덧붙이는 가체加髻와는 다르다.

『주례周禮』에서 “건귀는 철사로 테를 만들고 머리털로 겹을 둘러 엮어 둥글게 만든 가계假髻”라고 한다. 한대漢代의 태황태후와 황태후 제복祭服의 머리 장식은 ‘전리괵剪鬘’이라고 하는 일종의 장식용 계였다. 야크 꼬리털이나 말 꼬리털, 견사로 만든 가계를 건귀이라고



묘주 부인의 시녀들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

건귀 | 안악 3호분 | 고구려

불렀는데, 말 꼬리털로 만든 가계가 전리곡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면 안악 3호분 여인의 머리 장식이 중국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고구려 부인의 건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징 및 의의 건귀는 부녀자의 머릿수건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고구려 부인의 머리 모양이었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머리에 얹어 두발을 크게 장식하는 형태로 확인되는 가계의 초기 형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가계와 보요에 관한 연구(김용문, 복식18, 한국복식학회, 1992), 동양복장사논고-고대(스기모토 마사토시, 문광희 역, 경춘사, 1995),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임경화(林晁花)

경대 鏡臺

정의 화장할 때 사용하는 화장구이자, 화장품과 화장용품들을 보관하는 용구.

내용 경대鏡臺는 덮개 내부에 거울을 부착해서 화장할 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한 화장도구로 좌경座鏡이라고도 한다. 좌경은 앉은 자세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화장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높이와 기울기는 대부분 사람의 앉은키에 매우 적합하였다.

이외에도 경대는 하나에서 세 개 정도의 서랍을 배치해서, 사용자가 화장을 마친 후에 자신의 화장품과 화장 용구를 보관하였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덮개를 평평하게 해서 닫은 후에 경대를 한쪽으로 치워서 정리하거나 문갑 등 가구 위에 얹어 놓기도 한다. 경대는 모서리를 대부분 각을 세워서 모나게 처리한 직육면체인데, 간혹 약간 둥글게 처리하였다.

경대는 조선 후기에 유리 거울을 부착하면서 대중화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 거울이 조선으로 전래된 이후, 빗집에 이를 부착해서 완성한 화장 용구가 경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대와 빗집은 외관으로 보기에 서로 유사하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동경에 걸이를 달아서 벽 등에 걸어 놓고 자신의 얼굴을 비추면서 화장품

과 빗 등을 이용하여 화장했다.

1883년 판유리 공장이 인천에 세워진 후, 유리 거울 생산은 종래 청동제 거울과 수정 거울을 대신하면서, 경대 보급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동경은 자연스럽게 화장 도구로 사용되지 않아 끝내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여성들은 이전에 청동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던 것보다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꼼꼼하게 화장했을 것이다. 판유리 대량 생산은 체경體鏡 또는 주련경柱聯鏡 보급을 가져와 오히려 경대 수요를 점차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거울의 보급은 여성들에게 얼굴 중심으로 자신을 가꾸던 부분적인 단장에서 몸 전체 단장으로 관심을 갖게 하였다.

사용자는 경대에 거울을 부착한 덮개를 연 후에, 45도 정도 비스듬히 세워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화장하였다. 그리고 뒤로 덮개를 젖히면, 자신의 얼굴 전체와 좌우 옆모습까지 직접 보면서 화장할 수 있다. 경대 활용은 화장의 편의성 증진으로 화장의 완성도 향상과 화장 기술 발전에 한몫하였다. 여성들이 자신의 미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대를 탐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신부가 혼인할 때 반드시 준비하는 중요한 혼수 품목 중 하나가 되었다.

경대는 기본적으로 나무를 사용해서 제작하며 표면에 칠 등을 하였다. 느티나무와 먹감나무 등은 경대의 주요 재료였다. 표면은 생칠을 해서 나뭇결을 그대로 살려서 자연의미를 느낄 수 있게 했으며, 색채를 다양하게 하고, 문양과 장식을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였다. 장인들은 주칠로 단출하지만 경대의 품격을 높여 했고, 자개와 화각, 대모 등으로 문양을 장식하기도 했다. 그들은 은행나무 경대에 회양목 같이 다른 재질의 나무로 만개한 꽃문양을 제작해서 경대에 부착하였다.

문양은 자개를 덮개 윗면, 몸통 앞면과 측면에 소나무·사슴·거북·학 등 장생문과 봉황·원앙·박쥐·대나무와 연꽃 같은 각종 무늬 등을 표현하였다. 이들은 부부 화합과 자손번창, 장생의 의미 등을 담은 길상문이다. 자개는 옷칠한 후 꿰음질 기법과 조패법 등으로 길상문을 활용하면서 경대를 장식하였다. 금구장식은 불로초와 제비추리 경첩·달형 앞바탕·박쥐 들쇠·감잡이·손잡이 등을 배치하였고, 길상의 상징물을 새기기도 하였



① 높이 12 가로 13 세로 17

② 높이 8.5 가로 11.6 세로 15.8

경대 | ①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조선 후기 | 천안박물관

다. 경대 제작자와 주문자는 가족의 수복강녕의 바람을 문양 새김과 장식 부착을 통해서 나타냈다. 모서리에 부착한 감잡이는 시간이 지나 부재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이와 반대로 장식과 문양을 최소로 하여 단출하게 제작한 경대도 눈에 띈다.

대부분 경대 구조는 덮개와 몸통, 서랍, 다리로 이루어진다. 덮개는 유리와 테두리를 제작해서 배치하고, 접고 펼 수 있게 만들었다. 즉, 덮개는 두 조각으로 분리하고 경첩을 달아 접기도 하고 펴기도 하였다. 몸통은 지지대를 세우고 서랍을 배치하였다. 서랍을 대부분 노출해서 1~3개를 배치하였다. 이와 달리, 외부에 여닫이문을 배치하고, 내부 지지대에 서랍을 배치해서 이중으로 잠금을 한 경대도 있다. 외부 여닫이문은 잠금만 잘하면 경대를 이동하는 중에도 서랍이 밖으로 볼썽 튀어나오지 않게 안정적인 장치 역할을 한다.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화장품과 용구 등은 밖으로 쏟아지지 않는다. 다리는 몸통보다 약간 크면서 낮게 제작하여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다리는 마대와 족대, 풍혈로 갖추기도 하였으며, 하나의 다리로 만들기도 하였다. 풍혈 대신에 뇌문을 새기기도 하였다. 경대 구조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장식은 염원과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경대는 형태에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여닫이문 없이 서랍이 노출된 경대는 ‘가깨수리경대’로, 입면 네 모서리를 금구장식으로 장식한 경대를 ‘사모쌔기경대’로, 장식금구 제비추리 명칭에서 유래된 경대를 ‘제비추리경대’로 불렸다. 목침 겸용 좌경은 대체로 남성이 사용하는 소형 경대이다. 장식과 문양으로 사용

한 재료에 따라 경대는 ‘화각경대’, ‘자개경대’, ‘화류경대’로 불렸다.

서랍에는 분과 연지 등 각종 화장품·분접시·분물통·연지 반죽그릇·소병·합·족집게·빗·머릿보와 실·수건 같은 화장도구, 빗 빗치개·뒤꽂이·비녀·불두잡 같은 장신구를 보관하였다. 간단한 소품도 서랍에 보관해서 생활 속에서 요긴하게 경대를 활용하였다.

경대는 주로 여성들이 사용한 화장 용구이지만, 남자들 역시 이용하였다. 선비들은 의관정제(衣冠整齊)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격식이었기 때문이었다. 선비들은 상투 등 머리 수식을 정리할 때 경대 등을 사용하여 가지런히 하였다. 여성용 경대는 금구장식을 풍부하게 부착하여 화려하며, 크기 또한 큰 편이다.

남성용 경대는 하나의 서랍이 달렸고, 소형으로 필요한 금구장식만 달아서 소박한 맛을 풍긴다. 목침만한 크기로 만들고 안팎을 옷칠하거나 오동나무에 인두로 지져서 취색하기도 하였다. 상류층에서 사용한 경대나 주련경은 조선 후기에 제작했는데, 대부분 화류나 자개를 박은 나전칠기 제품을 만들어 썼다. 경대는 보통 안방의 문갑 위에 놓고, 주련경은 벽의 기둥에 걸어 놓고 사용하였다.

경대는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필수품이었다. 조선시대 왕실은 중국에 가는 사신들에게 경대를 지참토록 해서 선물로 보내는 동시에, 일본 왕실로부



경대 | 김홍도 | 큰머리 여인 | 조선 후기 | 서울대학교박물관

터도 선물로 받았다. 국장 시에도 경대를 제작해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왕후의 죽음은 경대의 향이 사라지고 내용이 텅 비어 있는 것으로 슬픔을 표현하였다.

조선 초중기와 후기 경대는 구조가 달랐다. 왕실 관련 자료는 이를 잘 알려 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국장 때 쓰는 거울 한 개를 구리로 제작하고 자색 생초로 띠를 하며 붉은 칠의 갑(匣)과 대(臺)를 갖춘다고 기술하였다. 선조의 국장 때는 『국조오례의』가 제시한 대로 갑과 대를 단목(檀木)으로 제작하고 주철을 하였고, 주철 3량으로 거울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 유리 거울을 활용하기 전까지 경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며, 경대가 왕실에서 요긴하게 쓰였던 생활 기물이었음과 동시에 상징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복(同福) 송추만(宋樞萬)(1902~1991)은 다리·지지대·서랍·거울과 테두리·덮개를 제작하여, 금구장식을 부착하는 것으로 경대 제작을 마무리하였다. 송추만의 경대 문목 제작 방법은 문갑이나 삼층장 등과 같았다. 그는 먹감나무와 귀목, 배나무 등을 사용해서 경대를 만들었다. 우선 먼저 박쥐다리형 풍혈의 족대를 만든 후에 네 면에 통목을 세우고 연귀붙임짜임을 하고 서랍을 만든다. 이어서 덮개에 거울을 만드는데, 배나무로 테두리를 만들고 네 귀를 당귀테로 한다. 이때 당귀테는 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거울은 허리를 접을 수 있게 만들어 접으면 덮개가 되고, 펴면 세워져 화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한다. 문짝 앞바탕, 네 면의 귀 등에 금구장식을 부착하는 작업으로 경대 제작을 마무리한다.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망은 삶에서 기본적인 욕망이다. 따라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남에게 감추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여성들의 마음일 것이다. 따라서 옛 여인들은 머리에 동백기름을 윤기가 나게 바르고, 눈썹을 먹으로 초승달처럼 가늘게 그리며, 뺨을 복숭아빛으로, 입술을 앵두빛으로 연지를 칠했다. 그리고 얼굴에 백분을 짙게 발라서 피부가 창백하게 보이게 했다.

화장 도구는 예나 지금이나 신부의 주요 혼수품이다. 현대에 들어서도 신부에게 화장대는 혼수에서 필수품이다. 신부가 마련해 가는 화장대는 거울과 서랍장, 의자로 한 세트를 구성한다. 서랍장 위에 화장품과 화

장 도구들을 비치하며, 주로 침실에 배치해서 잠자기 전에 화장을 지우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화장 공간을 세면장 주변에 마련하고 거울과 화장대를 붙박이로 배치한다.

특징 및 의의 경대는 화장구로서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였지만 남녀 공용이었으며, 계층별로도 왕실과 사대부, 일반 서민들도 생활 속에서 요긴하게 사용하였다. 자신의 맵시를 꾸미는 실용적인 기능이 있지만, 가족의 수복강녕이라는 현실적 바람을 문양과 장식 부착을 통해서 솔직하게 나타내기도 하였다. 구조와 장식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아름다움도 아울러 표현하였다. 경대는 실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멋을 고루 갖춘 생활 속의 가구로 조선시대 목칠 가구의 형태와 구조 문양을 축소 집약한 모습을 보여 주며, 문양 또는 배치 양식은 그 집안의 가정 경제력과 풍모를 엿보게 한다.

참고문헌 國葬都監儀軌, 國朝五禮儀,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배만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한국민족대백과사전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화장문화사(전완길, 열화당, 1987).

필자 박종민(朴鍾珉)

경사 經絲

정의 직물을 구성하는 세로 방향의 실.

내용 직기(織機)로 천을 짤 때 세로 방향의 실을 경사(經絲)라고 한다. 경사는 직물을 짤 때 경사가 감긴 빔으로부터 나란히 송출되는데, 경사의 울수에 따라 직물의 폭이 결정된다. 경사는 종광(綜統(잉아)의 눈에 울을 끼워지고, 이들 경사가 별도의 장치에 의해 2군 이상의 종광 틀로 나누어 각각 위와 아래로 벌어져서 개구(開口)를 만들면, 위사(緯絲)를 감은 북이 개구 속을 지나가게 된다. 북실, 즉 북 속에 담겨 끌려 다니는 위사는 개구 속을 가로질러 모든 경사의 위아래로 교차하여 위입(緯入)이 일어난다. 다음으로 이 위사를 바디(reed)로 쳐서 이미 짜여진 천의 끝에 바짝 밀어붙임으로써, 비로소 경사와

위사의 조직이 완성된다. 이처럼 한 계열의 실만으로 편직물을 짜는 편직기에 반하여, 직물은 경사·위사 두 계열의 실을 사용하여 개구-위입-바디질 등의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천의 경사 방향으로 연속된 직사각형의 직물을 짜게 된다.

경사는 직기 뒤편의 소켓(socket)에 장치될 수 있도록 경사빔에 감겨져 있고, 직기 뒷면에서 송출(送出) 운동 기구에 의하여 직물이 제직됨에 따라 고르게 송출된다. 경사는 옷감이 다 짜일 때까지 직기에 걸어 두기 때문에 항상 장력을 받는다. 따라서 제직이 잘될 수 있도록 경사에 더 많은 꼬임을 준다. 또한 경사는 위사보다 마찰에 잘 견뎌야 하므로 위사보다 더 강해야 한다. 경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주로 풀을 먹인 실을 사용한다. 이처럼 경사가 직기에서 장력을 받았기 때문에 제직 후에는 경사 방향이 위사 방향보다 크게 수축되는 성질이 있다.

참고문헌 섬유사전(한국섬유공학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89), 우리 옷감 이야기 103(강순제 외, 교문사, 2012).

필자 조효숙(趙孝淑)

경찰복 警察服

정의 개항 이후 경찰 조직에서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 경찰관이 근무할 때 착용하는 서양식 제복.

내용 한국에서 서양식 경찰복이 처음 제정된 것은 1895년 갑오개혁 때이다. 이전에는 경찰과 군대가 분리되지 않아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구군복을 입었다. 경찰복을 비롯해 개항 이후에 도입된 공공기관의 서양식 제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에 의해 의복과 그 외 장비까지 세밀하게 규정되는 점. 둘째, 중요한 부분에 상징적인 문양이 들어가는 점. 셋째, 계급장으로 착용자의 계급이 눈에 보이게 구별되는 점. 넷째, 예복과 평상복의 구별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경찰복을 구성하는 복식 종류는 시대에 따라 구분된다. 1895년에 국내 최초로 서양식 경찰복이 제정

되었을 때는 평상복 모자, 평상복, 하복이 정해졌다. 1897년에는 바지 규정이 추가되었다. 그 후 1899년에 평상복과 별도로 예복으로서 상의·바지·식대·칼(도서刀緒와 도대刀帶 포함)·장갑·구두가 정해졌다. 같은 시기에 평상복에도 장갑과 칼, 권총, 그리고 외투가 추가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1910년의 순사와 순사보(巡査補) 복제, 1918년과 1932년의 조선총독부 경찰관 복제를 따랐다.

광복 이후 규정된 복제(1946)에 모자는 겨울 모자와 여름 모자, 상의로 동복과 하복, 바지, 구두가 있었다. 여자 경찰관의 복제도 정해져서 모자와 상의, 치마, 구두, 어깨에 메는 가방이 있었다. 1949년에는 경찰모와 상의·하의·외투·비옷 규정이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 특수모와 전투모·방화구·방수구·방한구·경찰모·권총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1966년의 복제에서는 경찰모와 제복·경찰화·계급장·표식장·장구·부속물이 규정되었다. 모자에는 정모와 작업모가 있었으며 모장(帽章)에는 정장(正章)과 약장(略章)이 있었다. 제복에는 정복과 근무복·성하복·작업복·외투·우의의 구별이 있었다. 정복과 근무복에는 동복과 하복의 두 종류가 있었다. 경찰화는 단화와 기동화, 작업화가 있었고 계급장은 정장과 약장이 있었다. 표식장에는 흉장과 경찰장이 있었다. 장구는 혁대와 경찰봉이 있었고 부속물로는 와이셔츠·노타이셔츠·넥타이·타이핀·단추와 허리띠가 규정되었다.

예장(禮裝)은 1977년에 신설되었으며 모자의 종류에는 예모와 정모, 근무모와 전투모가 있으며, 제복은 경찰복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예복과 점퍼가 추가되었다. 계급장으로 예장의 견장과 수장(袖章)이 추가되었다. 제복이라고 규정되었던 상의가 경찰복(1984)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명칭의 변경이 있었다. 작업모와 작업복이 전투모와 전투복으로, 작업화가 훈련화로, 견장과 수장은 어깨표장과 소매표장으로 바뀌었다. 표식장은 모자표장과 가슴표장, 경찰장으로 구성되었고 모자표장은 정장과 약장의 두 종류가 되었다. 장구에는 수갑과 경적이 추가되었다.

이후 간소화 작업이 진행(1995)되어 예복을 없애고 정복에 예복견장을 달면 예복이 되고 근무복 위에 정복을 입으면 정장이 되었다. 전투모는 기동모, 전투



① 구한말 순검의 경찰복



② 경무관 복장

경찰복 ③ 경찰박물관, ④경찰박물관



③ 경무사 동예복 | 1895



④ 순검 동상복 | 1910년대

복은 기동복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훈련화 대신에 반장화가 정해졌다. 또한 경찰복에 춘추 점퍼와 파카가 추가되었다. 계급장은 정장·약장·어깨표장이 되었다. 표식장이 표지장으로 바뀌었고 종류가 늘었는데 기존의 모자표장과 가슴표장, 경찰장 이외에 지휘관표장, 지휘관표지, 기동복 표지장, 교관표장, 사격휘장, 기타 표지장이 추가되었다. 장구는 외근장구와 기동장구, 특수장구로 나뉘었으며 외근장구는 현대·경찰봉·수갑·포승·경적이 되었다. 부속물에는 장갑이 추가되었다.

2009년에는 경찰제복이 경찰모와 경찰제복, 경찰화, 계급장, 휘장 및 부속물로 구성되었다. 경찰모는 정모와 근무모로, 경찰제복은 정복(하복, 동복), 근무복(하복, 동복), 기동복(하복, 동복), 점퍼(봄가을, 겨울, 방한), 외투(반외투, 예장 외투), 임부복(하복, 동복)으로 분류되었다. 경찰화는 단화와 기동화, 장화가 있었고 계급장은 정장, 약장, 예장이 있었다. 휘장은 모자표장(정장, 약장)와 가슴표장, 경찰장, 지휘관표장, 지휘관표지, 기동복휘장, 경찰표장, 어깨휘장, 교관표장, 사격휘장이 있었다. 부속물은 흰색 와이셔츠, 장갑, 외근경찰관 방한장갑, 귀덮개,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이름표로 구성되었다. 또한 경찰기동대와 항공경찰관, 경찰의장대원 등의 복식도 별도로 규정되었다.

2016년에 시행된 복제에서는 경찰복식이 경찰모·경찰제복·경찰화·계급장·경찰장·견장·휘장·부속물로 구성되었다. 모자와 경찰제복, 경찰화, 계급장의 구

성은 기존 제도와 동일하며 휘장 중 모자표장이 정모와 근무모, 교통근무모로 나뉘어졌다. 특수복식으로 경찰기동대원 등의 복식도 따로 정해졌다.

위와 같이 경찰복을 구성하는 복식 종류의 변천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종류도 적고 규정도 대략적이었는데 점차 세분화되었다. 그 후에는 간소화하여 현재의 경찰복제도로 정비되어 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1966년에 세분화가 이루어져서 제도의 기본이 마련되었고, 그 후 정비 과정을 거쳐 2009년에는 2016년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가 만들어졌다. 여자경찰관의 복제는 광복 이전에 규정이 없었고, 광복 후에 등장하였다. 초기에는 남자경찰관과 다른 디자인으로 하의는 치마가 기본이었지만 나중에 근무복으로 바지가 정해졌으며 2016년 제도에서는 치마를 예복으로만 입고 근무복은 남녀가 같은 형태가 되었다.

경찰복에 들어가는 상징적인 문양은 주로 모자 앞 중앙의 모표(帽標)·상의 어깨부분의 견장(肩章)·깃 부분의 금장(襟章)·소매의 수장(袖章)·단추·각종 장비 등에 사용되었다. 개화기에 처음으로 제정(1895)되었을 때 사용된 문양은 오얏꽃이었다. 오얏꽃은 모표와 모자 정상 부분, 턱끈 고정용 단추에 배치되었다. 오얏꽃은 조선왕실의 상징이며 대한제국 선포 후에는 국가 상징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1899년에 예복이 제정되었을 때는 오얏꽃 외에도 무궁화가 예모 턱끈 단추와 예복 앞여밈 매듭단추 가

장자리 장식에 사용되었다. 또한 칼자루 장식에 무궁화와 함께 태극 문양이 사용되었다. 무궁화와 태극도 대한제국기에 국가 상징 문양으로 사용되었던 문양이다. 또한 국가 상징 문양과는 관련이 없지만, 1899년의 외투 수장에는 별 모양이 개수에 따라 계급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별 문양은 그 후 금장에도 사용되었다. 외투의 별 문양은 1905년에 오얏꽃 문양으로 바뀌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찰복에 일장日章 문양이 사용되었다.

광복 후에는 모표로 무궁화 중앙에 태극을 배치한 것과 날개를 벌린 독수리 모양을 배치한 것이 사용되었고, 가슴에 다는 흉장胸章으로 태극이 다시 사용되었다. 이후 주로 모표, 견장, 단추, 흉장 등에 무궁화와 태극 그리고 독수리를 결합한 디자인이 많이 사용되었다.

위와 같이 경찰복에 사용되는 상징 문양은 제정 당초에 국가 상징 문양이 사용되었으며, 광복 후에는 국가 상징 문양과 더불어 경찰의 상징 문양도 만들어졌다. 경찰 심벌마크가 제정된 후에는 심벌마크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무늬도 적절히 사용되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경찰복은 법령으로 모자부터 신발까지 모든 복식과 장비가 규정되는 경찰의 제복이다. 모표와 계급장 등 중요한 부분에 상징적인 문양이 들어간다. 대한제국기에는 오얏꽃과 무궁화, 태극 문양이 들어갔고 광복 후에는 무궁화와 태극, 그리고 경찰의 상징인 독수리(현재 참수리)가 사용되었다. 각종 계급장으로 착용자의 계급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예복과 평상복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특수한 업무에 임하는 경찰관에게는 특수복식이 따로 마련되었다.

경찰복은 착용자가 경찰관임을 나타내고 경찰의 존재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이 있는데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위압감이 요구될 때는 어두운 색상이 사용되고 친근감이 요구될 때는 밝은 색상이 주로 사용되었다. 경찰복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이 거듭되었는데, 그 복장 모습에는 시대 변화가 반영되었다.

참고문헌 구한말 경찰복 연구(김정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조선총독부와 일본 근대 경찰복제도 연구(노무라 미찌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한국경찰복제사(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경찰청, 2015).

필자 노무라 미찌요(野村美千代)

정의 조선시대 여자 예복용 저고리.

내용 결마기[肩介]는 흔히 저고리의 겨드랑이 부분[腋間]의 이색 장식 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1949년 김삼불金三不의 『국문학참고도감國文學參考圖鑑』에서 비롯되었다. 호장옷(회장저고리[回粧赤古里])의 액간을 ‘결마기’로 표시함에 따라 액간 장식이 결마기가 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당시 한복의 변화가 컸던 시기이므로 세간에서 이미 액간 장식을 결막이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복식사 연구가 진전되면서 결마기는 액간 장식이 아니라 저고리의 한 종류임이 밝혀졌고, 이는 1994년 「회장저고리와 견마기 재고」라는 연구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간 ‘결마기’를 액간 장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해 왔으니 결마기저고리는 ‘견마기’로 지칭하여 구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견마기의 용도는 의례복이라고 할 수 있다. 1743년(영조 19) 혜경궁 홍씨는 재간택 때 견마기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1778년(정조 2) 숙창궁淑昌宮이 입궐할 때 조현례에 홍장삼 안에 견마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19세기 전기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는 “연회복燕會服으로 녹의緣衣나 자의紫衣를 입는데 세속에서 방장의旁障衣라고 부른다. 젓마기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부산 오륜대순교자박물관 소장의 19세기 후기 『법복스절복식』에는 “혼인과 모꼬지(잔치 모임)에 호사하고 다닐 때 초록금수복자견마기, 자적금수복자견마기도 있으니 대란치마에 입고 노리개는 대삼작세줄노리개 차고 ……” 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를 통해 견마기의 용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견마기는 당의보다는 가벼운 예복이었다. 견마기 대신에 당의를 착용하면서 견마기보다 더 의례적인 예복이 되었다. 안에 분홍이나 보라색 저고리를 입고 송화색 저고리를 입은 후 견마기를 착용하여 세 벌로 구성된 저고리 일작一作을 완성하였다. ‘견마기’는 기록 속에서 다양한 한자와 한글 명칭으로 나타나며, 가장 이른 시기의 견마기 관련 기록은 『세종실록世宗實錄』에서 확인된다. 1420년(세종



청주 한씨 묘 출토 | 길이 67 폭 72 화장 75 | 16세기 추정



삼희장저고리 | 길이 16 폭 34 화장 53 | 1831

결마기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 원경왕후의 국상 중 천전의遷奠儀에 소용된 복식 중에 “겹격음袂隔音”이라는 기록이다. ‘겹격음’은 옆이 막혔다는 ‘겹막음’이다. 17세기 초 의궤에는 “전마기[肩兒只]·액마기[腋兒只]”로 나타난다. 어깨 ‘견’ 자는 ‘결’의 이두식 한자 차용 글자이며 ‘마기[兒只]’는 ‘막이’, 즉 ‘막혔다’는 의미의 이두식 한자 차용어이다. 따라서 ‘옆이 막힌 형태의 저고리’를 이두식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굳이 명칭에 옆이 막혔다는 점을 강조한 이유는 흔히 당의, 장저고리라고 하는 옆 트인 저고리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600년 선조의 비 의인왕후懿仁王后의 국장 때 빈전 관련 기록인 『빈전도감의궤殯殿都監儀軌』에는 전마기가 총 11점 기록되어 있다. 전마기, 소견마기[小肩兒只], 겹견마기[袂肩兒只], 유견마기[繡肩兒只] 등 여러 종류의 전마기가 확인된다. 색상은 초록 두 건, 자적 네 건, 아청 한 건, 백색 두 건, 색색 한 건인데, 주紬 두 점, 필단匹段 한 점, 저포 두 점이 사용되었다. 1632년 인목왕후의 『빈전도감의궤』에는 액마기, 겹액마기[袂腋兒只], 유액마기[繡腋兒只] 등 총 열일곱 점이 보이는데, 색상은 초록 여덟 점, 유록柔綠 네 점, 자적 다섯 점이 사용되었다. 이후의 의궤에서는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19세기 왕

실 「발기[件記]」에서 다시 보인다. 1882년 임오가례 시 「발기」에 ‘초록도류사草綠挑榴紗 견막이肩莫伊’라는 기록이 있다. 1893년 10월 의화군 길례 때는 삼간택 처녀에게 초록도류단 견마기 감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 1907년 경빈 예장 시 습구의 하나로 “송화색松花色 도류단桃榴緞 견막기[肩莫只]”를 사용하였다. 한편 온양민속 박물관 소장의 김정규의 배위 정부인 한산 이씨韓山李氏(1865~1915)의 『신종록愼終錄』에도 소렴구 중에 ‘연두견마기 금박’, ‘연두도류사견마기’, ‘견마기 연두’ 등이 보인다. 이처럼 견마기는 왕실은 물론, 반가의 여성들의 평상시 예복, 상례 시 수의, 소렴구 등 다양한 용도로 꾸준히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현전하는 대표적인 견마기 유물은 순조의 삼녀 덕온공주德溫公主(1822~1844)의 견마기이다. 당시 짧은 저고리가 유행하던 시기이므로 견마기 길이도 짧다. 조선 전기의 견마기는 저고리 형태이긴 하지만 길이로 구별되었다. 전기 상의류는 크기 때문에 길이도 길었다. 단저고리[短赤古里]의 경우 50cm 내외이고 옆이 트인 장저고리[長赤古里]는 대략 80cm 전후이다. 중간 길이에 해당하는 중저고리가 견마기로 추정되는데 대략 60~70cm 정도의 길이이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청주 한씨 중저고리[中赤古里]가 견마기에 해당하는 유물로 추정된다. 깃과 수구, 쏘, 겨드랑 무에 회장 장식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저고리가 전체적으로 짧아지면서 견마기도 짧아졌기에 덕온공주 견마기 형태가 가능하였다.

덕온공주 견마기의 소매 끝에는 흰 거들지가 달렸으며 길과 소매에 ‘수壽’·‘복福’ 부금 장식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견마기에 거들지가 있다는 기록은 1887년(고종 24) 『정해진찬의궤丁亥進饌儀軌』의 「품목稟目」 부분에서 보인다. 선천여령宣川女伶 아홉 명의 초록팔랑주草綠八兩袖 견마기[絹莫只]에 백팔랑주白八兩袖 거들지[巨等乙只]를 사용하였다. 언제부터 견마기에 거들지가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17세기 중엽에는 거들지를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17세기 중기의 남양 홍씨(1584~1654) 묘 출토 저고리 중에 소재 명주 거들지가 달린 저고리가 보이며 또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여흥 민씨(1686~1656)

묘 출토 저고리 중에도 수구에 흰 거들지를 단 저고리가 보인다.

참고문헌 慶嬪禮葬所淑膳錄, 園行乙卯整理儀軌, 林園十六志, 丁亥進饌儀軌, 昌宮入闕日記, 국문학참고도감(김삼불, 신학사, 1949),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경기도박물관, 2003), 수절복식 주장요람과 법복수절복식을 통해 본 19세기 말 왕실 여성 복식(하신혜·권영숙, 한복문화19-2, 한복문화학회, 2016), 염습의를 통해 본 별내유적 회묘 출토 복식연구(이명은, 남양주 별내 조선시대 회묘 발굴성과 학술대회 발표집, 한백문화재단·국립민속박물관, 2011), 화장저고리와 견마기 재고(박성실, 미술자료54, 국립중앙박물관, 1994).

필자 이은주(李恩珠)

계 罽

정의 매우 정세淨洗한 부드러운 털로 제직한 고급 전통 모직물의 일종.

내용 계罽은 평직·능직·침모직添毛織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바탕 조직을 이루는 경사와 위사 외에 채색 위사로 무늬를 만드는 중조직重組織으로 제직되었으며 문계紋罽·화계花罽·금계錦罽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다. 그중 침모직은 유럽에서 다른 제직법보다 비교적 늦은 14~16세기가 되어서야 유행했던 제직 기법이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지三國志』에 부여인들이 외국에 나갈 때 계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사기三國史記』에도 신분에 따라 계를 허용한 기록이 있으므로 초기에는 비교적 간단한 조직으로 제직한 계 직물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색상의 위사를 사용해 무늬를 표현하는 위중조직으로 제직된 금계는 한층 화려한 직물이며 고려시대 이후 발전하였다. 『중국의관복식대사전中國衣冠服飾大辭典』에서 금계는 다채로운 모사毛絲를 사용하여 제직한 모직물로, 문양이 매우 아름다워 마치 다채로운 금錦(비단)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흥덕왕興德王 복식 금제에 따르면 계는 진골 계급의 표의表衣에도 금지하고 6두품 이하 계급에서는 대부분의 의복에 금지되었다. 또 진골 계급의 마구 장식인 안욕鞍褥에도 금지한 기록

으로 보아 매우 고급 모직물임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있는데, 한·漢 초기에 이미 상당히 유행했으며, 대부분 유목 민족이 생활하는 지역에서 생산되어 항상 공물로 바쳤던 고급 모직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志, 조선수공업사(손영종·조희승, 백산자료원, 1990), 한국 전통 모직물의 유형과 특성(장현주, 복식 54-8, 한국복식학회, 2004), 中國歷代織染繡圖錄(高漢玉, 商務印書館香港分館·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中國衣冠服飾大辭典(周汛·高春明, 上海辭書出版社, 1996).

필자 장현주(張賢珠)

계례복 笄禮服

정의 여자가 계례를 치를 때 입는 의례복.

역사 『예기(禮記)』 「잡기雜記」의 기록에 따르면 “비록 출가하지 않았더라도 15세 혹은 20세가 되면 계례笄禮를 하여 어른으로 대접한다.”라고 하거나 『의례儀禮』 「사혼례士婚禮」에도 계례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계례와 관례의 역사가 같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290년(충렬왕 16) 성리학과 함께 주자朱子(1130~1200)의 『가례家禮』에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첫 번째 의례인 남성의 관례와 함께 여성의 계례를 소개하면서 성리학적 일생의례의 하나로 알려졌다. 조선시대가 되면 『가례』를 기본으로 하는 유교식 의례를 규범으로 삼으면서 계례는 관례와 함께 남녀 아이의 성인식의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계례는 여자 나이 15~20세가 되면 계례를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혼례의 한 절차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았다.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1554~1637)은 계례를 혼례의 한 절차로 규정하였는데, 혼례의 납징納徵에 이어 행해지는 청기請期 다음에 계笄의 절차를 넣고 있다. 더구나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이미 계례를 행하는 사람이 없어 형식이라도 남겨 둔다.”라고 하였듯이 조선 말기가 되면 계례 역시 혼례에 완전히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학교나 각종 단체에서 행하는 성인식이 계례를 대신하고 있다.

내용 계례는 여자아이의 성인식이다. 여자아이는 혼례를 하게 되면 그때 땡기머리를 풀어 쪽을 찌어 올리고 비녀를 꽂는 계례笄禮를 하므로 남자아이와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만약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15~20세가 되면 계례를 하여 혼인에 대비한다고 하였다. 관을 씌우고 비녀를 꽂는 계례의 의미 역시 아이의 세계에서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어른의 책임을 지우는 의례라는 의미는 관례와 같다. 단지 그 형식이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 것이며, 관을 씌우고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구성된 남자아이의 관례와는 다르다. 또한 계례는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 하나의 절차로 구성되어 세 번에 걸쳐 관과 옷을 갈아입는 관례에 비해 간소하다.

계례의 형식이 관례와 다르므로 의례복과 관 역시 차이가 있다. 장차 계례를 행할 장계자將笄者가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여자의 평상복인 삼자衫子(당의)를 입고, 머리를 땡은 채로 당堂으로 나오면, 시자侍者(빈을 돕는 사람)가 땡은 머리를 풀고 빗질하여 합한다. 빈賓이 축사를 한 후 화관華冠 혹은 족두리를 씌우고 비녀를 꽂아 주면 장계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배자背子를 입고 나온다. 배자는 빗갈 있는 명주나 비단으로 만드는데, 길이는 치마와 같고 겹은 트였고, 소매가 없거나 반소매이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계례복은 몽두의蒙頭衣(몽두리로 여성의 포)라고 하였다. 『광례람廣禮贊』에서는 혼례 절차 중 신부가 신행을 하여 현구고례見舅姑禮(신부가 신랑 집 식구들에게 인사하는 의례)를 한 후 신부의 관례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때 필요한 물건으로 쪽, 족두리, 비녀, 석웅황石雄黃(머리장식 보석), 저고리, 홍상紅裳, 노리개를 제시하고 있어 신부의 계례복이 저고리와 붉은 치마임을 알 수 있다.



초례
계례복 | 경북 안동 | 1992 | 김시상

특징 및 의의 계례는 삼가례三加禮에 따라 세 종류의 관례복을 바꾸어 입는 관례와는 달리 관을 씌우고 비녀를 꽂는 가관계加冠笄를 한 번에 행하므로 계례복이 한 종류뿐이다. 계례의 의미는 축사와 관련이 있는데, 계례의 축사는 “처음으로 관을 씌우니 어린 마음을 버리고 성숙한 덕에 따라 오래 살고 큰 복을 받으라.”는 관례의 시가례始加禮 축사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때 배자를 입는 것은 어린아이의 세계에서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 어른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의무를 다하게 책임을 지우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家禮考, 家禮輯覽, 廣禮贊, 國朝五禮儀, 沙溪全書, 四禮便覽, 常變通攷, 順菴集, 旅軒集, 春亭集,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김시덕(金時德)

고 袴

정의 남녀가 입던 하의로 유襦와 함께 입는 옷.

역사 고袴는 삼국시대 이후 남녀 모두 착용하는 바지 형태의 옷이다. 고는 유목·기마 생활과 한랭한 기후에 적합하도록 밀이 막힌 형태이며, 그 원류는 옷섶을 왼쪽으로 여미는 좌임식 유(긴 저고리 형태의 상의)에 허리띠를 매던 북방 호복계 복식에서 찾을 수 있다. 고는 남녀 모두 겹옷으로 착용하였으나, 여성은 예를 갖추는 때 그 위에 치마인 상裳을 덧입음으로써 겹옷으로서 가지던 의미는 약화되고 속옷으로서의 의미가 강화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바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고가 가진 겹옷으로서의 의미는 사라지고 ‘고의袴衣’로 남아 남녀복식에서 모두 속옷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속곳, 단속곳, 너른바지, 봉디, 봉지 등 다양한 형태의 속옷으로 발전하였다.

내용 고는 크게 바지통이 넓은 대구고大口袴와 바지통이 좁은 세고細袴로 나뉜다. 대구고는 신분이 높은 귀인들이 착용하였으며, 신분이 낮은 백성들은 세고를 입었다. 세고의 경우 두 가랑이가 마주 닿는 곳에 당襠을



고 | ① 안악 3호분, ② 약수리 고분

더하고 뒤쪽으로 약간 빠져 나오게 하여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었다. 또한 곤褌이라고 하는 짧은 잠방이 형태의 바지가 있었는데, 곤은 주로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착용하였다. 우리나라 고의 형태는 여름에 습하고 겨울에 건조한 하습동건(夏濕冬乾) 기후에 맞춰 신체를 감싸는 체형형인 동시에 개방형의 고로 발전하였으며, 문순형 기후에 따라 바지통이 넓은 관고형(寬袴形)이 발달하였다.

삼국시대의 고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고구려에는 태구고(太口袴), 대구고(大口袴), 적황고(赤黃袴), 궁고(窮袴), 세고(細袴), 잠뱅이 등 다양한 종류의 고가 있었으며, 백제에는 바지통이 넓고 푸른색 금직으로 만든 화려한 청금고(靑錦袴)가 있었다. 특히 신라에서는 고를 ‘가반(柯半)’이라고 불렀으며, 『당서(唐書)』 동이전 신라조에 남자는 갈고(葛袴)를 착용한다는 기록이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여자 토용에는 고를 착용한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이는 치마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을 뿐 고를 착용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흥덕왕(興德王) 복식 금제에서 진골 여성의 고는 모직이나 수가 있는 비단인 계수금라(絢繡錦羅)를 금하고 6두품 여성은 계수금라와 얇은 비단과 금칠장식의 세라금니(總羅金泥)를 금하며, 5두품 여성은 계수금라와 세라야초라금니(總羅野草羅金泥)를 금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신분이 높을수록 화려한 재료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두품 여성은 작은 무늬의 비단인 소문능시견(少紋綾緞絹)을 사용하고 평민 여성도 비단인 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여자들의 고는 남자들에 비해 그 재료가 비교적 화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민들까지 곱고 가늘게 짠 비단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의례용으로 상을 덧입지 않을 경우 화려한 고는 여전히 겉옷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여자는 치마인 상을 덧입으면서 고는 속옷으로서의 역할만 남게 되었다. 특히 두 다리를 집어 넣는 두 가랑이를 허리에서 연결해 밑이 뚫린 개당고의 형태도 있었다. 남자는 고를 여전히 대표적인 하의로 명칭의 변화만 있을 뿐 상고시대 이래 지금까지 착용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고는 양다리를 끼워서 입는 옷이며 형태는 남녀가 비슷하다. 고의 길이는 발목을 덮을 만한 길이에서 무릎길이까지 다양하며, 고의 밑단을 처리하는 방법은 끝을 묶는 것과 묶지 않는 것이 있다. 특히 세고에는 밑단에 선襠 장식을 하고 있으며, 백제에서는 대구고에도 선 장식이 보인다. 고의 색은 정해진 색 없이 자(紫)·황(黃)·청(靑)·소(素)·적(赤)·분(粉)·홍(紅) 등 다양하며 무늬 역시 점무늬, 십자별무늬, 곡선 물결무늬 등 다양하다.

참고문헌 복식문화(유송옥·이은영·황선진, 교문사, 1996), 아름다운 한국복식(윤양노 외, 수학사, 2010), 우리옷 이천년(김미자 외, 미술문화, 2001), 우리옷의 전통양식(이경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조선시대 남자바지에 관한 연구(구남옥, 복식52-7, 한국복식학회, 2002).

필자 이민주(李民周)

고깔

정의 정수리가 뾰족한 형태의 쓰개.

내용 고깔은 뾰족하다는 뜻의 ‘곶’과 관모를 의미하는 ‘갈’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우리말이다. 『훈몽자회(訓蒙字會)』(1527)에는 ‘관(冠)·면(冕)·건(巾)·책(幘)’, 『신증유합(新增類合)』(1576)에는 ‘관(冠)·면(冕)’, 『역어유해(譯語類解)』(1690)에는 ‘두면(頭面)’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었다. 대체로 1700년대 이전에는 쓰개를 통칭하는 명칭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좁은 의미의 고깔은 주로 승려가 쓰



가로 30 세로 34 | 1980년대

고깔 | 국립민속박물관



상좌과장(봉산탈춤) | 2015

고단

는 삼각 형태로 천을 접어 만든 쓰개를 말하며,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우리나라 승모(僧帽)에 ‘曲葛’이 있다고 한 부분에서 고깔의 한자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정약용은 『아언각비(雅言覺非)』(1819)에서 승려가 쓴 일접건(一摺之巾)은 중국제가 아니고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이 썼는데, 꼭대기가 뽕족하고 날카로워서 선비들이 弁, 즉 방언으로 ‘曲葛’로 오인하였다고 하였다. 고깔은 무당이나 농악대가 쓰기도 하였고, 봉산탈춤과 같은 가면극 중에 상좌(上佐)의 복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보통 흰색의 저포나 비단으로 만드는데, 사이에 한지나 마포를 넣어 힘받이로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등변 삼각형으로 배접한 천을 둘로 꺾어 접어서 다시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한 후, 밑변만 남기고 다른 변은 붙여 뒷부분을 약간 접어 올려 만들었다. 안쪽에 작은 끈을 달아서, 턱에 끈을 묶을 수 있게 하였다.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제석거리굿에서 오늘날 무당이 쓰는 고깔은 지역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서울에서는 고깔에 별도의 장식이 없으나, 황해도 고깔은 각 변에 술을 달고, 측면에 선 장식을 하기도 한다. 진도의 고깔은 이마에서 매듭을 지어 고정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농악대가 쓰는 고깔은 종이를 세모로 접어서 모자 모양을 만든 후, 색색의 큰 종이꽃을 부착한다. 처음에는 생화를 사용하였지만, 나중에 다른 재료로 만든 꽃모양의 장식을 사용하였다. 꽃은 고깔의 좌·우·정수리 세 군데에 달기도 하고, 앞면과 뒷면에도 꽃을 추가하여 총 5

개를 달기도 한다. 『아언각비』에서 弁(弁)을 일컬어서 방언으로 ‘曲葛’이라고 하였는데, ‘弁’은 글자 그대로 두 손을 합장한 듯한 모양으로 정수리가 뽕족하다. 이는 고대 스키타이 계통 관모의 가장 큰 특징으로, 조선시대의 고깔에서 고대 복식의 오랜 습속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雅言覺非, 五洲衍文長箋散稿, 고깔형 관모에 관한 연구(강순제·전현실, 복식52-1, 한국복식학회, 2002), 관모와 수식(석주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3), 어휘집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복식명칭 분석(김은정,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제석거리 무복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신복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한국민속예술사전-음악, 농악(국립민속박물관, 2016), 한국복식사 개론(김문자, 교문사, 2015),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김지연(金知娟)

고단
庫緞

정의 수자조직으로 제직된 문단의 일종.

내용 고단(庫緞)은 스민문단(暗花紋緞)의 일종으로 경수자조직과 위수자조직을 혼합하여 무늬를 나타낸 단층의 문직물이다. 고단이라는 명명은 중국에서 청대부터 나타나는데, 청대 내무부(內務府)의 저장고인 ‘단고(緞庫)’가 후에 ‘고단(庫緞)’으로 와전되어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800년대 문헌에서 처음 보인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따르면, 1849년(헌종 15)에는 습의대(襲衣)에 장색운복문고단단전복(醬色雲蝠紋庫緞單戰服)을 사용하였다. 1885년 「궁중발기(宮中撥記)」에는 양색고단(兩色庫緞)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양색고단은 경사와 위사의 색을 달리하여 지와 문을 이색으로 제직한 직물이다. 『택지준절(度支準折)』에는 양색고단의 가격을 1냥 1전 5푼으로 기록하고 있어 공단의 가격보다는 조금 높고 모단의 가격과는 같음을 알 수 있다. 1893년 「궁중발기」에는 도홍양색, 회색, 녹양색, 품월양색의 별문고단(別紋庫緞)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 또한 1919년(순종 12)에 대령(大령) 시 의대(衣) 중 오색고단(五色庫緞)의 기록이 있다.

중국 청대의 고단은 주로 의료衣料로 만들어졌으며, 민간 공장에서는 통상 ‘포료袍料’라고 불렀다. 고단의 문양은 둥근 단화문團花紋이 많이 사용되었다.

안동 김씨 묘에서 출토된 직물 중에는 분홍색 단직물이 한 필 남아 있으며, 직물의 끝에 ‘절항영흥읍고단折杭永興治庫緞’라는 명문이 직조로 짜여 있다. 문양은 모란을 둥글게 배치한 후 가운데 수자문을 안치하였다. 바탕은 8매 경수자조직에 무늬는 8매 변측수자조직으로 제직된 단층의 문단이다. 현대에도 둥근 대단화문의 직물이 고단이라 명명되어 생산된다.

특징 및 의의 고단은 1800년대 이후에 많이 사용된 단직물인데, 근대 이후 현대까지도 제직되어 한복이나 이불감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문양은 둥글게 도안된 수자문, 박쥐문 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바탕의 경수자직 부분이 많이 드러나 광택이 많이 난다.

참고문헌 宮中撥記, 朝鮮王朝實錄, 度支準折, 한국직물문양 이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 2006), 한국직물 오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 2002), 中國絲綢藝術(趙豐, 中國紡織出版社, 2012).

필자 심연옥(沈蓮玉)

문물과 접촉이 잦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용되었다. 1920년 초반에 우리나라의 미감美感을 갖춘 고무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무신이 현재의 모습으로 바뀐 것은 평양의 일본인 잡화상 ‘내덕內德 상점’에서 사환으로 일하던 이병두의 활약이 있었다. 이병두는 일본 청년에게 고무 단화가 인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본으로 건너가 거래 공장에서 제조 공정과 고무 배합 기술을 배워 우리나라 사람의 기호에 맞게 바꾸었다. 남자 고무신은 짙신을, 여자 고무신은 코신을 본떠 만든 ‘조선식 고무신’은 짙신보다 내구성이 뛰어났다. 비가 와도 신을 수 있었고, 모양도 비단신이나 갓신(가죽으로 만든 우리 고유의 신을 총칭하는 말)과 비슷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고무신이 인기를 끌자 고무신 공장이 급증했다. 고무신은 소재가 질기고 물이 새지 않아 실용성이 뛰어났다. 그래서 도시 빈민이나 농민이 주로 애용했다. 처음 등장한 고무신은 검은색 민무늬였다. 수요가 늘어나자 문양이나 색깔을 넣은 다양한 형태의 고무신이 등장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무신을 구하기 어려워지기도 했다. 특히 흰색 고무신은 여성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얻

고무신

정의 고무를 재료로 만든 신.

내용 우리나라에서 고무신은 일제강점기 때 본격적으로 일본을 통해 공급되었다. 일본에서 고무제 신발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생산량이 급증했지만, 정작 일본인들은 원활한 공기 순환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고무제 신발을 외면했다. 이로 인해 재고품이 급증하자 일본의 고무기업에서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우리나라와 중국에 본격적으로 수출을 했다. 1919년경부터 신문에서 일본산 고무제 신발이 빈번하게 홍보되었다. 가격이 가죽 구두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했고, 방수防水 기능이 있어 여름철에 신는 외래신으로 소개되었다. 비록 처음에는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서양



어른용 고무신 | 너비 65 길이 230~240 | 197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고무신 상인과 손님 | 김영준

고사

었으며, 아이들은 고무신을 잃어 버릴까봐 머리말에 놓고 자거나, 아까워서 길을 걸을 때도 들고 다녔다.

특징 및 의의 고무신은 1920년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전통신과 달리 버선과 양말에 모두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었다. 남성용 고무신은 신 등에 가로선이 새겨진 양식으로, 구두의 스트레이트 팁(straight tip)(신발 앞부분을 보강시켜 견고하게 하고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구두 앞 끝에 일직선의 이음매가 있는 디자인으로 장식된 것)과 짚신의 뒷갯기를 형상화한 복합적인 디자인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여성용 고무신은 당·운혜에 나타난 신코를 반영한 코고무신 형태로 발전하였다. 상류층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당·운혜를 모방한 고무신의 등장으로 중류층 이하의 사람들은 일종의 모방 심리로 고무신을 신었다.

조선인 중 최초로 고무신을 신은 사람은 창덕궁에 유배된 순종이었다. 순종은 흰색 고무신을 즐겨 신었다. 고무신은 누구나 신었기 때문에 신발만으로는 황제인지 양반인지 상인인지 백정인지 신분을 알 수 없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고무신이 수용된 사례는 보기 드문 독특한 현상이었다. 고무신의 범계층적 수용 요인은 제도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회사령 철폐로 회사의 설립이 이전보다 자유로워져 고무 기업의 설립과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여성 노동자들은 섬세한 손길로 우리나라의 미감에 알맞은 코고무신을 탄생시켰다. 또한, 복식개혁운동으로 양복·교복·제복 등에 양말을 수용하면

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고무신과 구두를 착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전통신 모양을 계승한 고무신을 애용하였고, 1920~1930년대 백의(白衣) 착용이 금지되면서 흰색에 투영하는 민족의식이 더욱 뚜렷해져 흰색 고무신을 착용함으로써 민족의 고유성을 대변하였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배급제가 실시되면서 일인당 고무신 한 켤레를 배급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2006), 일제강점기 고무신에 관한 연구(이효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필자 이경미(李京美)

고사

庫紗

정의 품질이 좋고 무늬가 있는 얇은 견직물.

내용 고사(庫紗)는 품질이 좋고 무늬가 있는 사직물을 일컫는 말이다. 고사의 어원은 청대(淸代)에 궁중 수요를 위하여 ‘조정의 창고에 거두어들이는 공납품’이라는 뜻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고사는 이러한 중국의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고사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으며, 조선 말기에서 20세기 초기 문헌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기」, 『조선회보(朝鮮彙報)』, 『순종실록(純宗實錄)』 등에 보이며, 특히 「발기」에는 인접 문고사·생고사·별문생고사·숙고사·별문숙고사 등 다양한 고사가 기록되어 있다. 조선 말기에는 중국의 고사를 수입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도 중국의 고사를 모방하여 제작하였는데 1924년경부터 이것을 수입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1925년에 발간된 『조선(朝鮮)』의 기록에 따르면 고사 1필의 길이는 15야드(약 1,371.6cm), 폭 27인치(약 68.58cm), 무게 150돈(약 562.5g) 내지 175돈(약 656.25g)이라고 한다. 광사와 비교해 보면 폭은 비슷하게 넓은 편이며, 단위 면적당 무게는 같거나 가볍다. 고사 중에서도 생고사(生庫紗)는 더 가볍고 숙고사(熟庫紗)는 비슷한 무게이다.

특징 및 의의 고사는 평직平織과 익조직棼組織을 아름답게 조합하여 직조하는데 제작방법과 사용한 견사에 따라 생고사와 숙고사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바탕이 평직이고 무늬만 익조직으로 제작하여 무늬 부분만 반투명하게 보이는 것을 ‘숙고사’라 한다. 이와 반대 조합으로 바탕은 모두 반투명하게 익조직으로 짜고 무늬 부분만 평직이나 능직으로 제작한 것은 ‘생고사’라고 한다. 따라서 평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숙고사보다 익조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생고사가 얇고 비쳐 보인다. 사용한 경사經絲와 위사緯絲에도 차이가 있다. 숙고사는 생사를 삶아 익힌 명주실로 제작하여 부드럽고 광택이 있는 반면, 생고사는 정련하지 않은 생사를 그대로 사용하여 얇고 뽀뽀하다. 고사의 대표적인 무늬로는 원형의 희罽자를 중심에 두고 주위를 덩굴에 달려 있는 호리병박이 둘러싸고 있는 도안이다. 현존하는 20세기 초기의 직물 두루마리나 직물조각을 조사해 보면 원형의 희罽자를 중심에 두고 주위를 덩굴에 달려 있는 호리병박이 둘러싸고 있는 옷감 끝자락에 ‘별문숙고사別紋熟庫紗’, ‘별문사別紋紗’ 등의 직물 명칭이 직조된 유물이 몇 점 남아 있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고사는 왕비의 반회장저고리, 왕세자의 풍차바지, 까치두루마기, 쾌자, 치마, 고의 등 춘추용 옷감으로 널리 사용하였으며, 남아 있는 유물에서도 치마, 저고리, 속옷류 등 춘추용 의류에 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純宗實錄, 朝鮮彙報, 발기.

필자 조효숙(趙孝淑)

고의 袴衣

정의 여름용으로 입는 얇은 훌바지.

내용 고의는 여름용 바지이기 때문에 모시나 생모시, 삼베, 광목, 옥양목 등 얇은 감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태는 남자의 사폭바지와 같고, 여름용 훌저고리인 적삼과 함께 입었다.



고의 | 길이 86 허리 104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에는 ‘옥양목 고의 짓는 법’과 ‘베 고의 짓는 법’이 기록되어 있다. 재질과 상관없이 고의는 모두 작은사폭과 큰사폭, 마루폭으로 구성되며, 훌옷인 만큼 주로 박아서 시접을 잘라내고 솔기를 꺾어 감치거나 싹솔로 처리했다. 베 고의의 바짓부리에는 모시를 배래의 길이대로 대어 박은 뒤 꺾어서 감친다. 이렇게 하면 바짓부리 아래로 2~3mm 정도의 흰색 모시 단이 드러나게 된다.

참고문헌 朝鮮裁縫全書,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조희진(趙熙眞)

고이댕기

정의 서북(관서) 지역에서 혼례나 회갑연 등의 의례용으로 사용하던 댕기.

내용 고이댕기는 조선시대 이후 서북 지역의 여자들이 혼례나 회갑연과 같은 의례 때 예장용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평양 지역의 혼례식에서 신부뿐만 아니라 들러리들도 고이댕기를 하였다. 고이댕기는 일반적으로 길이 250cm, 너비 10cm 내외로, 다른 댕기들에 비해 길이가 훨씬 길다. 댕기의 좌우 양쪽에는 화려한 수를 놓아 장식하였다. 끝부분은 원통형으로 둥글게 말아 오므려 마

름모꼴[菱形] 무늬를 화려하게 수놓고, 진주 꾸러미로 장식하여 마감하였다. 고이땡기를 착용할 때는 먼저 땡기의 길이를 반으로 접고 그 1/3 정도를 비녀에 감아 고정시키면서 쪽머리에 꽂은 비녀의 잠두 앞으로 한두 번 감아서 늘어뜨린다. 이때 반으로 접은 땡기의 2/3 정도 되는 위치에 진주를 가득히 박은 지름 10cm가량의 둥근 진주 꾸러미 두 개를 놓기도 하는데, 이것은 쪽머리 위에 엮어 쪽에 연결된 가채 끝을 덮는 역할을 한다.

고이땡기는 특히 평양 지역의 혼례복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평양의 전통혼례 때 신부는 예복으로 홍치마와 녹색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녹원삼을 착용하고 머리에는 칠보단장을 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간소화되어 원삼을 제외한 녹의홍상과 칠보단장으로 정착되기도 하였다. 이때 신부의 머리에는 가채를 드려 큰 낭자를 틀고, 칠보로 장식한 큰 비녀를 꽂아 앞땡기를 한쪽으로 늘어뜨렸다. 큰 비녀의 다른 반대쪽으로는 작은 비녀를 꽂아 중심을 맞추었으며, 뒤에는 뒷땡기를 늘어뜨리고 각종 노리개를 각대에 걸어 허리에 찼다. 이와 같은 장식 과정을 ‘칠보단장한다’라고 하였다. 한편, 1940년대 평양 지역에서 혼례를 경험한 면담자를 대상으로 고이땡기를 조사하였을 때, 착용 경험과

관계없이 대부분 ‘고이땡기’라는 명칭 대신 ‘앞땡기’라고 표현하였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고이땡기는 특별히 서북 지역에서 착용했던 예장용 땡기로, 주로 앞땡기 대신 사용하였다. 길이가 250cm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다른 땡기에 비해 길이가 길고 화려하며 정교한 수가 장식되어 있다. 땡기를 반으로 접었을 때 각각의 쪽에 화려한 수가 놓이는데, 두 겹으로 포개어 사용하게 되므로 수 장식은 서로 반대 면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두 가닥의 땡기에 오른쪽 가닥에는 모란꽃 세 송이를 수놓으며, 다른 왼쪽 가닥에는 소나무, 대나무, 사슴 등의 십장생문을 수놓아 장식하였다. 땡기의 양쪽 끝 둥근 원형 부분에는 능형무늬를 화려하게 수놓고, 산호와 진주로 장식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흑색 공단, 자주색, 검은색, 검은 자주색 등의 비단이나 사紗 직물을 소재로 하였다.

참고문헌 1940년대 평양지방의 혼례복식에 관한 연구(임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땡기에 관한 연구(이승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명선-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학사,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이호정(李祐廷)



고이땡기 | 길이 270 폭 10 | 고려대학교박물관

고쟁이

정의 여자의 여름용 홀바지.

내용 고쟁이는 치마 속에 입는 여러 벌의 속바지 중 하나이다. 양쪽 가랑이는 밑이 터진 상태로 말기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입을 때는 앞과 뒤의 밑을 겹쳐 여민다. 바짓가랑이 안쪽 솔기에서 바짓부리까지 둥글게 깎여 있다. 허리말기 아래에 주름을 잡아 바지통은 넓고 바짓부리는 좁다. 삼베·모시·생노방·당항라·광목 등 얇고 가벼운 여름 옷감을 주로 사용했다.

지역사례 고쟁이 중에는 독특한 모양을 가진 살창고쟁이가 포함되어 있다. 실물은 경상북도 일원에서 제한적으로 보고되었으나 각 지역별로 살창고쟁이의 방언 명



고쟁이 | 길이 96.5 허리 98 | 1920 | 국립민속박물관



살창고쟁이 | 길이 104 허리 90 | 국립민속박물관

칭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특정 지역에만 한정된 의복은 아니었던 듯하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경북 안동 지역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허리말기 아래에 구멍 뚫린 듯한 모습이 살창[箭窓]과 같다고 해서 살창고쟁이라고 부르며 경북 지역에서는 문어 다리처럼 달렸다고 해서 다리고쟁이 또는 문어고장주, 가위로 잘라 냈다고 해서 가새고장주 등으로 불린다. 살창고쟁이는 여름 속옷인 고쟁이의 특성상 삼베로 짓지만 간혹 허리말기만 흰색 모시로 만들기도 한다.

살창고쟁이의 특징은 말기 아래, 허리둘레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이다. 각 구멍의 크기는 대략 폭 6~8cm에 길이 15~20cm이며 바지마다 개수가 다르다. 허리 부분을 재단할 때에는 삼베를 요철凹凸 모양으로 자른 뒤 그 부분을 모두 위로 향하게 놓고 말기와 연결한다. 이런 재단법 덕분에 옷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살창 부분 재단이 끝나면 가장자리를 2~3mm 정도 접어 감쳐서 가장자리의 삼베 올이 풀리지 않게 마무리한다.

현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살창고쟁이를 삼베로 만든 것이나 말기 아래에 구멍을 만든 것은 그 사이로 신부의 흥이 새어 나가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며, 시집살이를 수월하게 하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 살창고쟁이가 혼인하는 신부의 혼수에 포함된 것, 신부가 혼례 당일 가장 안쪽에 살창고쟁이를 갖춰 입은 것 또한 이런 의미의 반영이다.

특징 및 의의 1925년 김숙당이 쓴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에는 ‘모시폭으로 녀자 어른의 고쟁이 마르는 법’ 그림과 ‘고장이 만드는 법’에 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양쪽 가랑이의 주름은 각각 네 개씩 잡고, 훌바지인 고쟁이의 특성상 모두 곱술이나 싹술로 마무리한다. 겹쳐 여미는 밑은 가운데를 이은 솔기가 없는 것을 왼쪽에, 솔기가 있는 것을 오른쪽에 달아 싹술하고 옆트임은 왼쪽에 내어 7촌(약 21cm)쯤 트고 단을 대어 박은 뒤에 뒤집어서 감치도록 했다. 바짓 부리는 제감으로 꾸미거나 그냥 두기도 하며, 부리 통은 보통 5촌 7분(약 17cm)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朝鮮裁縫全書, 선비와 피어싱(조희진, 동아시아, 2003), 안동지역 전통복식(안동대학교박물관, 1996).

필자 조희진(趙熙眞)

곤룡포 袞龍袍

정의 왕, 왕세자, 왕세손의 상복常服으로 옥대, 익선관, 흑피화와 함께 입던 옷.

역사 곤룡포袞龍袍는 명나라의 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대명회전大明會典』에 따르면 둥근 깃에 좁은 소매가 달린 황색 포袍이다. 포의 앞뒤와 양어깨에는 직금반룡織金盤龍으로 장식했으며, 허리에는 옥대玉帶를 띠고 발에는 피화皮靴를 신었다. 관은 절각折角이 위를 향한 오사모烏紗帽로 익선관翼善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1444년(세종 26) 사은사謝恩使 유수강柳守剛이 칙서와 함께 관복冠服을 싸 가지고 왔다. 북경

에서 온 포복袍服은 저사대홍직금紵紗大紅織金 곤룡포, 사대홍직금紗大紅織金 곤룡포, 나대홍직금羅大紅織金 곤룡포 등 세 벌이다. 앞가슴과 등, 양어깨에 부착하는 용무늬 보補에 관한 기록은 이때 보이지 않는다. 다만 1449년(세종 31)의 기록에 의하면 세종이, “예전에 나는 사조룡의四爪龍衣를 입었는데 뒤에 듣자니 중국에서는 친왕이 오조룡을 입는다가에 나도 또한 입고 천사天使를 대접했는데 그 뒤에 황제가 오조룡복을 하사하였다. 지금 세자로 하여금 사조룡을 입게 하면 내게도 혐의가 없고 중국의 법제에도 잘못됨이 없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1449년에 오조룡보 곤룡포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경기전慶基殿에는 청색 곤룡포를 입고 있는 태조와 홍색 곤룡포를 입은 영조, 황색 곤룡포를 입고 있는 고종의 어진이 남아 있다. 세종 이후에는 왕의 곤룡포 색이 대홍색이었으나 그 이전에는 정해진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조의 어진에서 청색 곤룡포를 착용한 것은 동방의 길색이 청색이기 때문이다. 곤룡포에 부착하는 용보龍補는 초기에는 직조된 것을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수를 놓은 보를 포에 붙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내용 곤룡포는 왕의 시사복視事服, 왕세자의 서연복書筵服, 왕세손의 강서복講書服에 해당하는 옷으로 각 신분과 역할에 맞게 옷의 명칭을 달리한다. 왕의 곤룡포가 시사복인 이유는 곤룡포를 입고 정무를 보기 때문이며, 왕세자의 곤룡포가 서연복인 이유는 왕이 되기 위

한 준비를 위해 경서를 강론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기 때문이다. 강서복 역시 왕세손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 외 곤룡포는 임금이 중국으로부터 온 조서와 칙서를 맞이할 때, 정조正朝(설날 아침)와 동지冬至에 회례할 때, 매달 초하루, 5일, 11일, 21일, 25일 조회에 참석할 때, 상참常參할 때, 문과·무과의 과거 시험을 볼 때, 생원 방방의放榜儀 때, 양로의養老儀 및 일본과 유구국 등 주변 국가로부터 서폐書幣를 받을 때와 사신에게 연회를 베풀 때, 사단射壇에서 활을 쏘거나 활 쏘는 것을 관람할 때, 군사 훈련에 친히 참석하여 열병을 받을 때 착용했다.

곤룡포의 제도는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 기록되어 있다. 곤룡포는 익선관, 대帶, 화靴와 함께 일습을 이루는 목이 둥근 단령이다. 왕의 곤룡포는 대홍단大紅緞으로 만드는데 여름에는 대홍사大紅紗로 하고, 포의 앞·뒤·양어깨에 금金으로 된 오조원룡보五爪圓龍補를 붙인다. 왕세자의 곤룡포는 흑단黑緞으로 만들고 여름에는 흑사黑紗로 만들며 제도는 임금의 포와 같다. 포의 앞과 뒤, 좌우 어깨에는 사조원룡보四爪圓龍補를 붙인다. 왕세손의 곤룡포 역시 왕세자와 같은 흑단으로 만들고 여름에는 흑사로 만들며, 제도는 왕세자의 포와 같다. 다만 포의 전후에 삼조방룡보三爪方龍補를 붙이는데 어깨에는 붙이지 않는다. 곤룡포의 복색은 임금은 홍색, 황제는 노란색, 왕세자와 왕세손은 흑색(아청색)을 입는다. 고종이 황색 곤룡포를 입은 것에는 대한제국의 황제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뜻이 담겨 있다. 이 외에 현전하는 유물 중 자적색 용포가 국립고궁박물관에 남아 있는데, 이는 영친왕 이은李垕(1897~1970)의 상복으로 삼다多를 상징하는 복숭아·석류·불수가 어우러진 자적도류불수문단紫的桃榴佛手紋緞으로 만들어져 있다.

왕의 대는 옥에 용무늬를 조각하여 대홍단으로 싼 다음 금으로 다섯 선을 그렸다. 이때 용은 투각하여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왕세자의 대는 옥을 조각하지 않은 채, 흑단으로 싸고 금으로 그렸다. 왕세손의 대는 조각하지 않은 수정을 청단靑緞으로 싸고 금으로 그렸는데, 왕세자라도 관례 전에는 수정대를 띠었다. 왕의 화靴는 흑괘자피黑隼子皮로 만들고 여름



영친왕 윤보문사 홍룡포 | 길이 119.5 품 53 화장 90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고종 어진 | 20세기 초반 | 국립중앙박물관

에는 흑서피(黑黍皮)로 만들었다. 왕세자와 왕세손의 화는 모두 왕의 것과 같았다. 화는 발목이 올라 온 신발로 발목이 없는혜(鞋)에 비해 훨씬 활동적이었다. 특히 화를 신으면 진흙이 옷에 튀는 불편함을 막아주는 장점이 있었다. 익선관은 모정이 이층으로 된 형태이며, 귀 같이 생긴 양 각이 관 뒤에 붙어있다. 관은 모라(帽羅)로 싸고 양 대각에 양 소각을 뒤에 붙여 위로 올린 형태이며, 시대에 따라 세부적인 형태가 변했다. 영조 대의 익선관은 태조 대에 비해 모정의 위치가 높아지고 뒤에 붙은 양 날개의 크기도 커졌다. 그러나 고종 대가 되면 모정의 높이가 다시 낮아지고 양 대각의 크기도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시대에 따른 양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 한편, 왕세자와 왕세손이 아직 관례를 치르지 않았다면 쌍상투인 쌍동계를 하고 쌍옥

도를 잠궤(簪)로 꽂은 다음 익선관 대신 공정책(空頂幘)을 썼다. 관례 전 장복(章服)을 입을 때 쓰는 책(幘)의 제도는 면류관과 같으나 판(版)과 류(旒)가 없으며 모라로 쓴다. 지금(紙金)으로 장식하며 양쪽 옆에 붉은색 끈인 주조(朱組)가 있다.

곤룡포는 소매의 형태를 비롯해 옥대를 매는 위치, 단령의 깊이 등이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태조는 좁고 긴 소매를 입었으나 영조와 고종의 곤룡포는 두리 소매이다. 대를 띠는 위치도 태조는 배꼽 아래에 옥대를 두고 있는 반면 영조와 고종은 가슴에 옥대를 매고 있다. 이는 곤룡포가 매일 입는 집무복이므로 면복이나 원유관복과 달리 고례를 따르기보다는 왕의 체형과 당시의 유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곤룡포의 특징은 앞가슴과 등, 양어깨에 놓인 용무늬이다. 용은 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무늬로, 임금의 용보는 용의 발톱이 다섯 개인 오조원룡보, 왕세자는 발톱이 네 개인 사조원룡보이다. 왕세손은 네모난 형태이면서 용의 발톱이 셋인 삼조방룡보를 가슴(胸)과 등(背)에만 달고 있어 흉배(胸背)라고 해야 옳을 것 같지만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는 방룡보로 기록되어 있다.

용보에 나타나는 용의 형상은 시대에 따라 바뀌었다. 태조의 곤룡포에 그려진 용은 S자로 몸을 틀고 움직이는 비룡이며, 힘찬 발톱 다섯 개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용의 입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와 초창기 개국을 알린 왕의 역동성을 담고 있다. 반면에 영조의 곤룡포에 그려진 용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이 역시 발톱 다섯 개를 서리고 있으나, 정면을 바라보는 용의 얼굴이 시선을 빼앗아 활동성을 드러내기보다 안정감이 나타난다. 이는 경제·문화적 황금기였던 당시의 시대성이 반영되어 조선 왕실의 르네상스를 느끼게 한다.

태조와 영조의 오조원룡보는 니금(泥金)으로 용을 그렸고, 고종의 곤룡포에는 금사로 수놓은 오조원룡보를 별도로 만들어 붙였다. 특히 고종의 오조원룡보에는 붉은색과 흰색의 여의주가 있어 다른 용보와 다른 양상을 띤다. 가슴과 오른쪽 어깨에는 해를 상징하는 붉은색의 여의주가 있고, 등과 왼쪽 어깨에는 달을 상징하는

흰색의 여의주가 있다. 용의 몸통은 아주 정교하게 비늘을 수놓았으며, 보의 가장자리는 능선으로 마감하여 왕·왕비의 것과는 차등을 두었다.

참고문헌 觀射于射壇儀,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大閱儀, 武科殿試儀, 文科殿試儀, 射于射壇儀, 常參儀, 生員放榜儀, 受隣國書幣儀, 養老儀, 宴隣國使儀, 迎詔書儀, 迎勅書儀, 五日朝參儀, 王世孫講書服制度, 王世子書筵服制度, 殿下視事服圖說, 正至會儀, 朝鮮王朝實錄, 곤룡포(이은주, 조선왕조실록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필자 이민주(李民周)

곤충무늬

정의 나비·벌·잠자리 등과 같은 곤충을 소재로 도안한 무늬.

내용 옷감에서 곤충무늬[昆蟲紋]가 확인되는 자료는 고려 말부터이며,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16세기 이후에 확인된다. 옷감에 표현된 곤충무늬에는 잠자리·나비·벌 등이 있다. 잠자리를 직물무늬로 사용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으나 파평 윤씨(?~1566)의 무덤에서 출토된 저고리에 잠자리무늬가 여러 종류의 꽃과 보배무늬 사이에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나비는 여성스러움의 상징으로 여성의 정조와 애정 그리고 부부 금슬의 의미가 있다. 나비의 한자어 중 하나인 호접胡蝶은 나비 호빠 자가 오래 살 호胡 자와 발음이 같은 데서 비롯하였으며, 따라서 나비는 장수를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봄에 주로 꽃과 함께 등장하는 곤충으로 소원 성취와 입춘대길의 의미도 있다. 벌은 검소와 절약 그리고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직물에서는 단독으로 표현되기도 하나 주로 나비와 함께 등장하였다. 벌이 나비와 함께 표현된 자료는 여흥 민씨(1586~1565) 묘 출토 장옷에 연꽃과 난초 화분 사이에 벌과 나비가 배치된 도안과 홍우협(1655~1691) 묘에서 출토된 삼희장저고리에 탐스런 수국 사이에 벌과 나비가 표현되어 있다. 벌로만 표현된 자료는 여흥 민씨(1586~1565) 묘에서 출토된 천금(시신을 덮는 이불의 한 종류)에서 발견된 무늬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 종류의 꽃들 사이에

벌이 석류 가지에 매달린 벌통에 다가서려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사천 목씨(1657~1699) 묘 출토 저고리에는 활짝 핀 매화 사이에 벌이 날고 있는 모습으로 도안된 것도 확인된다. 하지만 벌무늬는 17세기 이후로 직물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와 달리 나비무늬는 조선 말기에도 남녀 간의 사랑과 행복의 상징으로 여인들의 혼례복, 장신구, 가구 등의 장식무늬로 애용되었다.

나비무늬는 고려 말기 아미타불복장 직물에 표현된 것이 가장 이른 시기(1302)의 무늬로 매우 간결하고 단순하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직물에 표현된 나비무늬는 17세기 출토복식에서 확인되는데, 장기 정씨(1565~1614) 저고리에 표현된 나비는 정면과 옆모습으로 도안되어 모란 넝쿨 사이에 배치된 모습으로 더듬이와 날개의 무늬 등이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청송 심씨(1683~1718, 심익현과 숙종의 딸 숙명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장자長子 심정보의 딸)의 수의용 신, 심익창(1652~1725, 심익현의 동생)의 아내 성산 이씨(1651~1671)의 치마와 주머니에 나타난 나비무늬는 모두 자수로 표현된 것인



① 잠자리무늬 | 16세기



② 나비무늬 | 18세기



③ 벌나비무늬 도식 | 17세기



④ 벌무늬 | 17세기

곤충무늬 ① 파평 윤씨 묘 출토 저고리 중 부분 | 고려대학교박물관, ② 청송 심씨 묘 출토 습신 중 부분 | 충북대학교박물관, ③ 홍우협 묘 출토 삼희장저고리 중 부분 | 국립문화재연구소, ④ 여흥 민씨 묘 출토 천금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데, 당시 왕실에서조차 수를 놓은 복식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18세기에는 원형을 이루는 꽃무늬가 유행하는데, 심익창의 소창의에 원형의 난초와 함께 도안된 나비무늬가 있으며, 탐릉군 이변(1636~1731)의 중치막에는 매화 사이에 정면과 옆면으로 표현된 나비무늬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20세기 이후 직물에 나타난 나비의 표현은 영친왕비(1901~1989)의 패물궁보에 매화가지와 둥근 꽃무늬 사이에 정교하게 표현된 나비무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20세기 초 노리개 장식에 사용된 나비장식에서 장식적으로 사용된 나비의 형태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직물에 나타난 곤충무늬는 잠자리, 나비, 벌이 있는데 다른 무늬에 비하여 드물게 보이는데, 그중 나비무늬가 주류를 이룬다. 나비무늬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꽃과 함께 또는 벌과 짝을 이루어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조선 말기에는 여성과 관련된 복식이나 장신구에 나비를 장식 소재로 많이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영친왕일가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의문의 조선-무늬(경기도박물관, 민속원, 2016), 파평윤씨 모자 미라 종합 연구 논문집(고려대학교박물관, 2003).

필자 정미숙(鄭美淑)

공단 貢緞

정의 무늬 없이 제직된 수자조직(繡子組織)의 단직물.

내용 공단(貢緞)은 수자조직으로 제직된 무늬 없는 단직물을 말한다. 수자조직은 경수자조직과 위수자조직이 있는데, 공단은 경사가 많이 드러나는 경수자조직으로만 제직된다. 실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속사를 선염하여 사용하며 경사 밀도를 치밀하게 하고 위사는 굵은 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단은 문단보다 두 겹고 광택이 많이 난다. 경사와 위사의 색을 한 가지로 사용하는 단색 공단과 경위사의 색을 달리한 이색 공단도 있다.



공단 | 국립민속박물관

조선 전기에는 무늬 없이 제직된 단을 소단(素緞)이라고 하였다. 『번역박통사(翻譯朴通事)』에서는 무늬 없는 단직물을 ‘소단자(素段子)’라고 하고 ‘뽕비단’으로 번역하였다.

공단이란 용어는 중국 청대에 ‘관영직조공방에서 생산하여 공물로 바쳐져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란 뜻에서 명명된 것으로도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 공단은 1700년대 이후의 문헌 기록에서 확인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보면 1776년(영조 52) 습례(襲禮)를 행할 때 옥색공단장의(玉色貢緞長衣), 보라공단장의(靑羅貢緞長衣), 남공단중치막(藍貢緞中赤莫), 백공단대고(白貢緞大袴)를 사용한 것이 나타난다.

1783년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봉안의물도설 중 죽책과 죽책 내궐에 사용된 보자기에 쇄금진홍공단(灑金眞紅貢緞), 진홍공단(眞紅貢緞)을 사용하였음이 나타난다. 1800년(정조 24) 재궁에 채워 넣은 의복에서도 초록공단창의(草綠貢緞窓衣), 보라공단장의, 초록공단중치막(草綠貢緞中赤莫), 남공단중치막, 옥색공단장의, 남공단창의(藍貢緞窓衣), 심남공단창의(深藍貢緞窓衣), 두록흑공단쾌자(頭綠黑貢緞快子), 남공단쾌자(藍貢緞快子), 모단색공단(毛緞色貢緞), 진홍대공단(眞紅大貢緞) 등이 나타난다. 「궁중발기(宮中撥記)」에는 일람·진홍·초록·황·남송·다홍·남·분홍·자적·모단색·백·아청·류청·홍 등의 각색 공단이 기술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연대의 공단 유물은 1436년 조성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불복장에서 발견된 소재단이다. 무늬 없는 무문단으로 경사, 위사에 꼬임이 없는 실을 사용하여 5매 3뿔 수자조직으로 제직되었다. 고려시대 공단 유물은 안동 태사묘에도

남아 있다. 공민왕이 하사했다고 전해지며 양쪽에 식서가 남아 있고, 폭 너비는 64.7cm, 길이는 57.7cm이다. 조직은 5매 2뿔 수자조직이다. 안동 태사묘에는 같은 공단으로 만든 부채도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복식류뿐만 아니라 자수의 바탕 직물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초충도수병草蟲圖繡屏>의 바탕 직물은 5매 수자직의 검정색 단을 사용하였다. 선암사에 소장된 전 대각국사의 의천가사는 경사와 위사의 색을 달리하여 제직한 이색 공단에 자수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5매 수자직으로 제직되고, 1700년 이후에는 8매 수자조직이 사용되면서 더욱 광택이 풍부한 공단이 제직되었다.

특징 및 의의 공단은 무늬 없이 제직된 수자조직의 단직물로 고려시대에서 현대까지 복식 및 자수 등에 폭 넓게 사용된 대표적인 전통 직물이다. 현재는 합성섬유나 인견 등을 섞어 제직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景慕宮儀軌, 宮中撥記, 飢譯朴通事, 朝鮮王朝實錄, 개화기 이후 한국 단직물 연구(신혜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전통옷감(민길자, 대원사, 1998), 한국직물 오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 2002).

필자 심연옥(沈蓮玉)

공복 公服

정의 관원이 조정에 나갈 때 입는 복식 일체.

역사 정국이 불안정하던 개국 초 고려는 신라의 구제舊制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959년(광종 11)에 이르러 원윤元尹 이상은 자삼紫衫, 중단경中壇卿 이상은 단삼丹衫, 도항경都航卿 이상은 비삼緋衫, 소주부小主簿 이상은 녹삼綠衫으로 사색공복제도四色公服制度를 마련하였다. 이후 1123년(인종 원년), 송나라 사신 서궁徐兢이 『고려도경高麗圖經』 관복조冠服條에서 중국 송의 제도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 관복도를 그린다고 하였으나 현재 그림이 남아 있지 않아 그 실상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의종毅宗 때에 평장사 최윤의崔允儀가 조종의 헌장을 모으고

당제唐制를 섞어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제정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관복 제도가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에서는 1426년(세종 8), 예조禮曹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고려시대 조정의 관복 제도를 조사하여 그 기록을 토대로 관복을 재정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1369년(공민왕 18)에 명태조가 공민왕에게 내린 관복의 자문咨文에는 시사복으로 정해진 오사모烏紗帽와 단령삼團領衫, 속대束帶를 공복이라 하였으며, 상복常服과 공복을 같이 착용하였다고 했다. 그 후 1402년(태종 2)의 방문榜文 가운데, 공복은 등근 깃[盤領]에 우임포右衽袍이며, 복두幘頭를 쓰고 홀笏을 들고 대帶를 띠며, 흑화를 신는다고 하여 공복의 관모가 복두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공복을 별도로 장만하지 못하게 되자 흑단령인 상복과 겸용하였지만 가례 때 반드시 공복을 착용해야 하는 정사正使, 부사副使, 주인主人, 빈자賓者 등은 조선 말기까지 공복인 홍단령紅團領을 입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 고려시대에는 평상시에 입는 집무복으로 공복을 착용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집무복으로 상복을 입고, 삭일朔日이나 조회朝會를 포함하여 임금을 알현하거나 사은謝恩할 때, 부임 전 인사할 때, 왕세자에게 하례할 때, 중궁과 왕세자에게 사은할 때 공복을 착용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 의장조에서 공복과 집무복인 상복을 관모와 흉배의 유무로 구분하여, 공복에는 관모로 복두를 착용하였으며, 단령에는 흉배가 없다. 이에 따라 왕세자 이하 문무백관을 비롯하여 향리鄕吏, 전악典樂 등의 관리들은 공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 공복을 착용하였다. 이외에도 왕세자가 입학할 때 박사는 공복을 착용하며, 종친들이 입학하는 의식에도 교관이 공복을 착용하였다. 왕세자의 납빈의納嬪儀, 납채의納采儀를 거행할 때는 별감이 공복을 입었으며, 왕세자와 왕세손을 책봉하는 의식에서는 교명안敎命案을 든 자가 공복을 입었다.

왕녀와 왕자가 혼인할 때 사위와 대군은 공복으로 입고, 급제자 역시 공복을 입고 삼일유가三日遊街 의식을 행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집사執事者와 배제관이, 제악을 행할 때는 전악이 공복을 착용하였고, 지방의 향

리도 공복을 착용하였다. 한편 1420년(세종 2) 사후토 의(謝后土儀)를 지낼 때 제사를 시작하면 집사자는 제각기 공복을 입었으며, 1423년(세종 5)부터는 원단(圓壇)·사직·종묘의 제사에 서계(誓戒)(나라의 큰 제사를 이레 앞두고 제관들이 의정부에 모여서 서약하던 일)할 때에 모두 공복을 착용하여 제사 때도 공복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에는 공복과 상복을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성종(成宗) 대에 이르러 왕세자는 삭망(朔望)과 조하(朝賀) 때 공복 대신 조복(朝服)을 입었다. 정조(正朝), 동지(冬至), 생신(生辰) 때 문무백관은 하례하면서 여전히 공복을 입었으나 왕세자는 면복(冕服)을 입게 되었으며, 사부(師傅)와 빈객(賓客)이 함께 모일 때에는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기 시작하면서 공복이 아닌 면복, 원유관복, 서연복 등의 법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백관들도 조하할 때 공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진왜란 후 관복 갖추기가 어렵게 되자 공복 착용은 열에 한둘도 안 될 정도로 크게 감소하였다. 1638년(인조 16)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육례를 치르면서 백관은 조복을 입고 집사는 공복을 입어야 했는데, 조복과 공복을 갑자기 준비하기는 어려우니 정사와 부사만 공복을 입으라고 한 기록이 있다. 또 납채(納采)와 납징(納徵) 등의 예를 행할 때에 정사 이하의 여러 집사(執事), 주인, 빈자 및 궁관(宮官)들이 입을 공복을 모두 도감에서 조치하여 준비하라고 하였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자 단지 정사, 부사, 주인, 빈자만 공복을 입고 나머지는 모두 흑단령을 입기 시작했다. 결국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치르면서 전란기에 별도의 공복을 갖추지 못하여 상복인 흑단령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한편 공복의 용례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흑단령이 구차하고 간략하다는 이유로 원칙대로 공복을 착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613년(광해 5) 봉자전(奉慈殿) 제사의 복식 논의에서는 배제관(陪祭官)이 모두 공복을 착용하도록 하였고, 1744년(영조 20)에는 다시 공복 제도를 정비하여 당상관 이상은 비색, 당하관 이하는 홍색을 입도록 하여 이를 『속대전(續大典)』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상관 이상은 홍색, 당하관 이하는 청록색으로 품계에 따라 두 가지의 색으로 정리되었으며, 이는 『경국대전』의 규정에서와 같이 4품 이하 6품까지는 청색, 7품 이하 9품까지는 녹색이었던 제도가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복 사용이 늘어 1815년(순조 15)에는 영릉(永陵) 이하 능·원·묘(墓)·궁·묘(廟)에는 모두 포공복(布公服) 차림으로 행사하였으며, 왕릉의 문인석상에도 여전히 공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공복의 구성을 『경국대전』에서 보면 복두(幘頭), 포(袍), 대(帶), 홀(笏), 화(靴)로 이루어져 있다. 복두는 일명 절상건(折上巾)이라고도 한다. 이는 모체(帽體) 중간에 턱이 있고 뒷부분이 위로 솟아 있으며, 양쪽에 각(脚)이 달려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신라시대 왕이 착용하던 복두의 각은 위로 굽고, 신하의 것은 밑으로 굽었으며, 고려시대에는 길고 평직으로 된 것을 군신이 통용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사모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각이 그다지 길지 않고 폭이 좀 넓으며 평직이었다. 조선 전기에 왕세자의 복식이 공복이 아닌 강사포로 바뀌면서 복두는 원유관(遠遊冠)으로 바뀌었으며, 백관 역시 사모를 함께 사용하면서 복두의 사용은 줄어들었다. 복두는 문무백관 1품에서 9품까지의 관리와 향리가 착용하는 관모로 임진왜란 이전에는 공복과 같이 복두를 착용하였으나 이후에는 복두보다 사모를 애용하였을 뿐 아니라 난리로 의관이 탕진되어 공복과 상복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복두의 착용도 점차 축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왕자의 관대로 복두 일부와 악공 복식으로 모라복두와 화화복두가 마련되면서 복두가 다시 회복되었으나 고종 대에 이르러 문무관의 관모는 사모 한 가지로 공복과 상복의 구분 없이 통용되었다.

포는 단령으로 된 대수포이며, 옷깃은 둥글고 우임(右衽)이며 소매는 넓고 길며, 옷 길어도 매우 길다. 단령의 색과 대·홀의 재료에 따라 품계의 등위를 가렸는데, 1품에서 3품까지는 홍포이고 4품에서 6품까지는 청포이며 7품에서 9품까지는 녹포이다. 그 후 영조 대 『속대전(續大典)』에는 1품에서 3품까지는 담홍포(淡紅袍)이며, 그 이하는 홍포인데 정조 대의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중 3품 이하의 홍포를 없애고 『경국대전』에서와 같이 청녹포로 정했다. 고려시대에는 목둘레와 소매 끝에 길의 색과 다른 색의 선(襷)을 둘렀으나 조선시대에는 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무의 형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 초기에는 두루마기처럼 사방이 막혀 있었으나, 숙종 대 이후에는 일반 단령의 무처럼 뒤로 돌

아가 있어 상복을 공복으로 입었던 임진왜란 이후 변화의 반영으로 보인다. 화는 초기에는 흑피화를 신다가 후기에는 목화를 신었으며, 홀은 1품에서 4품까지는 아홀牙笏, 5품 이하는 목홀木笏을 들었다.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서』 공복의 치수를 보면 대소인원은 문무관직을 막론하고 표의의 길이가 앞은 땅 위에서 3촌^寸 떨어지고 뒤로는 2촌 떨어지게 하며, 소매 길이는 손을 지나서 다시 걷어 올려 팔꿈치까지 오는 길이로 하고 소매통은 너비 1척^尺, 소매부리는 7촌으로 하였다. 그러나 1793년(정조 17)에는 공복의 소매와 깃이 점점 넓어져서 옛 제도에 어긋나자 공복의 소매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1884년(고종 21)에는, “공복 제도는 본래 고제가 아닐 뿐 아니라 지금은 법도가 문란하고 습속이 타락하여 떨어 일어날 기약이 없기 때문에 고제를 원용하고 지금의 것을 참작하여 번잡한 것을 제거하라.”라는 전교가 내려져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續大典, 명 홍무연간 문무관 공복의 제정과 개정 시기 재검토(이주영, 복식63-5, 한국복식학회, 2013), 우리나라 공복에 관한 연구(김미자, 복식6, 한국복식학회, 1982),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학사, 1998), 한국의 관복(고광림, 화성사, 1990).

필자 이민주(李民周)

공정책 空頂幘

정의 조선시대 왕세자나 왕세손의 관례冠禮·책례冊禮·입학례入學禮 및 상례喪禮 때 착용한 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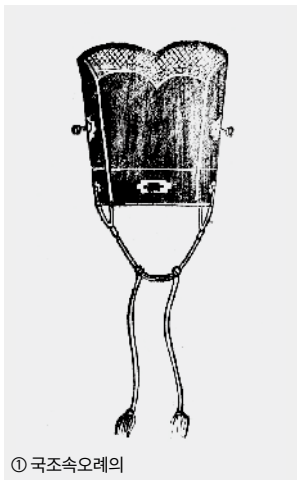
역사 공정책空頂幘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521년(중종 15)의 기록에 처음으로 확인되는데, 명나라 수도인 경사京師(현재의 베이징)에 다녀온 신하가 임금에게 바친 황태자의 쓰개였으며 일명 소요건遼遙巾이라 하였다. 중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머리 꼭대기의 머리카락을 한 가닥이나 두 가닥으로 묶고 소요건을 썼다. 황태자皇太子의 경우에는 쌍옥도雙玉導를 소요건의 양쪽에 가로질러 꿰어 소요건이 움직이지 않게 하며, 이외 보통 아이들은 뿔이나 뼈로 된 비녀를 사용한다고 전

하였다. 당시 임금에게 바친 소요건인 공정책은 예조禮曹에 보관되었다. 중종 이후의 기록에는 왕세자와 관련된 쓰개에 소요건이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고 공정책만이 확인되며, 공정책은 1665년(현종 4)의 기록에 판板을 없앤 평천관平天冠으로, 정례正禮 때 쓰는 관冠으로 정의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공정책의 용례를 보면 1648년(인조 26)에는 왕세손의 책봉례, 1649년(효종 6)에는 세자의 상례, 1667년(현종 6)과 1690년(숙종 29)에는 세자의 책례에 사용되었다. 1736년(영조 1), 1784년(정조 49), 1812년(순조 17), 1875년(고종 12)의 기록에는 왕세자가 책봉을 거행할 때 사용되었고, 1817년(순조 22)과 1882년(고종 19)에는 왕세자의 입학례, 1817년(순조 22)에는 작헌례, 1819년(순조 24)과 1882년(고종 19) 왕세자의 관례에 사용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내용 공정책은 중국의 어린아이들이 쓰던 소요건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왕세자, 왕세손이 정례正禮 때 사용한 판板을 없앤 평천관平天冠의 형태로 평천관을 사용하기 전에 쓰던 세자의 관모이다.

공정책은 왕세자의 특별한 행사에 특정 의복과 함께 사용되었는데, 왕이 일반적으로 면복에는 면류관, 강사포에는 원유관을 썼던 것에 비교해 보면 왕세자의 경우 이러한 관모들을 대신하여 공정책을 썼다. 대표적인 공정책의 용례는 왕세자의 책봉 때인데, 왕세자는 쌍동계雙童髻에 공정책을 쓰고 칠장복七章服을 입었다. 세자의 책례 때에도 공정책을 썼는데, 1665년(현종 6) 세자의 책례 복식을 의논하여 공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정조, 순조 때에도 책례의 복식에 사용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왕세자의 책례를 거행할 때에는 책봉 때와 같이 쌍동계에 공정책을 쓰고 의복은 칠장복을 입었다. 1649년(효종 6)에는 『오례의五禮儀』에 근거하여 상례 시 세자의 복장에 대하여 예조가 백단령, 포과대, 백포의 공정책에 아잡牙簪으로 개정하여 상례에는 색과 재료를 달리하여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왕세자의 작헌례와 입학례에는 쌍동계를 하고 공정책을 쓰고 곤룡포袞龍袍를 착용하여 책봉과 책례와는 다른 의복을 착용하였다. 이외에도 왕세자의 관례 때는 공정책을



① 국조속오례의



② 공정책을 쓴 영친왕

공정책 | 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② 국립고궁박물관

쓰고 도포를 입었다. 이처럼 왕세자는 책봉·책례·작헌례·입학례·관례에 쌍동계를 하고 공정책을 썼는데, 의례에 따라 칠장복·곤룡포·단령·도포를 입었다.

공정책의 형태는 관례를 엮어 편찬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면冕과 같은데, 면판冕版과 면류冕旒가 없는 것으로 걸은 모라(毛羅)로 싸고, 금종이(金紙)로 꾸미며 양쪽 옆에는 붉은 끈(朱組)이 있고 쌍옥도(雙玉導)의 잠을 꿸다고 하였다. 이는 양관(梁冠)의 제도와 비슷하되 모정을 덮는 부분이 없는 형태로, 실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補序例)』의 공정책 도식과 영친왕이 쓴 공정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양粱을 둘러싼 뒷부분이 두 개의 둥근 산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둥근 꽃잎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어 양관, 충정관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책의 재료와 색은 1648년(인조 26) 8월 왕세손의 책봉 때에 흑색으로 규정하였고, 상례 시에는 백포를 사용하였으며, 1922년(순종 15) 왕손 이진의 소렴(小殮)과 대렴(大殮)에 포함된 것에는 외공은 아청 공단(靑緞)이고, 내공은 공홍(供紅) 공단이라 하여 시기와 상황에 따라 소재와 색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공정책은 왕세자, 왕세손이 특정 행사 때 사용하던 쓰개의 하나로 공통적으로 쌍동계를 한 후 사용하였으며, 의례에 따라 의복은 다르게 착용되었다. 왕세자, 왕세손이 책봉과 책례를 행할 때에는 칠장복을 입었고, 작헌례와 입학례, 상견례 때에는 곤룡포를 착

용하였다. 1819년(순조 19) 왕세자의 관례에는 공정책에 도포를 입었다.

공정책의 재료는 기록을 통해 모라(毛羅), 공단이 사용되었고, 상례 시에는 백포(白布)로 감싸 만들었다. 관의 양쪽 옆에는 붉은 끈이 있으며 잠은 쌍옥도를 사용한다. 중국의 소요전에서 유래된 공정책은 고종의 왕자가 사용한 것이 남아 있어 조선 말기까지 썼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國朝續五禮儀補序例,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81), 한국복식사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김은정(金恩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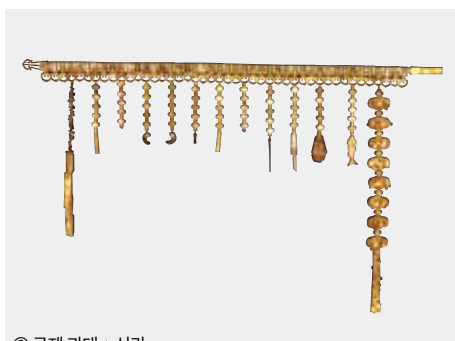
과대 鈐帶

정의 포대(布帶)나 혁대(革帶)에 과鈐(鈐), 교구(鉸具), 대선금구(帶先金具)들을 못으로 고정하고, 아래에 요패류(腰飾類)를 수하(垂下)시킨 띠.

역사 중국의 고문헌들을 살펴보면, 과대의 풍습을 북방 호족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왕국유(王國維)의 『호복고(胡服考)』에 따르면 호복(胡服)인 고습(袴褶)을 중국 한대(漢代)에 하급 무인(武人)복장으로 착용하다가 위대(魏代)에 들어와 관(官)의 상하(上下)로 보급되었다. 이에 따르는 ‘곽락대(郭洛帶)’라 부르는 호대(胡帶)의 사용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점접대(蹀躞帶)라고 불렀다. 북위(北魏)의 석불(石佛)에 호복(胡服)을 입은 공양자들이 허리에 요패(腰佩)를 달았고, 남시베리아 쿠빈스크에서 발견된 돌궐(突厥) 귀족 석인에는 혁대에 요패를 단 모습이 잘 묘사되었다. 돌궐의 유물이나 위구르족으로 알려진 베제클리크(Bezeklik) 9호분의 인물도 요패를 달고 있어 요패 착용이 북방민족에서 기원했음을 보여 준다. 부여에서도 허리에는 금은식(金銀飾)을 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과대류도 이미 착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에서 과대鈐帶에 관한 기록은 『한원(翰苑)』 고려조(高麗條)에서 “호복(胡服)의 복식인 긴 바지에 은대(銀帶)를 차고 좌우에 솟돌과 칼을 패용”했다고 기록하여 과대류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① 은제 과대 | 백제



② 금제 과대 | 신라



③ 은제 과대 | 가야

과대 | ① 공주 무령왕릉 | 국립공주박물관, ② 경주 천마총 | 국립중앙박물관, ③ 경산 임당동 고분 | 영남대학교박물관

과

두

내용 과대 부속품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교구(띠고리): 타원 또는 장방형으로 중국이나 북방에서 사용되던 일자형의 구조와 달리 결쇠와 축이 하나로 만들어진 T자형으로 반대편 끝의 구멍 속에 찢러 넣어 고정하는 구조 2. 과관(띠꾸미개): 대를 장식하는 금속제 판 3. 대선금구(띠끝꾸미개): 교구의 반대편 대 끝에 붙여 착용 시 교구의 고리 속을 지나 몸의 앞쪽에 늘어뜨림 4. 요패(띠드리개): 과관 아래에 늘어뜨려 여러 가지 요식腰飾을 매단 장식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백제시대 과대는 교구와 대선금구·과관·요패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금과 은을 사용하였다. 충청남도 부여 능산리 고분에서는 은제 교구, 대선금구, 심엽형 과관 등이 출토되었는데, 착용법은 교구 속을 대선금구가 돌아 지나가게 매어 앞으로 늘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라시대 과대류는 금관총 출토 금제 과대, 천마총 출토 금제 과대, 은제 과대, 식리총 출토 은제 과대 등이 있다. 과대의 교구는 결쇠와 축이 하나로 만들어진 T자형이며, 과대에 늘어뜨린 요패는 초기에는 한 줄 내지 몇 줄로 구성되다가 점차 발전하여 대형 요패 1조와 소형 요패 여러 조로 구성된다. 요패는 질병을 다스리는 약병 또는 향수병, 풍요와 불사不死를 상징하는 물고기, 용무늬를 새긴 장식, 곡옥, 숫돌 모양 등이 달려 있다. 경상남도 경산 임당동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은제 과대, 경남 합천 출토 은제 과대, 창녕 교동 출토 은제 과대 등도 신라시대 과대류와 과관의 양식과 요패의 양식이 거의 비슷하나 요패의 종류와 숫자가 적어서 숫돌형과 어형魚形 정도만 달려 있다. 통일신라시대 과대는 중국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과대가 만들어지는데, 골품骨品の 품계

에 따라서 재료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 길림성 화룡현 하남둔 출토 발해시대 순금제純金製 과대는 금을 누금鑢金하는 기법이 뛰어나다. 그리고 상감기법을 이용하여 마디 홈에 수정과 터키석을 박아 넣었으며, 아래에는 금동 고리에 소지품들을 매달 수 있게 하였다.

특징 및 의의 과대에 늘이는 요패들은 일시에 그 전부를 패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공에 따라 지역에 따라 적절히 배합하여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계급에 따라 사용되는 재료가 달랐다. 요패를 매다는 과대는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사용한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허리에 무언가를 주렁주렁 매다는 히피 스타일 벨트로 사용하는 정도이다.

참고문헌 고분출토 부장품연구(윤세영,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8), 무령왕릉발굴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3), 한국복식사개론(김문자, 교문사, 2015), 황남대총 남분 발굴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연구소, 1993), 황남대총 북분 발굴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5).

필자 김문자(金文子)

과두

裹肚

정의 조선 전기 남자 상의류이자 조선 후기의 배싸개.

내용 조선시대 문헌에 과두裹肚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세종실록世宗實錄』이다. 「오례의五禮儀」 중 상례喪禮와 관련하여 왕과 사서인士庶人의 습의襲衣의 하나로 기록되

어 있다. 습의 일습으로는 원령(圓領), 답호(搭胡), 철릭(帖裏), 과두, 한삼(汗衫) 등이 확인된다. 또한 실록에는 『단종실록(端宗實錄)』부터 『선조실록(宣祖實錄)』까지 과두 기록이 보이는데 명나라 사신을 비롯하여 종친, 신하에게 하사한 옷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과두의 용도는 수의로는 물론이고 일상복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종실록(成宗實錄)』 1474년(성종 5) 12월 16일 기록에는 월산대군의 과두에 서피(鼠皮) 안감(內拵)을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중종실록(中宗實錄)』 1525년(중종 20) 10월 14일 기록에는 삼도(三道) 절도사(節度使)에게 내릴 백주과두(白紬裹肚)에 사용할 여우가죽(狐皮)에 대해 논의하는 기사가 보인다. 1539년(중종 34) 4월 25일에도 사은사(謝恩使)의 여우가죽을 안감으로 넣은 백유과두(白繡裹肚)를 내리도록 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한편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에 따르면 1504년(연산군 10) 4월 9일 기사에는 한삼과 과두, 감다할색 철릭을 입고 죽은 이세좌(李世佐)(1445~1504)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을 통해 과두는 한삼과 같은 속옷 위에 입고 철릭의 받침옷으로 입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1521년(중종 16) 4월 11일 기사에는 집에서 망건을 벗고 과두만 입고 있던 곤양수(昆陽守)를 언급한 내용이 보인다.

19세기 이후 20세기 초까지의 「궁중발기(件記)」에는 여전히 상의류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1896년 <상의사대군주폐하정조진상(尙衣司大君主陛下正朝進上)>에 철릭, 과두, 삼아(衫兒), 바지(把持) 등이 보이며 1906년 『태자궁가례교시시(太子宮嘉禮敎是時)』 중에 백토주(白吐紬) 유과두(繡裹肚) 일차(一次) 재료로 백토주 1필, 내공 백정주 2필, 중면자(中綿子), 안지차(按紙次) 등이 준비되었다.

이상의 기록들을 보면 과두는 조선 말기까지 기록으로 확인되는 상의이다. 주로 흰색 초나 주 등의 평

직물 겹감으로 만들었는데 겹으로 짓거나 솜을 두기도 하고 털을 넣기도 한 옷이었다. 외출용 겹옷은 아니고 한삼 위에 입는 저고리 종류임을 알 수 있다. 일반 저고리보다는 길고 포보다는 짧은 것이 특징인데 좌우 옆선에 짧은 트임이 있기도 하다. 길이 100cm 내외의 반코트 모습을 하고 있다. 15세기 후반 송효상(宋效商)(1430~1490) 묘 출토 과두를 비롯하여 17세기 전반 김학(金爚)(1572~1633) 묘에서 출토된 과두 유물 등 20여 점 남아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 후기 예서(禮書)에는 과두가 배싸개 종류로 기록되어 있다. 이재(李穡)(1680~1746)의 『사례편람(四禮便覽)』 「상喪」에 따르면 과두는 배와 허리를 싸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주축(紬) 면포(綿布)로 만드는데 전폭(全幅) 너비에 몸에 두를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 네 귀퉁이에 끈을 달았다. 여상(女喪)에서는 속칭 요대(腰帶)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남자의 과두와 형태는 같으나 아래쪽 양 끝에 끈이 없는 점이 다르다고 하였다. 남자 과두 유물은 현전하는 것이 없으나 남자 과두와 유사한 여자 요대는 안동 김씨 묘에서 출토된 유물이 있는데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朝鮮王朝實錄, 고문집대성1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궁중발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이명은,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2(문화재청, 2006),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경기도박물관, 2001), 조선시대 과두에 관한 연구(송미경, 복식 60-1, 한국복식학회, 2010).

필자 이명은(李明恩)

과실무늬

정의 장수(長壽), 다남(多男), 다복(多福)과 같은 길상의 의미를 내포한 과일을 도안화한 무늬.

내용 전통 직물에서 선호되었던 과실무늬는 크게 포도무늬, 호로무늬, 복숭아·석류·불수감으로 구성된 삼다무늬(三多紋), 여지·감·규원의 둥근 과일로 구성된 삼원무늬(三元紋)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과실무늬는 16세기



남자 과두와 유사한 여자 요대 | 안동 김씨 묘 출토 | 18세기 | 경기도박물관

무렵 나타나기 시작하여 17~18세기에 유행하였다. 그 배경에는 당시 사대부 층의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유학자들은 우주의 원리를 자연현상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내면으로 향하던 사고 방향을 선회하여 사물, 특히 자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확장하였다. 19세기가 되면 과실무늬는 더욱 유행하는데 이는 경제 사회의 어려움으로 벽사나 길상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은 무늬에 담긴 소재의 상서로움이 옷을 지어 입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믿음으로써 기복에 대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였다.

포도는 열매가 많고 덩굴이 뻗어 나가는 형태적 특징 때문에 풍요·부富·다자多子를 상징하는 무늬로 시문試紋되었다. 포도무늬는 가장 오래된 과실무늬이며 서아시아의 영향으로 중국에는 3세기경부터 들어왔으며, 실제로 중국 신장성 출토유물 중에는 포도무늬가 시문된 모직과 견직물의 옷감들이 여러 점 발견되었다. 포도무늬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8세기경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와당瓦當·전搏·석조물 등에 나타났으며, 특히 12세기 전반의 고려 상감청자에는 포도 덩굴 사이에 동자가 매달려 노는 모습을 많이 도안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고려시대 견직물에서도 포도무늬가 시문된 것이 한 점 남아 있다.

과실무늬의 유행은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중국의 영향으로 연꽃무늬와 구름무늬가 크게 유행하여 쇠퇴하다가 16세기 무렵 부활하기 시작하여 17~18세기에 활기를 띤다. 16세기 청주 한씨(1550년대)의 치마에는 포도 덩굴 사이에 동자가 매달려 있는 직금 스란단이 사용되었으며,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포도 덩굴에 다람쥐가 달려 있는 모습을 목가적으로 표현한 화문단, 화문사의 옷감들이 유행한다.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 다남을 상징하는 다람쥐의 의미와 목가적인 아름다운 디자인이 상승하여 선호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천 목씨(1657~1699)의 여성용 저고리, 안동 권씨(1644~1722)의 당의뿐만 아니고 홍우협(1655~1691)의 유물과 신경유(1581~1633)의 도포에도 나타난다.

삼다무늬는 복숭아·석류·불수감으로 구성된 무늬를 말한다. 복숭아의 다수多壽, 석류의 다남, 불수감의



① 석류와 석류꽃무늬 | 18세기 전반



② 석류와 석류꽃무늬 도식



③ 포도다람쥐무늬 | 18세기 전반



④ 포도다람쥐무늬 도식

과실무늬 | ① 안동 권씨 묘 출토 치마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② 안동 권씨 묘 출토 치마 중 부분 | 국립문화재연구소, ③ 안동 권씨 묘 출토 당의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④ 안동 권씨 묘 출토 당의 중 부분 | 국립문화재연구소

다복을 의미하여 ‘삼다三多’라 하였으나 처음부터 세 종류의 과실을 한꺼번에 도안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각각 하나씩 도안하거나 혹은 둘씩 묶어서 도안하였다. 세 개의 과실을 묶어 ‘삼다무늬’ 혹은 ‘도류불수무늬’로 부른 것은 조선 말기에 벽사나 길상에 대한 선호가 강한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18세기 초에는 굵은 가지에 석류 혹은 복숭아 한 종류를 연결한 무늬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발전하여 복숭아·석류·불수감 세 종류의 과실이 짝을 이루는 도류불수무늬를 만들어 길상의 시너지 효과를 의도하였다. 왕실 및 반가의 당의, 치마와 저고리를 비롯하여 주로 여성복식에 애용되었다.

복숭아는 일반적으로 ‘천도天桃’라고 불리며 장수를 상징하는데, 송나라 구양수歐陽修의 『삼다설三多說』에서 “곤륜산에 살고 있는 신선인 서왕모가 삼천 년 만에 한 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천도를 가꾸는데, 전설

적인 인물인 삼천갑자三千甲子 동방삭東方朔이 천도를 훑쳐 먹고 장수하였다.”라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석류는 서역에서부터 전해진 것인데, 우리나라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시대로 암막새에 조각된 석류무늬를 찾아볼 수 있다. 석류는 껍질 속에 씨앗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어 다손多孫과 다남을 연상시키며, 석류의 겉모양과 씨가 들어차 있는 모습이 마치 금은보석을 담은 복주머니처럼 보인다고 하여 부귀, 풍요의 뜻도 지니게 되었다. 직물에서의 석류무늬는 현재 고려 말기의 복장직물에 시문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1346년에 조성된 장곡사 철조약사불의 복장직물의 석류무늬는 조선시대의 것과는 달리 석류의 최소한의 특성만을 살려 단순하게 도안한 것이 그 특징이다. 본격적으로 석류무늬가 많이 나타난 것은 조선 후기이며, 이 무렵 석류무늬는 정형화되지 않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전개되다가 조선 말기에 삼다무늬로 정착된다. 불수감은 감굴류에 속하는 과실인데, 모양이 마치 부처의 손가락처럼 생겼다고 하여 ‘불수감佛手柑’이라 부르며, 특히 불교적인 무늬로 애용되었다. 또한 불수佛手の ‘불佛’이 ‘복福’과 발음이 유사하여 복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호로무늬는 호리병박을 도안한 무늬로 ‘표단瓢簞’이라고도 불렀다. 도교에서 팔길선八吉仙무늬 중에 이철과가 지니는 호리병박이 있는데, 그 속에 선약이 있어 중생을 치료하는 영험한 무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민속신앙에서도 모든 귀신이나 독충을 호리병박 안에 넣어 가둘 수 있다고 믿어 벽사와 마귀를 제압하는 상징물로 사용되었다. 또한 호리병박에는 많은 씨앗이 들어 있어 자손 번창을 의미하는 길상무늬로도 애용되었다. 조선시대 호로무늬가 나타난 것은 18세기부터이며 다섯 개의 호리병박을 커다란 원형으로 도안한 오희로무늬로 시작된다. 그 후 19~20세기에는 호로무늬와 덩굴, 문자 등을 아름답게 배열하여 숙고사熟庫紗나 생고사生庫紗의 대표적인 무늬로 자리 잡게 되며 현대까지도 중요한 전통무늬로 남아 있다.

그 밖에 여지荔枝, 계원桂圓, 감[柿子]과 같은 둥근 형태의 열매들도 직물 무늬의 소재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원형의 원圓을 으뜸 원元和 같이 생각하여 선호하였으며, 특히 복숭아씨[核桃]·여지·계원 세 개의 원형무늬가

조합된 도안을 ‘삼원문三元紋’이라 하여 장원급제를 바라는 과실무늬로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총명함을 상징하였다. 여지는 당나라의 양귀비가 좋아했던 과일로 유명한데, 둥글고 딱딱한 외피 속에 달콤하고 수분이 많은 과육이 들어 있으며 안에는 매끄럽고 반짝이는 갈색의 씨앗이 들어 있다. 외피의 표면에 요철이 있어 독특한 모습으로 고려시대의 각종 공예품에 단독 무늬로 많이 사용되었던 소재이다. ‘어선화御仙花’라고도 불렀으므로 『고려사高麗史』의 ‘여지금대荔枝金帶’라 하는 명칭 이외에도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어선대御仙帶’라는 관복용 대의 명칭은 모두 여지무늬를 도안한 대를 뜻한다. 계원은 흔히 ‘용안’이라 부르는 과일로 중국 남쪽지방에 많이 생육되고 있다. 여지와 맛과 모습이 비슷하나 그 과육은 수분이 적고 외피가 더 동그랗다. 계桂 자의 발음이 귀貴와 비슷하여 장원급제를 바라는 삼원문에 포함되었으며, 지금도 용안을 먹으면 귀하고 총명해진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다.

과실무늬의 구성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산점 구도로 양천 허씨(1566~1626) 묘 출토 이불에서와 같이 복숭아·석류·불수감·여지·규원·오디 등의 다양한 종류의 과실들을 흩뿌려 놓은 듯한 배열이다. 둘째, 안동 권씨 묘 출토 치마에서와 같이 한두 종류의 과일을 원형이나 사각형의 단위 무늬로 만들어 격자형으로 배열한 것으로 좀 더 단정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셋째, 전체적으로 무늬가 가득 차게 배열되어 충전된 느낌으로 도안한 구도로 홍우협 묘에서 나온 포도·다람쥐무늬의 옷감, 해평 윤씨 묘에서 출토된 복숭아와 복숭아꽃무늬의 원삼, 안동 권씨 석류와 석류꽃무늬의 치마와 같이 여러 종류의 과일을 혼합하지 않고 한 종류의 과일을 선택하여 굵은 가지에 밀집하게 매달려 있는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특징 및 의의 다양한 과실이 여러 시대에 걸쳐 옷감의 소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 및 열매무늬의 옷감 명칭은 포도·도류·호로 정도만 기록되었다.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중 1504년(연산군 10) ‘남라동자포도쌍스란연변구니금화성군藍羅童子葡萄雙膝欄蓮邊具泥金畫成裙’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한중록閑中錄』에는 영조 때 세자가례의 재간택 후 내린 예물 물목 내용에 ‘초록 도

류단桃榴緞 당저고리, 송화색 포도문단葡萄紋緞 저고리, 보라 도류단 저고리, 오호로문단五葫蘆紋緞 치마'가 들어 있다. 또한 1844년에 쓴 <한양가>에는 도리불수단, 포도대단, 호로단이 기록되었고, 그 외에 「발기」에도 도류단, 도류사와 오호로단이 여자의 치마저고리는 물론 남자의 배자 동다리의 무늬로 기록되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閑中錄, 발기,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조효숙(趙孝淑)

7

관례복

관례복 冠禮服

정의 남자아이의 관례 때 입는 옷.

역사 관례冠禮는 『예기禮記』 「관의冠義」에 “관이 예의 시작이다.”라고 한 기록이 있고, 백제 등에서 『예기』를 읽었다고 하였으므로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관례를 행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 965년(광종 16) 2월에 광종이 아들 왕주王侁에게 관을 씌운 것이며, 이어 예종睿宗, 의종懿宗 때에 왕태자의 관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12세기경부터는 사대부의 자제들이 관례를 하였다는 기록이 묘지명 등에 나타난다. 그러나 관례가 일반화된 것은 1290년(충렬왕 16) 성리학과 함께 주자朱子(1130~1200)

의 『가례家禮』가 소개되어 성리학적 일생의례가 알려지면서부터이다. 조선시대가 되면 성리학의 이념에 따라 『가례』를 의례의 기본으로 하는 유교식 의례를 규범으로 삼으면서 관례는 일생의례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의례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상투를 틀어 관을 씌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관례는 1895년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 후 혼란기를 거쳐 현대가 되면 성인식成人式을 함으로써 전통 사회의 관례는 단지 전통문화를 계승하자는 행사 정도로 남게 되었고, 관례복 역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내용 관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전통 성인식은 관을 씌우는 의례가 핵심이었다. 즉, 땅은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복건이나 두건, 갓 등 관을 씌우는 의례가 관례이고, 관을 쓰는 것이 어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관례는 통상 15~20세 사이에 올린다. 관례는 세 단계에 걸쳐 옷과 관을 바꾸어 써서 어린 아이의 세계에서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어른의 책임을 지우는 의례이다.

관례복은 관례의 진행 절차에 따라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에 여러 종류의 옷이 등장한다. 모든 예서禮書를 검토할 수 없으므로 『가례』의 내용에 충실하였고, 가장 일반화된 『사례편람四禮便覽』의 관례복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시가례始加禮에서는 관례를 올릴 당사자(장관자將冠者)가 쌍상투에 사계삼[四揆衫](어린 아이의 일상복으로 '사규삼'이라고도 함)을 입고 채리彩履(무늬 있는



시가례

관례복 | 경북 안동 | 1992 | 김시상



재가례

신)를 신고 나오면 상투를 틀고 치관(緇冠(검은색의 유생용 치포관)에 비녀를 끼우고 그 위에 복건을 씌운다. 관례 당사자가 방으로 들어가 사계삼을 벗고 심의(深衣)를 입고 대대(大帶)를 하고 리(履(코 끝에 색실로 장식한 신))를 신는다. 재가례(再加禮)에서는 모자(혹은 초립, 갓을 쓰기도 함)를 쓰고 조삼(皂衫)을 입고, 혁대(革帶)를 두르고 혜(鞋(가죽신))를 신는다. 삼가례(三加禮)에서는 복두(幘頭)를 쓰고 난삼(襪衫)을 입고, 세조대(細條帶)를 두르고 화(靴(목이 높은 신발))를 신는다. 그러나 예서나 시대, 지역, 신분에 따라 관례복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의례에서 규정한 삼가례복을 모두 갖추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예서의 규정대로 관례를 치르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 말기가 되면 삼가례에 사용되는 옷과 관을 한꺼번에 거둬 쓰거나 한 번만으로 마치는 단가(單加)로 가름하는 일이 많아졌다.

특징 및 의의 관례에서 갈아입는 옷의 의미는 축사와 연관되어 있다. 시가례에서는 “처음으로 관을 씌우니 어린 마음을 버리고 성숙한 덕에 따라 오래 살고 큰 복을 받으라.”라고 축사를 한다. 이때 심의를 입는 것은 어린이의 옷을 벗고 선비의 의관을 차려입어 어른으로서 기본을 지키도록 했던 것이다. 재가례에서는 “거듭 관을 씌우니 위엄 있는 모습을 신중히 하고 덕을 잘 삼가 오래 살아 큰 복을 받으라.”라고 축사한다. 이때 입는 조삼은 흑단령과 같은 것인데, 공적인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였다. 삼가례에서는 “관을 세 번 모두 씌워 덕을 이루게 하였다. 길이 오래 살아 하늘의 복을 받아라.”라고 축사를 한다. 이때 복두에 난삼을 입는 것은 예복(禮服)의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세 번에 걸쳐 관을 바꾸어 쓰고, 옷을 갈아입는 이유는 어른으로서 근본을 잊지 않아야 군(君)을 섬길 수 있고, 군을 섬긴 후에야 신(神)을 섬길 수 있으니 이른바 세 단계로 점점 그 뜻을 높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國朝五禮儀, 沙溪全書, 四禮便覽, 朝鮮王朝實錄,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 전통성년례에 관한 연구(김은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김시덕(金時德)

정의 춘추용의 견직물.

내용 관사(官紗)는 청에서 수입되던 견직물이다. 중국 절강성의 항주와 소흥 일대에서 생산되던 특산물로 예로부터 관리들의 의복 재료로 사용되어 궁정에 헌납하였기 때문에 관사라는 명칭이 붙었다. 1919~1920년경부터 조선에서도 생산하였는데 사치품에 대한 관세 시행 이후로 생산이 증가하였지만 자급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일본에서 중국의 것을 모방하여 직조한 관사가 수입되었다. 관사는 평직과 익직의 두 종류로 직조되었는데 숙고사·생고사·순인 등과 함께 봄가을에 사용하던 옷감이었다.

관사는 경위사에 모두 생사로 짠 생관사(生官紗)와 정련을 한 숙관사(熟官紗)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사라고 하면 숙관사를 뜻했다. 유문관사는 무늬 있는 관사의 총칭이다. 소관사(素官紗)는 무늬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 무늬에 종류에 따라 길상사(吉祥紗), 여의사(如意紗), 진주관사, 별문관사 등이 있다. 또한 직물의 조직과 소재에 따라 미술소관사(美術素官紗), 미술관사(美術官紗), 생소관사(生素官紗), 은라사(銀羅紗), 라통사(羅通紗), 밀통사(密通紗), 목관사(木官紗)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관사 가운데 흰색의 백관사는 경위사에 생사를 사용하여 이경교라(二經絞羅)로 제직한 직물인데, 조선 말기에 단속곳, 단내의, 옷무족이 등의 속옷용 옷감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형미정도빈마누라의티블기」와 「병진스월호의티블기」 등의 각종 「발기」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1931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폭전포(大幅絹布)는 법단, 숙소, 문순인, 진주사, 관사 등이 있는데 주산지는 경성부이고 다음이 평남과 전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당시 관사는 비교적 넓은 광폭으로 제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관사는 왕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하던 직물이다. 주로 평직이나 익직으로 제직되었는데 숙고사, 생고사, 순인과 같이 가볍고 얇은 직물로 춘추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1924년 일본이 조

선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높게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 견직물의 가격이 폭등하여 수입이 급감하였다. 이후 일본에서 중국산을 모방하여 생산한 관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다. 무늬나 소재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어 겹옷에 뿐만 아니라 속옷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덩미정도빈마누라의디 불괴(1907), 병진스월훗의디 불괴(1916),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内地に於ける鮮人向絹織物の生産に就て(税田谷五郎, 朝鮮127, 朝鮮總督府, 1925), 朝鮮の機業(朝鮮總督府中央試験所, 1931), 朝鮮向染織物名稱彙(吉永彦太郎, 朝鮮叢報, 朝鮮總督府, 1915), 織物大系(家事經濟社, 1930).

필자 박윤미(朴允美)

관자 貫子

정의 망건의 좌우에 달아 당줄을 꿰어 거는 작은 고리.

내용 관자貫子は 권자圈子, 환자環子, 총환總環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 기혼 남성의 망건에 다는 장식의 일종이다. 망건은 상투 튼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이마에서 뒤통수에 걸쳐 두르는 것이며, 상부를 졸라매는 ‘당’과 하부를 졸라매는 ‘편자[邊子]’로 이루어져 있다. 관자는 편자의 좌우 귀 부분에 달며, 당줄을 관자에 걸어 머리에 동여맨 후 상투에 잡아맨다. 관자는 귀와 눈 사이에 있는 태양혈太陽穴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곳의 맥이 뚫 때 관자가 움직인다는 데에서 ‘관자놀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관자의 기본형은 원형이다. 천원지방天圓地方의 개념에 따라 남성을 양陽인 원으로 표현하였고, 다양한 무늬로 장식하였다. 사대부들은 사군자류를 즐겨 사용하였으며, 특히 덧잎 세 잎에서 판 삼죽엽三竹葉무늬가 많이 보인다. 그 밖에 나팔꽃·오이꽃·수초 등을 사용하였으며, 동물무늬로는 학이나 박쥐, 용이 머리와 꼬리를 휘감은 무늬인 반리문蟠虬文이 있다. 칠성七星, 일월日月 등을 무늬로 쓴 경우도 있다. 관자는 계급에 따라 재료와 무늬를 달리하였으며, 백정 등 천민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의장조儀章條에 1~3품 당상관의 관자는 금과 옥으로 규정하였으며 상세



관자 | 지름 1.5~2.5 | 19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관자놀이의 관자 | 조씨 삼형제상 중 부분 | 18세기 말 | 국립민속박물관

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망건환제변증설綱巾環制辨證設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품은 만옥권漫玉圈, 속칭 옥환玉環을 하였다. 2품은 나팔꽃·매화·오이꽃 및 쌍반권雙蟠圈의 금관자, 3품은 여러 꽃 모양 및 수팔련환자鍔八蓮環子의 옥관자를 하였다. 당하堂下 3품 이하 사서士庶는 대모玳瑁·양각羊角·소 발굽[牛蹄]으로 만든 소권小圈을 사용하였으며, 서인庶人 중 사치한 자는 호박琥珀이나 명박明珀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후대에 사용된 예를 보면, 1품은 무늬 없이 질이 좋고 작은 옥관자인 도리옥, 정2품은 무늬 없는 소형 금관자인 도리금, 정3품은 꽃·대나무·연꽃 모양 등을 조각한 대형 옥관자를 사용하였다. 당하3품 이하 서인은 빼나 뿔, 대모, 마노, 호박 등을 사용하였으며 상인喪人은 소 발굽을 사용하였다. 품계가 높을수록 금옥金玉의 크기가 작고 간소해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교만하고 자만심 높은 풍습을 억제하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금·옥관자는 매우 귀한 것으로 사치 금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옥관자는 왕의 특별 하사품으로 내려지기도 했다.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상방정례尙方定例』를 보면, 왕이나 왕세자, 부마의 의복으로 옥이나 금관자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1882년 순종 가례 관련 「궁중발기宮中發記, 宮中撥記」에는 산호·비취·순금·옥으로 만든 관자가 기록되어 있다. 국상國喪 때 종친 및 문무백관은 흰색 선을 두른 망건을 착용하였는데, 대상大喪(임금의 상사)에만 금·옥관자를 제거하고 자전상慈殿喪(임금의 어머니의 상사)에는 그대로 착용하였다. 연산군 대에는 왕과 내관이 진향進香 때 상아 관자를 착용한 기록이 있다.

특징 및 의의 관자는 기혼 남성의 상투를 정리하는 망건에 다는 장식이다. 망건의 당줄을 걸어 넘겨 고정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 그 재료와 무늬에 따라 직품職品을 구분하는 사회적 역할을 하였다. 금·옥관자를 가장 귀하게 여겼으며, 지위가 높을수록 무늬가 없이 간소하고 소박한 것을 착용하는 절제와 겸손의 미를 보여 주었다. 그 형태에 음양오행의 원리를 담고, 무늬를 통해 사대부의 덕과 농경사회의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뜻을 표현하는 등, 관자에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

참고문헌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장숙환·홍나영, 열화당, 2003), 장신구사(서지민, 시각, 1986), 조선시대 예복과 장신구(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2015),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오선희(吳宣希)

광목 廣木

정의 기계로 방직한 무명실을 사용하여 직조한 광폭廣幅의 면직물.

내용 광목廣木은 기계에서 만든 방직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직조한 면직물이며, 19세기에 수입된 직물이다. 역직기力織機 등의 개량직기에서 직조하여 수직기에

서 제작된 소폭의 무명에 비해 포폭이 90cm 이상으로 넓었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가격도 저렴하였다. 광목은 희게 표백하여 이불, 의복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광목은 질기고 흡습성, 보온성이 좋아 점차 수요가 증가하여 1920년에는 수입 직물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즐겨 사용하던 직물이었다. 청일전쟁 전 후에는 영국산이 주로 수입되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순수민족자본으로 설립된 경성방직에서 1923년 4월에 첫 광목제품인 ‘삼성三星’ 표를 필두로 ‘삼각산三角山’ 표도 생산하였는데, 삼성표는 고운 상등품이고 삼각산표는 보급형으로 일반제품이었다. 그런데 삼각산표가 이미 다른 회사에서 사용 등록을 하고 있음을 뒤늦게 알고 ‘태극성太極星’이라는 새로운 상표로 등록하여 광목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태극성표 광목은 국산을 대표하는 광목으로 널리 알려졌다. 태극성 상표는 태극기의 태극문양에 전국 팔도를 의미하는 여덟 개의 별을 배치한 것으로 광복이 될 때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경성방직을 비롯하여 대규모의 직물공장에서는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을 하였으나 일부 가내 직조 지역에서는 베틀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개량직기인 밧탄직기나 족담기를 구입하여 방직사로 직조하기도 했다.

광목은 품질에 따라 구분이 있었는데, 표면이 다소 거칠고 누런빛이 도는 것을 광목이라고 하고 광목보다 품질이 더 떨어지는 것을 차광목次廣木이라 했으며, 비교적 가는 실로 곱게 짠 고급은 ‘당목唐木’이라고 했다. 『조선어사전』에는 무명의 일종인 금건[金巾, かなきん]과



외래품을 압도하는 우량한 조선광목성가 | 1929. 6. 11 | 동아일보

유사하나 품질이 좋지 않은 직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당시 통용되던 무명에 비해 품질이 뒤떨어지는 직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광목은 기계 방적사로 짠 옷감으로 폭이 넓은 것이 특징으로 19세기부터 사용한 직물이다. 기계 직의 직물로 값이 싸서 인기가 있었으나 주로 수입되던 직물이었다. 1919년에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경성방직에서 최초로 생산한 광목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토착자본에 의해 이루어진 생산품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광목의 수입으로 지출되는 많은 비용을 국내산으로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만 소비되던 광목은 만주까지 수출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다용도로 사용되는 면직물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문헌 경방90년사(경방, 2009), 조선면업사(조선면사포상연합회, 1929), 조선어사전(조선사전간행회, 1938), 朝鮮向染織物名稱彙(吉永彦太郎, 朝鮮彙報, 朝鮮總督府, 1915), 경성방직의 신제광목에 취하야(동아일보, 1923. 9. 3).

필자 박윤미(朴允美)

광사 廣紗

정의 매우 얇고 가벼우며 광택이 있는 직조직의 견직물.

내용 광사廣紗는 조선 말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사용되었다. 『국혼정례國婚定例』에 혼례 경비 절감을 위해 광사를 문사紋紗로 대용하고, 자능욕紫綾褥은 토주吐紬로 대용한 것으로 보아 광사는 문사에 비해 고급 옷감으로 여겨진다. ‘광사’라는 명칭의 유래는 직물의 너비가 일반 사직물보다 넓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925년에 발간된 『조선朝鮮』에 의하면 한 필의 길이는 15야드(약 1,371.6cm), 폭 27인치(약 68.58cm), 무게 175돈(약 656.25g) 내외였다. 일반 사와 비교해 보면 폭이 15cm 정도 더 넓었으며, 폭이 넓은 만큼 한 필의 무게도 더 나갔다.

『국혼정례』에는 겹면사袂面紗에 자적광사紫의廣紗를,



광사 | 저고리 중 부분 |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노의露衣에 남광사藍廣紗를, 원삼圓衫에 아청광사靑廣紗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 『의대발기』에도 구체적인 의복명이 기록되었는데 단내의는 백색 광사로, 동의대는 보라 혹은 연분홍 광사로, 동의복은 분홍색·옥색·백색·남색 광사로, 쾌자는 남색·양남색·아청색 광사로, 주의는 옥색·남송색·미색 광사로, 동다리는 아청색 관사로, 학창의는 남색 광사로 만들었다. 『의복발기』에도 광사로 옷을 만든 기록이 있다. 백색 광사로 적삼과 남자용 바지를 만들고, 여자용 치마는 다홍색·분홍색·남색·양남색 광사로, 동의복은 분홍색·남송색 광사로, 동의대는 백색 광사로, 저고리는 분홍색·옥색 광사로 만들었으며 백색 광사로 당의를 만들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에 광사로 만든 조선 말기 유물이 남아 있다. 『탁지준절度支準折』에 한 필의 길이가 기록되어 있는 사紗 종류는 광사뿐인데, 광사 한 필의 길이는 30척(약 1,410cm)으로 초緇·라羅와 동일하였다.

특징 및 의의 광사는 무늬가 없이 매우 얇고 가벼우며 비쳐 보이는 견직물이다. 기본적으로 일반사와 같은 조직으로 인접한 경사가 두 올씩 교차된 이경교二經絞의 직조물織物이다. 단지 차이점은 일반적인 무문사보다 위사가 굵고, 광택이 있다는 무연사無撚絲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물을 보면 부드러운 광택이 있다. 대체로 무늬가 없는 직물이지만 드물게 위능직 또는 위부직으로 직조한 작은 꽃무늬 등의 무늬가 있는 것도 있다. 민간에서는 광사를 ‘생수(生素)’와 혼동하여 불렀는데, 생수는 원래 바탕은 사직, 무늬는 위능직 또는

위부직으로 제직되었으며 경사에 비해 위사가 세 배 이상 굵었다.

참고문헌 國婚定例, 朝鮮, 度支準折, 의대발기, 의복발기.

필자 조효숙(趙孝淑)

괴화 槐花

정의 콩과에 속하는 회화나무의 꽃으로 황색이나 초록색을 물 들일 때 쓰는 염료.

내용 괴槐, 괴목槐木, 회나무라고 불리는 회화나무는 지혈止血·이질痢疾·치질痔疾·회충蛔蟲 치료에 효능이 있고, 꽃과 열매·뿌리·껍질 등은 한방 약재뿐 아니라 칠漆, 염색 재료로 사용했다.

예부터 회화나무의 열매는 다복을 상징하였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과거에 응시하려고 학자들이 장안長安에 머물렀던 시기가 바로 회화나무 꽃이 누렇게 변할 무렵이라 하여 이 시기를 괴추槐秋라고 하였다. 또 같은 맥락에서 ‘괴화황槐花黃 학자망學子忙’이란 고사가 전해지면서 선비나무, 즉 ‘학자수學者樹’라고도 불렸다. 이러한 연유에서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괴화는 소나무나 대나무 등과 함께 주요한 조경식물의 하나로 기록하였고, 조선시대에도 가정과 궁궐에서 조경수로 식재하였다.

조선시대 문헌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는 구급 약재로서 괴화의 효능에 대해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중서中暑(더위를 먹어서 생기는 병)에 괴화槐花나무의 연한 순을 진하게 달여 먹이면 즉시 효력을 보고,

또 모든 어독魚毒에는 괴화가루 3전을 새로 길어온 물에 타 먹이거나 혹은 달여 먹이면 효험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僞說』 인사문人事門에는 불이 오래가게 하려고 황랍黃蠟·송지松脂·괴화 각 한 근에다가 부석浮石 너 양을 말려 가루로 만들어 섞어 넣고 불에 녹여 등심초燈心草로에 적서 태우면 하루 밤낮을 켜 놓아도 겨우 한 치[寸]밖에 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내점등耐點燈이다. 또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전가오행田家五行에 대한 변증설 중에는 “괴화가 일제히 피면 벼가 잘되고 값도 오르게 된다.”라고 하여 풍년을 점치기도 하였다.

괴화는 황색이나 녹색을 내기 위한 염색과 그림 염료로도 사용했다. 이덕무李德懋(1741~1793)는 중국 명나라 서적 『철경록輟耕錄』의 기록을 빌어 화가가 사용하는 그림물감에 대해 기록하였는데, “유록색柳綠色(버드나무와 같은 색채)은 지조록에 괴화를 넣어 조제하고, 아황색鵝黃色은 분에다 괴화를 넣어 조제하고, 형갈색荊褐色(박태기나무와 같은 갈색)은 분에다 괴화·나청螺靑·토황표土黃標를 넣어 조제하고, 애갈색艾褐色(쑥잎과 같은 갈색)은 분에다 괴화·나청·토황土黃·단자檀子를 넣어 조제하고, 다갈색茶褐色(차와 같은 갈색)은 토황을 주로主料로 칠록漆綠·연묵煙墨·괴화를 넣어 조제하고, 추다갈색秋茶褐色(가을철의 차와 같은 갈색)은 토황에다 삼록三綠·괴화를 넣어 조제하고, 금황색金黃色은 괴화분槐花粉에 연지분胭脂粉을 넣어 조제한다.”라고 하였다.

한편 중국 고대의 생산기술과 공예에 대한 종합 기술서인 『천공개물天工開物』에도 여러 가지 염재와 염색법에 대해서도 약술되어 있는데 이 책은 조선시대에 기술 참고서적으로 많이 활용된 바 있다. 그중 괴화에 대한 기록을 보면 대홍관록색大紅官綠色은 회나무 꽃을 삶은 물로 염색하고 다시 남전수藍靛水로 그 위에 물들이고 빛깔의 농담은 명반明礬으로 조절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록색은 회나무의 꽃을 삶은 물로 엷게 물들이고 다시 청반수靑礬水로 염색하는데 여기서 남전수란 쪽물, 청반수는 명반물을 말한다. 즉 괴화꽃만 사용하여 염색하면 황색으로 물들여지고, 황색으로 들인 이후에 쪽으로 복합염색을 하면 녹색으로 염색되고, 염료의 흡착력을 높이고 더 진하게 염색하기 위해 명반으로 매염 처



괴화 | 국립민속박물관

리하는 염색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 괴화 염색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을 따르고 있다.

괴화 염액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괴화를 먼저 한 시간 정도 물에 불린 후 손으로 비벼 껍질을 벗겨 걸러낸다. 괴화 100g 정도면 물 4ℓ를 붓고 20분 정도 끓여 채에 받쳐 염액을 받아 놓는다. 다시 걸러낸 괴화에 물 4ℓ 정도를 붓고 15분 정도 끓인 후 채에 받쳐 2차 염액을 받아 처음 받아 놓은 염액과 합쳐 사용한다.

또한 덧붙여 기록하기를 왜나무는 10년을 자라야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갓 나온 꽃봉오리(괴뢰槐蕾)를 따서 끓는 물에 익혀 건져 말린 후 홍화병餅처럼 떡 모양으로 빚어두고 쓰기를 권하고 있다. 이미 한껏 핀 꽃은 점차 황색으로 변하는데, 이를 모아 소량의 석회와 골고루 섞어 햇볕에 말려 간수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특징 및 의의 괴화는 황색과 초록색을 물들이는 염재로 알려져 있다. 7~8월에 갓 나온 꽃을 따서 말려두었다가 염색하면 황색으로 염색되고, 여기에 남전(쪽)으로 복합염색을 하면 녹색으로 염색된다. 색의 농담은 명반으로 조절한다. 괴화로 염색한 황색은 황벽이나 치자로 염색한 직물에 비해 견뢰도堅牢度가 좋다.

참고문헌 閨閣叢書, 山林經濟, 星湖塞說,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工開物, 靑莊館全書, 자연염색공예(김지희·정관채,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9),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전통조경식재(이선, 수류산방중심, 2006).

필자 윤양노(尹良老)

교복 校服

정의 학생들이 입고 다니도록 만든 제복制服.

내용 문헌기록에서 최초의 교복校服은 1411년(태종 11)에 제정된 성균관과 오부五部의 유생儒生들이 착용했던 ‘청금靑衿’으로 볼 수 있다.

근대적 학교가 설립되던 1883년경부터 1895년 12월 단발령 이전까지 학생들은 주로 저고리와 바지 위에

호주머니가 달린 조끼를 걸치거나 두루마기를 입었다. 머리는 상투를 튼 후에 갓을 쓰거나 땡은머리에 땡기를 늘어뜨린 모습이었다. 단발령 이후 학생모學生帽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학생모에는 교표가 부착되었다. 경신학교(연희전문학교 및 연세대학교의 전신, 1886년 개교)에서는 한복을 교복으로 착용하였다. 1911년에 겨울철에 검정 솜두루마기를 입고 고름 대신 단추를 달아 입었으며 ‘경신’이라는 글자와 영문 머리글자 ‘KS’를 넣은 단추를 만들어 교표와 같이 옷에 달아 입었다. 이를 시초로 교표와 학교를 상징하는 단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배재학당은 1898년 당시 일본의 근대적 학생복인 쓰메에리詰襟, つめえり(스탠드칼라stand collar)가 달린 교복 양식을 받아들여 소매, 바지 술기, 모자에 청·홍선을 두른 당복堂服을 제정하였다. 당시는 갑오·을미개혁으로 신분제가 철폐되었으며, 단발령이 내려져 양복 착용이 허용되는 분위기였다.

1910년대 국권 상실 이후 공립학교 교사들은 소매 끝, 어깨 위, 모자에 금테가 둘러진 제복을 입고, 칼을 차서 일본 군국주의 통치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반면, 학생들의 교복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랐으며 획일화되지 않았다. 1919년 경성고등보통학교 졸업 앨범을 보면, 학생들은 깎은 머리에 학생모를 쓰고 자유로이 두루마기를 입고 다닌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1919년 3·1운동 이후인 1919년 8월, 교원들의 제복과 패검이 폐지되었다. 대신 3·1운동의 주역이었던 고등보통학생들에게 교복이 도입되었다. 이는 규율과 질서를 몸에 배게 함으로써 체제에 순응하고, 일본에 동화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일본식 교복은 딱딱한 쓰메에리와 엄격한 색채 제한 등으로 일본의 규율과 질서, 훈련을 상징하였다. 보통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검정 두루마기에 학생모를 교복으로 제정하였다. 당시 양복식 교복은 맞춤형이었기 때문에 보통학교에서 양복식 교복을 착용하는 것은 지위와 부를 나타내는 기표가 되기도 하였다.

1924년 경성제국대학의 설립 이후, 현재 대학교 과정인 전문학교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대학교 전문학교의 교복은 상의와 하의는 고등보통학교와 유사하였지만, 모자의 형태에서 차별화되었다. 사각모의 네 모서리는 철학·법학·천문학·약학을 상징하였다. 사각모

는 동경제국대학에서 시작되어 퍼져 나갔다. 고등보통 학교까지는 학생들이 등근모를 착용한 반면, 사각모는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착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각모가 대학생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한국 최초 여학생 교복은 최초의 사립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 학생들이 1886년경 입었던 러시아제 무명의 붉은 치마저고리이다. 선교사들이 이화학당에 재학 중인 불우한 소녀들을 위해 똑같은 옷을 입혀 준 것에서 비롯된 교복은 상하 같은 붉은색의 한복 형태였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은 ‘홍동이’로 불리며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이화학당의 홍색 교복은 정3품 이상 중 2품까지의 관복색인 홍색을 침범한 것으로 인식되어 양반 사회에서 반발이 있었다. 1900년경부터 이화학당의 교복은 옥색치마에 흰 저고리로 바뀌었다. 1902년경부터는 각자 집에서 교복을 마련해 오게 하였다.

한국 최초의 여학생 양장 교복은 1907년에 등장한 숙명여학교의 교복으로 자주색 서지serge 옷감으로 만든 원피스, 분홍색으로 안을 댄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빅토리안, 에드워드안 스타일 보닛bonnet, 그리고 구두였다. 숙명여학교의 선구적 양장 차림의 교복은 1910년 국권 상실 이후 원래 착용하던 교복인 흰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로 바뀌었다. 1920년대까지 여학생복은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해 한복 일색이었다. 1910년대는 여러 학교에서 한복을 개량하여 긴 흰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를 입게 하고, 쓰개치마와 장옷을 벗게 하였다. 대신 내외용으로 검정 우산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남학생의 교복이 일본식 양복 교복이었다면, 여학생은 한복을 개량한 교복을 착용하였다. 1920년대부터 대부분 여학생의 복장이 흰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로 통일되면서, 각 학교에서는 학교 특유의 개성과 표지를 교복에서 드러냈다. 치마 끝단에 흰 줄을 물결무늬로 꼬불꼬불하게 넣거나, 형태·색상·옷감으로 변화를 모색했다. 치마 주름의 폭을 넓게 또는 좁게 하는 것으로 학교의 특징을 표시했다. 이 무렵 여성의 체육 교육이 시작되면서 활동이 편해지도록 교복 치마에는 어깨허리를 달고, 저고리도 길게 하였다. 이와 같은 여학생들의 스타일은 대중적으로 크게 주목받았고, 기생들도 여학생 복장을 흉내내었다. 『신여성』 창간호(1923.10)에는 여학생의 교복과 교표를 지정해야



교복의 변화 재현 | 1998 | 국립민속박물관

한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바로 기생들이 여학생들의 복장이나 스타일을 흉내 내기 때문에 외양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1930년대 후반에 여학생의 교복이 양장화되기 시작하면서 옷차림에 관련된 기생과 여학생의 혼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호수돈 여학교(1899년 개교)에서는 1928년부터 저고리를 카키색으로 물들여 착용하다가, 1936년부터 일본 고등 여학교 교복 양식인 감색 세일러복 스타일의 상의에 주름치마 교복을 제정하였다. 겨울에는 스웨터를 짜 입기도 하였다.

1938년 7월 19일, 총동원체제에서 총독 이하 관리의 제복제도制服制帽령 이후, 총독부는 학생들의 제복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한복 교복을 입어오던 경성부 내의 진명·이화·배화·정신 등 네 학교가 1938년 2학기부터 모두 양복을 제복으로 하고, 머리는 단발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당시 민족 여대의 상징이었던 이화 여전에서도 1939년 새 학기부터 한복 제복에서 양복 제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939년에는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는 최초의 여성 바지 교복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남학생의 교복은 유사 군복의 형태로 변하였다. 1939년 동북부터 “전 조선의 제 일착”으로 경기도 내 남자 공·사립 중등학교의 제복이 국책에 따라 국방색으로 통일되게 되었다(『동아일보』, 1939. 3.

23). 학생들은 국방색 교복과 각반을 차고 전투모를 착용하게 하여 유사시에 그 제복대로 즉시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1940년 신학기부터는 전국 35만여 중학생의 제복이 카키색의 쓰메에리 형태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남자 중학생의 교복은 국민복 을호 형태로, 모자는 전투모로 통일되었다. 여자 중학생의 교복은 곤색 서지 소재로 세일러 칼라에 치마에 플리즈(접혀진 주름)를 없앴으며, 소매 부분에 커프스를 달아 활동하기 좋게 만들었다. 총독부에서 전시에 활동이 편리하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여성에게 일본 여성의 노동복인 '왜바지(몸빼)'를 입게 하여 일부 여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왜바지를 교복으로 착용하게 하였다. 바지 교복을 제정하여 왜바지 착용을 피하는 학교도 있었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국방색 교복과 각반, 전투모, 몸빼 같은 전시복 차림의 교복은 사라졌다. 대신 각 학교는 특성과 개성을 살려 양장 교복을 제정하였다. 1947년 서울대학교에서 제정한 교복과 교모의 경우, 서울대학교 교표가 자수된 베레모 교모에 남학생은 더블 재킷에 타이, 여학생은 감색이나 흑색 투피스(여름에는 흰 블라우스에 스커트)였다. 6·25전쟁 때 교복은 다시 전시 태세복으로 변화하였다. 6·25전쟁으로 인한 비상시국에 전시 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1951년 법률 178호 교육법 개정이 단행되었다. 중고등학교 3·3제 학제 개편이 포함되어 이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복이 분리되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군부는 청신한 기풍을 바로잡기 위해 1961년 7월, 남녀 대학생

에게 교복을 착용하게 하였다. 값이 싼 국산품 제복에, 특히 여학생은 난잡한 화장 및 머리 모양을 못하게 하였다. 남녀 각 대학생은 반드시 배지를 달고, 야간 대학생도 교복, 교모를 착용하게 하였다. 1961년 군사정부는 대학생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복장 개선을 단행하였다. 여중고생 교복을 치마로 통일하고, 바지를 엄금하게 하였다. 일부 여학교에서는 1970년대 전 반까지 바지 차림의 교복이 남아 있었다. 초등학교 여학생은 단발을 원칙으로 하였고, 파마가 금지되었다.

1968년 문교부의 '중학교 평준화 시책'이 실시되면서 중학생 교복이 시도별로 획일화되었다. 남학생은 겨울에는 검정색 쓰메에리, 여름에는 회색 교복을 입고 깎은 머리에 검정색 둥근 모자를 썼다. 서울 시내 중학교의 교복·교모·모표가 통일되었다. 여학생 교복은 여름에는 흰색 윙칼라블라우스에 감색 또는 검은색의 플레어스커트, 겨울에는 감색 또는 검은색 상·하의로 통일되었다. 1976년에는 사립국민학교의 사치성을 없애기 위해 사립학교의 교복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1977년 5월부터 문교부에서는 중고교생 교모와 교복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교복은 당시 자유와 민주평화를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1982년 두발 자율화를 시발로 하여, 자주·창조·자율적인 주권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목표 전환의 일환으로 획일화된 교복 지정을 금지하는 교복 자율화 방침이 발표되었다. 이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푸는 한편,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시선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1983년 교복 자율화 조치는 주니어 패션을 대두하게 하였다. 주니어 패션을 중심으로 한 판촉과 아울러기성복 산업은 패션 산업으로 붐을 이루게 되었다. 각양각색의 학생 스포츠화가 등장하면서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다. 중고생들이 교복을 벗으면서 가장 많이 선택한 옷은 청바지였고, 덕분에 제2의 블루진 붐이 불었다. 한편, 당시 서울에는 광화문, 안국동, 삼각지 등에 전문상가를 이루었던 교복 맞춤집들과 1,500개 교복 봉제업체와 500여 명의 도매업자들은 재고 처분과 실업, 도산의 불안감에 고심하게 되었다.

1990년 1월, 문교부는 자유복제를 채택한 중고등학



여자 여름 교복 | 1950년대 | 중앙여자고등학교



남자 여름 교복



남자 겨울 교복

교복 | 1960년대 | 서울역사박물관

교에 대해 다시 교복을 입도록 적극 권장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교복 시장이 연간 3,500~4,000억 원(1997년 기준)으로 커졌다. 1998년 3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의 95.5%가 교복을 착용하였다. 그러나 대기업의 교복 시장 진출로 지방의 40개 중소 교복 업체가 도산하고 서울까지 확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전의 교복이 학교에 납품하는 체제였다면, 1990년대 학생복 시장은 기성복을 학생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 교복 판촉 전략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주어 교복 브랜드를 선택하게 하고, 교복을 자신만의 개성 표현의 수단이자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또 하나의 패션을 창조하자는 것이었다. 교복이 패션 상품이자 유행 상품으로 부각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 1997년 말 IMF 사태로 인해 교복 물려 입기 운동과 교복 공동구매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에 맞서 메이저 교복업체에서는 청소년의 취향을 활용하여 10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모델로 한 스타

마케팅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신소재의 사용, 원단의 고급화와 애프터 서비스 등을 시작하였다.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방영과 교복 협찬은 교복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싼 정장 같은 남학생 교복과 귀엽고 세련된 여학생들의 교복은 학생들의 환상을 자극했다. 교복 시장은 더욱 고급화되고 세련되어졌다.

2010년대에 이르러 교복은 평등의 수단이라기보다 고급화되거나 위계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었다. 교복을 거부하던 대학생들마저 단체로 점퍼를 맞추어 입고 다니며 해당 대학, 학과, 출신고교를 선명하게 새겨 입고 있다. 교복의 고급화, 위계화에 맞서 2010년 6·2 교육감 선거에서는 ‘반값 교복’ 구입 공약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신분 철폐와 의무제 교육을 기본으로 한 근대적 의미의 교복은 근대식 학교의 설립과 함께 등장하였다. 교복의 시작은 단발斷髮과 모자에서 시작되었다. 한복 교복에서 양복 교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일반 남녀들이 양복을 착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으며, 이는 복식의 양복화에 영향을 미쳤다. 교복은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에서 지정하여 입기도 하였지만, 국가의 교육 관장 기관을 통해 지정되기도 하였다. 교복이 지정되고 폐지되고, 다시 권장되어 착용되는 동안 정치·경제·사회의 변화가 교복의 형태를 변화시켜왔다. 교복은 통제와 구별짓기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교복이 학생들을 국가 또는 학교의 통제 하에 두려는 역할이 컸을 때는 빈부 격차로 인한 위화감을 없애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장점이 부각되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교복 시장이 기성복 체제의 대기업에 잠식되고 유행 상품이 되면서 교복은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상품으로 변해 갔으며, 위계질서와 구별짓기의 수단이 되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복식과 이데올로기-일제강점기와 박정희 정권기를 중심으로(이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신여성문화-교복 변천사(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행백과, 2004), 우리나라 남녀 중고등학교 교복 변천에 관한 연구(안인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남녀중등생의 제복(매일신보, 1942. 3. 19), 대학생과 교복(동아일보, 1965. 2. 23), 신입 중학생에게 국방색의 제복(동아일보, 1939. 3. 23), 제일모직, 학생복 사업 중소기업에 이양, 중소기업 육성차원(한국경제, 1997. 4. 9), 중학생 교복 다양하게(동아일보, 1978. 9. 1), 학생제복흑색실행(동아일보, 1922. 6. 28).

필자 이민정(李旻靜)

교힐 纈纈

정의 고구려 때부터 쓰인 염색법으로 천을 실이나 끈으로 묶어 방염 염색하는 방법.

내용 우리나라의 세 가지 문양 기법을 삼힐三纈이라 하였다. 그중 교힐은 홀치기 기법인 문양 기법의 하나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교힐이라 기록되었지만, 현대에는 교염纈染이라고 부르며 한글로는 홀치기라고 한다.

교힐은 피염물의 문양 부분을 실로 잡아매거나, 바느질하여 당겨서 그 부분에 염료가 스며 들어가는 것을 방염하여 문양을 표출하는 기법이다. 즉 현재의 교염(홀치기염)에 해당하는 것이고, 천[布]을 실이나 고무, 끈 등으로 단단하게 매어 염료액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염법이다. ‘힐纈’이라고 할 때도 있다. 이 교힐 기법은 방염 때 끈이나 실로 땀던 부분에 융기된 입체감이 생기고, 매어서 주름져서 금이 간 듯한 부분 염색 효과가 나타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교힐의 근거는 중국 고문헌 『한원翰苑』에 “고구려에서 금縠을 짜는데 자색 바탕에 무늬를 힐문한 것[紫地纈紋]을 가장 상품으로 친다.”라고 하였다. 즉, 자색바탕에 힐염으로 문양 염색한 염직물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교힐의 실물로는 고려시대 1302년 아미타불 불복장 유물에서 발견되어 현재는 온양민속박물관에 두 점, 수덕사에 1346년의 교힐 한 점이 남아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타난 삼힐의 화려한 염색 기술은 당연히 자국에만 그치지 않고 외국으로 전파되었

다. 정창원正倉院에 소장된 유물 중에서도 각종 교힐과 납힐의 수법으로 염채染彩한 화려한 협힐병풍夾纈屏風과 납힐병풍縹纈屏風은 당나라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인도계 협힐과 납힐의 염채 기술을 받아들였던 백제와 신라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하였다.

고구려 벽화를 근거로 한반도에는 고구려 때부터 유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나라 때 문헌인 『한원翰苑』에 의하면 고구려가 교힐 기법으로 염직물을 직조하였고, 통일신라의 조하금은 실을 교힐 기법으로 방염防染하여 제조한 염직물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벽화에서 점문點紋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점문은 교힐염 기법이라 추정한다. 매산리 사신총의 등황색지 흑점 당초문은 삼문摺紋이나 채회염彩繪染으로 여겨진다.

특징 및 의의 교힐 문양의 제작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행해졌다. 한국은 홀치기나 교염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짜란[紮染, zá rán], 인도에서는 반다나 bandhana, 인도네시아에서는 플랑기plangi, 일본은 시보리[絞り, shibori]라고 한다. 이 기법은 100종류 이상 되지만, 고대의 기법은 크게 감기 홀치기卷紋染, 바느질 홀치기縫紋染, 도구에 의한 홀치기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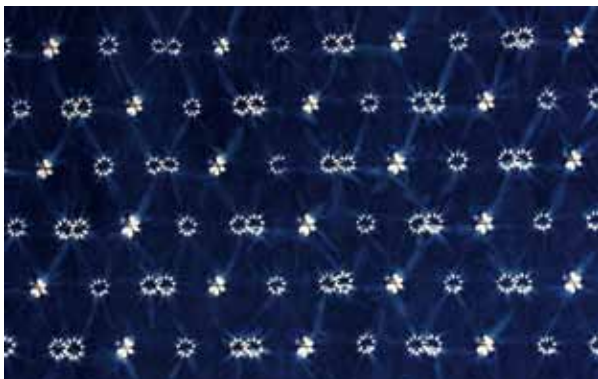
참고문헌 자연염색에 의한 삼힐문양 연구(김지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전통문양(김지희, 대구가톨릭대학교 전통문양산업 디자인개발센터, 2004).

필자 김지희(金芝希)

구군복 具軍服

정의 조선 후기 군관과 문무관이 갖추어 입은 군복.

역사 구군복具軍服에 대한 기록은 조선 후기 군영의 기록인 『훈국등록訓局謄錄』(174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어영청등록御營廳謄錄』(1791), 『훈국총요訓局摠要』(1864~1895) 등에 나타난다. 여기에서 구군복의 의미는 모두 ‘군복을 갖추다’로 해석된다. 20세기 이후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도 “유군복지구有軍服之具”로 표기되어 조선시대 군영 기록과 유사하게 해석된다. 이훈



교힐 남염 | 자연염색박물관

종의 『국어학습도보』(1955)에는 ‘군복’이라는 명칭을 먼저 제시하고 그 뒤에 작은 글씨로 ‘구군복’을 함께 적었다. 이후 『국학도감國學圖鑑』(1968)에서는 전립에 상모를 달고, 동다리와 전복戰服을 입은 후 팔에 팔찌[釧]를 매고 전대戰帶에 병부兵符와 환도還刀를 달고 손에는 등채를 진 모습을 ‘구군복’으로 명시하였다. 일본의 『대한화사전大漢和事典』에는 ‘구具’ 자체에 ‘차림식군복’이라는 뜻이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 조선의 군사 관련 기록과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간행한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1920)을 비롯하여 문세영文世榮의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1938), 정희준의 『조선고어사전朝鮮古語辭典』(1949) 모두에서 ‘구군복’이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고, ‘군복’이라는 용어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학계에서는 조선 후기 군복 일습을 구군복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에는 조선의 기록을 근거로 구군복을 조선 후기 군복 일습이기보다는 군복을 갖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내용 구군복은 전립戰笠, 氈笠을 쓰고, 협수狹袖(동다리) 위에 전복이나 패자掛子(패자의 원말)를 입은 후 허리에 전대와 요대腰帶를 두르며, 수화자水靴子를 신고, 동개筒箇·환도·등채·각지를 갖추어 입은 차림을 의미한다. 계급에 따라 구군복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복식 소재와 장식품의 재료에 차이를 두고 있다.

전립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군병들이 먼저 썼고, 차츰 장관將官과 장교에게도 보급되었다. 품계가 높은 무관이 쓰는 전립은 안올림병거지로 품질이 좋은 모毛제 품으로 공작우孔雀羽·삭모鷲毛와 옥로玉鸞·밀화영密花纓을 달았고, 하졸들이 쓰는 전립은 병거지 또는 병테기라 하며 돈모豚毛를 사용하여 만들었고 장식이 없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전립은 고위 계급의 것으로 품질이 좋은 재료로 만들었고, 모자집의 둘레에는 붉은 끈을 모아 둘렀으며, 양쪽에 쌍분이나 매미모양의 밀화를 달았다. 그리고 모정에 정자를 달고 공작미와 상모를 달았다.

협수는 소매가 좁은 포 형태의 옷으로 옆트임과 뒤트임이 있는 형식이다. 여기에 홍수紅袖라는 끝동장식이 있어 동다리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동다리는 구전되는 명칭으로 다른 색의 소매가 달린 구성적 특징을 의

미한다. 학계에서는 협수와 동다리를 동일하게 본다. 그러나 인조 대와 숙종 대 회화자료의 협수에는 끝동장식이 없기도 하고, 영정조 대는 홍수 외에 다양한 색상의 끝동이 달린 협수가 있어 요즘에는 협수와 동다리는 다른 복식이라는 의견과 협수에서 동다리로 변형된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다. 17세기에서 19세기로 갈수록 협수의 날렵한 소매는 점차 일자형으로 변하였다. 『임하필기林下筆記』(1871)에서는 “소매 끝의 붉은색 장식은 ‘홍수紅袖’라 하며 …… 본래는 겨우 몇 치이던 것이 지금은 온 소매에 다 장식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실제 유물과 회화 등에 나타난 소매에 달린 홍수는 정조 때는 짧은 길이였으나 철종 때는 팔꿈치까지 오는 길이로 늘어났으며, 고종 말기에는 소매 길이 전체가 홍수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구한말로 갈수록 무의 폭이 점차 넓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협수의 밑단 폭이 넓어지는 형태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복에 협수의 소매만을 달아 간소하게 착용하면서 겹쳐 입는 효과를 내기도 하였다.

전복이나 패자는 합임이며, 짧은 고름이나 단추로 여미고, 뒤트임과 옆트임이 있어 활동하기에 편리한 옷이다. 전복과 패자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은 편이며, 기록에 따라서는 같은 옷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



① 철종어진



② 구군복

구군복 | ① 조선 | 국립고궁박물관, ② 권오창

다. 한편 요즘 학계에서는 순조 대의 『진작의궤進爵儀軌』(1828)의 전복 도상과 『진찬의궤進饌儀軌』(1829) 패자 도상에서 전복과 패자의 형태는 흡사하나 패자에는 깃이 달린 차이점이 있어 깃이 없는 것은 ‘전복’, 깃이 있는 것은 ‘패자’라는 의견이 있다. 17세기의 전복은 무가 좁거나, 무가 없이 옆트임이 뒤트임보다 긴 경우가 있다. 18~19세기의 전복은 긴 뒤트임과 짧은 옆트임 그리고 넓은 삼각무이다. 구한말로 갈수록 무의 폭이 점차 넓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전복의 밑단 폭이 넓어지는 형태로 변화된다.

7

구두

전대는 협수 위에 전복이나 패자를 입고 그 위에 묶어 고정하는 것으로, 요대 위에 두르기도 하였다. 요대보다 좁은 편으로 허리나 가슴에서 한 번 둘러서 매고 앞으로 길게 늘어뜨렸다. 전대의 색상은 대부분 남색이며, 홍색도 있었다. 소재는 남방주藍方紬나 남화주藍禾紬 같은 견직물과 청목靑木 같은 무명으로 만들었다. 직선으로 길게 마름질하여 한쪽 끝을 삼각형으로 접은 후 식서 부분이 맞닿게 같은 방법으로 접어 맞닿은 식서 부분을 돌려가며 박기 때문에 통모양이 된다. 허리띠 용도 이외에도 띠 속에 물건을 보관하는 물품 보관용이나 응급처치 시 구급용 봉대 역할도 한다.

요대는 전대 아래에 두르는 것으로 고위 군관과 왕이 사용하였다. 두겹게 접은 종이를 검은빛의 우단이나 비단으로 짠 요대는 가슴에 둘러 조였다. 정조의 대령의에 금선용문단요대金線龍紋綬腰帶가 포함되었고, 철종의 군복본에서 길상문양이 있는 요대를 볼 수 있다. 정조 대 파충의 사급 기록에는 천청만자문요대天靑萬字紋腰帶가 있어, 요대 문양에 계급의 차이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수화자는 목화木靴와 비슷한 형태로 목이 긴 신발이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신바닥에 기름을 오랫동안 먹인 비단이나 가죽 또는 종이를 깔아 만들며, 전지에 나갈 때, 비가 올 때, 진영에 나갈 때 착용하였다.

등개는 화살집과 활을 넣는 통을 한 줄로 묶어 왼편 어깨에 매게줄로 연결된 제구이다. 환도는 한쪽에만 날을 세운 칼로 군도軍刀이다. 등채는 채찍 달린 의장용 지휘봉이며, 깍지는 활을 쏠 때 시위를 잡아당기기 위하여 엄지손가락의 아랫마디에 끼는 기구이다.

특징 및 의의 군관軍官과 무관武官은 행행行幸할 때 군복을 갖추어 입었으며, 왕을 측근에서 호위하거나 전쟁, 군사훈련 등의 상황에서는 갑주甲冑 속에 군복을 받쳐 입었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군복 위에 단령團領을 덧입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1873)에 따르면 “정조의 경우 화성 행행 시 군복을 착용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 왕도 행차할 때 군복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군복을 갖추어 입는 구군복은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 군사복식으로 영조 대 이후 군복에 대한 규정이 점차 정립되었다. 정조 대에는 군복과 용복戎服의 혼용으로 인한 폐단을 두고 각 신하 간의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군복 통용 문제를 보류하는 선에서 논쟁을 마무리하였다. 고종 대에는 법전인 『대전회통大典會通』(1865)에서 군복 구성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1883년(고종 20)에 열강의 침략 같은 외세의 영향으로 서울과 지방의 모든 용복을 군복으로 바꾸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1895년(고종 32) 육군 복장 규칙을 반포하여 더는 군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大典會通, 萬機要覽, 承政院日記, 御營廳膳, 與猶堂全書, 朝鮮王朝實錄, 訓局膳錄, 訓局捻要, 국학도감(이훈중, 일조각, 1968), 정조시대의 군사복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박가영·이은주, 한복문화7-3, 한복문화학회, 2004), 조선 후기 오군영의 군사복식에 관한 연구(엄정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한국군복의 변천사 연구(김정자, 민속원,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민족역사문화도감-의생활(국립민속박물관, 2005), 문화재청(cha.go.kr).

필자 엄정하(廉貞夏)

구두

정의 주로 가죽을 재료로 만든 서양식 신.

내용 구두의 어원은 일본어 ‘靴<つ>(구쓰)’이다. 20세기 초 구두는 양화를 속어俗語로 부르는 말이었다. 최근에는 ‘구두’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구두는 주로 가죽이나 인조 가죽을 재료로 만든 서양식 신발이다. 구두를 신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 개화파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이 구두를 신고 국내에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여성의 경우 기독교의 전도 부인, 해외 유학생, 해외 여행

공무원의 부인 등이 처음 구두를 신었다. 갑오·을미개혁(1894~1895)으로 양복이 공인되고, 고종과 순헌황귀비(임비)가 구두를 신기 시작하자 상류 귀족사회에서 구두를 신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조선에 근대 군복 제도가 도입되자(을미의제개혁, 1895) 군복과 군화의 대량 생산이 필요해져 조선 정부는 서울시 종로(현 서울대학교병원 자리)에 군화창軍靴廠을 만들고 그것을 조달하기 하였다. 한편, 일반 구두는 일본인 신발 상인 나카지마 이하치中島伊八가 설립한 나카지마상점中島商店이나 이규익이 지금 을지로 1가 근처에서 개업한 양화점에서 판매되었다. 이규익의 양화점은 개업 후 불과 3~4년 안에 폐점했고, 그것을 박덕유가 인수하여 박덕유양화점朴德裕洋靴店을 개점하였다.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해직된 대한제국 군인 장교들이 1909년 9월 대한제혁소를 만들어 가죽을 생산하고, 한성제화소漢城製靴所를 설립하여 가죽으로 된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일제 강점 후 회사령 때문에 해산되었다. 1911년 영등포에 자본금 백만 원의 조선피혁주식회사가 설립되자 이후 한국의 가죽 산업은 일본인 자본의 조선피혁주식회사가 주도하였다.

일본의 자본 침탈에도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양화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대표적인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양화점들은 박희병상점, 동광양화점銅光洋靴店, 대창호신화점大昌號新靴店(후에 대창호양화점), 삼성태三成泰 등이다. 특히 삼성태는 값싸고 편리한 구두를 제작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만능호萬能糊라는 형짚과 고무를 강하게 결합시키는 접착제를 발명하였으며, 튼튼한 신발 바닥, 연결쇠못, 신발 앞뒤에 넣는 고무 등을 발명하여 특허를 받기도 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유화책으로 문화정치가 시행되면서 다양한 구두의 생산과 유행이 촉진되었다. 1920년대 일본인 신발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머무르면서 양화를 생산하였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양화점도 신문광고를 통해 일본 양화점과 경쟁하였다. 당시 유행하던 남성 구두는 학생용·신사용(복수, 깃도)·서양자西洋靴 복수로 구분되었고, 그 안에서 다시 단화短靴(목이 없는 구두)와 편상화編上靴(목달이 구두)로 구분되었다. 편상화는 일본어로 편상화의 음독인



① 고종 어진 | 1907



② 회령의 기생 | 일제강점기

구두 | ① 한미사진미술관, ② 국립민속박물관

헨조카へんじょうか 또는 아미아게구쓰あみあげぐつろ 불렀다. 복수는 무두질한 송아지 가죽인 'box calf'를 줄여 부른 말이며, 깃도는 양가죽을 말한다. 깃도는 가죽이 얇고 소재 자체가 연해서 통풍에 좋은 고급 소재였다. 가격은 학생용 단화 특제품의 경우 11원, 신사용 복수 단화는 12원 정도였다. 편상화는 단화보다 2~3원 비쌌다.

여성 구두는 신여성들과 여학생, 기생들이 주로 신었다. 구두는 신여성에게 필수품이었다. 고무신보다 실용적이었고 신분 과시적인 성격도 내포하였다. 이화학당에서는 교복에 어울리는 목구두나 단화를 신었다. 1930년대에 이화 학생이 신었던 평평한 굽의 단화는 앞부리에 꽃무늬를 파고 비단 리본으로 끈을 매는 형태였다. 여자 구두는 남자 구두보다 장식적이고 색이 엷어 손이 많이 들었다. 여름철에는 흰색 '슬립바'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1930년대 초반에는 고급 소재의 가죽을 사용하여 칠피(에나멜)와 카후(캥거루 원피)로 만드는 구두가 등장하였다. 굽 높은 구두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1930년대 중반에는 기성화 광고를 통해 대중들까지 구두를 착용하게 되어 국내 구두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 수제화는 주로 종로에서 판매되었고, 기성화는 주로 명동에서 판매되었다. 일본 등지에서 기성화를 신던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성화를 찾을 때 주로 명동으로 갔다. 1938년 전시 체제가 되면서 구두에 돼지 가죽·민어 가죽·기린고소(고무 비슷한 화학적 합성품) 같은 가죽 대용품이 사용되었다. 1939년에는

고무 대신 나무로 밑창을 댄 목저화도 등장하였다. 고급 수제화를 제작하던 제화업계는 불황이 계속되었다.

광복 이후 6·25전쟁을 거치면서 부산 지역이 신발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부산은 혁제 운동화 산업에 주력한 반면, 살롱화로 대표되는 제화 산업은 서울이 중심이 되었다. 1954년 서울시 서대문구에 설립된 금강제화산업사는 1960년 3월 수제 공정에서 기계 공정을 도입하여 대량 생산을 통해 기성화 시장을 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당시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발맞추어 구두를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세계화로 인해 중국제 저가 구두가 몰려오면서 국내 기성화와 수제화 제화업계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제화업계는 3D 풋스캐너 같은 기술을 도입하여 개인에게 정확하게 맞는 맞춤형 구두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근대 문물인 구두는 대량 생산되는 기성품 군화와 맞춤 제작되는 고급 수제화라는 두 가지 형태로 도입되었다. 특히, 국내에 양복이 공인되면서 한복에 갖추어 신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던 갓신(가죽신)이 양화점洋靴店의 구두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격식과 외관을 중시하던 20세기 구두는 취향과 우아함이라는 상징을 갖게 되었다. 1920년대부터 다양한 구두가 생산되었고, 1930년대 중반에는 일반인도 구두를 착용하게 되어 국내 구두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38년 전시체제 하에 고급 수제화 시장은 타격을 받았다. 광복 이후에는 제화 기술의 발전과 대량 생산 체제의 도입으로 한국제 구두는 세계로 수출되었다.

현대인들이 일상과 개인, 편한 것을 중요시하면서 과거 구두가 지녔던 ‘취향’과 ‘우아함’이라는 상징은 퇴색하였다. 인공지능 시대의 구두는 소수만을 위한 고급 신발이나, 대중을 위한 대량 생산된 신발이 아니라 개인에게 정확하게 맞는 맞춤형 구두로 진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우리생활 100년-옷(고부자, 현암사, 2001), 한국 남자 일반 복식에 관한 연구-개항 이후 광복까지(남경미,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한국복식사(석주선, 보진재, 1971), 한국인의 생활과 풍속-상(임종국, 아세아문화사, 1995), 한국 최초 101장면-한국 최초 양화점(김은신, 가람기획, 1998).

필자 이민정(李旻靜)

국민복

國民服

정의 일제강점기에 제작되어 남성들에게 강요되었던 전시戰時용 복식 또는 광복 이후 제작된 간편하고 검소하게 만든 남녀의 옷.

내용 국민복國民服은 표준국어대사전 정의에 따르면, ‘온 국민이 입도록 간편하고 검소하게 만든 옷’이다. 국민복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우리나라 근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국민복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다르다. 일제강점기 국민복에 대한 논의가 193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전시체제를 위한 의복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일제는 전시체제에서 국민은 모든 생활 부문에서 절약과 근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양복의 원료인 양모를 절약하기 위하여 총독부에서 총독부 관리의 제복과 청년단체복, 사회사업단체복, 학생복을 개조하여 통일하였다.

국민복 제도는 1938년부터 구체화되어 5월에는 관리복을 국방색으로 하였고, 7월에는 비상시국민복을 제정하였다. 각종 언론에서 국민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남자의 국민복과 작업복, 부인복, 어린이 복식도 실용적인 양복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전시에 남자 양복은 결국 소재 배급이 일원화되었고, 국민복령 실시로 통제되었다. 1940년 남자의 통상복은 당국에서 제정한 국민복이었고, 작업복은 양복 작업복을 입게 하였으며, 1940년 말 국책에 협력할 것을 내세우며 국민복령을 실시함을 알리고 앞으로 새 옷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1940년 10월 신체제운동에 따라 국민복을 착용하라는 칙령을 내보내고, 1940년 11월 신체제의 국민복이 법령으로 새로 제정되었다. 1941년 ‘신제정국민복 갑호정식, 을호정식’을 판매하기도 하였고, 백만 부민의 총력 실천을 언급하며 국민복을 장려하였다. 그 방법으로 국민복을 공동 구매하여 일반 부민이 다함께 착용하게 하며 이를 보급할 것을 국민총력경성부연맹에서 결정하였다. 1943년 6월 국민복에 각반을 착용하게 하였으며, 1943년 7월에 국민복제식을 개정하였다. 1944년에는 국민복과 몸빼를 입어 몸차림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국민복의 형태는 1940년 11월 7일 『조선총독부관보』 4139호에 상의(上衣)·중의(中衣)·고袴(袴)·외투·모자·의례장이 소개되었다. 국민복 제도는 갑호·을호 두 가지가 공표되었고, 갑호 상의에는 허리에 띠 모양으로 두르는 것이 있으나, 을호 상의에는 허리에 띠 모양으로 두르는 것이 없었다.

일제강점기에 공무원, 교사 등은 이 국민복 착용을 강요받았다. 광복 후 대한민국에서 국민의식 생활개선을 논의하며 광복 전의 국민복과 유사한 복식의 착용을 결정하였다. 또한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에서 다시 국민복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때는 전후 피폐한 삶을 벗어나기 위한 생활개선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으나, 역시 국민복에 대한 반감이 남아 있었다. 한 예로 1960년 부통령 선거 운동 중에는 상대 후보가 비방을 목적으로 장면(張勉) 박사가 국민복을 착용하고 일본인 군인과 찍은 사진을 벽보로 붙이고 친일파 이미지를 왜곡·강조하여 인신공격을 하기도 하였다.

1961년 신생활복(新生活服)이 제정되었는데 “5·16군사정변 이후 국민의 신생활 체제를 확립하고 재건의식을 고취하고자 사치한 옷차림을 없이 하는 뜻에서 신생활복장을 제정하여 널리 국민에게 보급시키려는 것”이었다. 신생활복을 새로 만들 때 모직과 면직이 혼방된 복지를 사용하며 색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무늬가 없는 단색으로 해야 했다. 신생활복도 대개 국민복으로 인식되어 각종 신문에는 국민복으로 소개되었고, 제일모직에서 국민복 광고를 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국민복의 색은 국방색(카키색, 녹갈색)이었는데, 1960년대 이후 국민복의 색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나 기사에는 주로 짙은 회색이 언급되었다.

특징 및 의의 국민복은 1930년대 후반 이후 일제가 강요한 전시용 복식이었고, 주로 남성의 복식을 가리켰으나, 여성용 국민복도 있었다. 국민복은 우리 민족에게는 일제 말기의 치욕스러운 기억이었고, 국민복을 입었던 사람은 광복 이후 ‘친일파’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후 국민복은 1950~1960년대에 근검절약과 생활개선 등을 논의할 때 검소함을 상징하는 복식으로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사라졌다.

참고문헌 한국 남자 일반 복식에 관한 연구-개항 이후 광복까지(남경미,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관리복을 국방색으로 장차론 국민복제정(매일신보, 1938. 5. 10), 신생활복 안내(마산일보, 1961. 10. 1), 전시 조선인 의복 문제, 의복제의 혁신 제의(삼천리12-3, 1940), 위키백과(Wikipedia.org).

필자 남경미(南瓊美)

국사 菊紗

정의 작은 꽃무늬가 있는 얇은 견직물.

내용 국사는 작은 꽃무늬가 시문(詩紋)된 사(紗)로 일제강점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복감으로 많이 사용된 직물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만기요람(萬機要覽)』(1808), <한양가>(1884)와 1882년 이전에 쓰여진 『탁지준절(度支準折)』 등의 19세기 조선시대 문헌에서 국사라는 명칭을 찾기 어렵다. 단지 20세기 이후의 「발기」에서 한 건이 보이고,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당시 사용되고 있는 직물을 설명한 『조선회보(朝鮮叢報)』 정도에 ‘국사’라는 명칭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일제강점기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직물 명칭으로 생각된다. 『조선회보』에는 ‘菊紗’ 혹은 ‘局紗’로 기록되어 있는데, 국(菊) 자로 미루어 국화꽃무늬가 있는 사직물에서 유래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국사는 평직(平織) 바탕에 익조직(棼組織)으로 작은 꽃무늬를 표현한 옷감으로, 경사(經絲)로 생사(生紗), 위사(緯絲)로 정



국사 | 치마 |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련사精練紗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요즈음은 폴리에스터를 원료로 하여 제작한 화학섬유 국사가 많이 생산되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실용적이라 실습용 한복이나 대량생산하는 저가의 아동용 한복 직물로 많이 사용된다.

초기 국사의 전형적인 무늬는 작은 국화였으나 최근에는 국사가 유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작은 꽃무늬로 변형되었다. 현재 한복 시장에서 국사라고 부르는 직물은 국화 외에도 다양한 작은 꽃무늬가 있으며, 무늬에 따라 ‘국화국사’, ‘장미국사’ 등의 상품명으로 판매한다. 또한 화학섬유 국사는 물세탁을 할 수 있어 ‘물국사’로 통하기도 한다. 현재 생산되는 화학섬유 국사의 폭은 44인치, 밀도는 49g/m²이다.

특징 및 의의 국사는 무늬 부분을 익조직으로 제작하여 꼬임 부분에 투공透孔이 생기기 때문에 얇고 안이 비치는 것이 특징이다. 가볍고 밀도가 낮으며 비치는 성질 때문에 여름용 의류 소재로 사용되며, 춘추용으로는 국사를 두 겹 사용하여 옷을 제작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朝鮮彙報, 우리 옷감 이야기103(강순제 외, 교문사, 2012).

필자 조효숙(趙孝淑)

어지는 뒷다리, 뒤 목선에 놓이는 목다리, 앞다리와 목다리의 중간을 가로질러 이어진 것을 누운다리라 하였다. 앞다리 중심과 뒷다리가 이어지는 정수리 부분은 복판이라 하여 꽃 모양의 장식판이 있다. 굴레의 장식으로는 모란·연꽃·영지·산·파도·호랑이·박쥐·나비 등의 무늬와 수壽·복福·희壽·수복강녕壽福康寧·복해수산福海壽山·만수무강萬壽無疆·부귀富貴·다남자多男子 등의 문자를 자수와 금박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는데, 모두 아이의 부귀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길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겨울용은 두꺼운 단緞직물을 사용하는데, 여러 개의 다리를 서로 약간씩 겹치도록 배열하여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제작한다. 구성을 보면 9~11개의 다리를 목다리에 연결하고, 그 끝 부분은 머리 모양을 따라 복판으로 모아 정수리의 장식 부분에 고정한다. 다리의 겉감 색은 모두 검정이며, 안감은 색색의 비단을 사용하여 안쪽을 더 화려하게 배색하는 경우가 많다. 겉쪽에는 뒷다리·목다리·앞다리·끈 등에 자수를 놓아 장식하였고, 복판에는 검정색의 꽃잎 모양 판 중앙에 국화 꼭지를 달고 가장자리는 홍색 술을 둘러 고정하였다. 끈은 두세 쌍을 다는데, 짧은 끈 한 쌍은 턱밑에 묶어 고정하고, 긴 끈 두 쌍은 그대로 늘어뜨리거나 그중 수가 놓

굴레

정의 방한과 장식을 겸한 어린아이용 쓰개.

내용 조선 후기 상류층 가정에서 돌쟁이부터 4~5세까지의 남녀 아이가 착용하는 모자이다. 재료와 구성 방법에 따라 봄가을용과 겨울용으로 구분된다. 봄가을용은 숙고사·생고사·갑사 등 얇은 견직물로 3~4cm 너비의 긴 가닥 네 개를 만들어 가로세로로 성글게 교차하여 만든다. 가닥의 색은 미색 또는 녹색·홍색·청색·검정 등 가닥마다 색을 달리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굴레에 대해 손정규의 『조선재봉朝鮮裁縫』(1948)에 부위별로 명칭을 적은 그림이 실려 있다. 그림에는 각각의 가닥을 ‘다리’라고 하였는데, 맨 앞쪽에 얼굴선을 따라 놓인 가닥을 앞다리, 앞다리 중심에서 목다리 중심까지 이



굴레 | 높이 18 길이 4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남바위와 굴레 쓴 아이들 | 엘리자베스 키스 | 두 명의 한국 아이들 중 부분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인 장식 끈은 뒷다리 사이에 서로 교차하여 늘어뜨리기도 한다. 또한 목다리 중앙에 땡기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봄가을용에 더 많이 보인다.

특징 및 의의 굴레는 남녀 유아기에 돌을 맞이한 아이가 많이 쓴다고 하여 속칭 ‘돌모’라고도 하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색 비단과 다양한 장식을 하여 아이의 쓰개로는 가장 화려하다. 봄부터 가을까지 쓰는 세 가닥 굴레는 서울 지방에서 통용되었다고 하여 ‘서울 굴레’, 겨울용인 아홉 가닥 굴레는 개성 지방에서 통용되었다고 하여 ‘개성 굴레’로 칭하기도 한다. 서울 굴레의 경우 방한보다는 멋과 장식을 위해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조풍연, 서문당, 1996), 옛 어린이 옷(조효숙,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05),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장숙환·홍나영, 열화당, 2003), 조선시대의 관모(온양민속박물관, 1988), 조선재봉(손정규, 삼중당, 1948), 한국 전통 어린이 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정미숙(鄭美淑)

궁녀복 宮女服

정의 내명부라는 위계질서 속에서 왕실 가족을 섬기는 역할을 담당하는 궁녀가 의례와 일상 업무에 입는 옷.

내용 궁녀를 나인[內人]이라고도 부른다. 궁녀의 조직은 지밀[至密], 도청[都廳], 처소[處所]로 구별하였다. 지밀은 비서실과 같은 곳으로 하루의 일과를 밀착 수행한다. 침방과 수방은 옷을 짓고, 수를 놓는 곳으로 도청 소속이고, 그 밖의 궁녀는 처소에 속한다. 세숫물을 바치고 물을 데우며, 세숫대야나 수건을 세탁하는 세수간, 수라이외의 죽, 전과, 식혜 등을 만드는 생과방, 왕과 왕비의 아침·저녁 수라를 짓는 내소주방, 잔칫상·빈객 접대에 종사하는 외소주방, 수랏상을 물리고, 식은 음식을 다시 데우는 중간 부엌 역할을 하는 퇴선간 등에 속한 나인이 처소나인이다. 처소나인은 내전에서 움직일 때가 마를 때는 역할도 맡았다. 각기 지위에 따라 하는 일을 엄격히 구별하고 상하의 차이도 심했다. 이러한 조직은 대전, 대비전, 중궁전, 세자궁 등 각 전이나 궁 별로 운영되었다. 궁녀의 범위는 넓게는 왕자궁, 공주궁, 각 별궁, 후궁, 사당에 소속된 사람들까지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로는 대비전, 중궁전, 세자궁 등 본궁에 속한 궁녀를 일컫는다.

궁녀의 업무는 의례가 있을 때와 평상시로 구별되었다. 의례가 있을 때는 업무분장에 따라서 호칭과 업무를 구분하고 착용하는 복색을 달리하였으며, 평상시에도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차림새에 구별이 있었다.

머리 모양은 궁녀의 소속을 드러내는 가늠자였다. 지밀, 침방, 수방의 소녀나인은 새앙머리를 했다. 지밀은 네 가닥 새앙땡기, 침방과 수방은 두 가닥 새앙땡기를 드러 차이를 두었다. 새앙머리를 한 소녀나인을 생각시라고도 한다. 처소나인은 땡은머리를 했다. 세탁과 다림질을 주 업무로 하는 세답방 소녀나인은 쪽머리에 팔뿔땡기라고 하는 홀 땡기를 두 가닥으로 땡으며, 입궁 후 15년이 지나 관례를 올리면 팔뿔땡기를 떼어 냈다. 팔뿔땡기의 유무로 세답방 나인의 관례 여부를 알 수 있었다.

궁녀의 위계는 입궁한 햇수로 구분되었다. 대개 입궁 후 15년이 지나면 관례를 하게 되어 첩지를 엮고 흑각비녀로 쪽을 찼었다. 나인은 은개구리 첩지를 하고 부모가 죽은 경우에는 흑각개구리 첩지를 했다. 나인이 된 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상궁교지를 받아 상궁이 되었다. 지밀나인은 관례 후 10년 정도, 도청나인이거나 처소나인은 20년 내외가 소요되었다. 상궁이 되면

머리와 꼬리에 금칠한 은개구리 첩지를 하고, 승은상궁은 머리와 꼬리, 가운데 부분에 금칠한 은개구리 첩지를 했다. 나인의 하녀 격인 비자는 머리를 땃방석같이 둥글게 틀어 엮었다. 영정조 이후로 양반 부녀자에게 엮은머리를 금했지만 하층민은 금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엮은머리를 한 것이다.

남색 치마는 궁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의복이며, 저고리는 나이에 따라 선택해서 입었다. 소녀나인은 보라색 저고리, 젊은 나인은 초록색 저고리, 노상궁은 옥색 회장저고리 등을 입고, 치마는 모두 남색 치마를 입었다. 설에는 연두색 회장저고리를 입으며, 날이 더워지는 단오부터 한가위 전까지는 흰색 저고리, 동지가 든 달에는 자주색 회장저고리를 입었다.

지밀나인은 평상시 낮 근무에 어여머리를 하고, 남색 치마, 옥색 저고리, 초록색 견마기를 입었다. 견마기는 회장저고리에 흰색 거들지를 단 예복으로 당의보다 간편하지만 동일한 격식을 갖춘 옷이다. 저녁 근무에

는 조짐머리에 분홍색 저고리, 또는 연두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었다. 조짐머리란 쪽진머리의 다른 표현이며 쪽을 돈우기 위하여 조짐머리다래를 더하기도 했다. 지밀, 침방, 수방나인은 처소나인과 달리 치마를 외로 입고 땅에 끌리게 입었으며 처소나인들은 행주치마를 걸쳤다. 예닐곱 살 되는 어린 생각시는 공주, 옹주의 차림과 차이를 두지 않아서 다홍색 치마에 노랑색 저고리, 진분홍색 치마에 연두색 저고리를 입기도 하고, 짧은 남색 치마에 색동저고리, 각색 저고리를 입기도 했다.

왕실의 가례, 잔치 등 왕실 행사에 참여하는 궁녀는 업무분장에 따라 머리에 어여미(가체)를 하고 흑원삼이나, 녹원삼을 입으며, 위계가 낮은 궁녀는 머리에 가리마를 쓰고 당의를 입었다. 예복을 갖추 때는 옷치마(上裳)를 더하였다. 원삼을 갖추 수 없는 품계의 궁녀라도 계례에는 원삼 차림을 할 수 있었다. 궁녀의 계례는 일반인의 혼례와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평소 신분으로는 입을 수 없는 예복을 갖추 수 있었던 것이다. 어여머리 위에 어여미를 엮고, 선 봉잠에 갖가지 보패를 단 반자를 머리 양쪽에 달았다. 남색 겹치마에 옥색 회장저고리, 원삼을 입으며, 노리개를 차지만 곤지는 찍지 않았다. 대궐 안에는 족두리, 노리개 등 궁녀의 관례에 필요한 장신구를 전문적으로 빌려 주는 곳이 있었다.

궁녀의 하녀 격인 비자는 평상시나 의례 시 모두 아청색 치마와 저고리를 입었으며, 그 앞에 출입중에 해당하는 패를 찼다. 머리를 땃방석같이 둥글게 틀어 올리고, 치마에는 폭 20cm 정도의 검은 띠를 동여맸다. 물길는 비자는 무수리라고도 불렀다. 아궁이에 불을 때는 복이나인은 정식나인은 아니지만 남치마를 걷어 매고 행주치마를 찼다.

언더우드와 부인은 구한말 궁녀의 모습에 대하여 항상 커다란 가발을 써서 이상하게 보인다면 화장을 질게 하고 향수를 바르며 눈썹을 깎고 연필로 그리며, 멋지게 늘어진 비단옷을 입고, 머리와 허리에 금박 장식을 하고 있다고 묘사했다. 금칠한 은개구리 첩지 위에 어여머리를 하고,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지밀나인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궁녀복 ① 국립고궁박물관, ② 국립고궁박물관, ③ 국립중앙박물관



왕비연 전후의 궁녀 시위 행렬 | 일제강점기

특징 및 의의 궁녀는 소속과 입궁 연수에 따라 확연한 위계질서를 가졌다. 조선사회에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있듯이 궁녀들은 소속에 따라 업무가 엄격히 구별되었고, 복식에도 눈에 띄는 차이를 두었다. 또한 궁에 들어온 연수에 따라 소녀나인, 나인, 상궁 등으로 위계질서를 가졌다. 남자사회에서 신분과 의례에 따라 관모에 차이를 두듯 궁녀의 경우도 신분과 의례에 따라 머리 모양을 구별하였다.

지밀과 도청의 소녀나인은 생머리, 처소의 소녀나인은 땅은 머리, 세답방 소녀나인은 쪽머리에 팔뺨뎡기를 하여 소속을 드러냈다. 입궁한 후 15년이 지나면 관례를 올리게 되어 머리 모양이 쪽머리로 바뀌면서 소속의 구분이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비자는 머리를 땃방석같이 둥글게 틀어 엮어서 궁녀와 신분의 차이가 드러났다. 정5품의 품계를 가지는 상궁은 머리와 꼬리에 금칠한 은개구리 침지를 하여 금칠이 없는 나인과 구별되었다. 남치마는 궁녀뿐 아니라 왕실 여인들도 입었기 때문에 궁 안의 여자를 상징하는 옷이 되었다.

왕실 행사에는 규정된 업무분장에 따라 호칭과 업무를 구별했다. 지밀은 가례嘉禮, 조현례朝見禮, 묘현례廟見禮, 진작進爵, 진연進宴, 진찬進饌, 회작會酌 때에 황제,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를 도인導引, 전도前導, 시위侍衛, 찬례贊禮, 승인承引, 계청啓請, 찬청贊請, 전인前引하는 일을 담당한다. 의례에 참여하는 정5품 상궁으로부터 중8품에 이르는 궁녀는 업무분장에 따라 머리 모양은 어여미를 하고 흑원삼이나, 녹원삼을

입으며, 위계가 낮은 여집사, 차비여령 등의 궁녀는 머리에 가리마를 쓰고 당의를 입었다. 예복을 갖추는 모두 옷치마(상상上裳)를 더하였다.

참고문헌 女官制度沿革, 낙선재 주변(김명길, 중앙일보·동양방송, 1977), 조선시대 궁녀의 직무와 복식에 관한 연구(김소현, 복식61-10, 한국복식학회, 2011),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김용숙, 일지사, 1987).

필자 김소현(金素賢)

궤계 箇髻

정의 조선시대 사대부가 부인들이 머리모양을 크고 높게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재료들로 형태를 만든 후 머리 위에 올려서 치장하던 가발의 하나.

내용 궤는 『주례周禮』의 주注에서 가계假紒, 假髻로 나타나며 철사로 둥글게 만들고, 겉면을 머리카락으로 엮은 것이라고 하였다. 궤는 궤輻과 같으며, 『후한서後漢書』여복지輿服志에 태황태후와 황태후가 제복祭服에 사용한 전리궤剪麗箇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는 일찍이 부인의 가계를 만드는 데 머리카락 이외에 동물의 털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궤계를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 기원이 확실하지 않지만, 『구당서舊唐書』동이전에서 고구려 부녀들이 사용하였다는 건궤巾輻의 기록과 안악 3호분 벽화에 나타난 묘주墓主 부인, 시녀의 커다란 머리 모양 등을 볼 때 중국 궤계와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궤계의 명칭은 주로 조선 후기 문헌에서 발견된다.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사사육국변증설四司六局辨證說을 보면, 혼인이나 회갑 잔치를 치를 때 부녀의 수식首飾·궤계·채釵·전釵·보요步搖를 비롯한 각종 장신구류와 의복(章服)을 장파粧婆, 즉 수모에게 빌린다고 지적하였다. 이 중 궤계에 관해 “세속에서 어여마리於如麻里라고 하는데, 어여於如는 방언에 두른다는[圍] 말이고, 마리麻里는 방언에 머리[首]라는 말로, 다리[鬚]를 머리에 둘러서 만든 쪽[髻]이니, 곧 중국의 제도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보면 당시의 궤계는 별도로 만들어 머리에 둘러 사용하는 형

태로서, 의례나 경사 때 부녀의 성장盛裝을 위해 사용된 가계로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부인의 머리카락에 가발을 넣고 같이 땋아서 높게 올려 만든 커다란 얹은머리가 유행하였는데, 가발에 쏟는 사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해졌다. 영·정조대에 수차례의 가채금지령加髻禁止令이 내려졌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족두리로서 가채를 대신하게 하였지만, 일부 유학자는 족두리를 몽골 풍속으로 여겨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이익李瀾, 이덕무李德懋, 박규수朴珪壽 등은 궤계를 중국의 제도라 하여 유교적 법도에 맞는 부녀의 수식으로 생각하였다. 이덕무는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30 사소절土小節에서 “가난한 집 여자는 시집간 지 오래 되어도 원래 다리를 마련하지 못할 처지라 맨머리로 지내는 자가 많은데 맨머리[平頭]로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궤계를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장부丈夫의 심의와 복건, 부인의 궤계와 염의는 제사 때나 관례 때, 그리고 혼례 때에 착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보면 궤계가 가채를 구입하는 것보다 경제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거가잡복고居家雜服考』 내복內服에서는 궤齒를 작은 모자처럼 만들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한편 20세기 초반까지 개성 지방에서 전통혼례를 할 때 신부가 한 독특한 모양의 큰머리를 화관궤계花冠髻라고 하였다. 이는 개성 지방 혼례 첫날의 신부가 원삼 차림과 함께한 머리 모양으로, 땋은 머리카락을 사각으로 틀어 올려 그 위에 각종 색상의 장식 꽃을 꽂아 만들었다. 신부는 쪽머리를 하고 이것을 머리 위에 올렸다. 이는 보통 사람들은 만들 수 없었는데, 머리 어멈이라 불리는 전문적으로 머리 꾸미는 사람이 있어 잔치가 있을 때면 이들에게 머리 치장을 의뢰하였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궤계는 부인이 머리 위에 쓰는 별도의 가계로, 철사로 뼈대를 만든 후 머리카락, 실, 동물의 털 등을 엮어서 만든다. 따라서 머리카락에 직접 다리鬚를 더하여 땋아서 만드는 것보다 간편하게 의례용 머리 모양을 완성할 수 있었던 치장 도구였다.

참고문헌 舊唐書, 星湖僊說, 五洲衍文長箋散稿, 周禮, 靑莊館全書, 後漢書, 개성 복식의 연구(이경자·홍나영, 복식17, 한국복식학회, 1991), 북한지방의 전통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8).

필자 김지연(金知娟)

귀고리

정의 귀에 구멍을 뚫어 끼우거나 꿰바꾸에 거는 장신구.

역사 귀고리에 대한 기록은 『구당서舊唐書』 음악지 고려악조에 “금당金瑯으로 장식하였다.”라고 하였고, 『한원翰苑』 고려조 양원제 직공도에 의하면 “귀를 뚫어 금환金環으로 장식하였다.”라고 하여 고구려인이 귀고리를 착용한 예를 보여 준다. 조선시대까지 남아 있던 귀를 뚫는 양식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발견된다. 1513년(중종 8) “양평군은 곧 강수 아기인데 당시 강수의 나이 9세에 큰 진주眞珠 귀고리를 달았고”, 1572년(선조 5)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사내아이들이 귀를 뚫고 귀고리를 달아 중국 사람에게 조소嘲笑를 받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1579년(선조 30) “지난날에 왜적의 머리를 조사할 때 …… 가짜 왜적이라면 좌우左右의 귀를 살펴봐 귀고리 구멍을 뚫었던 흔적이 있으면 알 수 있다.”라는 기록 등으로 미루어 선조 연간까지도 남자들의 귀고리 착용이 보편적이었다고 추측된다.

내용 고분에서 출토된 귀고리의 양식은 귀에 다는 부분이 가는 세환식細環式 귀고리와 굵은 태환식太環式 귀고리로 구분된다. 다시 한 개의 고리로만 이루어진 단환식單環式과 수식이 달린 수식부 귀고리로 나눌 수 있다. 수식부 귀고리는 한 줄로 매다는 단조식單條式과 여러 줄을 매다는 다조식多條式 귀고리로 나눌 수 있다. 신석기시대 유물인 옥귀고리 한 쌍이 있고, 청동기시대 곡옥형 귀고리가 출토되어 이미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사회에서도 옥석제 귀고리를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삼한시대 유물에는 세환식 심엽형 귀고리가 있고, 또 다른 심엽형 금귀고리는 심엽 둘레를 점점으로 타출打出하였다. 태환식 금귀고리는 태환에 간단한 동



귀고리 | ① 길이 6 | 서울 광진구 능동 | 국립중앙박물관, ② 길이 8.3 | 충남 공주 무령왕릉 | 국립공주박물관, ③ 길이 8.7 지름 3.8 | 경북 경주 보문동 부부총 | 국립중앙박물관, ④ 길이 7.6 | 경남 합천 옥전 24호분 | 합천박물관, ⑤ 길이 5.8 | 경기도 개성 부근 | 국립중앙박물관, ⑥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⑦ 국립민속박물관

근 고리가 달린 것이 있다. 고구려시대 <왕회도王會圖>에 고구려 사신이 귀고리를 착용하고 있고, 중국 길림성 집안시 통구 사신총 벽화 인물의 귀에 고리형의 단환식 귀고리를 착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장천 2호분 벽화 문지기도 오른쪽 귀에 황색 귀고리를 달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출토 태환식 귀고리는 원추형의 수식을 매달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세환식 금귀고리는 복심엽(復心葉)형 수식이 달려 있다. 평안남도 남포강서구역 약수리 벽화 무덤 출토 세환식 귀고리는 상하 두 곳의 금방울을 금줄로 연결한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단조식 귀고리 중 충청남도 공주 능산리 고분 출토된 백제시대 세환식 금귀고리는 꽃바구니형의 중간식을 매달고 그 밑에 복심엽 수식을 달았다. 전라북도 익산 입점리 출토 세환식 귀고리가 긴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 아래 독특한 형태의 장식을 매달았다. 이는 백제만의 양식인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동일한 형태가 일본 강전선산 고분 출토 귀고리에서도 나타난다. 무령왕릉 출토 세환식 왕비용 금귀고리 중 한 줄로 된 것은 다른 한 쌍과 거의 같은 수법이나 탄환 장식은 달지 않고, 잎사귀 모양의 장식과 담록색의 둥근 옥을 달았다.

다조식 귀고리 중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비용 세환식 귀고리는 길고 짧은 두 줄의 장식이 달려 있고, 긴 가닥은 사슬에 둥근 장식을 연결하였다. 왕의 세환식 금귀고리는 복심엽형 장식과 금모자 부착 푸른 곡옥 장식의 두 가닥의 장식을 길게 늘어뜨렸다. 신라시대 세환식 귀고리는 금령총 출토 복심엽형 귀고리와 형태가 다른 두 줄의 수식들이 달려 있는 금관총 출토 다조식 귀고리가 있다. 단조식 태환식 귀고리류는 표면에 금 세공 장식이 달린 경상북도 경주 보문동 부부총 부총(婦塚) 태환식 귀고리, 금조총 출토품과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 등이 있다. 태환식 표면에 장식만 없는 것은 황오동, 금관총, 황남대총 북분 출토품 등에서 볼 수 있다. 금관총 출토 다조식 태환식 귀고리는 두 줄로 된 수식물이 달려 있는데, 모두 심엽형 수식들을 매달았다. 경상남도 합천 옥전 M11호분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복엽식 심엽형 수식 귀고리는 좀 더 큰 심엽형 앞뒤에 작은 심엽형을 매달았다. 경남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 치자실형 귀고리는 수식으로 치자실형을 매달았다. 치자실형 귀고리들은 당시 일본에 전수된 것으로 본다. 창녕 교동 12호분 출토 금제 태환식 귀고리는 둥근 고리 밑 테두리

부분에 여러 개의 달개가 달려 있는 주판알 모양의 중간식과 심엽형의 수하식을 매달았다. 창원 동면 다호리 출토 다조식 귀고리는 세환식에 세 가닥의 줄을 늘어뜨리고 장식을 매달았다. 발해의 유물은 금·은·동·청동 제품으로 주로 세환식, 수식垂飾이 달린 태환식과 세환식이 있는데, 장식은 비교적 간단하다. 함경북도 화대군 정문리 창덕 3호분에서 출토된 태환식 금귀고리는 순금판을 말아서 만든 큰 고리에 금을 입힌 작은 청동 고리가 연결되어 있으며, 작은 고리에는 순금판으로 만든 표주박 모양의 수하식이 달려 있다. 고려시대 금제 세환식 귀고리는 중간식은 긴 사슬형으로 끝부분에 두 개의 나뭇잎을 붙여 만든 판을 달았는데, 양면 모두 표면에 잎새를 음각하였다. 열매 모양을 본뜬 은제 귀고리는 아래 구체球體를 꽃받침 형상의 은판으로 위에 살짝 덮어 구체를 관통하여 뽑아져 나온 은선이 동그랗게 구부러져 마감되었다.

조선시대 귀고리(귀걸이) 양식은 귀에 구멍을 뚫어 착용하는 귀고리(I식)와 귓바퀴에 거는 귀걸이는 술이 안 달린 양식(II식)과 밑에 술이 달린 양식(III식)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I식은 단환식 귀고리(I-A식)와 수식부 귀고리(I-B식)로 나눌 수 있다. II식은 귀에 거는 부위가 열려 있는 C자형 양식(II-A식)과 막혀 있는 양식(II-B식)으로 나눌 수 있다. III식은 귀에 거는 부위가 금속으로 된 양식(III-A식)과 끈으로 된 양식(III-B식)으로 나눌 수 있다. I-A식은 은제 화문 귀고리와 고려시대 은제 귀고리와 같은 양식의 열매 모양을 본뜬 은제 귀고리가 있다. 그 외 금동 당초문 귀고리와 은제 나비문 귀고리 등이 있다. 1-B식에 속하는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 산호귀고리는 은고리 아래 각각 원통형으로 만든 산호 구슬을 세 개씩 꿰었다. II-A식인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귀걸이는 은고리를 만들고, 천도 모양 수식을 은철사銀鐵絲로 꼬은 줄에 꿰어 고리에 건 것이다. 천도 윗부분에는 파란을 입힌 잎 모양 넷이 있으며, 천도 아래 위에 붉은 구슬이 달렸다. II-B식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귀걸이는 원형 고리 밑에 천도형을 매달고 있으며, 끝을 은사銀絲로 뽀족하게 엮었다. III-A식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은파란 귀걸이는 약간 끝이 구부러진 고리 아래로 파란을 올린 천도를 달고, 분홍색 봉술이 길게 늘어져

장식되어 있다.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귀걸이는 C자형의 고리 끝에 파란을 입힌 작은 장구 모양을 달고 밑에 청홍 색실 술을 늘였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귀걸이는 C형의 고리에 천도형을 달고 그 밑에 봉술을 함께 부착한 형이다. III-B식인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 귀걸이는 귓바퀴에 걸 수 있는 부위는 실로 만들고 윗부분에는 매화꽃을 홍색으로 파란 장식하여, 그 받침으로 황색과 청색으로 파란장식 꽃잎을 2단으로 장식하였으며, 맨 아랫부분에는 황색 파란을 넣은 매화를 장식하였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귀걸이는 실고리에 달린 은고리에 은파란 천도형을 매달고 그 밑에 홍색 술을 늘였다.

현재 귀고리들은 귀에 착장하는 방법에 따라 귀를 뚫는 피어스트 이어링pierced earring과 함께 17, 18세기에 클립과 나사 잠금 방법이 고안되어 클립 이어링clip-on earring과 스크류 이어링screw earring이 등장했다. 사람들이 착용하는 수식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버튼 이어링button earring: 나사물림으로 된, 귓볼에 꼭 붙어 있는 형식의 귀고리이다. 2. 드롭 이어링drop earring: 늘어져 내린 부분이 주가 되는 귀고리를 총칭한다. 3. 후프 이어링hoop earring: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가 달았던 커다란 고리의 이어링이 패션화된 것으로 슬레이브 이어링slave earring이라고도 부른다.

특징 및 의의 귀고리는 유목 기마민족들이 활동에 구애받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귀를 뚫어 귀고리를 했으며, 샤머니즘적 의미를 지닌 일종의 종교적 장신구의 하나였던 것으로 추측한다. 조선 초기에는 어린 나이에 귀를 뚫어 귀고리를 하였으나, 이는 오랑캐의 풍속이라 하여 배격 받았으며, 점차 유교의 영향으로 귀를 뚫는 귀고리는 점차 사라지게 되고 귀에 거는 귀걸이가 등장한다. 귀걸이 술은 대개 정장했을 때 어깨 위로 땡기처럼 늘어뜨려서 화려한 장식품 역할을 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여자들이 귀를 뚫는 풍속이 존속하였다. 그러나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귀를 뚫거나 또는 귓볼에 끼우는 귀고리를 다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최근에는 남자들의 귀고리 착용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참고문헌 고분미술2-신라·가야(이영훈·신광섭, 솔출판사, 2004), 고분출토 부장품 연구(윤세영,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백제의 미(국립부여박물관, 한길사, 2006), 장신구(석주선, 단국대학교출판부, 1981), 한국복식사개론(김문자, 교문사, 2015),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필자 김문자(金文子)

규

정의 왕, 왕세자, 왕비, 세자빈이 의복을 갖추어 입을 때 손에 쥐는 옥판.

역사 고려시대 중국으로부터 받은 면복冕服 가운데 규圭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고려사高麗史』 기록에 따르면 1370년(공민왕 19) 명나라로부터 받은 규는 그 길이가 9촌寸이었다. 조선시대에도 태종 이후 수차례 걸쳐 명나라로부터 같은 것이 보내졌으며, 1475년(성종 6)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길례吉禮 제복도설祭服圖說에 “규는 청옥으로 만들고 길이가 9촌이다.”라고 하였다. 1744년에 편찬한 『국조속오례의서례國朝續五禮儀序例』 가례嘉禮 옥규도설玉圭圖說에 왕의 면복 규는 “백옥으로 만드는데 길이가 9촌에 너비는 3촌이며 뾰족한 머리 부분[剡首]의 길이는 1촌 5푼”이라고 하였고, 왕세자의 규는 “청옥으로 만들며 길이는 7촌, 너비는 3촌, 뾰족한 머리 부분은 1촌 5푼”이라고 하였다. 한편, 1751년(영조 27) 『상방정례尙方定例』에는 대전大殿 법복용 규는 백옥규와 청옥규의 두 종류가 사용되는데 황단皇壇에서의 친제親祭 때는 청옥규를, 세자궁世子宮을 위해서는 청옥규를 만든다 하였다. 1784년(정조 8)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에는 “규는 청옥으로, 길이는 9촌이고 앞면에 용 두 마리가 새겨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종이 황제에 오른 뒤 편찬한 『대한예전大韓禮典』에는 황제 면복의 “백옥규는 1척 2촌 길이로 위는 뾰족하고 겹에는 산형山形 네 개를 조각하였으며 밑을 황색 문양 직물[黃綺]로 감싼다.”고 하였다. 황후의 규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기록에 “곡옥규穀玉圭는 길이가 주척周尺으로 7촌인데 그 위를 뾰족하게 하고 곡문을 새긴다. 황색 비단으로 아래를 싸되 금룡문金龍紋을 한 황색 대도袋韜가 있다.”라고 하였다.

내용 규는 위가 뾰족하고 아래가 사각인 옥으로, 제후를 봉하는 상징물이자 하늘과 통하는 의미를 가졌다. 왕과 왕세자, 왕비와 왕세자빈의 규는 신분에 따라 재료와 형태의 차이가 있었다. 왕은 청옥규를 사용하다가 17세기 이후 백옥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때에 따라 청옥규를 사용하거나 문양을 다르게 새긴 기록도 있다. 규의 손잡이 부분을 비단으로 감싸고 별도로 직물로 만든 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은 명대明代에 이르러 법제화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유물로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영친왕, 영친왕비의 규가 있으며, 각각을 보관하는 주머니와 갑(설합)이 있다.

실물을 살펴보면, 영친왕의 청옥규[가로 4.2cm(상단), 4.5cm(하단)×세로 17.3cm×두께 약 1cm]는 끝이 뾰족하고 문양을 새기지 않았는데 하단을 홍색 꽃문양 비단[花紋緞]으로 감쌌다. 같은 감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 흑칠갑에 보관하였다. 영친왕비의 곡옥규[가로 5cm(상단), 6cm(하단)×세로 14.4cm×두께 약 0.8cm]는 백옥으로, 위가 둥근 산 형태이며 한 면에 곡식 무늬를 서로 어긋나게 새기고 밑 부분을 홍색 단緞으로 썼다. 역시 같은 감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 홍색칠갑에 보관하였다.

특징 및 의의 왕이 들었던 규와 문무백관이 들었던 홀笏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의례에 맞는 복식과 함께 갖추어 착용자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었다.

참고문헌 국립고궁박물관 복원복제 제작기술서5-규, 방심곡령(국립고궁박물관, 2012), 영친왕일가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한·중·일 3국의 규·홀에 관한 연구(임명미, 복식 51-2, 한국복식학회, 2001).

필자 김선영(金宣伶)



영친왕 규 | 길이 17.3 너비 4.2

영친왕비 규 | 길이 14.4 너비 6

규와 주머니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정의 금동金銅으로 만들어진 신발.

내용 삼국시대 금동신발의 종류는 바닥의 형태에 따라 신바닥에 각정角釘이 붙어 있는 스파이크식 금동신발, 신바닥에 영락纓絡이 달려 있는 영락부 금동신발, 신바닥에 각정이나 영락이 달려 있지 않은 금동신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스파이크식 금동신발: 고구려 스파이크식 금동신발의 예로 들 수 있는 중국 집안시 통구 삼실총 제2실 서벽 칠갑무인의 신은 신창이 스파이크식으로 묘사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신발은 하나의 금동판에 사각추 형태의 금동 못 40여 개가 촘촘히 박혀 있다. 집안시 마선저장麻線猪場 부근의 고구려 무덤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길이 32cm이고 원래 35개의 못이 있었다. 신바닥 주위에 테가 있고 그 위에 한 줄의 실을 꿰는 작은 구멍이 있다. 통구 고분군 우산하 3109호묘(JYM3109)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길이 31cm이고 신바닥의 주위에 테가 있다. 둘레에 가죽 끈 또는 가는 끈으로 묶는 구멍이 있다. 고구려 금동신발은 신바닥만 금동으로 되어 있고 신발의 윗부분들은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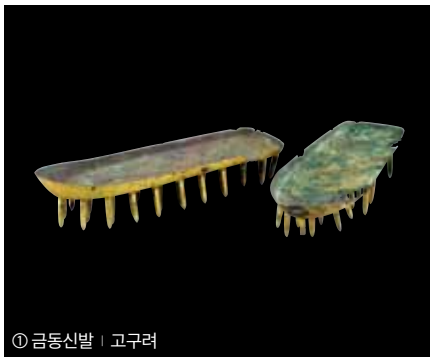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의 금동신발은 길이 35cm 정도이고, 옆판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신바닥에는 아홉 개의 스파이크 장식이 박혀 있다. 내부에는 목피를 바닥에 깔 듯하다. 왕비의 금동신발은 밑판과 옆판이 모두 동판이고 외측 면과 바닥에는 인동당초문을 투조한 금동판을 씌웠고 전면에 원형 소영락이 첨삭되어 있다. 왕의 것과 같이 바닥에 뽕족한 못이 아홉 개 솟아 있고 신의 내부에는 포편布片의 흔적이 있다. 전라남도 나주 신촌리 9호분 금동신발은 바닥에 커다란 못구멍 아홉 개가 있고 앞부분에는 커다란 스파이크형 못이 남아 있다. 충청남도 공주 부근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신의 바닥과 양쪽 측면을 모두 동판으로 만들었고 표면은 봉황을 새긴 금동판을 씌웠다. 신발의 전면에는 조그마한 영락을 달았으며 바닥에는 못이 아홉 개씩 박혀 있

다. 전라남도 나주 지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금동신발은 바닥에 일곱 개씩의 사각뿔 못이 달려 있고 신발 안쪽에는 형겔 흔적이 있다. 신발의 전면에는 두 줄로 교차하는 타출 사선으로 만들어진 마름모꼴 구획이 있으며, 그 중심에 영락 장식을 달았던 흔적으로 보이는 작은 구멍이 있다. 전라북도 익산 입점리 출토 금동신발은 표면과 바닥에 사각형, 격자문 사이에 화문花文을 새겼으며 밑바닥에 각정이 부착되어 있다. 충남 공주 수촌리 출토품은 금동판에 용·꽃 등을 새겨 넣어 화려하게 장식하고 바닥에는 금동못이 박혀 있는 신발이다.

경상북도 경주 황남동 황남대총 북분 출토 신라시대 금동신발은 신발코를 제외한 전면이 T자형으로 밀집투조密集透彫한 금동판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에는 길쭉길쭉한 청동靑銅징이 박혀 있다. 경북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왕의 것으로 보이는 금동신발은 바닥과 측판을 우선 은판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인동당초를 투작透作한 금동판을 씌우고 영락과 아홉 개의 각정을 바닥에 박은 것이다. 내부에는 삼중포심三重布心이 붙어 있고 따로 엮은 목피木皮가 나왔는데 이 목피는 바닥에 깔렸던 것 같다.

전북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백제시대 금동신발은 전체 길이는 31cm로, 바닥 앞이 들린 형태로 사선으로 올라가며 목을 형성하고 있다. 바닥에는 18개의 각정을 부착했는데 부착 지점에는 6엽의 화판이 장식되어 있다. 특히 바닥 중앙에는 한 마리의 용을 배치하였고, 발뒤꿈치 부분에는 역사상力士像이 투조되어 있다. 나주 출토 금동신발은 길이 32cm로 발등 부분에는 용 모양 장식이 있고 발목 부분에는 금동판으로 된 덮개가 붙어 있다. 바닥에는 연꽃과 도깨비 문양을 투조와 선각線刻으로 꾸며 화려하게 장식했다. 특히 신발 바닥 중앙에는 여덟 개 꽃잎의 무늬를 삼중으로 배치하고 중앙에는 꽃술을 새겼다. 바닥에는 수많은 각정이 달려 있다.

2. 영락부 금동신발: 황남대총 남분 출토 금동신발은 표면은 삽입부를 경계로 하여 앞뒤에 두 매의 금동판을 붙여 만들고 전면에 T자형을 투조한 후 영락을 매달았다. 밑면은 한 매의 금동판으로 되어 있고 전면에 영락을 촘촘히 달았으며 식리의 내면에는 마심麻心에 주석



① 금동신발 | 고무려



② 금동신발 | 백제



③ 금동신발 | 가야

금동신발 | ① 길이 34.8 | 국립중앙박물관, ② 전북 고창 봉덕리 1호분 | 국립전주박물관, ③ 경북 의성 탐리 II 묘곽 | 국립대구박물관

견포朱色絹布를 쓴 섬유가 대어져 있다. 경주 금령총 출토 금동신발은 얇은 동판 한 매를 저부底部로 하여 전반부가 둥그스름하게 되고 후반부는 별판別板을 구부려서 밑판에 서로 가는 선으로 꿰매 조립하였다. 영락이 밑판 전면全面과 앞코 부위에 밀착되었다. 경주 금관총 출토 금동신발은 밑판까지 영락을 달았다. 저부底部의 공흔孔痕에 의하면 약 87개의 영락을 달은 듯하다. 그리고 신바닥[履底] 외면에는 능견綾絹과 포의 일부가 부착되어 있다. 경주 은령총 출토 금동신발은 한 켤레가 오른쪽 발끝에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피장자에게서 벗겨서 안치한 듯하다. 얇은 금동의 영락이 붙어 있고 외형 앞코가 조금 올라 있어 보통 여자 고무신 같은 형이다. 천마총 출토 금동신발은 앞코를 제외한 전면에 연속된 T자 문양을 투조하였으며 표면에 영락이 촘촘히 달려 있다. 바닥은 안쪽에 투조되지 않은 금동판을 대고 겉에는 섬유질 등 유기물을 붙여 여기에 네모난 못을 군데 군데 박고 그 사이사이에는 영락을 달아 안쪽 금동판에 고정시켰다. 경북 의성 탐리 고분 출토 가야시대 금동신발은 선단이 둥글고 뒤축이 일직선을 이룬 형식에 속한다. 아자亞字를 변형한 것과 같은 문양을 투각透刻하였고 후반부엔 아무 장식도 없다. 세 개의 금동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시 바닥에 원형영락圓形環烙을 달아서 장식하였다. 경상남도 창녕 출토 금동신발은 얇은 동판에 도금한 것으로 신발 코가 있는 앞부분은 한 매의 판으로, 뒤축이 있는 뒷부분은 두 매의 측판으로, 바닥은 한 매의 판으로 된 것을 못으로 접합하여 만들었다. 앞창이 약간 들리고 코가 도드라졌다. 전체적으로 아자를 변형한 것과 같은 문양을 투각하였고 바닥에 원형영락을 달아서 장식하였다. 대구 내당동 제55호분 출토 금

동신발은 바닥의 앞부분이 위를 향하여 약간 들려 있다. 두 매의 금동박판을 전후에서 조립하여 못으로 고정시키고 하연下緣을 안으로 접어 밑판과 연결시켰는데 앞면과 양측, 그리고 밑판에까지도 원형 소영락이 금동선金銅線으로 꼬아 매달려 있다. 경남 양산 부부총 출토 금동신발은 앞은 뾰족하고 위로 구부러졌는데 두 매의 금동박판金銅薄板을 전후에서 조립하여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하부를 접어서 1매의 밑판을 씌우고 금동선으로 꿰매었다. 밑판의 주위에는 사복문蛇腹文이 새겨져 있고 원형소영락圓形小環烙 19개가 금동사金銅絲로 꼬아서 매달려 있다.

3. 신바닥에 각정이나, 영락 등이 없는 금동신발: 고신라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은 파손된 상태로 한 쌍이 발견되었다. 그 구조는 두꺼운 도금을 한 얇은 동판 세 매로 밑바닥에 한 장, 좌우에 각각 한 장씩 서로 맞대어 앞뒤에서 연결하고 하단을 구부려 밑판에 연결하였다. 내측에는 목질木質이나 혁포革布가 있었던 듯하다. 표면 곳곳의 구멍은 못을 박았던 흔적인 듯한데, 밑판에는 오히려 못의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 스파이크 부착 금동신발과는 다른 양식으로 보인다. 금관총 출토 화형좌식부花形座飾付 금동신발은 좌우가 같고 발뒤꿈치는 각이 진 모양이며 앞부리는 호삼각형상弧三角形狀이며 첨단尖端이 뾰족하며 약간 올라가 있다. 저부외면低部外面에는 화형花形장식이 있는데, 사이에는 능포綾絹과 마포麻布를 2~3중으로 두껍게 하여 넓은 부분에 밀착시켰다. 경주 황오리 4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백화수피白樺樹皮(자작나무 껍질)로 된 신 모양을 만들고 그 외

면에 여러 문양을 투조한 얇은 금동판을 입혀서 장식한 듯하다.

특징 및 의의 삼국시대 금동신발들은 바닥에 각정이나 영락이 달려 있고, 30cm 정도에 달하는 크기 등으로 인하여 주로 부장품副葬品 전용으로 만들어진 신으로 추정되어 왔다. 이 금동신발들은 코가 솟고 신 앞바닥이 들려 있고 신의 심도深度와 운두의 높이가 무리가 없으며 신 뒤꿈치가 각진 것과 둥글게 처리된 것의 두 종류 모두 당시 가죽신이나 초리草履(짚신) 등의 모습과 같아서 삼국시대의 전형적인 신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생전에 신었던 신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의 각정 달린 쇠못신은 실제로 사용된 흔적이 있고, 또한 신의 내부에 나무나 섬유질이 부착되어 착용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당시 발바닥을 하늘로 향해 앉는 좌식 방법으로 인해 특수한 경우 예장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스파이크식 금동신발 중 운두 없이 각정이 달린 바닥만 출토되는 경우는 고구려 유품들이며, 바닥과 신 운두가 붙어 있는 경우는 백제와 신라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신목이 있는 경우는 백제 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영락부 금동신발들은 신라, 가야 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신바닥에 각정이나 영락 등이 없는 금동신발은 고신라 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스파이크식 신발은 현재에도 축구화, 골프화, 겨울 양말 등산용 신발 등에 바닥에 스파이크를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분출토 부장품 연구(윤세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무령왕릉 발굴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3), 한국복식사개론(김문자, 교문사, 2015), 황남대총 남분 발굴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황남대총 북분 발굴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5).

필자 김문자(金文子)

기녀복

妓女服

정의 기녀妓女들이 착용하던 복식.

역사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기녀복식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드물다. 다만 『고려사高麗史』 권71 지志 25에 교방 여제자들의 포구악抛毬樂 공연 복식인 검은 적삼, 여동 두 명의 연화대蓮花臺 공연 복식인 금방울과 합립蛤笠 등의 무용 복식에 대한 기록이 있다. 조선의 관기제도는 국가가 해마다 기녀를 뽑아 장악원에 소속 시키고 가무를 교육하여 왕실 행사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복식에 대한 기록 또한 자세히 남아있다.

내용 기녀복식의 종류 자체는 일반 부녀복식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의복의 재료, 길이, 실루엣, 장신구의 재료 등에서 기녀복식 특유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기녀복식에 대한 사료가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기녀복식의 양상을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3 6월의 기록을 보면 ‘…… 일반부녀로서 너울 착용을 금한다. 기생 여의는 금하지 말 것 ……’이라 하여, 기녀가 너울을 착용할 수 있었다. 1449년의 의복금제 조건을 보면 “양반부녀와 여기女妓 외에는 사라紗羅·능단綾段鞋를 쓰지 못하게 하고 ……”(세종실록 권123 세종 31년 1월)라 하여 기녀는 양반 부녀처럼 고급 복식재료를 쓸 수 있었다.

조선 초중기의 사대부 이현보가 1519년에 개최한 양로연養老宴을 묘사한 <화산양로연도花山養老燕圖>에 그려진 기녀들은 앞이 짧으며 뒤가 긴 포袍를 입고 있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 기록된 여기女妓 복식은 뒤가 긴 단의를 비롯해 상裳·흑장삼·말근襪裙·혜·남藍저고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1550년경의 <호조낭관계회도戶曹郎官契會圖>에 묘사된 기녀의 머리형은 머리 위로 올린 부분과 아래로 땅아서 두 갈래로 늘어뜨린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6세기의 여자 저고리 유물은 길이가 55cm가량으로 길고 소매도 넓었는데, 깃은 너비가 10cm가량인 목판깃으로 되어 있다. 소매끝동·깃·고름·섶·견마기·무가 바탕과 다른 색으로 된 삼회장저고리가 가장 호화로운 것이었다. 기녀에게는 원칙적으로 삼회장저고리가 금지되었으나, 회화에서 삼회장저고리를 입은 기녀들의 모습은 많이 나타난다. 조선 중기의 치마는 허리에서 매어 입는 열 폭 전후의 풍성한 치마이며, 바닥



기녀복 | 전 김홍도 | 안릉신영도 중 부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기녀복 | 신윤복 | 청루소일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에 많이 끌리는 형식이다. 숨을 넣은 저고리와 치마 유물은 주로 조선 중기의 출토유물로 발견되며, 조선 후기에는 점차 사라지는데 기녀의 차림도 이와 유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1748년경의 조선 회화 <석천한유(石泉閑遊)>에 묘사된 기녀는 풍성한 치마와 당코깃의 삼회장저고리를 입고 있다. 저고리는 조선 초중기에 비해 폭이 좁아졌고 길어도 짧아졌으나, 아직 허리선 근처까지 내려가는 길이를 유지하고 있다. <춘향전> 속의 기녀복식을 보면 녹의와 함께 홍상, 자하상 등의 화려하고 선명한 색상의 거들치마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진다.

기름종이를 발라 만든 전모(幀帽)는 조선 부녀자의 외출용 모자였으며, 조선 후기로 가면서 기녀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김홍도의 <안릉신영도(安陵新迎圖)>에 묘사된 기녀들은 전모를 쓰고 어깨에 쓰개치마를 걸치거나, 전모 없이 장옷만 머리에 덮어썼다.

가리마(加尼麼, 遮額)는 조선 여인들이 올린 머리 위에 썼던 사각형의 쓰개로, 기녀와 의녀들이 즐겨 착용했다. 광해군 이후 족두리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점차 소멸된 것으로 알려진다. 광해군 이후 족두리가 가리마를 대신하게 되었으나, 조선 정조 재위기까지 궁중 의녀, 침선비, 기녀들은 재료에 차이를 둔 검은 가리마를 써서 계급을 구별하도록 했다.

신윤복의 풍속도를 통해 18세기 기녀의 화려한 복식을 다양하게 살필 수 있는데, <청루소일(淸樓消日)>의 기녀는 엷은머리 위에 가리마, 그 위에 전모를 쓰고 있다. <미인도(美人圖)>의 주인공 역시 18세기의 기녀로 추

정된다. 가체, 당코깃 삼회장저고리, 풍성한 치마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쌍검대부(雙劍對舞)>에 묘사된 춤추는 기녀는 좁은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 위에 군복(軍服)을 모방하여 공작 꼬리털을 꽂은 전립(簪笠)을 쓰고 자주색 전복(戰服)을 입었고, 풍성한 치마의 끝을 잡아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급 기녀들의 사치스러운 차림새는 사대부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고, 사대부 여인들의 선망과 모방의 대상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의 거대한 가체와 부풀린 치마는 좁은 저고리와 대조를 이루어 기녀들의 에로티시즘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다. 한편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가체의 규모가 커져, 목과 상체에 장애를 줄 정도로 거대해졌다. 18세기 중후반의 신윤복과 김홍도의 회화에도 이러한 형태의 기녀 가체가 잘 묘사되었다.

영정조 재위기에는 부녀들의 가체 폐단을 막을 목적으로 쪽머리와 족두리의 사용이 권장되었다. 쪽머리 제도는 순조 중엽에 풍속으로 완성되었고, 족두리와 화관은 조선 말엽 여인 정장용 모자로 정착되어 궁중 연회에서 공연하는 기녀, 무녀(舞女), 여령(女伶)들도 예장으로 착용했다. 구한말 관기의 성장(盛裝) 차림을 보면 화관을 쓴 쪽머리 차림에 색동 한삼이 부착된 무복(舞服)을 입고 대를 위로 추켜올려 묶은 모습이 많다.

이 시기의 저고리는 가슴을 가리지도 못할 정도로 길이가 짧고 폭이 좁아, 아래에 가슴띠를 따로 둘렀다. 1890년대의 젊은 관기들은 아얌(額掩)을 쓰고 서양식 장갑을 끼거나 서양식의 꽃바구니를 드는 등 동서양의 문물이 혼합된 복식을 자주 착용했다.



기녀복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기녀들의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여러 겹의 속옷을 겹쳐 입어 하체를 부풀리며 치마 밑으로 속옷을 노출시키는 차림이 선호되었다. 속저고리는 저고리보다 약간 작게 만들었다. 속옷 하의는 안쪽부터 다리속곳·속속곳·바지·단속곳·너른바지·무지기[無足衣] 치마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단속곳은 치마를 걷어 올리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명주, 모시 등의 고급 옷감으로 만들었다. 무지기는 페티코트처럼 치마 밑에 입어 둔부를 부풀리는 속옷이며, 모시에 주름을 잡아 만들고 각 층마다 얇게 색을 물들여 입었다.

노리개는 장식성과 실용성을 겸한 것으로 기녀들도 즐겨 착용했다. 삼천주三千珠 노리개는 본래 왕비가 사용하던 노리개이나, 기녀로 추정되는 신윤복의 <미인도>의 여인은 붉은 보주 세 개를 펜 삼천주 노리개를 지니고 있다. 향갑 노리개는 귀금속을 투각하여 속이 비치게 만들고 안에 붉은 갑사를 바른 것이 많은데, 특히 조선시대 상류층 여인들이나 기녀들이 장신구로 선호하였다. 침낭 형태의 노리개는 바늘류를 지니기 위한

실용적인 노리개였으며, 의녀(약방 기녀)들은 녹의홍상綠衣紅裳의 예복에 큰 머리를 올리고 옷고름에 침통을 찌 수 있도록 특별한 차림이 허용되었다.

가체에 꽃던 머리꽃이와 쪽머리에 꽃던 뒤꽃이는 장식적인 수식으로, 연봉·국화·매화·나비 모양이 선호되었다. 나들이 시에 자연물인 꽃가지를 머리에 꽂아 장식하던 방식도 신윤복의 <연소담청年少踏靑>에 묘사되어 있다.

꽃바퀴에 거는 형태의 조선 후기 귀걸이들은 은·밀화蜜花·마노瑪瑙 등의 보석으로 열매형을 만들고 칠보로 장식한 것이 많다. 선명한 홍색 술을 함께 달아 사용하기도 했다. 기호품인 곰방대와 겨울용 방한구인 토시도 기녀복식을 구성하는 주요 소품이었다.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신분과 재력에 따라 비단으로 겹을 씌운 당혜唐鞋나 운혜雲鞋를 즐겨 신었고, 기녀들의 신발도 자수를 더하는 등 화려했으나 기본 형태는 일반 여인의 신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징 및 의의 기녀는 특수한 사회적 위치를 가졌던 복식 유행의 선도자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고급 기녀들은 시, 서와 가무에 능숙하여 낮은 신분이었음에도 사대부의 비호 아래 사치스러운 차림새를 누렸고, 사대부 부인보다 복식 유행을 빠르게 선도했던 여인들이었다. 말을 이해하는 꽃이라는 뜻의 '해어화解語花'는 조선시대의 기녀들을 부르던 별칭이기도 하다.

기녀들은 성적 매력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 속옷을 노출하기도 하고, 과장된 인체의 실루엣을 이용하기도 하고, 금제를 중요시하지 않는 호화로운 재료와 장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신분질서가 흐트러지고 자유분방한 사조가 유행하던 조선 후기에 두드러졌다.

참고문헌 高麗史, 樂學軌範, 朝鮮王朝實錄, 16세기 조선 기녀의 일반 연회 규정 복식 고증 디자인 연구(최해울, 한국의류학회지32-8, 한국의류학회, 2008), 근세 한·일 문학작품에 나타난 기녀복식의 조형적 표현 고찰(조선희·박옥련, 일본 근대학연구42, 한국일본근대학회, 2013), 기녀복식을 중심으로 본 조선 후기 여성 복식의 연구(김혜영, 배재논총2, 배재대학교, 1997), 한국 복식문화의 흐름(백영자·최정, 경춘사, 2014).

필자 최정(崔楨)

기저귀

정의 젖먹이 어린아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대소변을 받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천.

내용 신생아의 기저귀는 임신 후기에 산모(產母)나 아기의 친·외할머니가 미리 장만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지만, 형편에 따라 산후(産後)에 마련하기도 했다. 대소변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기저귀감을 두툼하게 직사각형으로 접어 살에 채우고 허리에 끈을 묶어 고정했다.

기저귀감으로는 흡수성이 좋고 부드러운 옷감이 선택되었으며, 여러 옷감 중에서 무명이 주로 사용되었다. 개항 이후에는 옥양목과 일본 광목(日木)이 선호되었다. 간혹 광목 또는 무명 사이에 솜을 얇게 두고 촘촘하게 누벼서 내구성을 높인 기저귀를 볼 수 있으나 흔한 예는 아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고 터울이 적은 아이 여럿을 키우는 경우에는 기저귀감의 색깔이나 재질에 상관없이 무명 등을 짜고 남은 옷감 자투리와 입던 옷을 얻어서 기저귀를 만들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장수(長壽)한 남자 어른이 입던 무명옷을 잘라 기저귀를 만들어 채우면 아기가 무병장수한다는 속설이 전한다. 장수라는 의미를 덧붙이긴 했으나 실제로는 낡은 옷을 재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명분이었다. 오랫동안 입어 낡은 옷은 부드러워서 연약한 아기의 피부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 아기에게 여자 어른이 입던 옷 조각을 잘라 기저귀로 쓴 예는 없

으며, 이는 남아선호사상 강했던 당시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볼 수 있다.

1938년 『동아일보』에는 “오랫동안 튼튼하게 쓰기 위하여 두터운 광목을 기저귀로 쓰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기저귀의 의무를 잘하지 못합니다. 두터운 감은 오줌을 잘 빨아들이지 못하고 옆으로 흘러내리며, 또 부드럽지 못합니다. 새것으로 장만하는 것보다 차라리 헌 옷을 뜯어서 쓰는 것이 좋고 새것을 쓰려면 일목이 제일입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어서 헌 옷을 재활용한 기저귀 만들기가 이때까지 꾸준히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에는 직사각형 기저귀 이외에 서양식 삼각기저귀와 고무기저귀가 사용되었다. 1936년의 기저귀 관련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접어서 살에 채우고 허리에 끈으로 매어두는 기저귀는 ‘조선식’으로 명명되었다. 조선식 기저귀의 단점은 대소변을 보았을 때 양편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기사에는 생후 2개월 동안은 일본 광목 한 폭을 접어서 만든 조선식 기저귀를 쓰게 하고 이후로는 아이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서양식 삼각기저귀를 쓰라는 권고가 포함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사용한 고무기저귀는 고무로 만들어 기존의 조선식 기저귀 위에 덧입힌 덧기저귀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1937년 『동아일보』 기사에 통풍이 잘 되지 않으니 가급적 외출할 때 사용하라는 언급이 있고 1939년 기사에는 “고무기저귀 속에서 오줌이 살이 데고 고무가 더워지면서 발산을 못 시키게 되나니” 긴 시간 채우면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후 국내에 일회용 종이기저귀가 나온 것은 1968년의 일이다. 무궁화 위생화장지공업사에서 출시한 종이기저귀 하나의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16cm였다. 상품은 폴리에틸렌에 열 장씩 넣어 한 다발 단위로 판매되었고 가격은 9백 원이었다.

참고문헌 안동지역 전통복식(안동대학교박물관, 1996), 한국전통 어린이 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침구와 의복(동아일보, 1937. 10. 25), 애기기저귀(동아일보, 1936. 4. 18), 여를 아기 기르자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동아일보, 1939. 7. 8), 제일 만히 히생되는 젖먹이 기르는 법(동아일보, 1938. 9. 10), 종이기저귀(매일경제, 1969. 8. 11).

필자 조희진(趙熙眞)



천기저귀
기저귀 | 국립민속박물관

종이기저귀

기하무늬

정의 선·점·면 등으로 단순하게 구성된 추상무늬.

내용 기하무늬는 직선이나 곡선, 사각형, 원형, 타원형, 마름모, 육각형, 팔각형 등과 같이 단순하게 선, 점, 그리고 면으로 구성된 추상무늬이다. 인류가 표현한 최초의 무늬로 산과 구름, 해와 달, 번개 등의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이나 현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울산 천전리와 전라남도 남원 대곡리, 경상북도 경주 석장동 등의 선사시대 암각화에는 동심원, 마름모 등의 여러 종류의 기하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 기하무늬들은 우주와 태양, 자연의 현상을 형상화한 것으로 우주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한 것이다. 기하무늬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전 시대에 걸쳐 암각화뿐만 아니라 각종 기물과 복식 등에 사용되는 무늬이다. 가장 단순한 점과 선으로부터 선을 좀 더 많이 발전시켜 지그재그 형태나 방사선 등으로, 또는 뇌문雷紋, 만자문卍字紋, 회문回紋 등으로 정형화되기도 하였다. 기하무늬의 범주는 상당히 넓는데 복식에 사용된 기하무늬는 기하무늬만 단독으로 나타난 것도 있고 다른 무늬, 혹은 여러 개의 기하무늬와 함께 주제를 복합적으로 장식한 것도 있다. 복식에 사용된 기하무늬 가운데 널리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작은 기하무늬가 산재해 있는 산점기하문散點幾何紋의 의복을 착용한 인물들이 다수 표현되어 있다. 인물을 작게 축소하여 표현하였으므로 인물들이 착용하고 있는 옷의 무늬가 실제와 동일하다고는 확증할 수 없으나 당시에 유행하던 옷감의 무늬를 어느 정도 유사하게 그렸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원형의 점무늬를 비롯하여 타원형, 마름모형, 원추형 등 단일로 표현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형태가 다른 도형이 함께 복합되어 규칙적으로 표현한 무늬도 있다. 동그란 점무늬는 무용총, 각저총 등의 여러 고분에서 발견된다. 현재도 일명 ‘뽕뽕이무늬’ 혹은 ‘도트dot 무늬’라고 하여 직물문양으로 꾸준히 애용되고 있다.

줄무늬는 선으로 표현하거나 면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직선으로 표현한 줄무늬는 고대 고분에서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현전 유물에서는 주로 근세의 것이 많이 남아 있다. 면으로 표현한 것은 여러 색으로 분할하여 나타낸 것으로 ‘색동’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고대부터 지금까지 애용되는 주요 전통 복식문화의 하나이다.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과 덕흥리 고분 등의 벽화에는 여러 색의 옷감을 이어 만든 색동옷을 입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색동은 음양오행사상에 기초한 오방색에 근거하고 있는데, 어린이의 저고리, 마고자, 두루마기의 소매를 색동으로 하거나 결혼식에 착용하는 활옷과 원삼의 소매 끝에 색동을 달았다. 왕실에서 사용된 것으로는 ‘후수단後綬緞’이라는 직물이 있다. 후수단은 홍·백·청·녹의 네 가지 색이나 여기에 흑색을 더하여 다섯 가지 색상으로 줄무늬를 나타낸 직물이다. 주로 후수의 소재로 사용하였으나 교명이나 장신구함의 장황직물로도 사용되었다.

산형문山形紋은 선이 지그재그 형태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무늬인데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연속하여 표현한다. 선사시대부터 나타나는 무늬로 각종 기물의 장식무늬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직물에 단독으로 시문된 것은 다른 길상무늬에 비해 많지 않다.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물腹藏物 중 평직의 바닥에 능직으로 산형의 능견綾緞이 있다. 이와 유사한 산형무늬의 직물은 해평 윤씨 장옷의 무로 사용되거나 최원립의 철릭과 권우의 단령에 다는 동정에 사용되었는데 모두 시기적으로는 17세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산형의 직물이 옷의 겹감 전체에 사용되기 보다는 부분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고 본다.

방격문方格紋은 바둑판과 같이 가로와 세로가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 교차하는 모양의 무늬이다. 4세기 후반의 동암리 고분벽화에는 격자문의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성이 그려져 있는데, 상의는 흑백 두 색상으로 표현하였으며 하의는 다른 색으로 사선을 나타내고 있다. 격자무늬는 고대부터 사용되었으나 현재 전하는 유물은 그다지 많지 않다. 15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격자무늬의 불복장 직물이 있고, 낙산사 공중사리탑복장의 유물 가운데 격자무늬와 보배무늬가 함께 시문된 보자기가 전하고 있다.

회문回紋은 마름모가 표현된 무늬로 능문菱紋이라고



기하무늬 | ① 아미타불복장 직물 중 부분 | 국립문화재연구소, ② 안동 권씨 묘 출토 저고리 중 부분 | 국립문화재연구소, ③ 영친왕 마고자 중 부분 | 국립문화재연구소, ④ 영친왕 창 의 중 부분 | 국립문화재연구소

도 한다. 고대의 여러 고분에서 회문의 직물편이 다수 출토되었으며 고려시대의 저고리에도 유사한 무늬의 직물이 있다. 조선시대의 것으로는 특히 마름모가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구조의 무늬가 여러 점 조사되어 있지만 길상(吉祥)을 주제로 하는 직물에 비해서는 수량이 많지 않다.

귀갑문(龜甲紋) 혹은 귀쇄문(龜鎖文)은 거북이 등껍질의 육각형 무늬를 도안한 것이다. 거북이는 실제 존재하는 생물이지만 용·봉·기린과 함께 신령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거북이의 긴 수명은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여 귀갑문은 직물뿐만 아니라 토기, 금속 등 다양한 물품의 장식무늬로 사용되어 왔다. 고려시대의 귀갑문은 육각형 안에 만자(卍字), 왕자(王字), 꽃 등과 함께 시문된 복합문의 구조로 많이 나타난다.

만자문(卍字紋)은 ‘卍’을 도안화한 무늬로 길상의 의미가 담긴 무늬이다. 만은 본래는 글자가 아니고 693년 중국 당나라 때 卍자 모양의 글자를 만들어 정식 문자로 채택하고 ‘만(萬)’자로 읽게 하였다. 당나라 승려 혜원(慧苑)이 저술한 『신역대방광불화엄경음의(新譯大方廣佛

華嚴經音義)에서 “卍은 그 발음이 만이며, 길상만덕(吉祥萬德)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만자는 불교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부처가 지닌 성덕(聖德)과 길상을 나타낸 문자이다. 『화엄경』 권 48에서는 만자에 대해 “여래의 가슴에는 홀룩한 분의 특징인 卍 모양이 있다. 이것을 길상해운(吉祥海雲)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만자는 고대 서양에서도 사용되어 온 문양으로 불교적인 상징뿐만 아니라 우주가 순환하는 기운으로 보는 등 만자의 유래와 상징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다. 복식에 표현된 만자는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보다는 다른 무늬와 함께 복합문으로 표현된 것이 많다. 바탕무늬를 사방으로 이어지는 만자로 하고 용이나 꽃 등의 무늬를 규칙적으로 첨가하여 배치하는 무늬도 있으며, 만자가 마치 띠처럼 배열되어 있고 가운데에 다른 무늬가 시문되는 것 등 만자를 활용한 다양한 구조의 무늬가 있다.

금문(錦紋)은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의 다양한 기하 도형을 연이어지도록 배열하고 그 안에 여의문, 화문 등의 각종 무늬로 다채롭게 표현한 무늬이다. 중국 송·원대에 유행했던 팔달운(八達雲)에서 유래한 것으로 팔달운(八達雲), 팔화운(八花雲)이라고도 하였다.

특징 및 의미 기하무늬는 점·선·면 등과 같이 단순한 도형을 전개한 추상무늬이다. 선사시대부터 사용된 무늬로 해와 달, 산과 물, 번개 등의 자연의 현상을 비롯하여 인물이나 동물 등을 간략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인류가 초기부터 사용하던 표현 수단으로 장식적인 의미 이외에 신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기하무늬가 추상무늬인 만큼 범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태극(太極)과 팔괘(八卦)와 문자를 도안한 무늬도 기하무늬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 고구려고분벽화(조선화보사, 1986), 고려시대의 불화(시공사, 1996), 성주이씨 형보의 부인 해평윤씨 출토복식(단국대학교출판부, 2010),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 직물의 특성과 편년 고찰(박윤미, 문화사학37, 한국문화사학회, 2012),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의문의 조선옷(경기도박물관, 민속원, 2017), 전통 문양(허균, 대원사, 2002), 中國衣服服飾大辭典(周汎·高春明, 辭典出版社, 1996), 불교용어사전(studybuddha.tistory.com).

필자 박윤미(朴允美)

길짐승무늬

정의 용을 제외한 네발 달린 짐승을 무늬로 도안한 무늬.

내용 일반적인 직물에 표현된 길짐승무늬(走獸紋)로는 토끼·양·다람쥐·사슴무늬 등이 있으며, 흉배에 표현된 무늬로는 기린·백택·거북·호표·사자·해치·호랑이무늬가 있다. 길짐승무늬가 표현된 이른 시기의 자료에는 14세기 불복장 직물에 나타난 토끼와 양이 있다. 1302년 아미타불에 복장된 직금주머니에는 토끼와 영지버섯 모양의 구름이 함께 표현된 것이 있는데, 토끼와 영지는 모두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의미가 있다. 그 후로는 토끼무늬가 확인되지 않다가 조선 후기에 다시 달 속에서 방아를 찧는 토끼의 모습이 도자기나 자수품 등에서 확인되는데, 그 예로 18세기 가사袈裟(승복의 구성 요소)에 떡방아를 찧는 모습으로 표현된 토끼를 들 수 있다. 석가모니의 전생을 그린 『본생경本生經』에는 굶어 죽어 가는 노인을 살리기 위해 토끼가 자기 몸을 불구덩이에 던져 사신공양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로 인하여 토끼는 달 속에 영원히 살면서 중생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불교 복장에 토끼무늬가 사용된 것이다. 또한, 1346년 장곡사 철조약사불에 복장된 직금주머니에는 무릎을 꿇고 앉아 뒤로 향한 모습의 양이 있다. 양은 ‘상서로울 상祥’ 자를 ‘양 양羊’ 자로 쓰기도 하고, ‘별 양陽’과 음이 같아 길한 운세의 의미가 있다. 다람쥐는 근면하고 성실한 성품을 지닌 동물로 부귀다산을 상징하였는데, 주로 17세기 말 내지 18세기에 포도무늬와 함께 도안되었다. 사슴과 거북은 조선 말기 자수나 그림 자료에서 볼 수 있다. ‘사슴 녹鹿’ 자가 ‘벼슬 녹祿’ 자와 음이 같아 관리의 벼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 쌍의 사슴과 한 쌍의 거북은 부부의 화목과 장수의 의미가 있어 십장생무늬의 하나로도 각종 장식에 애용되었다.

흉배에 나타난 길짐승무늬 중 기린麒麟·백택白澤·거북龜은 대군大君이나 군君의 관복에서 나타나며, 무관의 관복에는 호표虎豹(호랑이와 표범)·사자獅子·해치獬豸·호랑이虎가 사용되었다. 기린은 온순하면서도 절대



① 토끼무늬 도식 | 고려



② 기린이 수놓아진 흥선대원군의 흉배 | 조선



③ 사자흉배 | 조선



④ 백택흉배 | 조선



⑤ 거북흉배 | 조선



⑥ 해치흉배 | 17세기

길짐승무늬 | ① 아미타불복장 주머니 중 부분 | 국립문화재연구소, ② 가로 25.5 세로 23.1 | 국립중앙박물관, ③ 가로 37.5 세로 33 | 국립민속박물관, ④ 가로 21 세로 22.5 | 국립민속박물관, ⑤ 가로 21 세로 24 | 국립민속박물관, ⑥ 이종로 초상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적 힘을 가진 상상의 동물로, 머리에 뿔이 있고 비늘이 온몸을 덮고 있으며, 소의 꼬리에 말의 다리를 가진 모습을 하고 있다. 기린무늬에 관한 자료로는 ‘신묘신조 기린초’라는 목서가 있는 기린흉배 종이 수본,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1820~1898) 초상에 금색으로 표현된 기린흉배, 흥선대원군의 것으로 전하는 금사자수기린흉배가 있다. 이들 자료에 드러나는 기린은 각각 자세가 다르다. 수본의 경우 발톱이 둘로 갈라져 있는 반면, 초상과 자수흉배에는 하나로 표현되었으며 초상의 경우에는 뿔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 등 세부 특징에 차이가 있다. 백택은 상상의 동물로 말을 할 줄 알고 만물을 통달하여 덕이 깊다고 여겨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제군諸君의 흉배로 정해진 바 있고 연잉군(영조의 즉위 전 군호) 초상에서 처음 모습이 확인된다. 머리에는 뿔

하나가 있으며, 몸에는 비늘이 있고, 발톱 네 개를 가진 것으로 표현되었다. 조선 말기에는 백택홍배 종이본과 대한제국 시기의 백택 깃발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종이본의 백택은 얼굴이 호랑이와 비슷하고, 머리 갈기와 꼬리털이 풍성하고, 목에는 가로선이 있으며, 발톱은 네 개로 표현하였다. 백택 깃발에는 채색이 되어 있는데, 몸의 비늘은 청색이고, 길게 늘어진 머리털은 녹색이며, 날카롭게 돋은 네 개의 발톱은 흰색이다. 신령스러운 기운을 무늬로 표현한 영기(靈氣)는 홍색과 녹색으로 강렬하게 표현되었다. 거북은 주로 장수의 상징물로 십장생에 포함되어 그림이나 민예품의 무늬로 애용되었다. 홍배에 쓰이는 거북무늬는 정식으로 규정된 것은 없었으나 흥선대원군의 것으로 전하는 거북홍배가 있다. 『고종실록(高宗實錄)』에서 1882년(고종 19)과 1885년(고종 22)에 대원군의 홍배로 거북홍배를 쓰라는 기록이 두 차례 확인되어 이 시기를 전후로 거북홍배가 사용되었다고 추측한다. 홍배에 표현된 거북은 입에서 불을 뿜고 있으며, 꼬리가 여러 가닥이고 발톱이 다섯 개로 표현되는 등 실제 거북에 상상의 모습을 추가하여 위엄있고 사납게 표현되었다.

호랑이와 표범은 용맹하고 사나운 맹수로 강한 힘과 위용을 상징한다. 호표홍배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무관의 1·2품의 홍배로 정한 것으로, 실물로는 의인 박씨 묘에서 출토된 16세기 단령형 원삼에 줄무늬 호랑이와 점무늬 표범이 표현된 홍배가 유일하다. 호랑이홍배는 당시 조선의 홍배 제도에는 없었으나 용인 흥덕동 무연고 여성의 묘에서 출토된 16세기 중후반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수의용 단령에 호랑이 홍배가 확인된 것을 시작으로 17~18세기에는 무관의 홍배무늬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세기 전후로는 호랑이의 수에 따라 당상관은 쌍호(호랑이 두 마리), 당하관은 단호(호랑이 한 마리)홍배로 나타나는데, 표범처럼 점무늬가 있으며 대부분 흰색으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 해치는 상상의 동물로 우리말로는 해태라고 하며, 신양, 식죄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해치의 머리에는 뿔 하나가 있는데, 올바르게 못한 사람을 보면 뿔로 찌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정의의 동물로 여겨졌다. 『경국대전』에서는 대서헌의 홍배무늬로 제정되었으나, 주로 17세기 무관 중

2품의 홍배무늬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해치홍배 유물은 조경(趙敬)(1541~1609)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 있는데, 갈변되어 원래 색은 알 수 없다. 이중로(李重老)(1577~1624)의 초상에 나타난 해치홍배를 보면, 몸이 희고 머리 중앙에 뿔이 있으며, 주둥이가 길게 나와 있다. 눈썹, 턱수염, 머리와 꼬리털은 녹색이며, 목선에 표현한 영기는 날카롭게 뻗어 있다. 사자는 타고난 용맹성과 위엄, 절대적인 힘을 가진 동물로 현실의 동물이기는 하나 상상의 동물로 표현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도통사의 홍배무늬로 정하였으나, 17~18세기 유물상으로는 주로 무관 중 2품의 홍배무늬로 사용되었다. 사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실물 자료로는 무연고 묘에서 출토된 16세기 여성의 치마, 김여온(金汝溫)(1596~1665) 묘에서 출토된 17세기 단령, 18세기 것으로 전하는 전세 자료가 있는데, 머리 모양이 나선형으로 말려 있거나, 녹색 갈기가 귀 아래로 늘어진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18세기 이후의 초상화 자료에서는 사자의 몸을 백색으로 채색하고 점무늬를 그렸으며, 귀 아래로 늘어진 갈기는 녹색으로 표현되었다.

특징 및 의의 길짐승무늬는 일반적인 직물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주로 홍배 장식에서 그 사용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직물에 나타나는 길짐승무늬로는 고려시대에 직금으로 표현된 토끼무늬와 양무늬가 있다. 그 후로는 길짐승무늬가 거의 보이지 않다가 18세기 전후에 포도·다람쥐무늬가 한시적으로 유행하였다. 이후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각종 장식품에 사슴·거북무늬가 애용되었고, 승복의 가사가 토끼무늬로 장식되기도 하였다. 홍배에 사용된 길짐승무늬 자료로 17세기 이전에는 호표·사자·호랑이가 확인되며, 17세기 이후부터는 해치·호랑이·사자무늬가 보이다가 19세기 전후에 무관 당상관은 쌍호, 무관 당하관은 단호홍배가 조선 말기까지 지속된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의문의조선-무늬(경기도박물관, 민속원, 2016), 조선시대 무관의 길짐승홍배제도와 실재(이은주, 복식58-5, 한국복식학회, 2008), 중국미술상징사전(노자키 세이킨, 변영섭·안영섭 역,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토끼(이아령, 생각하는나무, 2010), 한국직물문양 이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출판부, 2006).

필자 정미숙(鄭美淑)

까치두루마기

정의 설달그믐날 까치설빔으로 아기들에게 입혔던 오색 옷감으로 지은 두루마기.

개관 ‘까치설빔’이란 까치설날 즉 ‘설달그믐날 입는 옷’을 뜻한다. 까치는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 <오작교烏鵲橋 설화> 등 속신俗信에서는 풍요·벼슬·치병治病·보은報恩 등을 상징하는 길조吉鳥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까치설빔이라는 명칭은 설달그믐날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까치의 이름을 붙인 데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까치두루마기를 ‘오방장두루마기’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동·서·남·북·중앙 즉, 다섯 방위를 의미하는 오방색五方色은 보기에 아름답고 고운 것이며 사방과 팔방 및 온 우주를 상징하는 색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기들에게 이런 옷을 입힘으로써 삼라만상이 가진 좋은 기氣와 운運을 모아서 인간이 염원하는 무병장수無病長壽, 부귀권세富貴權勢 등 모든 영화榮華를 이루고자 했음이 공통점이다.

내용 까치두루마기는 아이들 입성거리(복식服飾) 중에서 가장 치레한 옷의 하나이며, 주로 남아男兒에게 입혔다. 기본적인 꼴(형태·모양)은 보통 두루마기와 같지만, 각 부분별로 색을 달리하고 겹섶의 옷고름은 길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 긴 옷고름은 ‘돌띠’라고 하여 허리에 한 바퀴 돌려 댔다. 돌띠는 옷고름이 늘어지고 펄럭거리어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점도 있지만, 관직자가 관복官服에 띠는 각대角帶의 의미와 상통한다. 모두 자라서 양반兩班이 되기를 염원하는 주술성呪術性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홑옷도 있지만 대부분 겹옷이고, 안감은 주로 분홍색으로 하였다.

색은 길(저고리나 두루마기 같은 옷옷의 섶과 무사 이 몸통의 중심부에 있는 넓고 긴 폭)과 소매는 검정을 제외한 밝고 고운 것으로 했다. 주로 길은 연두, 옷의 중심인 겹섶은 오방색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치는 황黃으로, 소매는 연두나 색동으로 했다. 그중에서 깃·옷고름·끝동은 성별性別에 따라 남藍과 홍紅 두 가지를 썼다.



까치두루마기 | 길이 58.5 폭 35 화장 45 | 국립민속박물관

이처럼 색을 구분하는 것은 남녀의 분별 및 관직과 혼인을 상징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따라서 남자아이의 깃·고름·끝동은 남, 무는 자주紫朱로 하였다. 여자아이의 깃·고름·끝동을 홍이나 자주로 하고, 무는 남으로 하였다.

까치두루마기를 입을 때 아래에는 풍차바지, 위에는 색동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은 다음 위에 다시 전복戰服을 덧입기도 했다. 전복을 입을 때 허리에는 홍색의 조대組帶, 細條帶나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홍색 바탕에 길상문吉祥紋을 수놓은 ‘수繼돌띠’를 띠기도 하고, 머리에 복건福巾이나 호건虎巾을 씌우며 발에 타래버선과 태사鞋太史鞋를 신겼다.

색동두루마기는 아니지만 김숙당金淑堂의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1925)에 색동저고리의 오색과 색동의 숫자가 나온다. “색동저고리에는 연두 길에, 소매와 섶는 색으로 모아 단다. 깃은 여자는 자주로, 남자는 남색으로 단다. 동에는 홍을 대고 끝동에는 자주가 되도록 다는데 짝을 맞추지 말고, 동은 열셋이나 열다섯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특징 및 의의 까치두루마기에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청·홍색은 어른이 되면 상황에 의미가 더 강조된다. 주로 ‘홍색은 남성에게 양반으로 출세를 상징하는 ‘관官’발을, 청색은 여성에게 ‘혼인발’을 받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홍색은 태양·하늘·건강·부귀영화, 특히 임금과 왕비 등 최고의 권력 및 관직자·양반계층을 상징하는 색이다.

남자들이 일반 포복 류를 입을 때는 허리에 ‘조대組帶’·‘세조대細組帶’라고 하는 가는 ‘끈(띠)’을 맸다. 이것들 중 홍색 비단실로 짠 것을 ‘홍띠’라 하며 으뜸으로 여겼다. 어른들은 이를 신방新房을 꾸미기 전이나 후에 덕담德談으로 “홍띠 꿈 꾸어라.”, 또는 “홍띠 꿈 꾸었냐?”라는 말로 특히 혼인婚姻한 신랑신부에게 연관을 지어왔다. 이는 홍색이 높은 관직자용이므로 그런 신분을 동경하는 상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민속조사에 나타난 초생아 옷의 사상 및 상징(고부자, 전통의생활연구3, 단국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 2009), 우리나라 유아의례와 복식의 민속연구(고부자, 비교민속학34, 비교민속학회, 2007), 조선재봉전서(김숙당, 활문사, 1925).

필자 고부자(高富子)

꼭두서니

정의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다년생 덩굴초목으로 붉은 색이나 황색을 낼 때 사용하는 염료.

내용 꼭두서니는 산야, 구릉지 등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덩굴풀로 어린잎은 식용으로 쓰이며, 황적색의 말린 수염뿌리는 한약재나 염색재료로 쓰인다. 일명 ‘천茜’, ‘천초茜草’, ‘가삼자리’, ‘가삼사리’라 하며 뿌리는 ‘천근茜根’, ‘천초근茜草根’, ‘모수茅蒐’라고 한다.

인더스 문명 모헨조다로 유적 출토 목면을 근거로 볼 때 꼭두서니 염색은 기원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 이미 붉은 색으로 염색한 옷감을 사용하였으나 꼭두서니 명칭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고려시대이다.



꼭두서니



꼭두서니로 염색한 비단

꼭두서니 | 국립민속박물관

고려시대 중국어 학습서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에는 ‘곡도송’으로 표기하였고, 이후 조선시대 문헌에는 주로 ‘천’, ‘천홍’, ‘천근茜根’ 등 한자어로 표기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천초는 함경도에 서 나는 약재이며 특히 천초근은 평안도에 지정된 공물이었다. 다산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쓴 편지 중에 국화 한 이랑은 가난한 선비의 몇 달 양식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으니 한갓 꽃구경에만 그치지 말고 생지황生地黃·반하半夏·길경桔梗·천궁川芎 따위와 쪽나무, 꼭두서니 등도 모두 유의하여 관리하도록 당부한 내용을 보면 특히 붉은색 뿌리는 약효와 염색성이 좋아 목적과 필요에 의해 꼭두서니를 일반 가정에서도 재배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 후기 이덕무李德懋(1741~1793)가 “이서구李書九(1754~1825)의 아들인 낙서洛瑞의 얼굴이 수척하기가 마치 꼭두서니즙을 바른 듯이 누렇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꼭두서니는 홍화와 함께 붉은색을 염색할 때 사용한 대표적인 식물이지만 붉은색으로만 염색되는 것이 아니다.

홍화와 마찬가지로 꼭두서니 뿌리는 황색과 붉은색의 염료가 같이 있기 때문에 붉은색을 내려면 반드시 황색 기운을 빼내야 한다. 또 색소 함량도 적어 많은 양의 뿌리가 필요하며 황색 기운을 빼고 염색하더라도 홍화보다는 붉은색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왕실의 옷감과 실은 주로 홍화로 염색하고 반면 기물이나 말의 털, 깔개 등은 꼭두서니로 염색했다.

개항 이후 서양 염료가 유입되면서 염액을 추출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판매한 것이 서양 꼭두서니 염액인지는 알 수 없으나 1886년 당시 꼭두서니 염액 한 병 가격은 8냥 전후로 거래되었다. 목면 한 필이 36냥, 흰쌀 한 말 값이 33냥 전후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그다지 싼 가격은 아니었다.

특징 및 의의 꼭두서니 뿌리에는 붉은색과 황색을 띠는 성분이 함께 들어 있어서 노란색으로 염색하려면 황색기를 빼지 않고 그대로 염색한다. 그러나 붉은색으로 염색하려면 염액에서 황색 염료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 예로부터 흰쌀밥을 약간 쉬게 한 후 꾸들꾸들하게 말려 염액에 넣고 2~3시간 끓이면 밥알에 황색기가 흡

착되고 이 밥알을 채에 걸러낸 염액으로 염색한다. 꼭두서니 염색은 고온에서 염색하는 것이 좋으며 얼룩이 생기기 쉬우므로 염액에 옷감을 넣자마자 곧바로 계속 뒤적거려야 한다. 또 홍화와 마찬가지로 견섬유와 면섬유에 따라 염색 후 결과색이 다르며 매염제에 따라서도 다르다. 면섬유는 잿물로 선매염하고 명반으로 후매염하면 황색기를 띤 주황빛으로 염색되고 동으로 선매염하면 노란색으로 염색되고, 철매염을 하면 갈색으로 염색된다.

참고문헌 閨閣叢書, 世宗實錄地理志, 雅亭遺稿, 荷齋日記, 노걸대언해사전(박성훈, 태학사, 2009),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적색계 색명의 의미(남윤자·김순영·박성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필자 윤양노(尹良老)

나막신

정의 통나무를 파서 만든 나무 신.

역사 나무로 만든 신을 지칭하는 여러 문헌들에서 나오는 용어는 평극平屐·극屐·목극木屐·목리木履·목혜木鞋 등이 있다. 이 중 평극, 극, 목극은 일본의 ‘게다’처럼 평평한 나무도마 형의 위에 끈을 달아 만든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임진왜란 전 선조가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원李裕元(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 “선조 대 목혜(나막신)가 남중南中에서 처음 나왔으며 ……”라고 하여 나막신이 주로 남중에서 나왔음을 명시하였다. 목극·목혜로 표현된 것은 게다 형태와 다

른 새로운 형태의 나무 신, 즉 지금의 ‘나막신’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남중’은 하멜과 그 일행들이 주로 머물렀던 지역, 즉 남쪽 전라남도 강진 진영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막신은 17세기 후반 하멜과 그 일행이 우리나라에 표류해 오으로써 네덜란드식의 통나무를 파서 만드는 나막신 제조 방법이 전수되었다. 네덜란드 나막신은 두 가지의 형태, 낮은 굽과 높은 굽의 나막신이 있다. 네덜란드도 조선처럼 주로 수입이 적은 계층에서 나막신을 신었다고 한다. 또한 일반 신발보다 훨씬 신고 벗기가 편리하며, 나무로 만들어져 땀을 흘리더라도 통풍이 잘되는 장점이 있다. 나막신이 특히 네덜란드에서 애용되었던 이유는 바다보다 육지가 낮아 늘 질퍽거리는 토지에 적합했고, 나막신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버드나무와 포플러나무가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보기보다 가볍고 아주 튼튼해서 지금도 이 나막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평범한 것이므로 시선을 받지는 못한다. 나막신을 신기 위해서는 양털로 만든 아주 두꺼운 나막신용 양말을 따로 신어야 하며, 신발 사이즈도 보통 자신의 발보다 두 치수 정도 크게 신어야 한다. 이러한 나막신은 조선시대 당시 네덜란드에서 온 하멜과 그 일행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또는 후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파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네덜란드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다른 예(가요 선율, 관개시설, 언어 등)와 함께 강진 사람들은 굽이 높진 않지만 네덜란드인이 만들던 식의 나무로 된 신발을 신었다고 한다. 이처럼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당시 나막신의 형성에서 이미 조선과 일본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신이 존재했을지라도 이들 ‘게다’식의 나무 신과 달리, 지금도 네덜란드 고유의



① 구유형 나막신 | 20세기 초반



② 당혜형 나막신 | 조선



③ 곤돌라형 나막신 | 조선



④ 태사혜형 나막신 | 조선

나막신 ① 길이 16.5너비 6.5 높이 6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14.4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③ 길이 25.5 높이 16 너비 7.5 | 국립민속박물관, ④ 길이 28 높이 14 | 경기도박물관

신으로 인정되는 통나무를 파서 만드는 독특한 형태의 네덜란드식 나막신이 강진 지역을 그 진원지로 주변으로 확대되었다.

내용 하멜과 그 일행이 머물던 시기와 그 이후에도 네덜란드 고유 양식의 나무를 파서 만드는 나막신이 유행하였다. 만드는 방법은 전수되었지만, 조선 후기의 유물들을 보면 그 양식은 우리 고유의 신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 일반적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만드는 방법은 네덜란드식이지만 그 형태는 우리 고유의 당혜나 태사혜, 발막신 등을 본떠서 만든 것이 유행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나막신의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궐도>이며, 나막신의 양식은 네덜란드식에 가까운 굽이 없는 앞뒤가 평평한 구유형, 여자의 당혜唐鞋와 같은 당혜형, 당혜형보다 앞뒤가 더 올라간 곤돌라형, 남자의 태사혜太史鞋 같은 줄무늬가 들어 있는 태사혜형, 태사혜형과 좀 다르게 무늬가 없는 발막신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나막신은 그 크기에서도 어른용은 남녀 구분이 잘 안 되었다. 길이는 대략 25~30cm 정도이며 너비도 보통 8~11cm로 이 크기는 나막신의 착용법이 네덜란드에서처럼 두꺼운 양말(우리의 경우 버선)을 신고 신어야 발이 편하므로 일반적으로 실제 발 크기보다 매우 크게 만들었으리라 생각된다. 나막신 굽은 네덜란드식 나막신처럼 통나무를 파서 한꺼번에 신고 굽을 붙여 만드는 것이 원 양식이나 후에 굽을 따로 달아 닳게 되면 굽만 따로 새것으로 교환해 붙이는 것으로 변했을 것이다.

특징 및 의의 나막신은 상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신었는데, 높은 굽을 달아 진땅에 다니기 좋게 만들어서 비나 눈이 올 때는 좋으나, 무겁고 활동성이 떨어져 말을 탈 때나 먼 길을 갈 때는 신지 않았다. 맑은 날에도 많이 신었으며, 굽이 닳으면 다시 새 굽을 바꿔 달아서 신기도 하였다고 한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나막신을 신고 소리 내어 지나가는 것이 오만하다고 하여, 천인이나 젊은이는 양반이나 어른 앞에서는 감히 착용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 말기에 나막신은 청빈한 선비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양반은 가난하더라도 상민처럼 짚신이나 미투리 같은 것은 절대



나막신 | 전 신윤복 | 대궐도 중 부분 | 국립중앙박물관

로 신지 않았으므로 맑은 날에도 나막신을 신고 다녔다. 가난한 선비가 많이 살았던 서울 남산골의 선비들이 그러하였다고 하여 이들을 ‘남산골 딸각발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나막신은 1910년 이후 고무신이 등장하자 차츰 쇠퇴하여 1940년대를 전후하여 거의 사라졌다.

참고문헌 五洲衍文長箋散稿, 林下筆記, 조선시대 나막신에 대한 연구(김문자, 패션비즈니스6-2,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2003),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개론(김문자, 교문사, 2015).

필자 김문자(金文子)

나사 羅紗

정의 경위사經緯絲에 모사毛絲를 넣어 직조한 모직물.

내용 나사羅紗라는 명칭은 포르투갈어 ‘라사fraxa’를 한자어로 음차한 것이다. ‘나사’라는 명칭은 『만기요람萬機要覽』(1808), <한양가>(1844)와 1882년 이전에 쓰여진 『탁지준절度支準折』 등의 19세기 문헌에서는 그 명칭을 찾아볼 수 없으며, 1915년 당시에 사용되고 있는 직물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조선회보朝鮮彙報』에서야 비로소 확인된다. 「무오사월옹주아기씨생신의복발기」에 송화색 유문나사로 만든 동의복이 기록되었고, 또 다른 「의대발기」에는 미색 별문나사로 만든 배자와 두루마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때 무오년戊午年은 덕혜옹주 탄생 이후인 1918년으로 추정되므로 나사라는 옷감도 일

제강점기가 시작되는 20세기 초반부터 사용되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1년 간행된 일본의 『섬유사전 纖維辭典』에 따르면 방모紡毛 직물의 일종으로 일본의 경장 연간慶長(1596~1614)에 경도에서 수입품을 모방하여 만들었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1877년(메이지 10) 동경의 오주에 관영방모공장(후의 오주제용소)이 설립되어 그 후에 민영방모공장을 설립하고 소화昭和 초기부터 생산이 급증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나사라는 명칭을 보면 견직물의 일종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모직물이다. 경사經絲와 위사緯絲가 모두 방모사紡毛絲이고, 경우에 따라 날실에 소모사梳毛絲를 사용한 두꺼운 방모 직물도 있다. 직조한 후에 양모의 축융縮絨·기모起毛·전모剪毛·브러싱brushing 등의 가공으로 모우毛羽를 세우지만 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징 및 의의 나사의 조직은 평직·능직·수자직·이중직 등이고, 빛깔은 흑색·감색 외에 각색 무지와 체크무늬 등 종류가 많다. 보온 효과가 좋아 겨울용 양복감이나 코트감으로 쓰인다. 그래서 ‘라사’라는 명칭은 양복점 이름에 자주 등장한다.

구슬 모양의 딱딱한 보풀이 특징인 두꺼운 방모 직물로는 옥라사玉羅紗가 있다. 옥라사는 날실에는 소모사나 면사를 사용하고, 씨실에는 방모사를 사용하여 방모사가 많이 뜨게 한 위수자직緯繻子織이나 위능직緯絨織으로 제직한 후 마무리 가공을 한다. 옥라사 역시 주로 오버코트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참고문헌 朝鮮叢報, 발기,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패션전문자료사전(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한국사건연구사, 1997).

필자 조효숙(趙孝淑)

나일론

정의 화학적 방법에 의해 중합된 합성고분자를 원료로 하는 섬유 중 주류를 이루는 섬유.

내용 1935년 미국의 화학 기업인 듀폰에서 일하던 화

학자인 캐러더스W.H. Carothers는 실크 스타킹을 대체할 섬유를 연구하던 중 나일론66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1938년 듀폰 사는 발명된 폴리아미드 섬유의 공업화를 발표하면서 상표를 ‘나일론’으로 정하고, 가늘고 강한 섬유인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을 시판하였다. 1940년 뉴욕 시에서 나일론 스타킹이 처음 발매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백만 켤레가 팔렸으며, 그 후 나일론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수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국내에는 1953년경 일본에서 처음 수입되었으며, 1963년 한국 나일론 주식회사에서 나일론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여러 회사에서 나일론 섬유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피복 재료로 널리 쓰이는 나일론에는 나일론66과 나일론6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두 가지는 특성이 비슷하여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으로 나일론66과 나일론6의 생산량은 비슷하나 나일론6의 제조 방법이 더 간단하여 나일론6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나일론은 대부분 나일론6이다.

처음 국내에 소개되었을 때는 질기고 관리가 다소 편한 장점 덕에 인기를 끌었다. 한복 옷감으로도 각광을 받아 나일론 옷감을 입지 않는 여성은 유행에 뒤처진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또 이 시기는 미국과 UN의 구호물자가 패션이 되기도 하던 시기였는데, 6·25전쟁의 군수물자인 낙하산지 등에 사용되었던 나일론이 전쟁 이후 여성들의 블라우스 옷감으로 재활용되기도 하였다. 나일론 소재의 낙하산지 블라우스는 속이 흰히 보이고 비에 젖으면 옷감이 피부에 달라붙기도 하여 남성용 백색 면 소재 속옷을 밑에 받쳐 입기도 했으며, 몸에



나일론 | 국립민속박물관

소재로는 그 빈도가 많이 줄었지만 고감도·고탄성의 신소재가 개발되면서 스포츠와 레저 의류에 나일론 직물의 수요는 늘고 있다.

참고문헌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어원 500가지(박숙희·유동숙·이재운, 예담, 2008), 우리 옷 이천년(유희경 외, 미술문화, 2008), 피복재료학(김성련, 교문사, 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장현주(張賢珠)

난삼
欄衫

정의 생원生員·진사進士·유생儒生の 관복으로 옥색에 흑연을 두른 포.

역사 난삼欄衫은 성균관 및 오부유생의 청금靑衿과 진사들의 흑령黑領 및 제학생도諸學生徒의 옷이다. 이 난삼은 심의深衣의 제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난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색服色이다. 1390년(공양왕 2) 명에서 제정한 제도를 보면 옥색玉色의 포견布絹으로 만들고 조연皂緣을 한다고 하였으나 반드시 이를 따르지는 않았다.

1741년(영조 17) 관학유생의 복색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경연에서 주청한 것을 보면, “『경국대전經國大典』<황간도>에 제학생도는 단령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주석을 보면 유학은 청금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청금은 흑 그것이 푸른 옷인지 의심하기도 하고, 흑은 옷은 붉은데 옷깃을 푸르게 한 것이라고도 하였으며, 『시경詩經』의 주석에는 금衿은 영領을 뜻하는 것으로 붉은 옷에 푸른 것을 말하는 것인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지봉유설芝峰類說』에는 우리나라 유사들이 사사로이 출입할 때에는 홍직령을 착용하였는데 명종 말년에 연달아 국상을 당하여 흰 옷을 입는 것이 습관이 되어 그대로 풍속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니 이로써 살펴보건대 붉은 옷은 반드시 조종조의 구제舊制일 것으로 무릇 복색은 청색과 흑색을 함께 쓰지만 흑단령은 홍단령과 비교하여 더 중하므로 중한 곳에는 흑단령을 입고 경한 곳에는 홍단령을 입으니 조신뿐만 아니라 유사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묘聖廟에 들



석탄옷을 입을 시대 새로난인조견 나일론 | 1939. 5. 2 | 동아일보

꼭 맞는 스커트, 굽 높은 구두와 함께 착용하는 것이 한 때 유행했다. 현재 나일론은 질기고 내마모성이 우수해서 의류 이외에도 어망·로프·톱니바퀴·타이어코드·카펫·라켓의 줄 등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나일론은 강도와 습윤 상태의 신도伸度가 커서 질기고 탄력 및 복원력이 우수하다. 구김이 잘 생기지 않으며, 내약품성과 내충·항균성이 좋아 약품이나 해충에 대해서 비교적 안정적이다. 열가소성이 매우 좋아 텍스처사·여성용 스타킹·란제리 등 열 고정기 필요한 제품에 이용되며, 이렇게 열 고정된 나일론 제품은 가정에서 취급하는 세탁이나 다림질로는 형체가 변하지 않는다.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양말·셔츠·스포츠 셔츠 등 편성물에 많이 사용되고 다른 섬유와의 혼방에도 사용된다. 천연 섬유보다는 흡수율이 낮으나 다른 합성 섬유보다는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빨래가 쉽게 마르는 장점이 있지만 내의나 더운 기후에서의 옷감으로는 부적합하며, 염색이 힘들고 표면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햇빛에 쉽게 변색되므로 세탁 후 그늘에서 건조시켜야 한다. 나일론은 합성 섬유의 주류를 이루는 섬유 중 하나이며, 의류를 비롯하여 실내 장식과 산업용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 전체 합성 섬유 소비량의 21% 정도를 차지한다. 최근 폴리에스테르와 아크릴의 등장으로 합성 섬유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의류용



난삼(앵삼) | 길이 132 폭 30 화장 85 | 조선 후기 | 고려대학교박물관



과가하는사람 | 기산풍속도 | 2002년 복제 | 국립민속박물관

어갈 때에는 푸른 옷을 입고 식당 및 재에 모일 때에는 붉은 옷을 입었으니 의도한 바가 대체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조종조에서 행하던 것이므로 경솔하게 고칠 수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생원·진사의 복식은 1746년(영조 22) 경상북도 안동 향교에 있던 복두·난삼을 본떠 만든 것을 법식으로 삼았다.

내용 난삼은 중국 후위(後魏)시대에 말을 타기에 편리하도록 저고리에다 횡폭으로 치마를 이어 붙여서 통으로 만든 옷이다. 학사(學士)·대부(大夫)가 착용하면서 시작

되었다. 난삼의 의와 연은 시대에 따라 색이 달랐는데, 조선 초기에는 청색 의에 검정 연을 둘렀으며, 1428년(세종 10)에는 옥색 의에 청색 연을 둘렀다. 1589년(선조 22)에는 남색 의에 청색 또는 검정 연을 둘렀으며 1714년(숙종 40)부터는 옥색 의에 검정 연을 둘렀다. 그러나 후기가 되자 옥색이 꾀꼬리 색으로 바뀌면서 명칭도 앵삼(鶯衫)으로 바뀌었다.

이 난삼은 중국에서는 성행하였으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착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조선 후기 성리학자였던 권상하(權尙夏)가 태학의 장의로 있을 때 현종에게 상소를 올려 ‘분포청금’을 입을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았으나, 권상하가 체직되자 실행하지 못하고 도봉서원의 재실 속 상자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예를 좋아하는 사대부가에서만 간간히 입었을 뿐이다. 이후 영조는 난삼의 제양이 좋다는 것을 알고 생원(生員)·진사(進士)·유생(儒生)의 관복제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유신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하였으나, 중국에서도 오래된 제도라 명백히 근거할 만한 자료가 없어 상고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안동향교에 소장되어 있던 복두·난삼을 본떠 착용하게 함으로써 난삼은 옥색에 흑연을 두르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난삼은 심의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지만 형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심의는 의(衣) 네 폭, 상(裳) 열두 폭을 이은 후 허리에서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을 연결한 옷이다. 여기에 둥근 소매에 네모난 깃을 달고 깃, 도련, 수구에 검은색 선을 두르되 구부러져 있다. 반면에 난삼은 상의와 하의가 하나로 연결된 포의 형식으로 깃은 둥근 단령이며 깃, 도련, 수구에 검은색 선을 둘렀다. 1746년(영조 22)에 이르러 옥색 의에 검정색의 조연(紵緣)을 두른 난삼을 입기 전까지 생원·진사는 유건에 청삼을 착용하였다. 그러나 대과에 합격하면 직령 깃을 단 청삼이 아닌 둥근 단령의 난삼 즉 앵삼을 입었고, 그중 장원급제자는 삼일유가(三日遊街)를 하였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옥소 권섭과 18세기 조선문화(신경숙 외, 다은샘, 2009),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3), 조선왕조실록사전(encysillok.aks.ac.kr).

필자 이민주(李民周)

정의 부분적으로 착색하여 무늬를 나타내는 염색 방법.

내용 날염은 다른 말로 ‘무늬염’ 혹은 ‘프린팅PRINTING’이라고도 하며, 인염引染과 회염繪染으로 나눌 수 있다.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착용한 의복 중에는 주황색이나 소색素色 바탕에 검은색으로 작은 점 무늬, 능형문 등이 연속적으로 시문試紋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직조織造에 의한 문양이라기보다는 염색에 의한 무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국시대에는 붓으로 물감을 칠하여 문양을 그리는 채회염彩繪染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염防染 기법을 활용한 힐염緋染과 관을 조각하여 염색하는 인염印染 등의 문양 기법이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문양을 조각한 목판인 능화판으로 찍어 직물이나 종이 등에 날염하는 인염 기술이 발달하였다. 능화판으로 종이에 문양을 새겨 책의 표지로 사용하거나 보자기에 인염하여 문양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궁에서 사용하던 궁보宮褙나 깃발 중에는 주로 채회염의 직물이 많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친즈Chintz’라고 불리는 무늬염 기법이 발달하였는데 동아시아에서는 ‘화포花布, 華布’라고 불리었다. 화포는 주로 면직물에 하는 염색으로 인도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간 무늬염색 기법이다. 조선시대에는 ‘인탑인攞’ 염색이라고 불렀고, 중국에서는 ‘형판인화염型板印花染’, 일본에서는 ‘사라사[更紗]’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에 시작하여 서한西漢시대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문양판은 음각으로 무늬를 표현한 음문과 양각으로 표현하는 양문으로 나뉘어 제작되었고, 구획을 나누어 수차례 여러 색으로 나누어 찍기도 하며, 부분적으로 회염을 넣어 화려한 무늬를 만들 수도 있다.

특히 일본 사라사의 발달은 조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임진왜란 당시 나베시마[鍋島]의 국주國主가 귀향할 때 조선의 장인 이구산李九山을 데려가 어용御用의 사라사를 제조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일본의 유명

한 나베시마 사라사가 발달하게 되었다. 지금도 일본 사가현에는 ‘나베시마 사라사’라는 팻말이 남아 있으며, 그 지역 신사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구산과 함께 잡혀 온 도공들을 기리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조선시대 날염 기술이 뛰어났음을 의미하는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의 날염에 관한 문헌자료와 복식 유물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에서 출간된 『증보화포편람增補華布便覽』(1781년)에서 출처지가 『조선지朝鮮也』로 기록된 사라사도판 22개를 민길자가 발견하였다. 그리고 출처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의 조제 방법도 찾아냈다. ‘지형地形’이라고 된 항목에는 짙은 먹을 사용한다는 기록과 함께 사라사의 기법도 기록되어 있다. 우선 목판木版에 먹을 사용하여 거듭 세 번 찍어낸 후, 황黃·적赤·자紫·청靑의 순서로 형지型紙를 사용 쇄모刷毛로 염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후로 상형像型이라고 하는 적赤의 판랍으로 효과를 복잡하게 낸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하여 사실상 조선시대의 화포(친즈, 사라사)가 목판염과 형지염을 함께 사용하였고, 그 사라사의 색은 황·적·자·청·흑 등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날염이 보편화되고 날염 패턴이 디자인 산업의 전략 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합성염료가 개발되고 날염 기계의 발달 및 대량생산이 이루어진 18~19세기경부터라고 볼 수 있다. 날염기계로는 1743년 동판의 블록형 롤러 날염기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요철 표면이 마모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후 1783년에 토마스 벨이 오목형 롤러 날염기를 개발하였으며, 1930년경에는 스크린 날염기가 개발되었고, 그 후 롤러 날염기와 스크린 날염기의 장점을 살린 로



날염보 | 국립고궁박물관

터리rotary 날염기가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광복 직전에 롤러 날염기가 들어왔으며, 1960년경에 스크린 날염기가 보급되었다.

참고문헌 염색의 이론과 실제(이연순·정정숙·이영희, 미진사, 1997),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전통색깔 물들임과 무늬 넣기(김지희, 자연염색박물관, 2012), 한국전통직물(한국섬유공학회, 1998), 한국직물 오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 2002).

필자 조미숙(曹美淑)

L

날짐승무늬

날짐승무늬

정의 봉황을 제외한 새를 소재로 도안한 무늬.

내용 날짐승무늬[飛禽紋]는 고려 말기 불복장 직물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출토복식 유물이 발견되는 15세기 후반의 복식 유물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고려시대 불복장 직물에 나타난 새무늬는 작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이 특징으로, 1346년에 직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수사 금동아미타불복장 직물에는 새를 넣어 단조롭게 도안된 새무늬가 있다.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날짐승무늬는 신분의 상징성을 포함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직물에 좋은 의미를 담아 장식에 사용한 것이 있다. 신분의 상징성이 포함된 무늬에는 왕실의 무늬와 관리의 무늬로 구분된다. 왕실 복식에 표현된 새무늬는 왕의 면복에 장식한 무늬 중 화충華蟲(鴛)이 있으며, 대한제국 시기 영친왕비의 적의翟衣 전체에 화려한 색채로 직조된 꿩무늬가 있다.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의 왕세자빈 복식에는 외출 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쓰는 면사面紗에 금실을 넣어 짠 원앙무늬인 직금원앙織金鴛鴦에 관한 기록이 있다. 18세기 사도세자의 딸인 청연군주 묘에서 출토된 노의露衣에도 금박으로 장식된 이러한 무늬가 확인된다. 한 쌍의 원앙을 새긴 무늬는 부부의 행복을 의미하여 조선 후기 각종 장식품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관리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 새무늬는 문관의 관복에 장식하여 신분을 표시하던 흉배장식에서 볼 수 있다. 장식에 사용된 무늬에는 공작孔雀·운안雲雁(기러기)·백한白鵝·학

이 있으며, 조선시대에 특별히 제도화된 적은 없으나 출토된 자료 중에는 흉배와 조복의 후수 무늬에 사용된 노사鷺鷥(백로)가 있다.

문관의 흉배는 1485년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기록에 의하면 1품 공작·2품 운안·3품 백한을 장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7세기 중반부터 학흉배가 유행하면서 공작·운안·백한은 차츰 자취를 감추고 학흉배만 사용하게 되었다. 공작은 위엄·화려함·부귀를 상징하며,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염원하는 길한 의미가 있다. 출토된 공작흉배는 인천 석남동에서 발굴된 15세기 단령형 원삼과 연안 김씨 묘에서 출토된 16세기 단령형 원삼에 장식된 것이 있다. 모두 조선 전기 흉배 장식의 특징인 금사를 넣어 직조한 것이다. 공작의 형태는 머리 위의 장식깃, 비늘 모양의 몸통, 공작 특유의 화려한 꼬지깃이 있게 하였고, 아래로는 바위·산·파도, 중간에는 부귀의 상징인 모란, 위로는 구름을 배치하였다. 17세기 이후로는 색사를 넣어 직조하거나 자수로 표현하였다. 장만 초상의 공작흉배를 보면 회색 부리, 검은 목선, 푸른색 몸통에 양 날개의 끝은 금빛이며, 초록색의 화려한 꼬리에 삼색의 둥근 장식이 있다. 나머지 공간에는 모란과 오색구름을 배치하였다. 운안에 들어가는 기러기는 계절에 따라 있어야 하는 때와 장소를 스스로 아는 새로 믿음을 상징하며, 암수의 사이가 좋아 전통 혼례 때 목기러기[木雁]를 전하여 상대방을 향한 지조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무늬로 표현된 운안의 모습은 머리 위에 장식깃이 없으며, 부리와 목선이 학보다 짧다. 다리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구도이나 간혹 배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짧게 표현되었다. 홍경주의 초상에서 볼 수 있는 금색의 운안흉배는 구름 운雲과 기러기 안雁이라는 흉배의 명칭과 같이 한 쌍의 기러기와 나머지 공간에는 구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17세기 이후 색을 넣어 표현한 유순의 초상의 운안흉배 속 기러기는 갈색 깃털에 홍색의 짧은 부리가 있으며, 나머지 공간에는 모란·연꽃·갈대와 오색구름을 배치하였다. 백한은 태평성대를 알리는 상서로운 새로 신성시되었는데, 머리에 장식 깃털이 있으며, 목선은 매끈하고, 꼬리가 길며 시대에 따라 꼬리의 모양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연안 김씨 묘에서 출토된 백한흉배는 머리의 장식

깃털, 비늘 모양의 몸통과 함께 여섯 가닥의 꼬리털을 물결모양으로 길게 표현하였다. 아래에는 산·파도·바위 등을, 중간에는 모란을, 위로는 구름을 배치하였다. 17세기 황진(1542~1606) 초상의 백한은 흰색의 깃털에 눈과 긴 꼬리 두 개에 청색 반점이 있고, 모란과 오색구름을 함께 배치하였다. 18세기 심익창 묘에서 출토된 백한홍배는 현재까지 발견된 유물 중 가장 늦은 시기의 자료로 볼 수 있는데, 뒷머리에는 짧은 장식깃털이, 긴 꼬리털 두 개에는 반점이 있으며, 아래에는 바위·파도·산을, 나머지 공간에는 구름을 배치하였다. 학은 고고한 학자를 비유하여 학문을 숭상하는 문인의 상징이자 관료주의 사회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특별한 새로 인식되었다. 학홍배는 17세기 후반부터 운학홍배가 유행함에 따라 1746년 『속대전續大典』에 당상관은 운학홍배, 당하관은 백한홍배를 사용하

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백한의 홍배는 보이지 않고, 두 마리는 당상관, 한 마리는 당하관용으로 구분하면서 조선 말기까지 학홍배만을 사용하였다. 이세백 초상의 학홍배는 당상관 운학홍배로 학은 녹색 부리, 정수리의 흑색 점, 목에 긴 검은 선이 있으며, 몸통은 모두 희고, 발은 길고 검다. 조선 말기 당하관용 단학홍배는 백색의 깃털, 검은 색 부리에 영지를 물고 있으며, 아래에는 괴석·파도·산이 있고, 위로는 구름을 배치하였다. 조선 말기의 자료인 후수(조복 또는 제복의 뒤에 다는 장식)에도 학무늬가 있는데 청색·황색·백색의 학 세 쌍과 구름무늬를 수놓아 관리의 상징성을 표현하였다. 노사는 즉 ‘백로’로 희고 깨끗하다 하여 학과 같이 청렴한 선비를 상징하였다. 노사의 모습은 17세기 권우 묘에서 출토된 조복의 후수와 19세기 전세 자료인 복은공주의 자수 방석 등에서 확인된다. 무늬로 표현된 노사의 모습은 학과 유사하나 뒷머리에 장식깃털이 있고, 몸통 깃털을 모두 희게 표현한 특징이 있다.

학은 주로 17~18세기 직물무늬에서 확인되는데, 사천 목씨 묘에서 출토된 저고리에는 만자 바탕에 영지를 물고 있는 원형의 학과 넝쿨무늬 바탕에 복숭아를 물고 있는 학이 반복된 무늬가 있으며, 안동 권씨 저고리에는 학 한 쌍이 날개를 펼쳐 원형을 이루고 있다. 학은 지혜와 학문, 영지와 복숭아는 장수의 의미가 있다. 새무늬는 여러 종류의 꽃들 사이에 악기나 잎을 물고 나는 모습으로 17세기 전반의 출토 직물에서 종종 확인되는데, 동래 정씨의 저고리에 고대 악기 중 하나인 경磬을 물고 있는 새의 모습이 있다. 까치는 안동 권씨 저고리에 활짝 핀 매화와 함께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무늬는 18세기에 주로 볼 수 있는 무늬이다. 꽃과 새는 기쁨과 행복을 매화와 까치는 희소식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그 이외에 일반적인 직물에 표현된 새무늬는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없는 새·학·까치 등이 있으며, 조선 후기에는 박쥐무늬도 자주 사용되었다. 박쥐는 한자로 편복蝙蝠이라고 하는데, 박쥐 복蝠자와 복福자의 음이 같아 박쥐를 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다섯 마리의 박쥐는 오복의 상징으로 아암 뒤를 길게 장식하는 드림 직물에 목숨 수壽자를 중심으로 박쥐 다섯 마리가 원을 이루고 있다. 박쥐무늬는



길짐승무늬 ① 장만 초상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② 유순익 초상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③ 황진 초상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④ 이세백 초상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⑤ 아암드림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⑥ 영친왕비 적의 중 부분 | 국립고궁박물관

19세기 전후 나타나기 시작하여 조선 말기까지 장식의 소재로 자주 애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날짐승무늬는 직물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식 소재는 아니며, 주로 왕실이나 관리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왕실에서는 상징적 의미를 두고 왕의 면복과 왕비의 적의에 장식된 꿩무늬, 왕실 여성의 예복에 장식된 원앙무늬가 있어 화려한 색사 또는 금사를 넣어 짜거나 금박을 사용하였다. 관리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 무늬는 흥배와 후수를 장식하였는데, 금실 또는 화려한 색사를 넣어 짜거나 자수하여 장식하였다. 일반적인 직물에 표현된 날짐승무늬는 직물과 동일한 색으로 직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상류층의 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의문의조선-무늬(민속원·경기도박물관 2016), 중국미술상징사전(노자키 세이킨, 변영섭·안영섭 역,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한국직물문양 이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2006).

필자 정미숙(鄭美淑)

남바위

정의 조선시대 남녀가 추위를 막기 위해 머리에 쓴 것으로, 정수리 부분이 뚫려있고 귀와 머리를 가리며 모자 뒤의 길이를 길게 만든 방한모의 하나.

내용 조선시대 방한모는 이엄耳掩이라고 통칭하였다. 문헌 기록을 보면 관리들의 방한모 재료를 계급별로 정하기도 하였다. 방한모는 겹으로 만들거나 안에 동물의 털을 대어 만들었는데, 모피의 재료에 따라 귀천의 구별이 있었다. 그중 가장 고급재료는 초피貂皮이며, 그밖에 서피鼠皮·수달피·호피 등도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 말기의 유물은 대부분 양털이나 토끼털을 댄 것으로, 이엄을 제외한 대부분 방한모는 조선 후기에 등장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두루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방한모의 종류도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 남녀 공용의 방한모로 남바



① 가로 18 세로 34



② 남바위 위에 제관을 쓴 관리

남바위 | ①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엘리자베스 키스 | 종묘제례관리 중 부분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위와 풍차가 있다. 이것은 모자의 뒤 길이가 목덜미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겹감은 비단, 안감은 비단이나 면 직물을 사용하였다. 안에는 털이나 융을 대거나 솜을 두기도 하였다.

남바위라는 명칭은 190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데,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생활실태조사生活實態調査』(1929)를 보면 제주도의 방한모로 “남자의 관물冠物로 흑립·나립籬笠·탕건·남바위 등이 있고, 여자의 관물은 흰색의 면으로 만든 백건, 상류계급의 사람은 방한용으로 풍차를 사용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겨울철에는 남바위를 갓 밑에 받쳐 쓰기도 하고, 백관이 사모紗帽나 양관梁冠에 받쳐서 쓰게 하였으며, 왕은 면류관 밑에도 받쳐 사용하였다. 노인이나 허약한 사람은 봄철이나 가을에도 춘추용 남바위를 착용했다.

특징 및 의의 남바위의 형태는 위가 뚫려 있고, 아랫부분은 좌·우 동일하게 아래까지 세 단계로 곡선을 이루는 제비꼬리 모양이다. 귀와 머리, 이마를 가리며 가장자리에는 털로 선을 대고, 뒤로 완전히 넘어가도록 길게 만들어 뒷덜미를 덮게 하였다. 추운 날씨에 뺨과 턱을 가리기 위한 볼끼가 따로 부착된 것도 있는데, 필요에 따라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끼 부분은 남바위의 천과는 다른 천으로 만들어지며 위로 젖혀 끈으로 매기도 하였다. 날씨가 추울 때는 볼끼 부분을 양 뺨에 오도록 내려 턱 밑에서 묶어 착용하였다. 겹감은 주로 검정색 단으로 만들 때가 많지만, 젊은 여성

용은 자주색이나 남색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가장자리의 털은 흑색, 짙은 밤색 등이 사용되었고, 앞뒤에는 술과 매듭, 산호줄과 비취로 된 보패류가 장식되었다. 술은 분홍이나 진분홍색이 많았다. 또한 여자용 남바위에는 길상문·학문·나비문·봉황문·국화문 등을 금박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춘추용 남바위는 가장자리에 털가죽을 대는 대신 검정색 공단으로 경사지게 재단 처리를 하였다. 상중(喪中)에 쓰는 남바위는 겉은 백색 명주를 씌우고, 안은 검은색 용으로 만들었으며, 가장자리는 검은색 모피를 둘렀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燃藜室記述, 五洲衍文長箋散稿,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 외, 열화당, 2003), 조선시대 방한모에 관한 연구(김성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필자 김지연(金知娟)

남전 藍靛

정의 쪽(승람)의 색소 성분을 침전시켜 얻는 양금인 니람泥藍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굳힌 단단한 감색紺色の 덩어리.

내용 전통적으로 감색의 쪽 색소 덩어리인 남전을 분말로 만들어 청색을 염색하는 데 사용하였다. ‘전청靛靛’, ‘전람靛藍’, ‘남정靛靛’ 또는 줄여서 ‘전靛’이라고도 한다. 본래는 인도 람을 사용하여 만드는 것을 ‘남전靛靛’



고체 상태의 인디고 | 이병찬

이라 하여 ‘남전靛靛’과 구분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둘을 같은 것이라고 하며, 대청 또는 요람의 생잎을 사용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서는 “전靛이란 석회를 사용하여 얻는 남전 또는 그 종자를 지칭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승람의 잎은 마치 흰 배추의 그것과 같고, 속명은 청대라고도 하며, 남전을 만들어 아청색으로 염색한다.”라고 하여 대청이 남전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키나와에서는 유구람을 사용하여 남전을 만든다는 기록이 있다. 어느 것이든 기본적인 개념은 쪽의 양금을 굳힌 것으로 중국·러시아·오키나와 등에서 그 제조법이 발달하였다. 이것의 제조법은 인도의 람 제조에 관한 고문헌 중 삽화로 남아 있다.

특징 및 의의 남전은 니람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고화한 것이므로 니람보다 농도가 높다. 남전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인 니람 제조법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 원리는 모두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니람 제조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복三伏이 지난 후 한여름에 쪽풀의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쪽을 베어 항아리에 담아 물을 채우고 2~3일 정도 담가 둔다. 그리고 담가둔 쪽잎과 줄기의 부피가 줄어들 때 위아래가 완전히 바뀌도록 뒤집은 다음 햇볕을 쬌 수 있는 양달에서 삭힌다. 잎이 삭아 색이 누렇게 변했을 때 삭은 상태를 확인한 다음 쪽대와 잎을 건져내면 항아리에는 우러난 청록빛 쪽물만 남게 된다. 그 쪽물에 조개를 태운 횃가루(합회, 석회유, 굴회)를 넣고 저어 주면 색이 변하면서 꽃거품이 일어난다. 이것을 하루 정도 방치하면 횃가루가 색소를 머금고 가라앉는데, 쪽 색소가 석회유와 결합하여 가라앉게 된다. 윗물을 따라내어 버리고 나면 진흙처럼 된 농축된 쪽 침전물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니람’이라고 한다. 니람을 면포에 싸서 수분을 제거하고 그늘에서 말리는데 이때 발효균이 사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남전에 잿물을 부어 풀어서 염액을 만든 후 염색에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에서는 남전보다는 니람 상태에서 잿물을 넣어 발효시켜서 쪽 염색을 하는 침전 염법이 널리 사용되었다.

납힐 蠟纈

정의 평직물에 밀랍, 목랍 등 각종 납을 녹여 방염하여 문양을 나타내는 염색 방법.

내용 전통적으로 삼힐三纈 문양 염색의 기법인 납힐은 평직물 등에 밀납으로 화문花紋을 만들어 염색한 후 밀랍을 뽑아내어 화문을 나타내는 기법이다. 직물에 문양을 놓고 필요한 부분만 밀랍과 기타 납 등으로 방염防染하여 염색한 후에 방염제를 제거하여 문양을 나타낸다. 방염에 사용한 재료의 배합에 따라 방염부에 균열이 생겨, 이것을 물들이면 염액이 균열에 스며들어 자연히 윤치 있는 문양을 나타낸다. 즉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 방염법으로 가열 용해한 납을 천 위의 문양대로 놓거나 손으로 그리는 것을 일반적으로 납염이라 한다. 고대어로 갈힐臈纈, 납힐이라 하며, 현대어로는 납염蠟染, 납방염蠟防染이라 부른다.

고구려 벽화 감신총의 주인공 후면에 둘러친 당초문과 왕자문을 배열 시문한 비단 장막帳幕은 납힐 염색 기법에 의한 문양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힐막纈幕’의 근거가 보이는데, 이는 고려의 삼힐三纈

중 납힐의 수준을 보여 준다. 납힐은 천에 납으로 문양을 그리고, 염색한 후에 납을 제거하는 원리이다. 현재의 납방염과 같은 방법으로 염색되며, 이것 또한 납방염과 원리는 유사하나 전통적인 방법은 훨씬 단순하여 기초적인 기법이 많다. 그리고 납힐 유물로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두 점이 있다.

고대의 납힐 유품의 제작 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도장을 찍듯이 조각된 판으로 납을 찍어 도포하여 방염한 후 염액에 담귀 염색하는 방법이다. 조각판의 재료는 나무, 동판 등이 사용되었다. 간단한 점무늬 등 한 가지 문양으로만 된 것은 하나의 조각판으로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유물 중 둘 혹은 셋 이상의 서로 다른 색의 문양이 복합된 납힐은 서로 다른 모양의 조각판을 만들어 문양 및 디자인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을 도포하면서 염색하여 두 가지 이상의 색을 나타낼 수도 있다. 납힐의 납 배합법은 고대 납힐은 밀납을 그대로 사용하여 나무틀로 찍어서 식물 염색을 한다. 그 후 식물 염료에 오동나무 기름이나 야자수 기름을 넣거나 또는 찹쌀풀, 우뭇가사리를 넣어 염료에 점력을 높인다. 그 목판틀에 염료를 발라 목판염Block Printing 방법으로 인날하여 문양을 표출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시작한 금속 찰Tjap을 직접 제작,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에 의해 확인된 가장 최적의 배합인 밀납, 송진, 파라핀, 식물납인 묵납(백납)을 2:2:3:3의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하였다.

특징 및 의의 전통적인 납힐은 지금처럼 붓을 이용하여 회화적 표현을 하지 않는다. 밀납이나 묵납, 목납을 정제한 백납, 송지 등을 이용하여 대나무로 만든 죽필, 금속으로 만든 금판, 나무로 만든 목판 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그리거나 찍어 내어 방염한 후 침염 방식으로 염색한다. 또한 붓으로 그리는 붓염으로 바탕염을 염색하여 완성한 현대의 납방염은 모든 도구를 사용한 다음 납힐을 이용하여 방염한 후 특히 붓을 활용하여 색의 명암이나 채도 등을 명확하게 단계적으로 표현하여 방염한다. 이후 붓으로 또 염색하는 방식을 1차에서 3차 등 수없이 반복함으로써 회화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납힐 납염 | 자연염색박물관

참고문헌 高麗圖經, 자연염색에 의한 삼할 문양 연구(김지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전통색갈 물들임과 무늬넣기(김지희, 자연염색박물관, 2012), 한국전통문양(김지희, 대구가톨릭대학교 전통문양산업디자인 개발센터, 2004).

필자 김지희(金芝希)

너울

정의 조선시대 상류층 여성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한 폐면용蔽面用 쓰개.

내용 조선 전기에는 입모笠帽·개두蓋頭·라화립羅火笠·여립모女笠帽·흑라모黑羅帽·면사面紗·라화羅火·화금입자畫金笠子 등의 명칭이 보이며, ‘너울[羅兀]’이라는 명칭은 17세기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처음 확인된다. 그러나 역대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 영조 대 이전에는 여화汝火로, 이후에는 너울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너울의 명칭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8세기 이후로 볼 수 있다. 너울에 관하여 중종 대에 ‘얼굴을 가리는 물건’이라 가리킨 기록이 있어 폐면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태종 대에 “주부主婦와 중비從婢의 모두 흑라모와 백초군을 사용하니 …… 대소부녀와 중비의 입모는 저포苧布만 쓰고, 라羅·초絹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그 모침帽檐의 장단도 주부의 입모와 같지 아니하게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3월)라 하여 신분에 따라 재료와 길이에 차등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장 때는 왕비 및 내외명부가 상복喪服에 착용하는 너울을 개두라 칭하여 용도에 따라 다른 명칭이 사용되었다. 개두는 『국조속오례의서례國朝續五禮儀序例』에서 “청죽으로 립[帽臺]을 만드는데, 위는 뽕죽하고 아래는 넓게, 안은 흰 명주로 쓴다. 초세생포稍細生布 12척을 6폭에서 다시 12폭으로 한쪽은 넓게, 한쪽은 좁게 재단하여 좁은 쪽을 위로 두고 봉縫해서 너울 틀[帽]에 씌운다. 또 3척으로 3장의 꽃잎형[花葉形]을 만들어 모정帽頂을 붙인다. 속칭 여립모女笠帽이다.”라고 하여 그 형태와 제작 방법이 너울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상복용 개두를 “요즘의 너울에 그 뜻이 남아 있다.”라고 하여 역시 너울과 같은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너울 | 길이 136 지름 146 | 17세기 | 경기도박물관



너울 |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중 부분 | 1759 | 국립중앙박물관

『가례도감의궤』에 실린 너울과 관련된 기록에 따르면, 조선 후기 왕비·세자빈은 자적라紫의羅·자적초紫의絹 6~8척이 사용된 자색 겹너울, 시녀·유모·기행나인은 조라皂羅·아청항라鵝靑丸羅·흑주黑紬·조주皂紬·모라冒羅 12척이 사용된 흑색 홑너울을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영자纓子(끈)와 매듭에 대한 내용도 있다. 너울 립에 대해 『상방정례尙方定例』에 왕비는 자초립紫紬笠, 빈궁·숙의·옹주·기비는 금도다익진주장립金都多益眞珠粧笠·청초립靑紬笠, 상궁·나인은 청상립靑箱笠의 기록과 재료의 대한 내용이 확인된다. 너울을 착용한 모습은 『가례도감의궤』의 반차도에서 확인되는데, 주로 말을 탈 때 착용하나 현종 대 『가례도감의궤』 반차도에 가마[籃輿] 탄 모습에도 너울을 착용한 모습이 처음 확인된다. 출토유물 네 건에 모두 홀 라羅가 사용되었다. 사다리꼴 모양의 옷감을 5~6장 재단하여, 어손울과 곧은울을 겹쳐 홈질하고, 모정에 꽃 모양의 조각과 원형 조각을 올려 고정

한다. 너울의 안쪽에는 끈을 끼운 단이 있는데, 이는 립 둘레에 너울을 고정하는 장치이다. 너울의 아랫변은 시접 처리 없이 그대로 두었다. 그 외 직사각형의 긴 끈과 매듭이 함께 출토된 경우도 있는데, 긴 끈은 유청柳靑색의 넓은 끈 장식을 칭하는 영자纓子, 수음垂音, 매듭은 대홍진사大紅眞絲, 목홍사木紅絲의 기록이 있다.

특징 및 의의 너울은 조선시대 상류층 여성이 얼굴을 가리기 위에 머리에 쓰고 어깨 너머까지 길게 드리우는 것으로 라, 초와 같은 성근 직물을 사용하여 너울을 쓴 사람만 밖을 볼 수 있도록 만든 폐면용 쓰개이다. 조선 전기에는 상류층 여성의 너울 착용과 관련된 내용이 종종 확인되나 후기에는 주로 왕실 행사의 의궤 기록에만 등장한다.

참고문헌 嘉禮都監儀軌, 國朝續五禮儀, 朝鮮王朝實錄, 四禮便覽, 芝峰類說, 여성 쓰개의 역사(홍나영, 학연문화사, 1995),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파평윤씨 모자 미라 종합 연구 논문집(고려대학교박물관, 2003).

필자 정미숙(鄭美淑)

넥타이

정의 목둘레에 감은 뒤 매듭을 맺고 여분을 늘어뜨리거나 매듭을 짓도록 만든 띠나 끈 모양의 장식.

내용 넥타이necktie는 목을 의미하는 넥neck과 어떤 것을 둘러 묶었다는 의미의 타이tie가 결합된 복합어이다. 형태에 따라 스카프에 가까운 ‘에스콧타이ascot tie’, 끈 형태의 ‘스트링타이string tie’, 나비 모양으로 장식 매듭을 짓는 ‘보타이bow tie’, 그리고 띠 모양으로 만들어 매듭을 짓고 나머지를 늘어뜨리는 ‘포인핸드four-in-hand’ 등으로 분류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넥타이는 포인핸드이다.

넥타이의 기원은 고대 로마 시대의 포칼레focale와 17세기 프랑스의 크라바트cravate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로마의 포칼레는 군인과 귀족들이 성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을 감싸는 데 사용한 모직물 목도리의 일종이

다. 이는 몸을 보호하는 기능과 함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권위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크라바트는 직접적인 넥타이의 기원으로 언급된다. 크라바트는 17세기 프랑스 루이 14세(1638~1715) 시기에 크로아티아 병사들이 목에 두른 것을 ‘크로아트croate’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이후 프랑스 왕실에 크라바트군을 창설하며 군인들이 착용하였고, 귀족들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었다. 영국에서는 찰스 2세 당시 수용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1660년대에는 유럽 남성 복식에서 일반화되었다. 초기의 크라바트는 레이스와 자수로 장식한 부드럽고 얇은 린넨·실크·면직물을 스카프 모양으로 만들어 목에 두 번 감고 앞에서 매듭을 지어 늘어뜨렸다. 슈타인커크steinkirk, 스톡stock 등도 이와 유사한 예이다. 크라바트는 점차 풍성함과 화려함을 추구하며 목에 두껍게 감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19세기에는 남성복 유행의 주도권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크라바트는 가볍고 단순함을 추구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네크클로스neckcloth라는 단어 사용이 일반화되었으며, 19세기 중반부터는 넥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9세기 영국의 조지 브루멜G. Brummell(1778~1840)은 넥타이를 갖춘 신사복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으로 평가되며, 단순히 목에 두르는 넥타이에 다양한 매듭을 창안하여 도입하였다. 그의 스타일은 일반인보다 세련된 멋과 치장으로 예술가의 자존심을 보여 주는 댄디즘dandyism으로 해석된다. 이성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며 획일성과 평범함을 거부한 이들은 넥타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당시 넥타이의 형태와 매듭은 다양하게 발전했으나, 기본적으로 흰 직물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이후 1840년경 검은색이 유행해 검은 넥타이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남성 정장 스타일은 드레스셔츠·바지·블레이저(재킷)·넥타이·구두로 다섯 가지를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게 되었다. 셔츠 칼라가 지금처럼 접힌 형태로 발달하면서 넥타이는 좀 더 축소되었고 에스콧타이·스트링타이·보타이·포인핸드 등이 나타났다. 넥타이를 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매기 쉽고 편안하며 긴 시간 모양이 잘 유지되는 넥타이가 요

구되었다. 그리하여 길이가 길고 폭이 좁으면서 안전하고 매듭짓기도 쉬운 넥타이가 발달하였다. 1920년대 뉴욕의 넥타이 제조업자 제시 랭스도프J. Langdorf는 천을 대각선으로 재단하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재봉함으로써 탄력성을 높여, 매듭을 매고 풀어도 원래 형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이 형태는 현대 넥타이의 기본형태가 되었으며 이후 형식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20세기 원저 공Duke of Winsor(에드워드 8세, 1894~1972)의 스타일은 신사적인 단정함을 극대화하며, 신사복의 클래식으로 자리 잡았다. 넥타이에서도 원저 공 스타일의 매듭을 ‘원저노트’로 칭하며 현대에 타이를 매는 방법 중 기본으로 사용된다.

특징 및 의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정장의 색상과 질감, 형태와 구성이 정형화되어, 넥타이는 색상과 무늬, 매듭을 통해 착용자의 개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되었다. 소재는 실크·모·합성섬유·가죽 등으로 직물 또는 편물이 사용된다. 색상은 주로 청색계·적색계·황색계를 사용한다. 청색 계열은 차가운 색[寒色]으로 신중하고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라 면접이나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주로 사용한다. 적색 계열은 따뜻한 색[暖色]으로 진취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어 자신을 강하게 돋보이게 하는 자리에 착용한다.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협조를 구하는 관계에서는 황색 계열을 착용한다.

넥타이는 군대를 배경으로 탄생되고 보급된 남성 길이의 전용물이며, 남성성을 상징하였다. 또한 소속감을 강조하기 위해 클럽 등을 중심으로 착용하던 비일상적인 액세서리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J. P. 모건 등 미국 은행가에서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복장으로 직원에게 정장에 넥타이를 매도록 규정하기 시작했다. 이후 다른 직종의 직장인에게도 넥타이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넥타이는 직장인의 대명사, 비즈니스 업계의 상징이 되었다.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처럼 되면서 넥타이를 매는 것은 속박·규제·권위·격식 등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에 비해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은 ‘노타이without a tie’라 하여 캐주얼함과 동시에 권위를 내려놓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참고문헌 매듭의 여왕 묶음의 달인(조흥식 외, 예조원, 2010), 사물의 민낯 1498~2012(김지룡, 갈릴레오 SNC, 애플북스, 2012), 서양복식사(신상욱, 수학사, 2010), ABC북 맛보기 사전(창해편집부, 도서출판창해, 2012), 두피디아(doopedia.co.kr).

필자 박선희(朴宣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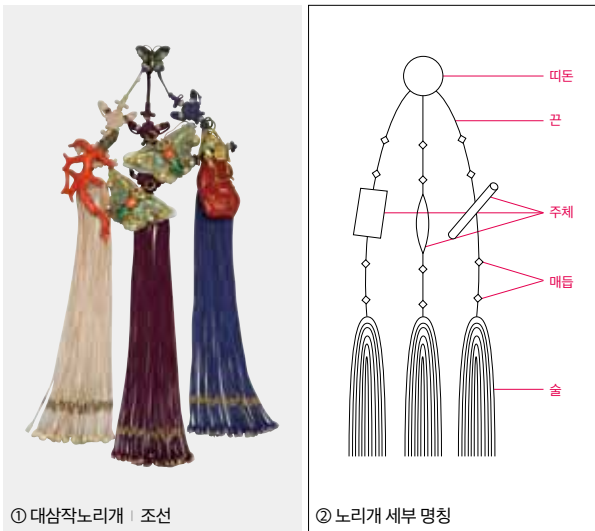
노리개

정의 저고리의 고름이나 치마허리에 착용하던 여인들의 장신구.

내용 노리개는 목걸이나 귀걸이를 대신하여 조선시대 가장 다양하게 발달한 여인의 장신구로, 궁중을 비롯한 상류층에서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패용되었다. 통상적으로 허리띠에 여러 가지 장식을 달아 착용하던 신라의 요패腰佩가 노리개의 기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도 여성들이 허리에 채색 끈의 금방울과 비단으로 만든 향낭香囊을 차던 풍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허리 장식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노리개의 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양가漢陽歌>에는 “대삼작과 소삼작과 옥나비 금별이며 산호가치 밀화불수 옥장도 대모장도 빛 좋은 삼색 실로 끈 술 풀 술 갖춘 매듭” 등으로 꾸민 노리개의 다채로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노리개는 크게 장식물인 주체主體와, 주체를 연결하고 옷에 걸기 위한 띠돈[帶錢], 끈목[多繒], 매듭[每緝], 장식술[流蘇]로 구성되어 있다. 주체는 노리개의 주가 되는 부분으로, 그 재료와 장식의 형태 및 구성에 따라 노리개의 명칭이 달라진다. 금·은·동의 금속류, 백옥·진옥·비취옥·자마노·홍옥·공작석 등의 옥석류玉石類, 밀화·금패·산호·진주·대모 등의 보패류寶貝類가 사용되었으며, 비단에 색사色絲나 금은사金銀絲 등으로 수를 놓아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진귀한 재료들로 만든 노리개는 신분 및 경제적 격차에 따라 서민 부녀가 착용하기는 어려웠다. 값비싼 귀금속이나 보석 대신 서민은 색색의 형짚 조각을 이어 바늘집, 괴불 등의 자수 장식을 노리개로 만들어 차고 다녔다.

노리개 주체의 형태는 동·식물, 생활 주변 용품, 길



① 대삼작노리개 | 조선

② 노리개 세부 명칭

노리개 | ① 전체길이 41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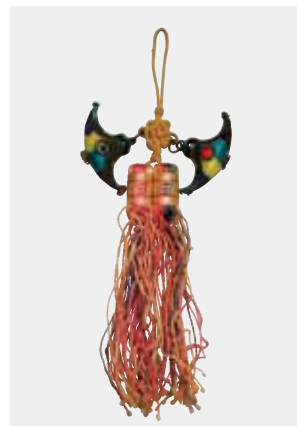
상어문, 종교적 상징 등의 다양한 것에서 차용되었다. 노리개의 용도가 장신구인 만큼 모두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단순히 심미적인 것을 뛰어 넘어 길상吉祥과 기복祈福의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 용맹함의 상징으로 악귀를 쫓는 호랑이 발톱, 액을 담아 쫓는 투호投壺, 사악함을 쫓고 경사를 부르는 방울, 삼재三災를 쫓는 괴불 등이 액을 막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박쥐와 매미는 오복五福과 오덕五德의 상징이었다. 여인들의 염원을 담은 것으로 석류·포도·연꽃·표주박·봉어 등이 다산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가지·고추·도끼·동자童子에는 아들에 대한 강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거북이나 천도는 장수의 상징이었으며, 囍·壽·福·富貴·多男 등의 문자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아기노리개는 이러한 길상과 기복의 집약체로, 아이들의 건강과 수명장수를 기원하며 작은 장식에 길이가 짧은 술을 달아 차게 하였다.

매듭은 주체가 더 아름답게 돋보이도록 하는 장식으로, 노리개에는 주로 도래매듭, 생쪽매듭, 나비매듭, 국화매듭, 장고매듭, 병아리매듭 등이 사용되었다. 노리개의 끝부분에 달리는 장식 술은 유소라고 하며, 만들어진 방법에 따라 봉술, 딸기술, 낙지발술이 있다. 끈목은 다회로, 매듭과 술, 주체를 연결하여 노리개를 하나로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을 걸개장식인 띠돈에 하나로 연결하여 옷에 부착하는 것이다. 매듭과 술, 끈목은 주체의 재료나 형태, 크기와 조화를 이

루도록 색과 종류의 구성을 달리하였다. 삼작노리개의 경우 각각의 종류는 통일하더라도 색은 서로 다르게 하였으며, 홍·남·황의 삼원색을 기본으로 분홍·연두·보라·자주·옥색 등도 사용하였다. 궁중에서는 오색 푼사로 광다회廣多繪(넓고 크게 짠 끈목)를 짜서 매달기도 했다.

노리개의 종류는 주체의 개수, 재료, 용도 및 상징적 의미에 따라 구분된다. 주체의 개수에 따라 단작單作과 삼작三作으로 구분하는데, 평상시에는 단작을 차고 경사 시에는 삼작을 찼다. 삼작노리개는 주체의 형태나 재료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도록 조합된 것으로, 삼작은 ‘천·지·인’을 상징하기도 한다. 특히 대삼작노리개는 반가의 혼례나 궁중의식에 사용하는 가장 호화롭고 큰 노리개이다. 원삼이나 활옷 등 예복의 대대大帶에 걸어 사용하였으며, ‘옥나비 한 쌍, 산호가지를, 밀화 덩어리’의 특징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귀중품으로서 노리개는 후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집안의 가풍을 전하였으며, 특별한 의례에 예물이나 선물로 교환되기도 하였다. 노리개가 진귀한 패물이었던 만큼 실제 착용하는 데에는 신분에 따른 차등이 있었다. 궁중에서도 삼작노리개를 찰 수 있는 사람은 왕비와 왕세자빈, 정일품 내명부, 공주·옹주와 종친 부녀, 높은 품계의 외명부뿐이었다. 「궁중발기」에는 ‘대삼작, 중삼작, 소삼작, 소소삼작’ 등의 다양한 삼작노리개와 단작노리개가 기록되어 있으며, 대례복에는 대삼작, 당의 차림의 소례복에는 중삼작, 일상복에는 소삼작노리개를 찼다고 한다. 가장 급이 높은 것은



괴불노리개 | 길이 13.5



범발톱노리개 | 길이 15

노리개 | 20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큰 진주 세 개를 꿰 삼천주三千珠 노리개로, 불교의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상징하며 왕비만이 찰 수 있었다고 한다. 품계가 낮은 나인들은 노리개 패용이 금지되었으나 관례冠禮 때에 한하여 노리개를 찰 수 있었다. 나인들의 관례는 혼례에 준하는 의례로 그날 하루는 품계 높은 내명부 대접을 받아 원삼을 입고 노리개를 찼다.

노리개는 계절이나 용도, 의례에 따라서도 종류를 달리하였다. 『순화궁첩초順和宮帖草』에 따르면, 봄·가을과 여름에는 구슬과 옥노리개를 차고, 겨울에는 옥이나 마노, 밀화로 만든 향노리개를 패용하였다. 기일忌日 전날에는 흰색 홀당의와 남치마에 밀화삼작노리개를 찼으며, 기일에는 장신구를 자제하여 노리개를 차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다른 장신구와 마찬가지로 노리개도 장식성과 함께 실용성을 겸한 경우가 많았다. 『거가잡복고居家雜服考』에는 여자가 노리개를 차는 것은 시부모의 심부름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라고 하면서 분세紛帨(수건), 여궤(칼이나 바늘을 가는 도구), 도끼, 잠관簪管(침통 같은 것) 등의 그림이 실려 있는데, 장도노리개·바늘집노리개·향노리개 등과 매우 비슷한 모양이다. 장도노리개는 자그마한 칼인 장도에 장식을 한 것으로 일상생활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몸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으로도 이용되었다. 칼집에 달려 있는 젓가락은 외부에서 식사할 때뿐만 아니라 음식물의 독의 유무를 알아보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바늘집노리개는 바늘을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바늘이 녹슬지 않도록 바늘집 속에 머리카락이나 분가루를 넣고 사용하였으며, 침통針筒노리개에는 침을 넣어 차고 다니다가 응급시에 사용되었다. 방아다리노리개에도 귀이개·이쑤시개·침 등을 한데 묶어 차고 다녔다. 향노리개는 향료를 금속이나 옥을 투각하여 만든 작은 갑이나 주머니에 담아 노리개로 꾸민 것으로, 사향麝香과 같은 향을 지님으로써 은은한 향이 풍기게 하였으며 응급 시 구급약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줄향노리개와 비취발향노리개는 향을 약 가루와 섞어 반죽하여 모양을 만든 것으로 물총새의 깃털을 붙여 장식하기도 하였으며 상궁들이 궁중에서 치마 속에 착용하였다는 설이 있다.

특징 및 의의 노리개는 다채로운 장식과 율동감으로 정숙과 절제를 강조했던 조선시대 복식에 화려함을 더하던 여인들의 장신구이다. 금·은·옥석·보패류 등의 진귀한 재료가 사용되었으며, 매듭과 술, 주체의 어울림을 통해 조화롭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계절과 의상의 종류, 색채를 고려하여 착용하는 멋을 엿볼 수 있으며 실용성과 장식을 겸비하는 지혜를 품고 있다. 노리개는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여인들의 정성과 염원, 생활상이 반영된 한 시대의 표상이다.

참고문헌 노리개-전통 한국의 멋(이경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영친왕 일가 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장숙환·홍나영, 열화당, 2003), 조선 여인의 노리개(보나장신구박물관, 2006), 조선시대 후기 궁중패물 연구(박혜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조선조 궁중 풍속 연구(김용숙, 일지사, 1987).

필자 오선희(吳宣希)

노방주 潞方紬

정의 직물의 바탕을 평직으로 직조한 견직물의 일종.

내용 노방주潞方紬는 『탁지준절度支準折』과 1900년대 초반 궁중의 「블기」부터 기록이 나타나며,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부터 새롭게 사용된 직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자로 칭할 때 노방주의 ‘노’를 ‘潞’로 표기하는 데에서 ‘노주주潞州紬’처럼 중국의 유명한 견직물 산지인 산서성山西城 노안路安 지방에서 수입된 직물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한다.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월간지 『조선朝鮮』에 따르면 노방주는 카루메하부다이經目羽二重라고 하며 얇은 하부다이羽二重 종류의 직물이었다. 마찬가지로 카루메하부다이 바탕의 직물인 삼팔주三八紬와 비교했을 때는 그보다 직물의 폭이 넓고 품질이 다소 좋았다.

『탁지준절』에 노방주 한 필의 길이가 22척尺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탁지준절』의 포백척이 오늘날 47cm에 해당함을 감안하면 한 필이 1,034cm였음을 알 수 있다. 또 1915년에는 15야드, 즉 1,371.6cm로 기록되어 있다. 노방주의 폭은 『조선회보朝鮮彙報』에 1척 3~4촌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1척이 약 30cm임을 감안했을



노방주 국립민속박물관

노파리

때 이것이 39~42cm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조선』에 폭 21인치, 즉 53.34cm로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볼 때 노방주 한 필의 길이와 직물 폭은 시대에 따라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노방주는 일반적으로는 직조한 후 정련하였으나 경·위사 모두 생사를 사용한 생노방주生老紡紬도 있었다. 또 흰색을 내기 위해 생노방주를 가볍게 정련한 것을 숙노방주熟老紡紬, 또는 백노방주白老紡紬라고 하였다. 『조선』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조선 시장에는 대부분 중국산 노방주를 취급하였으나, 1924년 이후 일본 이시카와石川 지방과 후쿠이福田 지방에서 제직한 일본산 노방주도 공급되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度支準折,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吉永彦太郎, 朝鮮彙報1, 朝鮮總督府, 1915).

필자 이은진(李銀眞)

노파리

정의 삼, 종이, 짚 따위로 꼬아 만든 노를 가로세로로 엮어 만든 우리 고유의 겨울철 실내화.

내용 노파리는 주로 겨울에 집 안에서 신는다. ‘노’는 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 만든 줄을 말한다. 노끈이라고도 한다. 노끈은 지노, 지넴, 노나끈,

노엮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노끄대기, 노깢, 노나끈, 노내끈, 나기 등의 방언으로도 불린다. 종이를 꼬아 만든 노끈을 지승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신 중 떡신은 짚이나 삼으로 떡서리(짚으로 낱을 촘촘하게 겹쳐서 뽕섬 크기로 만든 그릇) 엮듯이 발목까지 올라오게 겹쳐 만든 신으로 노파리와 유사하다. 떡신의 형태는 반장화 같은 모양으로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 신었다. 재료와 제작 방법이 비슷하나, 떡신은 하층민의 겨울용 신으로 실외용으로 반장화 형태이고, 노파리는 주로 겨울철 집 안에서 신는 것으로 미투리 같이 만들었다.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는 또 다른 신으로 짚신, 미투리 등이 있다. 짚신은 뽕짚을 삼아 만든 신으로 가는 새끼를 꼬아 보통 네 개의 낱을 삼고 충과 돌기충으로 울을 삼아 만든다. 뽕짚으로만 삼아 만든 짚신은 망리芒履라고도 한다. 미투리는 삼이나 노 따위로 짚신처럼 삼은 신이며, 승혜繩鞋라고 한다. 미투리는 흔히 낱을 여섯 개로 해서 곱게 만든다. 종이를 만든 미투리는 투박하고 거친 짚신과 달리 형태도 좋고 맵시도 있어 중국 사신조차 탐을 내어 선물용으로 만들어 주길 원할 정도였다고 한다. 조선 숙종 대부터 종이를 미투리를 만들어 신는 풍속이 널리 유행하면서 공문서를 훔쳐 미투리를 만드는 사건이 발생해 미투리 삼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노파리가 겨울철 실내용 신인 데 반해, 겨울철 실외에서 신는 신으로 둥구니·설피 등이 있다. 설피는 짚·나무·나무껍질 등으로 만들고 눈이 올 때 신는 덧신으로 미끄러지거나 눈 속으로 발이 빠지는 것을 막아 준다. 재료는 10년생 정도의 다래나무 덩굴이나, 물푸레나무, 노가리나무 등을 사용했는데, 그 나무의 껍질을



노파리 | 국학도감 | 일조각

벗기고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불에 쪄어 타원형으로 구부려 만들고, 발을 엮을 가로대를 타원형 중심부에 만든다. 설피를 신을 때는 먼저 천으로 감발을 하고 장화처럼 만든 짚신인 둥구니를 신고 새끼로 설피를 묶는다.

특징 및 의의 노파리는 일종의 방한용 혜鞋로, 겨울에 발의 동상과 추위를 막기 위해 신었다. 고급품은 용단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서민의 일반품은 천 사이에 솜을 넣어 만들었으며 바닥을 베로 만든 것도 있다. 주로 남자용이며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 모두 신었다. 노파리는 난방이 여의치 않았던 한겨울의 혹한을 이겨낸 지혜가 잘 배어 있다. 짚신이 짚 한 가지로 만드는 것에 비해, 노파리와 먹신 등은 짚 이외에 다른 재료를 섞어 엮기 때문에 부드럽고 보온력도 좋아 겨울철에 적합한 신이다. 용·천·삼·종이·면·마·왕골·청울치(침녕쿨의 속껍질) 등이 재료로 사용된다.

참고문헌 국학도감(이훈종, 일조각, 1968),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홍나영·장숙환, 열화당, 2003), 유길준과 개화의 꿈(국립중앙박물관·조선일보사, 1994), 지승제조(장경희, 선인, 2011),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 교문사, 1981),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의 복식(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한국인의 신발, 화혜(최공호 외, 미진사, 2015).

필자 조선희(趙鮮姬)

녹피혜 鹿皮鞋

정의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평상복에 신었던 사슴 가죽으로 제작된 운두가 낮은 신.

내용 녹피혜鹿皮鞋는 사슴 가죽으로 신을(신발의 양쪽에 댄, 발등까지 올라오는 율타리)을 만들어 색상은 유백색이다. 주로 무늬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 재료만으로 그 품격을 높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 한치윤韓致淵의 『해동역사海東繹史』에도 부자들은 사슴 가죽을 사용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사슴 가죽이 고급 소재였음을 알 수 있다. 녹피혜는 반가班家에서 평상복에 갖추어 신었다. 조선 후기부터 혜를 신는 계층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하더라도 사슴 가죽은 여전히 고급 재료였기 때문에 상류층이 주로 신었을 것으로 보인다.



녹피혜 | 길이 26 너비 8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사슴 가죽의 안쪽으로 신을의 외피를 만들기도 하여 변화를 주었다. 신 바닥에는 징을 박기도 하였다. 녹피혜의 형태는 남자용은 태사혜, 여자용은 당혜, 운혜의 모습을 띠고 있다. 어린이보다 주로 어른이 신었다. 대부분 무늬 없이 만들었지만 남자용의 경우 태사혜의 선 장식을 하기도 하였다. 안창에는 담縵(짐승 털을 물에 빨아 짓이겨 평평하고 두툼하게 만든 조각)을 깔아 보온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또한 노년층에서 신었던 발막신(코끝이 둥글넓적한 가죽신)을 사슴 가죽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현존하는 녹피혜 유물의 대부분이 조선 후기의 것이다. 신발의 모습은 주변국의 신과는 확연히 다른 조선 특유의 형태미를 나타낸다. 신코의 각지고 뽕족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 신을에서 급격히 낮아졌다가 뒤축으로 이어지는 날렵한 곡선의 아름다움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남자용 혁·포제 신에 관한 연구(곽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3), 조선시대의 신(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2016), 한국인의 신발, 화혜(최공호 외, 미진사, 2015), 화·혜·리(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필자 곽경희(郭京熹)

농악복식 農樂服飾

정의 농악대원들이 연행을 할 때 착용하는 쓰개, 옷, 신발, 장식 등의 총칭.

내용 농악대원들은 기수, 취군, 앞치배, 뒤치배(잡색) 등 참가자들의 편성 위치에 따라 다양한 복식을 착용한다. 악기 연주자만을 볼 경우, 농악복식에는 저고리, 바지, 고깔, 전립(甁笠)(병거지), 더그레, 조끼, 삼색 띠, 행전, 짚신, 드림, 건, 상모 등의 요소가 나타난다. 이러한 농악복식은 크게 보아 기본복식 요소와 연희복식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저고리, 바지, 짚신, 고깔, 전립, 상모는 기본복식 요소에 속한다. 더그레, 조끼, 전립, 삼색 띠, 드림, 건, 상모는 연희복식 요소에 속한다. 연희복식 요소는 다시 관예복식(官隸復飾) 요소와 장식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더그레, 전립, 행전은 관예복식 요소이고, 삼색 띠, 드림, 건, 상모는 장식 요소이다. 여기에서 전립, 상모 등은 중복되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원래 기본복식 요소였던 것이 나중에 형태가 변화하여 연희복식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한민족의 기본복식인 저고리, 바지는 시대에 따라 형태의 변화는 있었지만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의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농악의 기본복식인 저고리와 바지는 한복, 곧 한민족의 고유복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느 지역에서나 농악대는 흰색 저고리와 흰색 바지를 기본복식으로 입는다. 한민족은 또한 고대부터 ‘변(弁)’이라는 관모를 썼다. 변은 삼국시대 때는 ‘고깔’과 ‘절풍’으로 불렸다. 고깔과 절풍은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서민에서 왕까지 누구나 쓰는 관모였다. 이러한 고대 관모에서 농악의 고깔과 전립이 분화, 발전해 온 것으로 본다. 이처럼 농악의 기본복식은 고대부터 누구나 입고 썼던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이나 특정 집단이 창작한 것도 아니고 외부 민족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던 고유 복식이 그대로 정착해서 농악의 기본복식이 되었다.

연희복식은 크게 관예복식 요소와 장식 요소가 있다. 관예복식 요소는 반비의(半臂衣) 계통의 덧옷인 더그레, 아청작의(鵝靑鵲衣)(까치옷), 쾌자, 조끼 등과 전립, 행전, 상모 등이 있다. 관예복식이란 지방 관아(官衙)의 하급 군졸(軍卒)이나 관예(官隸) 그리고 역졸들이 입었던 복식을 말하는데, 농악에 관예복식이 유입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중세의 군사제도가 농병일치제도였다는 점과 지방 관아의 나례 의식이나 관리들의 부임 행사 등



결궁패 | 1938 | 국립민속박물관

에 농악대가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장식 요소로는 삼색 띠, 드림, 꽃수건(색수건, 나비수건), 상모 등이 있다. 이러한 장식 요소는 농악이 전문 연희집단에 의해 무대 공연용으로 발전해 가면서 추가되었을 것이다.

농악복식의 구성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악기 연주자인 앞치배의 복식은 지역적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 준다. 모든 지역의 농악대가 기본복식으로 우리 한복인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다. 그러나 덧옷, 쓰개 그리고 장식 등에서는 지역별 차이를 드러낸다. 덧옷을 보면 옷다리농악은 더그레를 입지 않고 조끼만 입는다. 다른 지역의 경우 쇠잡이는 대체로 더그레를 입지만 나머지 악기 연주자들은 더그레나 조끼를 입는다. 쓰개는 지역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우도농악의 악기 연주자들은 주로 고깔을 쓰지만, 좌도농악이나 옷다리농악의 악기 연주자들은 대부분 전립을 쓴다.

전립에 달린 상모의 형태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옷다리농악에 속하는 평택농악의 쇠잡이 전립에는 부포상모를 달고, 다른 악기 연주자들의 전립에는 나비상모를 단다. 그리고 소고수의 전립에는 채상모를 단다. 좌도농악의 전립에는 주로 부들상모를 달며, 우도농악의 전립에는 주로 뽕상모를 단다. 부들상모와 뽕상모는 부포상모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지만, 전립과 상모의 연결 부위인 물체의 재질이 부들상모는 부드러운 것이고 뽕상모는 뽕뽕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좌도농악과 우도농악에서 소고수들은 보통 채상모가 달린 전립을 쓴다. 원래 우도농악은 소고수가 고깔을

쓰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요즘에는 채상모가 달린 전립을 쓰기도 한다. 고깔에서는 꽃의 색상이나 개수, 꽃을 다는 위치 그리고 장식 요소인 삼색 띠와 드림에서는 두르는 방법과 모양 그리고 색상에서 지역별 차이가 난다.

농악복식 요소 가운데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중심으로 그 기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자.

1. 고깔: 고깔은 예부터 우리 민족이 즐겨 사용하던 쓰개이다. 고깔은 순수한 우리말이며 고어는 ‘가시가리’이다. 가시가리는 꽃을 의미하는 ‘가시’와 관모를 의미하는 ‘가리’의 합성어이다. 나중에 가시는 ‘가시-꽃-꽃’으로, 가리는 ‘가리-갈’로 각각 음운이 변하였다. 따라서 고깔은 ‘꽃+갈’, 곧 ‘꽃으로 장식한 모자’라고 할 수 있다. 농악의 고깔은 이러한 우리 민족 고유의 고깔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이와 달리 불교에서 사용하는 고깔이 농악에 유입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 사용하는 고깔은 농악에서 사용하는 고깔과 그 형태가 다르고(불교의 고깔은 접이가 있지만 농악의 고깔은 접이가 없다) 꽃장식도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오늘날 농악대의 고깔에 장식하는 꽃은 종으로 만든다. 언제부터 고깔에 종이꽃을 만들어 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10년대 농악대의 사진에 종이꽃을 단 고깔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종이꽃 장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10년대의 종이꽃 크기는 오늘날의 것보다 훨씬 작다. 고깔의 종이꽃이 커진 것은 1950년대 이후의 일이다.

2. 전립: 농악대원들이 쓰는 전립은 지방 관아의 하급 관원들이 쓰는 전립(병거지)과 유사성을 갖는다. 이 전립의 기원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문헌 기록들은 고대 관모인 ‘절풍’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고대 관모인 절풍은 고깔과 그 형태(크기가 작고 위로 뽕족하게 솟았으며, 앞에서 뒤로 봉합선을 이룬 형태)가 같았으며, 왕과 귀족에서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상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썼다. 절풍은 새 깃이나 새털로 장식을 하고 신분표시를 했는데, 새 깃을 좌우에 한 개씩 꽃거나 정수리 부분에 새털을 한 움큼 꽃기도 했다. 이러한 절풍에서 전립이 변화·발전해 나왔을 것으로 본다. 이익李瀾은 『성호사설 星湖僿說』에서

“절풍은 나중에 약간 변해서 패랭이로 되었다가 다시 입자笠子로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절풍이 전립으로 변해 가는 과정에 대한 묘사일 것이다. 고깔과 마찬가지로 절풍도 처음에는 누구나 쓰는 관모였지만 그 착용 대상이 차츰 좁혀져 가는 과정을 거쳐 나중에는 지방의 하급 관원이나 역졸의 쓰개로 정착했다.

3. 더그레: 반비의半臂衣 가운데 조선시대 하급 관원이나 군사 등이 입었던 세 자락의 덧옷을 더그레라고 한다. 더그레는 ‘아청작의’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검은색이나 검은색에 가까운 청색으로 만들었다. 현재 좌도농악과 우도농악 농악대의 쇠잡이들이 기본복식에 덧입는 덧옷은 쇠옷·동지기·더거리 등으로 불리는데, 그 명칭과 형태로 미루어 더그레임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반비의란 소매가 짧고(반팔) 맞센이며, 무가 없이 겨드랑이까지 옆선을 튼 겹옷을 말한다. 『경국대전 經國大典』에는 나장羅將의 복식으로 청반비의靑半臂衣가 나온다. 『가례도감의궤 嘉禮都監儀軌』에 ‘가문랄加文刺’이라는 의복명이 보이는데, 이것이 더그레의 한자 표기라는 견해가 있다.

4. 쾌자快子: 더그레보다 기장이 좀 더 긴 덧옷을 쾌자라 한다. 쾌자 역시 하급군속의 복식이다. 이수광李睟光수의 『지봉유설 芝峰類說』에는 쾌자가 세종 때에는 사대부의 의복이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하급군속下級軍屬인 조예皂隸의 제복制服으로 변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로 미루어 쾌자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하층 계급의 복식으로 변하는 과정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쾌자는 현대 농악대에서 영기수가 입는다.

5. 조끼: 조끼는 배자背子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배자는 저고리 길이보다 약간 길고 소매가 달리지 않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조선 중기의 배자는 교임양식交衽樣式으로 동정을 달고 길이가 무릎 정도에 이르면서 옆트임과 뒤트임이 있는 네 자락 의복이었다. 이것이 더 후기로 가면서 합임양식合衽樣式으로 변하고 길이도 짧아져 허리 정도에 이르면서 옆트임만 있는 세 자락 의복이 되었다. 배자는 원래 반비의 계통의 옷에서 유래한 것이었지만 조선시대 남녀 누구나 착용하는 일상복이 되었다.



구례진수농악



평택농악



이리농악



임실필봉농악



진주삼천포농악



강릉농악

농악복식 국립민속박물관

그러다 갑오개혁 이후에 서양복이 들어오면서 배자는 그 형태가 유사한 조끼로 대체되어 갔다. 현재 농악대의 복식 요소 가운데 하나인 조끼는 반비의인 배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농악복식에서 장식은 농악대의 시각적 화려함을 더하는 중요한 복식 요소이며, 여기에는 삼색 띠와 드림, 꽃수건, 상모가 있다. 농악대 대부분의 단원들은 기본복식 위에 독특하게 삼색 띠를 두른다. 이 삼색 띠가

불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농악대원들은 흥선대원군 이전부터 삼색 띠를 착용했다.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위안(慰安) 행사에 참가한 농악대에게 내린 상에 띠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비춰볼 때 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이 다시 세워진 1867년(고종 4) 이전부터 농악대원들이 삼색의 어깨띠를 둘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그레 뒷길에는 삼색 천을 길게 드리우기도 하는데, 이것을 보통 '드림'이라 한다. 이 드림은 농악대를 총지휘하는 상쇠만이 단다. 어느 농악대에서나 상쇠는 다른 연주자들에 비해 더 화려한 옷을 입는데, 이로 보아 드림은 상쇠의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립을 쓸 때는 먼저 이마에 꽃수건(색수건)을 받쳐 쓴다. 이 꽃수건은 전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실용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마 쪽에 매듭을 지음으로써 꽃처럼 보이게 하는 장식적인 측면도 있다. 오늘날에는 건에 꽃을 달아서 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과거에는 수건을 앞쪽에서 묶어 꽃 모양을 만들었다. 전립 위에는 상모를 매단다. 이 상모는 과거 절풍의 새털 장식에서 발전해왔을 것으로 본다. 상모는 채상모, 부포상모로 나뉜다. 부포상모는 다시 부들상모와 뺨상모로 나뉘는데 지역에 따라 착용하는 종류가 다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상모는 전문 연희집단에 의해 농악이 연행되면서 발달했을 것이다.

특징 및 의의 농악복식은 한민족 고유 복식을 토대로 구성되었고, 서민들의 미적 취향을 반영하여 변화·변형되었다는 점에서 미적 특징과 함께 역사성도 보여준다. 농악복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창작한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된 것도 아니다. 농악복식은 우리 민족의 민족성과 고유성을 간직한 전통적인 우리 옷이 그대로 전승된 것이다. 농악복식은 고유의 복식을 무대 공연에 맞게 변형하는 과정에서 여러 연희복식 요소와 장식 요소를 흡수하여 내용이 풍부해지고 다채로워졌다.

최근에는 농악복식이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쪽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상호 모방으로 지역별 특색도 사라지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과 현장의 농악대원들은 농악경연대회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주

장한다. 경연대회에서는 일단 관객이나 심사위원들의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한데, 그 때문에 크고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농악대원들이 착용하는 고깔의 꽃이나 상모 그리고 장식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크고 화려해져서 균형미와 비례미를 잃을 정도이다. 농악복식의 이러한 변화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嘉禮都監儀軌, 經國大典, 星湖僊說, 朝鮮常識, 芝峰類說, 고구려 관모에 관한 연구(김영숙, 대한가정학회지5, 대한가정학회, 1966), 조선왕조 궁중의궤복식(유송옥, 수확사, 1991), 한국 농악복식에 관한 연구(추은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필자 추은희(秋銀姬)

뉴똥

정의 경사에 무연사, 위사에 강연사를 사용하여 직물 겉면에 크레이프crêpe 효과를 준 견직물.

내용 뉴똥은 유똥, 뉴텐이라고도 불린다. 경사에 무연생사, 위사에 강연사를 사용하여 S·Z 꼬임으로 두 올씩 교대로 투입하여 제직한 견직물로 제직 후 정련과 후염 과정을 거친다. 바탕은 1/3의 4매 능직이나 5매 경수 자조직으로 겉면에 조직점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마치 평직 같아 보이며 뒷면은 수자직처럼 보인다. 무늬에는 5매 또는 8매 수자조직을 사용하였다. 평직이나 변화조직을 사용한 것도 있다. 위사로 강연사를 사용하여 직물 겉면에 크레이프 효과를 주어 표면이 오글거리고 촉감이 유연하다.



뉴똥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뉴똥은 이른 봄, 가을, 겨울철의 여자 치마저고리 재료로 인기가 많았으며, 속바지·속치마·침구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합성섬유인 뉴똥은 견보다 값이 싸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으나 다른 직물보다 촉감이 덜 부드러웠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알칼리 감량가공을 하였다. 알칼리 감량가공은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10~20%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처리하여 섬유의 표면을 부식하는 가공이다. 천연 견과 같은 광택과 촉감 때문에 물실크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항기 전후로 일본에서 수입되어 사용하다가 1930~1940년대에 조선견직朝鮮絹織, 조양방직朝陽紡織에서 본격 뉴똥을 생산하였다. 1950~1960년대는 견 또는 인조견으로 만든 뉴똥을 주로 사용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는 주식회사 코오롱에서 합성섬유로 된 뉴똥이 실루크Sillook 등의 상품명으로 생산되면서 1960년 후반에서 1970년대까지 많이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근대직물 100년(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13), 섬유소재1(한국의류학회, 1989), 피복재료학(김성련, 교문사, 2011),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해방이후의 한복용 소재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現代纖維辭典(井上孝, センイ. ジャアナル, 1968).

필자 박경자(朴京子)

능

정의 능조직綾組織으로 제직된 견직물.

내용 능綾은 능조직으로 제직된 견직물을 말한다. 능조직은 경사와 위사가 3올 이상으로 조직되어 1완전조직을 형성하며 조직점이 이어지면서 직물 표면에 규칙적인 능선이 나타난다. 능조직은 1완전조직의 매수에 따라 3매, 4매, 5매, 6매 등의 능조직으로 분류한다. 능직물은 무늬가 없는 무문능無紋綾과 무늬가 있는 문능紋綾으로 구분된다. 무문능은 소능素綾이라고도 하며 경능조직으로 제직되는데, 드물게 혼합능조직을 사용하기도 한다. 문능은 단층의 문직물로 한 종류의 경사와 한 종류의 위사를 사용하여 바탕과 무늬의 조직을 만든다. 문능의 바탕 조직은 경사가 많이 드러나는 경능직을 사

용하며, 무늬 부분은 일반적으로 위능직으로 제직되지 만 드물게 바스켓 조직, 위부직, 위수자직, 변측위수자 직을 사용하기도 한다.

능직물은 수자조직의 단織직물이 일반화되기 전 삼 국시대와 고려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다. 단만큼 화려하 지는 않으나 조출하고 은은한 광택과 얇고 부드러운 촉 감을 지닌 견직물이다.

능조직은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하여 모 직물 제직에 사용되던 조직으로 이후 동아시아로 전파 되어 견직물에 응용되면서 다양한 능직물로 발전된다. 문헌 중에 기록된 능의 해석은 다양하다. 『설문說文』에 “기綺는 무늬 있는 견직물이다.”라고 했고, 『석명釋名』 채백采帛조에는 “능綾은 능凌이다. 그 무늬가 마치 얼음 의 결과 같다.”라고 했다. 즉 능은 무늬가 있는 고운 견 직물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능은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기록이 있 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 흥덕왕 복식금제에는 통일신라 에서 능綾과 소문능小文綾 등이 표의表衣·내의內衣·버선감襪·방석 등에 사용되었음이 나타난다. 『삼국사기』 차기조 車騎條에는 금은옥金銀玉으로 장식한 우교차牛轎車 안에 세 금細錦과 이색능二色綾으로 자리를 깔았다고 하였다. 이색 능은 경사와 위사의 색을 달리하여 짠 무늬 능직물이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능의 실제 유물은 경북 경주 천마총, 불국사 석가탑,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등에서 무문능, 문능 등의 잔편이 발견되었다. 고려시대의 각 종 문헌에는 백색·자색·황색 등 각색능과 문능, 화능花綾, 이색능, 소능小綾, 대능大綾 등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 며, 능직물은 옷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용품의 재 료로 사용되었다. 능을 짜던 관영의 전문 공장인 능장綾匠이 액정국掖庭局, 잡직서雜織署 등에 설치되어 있었다. 고려시대 능직물은 불복장물佛腹藏物로서 상당히 다양 하고 풍부하게 남아 있어 고려시대 성행했던 능직물 제 직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능은 계속 사용되지만, 이때에 와서 단직물이 보편화하면서 능직물의 제직은 감소되고 사 용 범위도 줄어들었다. 조선시대 상류사회와 궁중에서 사용된 직물 중에 각색능과 소문능, 공터능 등이 있다. 근대 이후에는 제직이 중단되어 현재는 단절된 상태이 다.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아주 얇고 고운 문능을 제

직하여 주로 표구용 직물로 사용한다.

특징 및 의의 능직물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된 대표적인 직물의 하나이다. 조선시대에 능직물 의 제직이 감소했음에도 견직물을 짜던 공장의 명칭이 ‘능장綾羅匠’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능은 견직물의 대 표적인 품종 중 하나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釋名, 說文, 전통옷감(민길자, 대원사, 1998), 한국직물 오천 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 2002).

필자 심연옥(沈蓮玉)

능목면 綾木綿

정의 능직면포綾織綿布의 총칭.

내용 능목면綾木綿은 좁은 뜻으로는 굵은 능과 드릴 drill 등의 능직면포를 가리킬 때가 많다. 모두 옷감 그 대로 사용하거나 탈색, 염색, 기타 가공을 하여 의류 외에 각종 용도에 폭넓게 쓰인다. 능직으로 짠 면직 물에는 3능직three-harness twill·면개버딘gabardine·데님 denim·트윌twill 등이 있다.

3능직은 드릴이라고도 하며 주로 학생복지로 쓰인 다. 경사에 30번수 쌍사, 위사에 16번수의 면사를 쓰고 밀도는 생지 73×56 능직이다. 14~16번수의 것도 많으 며 4능직도 있고 흑색으로 염색하여 학생 동복지로 하 고 목사奎絲를 사용하여 하절용 복지服地로 쓰인다.

면개버딘은 경사는 40번수, 42번수, 44번수 쌍사, 위사는 경사와 동번수이거나 20번수~30번수를 작용 하여 무지염으로 하거나 표백한다. 3/1의 급사문急斜紋 이나 2/2, 2/2 등의 정측사문正則斜紋으로 조밀하게 제 직한다.

데님은 보통 경사에 색무지, 위사에 백무지의 비교 적 태번수太番手の 면사(경사 10~14번수, 위사 12~16 번수)를 61~89×41~51 정도의 밀도로 2/1 또는 3/1 의 능직으로 뽁뽁하게 제직한 강한 직물이다. 데님의 어원은 프랑스어이고 원래의 뜻은 서지 데님serge de Nimes(님 지방의 서지)의 뜻인데, 이 중에서 서지가 떨

어저 데님만이 남아 ‘데님’이 된 것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이 많고, 작업복·홈드레스·통근용 복지(通勤用服地)로서 상용된다.

능선은 삼국시대부터 신라의 복식금제(服飾禁制)에 의료로서 흔히 사용되었으며, 이외에도 침구류, 말의 안장 장식에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또한 액정국(掖庭局)에 능장(綾匠)을 두어 능을 제직하고, 문능으로 너른바지를 만들어 입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는 의료(衣料)로 사용된 예가 드물고, 능의 명칭이 사(紗)·단(緞)보다 다양하지 않음을 미루어 보아 점점 쇠퇴한 것으로 추측된다. 20세기 전반에 이르면 1900년에 남죽동조직(南竹洞組織)이 설립되어 능을 생산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실물 중에는 일곱 겹의 능직이 있었으며 모두 저고리의 소재였다.

1913년 총독부 조사에 의하면 당시 서울에는 33개의 조선인 직물 업소가 있어 이 해에 생산된 면직물 중에는 능직(綾織), 색능면포(色綾綿布)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근대직물100년(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13), 섬유소재1(한국의류학회, 1989), 우리생활 100년·옷(고부자, 현암사, 2001), 직물분해설계(장병호, 형설출판사,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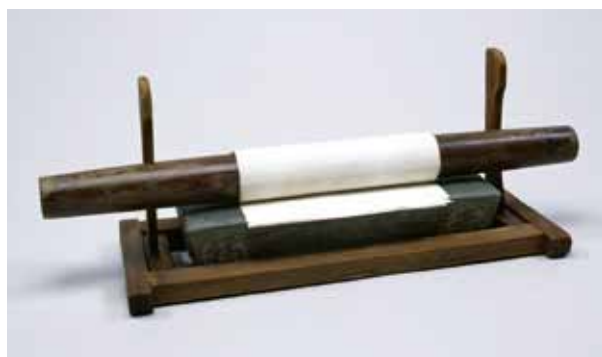
필자 박경자(朴京子)

다듬이질

정의 세탁한 옷의 구김살을 펴고 반드럽게 하기 위해 방망이로 두들겨 다듬는 일.

내용 옷을 세탁한 후 풀을 먹여 약간 말려서 손질하여 다듬잇돌 위에 올려 놓고 방망이로 두드린다. 푸새한 옷의 주름을 펴는 일은 옷감에 따라 다르다. 보통은 다듬이로 다듬는데, 명주나 비싼 옷은 홍두깨에 올렸다. 홍두깨에 올릴 때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다듬는다.

다듬이질을 거치면 직물의 씨실과 날실이 제자리를 잡게 되고 조직이 치밀해지는 효과가 있다. 다듬이질을 하면 세탁과 푸새로 수축된 천이 원상태로 늘어나고, 옷감에 투입된 풀의 성분이 방망이로 인해 섬유에 고르게 퍼지면서 옷감 특유의 광택이 증가하고 촉



홍두깨와 홍두깨틀 | 홍두깨 길이 92㎝ 틀 길이 73.5㎝ 높이 32 | 국립민속박물관

감이 살아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 때문에 전통적인 세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다듬이질의 주된 대상은 명주나 무명 및 이불 홀청이다. 풀 먹인 무명 빨래는 일단 바짝 말려야 풀이 세지고 울이 바로 퍼진다. 명주는 감자를 갈아서 만든 풀에 적신 다음 바짝 짜서 적당한 크기로 접은 후에 형겅에 짜서 마를 때까지 두드리면 윤기가 흐르고 관관하게 되어 종이 말리듯이 말린다.

푸새 후 바로 다듬이질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반드시 ‘뺨다듬이’를 했는데, 다듬기 전 대강의 구김살을 펴고 모양을 잡는 과정이다. 우선 푸새 뒤 바짝 마른 빨랫감에 물을 적서 빨랫보에 짜서 물기가 골고루 축여지게 한다. 이때 손에 물을 묻혀 옷에 조금씩 뿌리거나 입안에 물을 머금었다가 뱉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 후 솔기를 맞추어 길이 50cm, 폭 30cm 정도로 접은 뒤 빨랫보에 다시 짜서 발로 10~20분 정도 빨랫감을 꺾꺾 뺨아 주었다.

뺨다듬이 과정을 거쳐 직물의 주름이 어느 정도 퍼지면, 이것을 다듬이판 위에 놓고 본격적인 다듬이질을 시작한다. 한 사람이 양손에 방망이를 잡고 머리 위로 치켜 올렸다가 내리치면서 두들기거나 다듬이판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양손에 방망이를 두고 마찬가지로 마주앉아 두들겼다. 이러한 방식을 ‘진다듬이’라고도 한다. 이 과정에서 옷감을 잘 접지 않으면 옷감이 방망이에 맞아 뚫어질 수가 있으므로 여러 폭을 잘 접어서 올려 놓아야 했다. 이때 다듬이질하는 옷감이 고루고루한 번씩 겹으로 나오게 방망이질하면 “한 쌈을 다 두드렸다.”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다듬이질 작업은 매우 고된 노동이었다.



다듬이질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다듬이판에서 다듬이질을 마친 뒤 홍두깨에 감아 다듬을 때에는 옷감을 만 홍두깨의 끝을 움켜잡은 사람은 다른 한 손에 방망이를 쥐고 맞은편 사람은 두 손에 각각 방망이를 쥐어 방망이 세 개로 옷감을 두드렸다. 아직 풀기가 남아 있을 때 다듬이판에서 홍두깨로 옮긴다. 이때가 거의 마지막 과정인데, 홍두깨 위에서는 남아 있는 풀기가 모두 건조되어야 했다. 즉, 푸새한 것은 일단 손을 보기 시작하면 손에서 마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듬잇돌은 청석으로 만들며 강화江華의 애석艾石으로 만든 것을 최상품으로 여긴다. 밑에 나무로 만든 받침대를 두고 사용하여 돌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박달나무로 다듬잇돌을 만들면 비단을 더욱 광이 나고 윤이 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듬잇방망이는 대나무나 대추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로 만들며 대패질과 사포질로 잘 다듬어 매끈하게 만들어 흠이나 갈라진 선이 없게 한다. 주로 박달나무로 된 것을 쓴다. 또는 길고 둥글게 깎아 표면을 곱게 다듬은 나무 막대인 홍두깨에 옷감을 감아놓고 두들긴다.

색상과 직물에 따른 옷 다듬는 법은 다음과 같다.

1. 쪽빛 비단: 다듬질하면 쪽빛에 더욱 빛이 난다(백암풀).
2. 진홍색 견직물: 약하게 다듬어 물기가 마른 후 홍두깨에 다듬는다(백암풀+아교).
3. 진홍색 무명·모시: 비단과 같은 방법(잇꽃즙+풀+오미자국).

4. 자주색 비단: 반쯤 마른 후 홍두깨에 올려 다듬는다.
5. 옥색 명주: 다듬어서 밤에 이슬이나 서리를 맞혀 다듬으면 윤이 난다(백암풀).
6. 보라색 비단: 다듬질하면 곱다.
7. 아청색 명주·목면: 다듬질하면 풀이 세면서도 보드랍고 윤이 난다.
8. 백색 모시: 보통으로 다듬는다. 윤이 나고 풀기가 선다.

특징 및 의의 의복의 소재와 입는 시기에 따라 다듬이질을 달리했다. 명주와 모시 및 무명의 경우 다듬이질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서로 달랐다. 명주는 더운 여름에 다듬어 울과 울 사이의 구멍이 거의 없게 조직을 치밀하게 두드려 외부의 찬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였다. 이를 두고 ‘살이 오르게’ 다듬었다고 한다. 또한 명주의 특성상 광택이 중요한데, 그 광택에는 푸새 과정에서 직물에 먹인 풀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때 푸새 과정 후 다듬잇방망이로 두들겨 풀 성분이 섬유에 치밀하게 스며들게 하려면 아무래도 온도가 낮은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 효과적이다. 모시의 경우는 반대로 여름 의복에 사용되는 소재이므로 추울 때 약한 강도로 두들겨 ‘살이 오르지 않게’ 다듬었다.

푸새와 다듬이질은 여성에게 주어진 고단한 노동 중 하나였다. 특히나 늦은 밤까지 긴 시간 다듬이질을 하기도 하고, 겨울 옷감인 명주는 여름에, 여름 옷감인 모시는 추운 이른 봄에 다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작업이었는지 민속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집안의 경우 세탁과 손질을 담당하는 여성을 별도로 두었다.

이외에도 방망이끼리 짝이 잘 맞게 두드리면 서로 어울려 고른 소리가 나지만 서툰 사람이 방망이를 잡으면 절름발이 소리가 난다 하여 방망이 소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각 가정에서 맞아들인 새신부의 다듬이질 소리를 듣고 그 집안의 앞날을 점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문헌으로 본 한국 전통 의복 관리법 연구(한지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의생활(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필자 윤지원(尹智媛)

다리미질

정의 옷의 구김을 펴는 일.

내용 다리미 모양은 둥근형도 있지만 입구가 나팔처럼 넓은 형이 많다. 다리미질할 때 숯불을 담은 다리미는 받침그릇 위에 올려놓고 옆에는 반드시 부채를 준비했다. 계속 부채질을 해서 다리미가 식는 것을 방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리미가 뜨거울 때에는 무명이나 두꺼운 옷감을 다리고 약할 때에는 명주나 모시를 다렸다. 지금처럼 다리미판이 없기 때문에 둘이 마주 앉아서 한 사람은 양쪽 팔로 빨래 양끝을 잡고, 한 사람은 다렸다. 다리는 사람은 한쪽 발과 두 손이 모두 동원되는데 한쪽 발로는 빨래 한쪽 자락을 누르고, 한쪽 손으로는 옷을 잡고, 또 한쪽 손으로 다리미질하였다. 특히 큰 바지를 다릴 때에는 잡아당기는 사람이 잘못 잡아당기면 마루폭과 사폭이 길쭉하게 늘어나 모양이 일그러지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옷감은 축축한 상태가 다리미질 하기 좋다. 효과적으로 다리는 방법으로 ‘초물다림’을 하는데 다리기 전에 큰 주름을 펴고 모양을 바로잡는 일로, 마른 것은 입으로 물을 뿜어 골고루 적신 후 반듯이 정리하고 발로

밟았다. 옷의 동정이나 솔기 또는 다리미질하기 힘든 부분은 인두로 다렸는데, 두 개를 교대로 화롯불에 달구면서 사용했다.

다리미질은 주로 밤이나 새벽녘에 했다. 낮에는 다른 일거리가 많아서 다리미질을 할 수 없었지만, 무엇보다 다릴 옷감을 밖에 널어 이슬을 맞히면 습기가 골고루 배어 입으로 물을 뿜는 것보다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과거의 다리미질 방식은 오늘날 생각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숯불이 오래가지 못해 다리미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숯에서 날리는 재 때문에 흰 옷을 다리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한다. 그래서 다리미질 자체의 고단함과 더불어 도구의 한계와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다. 그럼에도 과거의 다리미와 다리미를 데우는 숯불은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꽤 귀중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리미를 이웃에서 얻어 오는 풍습 또한 자연스레 존재했는데, 다리미를 돌려줄 때에는 숯불을 넣어서 돌려주었다.

다리미질은 과거에 ‘쟁을 친다.’라고 표현했는데, 다듬잇방망이로 두들겨 날을과 씨울 사이의 간격을 메워 주는 다듬이질과는 달리 쟁을 친다는 것은 날을과 씨울이 직각으로 반듯하게 만나고 올 사이가 메워지지 않도록 다루는 작업이었다. 쟁을 치면 촉감이 까슬까슬하고 통풍이 잘되어 더운 날씨에 입기 적합한 의복이 되었다. 따라서 쟁을 치는 손질법은 여름에 입는 옷에 해당되는 방법이었다.

다리미와 관련된 금기는 다음과 같다.

밤에 다리미를 빌려 오면 우환이 생긴다./ 다리미를 밤에 빌려 가면 그 집 처녀가 도망간다./ 밤에 다리미 빌려 주면 자기 딸이 오래 살지 못한다./ 아침에 여자가 다리미를 빌려 오면 빌려준 집 딸이 죽는다./ 다리미불에 담뱃불 붙이면 해롭다./ 다리미불에 쪼면 재수 없다./ 옷 다릴 때 옷고름부터 다리면 가난해진다./ 버선을 다리미질하면 소박맞는다.

참고문헌 문헌으로 본 한국 전통 의복 관리법 연구(한지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우리 생활 100년·옷(고부자, 현암사, 200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의생활(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한국복식 2천년(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필자 윤지원(尹智媛)



다림질하고 | 기산풍속도 | 송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다리속곳

정의 조선시대에 여자들이 가장 안쪽에 착용한 속옷 하의.

내용 다리속곳은 앞쪽에서 보면 T자 모양을 이루는 평면형 속옷이다. 살에 닿는 부분을 세로로 놓고 허리 말기를 가로로 꿰매 붙여서 기저귀처럼 착용한 뒤에 한쪽으로 끈을 묶어 고정했다. 조선시대 사대부가 부녀자들은 치마 아래에 여러 개의 바지를 겹쳐 입었는데, 다리속곳은 부피가 큰 속속곳의 잦은 오염을 막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어 입은 속옷의 한 종류라고 알려져 있다. 살에 직접 닿는 속옷이므로 곱게 짠 무명 등을 사용해 만들었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다리속곳은 오늘날 성별과 연령의 구별 없이 착용하는 팬티와 같은 역할을 했던 속옷으로 여겨지지만, 다리속곳이라는 명칭과 전래된 형태를 고려하여 월경포인 개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달 월’ 자를 ‘다리’로 읽는 관습상 개짐의 다른 표현이거나 개짐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1910년대에 경상도 일원에서 출생하여 1920~1930년대에 혼인한 반가(班家) 종부와 부녀자들의 의생활에 관한 현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사루마다(さるまた, 猿股)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크기가 작고 살에 밀착되는 속옷을 입은 적이 없다는 구술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리속곳과 형태가 같은 속옷을 일관되게 월경포로 설명하면서 달거리를 할 때만 살에 차는

속옷(개짐)을 입었다고 구술했다.

유희경은 다리속곳을 “가장 밑에 입는 속곳”이라고 정의했으며 “아마도 속속곳이 크기 때문에 자주 빨 수 없어서” 입은 속옷일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속속곳이 없어지면서부터는 이 다리속곳을 흔히 입게 되어서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았다고 생각된다.”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이 서술에 따르면 다리속곳은 사루마다의 유입 이후 속속곳이 사라지기 시작한 근대적 변화 속에서 용도가 확장 혹은 변용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주원이 1980년대 중반에 시행한 여성 속옷 관련 조사에는 제보자가 복원·제작한 다리속곳을 도식화한 자료가 포함되었다. 이 다리속곳의 크기는 말기로부터 살에 닿는 부분까지의 길이가 50cm 이상이며 폭은 32cm이다. 말기 둘레는 80cm, 말기 폭은 9cm이고 착용할 때는 이를 가슴에 둘러 고정한 것으로 기록했다.

이러한 자료는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일상적으로 다리속곳을 착용했다는 내용과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즉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다리속곳이 궁중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사용한 밀착형 속옷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팬티와 개짐의 기능을 일정 부분 겸한 것인지, 혹은 개짐 그 자체였다가 용도가 확장되었거나 변용·오인된 것인지 단언할 수 없다. 특히 여자 속옷에 관해 지역적·계층적으로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리속곳의 정확한 용도와 사용 빈도, 속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참고문헌 선비와 피어싱(조희진, 동아시아, 2003), 우리나라 서민녀의 일상복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이주원, 대한가정학회지28-4, 대한가정학회, 1990),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한국의 복식(유희경,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필자 조희진(趙熙眞)



다리속곳 | 길이 22.5 허리 55 | 21세기 |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다회

多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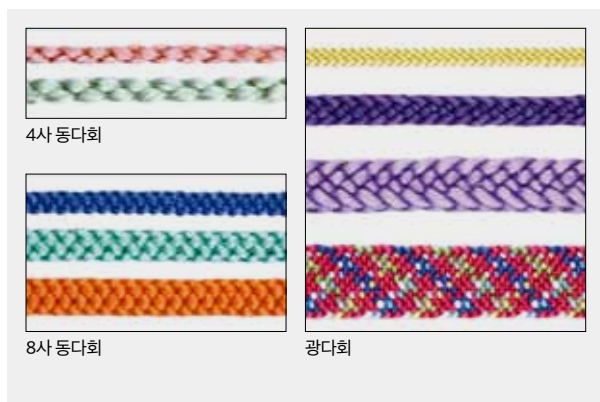
정의 매듭을 맺기 위한 끈.

내용 조선시대에는 손으로 짜는 끈을 다회라 불렀고 끈을 만드는 작업을 ‘다회 친다.’라고 하였다. 현재는

잘 쓰지 않는 단어라 생소한 말이다. 다회(끈목)의 시원은 나무껍질이나 넝쿨, 짐승의 가죽을 잘라서 두 가닥 이상으로 꼬아 쓰던 것이 세 가닥, 네 가닥으로 땀은 짜임새로 변화했을 것이다. 다회로 사냥, 낚시 등 생존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작했고 나아가 글자나 숫자를 대신했다. 다회(끈목)에는 광다회廣多繪와 원다회原多繪가 있다. 광다회는 주로 의복에 허리띠로 쓰이던 폭이 넓은 납작한 끈목이며 폭이 좁은 것은 방울술노리개, 선초, 안경집 장식에 쓰였다. 원다회는 노리개, 주머니끈, 유소를 만드는데 쓰이던 끈목이며 둘레가 둥근 끈을 말한다. 원다회를 만들 때는 필요한 굵기의 끈목에 따라 비단실을 합사合絲해서 4가닥, 8가닥으로 짜고 16사 이상은 두세 사람이 마주 앉아 가닥을 돌려가며 쳤다고 한다.

영국박물관에 소장된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의 풍속화 <끈목 치는 모양>(19세기)이 남아 있으나 현재 그 기법은 단절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한사람이 큰 접시를 놓고 8사 짜는 기법으로 16사, 24사, 32사를 짜고 있다. 우리나라 매듭은 38종류의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매듭을 시작할 때는 항상 일정한 길이의 끈을 반으로 접어서 중심에서 시작하여 두선을 질서 있게 엮어 균형을 맞추어 조이며 매듭들을 맺고 끝에는 술을 유연하게 늘어뜨린다. 매듭의 이름은 연봉매듭(적삼단추매듭), 나비, 국화, 생쪽, 삼정자, 잠자리, 매미, 끈디기, 석씨, 장고, 십일고, 난간, 가지방석 등의 이름이 있으며 우리 생활 주위에서 늘 보는 물건이나 곤충, 꽃들의 이름들과 같다.

5세기경 중국 길림성 집안현에 있는 무용총 벽화에 남녀 무용수의 허리에 평직으로 된 폭이 넓은 띠를 하고 있는데 광다회일 가능성이 있다. 삼국시대 우리나라 독창적인 다회장식을 잘 보여 주는 유물로 6세기 후반 금동반가사유상(국보 78호)에 양각으로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드리개는 늘어뜨린 부분이 광다회 조직으로 보이며 그 밑은 술의 모양을 하고 있다. 백제의 경우 금동대향로(국보 287호)에서 다회와 술을 볼 수 있는데 봉황 아래쪽에 다섯 명의 악사가 그중 완함에 술 모양의 장식이 늘어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악기 유소 장식의 유래로 보인다. 불상 등에서도 매듭을 표현한 유물을 많이 볼 수 있다. 725년에 주조



다회 종류 | 김은영



다회 | ① 김은영, ② 길이 29 | 국립고궁박물관

된 상원사범중, 771년에 만든 성덕대왕 신종에 양각된 비천상의 옷과 매듭의 술이 달린 영락이 하늘을 나는 비천의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일본식 복식에 쓰이는 끈의 명칭 중에 시라기구미新羅組와 끈을 짜는 틀의 종류 중에 고라이우치高麗打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 우리나라 다회 기법이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다회는 1123년(인종 1)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 사신 서공徐兢이 지은 『고려도경高麗圖經』 권 20 귀부조貴婦條에 귀부인들이 감람橄欖빛 넓은 허리띠를 띠고 채색끈에 금방울을 달고 비단향낭을 차는데, 이것이 많을수록 귀하게 여긴다는 기록에서 전한다. 고려 왕실과 귀족사회에 쓰이는 각종 의장물에 유소를 드리웠으며 여인의 장신구에도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자 상감 보자기 무늬매병(12세기 후반, 보물 342호) 뚜껑 부분에 보자기 그림이 상감되어 있는데 보자기의 네 귀퉁이에 매듭과 술을 그려 넣어 장식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매듭은 아미타불복장 직물 중 하나로 1302년 조성 연도가 있는 토끼 무늬 귀주머

니(온양민속박물관)소장이다. 주머니의 천은 금사를 토끼문양에 넣어 짚으며 주머니 끈은 검은색에 가까운 보라색으로 안경, 생쪽, 생쪽, 안경, 외도래 매듭 순으로 매듭을 지었다. 지금까지 쓰고 있는 기본형 매듭의 유래가 매우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을 이 주머니로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의 중요한 편년자료는 1524년 연도가 있는 변수(1447~1524) 묘 출토 광다회 띠와 1566년 경의 연도가 있는 파평 윤씨 유소가 있다. 지금 남아 있는 조선시대 유물의 노리개로는 영조의 열 번째 딸인 화유옹주和柔翁主(1740~1777)의 산호 노리개 한 쌍과 밀화 노리개·백옥강자형 술실 노리개·각 칠보형 술실 노리개 등 네 점의 노리개가 있다. 조선 중기 이후의 매듭은 고회화古繪畵로 그 면목을 다시 볼 수 있다. 신윤복申潤福의 <미인도美人圖>에서 주인공이 하고 있는 삼천주 노리개는 낙지발술을 한 외작노리개로 그 당시 여자들의 패물장식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주머니 유물로는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유품이 있다. 형태상으로는 환약을 넣고 사용하던 연두색 비단수 약낭이며 주머니 끈은 도래, 가지방석, 잠자리매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의궤에도 매듭그림이 많이 남아 있다. 순조(1790~1834)의 아들 효명세자가 순조에게 올린 1829년 <기축년진찬도병> 1848년 헌종(1827~1849) 때의 「무신년진찬의궤」에는 지당판地塘板, 죽간자竹竿子, 포구락抛毬樂에 장식된 매듭과 무희들의 한삼 매듭장식, 실내장식 비단 등 매듭과 유소의 그림이 수없이 많다.

다회를 만들 때는 누에에서 만들어진 생사生絲를 비눗물에 삶아 아교질을 빼내는 일부터 시작한다. 염색이 잘된 실타래를 해사틀(자애)에 얹혀서 일래(자구리)에 단단하게 감는다. 끈을 짜려면 먼저 비단실을 두 겹이나 세 겹으로 짜려고 하는 굵기에 따라 합사를 하여 바탕을 꼬아 끈을 짠다. 보통 10m 거리를 상사거리를 세우고 실을 합사하는데 8사는 30cm 줄어든 만큼 꼬면 적당하다. 8사 만들 때는 네 가닥을 오른쪽으로 다른 네 가닥은 왼쪽으로 꼰 후 여덟 개에 토쪽에 골고루 힘을 주어 단단히 감아 끈틀 접시 위에 얹는다. 접시 가운데를 중심으로 토쪽을 오른을 두 개, 왼을 두 개씩 순서대로 여덟 개를 놓고 두 손 좌우로 움직이며 한단씩 짜 올라간다. 오른을과 왼을이 만나서 예쁜 눈을 만든다.

토쪽의 무게는 8개가 똑같아야 하며 실이 굵을수록 토쪽의 무게도 무거운 것을 써야 한다. 기계로 짠 끈과는 다르게 손으로 짠 끈은 눈이 살아 있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 다회는 염색부터 시작하여 술 만드는 일까지 모든 과정을 손으로 한다는 것과 둥근 접시와 네모진 접시에 얹혀 8·12·16·24·32·36가닥으로 원다회와 광다회를 짜서 끈목을 만들어 모든 매듭에 사용한다. 전승된 다회와 매듭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아름다움에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미의 체계가 있다. 조선 말까지도 실내장식용, 불교 행사의 장엄장식, 악기용 매듭, 가마 유소, 각종 노리개, 주머니 매듭, 허리끈 등 생활 전반에 쓰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전통문화 말살 정책으로 전승된 공예들이 훼손되었고 서구문물이 밀려오면서 생활전반에 걸쳐 사용되던 매듭도 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생기고 1968년 우리 전승된 매듭의 맥을 이어오던 정연수가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으로 지정되었다. 그 뒤를 이어 최은순과 김희진이 계승했다.

참고문헌 김은영 매듭(가나아트, 2003), 매듭 만들기(김은영, 미진사, 2009), 매듭과 다회(김희진, 광명인쇄공사, 1974), 매듭장(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한국 전통매듭(국립중앙박물관, 2004).

필자 김은영(金銀映)

단 緞

정의 수자조직으로 제직된 견직물.

내용 단緞은 수자조직繡子組織으로 제직된 전통 직물의 총칭이다. 수자조직은 삼원조직의 하나로 주자조직이라고도 하며 경사와 위사의 조직점을 적게 하고 분산시켜 광택이 많이 나고 매끄러운 특징이 있다. 단은 치밀하고 두껍게 제직되어 주로 겨울용 옷감으로 사용된다. 수자조직은 짜임에 따라 경사가 표면에 많이 드러난 경수자직, 위사가 많이 드러나는 위수자직이 있다. 무늬가 없는 무문단은 경수자조직으로만 제직하

고 무늬가 있는 문단은 경수자조직 바탕에 위수자조직으로 무늬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단은 문헌 중에 ‘암화단(暗花緞)’으로 나타나며, 언해로는 ‘스민문단’이라고 하였다. 바탕과 문양의 조직 차이에 의해 빛이 반영되는 방향에 따라 명암이 다른 효과가 발생한다. 그 외에 단에는 경사와 위사의 색을 달리하여 바탕과 문양을 다르게 표현한 이색단도 있다. 이색단은 양색단으로 불린다. 전통방식의 단은 대부분 선염으로 제직하여 식서 부분을 다양한 색으로 표현하는게 일반적이다.

수자조직은 삼원조직 중 가장 늦게 만들어진 조직으로 우리나라에서 단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 14세기경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연대의 단 유물도 1346년에 조성된 충청남도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불에서 발견된 소색단이다. 무늬 없는 무문단으로 경사, 위사에 꼬임이 없는 실을 사용하여 5매 3뿔 수자조직으로 제직되었다. 중국에서도 최초의 수자조직 단직물은 원대(元代) 무석(無錫) 전유(錢裕) 묘에서 처음 발견되며 암화문단(暗花紋緞)의 종류이다. 고려시대 단의 명칭은 문헌 중에 저사(紵絲)·주사(注絲)·주사(走絲)·단(段)·단자(段子) 등으로 나타난다. 14세기 문헌인 『원간노걸대(原刊老乞大)』와 1510년 편찬된 『번역박통사(翻譯朴通事)』에 ‘단자(段子)’라고 하였고, 조선시대 언해에서는 모두 ‘비단’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비단은 수자조직으로 제직된 단을 일컫는 말이다. 1795년에 간행된 『중간노걸대언해(重刊老乞大諺解)』에서는 ‘직물’을 나타내는 ‘사(糸)’자가 결합된 ‘단자(緞子)’로 표기된다.

조선시대 1416년(태종 16)에는 ‘단자직조색(段子織造色)’을 설치하여 단의 제직을 권장하였고, 1504년(연산군 10)에는 저사(紵絲)를 갖가지 색으로 물들여 제직하기도 하였다. 1505년에는 궁중가례 때에도 필단직기(匹緞織機)로 가례용 직물을 직조한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 나타나는 단직물의 종류로는 조직, 문양, 생산지에 따라 소단(素緞)·단(緞)·필단(匹緞)·문단(紋緞)·별문단(別紋緞)·오사단(五絲緞)·고단(庫緞)·대단(大緞)·섬단(閃緞)·영초단(英綃緞)·모본단(模本緞)·우단(羽緞)·직금단(織金緞)·금단(錦緞)·장단(粧緞)·홍장단(紅粧緞)·팔사단(八絲緞)·한단(漢緞)·모단(冒緞)·팽단(彭緞)·양색고단(兩色庫緞)·망단(蟒緞)·석청단(石靑緞) 등으로 기록되었다. 조선시대 출토복식에는 연화문·운

문·오호로문·보문·화조문·사계화문 등 다양한 문양의 단직물이 나타난다.

특징 및 의의 단은 고려 말기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자카르(jacquard) 직기로 생산되는 역사가 깊은 직물이다. 색과 문양, 제직 양식을 달리하여 다양한 단을 생산했으며, 남녀노소의 의복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예품 제작에도 사용되었다. 근대 이후에는 전통적인 문단 이외에도 색동단·모본단·대화단·법단·호박단·고단·공단 등이 제직되어 한복이나 이불감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翻譯朴通事, 老乞大, 重刊老乞大諺解, 전통옷감(민길자, 대원사, 1998), 한국직물 오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 2002).

필자 심연옥(沈蓮玉)

단령 團領

정의 깃이 둥근 형태의 포(袍)로 의례용과 집무용 등 백관들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입는 관복(官服)의 하나.

역사 단령(團領)은 둥근 깃이라는 뜻이지만, 깃을 둥글게 만든 겹옷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명대에는 원령(圓領), 원령의(圓領衣), 반령(盤嶺), 반령삼(盤嶺衫), 반령착수포(盤嶺窄袖袍), 반령착수삼(盤嶺窄袖衫), 반령의(盤嶺衣), 단령(團領), 단령삼(團領衫)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다가 점차 관리가 곁에 입는 둥근 깃의 포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둥근 깃의 의복은 남북조시대 북위에서 입었던 호복(胡服)에서 시작되어 수(隋) 문제(文帝) 때 공복(公服)으로 채택되어 당(唐)대에 이르러 토착화되었다. 당이 주변국에 단령을 사여하기 시작했고 이런 전통이 명(明)대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에, 토번·위구르·발해·신라·일본 등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단령을 입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천자부터 서민까지 모든 계층에서 단령을 입었으나, 신라는 중국의 단령을 관리의 의복으로 채택하여 입었다.

당의 예복 제도 중에서 제복과 조복은 주周的 제도에 기반을 두어 이전 왕조들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공복은 새로운 양식인 복두와 단령을 착용하면서 이에 따라 신라와 발해, 일본 등도 복두와 단령을 관복으로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단령을 관복으로 입을 때는 관모는 검은색으로 통일하였고, 관직의 등급에 따라 단령의 색상을 다르게 하였으며, 허리띠와 손에 드는 홀笏의 재료에도 차등을 두었다. 사자·호랑이·표범·기린·매·기러기 등의 무늬로 문관과 무관의 관직을 구분하는 방식의 기본 틀이 당대에 만들어져 이후 송宋·명대까지 이어졌으며 색상과 재료에 차이는 있었으나 이 구분법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송대에는 단령이 백관들의 공복으로 정착되었다. 공복으로 착용한 단령은 소매가 넓고 도련에 가로 방향의 띠(襴)가 있으며, 여기에 복두를 쓰고 가죽 허리띠를 두르고 가죽으로 만든 흑피화를 함께 갖추었다. 관복의 색상에 따라서 금이나 은으로 장식한 어대를 차기도 하였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삼한시대까지는 국풍을 따르다가 648년(진덕여왕 2)에 김춘추가 당에 원병을 청하러 가서 중국의 제도를 들여온 이후 관복 제도가 중국과 비슷해졌다고 한다. 고려 초 960년(광종 11)에는 관리들의 공복을 단령의 아래에 가로로 띠(襴)를 대고, 소매가 약간 넓으며, 옆트임이 있는 난삼(襴衫)으로 제정하였다. 백관의 예복도 함께 정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관리의 상복과 공복을 구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광종 때 정한 관복제도에는 계급에 따라서 자삼(紫衫)·단삼(丹衫)·비삼(緋衫)·녹삼(綠衫)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의종毅宗 대에는 관복의 색상이 자紫·단丹·비緋·녹綠에서 자·비·녹·조靛로 바뀌었다. 사색공복제도가 실행된 지 150년 후 고려를 방문한 서긍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보면 고려는 송의 관복 제도의 영향을 받았으나, 관복이 송과 같지 않았으며 평상복은 더욱 달랐다고 한다.

명대의 공복과 상복常服의 제도는 당대의 원령포삼(圓領袍衫), 송의 곡령대수(曲領大袖)로 불렸던 관리들의 예복에서 비롯되었다. 명대의 상복은 둥근 것이 달린 포에 사모를 쓰고 대를 둘렀는데, 가장 큰 특징은 가슴과 등에 달린 보자(補子)였다. 이처럼 보자를 달아 품계를 나타

내는 제도는 당대 측천무후가 실시한 수포(繡袍)에서 유래한 것이다. 1391년(명 홍무 24, 공양왕 3) 관복을 정비하면서 문관의 상복에는 날짐승(선학, 금계, 공작, 운안, 백한, 노사, 계척(鷄鵲), 꿩꼬리, 메추리, 연작(練鵲))을, 무관의 상복에는 길짐승(사자, 호虎, 표豹, 웅비, 표彪, 서우犀牛, 해마, 해치)을 수놓도록 하면서 보자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관복의 흉배 제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공복은 곡령대수, 즉 둥근 옷깃에 우임이며 넓은 소매이고 옆트임이 없는 옷이다. 고려의 공복은 960년(광종 11) 후주(後周)의 영향을 받아 제정하였으며, 형태는 우임에 곡령이고 대수인데 옷깃과 수구에 이색선이 둘러져 있고 송제는 선이 없다. 한편 소매가 좁고 옆트임이 있는 단령은 계속 입혀지고 있었다. 중국 명은 소매가 넓은 곡령대수인 송의 공복 제도와 함께 소매가 좁고 옆트임이 있는 상복 제도를 제정하였다.

조선시대의 공복은 곡령대수로 하고, 복두와 단령을 기본으로 하여 허리띠를 하고 흑피화를 신고 홀을 들었다. 단령의 색상과 허리띠 및 홀의 재료는 품계에 따라 달랐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공복 차림에서 단령은 1품~정3품은 홍포, 종3품~6품은 청포, 7~9품은 녹포를 입었다. 후에 1746년(영조 22) 『속대전續大典』에서는 3품 이상은 담홍포, 3품 이하는 홍포를 입는 것으로 변하였다. 또 1785년(정조 9)에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 3품 이하는 청록색 공복으로 변경되었다가 1884년(고종 21)에 관복이 간소화되면서 흑단령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상복으로 입은 단령은 색상에 대한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었다. 『대명회전大明會典』에서는 명대 관복 중 상복의 포로 입었고, 잡색(雜色), 즉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으므로 명의 제도를 수용한 조선 초기 백관의 상복의 단령도 색상 규정이 없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시대에 따라서 현록색 등 선호한 색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493년의 『악학궤범樂學軌範』의 관복도설(冠服圖說)에는 악사의 공복용 단령과 상복용 단령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서 보면 악사공복과 상복의 단령은 소매넓이나 무의 제작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복도 1884년 관복이 간소화되면서 공복과 마찬가지로 흑단령으로 통일되었다.

내용 단령을 관복으로 착용하는 제도는 고려 말 우왕 때 받아들인 명의 관복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단령에 사모를 쓰고 품계에 따라서 서屨·금屨·은屨 등의 품대品帶를 두르며 흑화를 신는데, 특히 상복은 흑단령(아청색 혹은 현록색)에 홍배를 단 것이고, 시복은 홍단령(담홍색, 홍색)으로 홍배 장식이 없는 것이다.

조선 초기 단령의 상복의 색상은 일정한 규정이 없이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었으므로 상복의 허리띠만으로 백관의 품계를 구별하였다. 그러나 그 구별이 쉽지 않아서 세종대에 처음으로 홍배 제정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1454년(단종 2)에 비로소 홍배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후에도 수차례 홍배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며, 1505년(연산군 11)에는 1품에서 9품까지 홍배를 사용하게 하였으나,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1691년(숙종 11)에 문관은 날짐승, 무관은 길짐승으로 정했고, 1745년(영조 21)과 1897년(고종 34)에는 문관 당상관은 쌍학, 문관 당하관은 단학, 무관 당상관은 쌍호, 당하관은 단호홍배로 더욱 단순화하여 말기까지 사용하였다. 조선의 관복 제도는 중국의 왕조가 청淸으로 바뀐 후에도 전 시대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속대전』, 『국혼정례』, 『상방정례』에서 관복을 비롯한 예복제도를 정비하였고, 이 제도가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다. 조선 후기의 관리 복식의 기본적인 틀은 조선 전기의 제도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변화된 부분도 많았다. 공복은 착용빈도는 줄었으나, 국말까지도 예복으로 사용하였다.

『경국대전』에 상복은 품계에 따라 홍배를 달며 관모로 사모를 쓰고, 공복은 복두를 쓰고 홀을 들며 품계에 따라서 홍포·청포·녹포로 옷의 색상을 다르게 규정하였다. 공복과 상복의 차이는 관모가 복두, 사모라는 것과 홍배와 홀의 여부에 있었다. 또한 상복은 공복과는 달리 품계에 따른 옷의 색상이 정해지지 않아서 다양한 색상의 단령을 착용할 수 있었다. 상복의 가장 큰 특징은 품계를 상징하는 홍배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이 제정된 성종 대에도 모든 단령에 홍배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조회朝會나 예연禮宴에 입던 흑단령에만 홍배를 다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았고, 점차 아청색이나 현록색 등의 검은색 단령이 선호되면서 흑단령에 홍배를 단 형식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① 단령 | 16세기



② 단령 | 17세기 초



③ 동래 정씨 여성 단령 | 17세기 초



④ 흥선대원군 자적단령 | 19세기 말

단령 ① 길이 140.5 품 68 화장 122.5 | 변수묘 출토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137 품 58 화장 127.5 | 김학묘 출토 | 경기도박물관, ③ 길이 159.5 품 60 화장 105.5 | 김학묘 출토 | 경기도박물관, ④ 길이 121 품 47 화장 86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령 입고 사모 쓴 남자 | 20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또한 단령에 사모를 쓰는 관복으로는 상복과 함께 시복時服이 있었다. 상복과 시복은 조선 초기부터 용도와 명칭의 혼란이 심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시복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대체로 일상 공무를 볼 때 입는 관리의 집무복을 시복이라 하였다. 형태는 상복과 같지만 흉배를 달지 않았다. 즉 격식과 위의를 갖추어야 할 때는 흉배를 단 흑단령을 착용하였고,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흉배없는 홍단령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세기 초에 상복에서 발전된 흑단령의 용도가 명확해지면서 시복과 상복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였고, 다시 1610년(광해군 2)에 관복 제도를 정비한 것을 계기로 흑단령은 상복으로, 홍단령은 시복으로 정착되었다. 즉, 관리의 집무복 중에서 흉배 달린 흑단령은 의례복의 성격이 강한 상복으로, 홍단령은 일상 업무복의 성격이 강한 시복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공복·상복·시복의 제도는 1884년(고종 21)에 이뤄진 관복제도 간소화와 함께 흉배가 달린 흑단령으로 통일되었다.

특징 및 의의 유물을 통해서 보면 시기별로 단령의 형태 변화가 보이는데 조선 전기에는 주로 홑옷으로 만들었으므로 속에 입는 직령을 별도로 제작하여 겹쳐 입는 방식이었고, 17세기 무렵부터는 홑단령과 홑직령을 따로 제작하여 징그는 형식의 겹옷이 등장한다. 이후부터는 안감으로 제작된 홑직령을 단령에 끼워서 깃·섶·무·수구·밑단 부분만 맞추어 공그르거나 성근 감침질을 하여 징거서 붙이는 겹옷으로 바뀌었다. 조선 후기에는 소매배래와 옆솔기, 등솔과 같은 부위에서 두 벌을 붙여 세 겹이나 네 겹을 같이 바느질하여 한 벌 옷으로 만들었다.

단령의 옷길이는 전기에는 앞이 짧고 뒤가 긴 형식의 전단후장형이 보이는데, 3~11cm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17세기 이후의 유물에는 앞뒤 길이에 차이가 나는 유물은 보이지 않는다. 소매통은 조선 전기에는 진동과 부리가 매우 좁고 배래가 수구쪽으로 사선이 되는 통수에서 후대로 갈수록 부리 부분이 넓어졌고, 말기에는 넓은 사각형의 양옆을 굴린 두리소매 형태로 발전하였다. 17세기 말~18세기 사이에는 소매통이 60~64cm가 넘는 넓은 두리소매도 나타나다가 말기에는 다시 좁아져서 50~55cm 정도가 된다.

단령의 무 양식은 시대적 특징을 잘 보여주며, 무의 형태·봉재 방법·무의 주름의 갯수 등은 시대를 구분하는 요소가 되고, 단령을 구성하는 섶의 유형이나 소매 형태 등과도 관련이 있다. 이은주가 분류한 무의 형태는 시기별로 다섯 개 유형의 무가 보인다. 15~16세기에는 길의 옆선 안으로 소형 주름을 접어 넣고 밖으로 큰 주름 하나를 만들어 무 머리 부분을 삼각으로 접어 넣어 옆으로 뻗친 양식인 ‘대소 안팎 주름형 무’, 옆트임 안으로 여러 개의 주름을 잡아 정리한 ‘네 겹 주름형 무’, 옆선 밖으로 뻗친 큰 주름으로 구성된 ‘대형 밖 주름형 무’ 양식 이 세 가지가 공존한다. 이후 17세기에는 무를 뒤로 젖히면서 앞길 옆선에 새롭게 삼각무를 삽입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뒤 젖힘 대주름형 무’는 ‘뒤 젖힘 사다리꼴형 무’로 변화되었다. 사다리꼴형 무가 등장하고, 뒤로 젖혀진 사다리꼴의 무 상부를 매듭단추나 상침으로 뒷길에 고정시킨다. 조선 후기에는 사다리꼴 무를 뒷길에 상침으로 고정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1884년(고종 21) 관복제도 간소화 이후에는 좁

은 소매의 흑단령에 어울리는 삼각형의 두루마기 무가 나타난다.

단령의 둥근 깃은 조선 전기에는 2~3cm의 좁은 깃을 목 위에 바르게 붙였고, 점차 후대로 갈수록 너비가 넓어지고 파임이 깊어져서 U자형을 이루게 되었다. 고름은 전기에는 고려시대 유물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리에 끈을 끼워서 매는 간접고름형이었다가 직접고름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대체로 후기로 가면서 고름의 너비가 넓어지고 길이도 길어지는 경향이다. 후기에는 안감의 직령 고름과 단령의 고름을 함께 매는 이중고름이 등장하면서 단령의 형태가 정착되었다.

기록을 보면 단령은 목면·면포의 면직물, 세마포·마포·생추포·숙포熟布·저사·세저포 등의 저마직물, 고기交綺·사紗·라·운문단雲紋緞·주견·금錦·명주紬의 견직물 등 다양한 직물을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단령이 공복이었기에 남성들만 입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조선 전기 출토유물을 보면 여성들도 단령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평 윤씨(?~1566), 청주 한씨(1600년 전후), 연안 김씨(16세기 말), 의인 박씨(16세기 말), 장기 정씨(1565~1614) 묘에서 출토된 여자 단령은 대개 홀이며, 소매는 통수이고, 긴소매와 반소매가 있다. 앞길보다 뒷길이 길며, 직물로 만든 허리 띠가 같이 출토된다. 겹깃과 겹섶, 안섶의 형태는 남자 단령과 동일하나, 무의 형태가 다르다. 무는 대부분 여러 겹의 맞주름으로 되어 있으며, 겹에서 앞뒤의 길쪽으로 고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직금된 노사홍배나 공작홍배 등이 달린 경우도 있다. 또한 김확의 부인이었던 동래 정씨(1567~1631) 묘에서는 단령과 원삼의 중간 형태를 띠는 의복이 출토되었다. 깃 모양은 단령 깃과 비슷하나, 여밈이 맞깃으로 되어 있어 앞모양은 원삼과 유사하며 소매 끝에는 한삼이 달려있다. 여성 단령의 존재에 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이견이 있어서 아직은 단정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동아시아 복식의 역사(홍나영·신혜성·이은진, 교문사, 2011),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최은수, 민속원, 2007), 조선시대 백관의 시복과 상복 제도 변천(이은주, 복식55-6, 한국복식학회, 2005), 조선시대 여성 단령에 관한 연구(송미경, 복식52-8, 한국복식학회, 2002).

필자 최은수(崔銀水)

정의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백성들에게 상투를 자르게 한 명령.

내용 단발령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사기초사전』에 의하면 1895년(고종 32) 11월 김홍집金弘集(1842~1896) 내각에서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도록 내린 명령을 말한다.

조정에서는 1894년 7월부터 김홍집을 위시한 온건개화파들의 주도로 근대화 운동이 추진되었다. 청일전쟁 후 삼국간섭으로 일본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자, 조정에서는 배일친로정책排日親露政策을 표방하게 되었고, 이에 일본은 음력 1895년 8월 20일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일으키고 국면 전환을 꾀하였다. 단발령의 조짐은 1894년 의복 제도를 개정한 변복령變服令이 공포되면서, 곧 단발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돌았다. 이후 일본 관리가 고종에게 단발을 강요하였을 때, 고종은 명성황후의 국장國葬을 이유로 시기를 미루고 있었다.

명성황후시해사건으로 인해 백성들의 반일의식은 한층 고조되었고, 또 사건을 기만적으로 처리한 김홍집 내각에 대한 불신도 깊어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1895년 음력 11월15일 일본군은 궁성을 포위하고 대포를 설치하였다. 이런 위협 속에서 고종은 탄식하며 농상공부 대신 정병하鄭秉夏(1849~1896)에게 머리를 자르라고 하여 단발하였고, 유길준俞吉潁(1856~1914)은 태자의 머리를 잘랐다. 정부가 단발령을 내린 이유는 “단발은 양생養生에 유익하고 일하는 데에 편리하기 때문(고종실록 권33 고종 32년 11월 15일)” 이라고 하였다. 단발령 직후 정부의 관료, 군인·순검 등의 관인이 먼저 단발을 행하였고, 역법을 음력에서 양력으로 전환하기로 한 음력 1895년 11월 17일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발 실시가 더욱 강요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일부 관리들은 단발령을 따를 수 없다고 상소하고는 관직을 사임하였고, 각처에서 단발령 철회를 주장하는 상소가 올라왔다. 유길준이 당대 유림의 거두 최익현崔益鉉(1833~1906)을 잡아들여 투옥한 뒤 단발을 강

행하려 하자, 최익현은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고 하며 단발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단발의 명을 받은 관리 중에도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자가 많았다. 당시 서울에 머무르던 지방 사람들은 단발령 소식을 듣고 서둘러 귀향하였으며, 미처 피하지 못해 강제로 상투를 잘린 사람들도 상투를 주머니에 넣고 통곡하면서 서울을 떠나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서울 사람들은 단발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손님이 찾아오는 것조차 사양하였으며, 지방으로 임시도 피를 하기도 하였다. 단발이 두려워 지방에서 서울에 가는 것을 꺼려하여 서울에 물자가 부족해지고, 물가가 상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단발령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채두관(剃頭官)이 파견되어 통행인은 물론 민가에까지 들어가 강행되었는데, 단발을 행하던 지방관리가 지방민에게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1895년 단발령의 배후에는 일본이 있었는데, 그 의도를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문화적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먼저 정치·군사적 측면으로 일본은 조선의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 한편으로는 조선 조정을 확고히 장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소요사태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을 파병할 구실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었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 일본 정부가 대한침략정책(對韓侵略政策)에서 보인 주요한 수단의 하나였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상업·무역의 측면이다. 일본은 조선을 개항시킨 이래 꾸준히 조선 시장의 확대를 모색하여 왔다. 메이지유신 이후 생산된 일본상품의 판로를 우선 지리적으로 가까운 조선에서 확보하는 것이었다.

단발령, 태양력 사용, 의제개혁 등은 조선 내각의 이름으로 행해졌고, 내각 인사들 중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호응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주도권을 행사하였다기보다는 일본공사 및 일본인 고문관의 의도와 계획 하에 조치가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고종의 자의도, 내각 전체의 의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런 술책에 더욱 반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단발령은 명성황후시해사건과 더불어 반일 감정을 격화시킨 결정적 기폭제가 되어, 전국 각지에서 을미 의병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울의 친위대를 파견하여 각지의 의병을 진압하고자 하였으나, 이

틈에 고종의 아관파천(俄館播遷)이 일어났다. 그 결과 온건개화와 친일 내각이 붕괴되고 친러 내각이 등장하였으며, 새 내각은 그 동안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자 1896년 “단발斷髮하는 문제는 편리한 대로 하게 허락(고종실록 권34, 고종 33년 2월 18일)”하고, 1897년에는 “을미년(1895) 11월 15일에 내린 조령과 조칙詔勅은 모두 취소하라(고종실록 권35 고종 34년 8월 12일).”라고 하여 1895년 강제로 시행했던 단발령은 일단락되었다.

그 후 1902년 군부·경무청에 소속된 군인·경찰·관원에 단발을 명하였는데, 심상훈 등이 군사들의 머리를 깎는 문제에 대하여 아뢰니 이미 군대내무서(軍隊內務書) 제16장 24조에 어길 수 없는 법으로 명백히 실려 있으니 어기지 말라고 하였다(고종실록 권42 고종 39년 9월 13일). 이후 1904년 갑진개화운동 이후 단발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었고, 1907년 양력 8월 15일 순종은 “짐이 이제 개선하기 위한 정사를 베풀어서 한 세상을 유신(維新)하고자 할진대 반드시 짐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겠다.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날에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겠으니 신민들은 잘 알고 짐의 뜻을 잘 따를 것이다.(순종실록 권1 순종 원년 8월 15일)”하여 단발령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895년처럼 강압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1910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 옷 착용과 단발령 강요를 염려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조선총독부에서 1895년처럼 단발을 심하게 강제하는 단발령을 내리지는 않았고, 색의와 단발에 대한 언급은 계속되었다. 1937년 학생들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단발령을 시행하였는데, 이것은 상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사치하고 멋내는 학생들의 머리를 자르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성격이 1895년의 단발령과는 달랐다. 광복 이후에는 주로 학생들 머리 모양 단속에서 단발령이 등장하고, 1968년에는 가발 수출업자들이 가발 제작을 위해 문교부에 단발령 철회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는 풍속 사범을 단속한다고 하며 장발을 단속하기도 하였고, 국민학생(초등학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발령이 행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1895년 단발령은 상투를 자르게 한 정부의 명령이었지만, 여기에는 일제의 정치·군사·상업·문화

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 단발령 이후 을미의병 활동이 활발히 일어났고, 아관파천 이후 단발령이 철회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단발령은 근대화를 구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후에 갑진개화운동, 순종 즉위(1907) 등을 계기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조선인에게 상투는 효, 성인 남성, 신분, 유교적 수양, 그리고 일부 보수파에서는 중화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단발령은 조선 남성들에게 전통적 신분 체계의 파괴 그리고 유교라는 기존 사상과 단절되는 것이었고, 백성들은 단발령 시행이 살아 있는 신체에 가해지는 심각한 박해로 받아들여, 정부에 대한 반감은 절정에 달하였다. 단발의 강요로 인해 생긴 반감은 개화 자체를 증오하는 것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은 또 ‘일본화’로 받아들여져 반일 의식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단발령은 근대화 과정에서 한·중·일 모두 겪어야 했던 문화적 충격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 특히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모양은 차차 바뀌었고, 단발 이후 근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단발 이후 일본에 대한 반일 정서가 기독교적 교화를 긍정적이게 만들었으며 서구 문화를 호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였다는 평가도 있다.

참고문헌 단발령에 관한 문화현상학적 연구(정경숙, 서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문명 표준으로서의 두발 양식(김어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상투와 단발령(이민원, 사학지, 1998), 상투와 단발령 그리고 하이카라머리(이상현, 실천민속학연구4, 실천민속학회, 2002), 신편 한국사41(국사편찬위원회, 2002), 한국 머리카락 논란의 역사-단발령에서 노컷운동까지, 1895~2007(강준만, 인물과사상113, 인물과사상사, 2007).

필자 남경미(南瓊美)

단발머리

정의 목 언저리 귀밑까지 짧게 한 머리 형태.

내용 단발머리는 일제강점기 남성들의 단발령과는 달리 자유의지에 의해 여성들 스스로 자른 것이며, 주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여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을 ‘단발미인’, ‘모단毛短걸’, ‘모던걸modern girl’이라 하였다.



여류음악가 박경희씨 귀국 | 1928. 10. 24 | 동아일보

신여성 중에서 최초의 단발을 한 단발낭斷髮娘의 호시는 청루靑樓의 기생 출신으로 나중에 사회주의 운동가로 변신한 강향란姜香蘭이었다. 그녀는 실연의 아픔을 겪은 후 1922년 서울 시내 광고에 있는 중국 이발관에서 머리를 자르고 남장을 한 채 남자들이 다니는 정측강습소에 나가 남학생과 같이 수학하겠다고 선언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배화학교에서는 머리 자른 여자는 다닐 수 없다고 하여 퇴학당했다. 그에게는 ‘조선 단발 미인의 비조’라는 호칭이 따라붙었다. 강향란의 이러한 행동은 단발이 단순히 외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사생활로 지탄의 대상이 된 여자 배우 이월화, 김명순이 단발을 하였다. 사생활로 비난을 받은 여성들이 단발을 하였기 때문에 단발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더욱 부정적이었지만, 단순히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여성만이 단발을 한 것은 아니었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신여성들이 단발을 하고 돌아왔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김활란 박사였다. 김활란 박사는 1928년 예루살렘 여행길에 베트남의 호찌민에서 콜리[苦力](제2차 세계대전 전의 중국과 인도의 노동자. 특히 짐꾼·광부·인력거꾼 등을 가리켜서 외국인이 부르던 호칭)들의 거추장스런 머리를 보고 “발전과 진보를

위해 쓸모없는 머리를 잘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르세유 이발관에서 긴 머리를 자르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또한 1929년 기생 중 처음으로 남도 출신의 정금숙, 서도 출신의 김금도 등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단발머리 스타일로 돌아와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 스타일이 신여성과 멋쟁이 여성들 사이에 급속히 유행하며 퍼져 나갔다.

단발머리의 대명사가 된 신여성 중에 당시 무용가로 이름 높은 최승희가 있다. 최승희는 서울 공연을 하러 온 당대 일본 제일의 무용단 ‘이시이 무용단’을 따라 도일하여 이시이石井漢에게 3년간 사사한 후 1929년 귀국하면서 단발을 하고 왔다.

1930년대에는 이미 외국의 문물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특히 획기적인 형태로 단발머리가 유행되어 학생, 신여성과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학생을 중심으로 유행되었다. 그 외 단발머리를 한 예로 1926년 윤영운의 모습과 박인덕, 길벽석의 모습을 그 당시의 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독창회와 무용회를 열었던 성악가 박화숙과 무용가 배귀자의 귀국 모습도 양장에 단발머리를 하고 안경을 쓴 모습이다.

특징 및 의의 단발머리는 단순히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유교적 윤리 속에 갇혀 살던 여성에게 그 굴레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며, 이는 서구화에 대한 동경으로 새로운 유행을 따르고자 하는 행위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 사이에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통치마를 입는 새로운 부류가 나오면서 ‘신여성’, ‘모던걸’이라는 새로운 유행어가 생겨나고,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차츰 이들의 차림은 안방 여성에게까지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꽃을 잡고(신현규, 경덕출판사, 2005), 이이화의 한국사(이이화, 한길사, 2003), 우리 생활 100년-웃(고부자, 현암사, 2001),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김경일, 푸른역사, 2004), 한가람 봄바람에 이화 100년 야사(민숙현·박해경, 지인사, 1981), 한국 머리카락 논란의 역사-단발령에서 노컷운동까지, 1895~2007(강준만, 인물과사상113, 인물과 사상사, 2007), 한국생활문화 100년(전완길 외, 도서출판 장원, 1995), 한국여성상장변천사(유수경, 일지사, 1991), 신여성(개벽사, 1925. 8), 어머니가 되기까지(동아일보, 1926. 1. 24), 경성에서 시카고 위 슐리안 대학으로 유학하였다(동아일보, 1927. 1. 20), 여의 길벽석(동아일보, 1926. 9. 8), 일본 기술계의 패왕인 천승 일행을 따라다니며 음악, 무용, 기술을 배웠다(동아일보, 1928. 4. 17).

필자 김현경(金炫京)

정의 조선 전기 왕비 예복 가운데 하나.

개관 단삼團衫은 중국 명나라 황후 및 명부命婦의 예복으로 조선 전기에 명나라에서 왕비의 예복으로 보내온 것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 중기 이후 원삼圓衫으로 형태와 이름이 바뀐 것으로 추정한다.

『대명회전大明會典』과 『명사明史』의 관복冠服 기록에 의하면, 1370년(홍무 3)에 제정되었는데, 단삼은 황후의 상복常服으로 제색諸色을 사용하여 금수용봉문金繡龍鳳文, 황비皇妃는 제색 금수봉문金繡鳳文, 황태자비皇太子妃는 제색 단령삼團領衫, 친왕비親王妃는 제색 단령삼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대帶는 금이나 옥을 사용했다. 1372년(홍무 5)에는 명대明代 명부命婦, 사서처士庶妻의 관복으로 예복禮服은 제색의 단삼에 수중치繡重雉무늬에 소재는 라羅를 썼고, 상복의 기록은 1391년(홍무 24)에 제색 진홍 단령삼團領衫이다. 사서처士庶妻는 예복으로 1370년에 단삼 천색淺色이며 저사릉라수견絞絲綾羅袖絹을 사용했다. 이와 같이 단삼은 명나라 황후와 황비의 상복과 명부와 사서처의 관복冠服 예복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단삼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11회 나타난다. 이는 『문종실록』 3권 즉위년(1450) ‘大紅織金雲肩海棠四季花紵絲團衫’ 한 건, 『단종실록』 14권 3년(1455) ‘大紅織金肩海棠四季花團衫’ 한 건, 『세조실록』 3권 2년(1456) ‘大紅織金雲肩滿池嬌團衫’ 한 건, 『예종실록』 4권 1년(1469) ‘綠織金花雲肩通袖膝欄紵絲夾團衫’ 한 건, 『성종실록』 5권 1년(1470) ‘綠織金花雲肩紵夾團衫’ 한 건, 『성종실록』 76권 8년(1477) ‘綠織金花雲肩通袖膝欄紵絲夾團衫’ 한 건, 『성종실록』 129권 12년(1481) ‘綠織金花雲肩通袖膝欄紵絲夾團衫’ 한 건, 『중종실록』 32권 13년(1518) ‘綠細花紵絲綴彩繡翟雞補子夾團衫’ 한 건, 『선조실록』 161권 36년(1603) ‘綠暗花紵絲綴彩繡翟雞補子夾團衫’ 한 건, 『선조실록』 163권 36년(1603) ‘綠暗花紵絲綴彩繡翟雞補子團衫’ 한 건, 『광해군일기』 121권 9년(1617) ‘綠暗花紵絲綴彩繡翟雞補子夾團衫’ 한 건

이 있다. 이 기록은 모두 중국 명의 하사품으로 왕과 왕비의 고명을 내리거나 명나라에서 조선의 왕비에게 내리는 예복이다. 연회나 예식 때 착용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볼 수 있는 단삼의 기록을 분석하면, 단삼의 색깔은 대홍색이 3건, 녹색이 8건이다. 이외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1627) 기록 한 건이 있다.

단삼은 말 그대로 ‘둥근 깃’ 형태의 옷으로 추정하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 기록에 따르면 중국 명에서 조선의 왕비에게 하사한 예복의 일종으로 색상은 대홍색과 녹색이 있었으며, 옷감은 저사紵絲로 만든 것이 아홉 건이었다. 옷감의 무늬는 사계화의 꽃 무늬를 직금하거나, 꿰을 수놓은 흥배를 달았다. 통수슬란 단삼 기록이 세 건이 있다. 박성실은 이는 어깨와 소매 그리고 무릎까지 직금한 것으로, 17세기 이후 직금 원삼과 연관된 것으로 본다.

조선 전기 둥근 깃[元衫, 圓衫]과 관련된 기록은 15세기 『눌재집訥齋集』과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미암일기眉巖日記』, 『의인왕후빈전훈전도감의궤』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현주의 연구에 따르면 “1627년까지 ‘단삼’과 ‘원삼’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다가 소현세자가 레 이후 ‘원삼’으로 일원화되면서 점차 전형적인 조선 후기 원삼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했다.

특징 및 의의 조선 전기 출토유물 가운데 여성의 복식으로 둥근 깃의 복식이 수습된다. 조선 전기에 수습되는 여성의 둥근 깃 포인 이 복식은 동시대의 남성의 단령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 특징은 깃은 남성의 단령과 같은 형태이나, 깃의 너비가 좁고, 소매는 통수이며, 무의 형태는 앞뒤가 마주 보는 접음형이다. 대부분 앞뒤 길이 차이가 있으며, 옷고름은 10cm 내외로 넓고, 홀옷으로 이색선으로 안단을 댄 것이 특징이다. 연구자들은 출토 복식에서 보이는 조선 전기 여자 단령이 『눌재집』에 언급된 원삼으로 추정하며, 17세기 전기를 기점으로 둥근 깃의 합입으로 변화하여 조선 후기 원삼으로 변했다고 추측한다. 원삼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출토유물은 경기도박물관 소장 김확金燮(1572~1633)의 부인 동래정씨(1567~1631)의 원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적의제도의 변천연구(박성실, 복식9, 한국복식학회, 1985), 조선시대 여성 단령에 관한 연구(송미경, 복식52-8 한국복식학회, 2002),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박성실·조효숙·이은주,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조선시대 원삼의 유래와 변천과정 연구(임현주,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필자 송미경(宋美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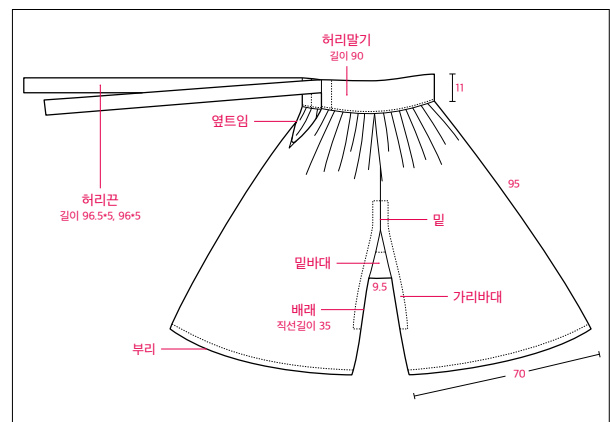
단속곳

정의 치마 안에 입는 가랑이가 넓은 바지 모양의 속옷.

내용 속곳은 시대에 따라 고袴(바지), 니의裏衣·裡衣(속옷)로 칭하는 가랑이가 넓은 속바지인데 용도에 따라 단속곳(단니의)과 속곳(니의)으로 구분한다. 이는 왕실 기록에서 확인된다. 선조宣祖의 왕비 의인왕후(1600)와 계비 인목왕후(1632)의 『빈전도감의궤殯殿都監儀軌』 염습의대斂襲衣衾에 단고單袴와 겹고袂袴 기록이 있고, 『상방정례尙方定例』(1752)에는 왕실 가족의 혼인과 생신이



단속곳 | 길이 93 말기너비 11 허리 95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단속곳 구성 명칭

나 명절에 만드는 옷 가운데 속옷으로 ‘겹니의袂裏衣’와 ‘단니의單裏衣’, ‘니의’가 있다. 1819년(순조 19) 이후 궁중 복식을 기록한 「궁중발기宮中撥記」에도 속옷에 니의와 속것이 있다. 왕위王位와 관계되는 왕실 가족의 의대衣襟에는 니의와 단니의로 기록하고, 대군부인 등의 의복에는 속것과 단속것으로 명칭을 차별하였다. 여기에서 니의는 ‘속[裡, 裏]’ ‘옷[衣]’으로 속것이며, 단니의單裡衣는 단속옷인 단속것이다. 이 속것과 단속것은 속곳과 단속곳이다. 속곳은 안에 입어 속속곳이라고도 한다.

16세기 파평 윤씨의 출토유물에는 밑이 막힌 바지(일명 합당고合襠袴)와 밑이 앞뒤로 트인 바지(일명 개당고開襠袴)가 있다. 이 두 종류의 바지는 겹쳐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의인·인목왕후의 염습의대 기록에 있는 고袴로 보인다. 그러나 17세기 해평 윤씨 묘 출토유물 가운데에는 화문초로 된 홀바지와 화문단으로 된 겹바지가 함께 끼워져 수습되었는데, 모두 바지통이 넓은 합당고이다. 이는 속곳과 단속곳으로 이해된다. 속곳과 단속곳은 모양은 같으나 소재와 크기 차이에서 구별되며 안팎으로 겹쳐 입는 속옷임이 확인된다. 「궁중발기」에 의하면 치마 안에 속옷은 일반적으로 단니의(단속것, 합당고), 봉디[奉只](바지, 개당고), 니의(속것, 합당고)를 함께 입었는데, 단니의는 치마 바로 안에 입어 속치마의 기능이 있고, 니의는 안에 입어서 위생적인 기능의 속옷임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속옷은 신체 보호와 위생·방한·방서뿐만 아니라 겉옷의 아름다운 자태를 표현해 주는 받침옷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속옷의 옷감은 피부와의 밀착 정도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며, 그 구성은 속옷의 기능과 함께 겉옷의 실루엣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속곳의 색과 소재는 기록과 유물에서 확인되듯이 염색하지 않은 소색(백색)이 대부분이다. 속옷이기 때문에 주로 위생적인 면(서양목·세목·면포)이나 저포·세포·춘포 등을 사용하였고, 부드러운 촉감의 주(명주)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단속곳은 겉치마 안에 입는 속옷으로 모양은 속곳과 같으나 겉옷의 맵시를 살리기 위해 더 넓고 크며, 옷감은 계절에 따라 겉치마와 비슷한 좋은 옷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합당고인 속곳과 단속곳의 구성은 홀이나 겹, 누비 등으로 다양하며, 바짓부리

를 넓게 하여 바지 양 가랑이 사이에 밑을 달아 주었다. 밑은 허리부터 가랑이까지 긴 삼각형이나 바지통이 더 넓어지면서 밑아래 부분에 작은 삼각형 모양으로 달기도 하였다. 홀옷인 경우에는 밑이나 가랑이에 바대를 대어 튼튼하게 해 주었다. 넓은 허리 부분은 밑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중심을 향해 4~5개의 주름을 잡아 허리 말기를 달아 주고 허리끈으로 여며 준다. 이때 트임을 주어 입고 벗기 쉽게 하였다.

참고문헌 古文書集成, 尙方定例, 옛 속옷과 침선(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06), 조선시대 여성의 속옷 종류와 조형적 특징(박성실, 어머니의 유산, 국립여성사전시관, 2017),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박성실·조효숙·이은주,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조선전기 출토복식 연구(박성실,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조선재봉전서(김숙당, 민속원, 1924), 한복 만들기-속옷(안애영·심해진, 미진사, 2011), 한국복식28(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0).

필자 안애영(安愛英)

닭의장풀

정의 닭의장풀과의 한해살이풀로 전통 염색에서 청색을 물들일 때 쓰는 염료.

내용 들이나 농촌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여름에 파란색 꽃이 피는데, 모양이 닭의 벼슬처럼 생겼다. 줄기는 마디가 크고, 잎은 어긋나게 붙는데 좁고 긴 달걀 모양이다. 어린잎과 줄기는 나물로 먹으며, 종기 등의 약재로도 사용된다. 또 말린 풀을 삶은 물은 이뇨 작용을 해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닭의



닭의장풀 | 국립수목원

장풀의 꽃에 함유되어 있는 색소는 메타로-안토시아닌류인 콤멜리닌(commelinin)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달개비·닭개비·닭밑씻개·닭의 꼬꼬·압척초·계장초·닭의씨가비·닭의풀꽃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고, 그 색을 『규합총서(閏閣叢書)』에서는 ‘번루(煩累)’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침에 꽃잎을 따서 작은 사기병에 넣고 마개를 닫은 후 하룻밤 놔두면 물이 되는데, 이것으로 모시를 물들이면 야청빛 같다고 하였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압척초 꽃은 종이를 진하게 염색하므로 청화라고 한다(鴨跖草其花濃者浸染紙呼曰青花)”라는 기록이 있으며,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꽃의 즙을 취하여 청벽색을 낸다.”라는 기록이 있다. 쉽게 퇴색하는 성질이 있어 책이나 문서에 비점(批點)이거나 문장 따위를 비평하여 아주 잘된 곳에 찍는 등근점(等근점)을 찍을 때 사용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특징 및 의의 일본에서는 닭의장풀을 ‘노초(露草)’라는 명칭 외에 모자화(帽子花)·압두초(鴨頭草)·월초(月草)라고도 부르는데, 모자화나 압두초는 꽃의 생김새에서 비롯된 이름이고, 월초는 노초의 옛 이름이다. 일본에서는 개량종 닭의장풀인 대모자화(大帽子花, *Commelina communis* var. *hortensis*)의 액즙을 화지와紙에 흡수시켜 청화지(靑花紙)를 만드는데, 닭의장풀은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견뢰도가 매우 약하여 직물의 염료로는 가치가 없고, 오늘날에는 호염(糊染) 등과 같은 밑그림을 그릴 때 사용한다.

참고문헌 규합총서에 나타난 전통염색법 해설(조경래, 한국학술정보, 2007), 색다른 색이야기(조미숙, 이매진, 2007).

필자 조미숙(曹美淑)

담복

禫服

정의 국상(國喪)이나 일반 가정의 상(喪)에서 삼년상을 치른 후 백일 동안 입던 엷은 옥색의 옷.

내용 탈상한 후 담제(禫祭)를 지낼 때까지 입는 엷은 옥색의 상복(喪服)을 담복(禫服) 또는 천담복(淺淡服)이라고 한다.



천담복 | 길이 128 폭 54 화장 95 | 1865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삼년상, 즉 망자 사망 2주기에 빈소를 철거하고 탈상한 후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한 시절을 더 기다린다는 뜻을 담아 27개월이 되면 담제를 지낸다. 상복을 벗는 날이어서 길제(吉祭)라고도 한다. 이로써 산 사람이 망자에게 베푸는 상례가 종결되고, 망자에 대한 제례가 시작된다. 천담복은 상복 중에서 가장 가벼운 옷으로 이 차림이 곧 제사 옷이 되며, 담제를 지낸 다음날부터 평상복을 입을 수 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소상(小祥)을 한 달 앞당겨 열한 달 만에 연제(練祭)를 지내는데 연제 후부터 담제까지 입는 옷이기도 하다.

왕이 상중이라 할지라도 종묘대제(宗廟大祭)를 친히 행하게 되면 흉(凶)을 피하고 길(吉)을 따른다는 뜻으로 천담복인 참포를 착용하였다. 또한 임금이 능(陵)에 친히 배례(拜禮)할 때 천담복을 입으며, 일식이나 월식이 있으면 임금이 해나 달이 다시 완전해질 때까지 월대(月臺)에서 기도하였는데, 이때 천담복을 입었다.

특징 및 의의 조선 왕실의 상례는 국부나 국모의 상례라는 개념으로 치렀다. 조선사회에 있어서 모든 사회 조직들, 이를테면 가족이나 국가, 지역사회가 가(家)의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 계급, 즉 양반 계급은 유교적 가치 체계를 스스로 엄격히 실천하고 상례로 대표되는 의례를 통해 피지배 계급인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강제함으로써 조선의 사회 체계를 견고하게 유지해 왔다.

상중에는 상례 시, 집무 시, 연거燕居 시로 나누어 의복을 착용했다. 상중이라도 국가에서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왕은 상에 관계되는 일에만 상복을 입고, 상례의 절차에 따라 집무복을 구별하여 입었다. 담제에는 참포參袍, 익선관, 오서대烏犀帶, 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며, 담제 후에 비로소 익선관·곤룡포·옥대玉帶·화靴로 구성되는 평상시 집무복을 착용했다. 연거복은 포의布衣·포립布笠·포대布帶로 이루어졌다. 대군 이하 종친, 문무백관들은 담복으로 참포, 오사모烏紗帽, 흑각대黑角帶, 백피화白皮靴를 착용했다. 이것은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로부터 영조 대에 편찬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없었으나 1757년(영조 33)에는 백피화가 흑피화로 바뀌었다.

『사의士儀』의 규정에 의하면, 담복禪服으로 참포립參布笠·추준망건龜駿網巾·참포삼參布衫·참포대參布帶·숙마화熟麻靴 또는 조화早靴 등 모두 참색參色을 사용하고, 부인은 담청색淡靑色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예부운禮部韻』에는 참鬚을 얹은 청흑색靑黑色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진하게 물들인 옥색玉色 또는 백색을 사용했다. 문무백관은 흑색 단령포에 흑각대를 띠며, 오사모를 착용하고 흑피화를 신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조선시대 상복 복제 연구(이영주,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김소현(金素賢)

담호 襤褸

정의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말까지 포袍 위에 입는, 반소매이거나 소매가 없는 형태의 긴 덧옷.

내용 ‘담호’의 기록은 1346년 추정 고려시대 어학학습서인 『노걸대老乞大』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담호는 『노걸대』에 ‘搭胡·搭護·搭忽’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더그레’로 언해되었다. 『역어유해譯語類解』에서도 이와 같이 나타난다. 남송南宋 정사초鄭思肖의 시에는 “담호搭護는 원元の 복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담호가 원나

라시대의 옷임을 알 수 있다. 『노걸대』에서는 봄에는 ‘紫羅繡搭胡’ 여름에는 ‘上頭繡荊褐紗搭胡’ 겨울에는 ‘鵝靑六花搭胡’의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 담호 유물은 1346년에 조성된 문수사 극락보전의 금동아미타불좌상金銅阿彌陀佛坐像에 나온 불복장품佛服藏品인 사저교직紗苧交織 담호가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해인사 대적광전大寂光殿 목조비로자나불좌상木彫毘盧遮那佛坐像의 불복장품인 삼베 담호가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선조, 광해군, 영조, 정조, 고종, 순종 대의 기록에 담호가 등장하는데, 총 100건에 160여 회 나타난다. 세종 대에 처음 등장하는 담호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습襲에 사용되는 복식으로 원령圓領·담호搭胡·철릭과 함께 기록되어 있고, 담호는 반비의半臂衣라는 부가 설명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조선 전기의 담호는 외교 사신과 신하들에게 하사품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조선 전기 담호의 색상은 모두 26색이다. 이를 색상별로 분류하면 녹색·청색·황색·홍색·자색 계열 그리고 회색과 백색이 있다. 제일 많이 등장한 색은 초록으로 단종, 세조, 성종, 연산군에 걸쳐 23회이다. 다음은 남색으로 세조, 성종, 연산군 대로 12회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은 유청柳靑과 청靑으로 7회와 5회이다. 세종에서 광해군 대에 사용된 담호의 옷감은 74.47%가 면綿·저紵·주紬·사紗·라羅처럼 비교적 얇았고, 필단匹段·단자段子와 같은 단류段類가 나머지를 차지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담호가 기록된 시기는 광해군 재위기인 1608~1623년이며, 영조 이후에 ‘담호’가 다시 등장한다. 조선 전기 출토복식에서 곧은 깃에 무가 달려 있는 반수의半袖衣 형태의 담호는 몰년沒年이 17세기 전기인 강대호(1541~1624) 묘 출토복식과 윤선언(1580~1628) 묘 출토복식 이후에는 더 이상 수습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17세기 전기 이후부터 단령團領이 직령直領과 함께 겹옷으로 변하면서 단령의 받침옷인 담호의 기능이 단령의 안감(속옷)인 직령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이응해(1547~1626), 김확(1572~1633), 신경유(1581~1633) 묘에서부터 겹단령이 출토되고 담호는 출토되지 않는 것을 보아 1630년경을 기점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답호 | 길이 136 폭 59 화장 46 | 16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직령과 유사한 형태의 반소매 옷인 답호는 1630년 경 이후 사라지나, ‘답호’라는 명칭은 조선 후기에도 포복 위에 덧입는 소매가 없는 옷으로 남아 있어 ‘답호’의 형태는 변화하였다. 반소매였던 소매는 없어지고 직령과 나란히 변화하던 ‘무’ 또한 사라진다. 『사례편람 四禮便覽』에서는 답호를 ‘무수창의無袖褙衣’라고 했다. 이는 소매가 없는 창의, 즉 소매가 없고 뒤트임이 있는 옷이다. 『사례편람』에서 무수창의라고 설명한 답호와 유사한 복식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탐릉군 이변李崐(1636~1731) 묘에서 출토된 답호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답호가 중국 명 신종神宗(1563~1620)의 정릉定陵에서 출토되었다. 『영조실록英祖實錄』에는 영조英祖의 국상(1776) 때 재궁의대粹宮衣襟로 답호 23점과 전복 3점이 기록되어 있어 답호와 전복은 다른 옷임을 알 수 있다. 순조 국상(1834)에는 흥례복으로 ‘쾌자’가 등장하는데, 답호와 쾌자가 같은 형태로 답호라는 명칭 대신 ‘쾌자’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1884년(고종 21)에 전복戰服 제도의 명칭에 관하여 명하는 기사에서 “오늘의 전복 제도는 바로 옛날의 반비의半臂衣로서 흑 작자緋子라고도 하고 답호搭護라고도 일컫는다. 당나라 때 사인士인들이 앞을 다투어 입었으며 우리나라의 조관朝官들도 일찍이 장복章服 안에 입었던 것이다. 전번에 전교에서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 속명俗名으로 일컬었는데, 듣자니 전진戰陣의 복장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옛것을 상고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속명이 우아하지 못하긴 하다. 절목 안에 ‘답호搭護’로 고쳐서 부표付標하고, 생원·진사·유학은 당나라 때 사인들의 전례대로 또한 답호를 입도록 절목 안에 첨가하라.”(고종실록 권21 고종 21년 6월)라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경연관經筵官 김낙현金洛鉉은 상소에서 “유생들에게 답호를 입히도록 한 명命을 도로 철회하여 과거에 응시하는 선비와 글공부하는 이들 및 관례, 혼례, 제사, 조상弔喪 때의 복장은 반드시 도포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옛 제도를 보존하게 해 주신다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1888년(고종 25)에 직강直講 김영선金榮善이 올린 상소에서 “신이 몇 해 전에 전하의 명이 내려진 것을 보니 ‘조복, 제복, 상복喪服 외에 직령 도포를 비롯하여 소매가 넓은 옷들은 다 없애버리고 단지 소매가 좁은 긴 도포를 입으며, 관리로 있는 사람은 전복戰服을 더 입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하여 또 전복을 답호搭護라고 부르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 그러니 전복을 답호로 개칭한 것은 그 실지는 없고 그 이름만 빌린 것으로서 곧장 답호를 쓰는 것만 하겠습니까?”(고종실록 권25 고종 25년 10월)라고 하여 답호와 전복을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군국기무처에서 의안을 올릴 때 기사에 의하면 “조정 관리의 의복 제도는 임금을 뵈는 때의 차림은 사모紗帽와 장복章服, 품대品帶와 화자靴子로 하고 한가히 지낼 때의 사복私服의 칠립漆笠, 답호搭護, 실퍼로 하며 사인士인과 서인의 의복 제도는 칠립, 두루마기, 실퍼로 하고 군사의 의복 제도는 근래의 규례를 따르되 장수와 군사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종실록 권31 고종 31년 6월) 이후 같은 해 “총리대신 이하 각 관원들이 근무할 때 복색服色은 대궐 안 관청에서 흑단령, 품대, 화자이고 대궐 밖의 각 관청에서는 칠립, 답호, 사대로 규정을 정한다.”(고종실록 권32 고종 31년 9월)라고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조신朝臣의 대례복은 흑단령으로 하고 대궐에 나올 때의 보통 예복은 검은색 토산 명주로 지은 두루마기와 답호 및 사모와 화자로 하여 명년 설날부터 시행하라.”(고종실록 권32 고종 31년 12월)라고 하였다. 1900년 문관복장규칙이 반포될 때까지 연거복으로 두루마기 위에 답호를 착용하였고, 평상복으로도 궁중과 서민에게서 널리 착용되었다. 『고종실록』에는 전복과

답호의 명칭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당시 전복과 답호는 형태가 유사했으나 정확한 형태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복과 답호를 구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복은 깃이 없는 대금형의 긴 옷으로 허리 아래부터 긴 뒤트임이 있으며 짧은 옆트임도 있는 옷이다. 당시 답호도 뒤트임이 있고 소매가 없는 덧옷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로 해석하였다. 현종 대인 1848년에 그린 『진찬의궤進饌儀軌』에 등장하는 패자掛子是 전복 형태에 깃머리가 둥근 방령에 동정이 달린 옷이다. 그러므로 순조 국상 기록에 있는 패자를 답호로 보았을 때, 답호는 패자와 같은 형태의 옷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답호는 원나라의 옷이며, 고려 말기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조선 말기까지 답호는 명칭은 그대로인 채 형태가 변화하였다. 고려 말기와 조선 전기 답호의 용도는 평상복 철릭 위에 덧입는 옷으로, 관복인 단령의 받침옷으로 사용되었다. 조선 전기 답호의 형태는 직령과 유사하며 소매가 반소매이다. 1630년대 이후 반소매 형태의 답호는 사라지고, 18세기 이후에는 소매가 없는 직령과 같은 무가 있는 답호가 출토유물에 잠시 보이다가, 19세기 후반에는 소매 없는 창 의 형태의 답호가 나타난다. 19세기 이후 답호는 포 위에 덧입는 옷으로 고종 때에는 두루마기와 더불어 통상예복通常禮服으로 착용되었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進饌儀軌, 다시 태어난 우리옷 한생(서울역사박물관·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6), 더그레에 관한 연구(변지연,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명선-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조선시대 답호연구(송미경, 복식59-10, 한국복식학회, 2009), 조선시대 무수의에 관한 연구(이주영,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필자 송미경(宋美京)

당의 唐衣

정의 조선시대 여성들이 소례복小禮服으로 착용하던 옆선이 깊게 트인 긴 저고리.

역사 당의唐衣는 저고리보다 길이가 길고 도련이 둥글

고 양 옆선이 깊이 트여 있다. 수구에는 예복임을 표시하는 흰색 거들지가 달려 있다. 당의는 ‘당저고리唐赤古里’, ‘당고의唐串衣’, ‘당의唐衣服’, ‘당한삼唐汗衫’, ‘당적삼唐的衫’ 등의 명칭으로도 지칭되었다.

당의는 조선 전기의 예복용 긴 저고리에서 발생한 옷이다. 문헌에 처음 당의가 등장한 것은 17세기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보면 1610년(광해군 2)에 명부命婦의 모임에 평시라면 장삼長衫에 수식首飾을 하여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니 양이엄涼耳掩에 당의 차림으로 들어오라고 한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당의가 소례복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사실을 볼 수 있다.

내용 당의는 평상복과 예복의 중간에 속하는 옷이었다. 왕실에서는 대비大妃 등 옷전에 드리는 문안 인사나 친잠례親蠶禮와 같은 규모가 작은 예식에 착용했다. 왕실의 여성인 왕비와 세자빈을 비롯한 비빈들과 공주,翁주는 물론 궁 안에서 직임을 맡고 생활하는 상궁을 비롯한 내명부內命婦들은 늘 격식을 갖추어 문안례를 드리는 일이 잦았으므로 당의를 일상적으로 착용하였다. 외명부外命婦는 궁 안에 들어갈 때 예의를 갖추기 위해 당의를 착용하였고, 일부 지체 높은 반가班家에서 계례복笄禮服이나 혼례복으로 당의를 입기도 하였다.

어린이들도 당의를 입었다. 첫돌을 맞은 덕혜옹주가 입은 사진과 민간에서 혼례 때 화동花童에게 색동소매에 홍배를 단 당의를 입힌 사진 등이 남아 있다.

당의는 신분에 따라 혹은 행사와 절기에 따라 색상은 물론, 그 재료와 장식에 차이를 두었다. 궁중에서는 신분에 따라 보補나 홍배胸背를 달아 입었다. 또한 직금



당의 | 친잠례 단체 사진 | 1911 | 국립고궁박물관

織金 직물을 사용하거나 금박金箔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당의는 보기조차 어려운 상류층의 예복이었다.

색상으로는 초록색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자주색과 남송색南松色, 백색 혹은 아청색靑色 당의도 있다. 자주색은 동지冬至, 남송색은 춘절春節, 흰색은 단오端午 등 각 색마다 고유한 계절감을 담고 있다. 자색 당의는 왕비의 겨울용 당의이며, 왕비나 왕녀王女의 유물에서만 볼 수 있다. 백색 당의는 단오 이후 여름철에 입는 당한삼에서 혹은 국상國喪 때 착용했던 상복 당의에서 나타난다. 아청색 당의는 신분이 낮은 궁녀들이 왕실 혼례와 같은 중요한 행사에 입었던 것으로 보이며 유물로도 전해진다.

당의는 조선 후기에 들어 궁중에서 각종 행사가 늘어 자주 활용하게 됨에 따라 제작법도 다양해진 것으로 보인다. 당의에는 네겹당의, 겹당의, 홀당의, 깍은당 한삼 등 바느질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중 가장 보편적인 당의는 겹당의이다. 초록으로 겹을 하고 안은 홍색이며, 자주색 고름을 단다. 네겹당의는 가장 격이 높은 당의였으며, 왕비의 유물이 세종대학교박물관에 남아 있다. 네겹당의는 안팎에 모두 홍색인 겹당의와 초록색의 겹당을 한꺼번에 겹쳐 입는 것이다. 한편 홀당을 네겹당의처럼 각각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 겹쳐 입게 만든 것이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화순옹주和順翁主의 겹당의에서 나타난다. 홀당은 여름철에 주로 입으며, 바느질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양식이 있다. 당의의 곡선을 그대로 살린 채 솔기를 가늘게 접어 만든 녹색 당의와 도련의 솔기를 돌돌 말아 감추어 바느질한 후 안으로 오그라들게 잡아당겨 입체적인 형태를 만든 깍은 당한삼이 있다.

특징 및 의의 당의는 계속 예복으로 입었지만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16세기에는 목판깃이었으며 이후 반목판깃, 당코깃, 동그래깃 등으로 변화하여 저고리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옆트임과 도련 선은 초기에는 긴 저고리에 옆선만 트인 형태였으나, 점차 트임이 진동까지 깊어지면서 완만하게 휘어졌던 곡선이 점차 뚜렷해졌다.



① 광해군비 당의 | 17세기 초반



② 당의 | 18세기 후반



③ 영친왕비 윤봉문적금단 두 벌 당의 | 근대



④ 덕혜옹주 문향라 부금 당의 | 근대

당의 | ① 길이 76 폭 52 화장 90.5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길이 89 화장 48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③ 길이 78 폭 59 화장 69.8 | 국립고궁박물관, ④ 길이 40 폭 23.5 화장 34 | 국립고궁박물관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당의에 관한 연구(권혜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김용숙, 일지사, 1987).

필자 홍나영(洪那英)

당항라 唐亢羅

정의 중국에서 수입되던 항라.

□

당항라

내용 당항라唐亢羅는 중국에서 수입되던 항라를 일컫는 말이다. 항라는 중국의 생산지인 항주杭州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 조선에서는 당항라로 불렸다. 항라는 여직組織으로 제직된 직물이며, 경사가 규칙적으로 기수의 위사와 평직으로 짠 다음 익조직으로 경사를 교차시켜서 가로 방향으로 줄무늬가 생기는 직물이다. 20세기 초에 조선에 수입되던 견직물의 대부분은 중국산이었는데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1924년 7월 31일에 사치품 관세를 실시하여 수입 중국 견직물에 종가從價 10할의 관세를 부과하자 당항라를 포함한 중국산 견직물의 밀수입이 급증하고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다. 그해 일본의 후쿠이福井와 이시카와石川 일대에서 중국의 당항라를 모방하여 제직하기 시작하여 이후에는 일본의 당항라가 수입되었다. 당항라 한 필의 길이는 20야드이고 폭폭은 21인치였다.

1925년에 여자 적삼에 소요되는 당항라 한 갑은 4원, 생세저生細苧는 2원 70전으로 고운 상품上品 모시의 두 배에 달하는 가격이었지만, 늦은 봄부터 이른 가을까지의 하절기 옷감으로 꾸준히 사용되었다. 그러다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당항라 대신 평안남도 덕천에서 생산되던 항라가 품질이 좋아 점차 덕천 항라를 사용하였는데, 덕천 항라는 국내는 물론이고 만주와 일본으로 수출도 되었다.

특징 및 의의 항라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되던 것을 당항라라고 하였다. ‘당唐’은 중국의 당나라를 의미하지만 당나라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을 구분하기 위해 물품 용어 앞에 ‘당’자를 붙이기도 하였다. 항라는 여직으로 제직되므로 얇고 가벼워 늦은 봄부터

이른 가을까지의 의복 소재로 사용되었다. 특히 직물 조직상 생기는 규칙적인 줄무늬는 항라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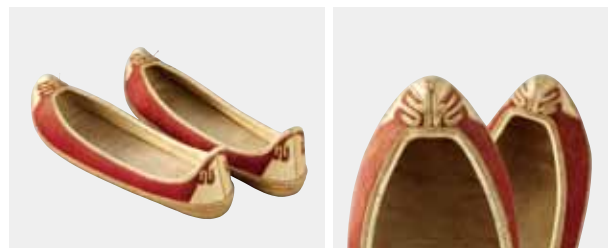
참고문헌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内地に於ける鮮人向絹織物の生産に就て(税田谷五郎, 朝鮮126, 朝鮮總督府, 1925), 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吉永彦太郎, 朝鮮叢報, 朝鮮總督府, 1915), 여름 의복차의 시세(동아일보, 1925. 7. 10), 특산조선의 실태(동아일보, 1936. 1. 14).

필자 박윤미(朴允美)

당혜 唐鞋

정의 앞코와 뒤축이 당초문으로 장식된 운두가 낮은 신.

내용 당혜唐鞋는 현존하는 유물로는 주로 가죽과 비단으로 제작된 조선시대 양반가 부녀자들의 신발이지만, 문헌에는 남자가 신던 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 보면 중종 대에 평안도와 함경도의 병사들에게 흑서피당혜黑黍皮唐鞋를 내려 준 기록이 있으며, “정군正軍의 자식은 모두 도포를 입고 당혜를 신는다.”(영조실록 영조 26년 6월)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1786년 『일성록日省錄』에도 훈련원첨정 이정범李廷範이 “근래 상놈의 무리가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할 것 없이 감히 탕건과 도포를 착용하고 당혜를 신고 다닌다.”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외에도 유득공柳得恭이 쓴 『경도잡지京都雜誌』에 사대부의 복식에 대하여 “평상시 거처할 때 흔히 복건, 방관, 정자관, 동파관을 쓰고, 조관은 당건을 쓴다. 그러나 노상에서는 모두 갓을 쓰고 당혜, 운혜雲鞋를 신는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로 미루어 보아



당혜 | 길이 240 너비 7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중종 대에는 군인들이 신기도 했지만 18세기 후반까지 사대부 남자가 편복 차림에 당혜를 신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27년 발행된 이능화의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에는 “신랑의 차림을 점검하는 데 녹피만당혜(鹿皮縵唐鞋)와 녹피화(鹿皮靴)를 준비한다.”라고 하여 신랑의 예복에도 갖추어 신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자용 당혜는 유물로는 전해지는 것이 없고 다만 풍속화에서 그 모습을 추정하여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현존하는 남자의 신인 태사혜의 장식이 여자용 당혜와 유사하며 그 기록을 찾아보면 19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로 보아 문헌에 등장하는 남성용 당혜가 후대에 이르러 태사혜로 불리며 현재에 이른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여성용 당혜에 관한 기록은 1893년 의화군 부인의 길례 때 사용한 품목이 실린 「궁중발기」에 도홍 별문단 당혜 한 부가 전해진다. 현재 유물로 전해지는 당혜는 모두 여자가 착용한 것으로, 영친왕비의 다홍 금선단 당혜를 비롯하여 주로 왕실과 반가에서 착용되었으며 다른 신발에 비해 소량이 전해지고 있다. 당혜는 신코와 뒤축에 있는 당초문(唐草紋) 장식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생각된다. 신울(신발의 양쪽 가에 댄, 발등까지 올라오는 올타리)은 홍색·자색·연두색 비단으로 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신코와 뒤축의 장식은 주로 신울과 보색으로 청색이나 홍색 또는 자색 비단으로 당초문장식을 대었다. 그 외에 신울에 흰색과 검정색과 같은 무채색의 비단·모직·가죽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안창은 가죽으로 마감하기도 하였고, 담(짐승 털을 물에 빨아 짓이겨 평평하고 두툼하게 만든 조각)을 덧대어 보온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형태는 앞코가 남자용 신발보다 뾰족하게 올라가 있고 신울의 간격이 좁아 날씬하다.

특징 및 의의 당혜는 현존하는 유물의 대부분이 조선 후기의 것이며 주변 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조선 특유의 형태미를 나타낸다. 신코의 각지고 뾰족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울에서 급격히 낮아졌다가 뒤축으로 이어지는 날렵한 곡선의 아름다움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조선시대 남자용 혁·포제 신에 관한 연구(곽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조선시대의 신(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

관, 2016), 한국인의 신발, 화혜(최공호 외, 미진사, 2015), 화·혜·리(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필자 곽경희(郭京熹)

대 帶

정의 천, 가죽, 금속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소재와 장식을 붙여 허리에 두르는 띠.

역사 대帶는 처음에는 풀(草), 깃[羽], 가죽[皮]으로 엮은 띠를 둘렀다가 직조의 발생으로 포백대(布帛帶)가 생기고 금속문화의 발달과 함께 포백대, 혁대(革帶) 위에 금속으로 장식한 과대(鈎帶)가 생겼다. 고구려 벽화와 문헌에 의하면, 저고리인 유(襦)나 두루마기인 포(袍)의 허리에 포백대를 둘렀음을 알 수 있다. 백제는 260년(고이왕 27)에 신분에 따라 띠의 색을 달리해 7품은 자대(紫帶), 8품은 조대(皂帶), 9품은 적대(赤帶), 10품은 청대(靑帶), 11~12품은 황대(黃帶), 13~16품은 백대(白帶)를 띠었다고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저고리와 두루마기 위에 포백대를 맨 그림이 많다. 신라는 진평왕이 즉위한 해인 579년에 상황(上皇)이 왕에게 옥대(玉帶)를 받으라 하였다는 기록과 649년(진덕여왕 3) 1월에 중국의 의복을 입기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과대의 유물 또한 많이 남아 있다. 과대는 삼국이 공통으로 사용하였으며, 과의 형태와 붙인 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과의 밑에는 심엽형(心葉形)의 것이 달려 있어 거기에 각종 요패를 연결하였는데, 요패는 과대에 늘어뜨리는 장식품으로 계급에 따라 수식이 달랐다. 통일신라 때의 흥덕왕 복식금제 중에 진골대 등에서 평민까지 계급에 따라 연문백옥(硯文白玉)·오서(烏犀)·유(玉)·철·동·은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고려시대의 대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高麗史)』와 『고려도경(高麗圖經)』을 통해서 혁대·속대(束帶)·정대(鞮帶)·사대(絲帶)·전대(纏帶)·戰帶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대는 백관복에 착용하는 품대와 평상복에 매는 사대와 광다회(廣多繪)·전대·대대(大帶)·광대(廣帶) 등 포백대로 대별된다. 계급에 따른 대의 착용은 백관복과 함께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완성되었고,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부분 수정 보완되었다.

내용 대를 종류에 따라 구분하면, 옷감으로 된 대대·광대·전대·말대抹帶, 실로 짠 사대·광다회, 가죽이나 견 위에 금속제 과를 붙인 각대(속대)·정대(야자대也字帶), 금속제 요패가 늘어진 과대가 있다. 고분벽화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포백대의 모습은 직물로 된 것인데 주로 좁은 띠이다. 이외에도 사대(실띠), 넓은 폭의 띠 등이 있으며, 옷 위에 매는 위치도 앞, 뒤, 옆 등 다양하다. 고구려 관계 기록에서는 자라대라는 비단대의 착용 기록이 있는데, 귀인층의 띠는 폭이 넓고, 서민층은 폭이 좁았다. 시종이나 마부 같은 천민은 사대를 띠었다고 한다. 신라 유물 중 포백대는 사신과 김유신 묘 12지신상과 이차돈 상이 유나 장유 위에 매고 있다.

대

대대는 왕이나 백관의 제복과 조복, 왕비의 적의에 착용하였다. 견이나 비단으로 만들었고 허리 부분과 늘어트린 부분이 있으며, 여기에 실로 짠 조紐를 더하여 늘어뜨렸다. 『진서晉書』여복지輿服志에 의하면, 원래 대대는 신紳이라 하여 홀笏을 꽂았던 것이 점차 변형되었다고 한다. 조선에서는 명나라 제도와 같이 수綬를 달아 허리에 둘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서례에 의하면, 왕이 면복에 착용하는 대대는 비색緋色과 증縹를 합하여 꿰맸다고 하였다. 백관의 대대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조선 말기의 유물을 보면 검은 백색 비단이고, 안은 적색 비단이며 겉과 안 모두 검은색 선을 대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보라색 선을 두르기도 하였고, 조가 없이 적색 비단과 청색 비단을 신의 크기와 같이 만들어 두 겹을 양쪽으로 늘어뜨리기도 하였다.

광대는 구군복에 사용된 대로 안은 무명, 겉은 비단으로 하여 심을 넣고, 너비는 14~15cm, 길이는 가슴둘레 정도로 만들었다. 이것은 전복戰服에 가슴 위쪽으로 바짝 치켜 꼭 졸라맨다.

전대는 기다란 형질을 사선으로 돌려가며 박아 만든 대로 전시에는 군졸들이 쌀을 넣었다는 말도 전해온다. 고려 말에 순군巡軍·나장螺匠·영정領正·위정尉正 등이 매도록 규정된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전복 위에 매었다. 구군복을 착용한 고급 무관도 전복 위에 매었다.

말대는 다듬은 흰 명주로 꿰매어 만든 허리띠로 삼국시대의 저고리와 두루마기 위에 매던 포백대가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의하면 아악雅樂의 당상堂上·등가登歌·공인工人과 당하堂下·중공衆工의 띠

라고 하였다. 이것은 지금의 남자 바지와 여자 치마의 허리띠와 같다.

사대와 광다회는 실로 짠 대로 사대는 원통형으로 짰고, 광다회는 넓게 짰다. 이것들은 조선시대 양반 평상복의 가슴 위에 매던 것으로 계급에 따라 색이 달랐다. 광다회는 폭이 넓고 납작한 실을 두 가닥 또는 세 가닥, 네 가닥 등으로 합사하였고, 주로 의복에 두르는 허리띠로 쓰였다.

정대는 고려와 조선 때 공복에 착용하던 대이다. 포로 대의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가죽을 댄 다음, 장방형 혹은 방형으로 된 과를 연결시킨 것이다. 이것은 각대보다 길어 뒤나 옆으로 길게 늘어뜨리게 되어 있는데, 신분과 계급에 따라 과의 재료가 달랐다.

혁대는 조선시대 상복常服과 조복, 제복 등을 입을 때 벼슬 있는 남자들이 착용하던 대로 속대라고도 한다. 이것은 심엽형의 과를 붙였으며, 양쪽 끝에 교구가 있어 물리게 되어 있다. 가슴에 띠었는데 길이는 사용자에 따라 달라서 109~141cm 정도였다. 가슴둘레보다 크므로 겨드랑이 밑에 대끈을 달아 고정시켰다. 이것도 과의 재료에 따라 신분과 계급이 구분되었다. 신라 때 공복 등에 띠를 두르던 것이 제도화되었다. 처음에는 포대布帶를 만들어 쓰다가 나대羅帶, 혁대로 변하고 야금술의 발달에 따라 금·은·동으로 만든 금대金帶·은대銀帶·동대銅帶·옥대 등을 착용하였다. 고려시대에도 계급에 따라 제도화되어, 대체로 3·4품의 근시近侍 이상은 금대, 5·6품의 조관朝官은 검은 가죽으로 만든 각대(흑각속대黑角束帶)를 둘렀다. 조선시대에는 더욱 발달되었다. 비취옥을 붙인 비취대는 왕이 사용하였고, 옥대는 옥을 붙였으며, 서각대犀角帶는 무소의 뿔로 만든 1품관의 것이었으며, 삼금대는 정2품, 소금대鶴頂帶(가장자리는 황금, 가운데는 붉은 장식물로 장식)는 종2품, 삼은대는 종3품, 소은대는 종4품, 흑각대는 종5~6품, 오각대烏角帶는 정7품~종9품이 사용하였다.

과대는 전형적으로 요패와 함께 4세기경에 성행하였다. 처음에는 가죽띠·천띠·비단띠 등에 금속제의 환부심엽형과판鑲付心葉形鈎板을 장식하고, 그 고리에 금속으로 된 요패를 달아매는 형식의 과대였다. 이런 형태에서 점차 체제를 갖추어 금·은·동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또 옥을 이용하여 금속 중심으로 된 과대가 제작

되어 전형적인 양식을 갖추었다.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착용했으며 실용적이기보다는 의식용이거나 주술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과대는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되었고, 벽화에도 나타나지만 북방계 호복의 특징적 양식이다. 대의 과판이나 구교鉤具에는 금·은·동·철·유·유·유 등이 사용되었고 후대에는 골·骨·각·角까지 사용되었다. 대의 재료는 피혁이나 포백布帛 등이었다. 이처럼 과판의 소재에 따라 금대·옥대·석대石帶·서대犀帶·각대角帶 등의 명칭이 있으며, 과판의 소재와 수에 따라 계급을 나타내었다.

특징 및 의의 대는 허리에 두르는 끈으로, 재료와 용도, 신분에 따라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저고리와 두루마기가 길었던 고대에는 옷을 입고 마무리하는 데에 쓰는 필수적인 요소였다. 또한, 장식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위엄을 나타내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는 표상의 역할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저고리와 두루마기가 길었던 삼국시대부터 옷을 입고 마무리하는 실용적인 용도로 대를 사용하였지만, 또한 위엄을 나타내 신분과 계급의 표상으로도 사용하였다. 대는 재료에 따라 종류가 포백대·각대·과대가 있었다. 포백대는 천으로만 만들어진 대로 대대·전대·광대·말대 등이 있었다. 각대는 처음에는 포백으로도 만들었으나 금·은·동·옥을 사용하여 만든 대로 삼금대, 소금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고, 과대는 포대 또는 역대 표면에 띠(과판)를 붙인 대이다.

참고문헌 우리옷 이천년(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미술문화, 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한국복식 2천년(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문화콘텐츠닷컴(culturecontent.com).

필자 안명숙(安明淑)

대구

帶鉤

정의 역대革帶 끝에 달려 있어 다른 쪽 단端의 구멍 속에 끼게 되어 있는 장식물.

역사 역대에 대구帶鉤를 다는 양식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유라시아 유목 기마민족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특히 동물형 대구는 대표적인 스키타이계 문물로 학자들이 자주 지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스키타이계 복장의 전래로 함께 들어왔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도 호복胡服과 함께 들어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왕국유王國維의 『호복고胡服考』에 고역대상용구古革帶常用鉤라 하여 역대에 항상 대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며, 조趙의 무령왕武靈王이 신하들에게 하사한 호복 중에 황금사비黃金師比가 있었는데 이 ‘사비’가 대구를 가리키는 호어胡語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목 기마민족 중 하나인 ‘선비鮮卑’는 그 어원을 중세 몽골어의 ‘Sārbe’에 두었다는 설이 유력한데 이는 기마인의 대구를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는 ‘선비’라는 이름은 서수瑞獸 장식이 있는 대구를 착용한다는 데서 나온 것으로 만주어의 Sabi[瑞祥]와 관련된다고 본다. 이상으로 보면 ‘師比=Sārbe=Sabi’로 연결되어 동물형 장식이 붙은 대구가 호복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남자淮南子』 설림훈說林訓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는 구鉤는 각각 다르나 그 구鉤가 달려 있는 환대環帶는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대구가 다양한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스키타이계 대구는 대체로 서수형瑞獸形의 동물 모양을 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에서는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주로 청동대구가 유행했으며, 옥대구玉帶鉤도 있었으며 보통 수두獸頭가 달려 있었다. 형태는 동물형·서수형瑞獸形·비파형琵琶形·마고형磨菇形·봉형棒形 등이 있다. 대구의 착용 모습은 전국시대 청동용青銅俑이나 동용銅俑에서 볼 수 있다. 스키타이 인물상에서 대구가 달려 있는 모습은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역대를 맨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많은 동물형 대구의 유물을 통해 역대의 매듭은 대구로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내용 우리나라의 동물형 대구는 청동기시대 말기에 출현해서 초기 철기시대를 거쳐 원삼국시대(초기 삼국시대)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초기 철기시대 출토 서수형 대구는 스키타이식의 서수형인데, 경상북도 영천 어은동 유적에서 출토된 원삼국시대 마형·호형대구 중 마형대구는 허리 가슴에 선문대線文帶가 있



① 마형·호형대구 | 청동기시대



② 마형대구 | 원삼국

대구 | ① 경북 영천 어은리 | 국립중앙박물관, ② 충남 천안 청당동 | 국립중앙박물관

고 머리에는 혁구革具가 선각線刻되고 배 밑과 돌기 고리에는 단추형 장식이 달려 있다. 호형대구는 꼬리가 사실적으로 등위로 올라가고 허리, 가슴의 장식문대裝飾文帶도 좁아졌다. 경북 경산 신대리 출토 호형대구는 눈·코·입과 이빨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몸체는 풍만하고 꼬리는 엉덩이에 붙어 뱀처럼 둥글게 말려 있다. 직선으로 돌출된 허리띠 고리 부분에는 세로줄로 삼등분하고 그 사이에 번데기 모양의 돌기를 장식하였다. 경주 사라리 출토 호형대구는 바깥 면은 호랑이 모양의 형상이고, 안쪽 면은 허리띠를 연결하기 위한 단추 모양의 꼭지가 붙어있다. 김해 대성동 23호분 출토 호형대구는 전체적인 형태는 전자와 비슷하나 꼬리가 말려 올라간 모양이 약간 다르다. 충청남도 천안 청당동 출토 마형대구馬形帶鉤는 귀 뒤에서 목선을 따라 배에 양각의 점문이, 갈기에도 양각의 선문이 있다. 허리에는 사격자

문을 새겼다. 천안 청당동 20호분 출토 봉형대구는 중국식 봉형 대구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특징 및 의의 스키타이계 대구는 주로 상상 속 동물인 서수형이나, 우리 대구는 현실 속 동물인 말과 호랑이 형을 사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대구는 현재에도 버클 buckle로 사용되는데, 고대 대구는 구멍에 끼는 대구의 끝이 안에서 밖으로 꽂아 그 끝이 보이나 지금의 버클은 밖에서 안으로 끝을 끼워 넣어 밖에서 안 보이게 꽂는 방법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참고문헌 고대 우리나라 대구에 대한 연구(김문자, 복식27, 한국복식학회, 1996), 한국복식문화의 원류(김문자, 민족문화사, 1994), 한국복식사개론(김문자, 교문사, 2015), 한국의 청동기문화(국립중앙박물관, 범우사, 1992), 한반도 마형대구의 편년과 지역상(김성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騎馬民族國家(江上波夫, 中央公論社, 1967).

필자 김문자(金文子)

대륜식입식관 帶輪式立飾冠

정의 기본 구조가 대륜diadem에다 여러 형태의 장식들을 세운 관.

역사 우크라이나 알렉산드로폴에서 출토된 스키타이계 금관과 우리나라 초화형草花形 입식관의 형태는 초화의 모습과 영락을 매달고 있는 양식이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수목형樹木形입식관(산山자 겹침식 입식관)은 그 원류를 중앙아시아 킬리키아 테페 유적에서 발굴된 1~2세기경 그리스-박트리아 왕국 시기의 금관을 들 수 있다. 대륜에 다섯 개의 자연 나무형 입식이 세워져 있고, 달개가 여러 개 달려 있는데 시기로 보아 신라 금관의 원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라와 가야 고분 출토 수목형입식관들은 주로 산자山字겹침 모양을 하는데, 고식古式일수록 이를 수목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뚜렷하다. 입식 중 나무 기둥에 해당하는 부위가 위로 올라 갈수록 좁아지고 좌우로 뻗은 가지 부위도 위쪽으로 갈수록 작아져 실제 나뭇가지와 모양이 흡사하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의 수목숭배사상이 표현

된 성수문聖樹文 중 특히 산자山字겹침식 양식의 성수문은 멜구노프Melgunov 고분에서 나온 B.C. 6세기 칼자루 문양과 이시크Issyk 고분에서 발견된 B.C. 5~3세기 여족장 관모 장식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러시아 알타이 지방의 노보오빈제 마을에서는 B.C. 3세기 서시베리아의 클라이 문화에 속하는 청동제 인물상이 발굴된 적 있다. 이 인물의 관모에 세워진 수목형 입식 세 개는 가야 지역인 부산 동래 복천동 11호분에서 출토된 우리나라 수목형 관모의 산자형山字形이 위로 솟은 것과 같은 모양이다. 대륜에 수목형과 녹각형을 장식하는 양식은 그 원류를 스키타이, 시베리아계통의 유목민족의 관에 나뭇가지와 사슴뿔을 장식하는 형식이 전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C. 5세기에 조성된 파지리크Pazyryk 고분의 출토품에는 거대한 뿔을 가진 사슴장식이 있는데, 루덴코S. Rudenko는 이를 왕관에 입식으로 꾸며뒀던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한편 이 같은 수목녹각형樹木鹿角形 입식관의 양식은 샤머니즘과 관련된 것으로 후대까지 보수성이 강한 시베리아 샤먼의 관모에 남아 있다. 즉 ‘Tay’라 불리는 에네트족의 샤먼 관모와 오스티악족 샤먼 관모를 보면 이들 관의 앞과 좌우에 술처럼 늘어뜨린 것은 샤먼을 인간 세상과 격리하여 주위 모든 물체와 현상을 듣고,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수목녹각형입식관과 매우 흡사한 양식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내용 우리나라 고기록에 주로 ‘금화金花’, ‘은화銀花’로 표시되는 관모의 입식은 고구려 고분벽화나 <양직공도梁職貢圖> 백제 사신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같이 관의 좌우에 끈을 달아 귀를 내놓고 지나게 해서 턱밑에서 잡아매어 고정하게 되어 있다. 즉, 대륜의 크기가 겨우 머리에 얹힐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구려의 대륜식입식관은 개마총 벽화 인물도에서도 볼 수 있고, 평양 청암동토성 출토 투조화염문透彫火焰文금동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고신라와 가야의 수목형입식관이나 수목녹각형입식관과 달리 백제의 관식과 비슷한 양식을 보인다. 전라남도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백제시대 금속제 변형모와 함께 출토된 금동관은 수목형 입식관으로 금동 대륜에 3개의 입식을 세운 것이다. 신라, 가야 고분 출토품인 대륜식입식관은 입식立飾의 종

류에 따라 입식이 풀꽃 형으로 구성된 초화형입식관과 입식이 산山 자 모양의 나뭇가지 형으로 구성된 수목형 입식관, 그리고 입식이 나뭇가지와 사슴뿔 형으로 구성된 수목녹각형 입식관의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초화형입식관에 속하는 경상남도 고령高靈 부근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금관은 대륜에 초화형 입식 네 개를 같은 간격으로 세우고 있다. 수목형입식관은 입식의 수와 산자겹침의 수, 형태에 따라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대륜臺輪(테)에 1단의 산자식山字式입식을 3개 세운 양식: 경상북도 경주 교동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금관은 대륜 정면과 좌우에 입식 3개를 세웠는데, 정면의 입식은 좌우의 입식보다 크지만 형태는 3개가 동일하다.
2. 대륜에 3단의 산자겹침식 입식을 3개 세운 양식: 호암미술관 소장 신라 금관은 3단의 산자겹침식 입식이 3개 세워져 있으며 대륜 양쪽에 수식이 달려 있다. 경주 천마총 출토품인 신라시대 금동관은 삼단의 산자겹침식입식 3개가 세워졌다.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지는데, 측지側枝에서도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좁아진다. 경주 호우총 출토 신라시대 금동관은 관내부에 섬유질이 부착되어 있었다. 대구광역시 달성 37-2호분 출토품인 가야시대 금동관 대륜에 3단의 산자겹침식입식 3개를 세운 것으로 보이나 정면과 좌측입식만이 달려 있고 우측입식은 부식되어 수습하지 못한 듯하다. 경남 창녕 교동 7호분 출토품인 가야시대 금동관도 대륜에 산자겹침식입식 3을 각각 3개의 못으로 세웠다.
3. 전자와 구성방법은 같으나 산자의 모양이 특이한 양식: 부산광역시 동래 복천동 11호분 출토품인 가야시대 금동관은 전술한 산자겹침식 입식들과 그 양식은 동일하나 선단의 보주寶珠 형태, 영락의 부착 부위 등은 조금씩 다르다.
4. 대륜 위에 3단의 산자겹침식 입식을 5개 세운 양식: 동래 복천동 1호분 출토품인 가야시대 금동관은 위로 올라 갈수록 줄기의 굵기와 가지의 폭이 좁아지는 3단의 산자겹침식 입식이 5개가 세워져 있다.
5. 대륜 위에 3단의 산자겹침식을 4개 세운 양식: 경주 지동 출토품인 신라시대 금동관은 신라 후기인 6세기경 출토품으로 일반 산자겹침식과 달리 아래위가 붙어 있는 독특한 양식이다.
6. 대륜 위에 4단의 산자겹



① 수목녹각형입식관 | 신라

② 목형입식관 | 가야

③ 대륜식입식관 | 백제

④ 수목녹각형입식관 | 신라

대륜식입식관 | ① 경북 경주 황남대총 북분 | 국립중앙박물관, ② 부산 동래 복천동 11호분 | 국립김해박물관, ③ 전남 나주 신촌리 9호분 | 국립나주박물관, ④ 경북 경주 천마총 | 국립중앙박물관

침식 입식을 4~5개 세운 양식: 경북 상주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금동관은 대륜 위에 4단의 산자겹침식 입식을 5개 세웠는데, 너무 폭이 넓어서 균형이 안 맞고 비대해진 느낌을 준다. 고신라 단양 하리 출토 금동관은 대륜이 합쳐지는 부분을 뒤로 쓰면 좌우에 2개씩 대칭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다. 다른 산자겹침식 입식과 달리 장방형 동판에 투각하여 4단의 산자형이 아래위가 붙어 있는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원래의 산자겹침식 양식에서 벗어나 7세기경에 등장한 독특한 변형 양식으로 추측된다.

수목녹각형 입식관은 산자겹침식의 형태와 관상부의 십자형十字形의 유무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3단의 산자겹침식 입식 3개이고 녹각형입식鹿角形立飾이 2개 세워져 있는 양식: 경주 황남대총 북분 출토품인 신라 금관 대륜의 중앙 좌우에 3단의 산자겹침식입식 3개를 세우고 후면 양측에 녹각형입식 한 개씩을 세웠으며 앞에 술이 달리고 양옆에 긴 수식이 달려 있다. 경주 금관총 출토품인 신라 금관은 대륜의 앞면과 좌우에 양측에 세운 입식 3개는 작은 가지가 뻗어 3단의 산자겹침식을 이루고, 후면의 2개는 녹각형을 이루며, 대륜의 좌우에는 긴 수식이 달려 있다. 경남 양산 부부총 출토품인 가야 금동관은 앞면과 좌우 양측에는 3단의 산자겹침식입식 세 개를 세우고 뒷면의 좌우 양측에는 녹각형입식 두 개를 세웠다. 2. 첫째와 입식은 동일한 형태이나 관 위에 십자형의 장식이 달려 있는 양식: 경주 서봉총 출토품인 신라시대 금관은 3단의 산자겹침식입식 3개와 녹각형입식 2개를 세웠으며, 좁은 양대櫟帶 2개로 머리 위 중앙에서 직교하

는 내모형內帽形의 골격을 만들었다. 그 교차점 정부頂部에 역시 금판을 오려서 만든 조형鳥形 장식 세 개를 붙였다. 대구 불로동 37-2호분 출토품 가야시대 금동관은 산자겹침식입식 세 개와 녹각형입식을 세우고, 내부에 아치형을 이룬 두 개의 양대가 있다. 그 교차되는 정부에 반구형의 금동좌판을 놓고 그 위에 소지小枝 3개가 달린 원통형입주圓筒形立柱를 세웠다. 3. 첫째와 동일한 구성 방법이나 산자겹침식이 4단으로 되어 있는 양식: 경주 천마총 출토품인 신라시대 금관은 4단의 산자겹침식 입식 3개를 세우고 후면의 양측에 녹각형입식 2개를 세웠다. 따로 후두부를 제외한 전체에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게 만든 비취곡옥을 금사로 매달았는데, 이는 수목형 입식관에서의 산자식이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신라 금령총 출토 금관도 4단의 산자겹침식 입식 3개, 후면 양측에 녹각형 입식 2개를 세웠다.

특징 및 의의 수목형입식관이 성수문에서 온 것과 함께 수목녹각형입식관은 성수聖樹와 무수巫獸사상이 결합된 샤만적 관모인데, 때로는 조류승배사상에서 온 조우관도 함께 착용하여 착용자의 초월적 권위와 지위를 상징하던 것으로 보인다. 수목형입식관들은 수목녹각형입식관들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착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관으로 제작된 수목녹각형입식관은 고신라에서 더 정제되고 장식화되어 계급이 높은 층에서 착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륜식입식관들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결혼식 때 주로 머리에

착용하는 티아라tiara 등에 그 착용 예가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고신라, 가야고분출토 수목형·수목녹각형입식관에 대한 연구(김문자, 대한가정학회지35-5, 대한가정학회, 1997), 금관의 비밀(김병모, 푸른역사, 1998),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3(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스키타이 황금(국립중앙박물관, 조선일보, 1991), 한국복식사개론(김문자, 교문사, 2015), シバルガンの遺寶(江上波夫, 新潮古代美術館, 新潮社, 1982).

필자 김문자(金文子)

대삼 大衫

정의 조선 전기 왕비가 대례복으로 착용하였던 홍색의 포袍.

내용 대삼大衫은 조선시대 문종 이후부터 선조 때까지 조선의 왕비 예복으로 착용되었으며, 별도의 무늬가 장식되지 않은 넓은 소매의 큰 옷이다. 명明은 1403년(태종 3)부터 1625년(인조 3)에 이르기까지 총 14차례 왕비의 예복을 조선에 보냈다. 그중 대례복으로 대삼을 보낸 것은 조선 초기 문종 때부터 1603년(선조 36)까지이다.

대례복으로 추정되는 것은 적관翟冠과 삽화금추자插花金墜子 그리고 의복[套] 두 세트인데, 그중 한 세트가 대홍저사大紅紵紗 대삼과 더불어 청색 배자褙子, 하피霞褙, 상아홀象牙笏로 이루어진 예복禮服이다. 다른 한 세트는 대홍 단삼團衫, 오襖, 군裙이며 상복常服에 해당된다. 대삼은 명의 명부命婦 1품의 예복이었던 대수삼大袖衫과 그 형태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명으로부터의 관복이 사여되었던 왕비와 달리 왕세자빈의 경우에는 관복이 사여되지 않았으므로 조선 전기 명으로부터 사여된 왕비의 대삼은 조선에서 제작하였던 왕비와 왕세자빈 예복의 원형原形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이 멸망한 후에도 얼마간 왕비와 세자빈의 가례嘉禮 복식으로 대삼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착용한 사실이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소현세자 가례와 숙종빈 인경후仁敬后 가례, 경종빈 단의후端懿后, 장조빈莊祖嬪 헌경후獻敬后까지 빈의 가

례가 해당된다. 『가례도감의궤』를 보면 소현세자昭顯世子 가례에는 겹대삼이 사용되었고, 무문無紋 대홍필단大紅匹段 39자 5치와 내공內供으로 목홍색木紅色의 초綱 20자가 소용되었다. 이후 인조와 장렬왕후의 가례부터는 겹대삼이란 용어가 사라졌다. 대삼에 대홍광적大紅廣的 1필, 대홍필단 5자 5치, 니금泥金 3전 3푼, 오채화운용문五彩花雲龍紋 흉배를 갖추었다고 되어 있다.

국내의 왕비 법복제도가 적의翟衣로 정착된 영조 이후로는 더 이상 대삼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삼이 아닌 적의제도를 시행한 조선 후기의 가례에서 사용된 적의 역시 기본 양식은 조선 전기 대삼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에 대삼의 유물이나 대삼을 착용한 초상화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대명회전大明會典』에 명의 대삼과 대수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고, 2001년 중국 난창南昌에서 영정왕寧靖王 부인 오씨吳氏(1439~1502)의 대삼과 하피가 출토되어 그 형태를 가늠할 수 있다. 오씨의 대삼은 옷의 앞보다 뒤가 길며, 양 옆에는 트임이 있다. 앞여밈은 마주보며 내려오는 대금對衿 형식에 단추로 앞을 여미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대삼의 형태는 조선에서 제작했던 대삼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동아시아 복식의 역사(홍나영 외, 교문사, 2011), 조선왕조 왕세자빈 적의 연구(김연자,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조선왕조의 왕비법복에 관한 연구(홍나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필자 홍나영(洪那英)

대수 大首

정의 조선시대 왕비가 대례복大禮服을 입을 때 갖추던 머리.

역사 조선 전기에는 왕비의 법복法服으로 명나라에서 받은 적의翟衣를 착용할 때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을 함께 갖추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소실되어 그 형태를 알지 못하게 되자 1623년(인조 23) 이후 조

선의 풍속에 따라 덧대는 가발인 체발(髻髮)로 수식(首飾)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와 같은 왕실문헌에 왕비, 왕세자빈의 치장을 위하여 다량의 체발을 준비한 기록이 남아 있다.

내용 대수는 머리를 덮는 가발처럼 형태를 만들어 머리에 쓰도록 한 것으로, 위가 높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넓게 퍼지는 삼각형 모양이다. 어깨까지 펼쳐진 머리의 양쪽 끝에는 봉황 비녀를 꽂아 좌우로 팽팽하게 뻗치도록 하였고, 뒤쪽으로는 머리카락을 비녀에 말아 꺾어 올려 뒤통수에 연결하였다. 정수리에는 머리를 크게 꾸미기 위해 덧넣어 사용하는 땃은머리인 위체(圍髻)를 올렸다. 위체 아래쪽은 옥관 형태가 연이어 달린 마리삭금당기로 둘러 감싸고 금당기 뒤쪽에는 여덟 가닥으로 만든 땃기를 드리웠다. 이마 쪽 중앙에 진주동곳과 용비녀를 꽂고 나비떨잠, 둥근떨잠과 각종 비녀로 체발을 고정시켰으며, 가장 위쪽 중앙에는 큰 옥관 형태의 장잠(長簪)을 꽂아 머리장식을 완성하였다. 대수를 만드는 데는 많은 양의 체발이 필요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보면 체발을 공납하는 지역은 함경도와 제주도였으며, 지역별로 준비할 수량이 지정되어 있었다. 가례에 사용된 체발의 수는 인조장렬 후 가례(1638년) 때 68단 다섯 개, 숙종인현후 가례(1681년) 때 48단 다섯 개였다가 영조(英祖) 대를 기준으로 10단 규모로 감소되었다.



영친왕비 적의 차림 대수



대수 구성품

현존하는 유물로 유일하게 1922년 영친왕비(英親王妃)가 순종(純宗)을 배알할 때 착용하였던 대수가 있다. 영친왕비 대수의 가체는 흑각잠(黑角簪)으로 임시 고정되어 있으며, 흰색·홍색 종이에 ‘원잠(圓簪), 큰민잠(大金簪), 소민잠(小金簪), 소용잠(小龍簪), 후봉잠(後鳳簪), 마리삭 금당기’와 같은 수식품들의 이름을 써서 해당 위치에 꽂아 두었다. 대수와 함께 보존된 장신구를 살펴보면, 비녀로는 진주장잠, 용잠, 후봉잠, 대봉잠, 매죽잠, 매죽초롱잠, 진주죽잠, 백옥영락초롱잠, 가란잠, 백옥호도잠, 비취매조초롱잠, 진주매죽잠, 산호매화잠, 모란문오두잠, 비취민잠, 오두잠이가 있고 꽂이는 봉황꽃이, 산호꽃이가 있다. 그 외 진주동곳과 백옥떨잠, 백옥나비떨잠, 그리고 백옥관이 부착된 마리삭금당기(대요)가 있다. 이들 장식품은 색지(色紙)와 보자기로 감싸 화려한 직물로 장식된 장신구 상자에 보관하였다.

순정효황후, 영친왕비, 의친왕비, 이견(李鍵) 부인 마츠다이라 요시코(松平佳子)의 사진에서 대수 착용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비·빈이 관례 여부와 관계없이 명복에 사용하던 최고의 의례용 머리를 ‘수식’이라 하는데 17세기 의궤류에는 ‘수식’이 대수와 거두미(擧頭美)를 일컫는 이중적 어휘로 사용되었지만, 18세기 이후에는 대수만을 의미하였고, 1922년 영친왕비 유물에 이르러 ‘대수’라는 명칭으로 회복되었다.

참고문헌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19세기 조선 왕실 여성의 머리모양(이은주, 복식58-3, 한국복식학회, 2008) 영친왕일가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조선조 왕실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07),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5).

필자 김선영(金宣伶)

대숨치마

정의 예복을 입을 때 넓은 겹치마의 아랫부분을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하기 위하여 치마 아래단에 백비를 댄 속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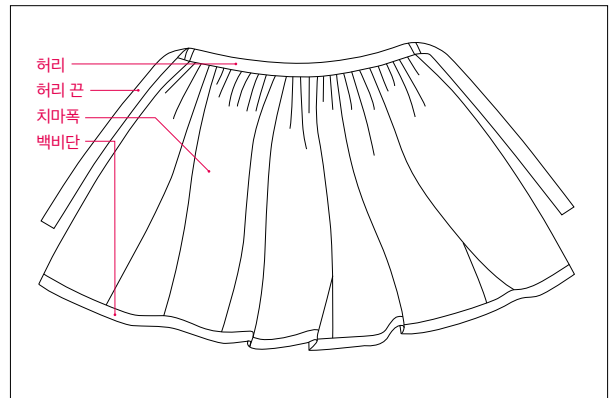
내용 대습치마는 조선시대 왕실 및 반가에서 여자들이 예복禮服을 착용하여 성장할 때 입었다고 하나 확실한 기록이 없다. 그동안 발굴된 출토유물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9세기 말 전세유물로 국립민속박물관과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에서 대습치마를 소장하고 있다. 이 유물들은 모시치마이며, 치마 밑단에는 4cm 너비로 뿔뿔한 창호지 백비단을 만들어 모시로 싸서 붙인 모양이다.

왕실 복식을 기록한 『상방정례尙方定例』에 추석에 대비전과 중궁전에 올리는 복식 가운데 초록색과 간색間色 토주吐紬(명주)로 만든 겹치마[袷赤紬]와 함께 속옷으로 백저포白苧布(하얀 모시) 치마[赤紬] 기록이 있지만 그 용도는 알 수 없다. 또한 궁녀들이 작성한 「궁중발기宮中撥記」에서도 대습치마의 기록은 없으나, 정미년(1907) 빈마누라 「의대발기」에 ‘백 관사 옷무족이’와 ‘백 삼팔 겹무족이’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 옷무족이와 무족이가 같은 옷이 아니라고 본다면 두 옷 가운데 하나는 대습치마로 추정된다. 유희정은 대습치마를 왕족이 사용한 속치마의 일종으로 정장을 할 때 무지기 밑에 입는 속치마라고 하였다. 손경자는 대습치마의 기능을 가진 속치마를 대나무 둘레에 창호지를 감아 통치마 아랫단에 끼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며 무지기치마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성실 등은 『거가잡복고居家雜服攷』에 의하면 치마 안에 무족군無足裙을 입고, 그 위에 다시 큰 군룡裙籠을 더 입는다고 하였다. 이 군룡이 대습치마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하여 궁중 여자들이 대례복이나 소례복을 갖추어 입을 때 무지기치마 위에 받쳐 입었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대습치마라고 불리는 위에 세 점의 유물은 가랑이를 나누지 않은 풀치마 모양(무족의)이다. 백색 모시 11~12폭을 이어 만들고 길이는 끌리지 않을 정도이다. 치마 아래 도련부분에 창호지 여러 겹을 풀칠하여 배접한 4~5cm 너비의 백비단을 모시로 싸서 달아 주었다. 그러나 「궁중발기」에 무족이(무족치마)와 옷무족이(옷무족치마)는 색상이 백색이며, 의차(옷의 재료)가 대부분 저포(모시)지만 사紗나 주紬도 있고, 구성은 홀치마가 대부분이나 겹치마도 있다. 덕혜옹주의 6세 생신 「의복발기」에는 분홍색의 수접문사 옷무족치마도 있다.



대습치마 | 길이 118.5 허리 100.5 | 21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대습치마 구성 명칭

침선장 정정완은 대습을 “흰빛 또는 오련한 분홍빛으로 물들이기도 하였다.”라고 하며 “입은 모양이 아래가 공작새 날개 같이 퍼진다.”라고 하여 그 색과 모양을 설명하였다. 대습치마는 밑단에 백비단을 달아 예복을 갖추어 입을 때 길고 넓은 예복 치마의 선을 정리해 주며, 아랫부분을 퍼지게 하기 위하여 입는 속옷이다. 속곳과 바지, 단속곳을 입은 다음 무지기를 입고, 그 위로 덧입어 속옷의 선을 정리해 주며 예복 치마 아랫부분 실루엣이 자연스러운 여유로움을 갖게 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뿔뿔한 백비단은 겹겹이 입은 속옷과 치마를 받쳐 주어 발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 준다.

참고문헌 古文書集成, 尙方定例, 옛 속옷과 침선(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06), 전통한복양식(손경자, 교문사, 1990),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박성실·조효숙·이은주,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침선장(정정완,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81).

필자 안애영(安愛英)

대자 帶子

정의 가슴을 감싸서 가슴선을 다소곳이 정리해 주는 넓은 허리띠 모양의 속옷.

내용 대자帶子는 과두裹肚 또는 요대腰帶라고도 하며, 가슴과 배에 둘러서 가슴과 허리선을 정리해 주는 허리띠[帶]이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남녀의 과두가 기본적인 형태는 같지만 끈의 개수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남자의 과두는 네 귀퉁이에 끈을 달았으나 여자의 것은 아래 양끝에는 끈이 없다고 설명한다.

대자

대자

경기도박물관 소장 의원군의 부인 안동 권씨(1644~1722) 묘 출토복식 가운데 기록과 일치하는 모양의 과두가 있다. 겹감과 끈 모두 연화만초문단蓮花蔓草紋緞으로 만들었으며 숨을 얇게 둔 18세기 출토유물이다. 박성실 등은 ‘과두’를 여자의 것은 ‘요대’로 기록된 경우가 많다고 하여 이 유물을 요대라 하였다. 그러나 1819년(순조 19)부터 약 100년간 궁중행사 복식을 기록한 「궁중발기宮中撥記」에는 다수의 대자 기록이 있다. 비빈妃嬪의 「의대발기衣櫛件記」에는 한문으로 대자라 하였으나, 군부인 등의 「의복발기」에서는 한글로 허리띠라고 하였다. 1882년 순종의 「가례발기」에도 홀대

자·겹대자·누비대자 등 상당량의 대자를 준비한 기록이 있다. 색상은 모두 백색이며 옷감은 다양한 명칭의 주紬·사紗·항라·면綿·저포苧布 등이 사용되었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출토유물 가운데에도 주紬로 만든 해평 윤씨(1660~1701) 허리띠가 있다. 그 모양은 18세기 유물인 안동 권씨 요대와 같다. 그러나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에 있는 조선 후기(19세기 말~20세기 초) 대자 두 점은 양옆에 달린 끈의 위치, 끈의 너비와 길이가 출토유물과 다르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비(1901~1989)의 가슴가리개 한 점도 이 유물들과 유사하다.

특징 및 의의 허리띠[帶子]는 가슴을 싸 준다 하여 ‘가슴싸개’, ‘가슴가리개’라고도 한다. 18세기 출토유물과 20세기 초 전세유물인 허리띠는 너비와 끈의 길이, 다는 위치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여자 옷에서 저고리의 단소화短小化 경향과 치마허리 위치 변화에 따른 기능의 변화로 보인다. 노출된 겨드랑이 밑살을 가리고 가슴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슴가리개는 넓이와 끈의 위치가 달라졌다. 특히 허리띠 위쪽으로 양끝에 달렸던 끈이 (입은 상태의) 오른쪽은 넓고 긴 끈을 위쪽에 달고, 왼쪽은 좁고 짧은 끈을 20cm 내외로 들어와 대자 너비의 2분의 1 정도 위치에 다는 변화를 보인다. 이는 넓고 긴 끈이 가슴을 돌아 맞은편 아래 짧은 끈과 맺음을 하면서 가슴을 한 번 더 납작하게 눌러 주어 가슴선을 정리해 주는 기능을 한다.

대자는 주로 백색이며, 명주·무명·모시 등 위생적이고 신축성이 적은 옷감을 사용하였다. 구성 방법은 계절에 따라 홑, 겹 또는 숨을 두어 누볐다.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의 전세유물도 한 점은 흰색의 겹 모시 허리띠이고, 다른 한 점은 흰 옥양목에 숨을 얇게 두어 누빈 겨울용이다. 영친왕비의 가슴가리개도 겹감은 발이 고운 소색 명주이고 안감은 무명으로 만든 겹대자이다.



영친왕비 명주 가슴가리개 | 길이 110 너비 30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허리띠 | 길이 94.5 세로 29 끈길이 28 끈너비 5.5 |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참고문헌 古文書集成, 尙方定例, 영친왕 일가 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옛속옷과 침선(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06), 임오년 가례 왕세자·왕세자빈 복식연구(안애영,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박성실·조효숙·이은주,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한국복식28(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0).

필자 안애영(安愛英)

정의 양력 1897년 10월 12일(음력 9월 17일)부터 양력 1910년 8월 29일(음력 7월 25일)까지 존속되었던 대한제국大韓帝國的 복식제도 개혁.

내용 대한제국은 황제皇帝가 다스리는 국가였다. 따라서 조선朝鮮에서 중국을 황제국으로 인정한 바탕 위에 행하던 제후국諸侯國 복제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황제국 복제를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통식 복제가 변하였다. 또 이 기간 중 황제와 관원들의 복식이 전통식에서 서구식으로 바뀌었는데, 변경 초기에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규정되었지만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즈음해서는 일본 황실의 복제에 비해 등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 시기 복제는 전통식과 서구식, 황제를 포함한 황실 구성원과 문무관원으로 구분해서 살필 필요가 있고, 복제의 성격 변화에는 황제국과 일제강점기의 서막이라는 시대적 요소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전통식 복제: 대한제국 당시 전통식 복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황실 구성원은 황제, 황태자, 황후, 황태자비, 황제의 후궁 등이 있다. 대한제국 전통식 복제는 기본적으로 전례서典禮書인 『대한예전大韓禮典』에 규정되어 있다.

황제와 황태자의 옷은 면복冕服, 통천관복通天冠服과 원유관복遠遊冠服, 익선관복翼善冠服이 있다. 면복은 황제 등급의례, 제례, 관례, 혼례를 거행할 때 착용하는 최고 最高 등급의 대례복이다. 면관冕冠(면류관), 상의上衣, 하裳下裳, 중단中單, 대대大帶, 혁대革帶, 폐슬蔽膝, 패옥佩玉, 후수後綬, 버선襪, 석鳥, 규圭, 방심곡령方心曲領으로 구성된다. 여러 구성품에서 황제나 왕 등의 신분을 구별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이지만, 대표적인 것은 면관의 류旒 및 상의와 하裳의 무늬 즉 장문章文이다. 류는 면관의 앞뒤에 드리운 구슬 꿰 줄이다. 황제는 12류에 12장문, 왕과 황태자는 9류에 9장문, 왕세자는 8류에 7장문을 넣은 면복을 입었다. 대한제국이 되면서 황제는 조선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12류 면관과 12장복을 착용하였

고, 황태자는 9류 면관과 9장복을 착용하였다.

통천관복과 원유관복은 면복보다 낮은 경사스러운 의례에 착용하던 조복朝服이며, 통천관이나 원유관을 쓰고, 강사포絳紗袍를 입었다. 관모의 정수리에 세로로 있는 줄을 양梁이라 하고, 그 수로 신분을 구별하였다. 통천관은 12량인데 황제만 쓸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사용하지 않다가 대한제국이 되면서 고종과 순종이 착용했다. 황제 이하의 신분은 원유관을 쓸 수 있었다. 조선의 왕이 9량 원유관, 왕세자는 8량 원유관이었는데, 대한제국이 되면서 황제는 12량 통천관을 쓰고 왕세자는 황태자가 되어 9량 원유관을 썼다.

익선관복은 익선관과 곤룡포袞龍袍로 구성되는 군주君主의 일상업무복이다. 익선관은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동일한 제도를 썼다. 곤룡포는 조선의 왕이 홍색, 왕세자가 아청색이었는데, 대한제국이 되어 황제가 오방색의 중앙색인 황색을 쓸 수 있게 되면서 황색 곤룡포를 입고, 황태자는 조선의 왕과 같은 홍색 곤룡포를 입었다.

여자의 옷은 적의翟衣와 원삼圓衫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조선시대 적의는 명에서 보내온 대삼大衫을 기본 구성품으로 하여 흔히 ‘대삼제적의’라 하며, 왕비는 대홍색, 왕세자빈은 아청색을 입었다. 대한제국 황후와 황태자비는 조선시대와 형태가 다른 심청색 적의를 입었다. 황후는 12줄의 적문翟紋(뽕무늬)을 표현하여 12등 적의라 하였고, 황태자비는 9등 적의이다. 적문 사이사이에는 불교의 상징물인 소륜화小輪花(바퀴무늬) 혹은 대한제국의 상징물인 이화梨花(오얏꽃)가 표현되었다. 원삼은 대한제국 황후가 황색을 입었고, 황태자비는 홍색을 입었다.

관원의 옷도 황제국의 위상에 맞게 변화한다. 다만 조선 후기의 단령團領에 부착하는 흉배胸背 제도는 이미 중국과 관계없이 자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대한제국이 된 후에도 이에 대해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표적인 변화는 조복朝服과 제복祭服에서 나타났다. 조복과 제복 모두 머리에 양관梁冠을 쓰는데, 조선에서는 명명에 비해 두 등급을 내린 이등체강二等遞降 원칙을 적용해서 1품 관원이 명 3품 관원이 쓰는 5량관을 쓰고, 2품 관원이 명 4품 관원이 쓰는 4량관을 썼다. 이에 비해 대한제국에서는 명과 동등한 제도를 적용해서 1품 관원이 7량, 2품이 6량, 3품이 5량, 4품이 4량, 5품이 3

량, 6~7품이 2량, 8~9품이 1량을 썼다.

이밖에 이 시기 관원의 복제는 1884년(갑신년)부터 1895년(을미년)까지 진행된 갑신·갑오·을미의제 개혁과 연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895년 을미의제 개혁에서 관원의 옷은 조복, 제복, 대례복, 소례복, 통상복색으로 분류되었고, 이 제도는 대한제국 개국 초에도 조복과 제복에서 양관의 양釐만 개정될 뿐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중 대례복은 광수廣袖(넓은 소매)의 단령團領에 흉배를 부착한 후 품대品帶를 둘렀고, 소례복은 착수窄袖(좁은 소매)의 반령盤領에 흉배를 부착하지 않고 속대束帶를 둘렀다. 그런데 1898년 6월 18일에 외교관의 대례복에서 광수 단령을 폐지하고 착수 단령을 입게 하였고, 1899년 8월 3일에 가서 일반 문관까지 모두 착수 단령만 입게 하였다.

2. 서구식 복제: 서구식 복식의 시작은 1895년 11월 고종이 반포한 단발령斷髮令과 그가 숭선한 단발의 실행이라 할 수 있다. 서구식 복식의 정식 채용은 무관武官과 경관警官복제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895년 4월 9일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과 4월 19일 칙령 제81호 ‘경무사 이하 복제警務使以下服制’가 반포되어 처음으로 서구식 제복이 규정되었다.

대한제국이 들어선 이후에는 황제 이하 문무관이 모두 서구식을 채용하였다. 황제와 황태자는 1899년 6월 ‘원수부관제元帥府官制’가 반포되면서 황제는 대원수大元帥, 황태자는 원수元帥가 되어 육해군을 통솔하게 되었다. 이즈음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에서 고종이 대원수복을 입고 순종이 원수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원수부관제에 부합하는 제복도 서구식으로 규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고종과 순종이 착용한 제복은 독일 군대 모자를 변형시킨 투구형 모자를 썼는데 앞쪽에 이화문이 있다. 예복의 상의인 대례의大禮衣는 앞에서 양쪽 길이 마주보게 여며지고, 길의 위에서 아래까지 늑골肋骨 모양의 장식 5줄이 가로질러 있으며, 어깨에는 술이 달린 견장이 부착되어 있다. 대례의는 대원수, 원수, 장교 등의 신분을 소매의 인자형人字形 무늬로 구별했다. 대원수는 11줄, 원수는 10줄이고, 신하들의 경우 대장大將은 9줄이고 그 이하 계급이 내려가면서 장식이 줄어 하위 계급인 부위副尉는 2줄, 참위參

위는 1줄이다. 1899년 당시 사진에서 고종은 11줄, 순종은 10줄의 대례의를 입어, 대한제국의 황제와 황태자로서 그 격에 마땅한 제복을 입었다. 그런데 순종이 1907년 10월 17일 이후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찍은 사진을 보면, 소매의 인자형 장식이 9줄만 있다. 9줄은 대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전의 예복에 비해 등급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무관과 경관의 복식 외 일반 문관의 복식이 서구식으로 바뀌는 것은 1900년(광무 4) 4월 17일에 확정된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에 의해서였다. 또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제식文官大禮服製式’에서 대례복의 세부 형태가 문서로 규정되었고, 1901년(광무 5) 9월 3일 관보에 칙령 제15호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문관대례복도식文官大禮服圖式’이 반포되었다. 이때 규정된 제도는 1904년과 1905년에 약간의 개정을 거친 후, 1906년에 다른 형태로 개정되었다.

‘문관복장규칙’에서 규정한 문관복의 종류는 대례복, 소례복, 상복常服으로 나뉜다. 대례복을 구성하는 것은 산형山形 모자bicorne, 조끼, 바지, 검, 흰색 장갑[手套] 등이다. 소례복 중 연미복 형태는 진사고모[眞絲高帽, silk top hat], 유럽식 연미복[燕尾服, tailcoat], 조끼, 바지(상의와 같은 색 및 재료 사용), 검은색 가죽구두로 구성된다. 후록코트 형태는 진사고모, 유럽식 프록코트, 조끼, 바지(상의와 다른 색 및 재료 사용), 검은색 가죽구두로 구성된다. 프록코트는 모닝코트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평상복은 통상의 유럽식 모자[平帽, 通常帽]와 상의, 조끼, 바지로 구성되었다.

‘문관대례복제식’에는 대례복을 구성하는 모자, 조끼, 바지, 검, 장갑 등의 재료 및 형태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복식에 표현된 주요 무늬는 무궁화[槿花]이다. 무궁화무늬는 칙임관1~4등과 주임관을 각각 차별화하여 등급을 구분했다.

한편 1894년에 국가 사무를 보는 의정부와 별도로 왕실사무를 보는 궁내부가 신설되었는데, 1900년의 서구식 대례복은 궁내부 관원에게도 함께 적용된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복식에 국가와 황실을 구분하여 무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1900년의 제도는 1904년 4월 2일의 개정에서 1~4등까지의 칙임관 무늬를 통일시켰고, 1905년 1월

16일에는 주임관의 상의 앞길 전체에 있던 무늬를 없앴다. 칙임관은 한 종류로 통일시켰던 것을 다시 1등과 2~4등의 두 종류로 차별화시켰다.

1906년 12월 12일에는 ‘문관대례복제식개정(文官大禮服製式改正)’이 반포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옷으로 개정되었다. 칙·주임관 외에 친임관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면서, 깃 모양이 스탠딩칼라로 바뀌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늬의 표현이다. 무늬는 여전히 무궁화를 사용하지만, 친임관과 칙임관마저도 상의 앞길의 무늬를 모두 없애고 깃과 소매에만 표현하게 한다. 대례복 앞길의 무늬를 없애고 깃과 소매에만 표현하는 것은 일본 주임관 대례복과 같은 방식이다. 대한제국 친임관과 칙임관마저 일본 주임관과 같은 형태의 옷을 입게 된 것이다.

한편, 궁내부 관원의 서구식 대례복은 1906년 2월 27일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예복 규칙(宮內府本府及禮式院禮服規則)’과 ‘궁내부 본부(宮內府本府) 및 예식원 대례복(禮式院大禮服)과 소례복 제식(小禮服製式)’이 반포되면서 일반 문관복과 차별화되었다. 관복은 대례복과 소례복으로 나뉘었다. 대례복은 황제에게 문안을 드릴 때 등에 입었는데, 산형 모자, 코트, 조끼, 바지, 검, 장갑 등으로 구성된다. 소례복은 공식 연회 등에 입는데, 모자, 연미복형 상의, 조끼, 바지, 검, 장갑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례복은 친임관, 칙임관, 주임관이 착용했다. 무늬는 옆으로 누운 모양의 이화(橫李花模樣)를 썼는데, 몇 줄인가로 신분을 구별하여 친임관 11줄, 칙임관 9줄, 주임관 7줄이었다. 일본 궁내성관원이 황실을 상징하는 국화 무늬를 13줄부터 쓰는 것과 비교하면 대한제국 궁내부의 복제는 일본보다 낮은 등급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일제는 1906년에 일반 문관과 궁내부 관원의 대례복을 자신들보다 한 등급 낮추게 함으로써, 1910년 한국병탄(韓國併吞)을 공식화하기 이전에 식민지 체제를 염두에 두고 그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복식에서의 속국 체제를 완성하였다.

특정 및 의의 대한제국시대는 우리 역사에서 유래가 없는 정치적 격동기이고, 이는 복식 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제후국 복제에서 황제국 복제로의 전환 및 전통식복제에서 서구식 복제로의 전환 과정 속에는 시대의 흐름

을 좇으려는 안간힘도 있고, 정체성을 드러내어 자존 의식을 높이려는 투쟁도 있으며, 세계 정세의 흐름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간 아픔도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서구식 복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국가를 상징하는 무늬로 무궁화가 등장하고, 황실을 상징하는 무늬로 이화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또 1894년 왕실 사무를 보는 궁내부가 신설된 후 1906년에 이르러 일반 관원과 구별되는 그들의 복제가 별도로 제도화되었다.

참고문헌 法規類編, 朝鮮王朝實錄, 1905~1906년 서구식 대례복제도 개정에 나타난 일제의 한국병탄 준비(최규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대한예전 복식제도 연구(최규순, 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대한제국 황실의 복식-황제와 황후의 복식, 어떻게 변화했나(최규순, 대한제국-잊혀진 100년 전의 황제국, 국립고궁박물관, 2010), 대한제국기 궁내부 대례복 연구(최규순, 정신문화연구 3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우리나라 문관의 전통식 관복 착용 소멸에 관한 소고(조상준·최연우, 한국복식 3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4).

필자 최연우(崔然宇)

댕기

정의 머리카락을 묶거나 정리하고 혹은 장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직물로 만든 머리 장식품.

역사 댕기의 옛 이름인 ‘당기’는 ‘머리를 당긴다.’라는 의미로 생긴 이름이다. 댕기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계속 착용하였음을 문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댕기의 다른 명칭인 ‘단기(檀紀)’는 단군 때에 처음으로 땀은 머리를 시작하여 끈이나 천으로 결발(結髮)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단군 원년에 “나라 사람들에게 머리를 땀고 개수하는 법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고조선 시기에 이미 머리를 땀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해동역사(海東譯史)』에는 “삼한(三韓)의 부인은 반발(盤髮)하였는데 모두 아괄(鵜髻)을 찌었고 여발(餘髮(남은 머리))은 늘어뜨렸으며 여자는 말아서 뒤에 드리운다.”라는 기록을 통해 삼국시대 이전부터 머리를 빗어 정리하여 머리모양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머리모양을 고정하고 장식하기 위하여 댕기와 유사한 머리 장식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의 땃기의 사용은 문헌 및 벽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고구려는 머릿수건이나 머리띠 형태로 직물을 사용한 모습, 쪽과 비녀 모양 장식을 한 모습 등이 벽화에 나타난다. 특히 안악 3호분 벽화에서는 신분에 따라 땃기를 착용한 모습과 장식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데, 묘주 부인 좌우에 위치한 시녀의 머리에 늘어뜨려진 쪽이 좁고 색이 붉은 직물과 행렬도 고취악대 중 춤꾼으로 보이는 여자들이 머리에 묶은 붉은색 직물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북사(北史) 열전(列傳)』에는 “백제의 처녀는 머리를 뒤로 땃아 늘어뜨리고 부인은 두 갈래로 나누어 머리 위에 얹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당서(唐書) 동이전(東夷傳) 신라조(新羅條)』에는 “옷의 빛깔은 흰빛을 숭상하고 부인은 머리카락을 땃아 머리에 틀어 올리는데 여러 가지 비단과 구슬로써 장식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땃기를 여자들의 수식품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남녀 모두 땃기를 사용하였고, 땃기의 색채와 소재 등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다. 먼저 『송사(宋史) 고려전(高麗傳)』에는 “고려 때 일반 서민 여자들은 머리털을 땃치어 오른쪽 어깨에 늘어뜨려 붉은 비단 형질로 묶어 비녀를 꽂았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권20 부인여자조(婦人女子條)에는 “출가하기 전 여자는 홍색 띠로 머리를 묶고 여발은 뒤로 내렸으며, 남자 역시 머리를 홍색 띠 대신 검은색 띠로 묶었다. 부인들은 머리를 틀어 띠직물로 묶고 여기에 작은 비녀를 했으며, 나머지는 머리를 뒤에 내려뜨렸는데 이는 귀천(貴賤)의 구별 없이 동일하였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 후기에는 원의 영향으로 변발(辮髮)이 정착하면서 땃기가 필수 수식품이 되었고, 이후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확립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불경으로 여겼다.

내용 땃기는 일반적으로 ‘땃은머리의 끝에 드리는 천으로 만든 장식의 일종이며, 여자의 수발과 함께 생겨났다.’라고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땃기는 땃은머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머리 형태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성별·연령·용도에 따라 다양한 길이와 너비, 장식과 문양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최근 연구에서는, 땃기는 머리카락을 묶는 끈, 즉 머리카락을 묶거나 정리하고 장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직물 수식품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즉, 땃기는 다양하고 화려한 수식 가운데 금속이나 원석류가 아닌 유일한 직물 수식이며, 남녀노소, 신분의 상하를 불문하고 사용했던 복식품이다.

땃기의 종류는 크게 용도나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용도별로 구분하면 크게 궁중에서 궁녀들이 사용했던 네 가닥 땃기, 팔뺨땃기 등이 있으며, 예장용으로는 띠구지땃기, 매개땃기, 도투락땃기, 앞땃기, 뒷땃기, 고이땃기, 드림땃기, 앞줄땃기 등이, 일상용으로 사용하는 쪽땃기, 도투락땃기, 말뚝땃기, 제비부리땃기, 배씨땃기, 목판땃기 등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명칭은 땃기의 끝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드리는 방향에 따라 명명되었다. 또한 연령에 따라 어린아이들 배씨땃기, 말뚝땃기, 제비부리땃기, 도투락땃기 등을 사용하였으며, 미혼 남녀는 제비부리땃기를 사용하였다. 기혼 여자들이 쪽머리를 곱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 쪽땃기는 조선시대 복식 규범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젊은 부인은 붉은색, 중년은 자주색, 노인은 짙은 자주색, 과부는 검은색, 상제는 흰색을 사용했다. 남편이 살아 있는 부인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붉은색을 사용했으며, 과부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검은색 땃기를 드렸다.

땃기의 착용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1895년(고종 32)에 시행된 단발령 이후부터이다. 이때 여자들의 머리모양은 단발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신여성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서양식의 머리모양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1910년대 이후 일제의 강압적인 지배 아래에서 애국심의 표현으로 한복의 착용이 늘어나면서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땃은머리와 자주색 땃기를 드리웠으나 점차 그 길이가 짧아져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후 1930년대까지는 머리를 곱게 땃고 그 끝에 땃기를 드리운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으나 1937년부터 서양식 파마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광복 후에는 쪽머리나 땃은머리를 시골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특징 및 의의 땃기는 머리를 고정하거나 장식하는 데 사

용했던 직물 수식품으로, 머리를 빚는 과정에서부터 함께 삽입되어 머리모양을 완성하는 데 쓰임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것은 미적인 효과를 중요시하는 다른 수식품들과는 다르게 땡기는 예禮를 갖추기 위해 드렸으며, 그만큼 예를 갖추는 것이 중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식하는 방법으로는 석웅판石雄板, 오색견사, 옥판玉板 등을 더하여 치장하거나 직물에 수복壽福, 부귀富貴, 다남多男 등을 상징하는 문자와 문양을 화려하게 금박 또는 자수로 장식하였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정해진 일정한 재료나 형식은 없었는데, 다른 수식처럼 특별한 기술을 가진 장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여자들이 일정한 형식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이나 집안, 제작자에 따라 그 형태나 특징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다. 또한 당시에는 비단이라는 소재가 무척 귀했기 때문에 일정한 규격이나 색채를 맞추기보다 소재의 형편에 맞추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색은 일반적으로 붉은색, 자주색, 흑색을 띄며 사용자에 따라 달리하였는데, 젊은 여자는 붉은색, 중년은 자주색, 노인은 짙은 자주색, 과부는 검은색, 상제는 흰색을 사용하여 색채에 의미와 상징을 부여하였고, 특히 미혼 여자의 길게 땡은머리에 드린 붉은 땡기는 검은색의 머리카락과 조화되어 뚜렷하게 주목되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었다.

땡기는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소재와 색채에 차이를 두어 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사紗, 비단, 무명 등을 주로 소재로 사용하였으며, 땡기를 주제로 한 민요에서는 공단, 생견, 갑사, 생초 등의 옷감을 언급하고 있다. 땡기에 사용한 소재 중에서 특이한 것은 다편으로 만든 한지인데, 남녀노소가 상을 당했을 때 만들어 탈상脫喪 때까지 조심스럽게 사용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영조 대 이후에 노론은 흰 땡기가 꺼림칙하다고 하여 한지에 먹물을 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1880년대에는 비단이 귀해서 안감으로 무명을 썼는데, 겉은 살짝 비단을 입혀 공단처럼 보이도록 짠 ‘미치광이 모본단’이라는 소재가 유행했다. 이 소재는 일반 서민 가정에서 혼례용 도투락땡기를 만들 때 썼다고 하는데, 현재 도투락땡기 유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대 말부터는 학단, 공단, 인조건을 소재로 많이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땡기에 관한 연구(이승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홍나영·장숙환, 열화당, 2003), 전통 장신구(장숙환, 대원사, 2002),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학사,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이호정(李祐廷)

더그레

정의 고려시대 원나라에서 전해진 답호의 우리말 이름으로, 포袍 위에 입는 반소매이거나 소매가 없는 간편한 덧옷.

내용 더그레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시대 한어漢語 학습서인 『노걸대老乞大』(1346)에 ‘搭護, 搭胡, 搭忽’로 표기되었으며, ‘더그레’로 언해되었다. 『역어유해譯語類解』(1690)에는 ‘搭다 護후 ○더그레’라고 하였고, 『방언유해方言類解』(1778)에도 답호에 ‘더그레’라고 주석하였다. 『몽어유해증보蒙語類解增補』(1790)에는 ‘더거레, 닛동옷’은 ‘등지게’, ‘등거리’라고 했다.

오창명은 「의궤儀軌에 나타난 차자借字 표기 연구」에서 『“행용이문行用吏文”에 “加文刺 더그레 團領內供也”라 하였고 『이문속집람吏文續輯覽』에도 “搭護搭護 卽本國所謂加文羅”라 근대 국어 문헌의 더그레[搭護, 搭胡]의 표기로 볼 때 ‘더그레’의 표기임을 알 수 있다. ‘襦加文刺’은 ‘헛더그레’의 표기이다. ‘袂加文刺’은 ‘겹더그레’의 표기이다. 加는 ‘더(加 더 흘 가)’의 훈차, 文은 ‘글(文 글 월 무)’의 훈차, 刺은 ‘달’에서 ‘ㄴ’이 탈락한 ‘라’의 음차 표기이다. 加文刺은 ‘더그라’ 정도로 읽어야 하지만, 근대 국어 문헌에서 ‘더그레’로 표기되고 한자어에 ‘레’가 없어 刺을 차용한 것이므로, ‘더그레’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오창명의 연구에 따르면, “『번역박통사翻譯朴通事』에서 한어漢語의 ‘搭護’를 ‘더그레’로 번역하였다. 더그레는 중세 몽골어 ‘degelei’의 음상音相과 뜻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차용借用으로 믿어진다. 이 한글 음상을 다시 차자로 표시한 것이 加文刺, 加文羅이다.”라고 하여 더그레가 조선시대에는 加文刺, 加文羅로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50년(효종 1)에 칙서를 맞을 때 입을 무늬 있는



길이 119.5 폭 59.5 화장 20.5 | 18세기



더그레 입은 군인 | 평생도 중 부분

더그레 | 국립민속박물관

도롱이

도롱이

흑원령포와 더그레를 의논할 때에도 加文刺를 썼다. 加文刺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곤룡포와 짝을 이루는 답호로 추측할 수 있다. 이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加文刺의 기록은 없으나 신정왕후神貞王后 상제교시시祥祭校是時 대전大殿 진어進御(1892) 때 상의원에서 바친 고종高宗이 입은 白苧布加文刺, 1896년 상의사대군주전하정조진상尙衣司君主殿下正朝進上 물목에 대군주(고종)과 1896년 상의사태자궁정조진헌尙衣司太子宫正朝進獻 시 태자궁(순조)에게 올린 ‘白吐紬襦加文刺’ 기록과, 1897년 상의사태자궁정조진헌시尙衣司太子宫正朝進獻 태자궁(순종)에 올린 ‘白吐紬襦加文刺’, 1897년 상의사대군주전정조진상尙衣司君主殿下正朝進上 때도 같은 기록이 있다. 이때 순서가 衫兒, 裹肚, 帖裏, 加文刺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加文刺은 답호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살펴보면 궁궐에서는 加文刺(더그레)로 쓰여졌고, 일반 사대부는 ‘답호’ 또는 ‘더그레’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최남선의 『조선상식朝鮮常識』(1937)에는 호의號衣의 속칭으로 일명 더그레라 하여 군인 관예들의 소속을 표시해 보이는 표의表衣라 하였다.

조선시대 출토복식에서 곧은 것에 무가 달려 있는 반수의半袖衣 형태의 답호는 몰년沒年이 17세기 전기인 강대호姜大虎(1541~1624) 묘 출토복식과 윤선언尹善言(1580~1628) 묘 출토복식 이후에는 더 이상 수습되지 않는다. 17세기 전기 이후 단령團領이 직령直領과 함께 겹옷으로 변하면서 단령의 받침옷인 답호의 기능이 단령의 안감(속옷)인 직령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덧입는 옷인 답호는 사라진다. 이응해李應海(1547~1626), 김확金樸(1572~1633), 신경유申景裕(1581~1633) 묘에서부터 겹단령이 출토되고 답호는

출토되지 않는 것을 보아 1630년경을 기점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더그레란 고려 말 전해진 답호搭護의 우리말 차자이다. 복식 명칭으로 당시에 기록하는 단어와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이다. 조선시대 말에는 궁중에는 ‘加文刺’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대부나 일반인에게는 ‘답호’나 ‘더그레’로 표현되었다.

참고문헌 궁중발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이명은,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노걸대 간본들을 통해 본 14~18세기의 복식관련 용어 비교연구(서정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더그레에 관한 연구(변지연,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의례에 나타난 차자 표기 연구(오창명, 한국복식 5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7), 조선시대 무수의에 관한 연구(이주영,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필자 송미경(宋美京)

도롱이

정의 비가 올 때 어깨에 걸쳐 입는 우장雨裝.

역사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1425년(세종 7)부터 1798년(정조 22)까지 관련하여 30여 건의 기록이 있다. 우장용 및 방한용으로 즐겨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신 선물용·하사품·국세용·권농勸農·친경親耕의 의미로도 폭넓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상하 귀천에 관계없이 왕자도 도롱이를 입었으며(세종 27), 임금도 도롱이를 입고(세조 33), 남장하는 겹옷으로(세종 23), 옷이 없어서 알몸을 가리는 옷 대용으로 입기도 하고(세종 29), 뇌물로 주고받았다는 기록도 있으며(문종 1), 중국 사신 선물로 종종 사용되었고(세조 4, 광해 1), 활쏘기 대회의 시상품(세조 5, 세조 11), 우장의 필수품(세조 8), 군인의 필수품(세조 9)이라는 기록도 나온다. 왕의 하사품 기록이 많으며(연산군 9, 중종 4, 광해 3, 광해 6), 추운 날의 방한용 겹옷(숙종 31), 농부의 차림새 상징(영조 15), 국세(영조 30)와 권농의 의미, 농부의 의미(영조 41, 정조 22), 친경하는 뜻(영조 43)과 충신의 의미(정조 22)로도 도롱이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비가 올 때 외출하는 경우에는 털병것(털모자)이나 삿갓을 쓰고 도롱이를 입고 나막신을 신는 차림새가 보편적이었으나, 1970년대 도롱이는 산간 지방에서만 가끔 볼 수 있게 되었다.

내용 도롱이는 띠[茅草]나 그와 비슷한 풀 종류인 벼짚·보릿짚·밀짚·갈대·왕골꺾질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드는데, 어촌에서는 가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해초海草를 이용하기도 한다. 안쪽은 재료를 촘촘하게 고루 잇달아 엮어서 마치 뜨개질을 한 모양이고, 겉은 층층이 치마처럼 풀의 줄거리를 아래로 드리워서 빗물이 겉으로만 흘러내리고 안으로는 스며들지 않게 한다. 도롱이 상부의 양 끝에 끈을 달아 목에서 매서 입을 경우가 대부분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안쪽으로는 양쪽 팔을 끼울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끈을 달아서 입을 경우도 있다.

농촌에서 비 오는 날 외출을 하거나 들일 등을 할 때 어깨·허리에 걸치고, 머리에는 어깨너비 이상이 되는 커다란 삿갓까지 써야 완전한 우장雨裝이 되었다. 여름엔 우의雨衣가 되지만 겨울엔 방한용도 된다. 또한 산이나 들에서 밤을 새울 때는 이불이 되기도 하여 많이 이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도롱이는 도랭이(창녕 영산)·우장(김해 생림, 진양 대곡, 양산 동면, 울주 상북, 동래 기장)·도리(거창 위천)·두랭이(충북 봉양)·둥구지(전남 영광)·느역(함경)·둥구리·도롱옷·드렁이·도렁이·되랭이·되롱이 등의 방언으로 불린다. 옛말로는 되롱·누역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 부르는 용어가 상당히 많고, 모두 다른 것은 그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제주도에서는 잡세기·도롱이·괘이·우장 등으로 부르나, 도롱이로 통용되고 있다. 대부분 무릎 밑까지 올 만큼 길게 만든 도롱이를 사용하였고, 길이가 짧은 것은 ‘토루기’라고 하여 비 오는 날 풀 벨 때에 사용하였다. 재료는 가을철 풀을 벨 때 야산에서 누렇게 된 새(띠)를 베어다가 엮는다. 새(띠풀)는 제주도에서 초가지분을 덮는 재료로, 부잣집에서는 들밭에다 새밭을 따로 만들어 키우기도 하였다. 새의 잎으로 만든 도롱이는 안을 새끼로 엮어 조밀하게 매듭이 벌집처럼 생기



① 도롱이 겉 | 광복 이후



도롱이 안



② 도롱이 입고 삿갓 쓴 사람 1910

도롱이 | ① 길이 120 너비 60 | 국립민속박물관, ② 김영준

며, 겉은 띠 잎으로 길이 20cm 정도로 곧게 뻗어 내린 새 끝을 따라 빗방울이 흘러내리게 되어 있다. 제주도 역시 겨울에는 방한구로도 이용되었다.

강화에서는 남자들이 입는 도롱이를 ‘도롱’이라 일컫고, 여자가 입는 비옷은 ‘가장’이라고 하는데, 만드는 재료와 방법은 일반 도롱이와 같으나 머리 위로 완전히 쓸 수 있게 하고 길이는 발목까지 오게 한다. 안쪽으로는 양쪽 팔을 끼울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끈을 다는데, 끈을 다는 부분에 구멍이 크게 생기면 끈이 빠지게 되므로 바깥에서 끈의 매듭을 고정시킨다.

보통은 자리를 엮듯이 한 장으로 만드나 충북 제천에서는 뒤가 4층이 되도록 두툼하게 만들기도 하며, 강

원 도계에서는 위에서부터 쳐내려 뒤 끝이 몹시 좁은 형태가 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필자 최은수(崔銀水)

도토리

정의

참나무속에 속하는 나무 열매의 총칭으로 흑갈색, 회색, 황토색을 물들일 때 쓰는 염료.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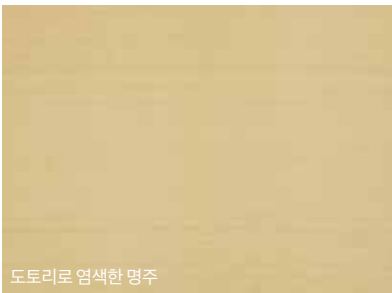
참나무과 참나무목의 열매를 모두 도토리라고 한다. 도토리는 구형 또는 원주형의 견과로 하반부가 술잔 모양의 각정(角形)으로 싸여 있다. 우리나라에는 13종의 참나무속 식물이 있는데 주종을 이루는 것은 신갈나무이다. 이희승(李熙昇)(1896~1989)의 수필 <병어리 냉가슴>(1956)에서는 “남산골 딸각발이가 껌멜 대로 껌멜 현 망건을 도토리 같이 눌러 쓰고, 대우가 ……”에서 현 망건의 모양을 도토리로 표현했다. 도토리로 목을 해 먹는가 하면 껍데기가 두꺼운 것은 염주를 만들 때 썼다. 도토리 껍데기는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장난감이나 장식품을 만들 때 쓰이기도 했다.

특징 및 의의 갈참나무와 그 밖의 도토리는 타닌(tannin)을 많이 함유하여 물에 담가 뒹은 맛을 뺀 다음 녹말을 채취한다. 졸참나무의 도토리는 뒹은 맛이 나지 않아 날 것으로 먹을 수 있다. 주성분은 전분이며, 타닌, 사포닌, 비타민, 인, 철 등도 포함되어 있다. 타닌은 뒹은맛을 내는 성분인데 각정(角形)을 벗기고 물에 우려내면 제거된다.



도토리

도토리 국립민속박물관



도토리로 염색한 명주

타닌의 양은 3~9% 가량이다. 옛날부터 목·떡·죽·국수의 원료로 많이 이용되었다.

조선시대 세종 때는 구황식품(救荒食品)으로 지정되었다. 옛날 고을에 수령이 부임하면 기근에 대비하여 도토리나무를 심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한문(韓文公)(768~824)이 산동성을 다스릴 때 기근에 대비하여 도처에 도토리나무를 심은 데서 비롯하였다. 그래서 도토리나무를 한목(韓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수렴제·후장위·소식지리 등으로 사용하였다. 도토리 열매를 반쯤 둘러싼 각정이 부분은 밤의 가시껍질처럼 표피가 변한 것이다. 각정이 부분과 열매의 껍질은 모두 염색에도 사용하는데, 염색성은 각정이 부분이 더 좋다. 흑갈색으로 철매염을 한 후 아세트산을 가하면 은빛이 도는 회색으로 염색되며, 크롬 매염을 하면 황토색으로 염색된다. 주성분은 피로갈롤(pyrogallol) 타닌이다.

참고문헌 식품과학기술대사전(광일문화사, 2008), 증보 천연염료 염색사전(조경래, 아취현, 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e뮤지엄(emuseum.go.kr), 두피디아(doopedia.co.kr).

필자 소황옥(蘇晃玉)

도투락댕기

정의 궁중이나 반가에서 사용하던 신부의 예장용 큰댕기 또는 어린이용 댕기.

내용 도투락댕기의 ‘도투락’이라는 말은 중세 국어의 ‘도티다’라는 말의 명사형으로, 둥근 단추나 장식 모양으로 만든 것을 지칭하며 뿐만 아니라 부채나 면사 등 여러 곳에 쓰인 문양 또는 장식을 뜻한다. 또한 『대전회통(大典會通)』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도다익장(都多益匠)과 금박장(金箔匠)이 각각 기록되어 있어 도투락이 금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의 기록에 따르면 도투락은 옹황(雍黃), 청초(靑綃), 자적초(紫紫) 등의 직물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투락댕기는 ‘도드라진 무늬나 장식을 가미한 댕기’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이외에 그동안 도투락댕기와 같은 명칭으로 사용했던 주렴(朱簾)이라는 말이 만드

시 도투락땡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한편 오늘날 도투락땡기는 두 가지 땡기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궁중이나 반가에서 사용하던 신부의 예장용 큰땡기이며, 두 번째는 아직 머리가 길지 않은 여아용 땡기이다. 사용 용도나 사용 주체의 연령에 따라 땡기의 크기에만 차이를 보이며, 전체적인 땡기의 형태는 동일하다.

먼저 신부의 예장용 큰땡기로서의 도투락땡기는 궁중이나 반가의 신부가 예장용으로 사용하였다. 혼례 시에 원삼이나 활옷을 입고 족두리나 화관을 쓸 때 쪽진 머리 뒤쪽으로 붙여 길게 늘어뜨린 뒷땡기가 바로 도투락땡기이다. 족두리에 쓸 때는 땡기의 뽕족한 부분을 제비부리같이 하여 그 끝에 고리를 달아 연결하였다. 큰 비녀의 양쪽으로 두어 번 감아 어깨까지 드리우는 앞땡기인 드림땡기와 짝을 이루어 사용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궁중에는 도투락땡기를 만드는 도다익장이 있었으며, 상궁들도 도투락땡기를 달았다. 대전과 내전의 나인들도 각기 품위에 따라 신분에 알맞은 땡기를 달았으며, 형태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였다. 둘째로 어린이 도투락땡기는 말뚝땡기와 함께 장식용 땡기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도투락땡기·말뚝땡기·제비부리땡기의 순서로 착용한다고 하나, 이전의 견해와 달리 도투락땡기는 어린이들의 예장용, 말뚝땡기는 일반용 땡기라는 주장도 있다. 전체적인 모양은 어른의 것과 같으나 훨씬 작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어린이의 뒷머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땡기 위에 조그만 끈을 달아 뒤통수 밑에서 바짝 달아 주었다. 이렇게 긴 직사각형 땡기를 반으로 접어, 접은 곳에 끈을 달아 머리에 매어 다는 착장 방식은 말뚝땡기와 같으며, 도투락땡기와 말뚝땡기의 차이점은 땡기를 접어 두 폭으로 겹쳐진 부분의 모양이 도투락땡기는 세모꼴, 말뚝땡기는 네모꼴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용 도투락땡기는 일반 땡기보다 너비가 넓고, 직물 위에 금박, 자수, 칠보 장식을 하거나 옥이나 진주 등의 패물로 장식을 더하였다.

특징 및 의의 도투락땡기의 전체적인 형태는 너비 10cm 정도로 하고, 길이는 뒤에 늘어뜨렸을 때 치마 길이보다 약간 짧으며, 윗부분의 뽕족한 삼각형의 머리판과



① 회음례도중 부분 | 18세기



② 도투락땡기 | 20세기

③ 도투락땡기 | 20세기

도투락땡기 | ① 국립중앙박물관, ② 길이 114 너비 22 | 국립민속박물관, ③ 길이 95.5 너비 30 | 국립민속박물관

정점으로부터 좌우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몸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땡기 전체에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그 위에 파란, 호박, 산호, 옥, 석옹황 등이 달려 있다. 뒤쪽 갈라진 부분에는 천도 모양 석옹황이나 조각된 옥판을 달고, 그 밑으로 석옹황 또는 밀화, 금패로 만든 매미 다섯 마리 정도를 달아 두 갈래의 땡기를 서로 연결하였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장식하기도 하였는데, 함경남북도 지방에서는 금박 대신에 비단 색실로 장식하고 작은 칠보 꽃을 화려하게 둘레에 붙이기도 하였다. 서북 지방에서는 혼례 때 도투락땡기와 유사한 고이땡기를 사용하였다.

도투락땡기 유물은 현재 여럿 남아 있으며, 국립민속박물관에도 여덟 점의 유물이 확인된다. 혼례용으로

사용된 한 조선시대의 유물은 길이 126cm, 너비 24cm인 자주색 항라를 바탕으로 하여, 중앙을 제비부리 형태로 접고 나머지가 두 가닥이 되도록 만들었다. 제비부리 중심에는 천도 모양 석옹황을 달고 아래로 작은 석옹황을 달았다. 황색 유리구슬이 석옹황과 함께 실로 꿰어져 있는데, 파손과 결실로 인해 남은 부분이 적다. 아亞 자 돌림 문양 속에 봉황문, 쌍학문, 모란문, 문자문, 난초문, 박쥐문 등의 금박이 떨어져서 검은 흔적으로만 남아 있다. 한편, 어린이용 도투락땡기로 추정되는 것은 길이 53cm, 너비 17cm의 진분홍색 직물을 두 가닥으로 만든 후 윗부분을 세모꼴이 되도록 접었다. 희赫 자 등이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땡기 중간 부분에 석옹황을 달아 좌우를 연결하였다. 위쪽에 주황색 고리가 달려 있다.

참고문헌 땡기에 관한 연구(이승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명선-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조선시대 후기 궁중패물 연구(박혜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학사,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이호정(李祐廷)

도포 道袍

정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남자용 포袍.

내용 도포道袍는 조선 후기 왕 이하 양반가 동자들, 심지어 천민까지 통상 예복으로 가장 널리 착용한 옷이다. 조선시대 옷에 대해 모르는 이들은 도포가 조선의 유일한 남자 포袍인 줄 알 정도이다. 대구 파계사把溪寺에는 1740년의 영조의 도포(국가민속문화재 제220호)가 소장되어 있다. 또 1847년 헌종은 경빈 김씨와의 가례일에 동뢰연同牢宴을 마치고 방친영할 때 두면頭巾(후립)에 도포를 착용하였다는 기록도 보인다. 도포는 겹옷으로 입었을 뿐만 아니라 17세기 전기에는 관복의 받침옷으로 입기도 했다.

도포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였지만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도포 형태는 길이가 길고 넓은 소매와 곧은 것이 달린 교임형交衽形 포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뒷자락이 겹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도포의 특징이다. 앞길의 좌우 옆선에 달린 무武(또는 이엽삼二葉衫, 전삼展衫 등)가 뒷자락(매미차락, 수거垂裾, 후수後垂) 안으로 각각 뒷길 안쪽 중심으로 펼쳐져 들어가 등에 고정되었는데, 좌우의 앞무 두 자락이 만나는 부위에 자연스레 뒤트임이 생겨 뒷자락이 그 위를 덮고 있기 때문에 뒷자락이 겹으로 보이는 것이다.

조선시대 사신들이 기록한 연행록燕行錄에는 중국 도사들이 입는 도포와 비슷하다는 기록이 자주 보인다. 『성호사설星湖僞說』과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에서도 도포의 기원이 도교나 불교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조선에서 도포를 입게 되었을 때는 이미 종교와는 무관하여 종교와의 연관성을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의 도포가 중국 도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포의 형태는 직령直領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남당초고南塘草稿』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사인士人이 출입할 때 관리들이 입는 직령과 공복公服을 착용할 수 없으므로 직령의 제도를 약간 바꾸어 만들었다. 그래서 도포의 뒷면은 직령과 같되, 직령의 이엽삼을 도포 안쪽 한판 좌우에 붙였다.”라고 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도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564년(명종 19) 기록이다. 도포가 양반들의 옷인데 천한 신분의 창두蒼頭가 착용하였다고 비난하는 내용이다. 도포가 양반이 입는 옷인 것은 확실하나 당시 사대부 예복으로 착용되었던 직령보다는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당시 도포는 예복보다는 편복의 성격이 강했고 역사가 짧은 포엮기에 그 구성법도 후기의 전형적인 도포 형태와는 다른 부분이 있었다. 홑옷은 물론, 겹옷, 솜옷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또, 옆선에 달린 무의 겨드랑이 부분에는 작은 크기의 다중 주름이 확인되는데 그 모습도 일정하지 않았다. 경북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벽진 이씨(?~1585) 묘에서 출토된 솜액주름[襖腋注音]은 형태상 도포의 특징을 보인다. 겨드랑이 아래로 액주름 형태의 특징도 보이지만 앞자락의 무에 잔주름을 잡아 뒷자락 안쪽 등판에 고정시켰다는 점에서 도포에 가깝다.



도포 | 길이 117 폭 49 화장 80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도포 | 이명기·김홍도 | 서직수 초상 | 1796 | 국립중앙박물관

16세기 말 임진왜란과 17세기 초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서서히 사대부의 직령 착용이 줄어들었다. 직령은 상례 때의 외출복으로만 그 명맥을 유지해 가는 반면, 무반(武班)이나 이서(吏胥) 계층의 관복으로만 착용되었다. 직령의 자리를 도포가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포의 착용이 증가하면서 도포의 형태는 안정되어 갔다. 제일 먼저 무에 잡혀 있던 겨드랑이 주름은 사라졌다.

18세기에 도포는 사대부의 통상 예복으로 정착됨은 물론, 유생복으로 착용되기에 이르렀다. 백정이나 천인들까지도 입을 정도로 도포가 유행하였다. 겹도포인 경우는 어깻바대 없이 뒷자락 안쪽에 직접 부착하였으나 홀도포는 어깻바대를 연장하여 만든 한판(汗板)을 달아 앞무를 부착하는 형태로 변화해 갔다. 19세기 이후 겹도포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도포의 색상도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초기에는 도포의 색상에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600년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에는 수례지의(禋禮之衣)로 사용된 옷으로 추정되는 ‘초록필단도포(草綠匹段道袍)’가 소렴구(小斂具)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1604년 사대부 묘의 출토 도포 중에는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적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아청색이다. 1776년 영조의 소렴구와 재궁의대(粹宮衣褂) 기록 중에는 다홍대단도포(多紅大段道袍), 남유문사도포(藍有紋紗道袍), 초록광직도포(草綠廣織道袍), 남광직도포(藍廣織道袍), 남선단도포(藍扇緞道袍), 다홍공단도포(多紅貢緞道袍), 다홍광직도포(多紅廣織道袍), 다홍공단단도포(多紅貢緞單道袍), 다홍공단습도포(多紅貢緞襲道袍), 다홍화화주습도포(多紅禾花紬襲道袍) 등이 보인다. 소재도 다양하지만 남색, 초록색, 다홍색 등 다양한 색상이 보인다. 이 도포들이 평상복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튼 이 시기까지는 다양한 색상의 도포가 확인된다.

영조 대 이후 청색을 권장하면서 사대부 길복(吉服)으로 청색 도포를 착용하였고 조상(弔喪)에는 흰색 도포를 착용하였다. 『임하필기(林下筆記)』에 따르면 청색 도포를 널리 입었다고는 하지만 옅은 청색이 사용되었다. 영조의 소렴과 재궁의대의 도포가 평상시 사용했던 옷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도포의 소재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17세기 전까지 도포의 소재는 사(紗)·라(羅)·능(綾)·단(緞), 주(紬) 등의 비단류

는 물론, 모시와 삼베 등이 사용되었고 무늬도 확인된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는 17세기 전기의 신경유申景裕(1581~1633) 묘에서 출토된 다양한 옷감과 무늬의 도포가 소장되어 있다. 운문단, 운문사를 비롯하여 팔보문단, 화문단, 포도문사, 이색견[紵], 무문사, 무문릉 등이 사용되었다. 특히 팔보문단은 불가의 팔보문인 법륜, 보산, 보개, 법라, 보병, 연화, 금어, 반장 등이 직조되어 있다. 가장 화려한 도포의 옷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말 이후에는 겨울이나 여름을 가리지 않고 모시나 삼베로 만든 도포를 널리 착용하였다. 도포가 예복으로 착용되면서 소재는 검소해지고 옷감 무늬도 사라진 것이다. 구성법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겹도포는 사라지고 홀도포만 제작되기에 이르렀다.

20세기 이후 일제강점기 때는 ‘개량도포改良道袍’라고 하는 간소화된 도포가 등장하였다. 좌우 뒷자락 안쪽으로 들어간 앞무가 합봉됨에 따라 결국 뒤 중심의 트임은 사라졌고 소매도 두루마기처럼 좁게 변했다. 근래에는 전통적인 예를 지키는 지역에서 관혼상제 등의 의례 때 도포를 착용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소매는 옛 모습대로 넓게 변했으나 뒷자락의 안쪽 트임은 여전히 부활하지 않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도포는 조선 후기 남자의 대표적인 예복이었다. 혼인할 때 「의양단자衣樣單子」를 신부 집에 보내는데 이는 신랑이 입을 옷의 치수를 적어 보내는 것이다. 이때 도포 치수가 적혀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관례冠禮 때에도 도포를 착용하였는데, 『순조실록純祖實錄』에 따르면 1819년 3월 20일 효명세자가 관례를 치를 때 초출복初出服으로 공정책에 도포를 착용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는 왕세자가 동자복으로 도포를 착용하였음을 말한다.

상례喪禮에도 도포를 사용하였다. 1627년 인조의 생부인 원종의 상례에 조복제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때는 조복의 중단 겹 받침옷으로 초록유문대단 도포를 사용하였다. 『영조실록英祖實錄』에 따르면 영조의 소림에 다섯 점, 재궁의대로 열세 점의 도포를 사용하였다. 남선단, 남유문사, 다홍광직, 다홍공단, 다홍대단, 다홍화화주, 초록향직 등이다. 남색과 홍색, 초록색 등, 색상이 다양하다. 1922년 『순종실록純宗實錄』 부록에 등장하는

왕손 이진李晉의 대령에 남공단 도포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 1854년에 사망한 김수근金洙根의 『신종록愼終錄』에 의하면 대령에 상하도의 중 도포 한 점을 사용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제례祭禮에도 도포를 사용하였다. 현재까지도 경상북도 안동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불천위 제사를 비롯한 문중 제사가 많은데, 이때 참여자들은 유건에 도포를 착용한다.

참고문헌 儀禮軌範, 林園十六志, 朝鮮王朝實錄, 太學志, 도포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이은주,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안동김씨 분묘발굴조사보고서(운양민속박물관, 1989), 운현궁 생활유물4(서울역사박물관, 2006), 정미가례시일기 주해(황문환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0), 정사공신 신경유공 묘 출토 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2008), 칠곡 인평동 이씨묘 수습조사(박성실·윤용진·이병휴, 고문화3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1).

필자 이은주(李恩珠)

돌띠

정의 첫돌을 맞이한 남녀 아기의 겉옷 위에 둘러 장식하는 띠.

내용 돌띠는 첫돌 성장盛裝을 위한 중요한 구성물이다. 남녀 아기를 구분하지 않고 벽사辟邪의 의미를 가진 붉은색 옷감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나 드물게 옥색이나 청색 돌띠도 볼 수 있다. 등 쪽에 두르는 부분을 넓직한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그 양쪽에 별도의 끈을 달아 묶도록 한 것, 양쪽 끝을 뽕족하게 전대戰帶처럼 만든 것 등 장식과 모양이 다양하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장식 없는 붉은색 끈으로 대체한 사례도 있다. 돌띠는 겉



돌띠 | 이지영

옷 위에 따로 매어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활동성과 장식성을 위해 전복戰服이나 사규삼四揆衫, 두루마기나 저고리의 등 부분에 꿰매어 붙이기도 했다.

특징 및 의의 첫돌을 기념해 사용한 돌띠에는 아기의 앞날을 축원하기 위해 해와 달, 구름과 소나무, 학을 비롯한 십장생十長生과 꽃, 나비 등 복록福祿을 기원하는 여러 가지 무늬를 수놓아 장식했다. 이때 십장생은 첫돌을 맞은 아기의 무병장수를, 모란과 국화, 나비, 편복蝙蝠 등은 부귀영화와 복록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수복강녕壽福康寧, 쌍희囍, 다남多男과 같은 글자를 수놓거나 금박하고, 수수와 쌀, 좁쌀, 콩, 팔을 넣은 염낭을 세 개에서 열두 개까지 매달았다. 이는 곡식이 먹고사는 일의 근본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평생 재물과 먹을거리 걱정 없이 평탄하고 다복多福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참고문헌 선비와 피어싱(조희진, 동아시아, 2003), 첫돌 복식의 착용 양상과 통과 의례적 의미(조희진,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필자 조희진(趙熙眞)

돌복

정의 출생 후 처음 맞는 생일을 축하하고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입히는 복식.

역사 첫돌 의례의 역사와 정착 시기에 관해서는 정확한 문헌 자료를 찾기 어렵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1412년(태종 12), 1783년(정조 7), 1828년(순조 28) 기사에서 원자元子를 비롯한 몇몇 왕자의 첫돌 의례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나, 왕실의 기록이므로 민간에서 행해졌던 상세한 모습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양아록養兒錄』(1552), 『쇄미록瑣尾錄』(1598), 『지봉유설芝峰類說』(1614),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1946)에 돌잡이 풍습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간에서도 첫돌 의례가 행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첫돌에는 새 옷을 해 입혔다는 공통점이 있

으므로, 이를 통해 첫돌이라는 의례적 구성에서 복식의 변화가 한 부분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용 돌복은 각 집안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색깔 있는 옷을 입히고, 남아와 여아가 구별되게 하였으며, 머리쓰개부터 신까지 전부 갖추었다.

첫돌은 아이가 일어서고 걷는 등 움직임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돌복은 아이가 활동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함과 활동성을 배려한 실용적인 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통 남아는 보라색 또는 회색의 풍차바지에 분홍 저고리나 색동저고리, 남색 조끼, 색동마고자에 오방장五方將두루마기와 전복戰服 혹은 사규삼四揆衫을 입었고, 허리에는 돌띠를 둘렀다. 머리에는 복건幅巾이나 호건虎巾을 썼으며, 타래버선과 태사혜太史鞋를 신었다.

여아는 분홍색의 풍차바지를 속바지로 입고, 노란 색이나 분홍색의 속치마를 입은 다음, 그 위에 홍색 치마와 색동저고리를 입었다. 그리고 겹에는 당의唐衣 또는 색동두루마기를 입는다. 머리에는 금박 물린 다홍댕기를 드리고 굴레나 조바위를 쓰며 타래버선과 다홍색 운혜雲鞋를 신는다. 길상무늬[吉祥紋樣]가 들어간 아기 노리개를 달기도 하였다.

조선 말기 덕혜옹주德惠翁主(1912~1989)의 돌 사진을 보면, 옹주는 화관을 쓰고 당의에 스란치마를 입고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당의에는 수壽·복福 금박을 찍었으며, 소매 끝에는 거들지를 달았다. 그리고 치마 밑단에는 수복문을 찍은 넓은 스란단을 대었다.

돌복의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고름은 한쪽(겉고름 쪽)을 길게 만들어, 뒤쪽으로 한 번 돌려서 묶을 수 있



① 초도관희 | 18세기



② 돌복과 돌상 | 1937

돌복 | ① 평생도 중 부분 | 국립민속박물관, ② 김영준

게 한다. 움직임이 많은 아이가 활동할 때 앞자락이 풀어져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긴 고름에는 아이의 수명이 길어지기를 바라는 만든 이의 소망이 담겨 있기도 하다. 고름 외에도 돌띠를 따로 매기도 하는데, 남아는 남색, 여아는 자주색을 사용하나 일반적으로는 남녀 구별 없이 홍색을 많이 사용한다. 돌띠에는 만수무강萬壽無疆·수복강녕壽福康寧 등의 길상문자나 십장생을 수놓았고, 오곡(쌀·수수·좁쌀·콩·팥)을 넣은 작은 주머니를 여러 개 달아 주어 부귀영화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돌띠를 맬 때는 수놓은 오곡 주머니가 뒤로 가게 매어야 한다.

색동저리는 색동 소매가 달린 어린아이의 마고자로, 앞섶에는 단추를 달아 여미고 돌띠를 한 바퀴 돌려 맨다. 돌띠는 홍색으로 넓게 만들어 십장생무늬 등을 수놓기도 하고, 아랫단 쪽에는 홍색 주머니를 3개 혹은 12개 단다. 주머니 안에는 80세가 넘는 다복한 노인의 머리카락을 넣어 장수를 기원하였다. 또는 콩·팥·쌀·황두 등의 곡물을 붉은색 종이에 싸서 넣어 자손의 번성과 무병장수의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였다.

또한 십장생무늬를 수놓은 타래버선의 발뒤축에는 대님을 달아서 아이의 발이 벗겨지지 않게 해주었으며, 아이가 걸을 때에도 밀려 내려오지 않게 하였다. 남아는 남색, 여아는 홍색의 대님을 달아서 매었다.

하의는 남아와 여아 공통으로 풍차바지를 입는다.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데에 편리하도록 뒤가 열리게 만든 바지로, 끈으로 허리를 묶지 않고 조끼허리를 달아서 아이의 어깨에 고정하므로 흘러내리거나 쉽게 벗겨지지 않는 기능적인 특성이 있다.

지역사례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돌복으로, 남아는 옥색저고리·풍차바지·조끼·마고자·주머니·돌띠를 착용하였다. 여아는 색동저고리·가래 바지·담방 치마·주머니·돌띠를 입었다.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는 돌복으로, 남아는 연두색 색동저고리·보라색 풍차바지·조끼·마고자·섶과 무가 홍색인 연두색 길의 색동두루마기 등의 일습을 갖추었다. 저고리 위에는 아들이나 딸을 가리지 않고 대개는 홍색 자수 돌띠를 착용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복건에 쾌자快子를 입히기도 했다. 여아는

노란색 길의 색동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고, 반드시 돌띠를 착용했다고 한다. 대부분은 돌복으로 일습을 갖추어 입히기보다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지어 입혔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돌복에는 주로 수·복 같은 길상무늬와 기하무늬인 아자문亞字紋·만자문卍字紋 등이 많이 쓰였다. 길상무늬와 기하무늬는 장수와 길상의 상징이므로, 장수와 부귀길상을 누리기를 바라는 기복사상祈福思想에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무늬는 화려하게 수를 놓거나 금박으로 표현하였다.

출생의례의 복식에 사용된 색상은 음양오행을 기본으로 한 오방색五方色인 청색·적색·황색·백색·흑색이다. 돌복으로 사용된 색동 역시 오방색이 포함된 색상을 사용하였으나 흑색 대신 짙은 감색이나 자주색을 사용하였다. 아이의 옷에 색동을 사용하는 것은, 음양오행에 따른 다섯 가지 색, 즉 오행을 두루 갖추어 나쁜 기운을 막고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한다.

첫돌에 입는 복식에 사용된 다양한 색상은 시각적 효과와 더불어 관념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아이의 수명과 복에 대한 기원을 담은 매개물로 사용되어, 의례 복식으로서 돌복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더욱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첫돌에 입는 복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 색동저고리의 소매를 들 수 있다. 색동저고리의 소매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색동은 옷을 짓고 남은 여러 가지 색의 옷감 조각을 잘 모아 두었다가 이어 붙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이다. 오방장두루마기를 만들 때에도 부분별로 색상을 다르게 하였는데, 작은 부분은 자투리 직물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남아 돌복의 착장 양식과 특성에 관한 연구(이수혜,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첫돌 복식의 착용양상과 통과의례적 의미(조희진,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출생의례복식에 관한 연구(추은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7(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필자 최은수(崔銀水)

동곳

정의 남성의 상투가 풀어지지 않도록 정수리에 꽂아 고정하는 장신구.

내용 동곳은 여성들의 비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남성의 장신구이며, 상투를 트는 풍습에서 생겨난 것이다. 한자 어로는 ‘同串’ 또는 ‘童串’으로 표기된다. 상투는 관례를 올린 성인 남자의 일상적인 머리모양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시대 도제 기마 인물상에서도 상투를 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나이가 어려도 결혼을 하면 상투를 틀었는데, 상투가 머리의 정수리 부근에 안정적으로 앉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상투 밑의 머리를 돌려 깎기도 하였다. 동곳은 상투를 틀고 마지막 마무리로 꽂아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했으며, 그 후에 망건을 쓰고 갓을 착용하였다. 동곳 꽂는 위치에 대해 구한말의 의료 선교사 홀(R. S. Hall)은 “머리털을 왼쪽으로 모아서 틀어 올려 머리 중심의 약간 앞쪽으로 상투를 만든다. 나무나 은으로 만든 핀을 그 아래쪽에 꽂아서 상투가 곧바로 서게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단발령斷髮令으로 인해 관원들이 남성들의 머리를 자르고 다닐 때도 일시에 상투가 풀리도록 동곳이 꽂힌 곳을 휘어 잡고 잘랐다고 한다.

상투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동곳도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안압지에서 출토된 청동제 유물과 금동金銅·은銀·비취翡翠·청동靑銅 등으로 만든 고려시대 유물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이전의 동곳은 다리가 두 개인 ㄱ자형이나, 통일신라시대의 동곳은 머리 부분이 ㄷ자형, 고려시대 동곳은 원형에 가깝게 볼록한 형태로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 동곳은 다리가 하나

인 형태이며, 머리는 버섯이나 콩 모양이 가장 많고 말뚝같이 생긴 것도 있다. 몸체에서 아래 부분까지는 배가 부른 형태로 굽게 하여 상투에 꽂았을 때 빠지지 않도록 한 것이 많다. 동곳의 길이는 2.4~6cm 정도이며, 크기가 유난히 작은 동곳은 12~13세의 어린 신랑이나 노인이 사용했다. 동곳은 크기가 워낙 작아 보관하기 어려워, 특별히 주머니나 동곳집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유물로는 순조의 둘째 부마가 사용했던 수繼 동곳 주머니와 나무에 장지壯紙로 배접하고 옷칠을 한 팔각함 형태의 동곳집이 남아 있다.

동곳의 재료는 금·은·백동白銅·비취·산호珊瑚·호박琥珀·마노瑪瑙·유리·흑각黑角·우각牛角·우골牛骨·동·철·주석·놋쇠·나무 등으로 다양하다. 신분에 따른 제한은 없었으나, 상류층은 금·옥·산호·호박 등으로, 서민층은 은·백동·우각·주석·놋쇠 등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1882년 순종 가례 관련 「궁중발기宮中件記」에는 밀화蜜花·산호·비취옥·순금·진주 동곳이 기록되어 있다. 산호와 밀화 동곳 중에는 꽂는 부분을 은으로 만든 것이 많이 있는데, 고가의 재료를 머리 부분에만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골에 산호색을 물들여 산호인 양 멋을 부린 동곳도 흔히 보인다. 상중喪中에는 나무나 흑각으로 대신하였으며, 시신에는 버드나무로 만들어 꽂았다.

특징 및 의의 동곳은 남성의 상투머리를 고정하는 필수품으로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어 왔다. 고대의 동곳은 ㄱ자형, 조선시대의 동곳은 一자형으로 형태가 변화하였지만 머리를 단정히 함으로써 남성의 격식과 체면을 유지해 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었다. 동곳은 상투 안에 대부분이 감춰져 노출 부위가 적은 장신구로 문양이나 장식이 화려하게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재료를 선택하는 것으로 멋을 추구하였다. 상류층에서는 고급 재료를 사용하였으나 신분에 따른 별도의 규제는 없었으며 귀천고하貴賤高下를 막론하고 착용된 조선시대 남성의 대표적인 장신구이다.



① 은제 동곳 | 고려

② 동곳 | 조선

동곳 | ① 길이 5.1~9.6 | 국립중앙박물관, ② 길이 3.7~4.5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참고문헌 관모와 수식(석주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3), 담인복식미술관 개관도록(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9), 전통 장신구(장숙환, 대원사, 2003),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장신구미술연구(황호근, 일지사, 1976).

필자 오선희(吳宣希)

동다리의 홍수가 소매 전체를 덮을 정도로 길어진 경우가 많다. 동다리 유물을 보면 협수 위에 붉은색 천을 덧대어 만들었으며, 이 때문에 『임진진연의궤(壬寅進宴儀軌)』 등에는 겹수袷袖라고도 기록되었다.

협수나 동다리 위에는 전복을 겹쳐 입었다. 전복 역시 삼각형 무가 있고 뒤트임이 길고 옆트임이 짧아서 협수, 동다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깃과 섹이 없어 앞 중심선에서 맞닿아 좌우대칭을 이루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정원용(鄭元容(1783~1873), 민영환(閔泳煥(1861~1905) 등 조선 말기의 군복 유물 중에는 전복과 겹쳐 입은 형태의 동다리가 전해진다. 이는 흑색 전복에 금향색과 홍색의 동다리 소매가 연결된 포이다. 이는 당시 남성 관복과 여성 예복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으로 겹쳐 입은 옷들을 하나로 합쳐서 간소화한 것이다. 「궁중발기(宮中撥記)」에 기록된 동다리(彤多里)군복은 이러한 옷을 지칭한 것이다.

동다리와 전복 차림의 구군복(具軍服)은 1895년(고종 32) 칙령 제78호인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이 반포되자 서양식 군복인 신군복(新軍服)으로 대체되어 공식적으로 사라진다. 조선 말기 남자 어린이 복식에 이와 같이 협수의 소매 끝 이색(異色) 장식이 점차 길어진 형태가 적용되어 제작되었다. 이처럼 몸판과 소매의 색을 다르게 만든 저고리, 두루마기를 동다리저고리·동다리동의복·동다리주의라고 불렀다.

특징 및 의의 동다리는 몸판과는 다른 색의 소매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임진왜란 때 군사 복식으로 착용된 융복인 철릭을 개량해 소매를 좁게 하고 옷의 길이를 짧게 만든 군복, 즉 협수 위에 전복을 착용하는 차림으로 바뀌었다. 협수의 소매 끝에 다른 색 장식을 단 것이 점차 홍수로 통일되고 길어졌으며, 홍수가 소매 전체를 덮게 되면서 ‘동다리’나 ‘동달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복 구성 방식은 군복뿐 아니라 남자 어린이 의복에도 확산되었으며, 소매의 색을 다르게 한 저고리나 두루마기에도 동다리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불렀다.

참고문헌 궁중발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이명은,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정조 시대 군사복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박가영·이은주, 한복문화7-3, 한복문화학회, 2004), 조선 후기 동다리에 관한 연구(권오선,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조선 후기 복식에 나타난 합병현상에 관한 연구(구남옥, 복식58-9, 한국복식학회, 2008), 조선 후기 오군영의 군사복식에 관한 연구(염

정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조선 후기 전복의 용도와 착용방식(박가영, 한국복식3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4).

필자 박가영(朴嘉玲)

동동구리무

정의 개항 이후 외판원이나 행상들이 손수레를 끌고 복을 치며 팔던 화장품 또는 크림을 통틀어 일컫는 말.

내용 ‘동동’은 행상들이 복을 칠 때 나는 소리에서 따온 의성어이며, 크림(cream)을 ‘구리무’라고 외친 데서 유래했다. 구리무(또는 구리므)가 영어를 한국식으로 읽은 것인지 아니면 일본식 발음 쿠리무(クリーム)의 변형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1920년대 전후하여 얼굴에 바르는 각종 크림이 수입·제조·판매되었는데 쿠라부(クラブ)에서 생산한 미신(美身) 크림을 비롯해 일본 도쿄 호시제약주식회사(星製藥株式會社)의 호시미(ホシ美) 크림 등이 일간지 광고를 통해 알려졌다. 1930년대에는 동경 본향구보정길상점(本郷久保政吉商店)의 콜드 화인(花印) 크림과 설인(雪印) 크림, 월인(月印) 크림, 안등정통당주식회사(安藤井筒堂株式會社)에서 오리지널(オリジナル) 크림, 오사카 삼엽상회(三葉商會)의 크로바레몬(クローバーレモン) 크림 등이 소개되었다.

각종 크림 판매와 더불어 당시 일간지와 잡지에는 얼굴이 트는 것을 방지하고 버짐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크림이 효과적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화장품 수입·판매상에서는 고운 살결을 유지하고 미백 효과가 있다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특징 및 의의 화장품 행상들은 보통 큰 통에 넣어 간 크림을 소비자에게 덜어 주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동동구리무’라는 이름은 크림이 보급되었던 초기의 이런 특징 때문에 얼굴에 바르는 크림 또는 방문 판매 화장품을 일컫는 일반명사처럼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광고로 보는 한국 화장의 문화사(신인섭, 김영사, 2002), 한국 여성 양장 변천사(유수경, 일지사, 1991).

필자 조희진(趙熙眞)

동의대

胴衣褌

정의 궁중에서 쓰이는 왕과 왕세자의 저고리 명칭.

내용 동의대는 궁중에서 왕과 왕세자의 저고리를 높여서 부르는 말인데, 대부분 궁중발기류에 기록된 한글 명칭이다. 한자어로는 순종의 첫 번째 가례의 물목인 「임오이월천만세동궁마마가례시의대발기(壬午二月千萬歲東宮媽媽嘉禮時衣褌件記)」(1882)에 「彤衣褌(동의대)」라는 기록이 있으며, 1847년 헌종과 순화궁의 가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경빈김씨가례절차(慶嬪金氏嘉禮節次)』에는 「同衣褌(동의대)」라 하였다. 소창의에 해당하는 장의대 長衣褌라는 옷이 동의대와 함께 기록된 것을 볼 때 동의대는 저고리임을 알 수 있다. 일반 왕자는 동의복 또는 저고리로 표기하여 신분별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상방정례(尙方定例)』, 『국혼정례(國婚定例)』 등에는 개별 복식의 신분 구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분에 따른 명칭의 차이가 정례화된 것은 아니라고 추측된다.

우리나라 남자 전통 옷의 기본은 저고리와 바지인데, 왕과 왕세자의 경우도 옷웃은 동의대를 아래에는 바지를 높여 부른 봉지를 입었다. 궁중발기류에는 고종·순종·헌종 등에게 올린 동의대가 있으며, 사용된 옷감은 장원주·갑사·광수사·수화주·숙초 등이다. 색상은 옥색·보라색·분홍색 등이 있고, 중누비·세누비·숨[緇]·겹[甲] 등의 다양한 구성법으로 만들었다. 특히 궁중발기류 중 순종의 첫 번째 가례 때의 「임오이월천만세동궁마마가례시의대발기」에서 세자 시절의 순종에게 올린 평상복은 「帖裏·道袍·氈衣·中致莫·快子·軍服·彤多里·周衣·長衣褌·彤衣褌·奉只」가 있는데,



영친왕 별문숙고사 숨저고리 | 길이 56 폭 52 화장 69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이 중 彤多里, 彤衣褌는 ‘彤’이 붉은색을 뜻하므로 길과 다르게 붉은 소매를 붙인 형태로 추정된다. 당시 여덟 살이었던 순종을 위한 어린이가 옷이었기 때문에 동다리와 같이 동의대도 소매 색상을 별색으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동의대는 왕과 왕세자가 입은 것이기 때문에, 명주·무문사·면 종류를 사용하는 일반인의 저고리와 비교하여 옷감의 소재가 뛰어나고 종류도 많으며 구성법도 다양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궁중에서 왕과 왕세자의 저고리를 특별히 높여서 부른 명칭으로 위에는 동의대를 입고 아래에는 봉지를 입었다. 신분에 따른 명칭의 차이는 정례화된 것은 아니어서 조선 말기 왕실 물목을 다룬 궁중발기류에 기록된 것이 대부분이다. 같은 기록에서 왕자의 저고리는 동의복이라 하여 동의대와 대별하였다. 왕실 제도가 사라지면서 이러한 명칭도 쓰이지 않으며 기록으로만 남아 있다.

참고문헌 궁중발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이명은,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조선시대 저고리류 명칭에 관한 연구(황유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한국전통 어린이 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이명은(李明恩)

동자무늬

정의 남자 어린이의 모습을 표현한 무늬.

내용 동자는 나이가 어린 사내아이를 의미하는데, 불교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4세 또는 8세 이상 20세 미만의 출가하지 않은 남자를 뜻한다. 또한 보살이 부처의 아들이고 음욕이 없는 아이와 같다 하여 동자라고도 한다. 도자기나 나전칠기 등의 공예품에 표현된 동자는 비교적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있는 것에 비해 복식에 나타나 있는 동자무늬는 단독으로 표현되기 보다는 연꽃, 포도넝쿨 등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포도는 많은 열매를 맺으므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길상의 의미가 담긴 무늬이다. 동자가 동반된 포도동자무늬는 특히 고려시대의 도자기에 즐겨 사용하던 무늬이다. 직물에는 금사로 무늬를 직조한 금선단錦線段 혹은 직금단織金緞이 있다. 16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 한씨 묘 출토 치마와 광주 이씨 묘 출토 치마의 스란단은 금사로 동자무늬를 시문한 직금단이다. 무늬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과 하단에는 탐스럽게 도안화된 포도넝쿨 사이마다 동자가 배치되어 있고 중단에는 보배와 넝쿨무늬가 있다. 포도동자무늬의 스란단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504년(연산군 10)에 남색 라직물에 동자포도무늬가 있는 쌍스란[藍羅童子葡萄雙膝欄]을 궁으로 들이라고 전교한 기록이 있다. 바로 청주 한씨와 광주 이씨의 스란단이 바탕 직물은 다르지만 쌍스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화순옹주和順翁主(1720~1758)의 초록원삼의 양 어깨와 하단 도련의 직금 부분에도 포도동자무늬가 시문되어 있다. 포도 넝쿨을 잡고 있는 모습은 청주 한씨와 광주 이씨의 스란단과 약간 다르나 전체적인 구도는 유사하다.

연꽃에서 동자가 태어나고 있는 모습을 ‘연화화생蓮花化生’이라고 하는데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다. 평남 용강군에 위치한 성총星塚의 널방 북벽에는 연꽃에서 동자로 보이는 인물이 태어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였다. 중국 길림성 장천 1호분의 전설에도 연화화생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모두 묘주가 내세에 불교의 정토淨土에서 연화화생하기를 소망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본다. 연화화생의 무늬가 의복에 사용된 것은 흔치 않다. 1450년대의 원주 원씨 묘에서 쌍스란 직금단이 출토되었는데 동자가 연줄기를 쥐고 있고 주변에는 연꽃과 연잎이 산재되어 있는 구조의 직물이다. 17세기 초로 추정되는 청원 전傳 박장군 묘에서 출토된 회장저고리의 끝동은 연꽃 속에 동자가 앉아 있는 모습의 금선단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현재는 많이 손상되어 금사의 금박은 떨어져 나가고 한지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와 같이 동자와 연꽃이 함께 직물 무늬로 사용된 예는 흔치 않으나 활옷이나 주머니 등에 자수나 금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는 특히 조선 후기의 유물에서 다수 확인된다. 10세기의 유물인 월정사 구층석탑의



복장물 가운데 향합낭香盒囊이 있다. 라직물의 바닥에 연꽃을 들고 있는 동자를 수놓았는데 이와 같이 연꽃과 함께 그려진 동자는 ‘연달아 귀한 자식을 얻음[連生貴子]’을 뜻하며, 조선시대에는 연화동자무늬를 활옷에 수놓곤 하였다. 활옷은 공주와 왕주의 대례복으로 주로 상류층 여성들의 혼례복으로 착용하는 것이 허용된 옷이었다. 활옷의 깃 주변이나 뒷길 상단 부분에 연꽃을 들고 있는 동자를 수놓는데 득남과 다남을 소망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물에 동자무늬를 직조로 시문하거나 수를 놓은 것 이외에 금박으로 무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전 유물 가운데에는 조선 후기의 땡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앞댕기는 혼례식에 신부의 예장禮裝으로 착용하는 것이며 뒷댕기인 도투락땡기와 함께 짝을 이룬다. 땡기의 중앙에는 두 마리의 봉황이 서로 마주보는 쌍봉황이 배치되어 있고, 양끝에는 꽃, 석류, 복福, 동자가 등이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다. 앞댕기의 동자는 쌍계雙髻를 하고 있는 두 명의 동자가 나란히 손을 모으고 다소곳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앞댕기 이외에 도투락땡기에도 동자

무늬를 금박한 것이 있다. 특히 혼례복식에 장식한 것은 아들을 많이 낳아 자손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염원이 담긴 것이다.

두 명의 동자가 무늬로 표현된 것은 조선 후기의 노리개 장식에서도 볼 수 있다. 각종 옥이나 금동, 은 등의 금속으로 나란히 서있는 동자를 표현하고 있다. 영친왕비의 노리개 가운데 동자삼작노리개가 있다. 밀화·산호·공작석의 세 가지 보석에 동자를 새기고 위, 아래에 각종 색사로 매듭을 짓고 봉술을 달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특징 및 의의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자손은 곧 번영을 뜻하였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조선시대에는 특히 득남과 다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활옷이나 땃기류 등의 혼례복식에 동자무늬가 많이 사용된 것은 이러한 부계제의 가계 전승을 중시했던 전통 가족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자무늬가 복식에 단독으로 사용된 예는 흔치 않으며 연꽃과 포도 등과 함께 복합 무늬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동자가 연꽃을 들고 있는 ‘연생귀자(連生貴子)’와 연꽃에 앉아 있는 ‘연화화생’을 의미한다. 혼례때 착용하는 활옷에는 주로 연꽃을 들고 있는 형상으로 수를 놓고 땃기류에는 두 명의 동자가 나란히 있는 모습으로 금박을 올린 경우가 많다. 또한 상류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화려한 포도동자무늬의 금선단은 최고급의 직물로 동자가 담고 있는 길상의 의미를 도안으로 나타낸 것이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2-복식·자수(문화재청, 1997),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영친왕 일가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월정사성보박물관 도록(월정사 성보박물관, 2002), 자수문양(대원사, 2003), 조선시대 피륙의 무늬(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1), 한국직물오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 2002), Goguryeo Tomb Murals(국립중앙박물관, 2008).

필자 박윤미(朴允美)

동파관 東坡冠

정의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평상시 썼던 쓰개.

내용 동파관(東坡冠)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평상시에 썼던 쓰개 중의 하나로 내관과 외관이 겹쳐 있는 이중관 형태의 쓰개이다.

동파관은 1557년(명종 12)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통해 보면 소동파로 알려진 송나라의 소식(蘇軾)이 썼던 것으로 예관(禮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1798년(정조 22)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에는 중국인과 사신의 복식에 대한 설명이 있다. 사대부들이 연거(燕居)할 때는 말의 털을 재료로 만든 총관(聽冠)을 쓰는데, 그 중 하나가 동파관이었다.

동파관의 유래는 명확히는 알 수 없으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고금관건제도변증설(古今冠巾制度辨證說)에는 벼슬한 사람들(卿士)이 보통, 갓 대신 관을 쓴다. 그 관의 종류는 정자관(程子冠)·주자관(朱子冠)·염계관(廉溪冠)·동파관·충정관(沖正冠) 등이라 하였다.

동파관의 형태는 중국 명나라 때 편찬된 일종의 백과사전인 『삼재도회(三才圖會)』에 기록과 함께 도식이 그려져 있다. 내관은 높이가 높고 사각형인 방관의 모습이며 이를 감싸는 외관은 이보다 낮게 제작되어 있다. 뒤에는 드림이 있어 늘어진 모습이다.

초상화에서 확인되는 동파관은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심득경(沈得經, 1629~1710)의 초상화에는 동파관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다. 이는 『삼재도회』에 그려져 있는 동파건과 같은 형태의 것으로 후대로 가면서 관이 높아지고 관의 끝이 좌우로 넓게 벌어져 내장과 외장의 차이가 커진다. 윤봉구(尹鳳九, 1683~1767)의 동파관은 심득경의 것과는 달리 관이 높고 좌우가 넓게 펼쳐진 형태이며 심의와 함께 썼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초상화에서는 심득경의 동파관과 윤봉구의 동파관과는 또 다른 형태로, 윤봉구의 것보다는 과장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심득경의 것보다는 그 형상이 크고 좌우가 벌어져 있어 확장된 모양으로 도포를 입고 동파관을 썼다. 이는 점차 내관과 외관을 이루는 네 면이 각각 서로 연결되어 제작되면서 조선 말기 관의 끝선이 곡선으로 된 정자관으로 이어진다.

조선 후기의 풍속을 기록한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誌)』에는 사대부들이 착용하던 쓰개 종류를 기록하였다. 사대부들은 평상시에는 복건·방관·정자관·동파관을 쓰고 노상에서는 갓을 쓴다고 하였다. 『증보문



동파관 | 윤두서 | 심득경 초상 | 1710 | 국립중앙박물관

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1599년(선조 32) 기록에도 사대부의 연거복燕居服에 충정관冲正冠, 정자관, 동파관, 종립, 사립, 죽립에 심의, 도포, 직령, 철릭, 방의로 옷은 일정하지 않고 빗갈도 여러 가지라고 하였다. 또한 일본 통신사의 일기를 모은 『해행총재海行摠載』에는 당상관 역관이 동파관에 도포를 착용하였다고 한다. 이상의 기록들을 통해 동파관은 평상시에 착용하는 의복과 함께 쓴 쓰개임을 알 수 있다.

동파관과 함께 입은 의복은 기록과 회화 자료를 통해 사대부들의 평상시 의복임이 확인된다. 초상화에서는 동파관과 함께 도포와 심의를 착용하였고, 조선시대 일본 통신사 중 당상관 역관은 도포를 착용하였다. 이외에도 사대부들은 동파관과 함께 철릭, 직령, 방의 등도 착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도포와 자주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동파관은 내관과 외관의 두 개의 관이 겹쳐 제작된 사대부가의 보통 때의 쓰개이다. 흑색의 말총으

로 제작된 것으로 시대별로 형태에 차이가 있다. 17세기 중후반의 동파관의 모습은 중국의 동파건과 유사하나 점차 관이 높아지고 내관과 외관의 폭이 넓어지면서 형태가 변화되었다. 변화된 동파관은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평상시 쓰개로 자주 사용된 정자관으로 이어져 조선 후기에는 동파관보다는 정자관의 모습이 자주 확인된다. 동파관과 착용된 의복은 사대부들의 평상시 의복인 도포, 심의, 직령, 철릭, 방의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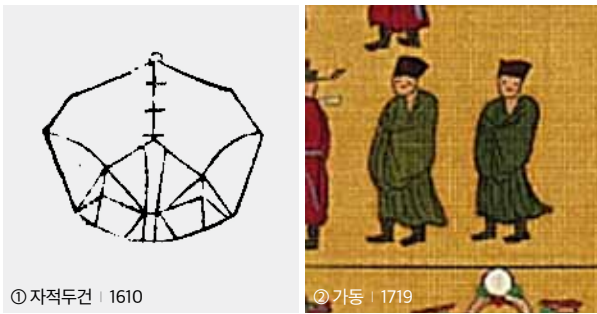
참고문헌 五洲衍文長箋散稿, 朝鮮王朝實錄, 역사인물초상화대사전(이강철 외, 현암사, 2003), 우리 관모의 시말에 관한 연구(강순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81).

필자 김은정1(金恩姁)

두건 頭巾

정의 건巾보다 다소 형태를 갖춘 포백제布帛製의 쓰개.

내용 두건頭巾은 1387년(우왕 13) 6월에 관모로 사용할 것을 제정한 이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직급이 낮은 관원의 관모 및 유생의 쓰개로 착용되었다. 관모용 두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에는 ‘유각두건有角頭巾, 평정두건平頂頭巾, 자라두건紫羅頭巾, 녹라두건綠羅頭巾’이라는 명칭이, 조선시대에는 ‘유각두건, 무각두건無角頭巾, 평정두건平頂頭巾, 자주두건紫紬頭巾, 추포두건麤布頭巾’ 등의 명칭이 확인된다. 또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관모용 두건 이외에도 상복용의 백두건白頭巾과 흑두건黑頭巾, 악공樂工의 두건 기록이 있다. 한편, 『세종실록世宗實錄』에서 악공의 두건과 관련하여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악공樂工이 사신동궁연使臣東宮宴, 주봉배晝奉盃, 유관遊觀에서는 녹주두건綠紬頭巾에 흑단령黑團領을 착용하고, 사악賜樂과 예조객인연禮曹客人宴에서는 녹주두건에 토홍단령土紅團領을 착용하고, 관현맹인管絃盲人이 녹주두건을 쓰고 압두록목면단령鴨頭綠木綿團領을 착용하며, 가동歌童이 자주두건을 쓰고 녹주단령綠紬團領을 착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조선 초에는 두건이 단령과 함께 조선시대 궁중 악인이 착용하던 복식의



두건 | ① 진찬의례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② 기사계첩 중 부분 | 국립중앙박물관

두령치마

두령치마

일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왕세자가 입학했을 때 학생의 옷으로 세조대細條帶를 갖춘 청금靑衿 착용”(영조실록 권55 영조 18년 3월), “차비 별감差備別監 등이 거동하거나 파문把門할 때 홍색직령紅色直領이나 철릭 착용”(정조실록 권5 정조 2년 4월)이라는 기록을 통해 두건과 함께 착용되었던 조선시대 포袍의 종류 일부도 확인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복제服制에서만 두건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고려시대에 비해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상황의 기록이 남아 있어, 이 시기에 두건의 사회적 기능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조선시대 궁중악인 복식 연구(고윤정,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필자 전현실(全炫室)

두령치마

정의 어린아이의 배와 아랫도리를 둘러주기 위하여 치마 모양으로 만든 옷.

내용 두령치마는 밖의 찬 기운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배 위에 둘러 준다. 두령치마의 형태는 성인의 치마와 비슷하나 뒤가 겹치지 않게 만든다. 아이들이 기어 다니기 전까지 남녀 공용으로 입었으나 자라면서 주로 여아들이 많이 입었다. 두령치마는 주로 누워서 생활하는 아기들에게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으며, 걸음

마를 시작한 아기가 배변을 편하게 보게 하기 위한 매우 기능적인 옷이었다.

‘두령치마’는 ‘두령이’, ‘도랑이’, ‘도랑치마’, ‘배두령이’ 등으로 불렸다. 이는 대부분 배를 두르는 옷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두령치마를 입히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18~19세기에 활동했던 신한평申漢枰, 김홍도金弘道, 김득신金得臣의 회화에서 유아의 배를 감싸는 형태의 의복을 찾아볼 수 있다. 회화에서 보이는 유아들은 대부분 기어 다니거나 젖먹이 정도로 아주 어리고, 모두 배 부분에 싸개를 두른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 당시의 두령치마에 관한 기록과 유물이 없어 회화에서 보이는 복식의 명칭이나 정확한 형태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1970년대 제주도 지역의 아동이 착용한 배두령이 유물 중에는 이와 구조가 매우 흡사한 것이 있다.

조선 후기 사가私家의 유물 중에는 두령치마가 많이 남아 있다. 조선 고종 때의 「정유 십월 십오일 황자아 기시 삼칠일 의복하온 발기」(1887)를 살펴보면, 옥양목으로 만든 누비두령이가 기록되어 있어 궁중에서도 두령치마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두령치마는 아이들의 배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목적이 중요했으므로, 대부분 겹으로 만들고 솜을 넣어 누벼서 만들기도 한다. 두령치마의 구조는 대부분 여성의 치마와 비슷하여 일반적으로 허리에 치마가 달린 형태이다. 1900년대의 유물 중에는 어깨끈이 달린 것도 있어, 신여성의 치마에서 보이던 조끼허리의 유행을 짐작할 수 있다. 치마의 모양은 중앙에 직사각형의 치마폭이 있고 바깥쪽에 사다리꼴의 무를 달아 전체적으로 주름을 듬성듬성 잡거나 치마 가장자리 양쪽으로 주름을 두세 개씩 잡기도 했다.



두령치마 | 길이 40 | 1880년대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두렁치마는 신생아부터 4~5세 정도의 아이들이 많이 입었는데, 갓 태어난 아이들은 배넛저고리를 먼저 입히고 그 위에 두렁치마를 둘러 입혔다.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에서 “이칠일二七日은 ‘두닐해’라 하여 깃 있는 옷에 두렁이를 입히고 한쪽 팔을 마저 풀어주며 삼칠일三七日에야 비로소 상유하고上襦下袴의 구양具樣한 의복을 입혔다.”라고 기록해, 태어난 지 14일 정도가 지나고 두렁이를 입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재는 무명이나 광목 등의 면 외에 명주를 사용하기도 했다. 세탁이 잦은 아이들의 옷이므로 대체로 흰색이 많다. 그러나 유물 중에는 치마의 도련선을 따라 분홍으로 선을 두르거나 치마 전체가 짙은 쪽빛으로 된 것도 있다.

특징 및 의의 두렁치마는 배넛저고리, 풍차바지와 더불어 유아기의 대표적인 복식인데 이들 유아가 착용하는 복식은 성인복식은 물론 아동복식과도 구조가 조금 다르다. 배넛저고리는 유아가 입고 누웠을 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깃을 생략하거나 뒷길이를 짧게 하기도 했다. 두렁치마는 뒤가 겹치지 않게 하였고, 풍차바지는 배변하기 쉽게 밑을 만들었다. 이처럼 유아의 복식은 외형적 디자인보다 아동의 위생과 성장에 맞춘 실용성을 고려하여 흰색의 옷감을 사용하고 복식의 구조를 성인복과 다르게 했다.

참고문헌 개항기 이후 한국 아동복식 연구(김정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전통 아기옷에 관한 실증적 고찰(박성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0), 조선상식문답(최남선, 동명사, 1946), 한국복식문화사전(김용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전통어린이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김정아(金廷兒)

두루마기

정의 외출할 때 입는 우리나라 고유의 겹옷으로 옆트임이나 뒤트임이 없는 포.

개관 두루마기는 저고리 위에 입는 겹옷으로, 저고리

가 길어진 모양이다. 곧은 깃으로 동정과 웃고름이 달려 있다. 쇄과 무가 있는 옷으로, 소매는 좁으며 옷 길이는 종아리와 발목길이 사이에 닿는다. 조선시대 고종대 이후 신분과 무관한 남녀노소 공용의 옷으로 변화하였으며 한복 가운데 대표적인 겹옷이다.

두루마기의 명칭에 관련해 김동욱金東旭(1922~1990)은 고려 말 몽골어의 ‘후루막치’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남선은 『조선상식』에서 “조선에서는 옛날에 사내의 옷옷을 소매를 넓게 하고 옆구리를 터서 세 자락 혹 네 자락은 중치막과 도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옷은 사방이 터져서 속옷을 가릴 수 없어서 다시 사방을 둘러막은 옷을 만들어서 옷옷의 밑받침으로 입고 또 집 안에 있을 때에는 간단한 옷옷으로 입기도 하니, 이 옷은 사방이 막혔다 해서 두루마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두루마기는 밑받침 옷이요 옷옷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치막이나 도포를 입지 못하게 한 상민 계급에서나 할 수 없이 옷옷으로 입었습니다. 고종 갑신년에 개혁을 하면서 의복제도를 바꾸면서 넓은 소매와 너털거리는 자락이 있는 창옷·중치막·도포 등이 폐지되고 홀가분한 두루마기가 밑받침 옷에서 옷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갑오경장 뒤에 널리 퍼져서 누구나 다 입는 옷옷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여 두루마기의 유래를 설명하였다. 이처럼 두루마기는 트임이 없는 형태에서 옷 이름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조실록英祖實錄』 권127 1776년(영조 52) 영조의 재궁의대粹宮衣襟에 남선단협수주의藍扇緞狹袖周衣 연남궁초협수주의軟藍宮綃狹袖周衣와 『정조실록正祖實錄』 권54 1800년(정조 24) 정조의 습襲에 보라화한단주의甫羅禾漢緞周衣 기록이 있다. 『순조실록純祖實錄』 권31 1830년(순조 30)에는 “사대부가 많이들 소매가 넓은 주의周衣를 착용하고 초교草轎를 타는 자가 있다고 하니, 이는 정해진 의복과 일반적인 탈 것이 아니고 이른바 의복의 요사스러운 것이다.”라고 하여 사대부들이 소매 넓은 주의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종실록高宗實錄』에서는 1884년(고종 21) 6월 4일 소매가 넓은 도포, 직령, 창 의 등 대신 두루마기를 입게 하자 성균관 유생 심도정沈魯正이 상소하여 “지금 세속에서 말하는 장포長袍나 주의를 더욱이 옛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순조純祖 30년 익종翼宗께서 대리하시던 경인년(1830)에 명을



길이 119 폭 51 화장 70 | 20세기



두루마기에 남바위 쓴 아이 | 일제강점기



두루마기에 갓 쓴 남자 | 1930

두루마기 | 국립민속박물관

내리시기를, 요즈음 들으니 사대부들이 흔히 소매가 넓은 주의를 입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제도인가? 주의를 바로 승려들의 옷으로 요망한 옷이다…… 이로써 상고하여 보면 소매가 넓은 주의도 오히려 법복이 아닌데, 하물며 소매가 좁은 주의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틀 후에는 성균관 유생 남두희(南斗熙) 등이 상소하였다. “소매가 좁은 옷과 주의를 이미 선왕의 유법(遺法)이 아니며 또 조종조(祖宗朝)의 옛 제도가 아니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할 뿐 아니라 실로 사람들의 뜻에도 거슬립니다.”라고 하였다. 그해 6월 17일 의복 제도에 관하여 유생 김건홍(金健弘) 등이 상소하여 소매 좁은 주의(周衣)에 대해서 난삼(欄衫)이나 학창의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대로 변통하여 유생과 하례(下隷)의 구분을 나타내게 해 줄 것을 청했다.

1895년(고종 32) 3월 29일에는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이제부터는 공적인 예복과 사적인 예복에서 답호(搭護)를 없애고 대궐로 들어올 때만 모(帽), 화(靴), 사대(絲帶)를 착용하고, 주의는 관리와 백성들이 똑같이 검은색 종류로 하라.”라고 하였다. 그해 4월 5일에서 의복제도에 대하여 고시하였는데, “공사(公私) 예복 중에서 답호를 없애고 대궐로 들어올 때에는 모, 화, 사대를 하며 주의는 관리와 백성들이 똑같이 검은색으로 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 대군주 폐하가 관리와 백성을 똑같이 보는, 넓게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신성한 덕으로, 의복제도에 있어서조차 관리와 백성들의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며 또한 검은색으로 한 것은 백성들의 편의를 위한 신성한 뜻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8월 10일 궁내부 대신과 조성 관리 이하의 복장 규정을 봉칙하여 반포하였다. “1. 통상복색(通常服色)은 편리한 대로 주의, 답호, 사대 차림을 하되 내관(內官)과 외관(外官)의 관리가 출근할 때에는 구애 없이 입으며 진현(進見)할 때는 입지 않는다.” 1900년(고종 37) 11월 16일에는 사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반포하였다. “칙임관(勅任官) 및 50결(結) 이상 납세인이 무늬 있는 비단 주의와 답호, 명주 상하 속옷, 금과 은, 옥류식(玉類飾) 패물, 은그릇 및 수저를 쓰는 것, 주임관(奏任官) 및 30결 이상 납세인이 무늬 있는 비단 답호, 무명 주의 및 속옷 상의, 은식(銀飾) 패물, 은수저를 쓰는 것, 관임관(判任官) 및 10결 이상 납세인은 무명 답호와 주의를 쓰는 것을 모두 허용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순종실록』 부록 권10에서 1919년(순종 12년) 1월 26일 세 번째 기사에는 고종의 대령 때 옥색 별문단(別紋緞) 주의 세 별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 『순종실록』 부록 권13에 따르면 1922년 순종의 대령 때에는 겹주의(袷周衣)를 사용했는데, 외공은 옥색 공단 내공은 흰색 삼팔주를 사용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영조부터 순종 대에 걸쳐 주의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 영조 국장의 재궁의 대(梓宮衣襟)에는 남선단, 연남궁초 주의를 사용했고 정조 국장의 습(襲)에는 보라화한단 주의를 사용했다. 고종의 대령의대로 옥색별문단 주의 세 별이 사용되었고, 순종의 대령의대에는 옥색공단(내공 흰색 삼팔주) 겹주의가 사용되었다. 영조와 정조 대에는 남색과 보라색 주

의가 사용되었다면 고종과 순종 때에는 옥색 주의가 사용되었다. 주의에는 소매가 좁은 착수窄袖 주의와 소매가 넓은 광수廣袖 주의가 있다. 영조 재궁의대의 기록에는 착수 주의가 사용되었으며, 정조의 습에는 소매에 따른 주의의 구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순조 대의 기록에는 소매가 넓은 주의를 사대부들이 입는다고 했는데, 승려들의 옷이라 요망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출토복식에는 광수 주의가 수습되었는데 경기도 박물관 소장 이혁李赫(1661~1722) 묘의 유물이 있다. 이혁이 생존했던 숙종에서 경종 대에는 일반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대부의 포로 광수 주의가 염습의로 사용되었다. 이연응李沆應(1818~1879) 묘의 출토복식에는 착수 주의가 한 점 수습되었다.

고종 대에 들어오면서 갑신의제개혁에 따라 착수 주의를 입게 하지만, 난삼이나 학창의를 입게 하여 유생儒生과 하예下隷를 구별할 수 있게 요청하는 상소를 통해 주의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옷차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갑신의제개혁 이후 두루마기는 사람들에게 착수로 인식되고 있다. 1895년(고종 32)에 주의를 통상 복색으로 사용되며 관리와 백성 모두 검은색 주의를 입음으로써 넓고 공정하고 차별을 두지 않는 평등의 복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풍경을 판화로 묘사한 1921년 키스E. Keith의 채색 목판화 <New Year's Shopping Seoul> 속에서도 두루마기 입은 젊은 여인이 보인다.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두루마기는 학생복으로도 착용되었으며,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는 한복의 겉옷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28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던 차에 마르세유에 들렀던 김활란金活蘭(1899~1970)도 당시에 유행하던 단발에 두루마기 차림이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전후에는 옷고름을 단추로 바꾸어 간편하게 입기도 했다. 1960년대 이후 남자 두루마기에는 양복지를 사용하여 고종 대 이후 검정색 두루마기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두루마기는 저고리 위에 입는 겉옷으로, 삼국시대의 포袍에서 비롯해 현대까지 입는 옷이다. 다른 포 종류가 트임이 있는 옷인데 비해 두루마기는 사방이 막혀 있다는 것에 이름이 붙여졌다. 좁은 소매에 일상복이었던 옷이 조선 고종 대에 남녀노소 귀천상하

구별 없이 역사상 처음으로 평등하게 착용하는 예복이 되었다.

참고문헌 두루마기의 변천에 관한 연구(김미자, 서울여자대학 농촌발전연구총서, 1980), 여성의 빛 김활란(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9), 옷과 그들(김유경, 삼신각, 1994),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경기도박물관, 2001), 조선의 상식(최남선, 두리미디어, 2007).

필자 송미경(宋美京)

뒤꽂이

정의 비녀와 함께 쪽머리에 덧꽂아 장식하는 머리 장신구.

내용 뒤꽂이는 비녀로 고정된 쪽머리의 뒤에 꽂아 여인의 뒷모습을 한층 돋보이게 하던 장신구이다. 백제 무령왕릉 출토 금제 뒤꽂이나 고려시대의 청동제 뒤꽂이 유물을 통해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엷은머리에도 장식으로 활용되었으나 영·정조 대가 체금지령을 계기로 쪽머리가 일반화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조선시대 뒤꽂이의 형태로 정착되었다. 「궁중발기」의 조짐칠보 목록에는 ‘잠뿔’의 일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뒤꽂이의 직접적인 명칭은 영친왕비의 대목록의 ‘진주뒤쇠지’에서 확인된다. 의대 목록에는 ‘비취옥편복쌍쇠지’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일치하는 박쥐 문양의 비취옥 뒤꽂이 유물을 통해 ‘쌍꽂이’라는 용어도 뒤꽂이의 종류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소장 20세기 초 혼례 물목에서도 ‘뒤쇠지’가 확인된다.

뒤꽂이의 재료로는 도금·은·백동·비취·산호·자마노 등이 사용되었다. 신분에 따른 제약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비취와 산호, 자마노 등을 주체로 한 것은 상류층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였으며, 조선 말기의 궁중이나 사대부가에서는 순금이나 진주도 사용하였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느낌이 나는 비취나 백옥을 많이 사용하고, 따뜻한 느낌의 금도금이나 산호, 마노 등은 겨울철에 애용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은 계절에 관계없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① 국화뒤꽂이 | 19세기 ② 빗치개뒤꽂이 | 20세기 ③ 귀이개뒤꽂이 | 20세기

뒤꽂이 ① 길이 7 너비 4.2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18.4 너비 4.8 | 국립민속박물관, ③ 길이 6.7 너비 0.7 | 국립민속박물관

등거리

등거리

뒤꽂이의 형태는 국화 모양 장식인 과관에 매화·나비·벌·새 등이 함께 구성되는 화접형花蝶形이 대표적이며, 오색의 파란(법랑玳瑁, 칠보)을 사용하여 알록달록하게 장식한 것이 많다. 조선시대의 특징적인 뒤꽂이 형태로는 연봉뒤꽂이가 있다. 비취나 마노, 산호 등으로 연꽃 봉오리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매화나 대나무를 함께 장식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불로초, ‘수壽·복福’ 자 문양을 모티브로 삼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독특한 뒤꽂이로 빗치개뒤꽂이와 귀이개뒤꽂이가 있다. 이것들은 실용적 도구를 장식으로 활용한 것으로, 쪽에 쉽게 꽂고 뺄 수 있는 뒤꽂이의 특성을 살려 머리에 꽂았다가 필요할 때 빼서 사용하던 것이다. 빗치개는 가르마를 타거나 머리에 밀기름을 바를 때 쓰던 것으로, 납작하고 둥근 머리에 끝이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다. 뾰족한 부분으로 가르마를 타고, 둥근 부분은 빗의 때를 빼거나 밀기름을 바를 때 사용했다. 넓은 머리 부분과 몸체 부분에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무늬를 새겨 장식하였으며, 조선시대 여인들이 자유롭게 표현한 미의식을 보여 준다. ‘빗치기’, ‘가리미’와 같이 빗치개나 가르마를 의미하는 고어古語를 새겨 놓은 경우도 있어 흥미롭다. 귀이개뒤꽂이는 본래 귀지를 파내던 도구이다. 귀이개의 끝을 뾰족하게 하거나 뾰족한 봉을 별도로 달아 유사시에 침針 대응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특징 및 의의 뒤꽂이는 비녀로 단정하게 쪽진머리를 더욱 돋보이게 하여, 조선 여인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완

성해 주었다. 빗치개뒤꽂이와 귀이개뒤꽂이를 통해 장식과 실용을 하나로 아우르는 선조들의 지혜와 감각도 엿볼 수 있다. 청정함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연꽃,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국화·매화, 부부의 화합과 자손 번성을 뜻하는 나비·새·벌과 꽃의 조화, 장수를 의미하는 수·복, 불로초를 주된 장식 문양으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뒤꽂이에는 여성으로서의 덕목을 지키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여인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참고문헌 근세복식과 우리 문화(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03), 담인복식미술관 개관도록(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9), 영친왕일가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옛 여인의 머리단장(보나장신구박물관, 2008),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장숙환·홍나영, 열화당, 2003), 조선시대 뒤꽂이에 대한 연구(김문자, 한복문화17-3, 한복문화학회, 2014).

필자 오선희(吳宣希)

등거리

정의 등에 걸쳐 입는 간편한 덧옷.

내용 등거리는 베나 무명으로 깃이 없고 소매가 짧거나 아주 없게 만들어 등만 덮을 만하게 걸쳐 입는 옷이다. 삼베로 만든 것은 여름철에 입고, 무명으로 만든 것은 봄가을에 입는다. 하지만 등에 걸치는 옷으로 의미를 넓히면 솜을 둔 겨울용 배자나 반비, 답호, 쾌자, 서양식 조끼도 등거리에 속한다. 조선 후기 이후에 입은 등나무로 엮어 만든 여름용 조끼인 등蓆등거리도 있다.

조선시대 비갑比甲이나 비게, 1632년 『인목왕후빈전도감의궤仁穆王后殯殿都監儀軌』의 ‘背巨里’도 등거리로 짐작된다. 비갑比甲은 최세진崔世珍(?~1542)의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와 정조 때의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에서 ‘비게’로 이해되었다. 즉 비게는 등거리에 대한 한자어이므로 비갑이나 비게, 등거리가 같은 용어이다. 16세기 순천 김씨 묘 출토 언간諺簡 내용에도 ‘등비게’라는 것이 있다. 김은정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677년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에는 쾌자掛子를 ‘등거리’로 이해하였다. 『역어유해譯語類解』와 『동문유해同文類解』는 ‘齊肩

掛'를 '등지게'라고 이해하였다. '등지게'는 '등거리'를 의미하는 평안도 방언이다. '齊肩掛'는 몽골어로 '더그레'로 표기되는데 이를 차용한 명칭이 조선시대 '더그레'이며 『역어유해』에서 답호搭護, 搭忽로 이해되므로, '齊肩掛'·'등지게'·'더그레'·'搭護'가 유사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어사전』(1938)에서 보면 '더그레'가 "'호의號衣'의 속칭이다. 이들은 대체로 소매가 없고 대금對襟 형태의 덧입는 옷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의 <타작도打作圖>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고깔형의 모자를 쓴 사람이 걸친 옷도 등거리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등거리의 일종으로 사령司令이 입는 무릎길이의 작의鵲衣를 '까치등거리'라고도 한다. 사령은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죄인에게 곤장을 치는 등의 천한 일을 맡던 하급 관리로 나장羅將이라고도 한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한 해원 신윤복(1758~?)의 <주사거배酒肆舉盃>에 등장하는 나장은 연한 옥색 철릭 위에 검정색 바탕에 흰색 줄로 장식한 등거리를 입고 있다. 이와 같은 복식은 <대한제국동가도大韓帝國動駕圖>의 나장과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 일행 중 사령使令이 입은 반비의半臂衣와 비슷하다. 그 형태는 깃과 동정이 없고 옷자

락이 마주 닿으며, 허리띠로 여미고 있다. 반비의의 색은 청색이나 흑색이고 흰색의 굵은 선으로 격자무늬 또는 줄무늬가 표현되었다. 이 등거리가 까치등거리이다. 검정색에 흰 선이 있는 모습이 까치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짐작한다. 까치등거리는 이훈종李勳鐘의 『국학도감國學圖鑑』에서, 작의鵲衣는 이팔걸李八燦의 『리조복식도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역사례 전라북도 지역의 세시풍속 중에는 '등거리입기' 풍속이 있었다. 정월대보름에 등거리를 입으면 한해 신수가 좋다고 하여 종이로 등거리를 만들어 저고리 속에 입었다가 남몰래 불태웠다고 한다. 평양 지역에는 모피 안을 넣은 털배자를 '등걸이 털배자'라고 하였고, 혼례복으로 새 신부가 착용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등거리는 소매가 없는 간단한 옷으로 '등에 걸치는 것'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추측된다. 하층민들이 여름철에 작업복으로 간편하게 착용하거나, 집에서 입는 옷이다. 시대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었다.

참고문헌 국학도감(이훈종, 일조각, 1968), 노걸대 간본들을 통해 본 14~18세기의 복식관련 용어 비교 연구(서희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리조복식도감(이팔걸, 동문선, 1991), 어휘집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복식명칭 분석(김은정,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조선시대 무수이에 관한 연구(이주영,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한국민속종합보고서-의생활(문화공보부, 1986).

필자 송미경(宋美京)



등거리 | 길이 43.5 너비 31.5 | 1946 | 국립민속박물관

땡은머리

정의 머리카락을 땡아 뒤에 늘어뜨린 미혼 남녀의 대표적인 머리모양.

내용 『문헌비고文獻備考』와 『주서周書』에서는 백제의 미혼녀는 머리를 뒤에 땡아서 한 갈래를 장식으로 늘어뜨렸으며, 결혼한 여자는 두 갈래로 나누었다고 기록하였다. 『북사北史』에는 백제의 미혼녀는 머리를 땡아서 뒤에 늘어뜨리고 결혼한 여자는 두 갈래로 나누어 머리 위에 얹는다고 기록하였다. 『수서隋書』 동이전東夷傳에도

백제의 미혼녀는 머리를 땡아 뒤로 늘어뜨리고 결혼한 여자는 두 갈래로 나누어 머리 위에 얹는다는 기록이 있어 혼인 관계에 의한 질서가 구체적인 머리모양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총각은 머리카락을 앞이마 한가운데서 좌우로 가르마를 똑바로 타고 양쪽 귀 위에서 귀밑머리를 가늘게 땡고 뒤에서 모으고, 나머지 머리카락은 세 가닥으로 나누어 땡은 귀밑머리와 함께 서로 엇갈려 땡아 하나로 엮어 늘어뜨린다. 땡기의 색은 붉은 자주색으로 양반가의 규수는 제비부리땡기를 맺고 겹으로 드러나는 부분에는 적절히 금박을 하고 땡기코에는 석옹황, 옥나비 칠보장식을 달기도 했으



명차는 모양 | 가산풍속도 | 2002년 복제



널뛰기

땡은머리 | 국립민속박물관

며, 서민 처녀는 말뚝땡기나 목판땡기만을 땡 수 있었다.

귀밑머리는 미혼 남녀의 머리모양으로 양쪽 귀 위의 귀밑머리를 땡아 뒤에서 모아 다시 땡아서 늘이고 끝에 제비부리땡기를 늘어뜨린 것이다. 머리채가 긴 것을 자랑으로 삼아 가채(加鬘)를 더하였으며, 양반가의 규수들은 귀밑머리로 귀를 가리고 일반 처녀들은 귀를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귀밑머리를 푼다는 것은 곧 결혼을 의미하였으며, 결혼하면 귀밑머리를 풀고 처녀는 쪽머리로 총각은 상투로 성인의 머리모양으로 바꾼다.

종종머리는 머리카락 술이 적고 덜 자란 어린 아이들의 머리를 꾸밀 때 하는 머리모양으로 가르마를 똑바로 타고 양쪽으로 땡을 수 있도록 2등분 또는 3등분하여 땡아 두 개의 배씨를 가르마 중앙에 오게 한다. 머리카락과 땡기의 끈이나 붉은 실을 함께 섞어 가늘게 땡아 내리기도 하며, 귀밑에서 합하여 어린이용 도투락땡기 또는 말뚝땡기로 장식하였다. 서너 살의 여자아이는 앞가르마를 중심으로 양 가장자리에 서너 가닥씩 땡아 정수리에서 각각 고정하여 빛은 바둑판모양으로 땡머리는 그냥 둘 때도 있고 중발머리모양으로 하여 제비부리땡기로 장식하였다.

특징 및 의의 미혼 남녀의 대표적인 머리모양으로 관례나 계례, 결혼을 하면 귀밑머리를 풀고 상투나 쪽머리를 하게 된다. 종종머리는 어린이의 머리를 땡을 때 배씨땡기를 드리고 술이 적은 머리카락과 붉은 실을 합쳐 땡아 뒤에 땡기를 늘인다.

참고문헌 국학도감(이훈중, 일조각, 1981), 아시아의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김용문,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한국복식사(석주선, 보진재, 1978),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용문(金容文)

떠구지

정의 큰머리 비녀의 일종.

내용 떠구지는 흔히 조선시대 여성들이 예장에 사용



떠구지 | 가로 36.5 세로 23 | 19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영친왕비의 큰머리 후봉잠 | 길이 32.6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한 목제木製 머리틀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87년 김용숙의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에서 떠구지가 목제 머리틀이 아니라 비녀라는 설이 제기되었고, 그 후 여러 연구자들이 동의함으로써 떠구지가 ‘큰머리’라고 하는 궁녀들의 예장용 머리틀에 쓴 비녀라는 것이 정설이 되었다. 본래 큰머리는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이었는데, 이것이 사치를 막기 위하여 나무로 대체하라는 정조의 전교傳敎(1779)에 따라 바뀐 것이다. 이후 왕실 여성이 사용하는 큰머리는 모발로 제작하였지만, 상궁 이하 내명부들이 사용한 것은 머리를 땅아 만든 형태로 조각하고 흑칠하여 만들었다. 19세기 전기인 순조 대에는 목제 큰머리의 크기가 작았으나, 19세기 중기 현종 대 이후 커지기 시작해서 20세기 초에는 상당히 큰 형태로 변화하였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영친왕비의 큰머리용 떠구지인 ‘큰머리 후봉잠’ 유물이 비단상자에 보관되어 전해지고 있다. 각각의 길이는 32.6cm, 24.7cm이다.

큰머리는 미리 칠보장식을 한 큰머리를 어여머리 위에 얹어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목 뒤에 둥글게 첩지머리를 맺는다. 그리고 정수리에 어염족두리를 올린 후 고정한다. 어여머리가 어염족두리와 쪽머리 밑동을 감싸게 두르고, 어여머리 좌우에 반자장식을 한 상태에서 미리 칠보로 장식해 둔 가채 큰머리를 올린 후 큰 떠구지(큰머리용 비녀) 두 개를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꽂고 끝부분에 땀기를 묶어 고정하였다. 그 모습은 『진찬의궤進饌儀軌』의 <진찬도進饌圖>나 <진찬도병進饌圖屏> 등에서 확인된다. 왕실 여성들

이 사용하는 모발로 만든 큰머리에는 옥玉이나 이사泥絲 등을 이용하여 만든 고급 떠구지가 사용된 반면, 궁녀들의 목제 큰머리에는 흑칠한 목제 떠구지가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순화궁첩 順和宮帖草』 기록을 통해 떠구지가 비녀라고 하는 새로운 학설이 제기될 수 있었다. 『순화궁첩초』는 1847년 현종과 가례를 올린 경빈 김씨의 복식 관련 기록인데 『스절복식증장요람 四節服色資粧要覽』과 『국기복식소전 國忌服飾素膳』 두 종류가 있다. 『스절복식증장요람』 기록 속에서 경빈 김씨는 탄일, 정초 문안에 초록직금당저고리와 스란치마, 스란웃치마 차림에 큰머리를 했는데, 큰머리에 니사봉떠구지나 옥모란잠떠구지를 꽂았다고 하였다. 또 동지에 문안 올릴 때는 초록금수복자당저고리에 대란치마·비단웃치마를 입고, 큰머리에 니사봉떠구지나 옥모란잠떠구지를 되는데로 꽂으며, 큰머리칠보로 옥입잠玉立簪이나 봉잠鳳簪을 꽂으면 좋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떠구지가 비녀 종류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順和宮帖草, 靑莊館全書, 19세기 조선 왕실 여성의 머리모양(이은주, 복식58-3, 2008), 명선-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조선어사전(문세영, 박문서관, 1938),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김용숙, 일지사, 1987), 조선후기 왕실여성의 관례복식 연구(김소현, 복식60-5, 한국복식학회, 2010),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한민족역사문화도감-의생활(국립민속박물관, 2005).

필자 이은주(李恩珠)

떨잠

정의 조선시대 여자들의 머리에 꽂는 머리 장식품의 한 종류.

내용 떨잠은 조선시대에 왕비를 비롯한 상류 계층이 의식(儀式) 때 큰머리나 어여머리에 꽂았던 머리 장식품으로, ‘떨리는 비녀’라는 의미가 있다. 떨잠의 구조는 장식부와 첨부로 되어 있고, 장식부는 금·은·옥 등으로 만든 하나의 판에 철보 같은 보석을 꽃 형태로 만들어 화려하게 장식하고, 첨부는 동으로 만든 납작하고 끝이 좁아지는 형태의 꽃이를 연결하여 머리에 꽂을 수 있게 하였다. 길이는 대체로 10~18cm이고, 긴 것은 22~24cm까지 되며, 폭은 6~7cm 되는 것이 많다.

장식부는 둥근 모양(원형), 각진 모양(각형), 나비 모양(접형), 꽃 모양을 지름 6~8cm 정도 크기의 옥판을 조각하여 판을 만든다. 중앙에 비취·산호·진주·공작석·철보를 물리고 주위는 가는 금은사로 4.5cm 정도 높이의 용수철을 만들어 그 위에 얇은 금속판을 올려서 만든 작은 장식들을 붙인다. 장식은 대체로 봉황·나비·새·별·국화·매화·당초 등의 모양이고 이 장식을 ‘떨새’라고 한다. 이 장식은 작은 움직임에도 떨림이 있어 ‘떨잠’ 또는 ‘떨철반자’라고 불렀다.

떨잠은 조선시대 여자들의 머리 형태인 대수(大首)·큰머리·어여머리를 할 때 머리의 앞쪽 중심과 좌우에 꽂아 장식한다. 떨잠은 나비 모양 떨잠 한 개, 둥근 모양 떨잠 두 개가 한 벌로, 검정색 공단 속에 솜을 넣어 만든 어염족두리를 이마 위에 오게 쓴다. 어여머리를 엮은 다음 나비 모양 떨잠은 머리 앞 중심에 꽂고, 둥근 모양 떨잠은 머리 양옆에 대칭으로 꽂는다. 그 외에 각진 모양의 떨잠을 사용할 때도 있었다. 머리 앞 중심에 꽂는 것은 선봉잠(先鳳簪)이라 하고, 좌우에 꽂는 것을 떨잠이라 구분하였다. 앞 중심에 한 개만 장식하기도 하였다.

현재 조선 후기의 떨잠 유물은 궁중에서 사용한 것과 반가에서 사용한 것이 남아 있다. 머리 양쪽에 장식하는 떨잠은 대체로 원형이고, 머리 앞 중심에 장식하는 선봉잠은 대체로 옥이나 금속으로 된 나비 모양이 많다.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순정효황후의 사진을



① 영친왕비 백옥 꽃떨잠



② 영친왕비 백옥 나비떨잠



③ 떨잠 꽂은 어여머리

떨잠 | ① 길이 11.3 옥판 지름 8.2 | 국립고궁박물관, ② 높이 9 폭 7.5 | 국립고궁박물관, ③ 권오창

보면 어여머리에 장식한 선봉잠이 옥으로 만든 봉황에 양쪽에 큰 진주가 장식된 형태다.

특징 및 의의 떨잠은 주로 궁중의 의식이 있을 때 왕비, 왕세자빈을 비롯하여 내명부 여성들이 적의(翟衣·원삼圓衫·활옷 등 예복을 입고 예장(禮裝)을 할 때 머리에 장식하였다. 왕비나 세자빈은 법복(法服)인 적의를 입고, 적관(翟冠)으로 사용한 대수 위에 떨잠으로 장식하고, 그 외 내명부 여성들은 예복인 원삼 등을 입고 어여머리나 큰머리를 하고 장식한다. 반가 여성들인 외명부들도 궁중에 출입하거나 혼례 같은 큰 잔치가 있을 때 떨잠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펄잠 장식은 대개 상류층 부녀자들이 의식 때 예장을 하고 머리에 장식하는 조선시대의 풍속으로 서민 여성은 사용할 수 없는 머리 장식품 중 하나였다. 상류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착용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사용된 조선시대 예장용 머리 장식품이다.

참고문헌 명선-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전통장신구(장숙환, 대원사, 2002), 조선후기 여성수식 장신구에 관한 연구(이유정,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한국복식 2천년(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81),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확사,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소황옥(蘇晃玉)

라 羅

정의 4경꼬임의 익조직(撚組織)으로 제직된 견직물.

내용 라羅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많이 사용된 직물로 현재는 제직 기술이 단절되었다. 익조직으로 제직되며 4울의 경사가 한 조가 되어 좌·우측으로 꼬여 그물처럼 짜는데, 문양의 유무에 따라 소라素羅와 문라紋羅로 구분할 수 있다. 소라는 4경꼬임으로 무늬 없이 제직되며 문라는 4경꼬임 바탕에 망상(網狀)의 라조직으로 문양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 라의 사용이 문헌에 기록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다. 『구당서(舊唐書)』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에서는 백라(白羅)·청라(靑羅)·비라(緋羅)·자라(紫羅)가 관(冠)에 사용되고, 백제의 왕은 오라관(烏羅冠)을 쓴다고 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신라에서는 라가 6두품과 5두품의 복두(幘頭)에만 허용되어 매우 귀한 직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라(總羅)·월라(越羅)·포방라(布紡羅)·야초라(野草羅) 등 특산의 라가 생산되기도 하였다. 가장 이른 연대의 라는 1~2세기 평양 왕우(王吁) 묘에서 출토된 이배문(耳杯紋) 문라이다. 삼국시대의 라는 천마총과 무령왕릉 등에서 잔편들이 출토되었는데, 석가탑에서는 식서까지 갖춘 자색의 라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의복뿐만 아니라 교역품으로도 사용된 대표적인 직물이다. 최자(崔滋)의

『삼도부(三都賦)』에는 계림과 영가 지방 즉, 지금의 경주와 안동에서는 불면 날 듯 연기와 안개 같은 고운 라를 짰다고 하였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도 고려에서는 극상품 문라가 기교 있게 직조된다고 하여 고려에서 라를 짜는 기술이 매우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의 제직 기관인 액정국에는 라장(羅匠)을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라를 직조하였다. 고려시대 라의 종류에는 자라·청라·강라(絳羅)·백라·황라(黃羅)·채라(彩羅)·자문라(紫文羅)·문라(文羅)·홍문라(紅文羅) 등이 있으며, 왕의 복식뿐만 아니라 백관의 제복(祭服), 공복(公服), 군인의 장위복(仗衛服)에도 라가 사용되었다. 또한 금실을 넣어 무늬를 짰 금라(金羅)가 가사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라는 베개 장식, 부채(扇), 덮개(蓋)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당시 고려에서 송나라로 보낸 직물 중에 홍라수(紅羅繡)·홍매화라(紅梅花羅)·쇄금홍라(鎗金紅羅)·쇄금홍매화라(鎗金紅梅花羅) 등이 있어 라에 자수하고 금박하여 장식했음이 나타난다. 또한 교힐이나 협힐 같은 문양 염색으로 문양을 표현한 힐염라(纈染羅)도 사용되었다. 1346년 조성된 장곡사 약사여래불복장 중 발원문에 부착된 녹색 라직물은 문라 바탕에 협힐염으로 문양을 시문하였다.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에서 발굴된 수라향갑주머니는 라직물 바탕에 연화화생의 동자문을 자수로 정교하게 표현하였다.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1302년 아미타불복장에서는 홍색 라에 금박을 입힌 보자기 두 점이 발견되어 고려시대 쇄금홍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고려시대 불복장 유물로 소라 저고리 한 점과 주머니, 직물 조각들이 다량으로 발견되고 있어 고려시대 라직물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紗)의 제직이 보편화되면서 라의 사용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전통적인 문라는 보이지 않으며, 소라가 너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새로이 등장하는 라의 조직에는 부가문위사 위중조직인 채화라, 직금라가 있지만, 이마저도 조선 중기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특징 및 의의 라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직물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복식뿐만 아니라 자수의 바탕 직물로도 중요하게 사용되어 ‘수라(繡羅)’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고려 말기 사직물이 등장하면서 상대적

으로 제직이 어려운 라는 점차 소멸되어 현재는 그 기술이 단절된 상태이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高麗史, 舊唐書, 三國史記, 三都賦, 한국직물 오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 2002).

필자 심연옥(沈蓮玉)

레이온

정의

셀룰로스에 속하는 대표적인 재생 인조 섬유.

내용

레이온rayon은 인조견, 인견이라고도 부른다. 면린터나 목재펄프를 원료로 이황화탄소와 반응시킨 후 수산화나트륨에 용해하여 방사한다. 필라멘트filament는 촉감이 견과 비슷하며, 스테이플사絲는 면과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필라멘트와 스테이플로 구분하는데, 대부분 필라멘트로 만들어진다.

필라멘트는 견과 달리 변색되지 않고 염색성이 좋으며 촉감이 부드러워 드레이프성이 우수하며 윤기와 광택이 뛰어나다. 견직물보다 가격이 싼 인견은 수려한 광택과 아가자기한 문양으로 한복용, 특히 저고리 감으로 각광 받았다. 하지만 세탁 후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겹옷의 경우 옷의 형태가 틀어지는 등 폐단이 있어 겹옷에는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남아 있는 유물을 통해 홀옷인 속치마나 속바지 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저고리는 바느질한 부분을 다 뜯어서 세탁하였기 때문에 인조견을 겹감으로 하고, 다듬은 명주를 안감으로 넣었다. 이러한 저고리 유물도 다수 남아 있어 당시 인견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스테이플은 면과 유사한 성질이 있지만, 습윤시 강도가 저하되고 수축이 일어나 주름이 생기기 쉽고, 강도가 떨어져 실용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레이온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100% 레이온뿐만 아니라 혼방 제품으로도 생산되어 의류 및 실내 장식·레이스·커튼·부직포 등으로 많이 애용된다. 또한 높은 흡수성이 필요한 산업용 와이프wipe, 의료용품, 기저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레이온은 1889년 프랑스의 샤르도네H. de Chardonnet

가 처음 연구하였고, 1892년 영국의 크로스C. F. Cross와 베번E. T. Bevan이 발명하여 1909년 최초로 공업화되었다. 우리나라는 개항기 이후 처음 수입되었고, 193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 자본에 의한 직물 공업화가 인견직물을 중심으로 급속히 진행되었다. 1932~1935년 사이에 무려 세 배로 소비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견직물 생산업자들도 주 생산품목을 인견으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특징 및 의의 1966년 대한민국 유일의 비스코스 인견사 생산 공장이던 원진레이온이 최초 설립되어 호황을 누렸다. 이후 노동자들이 직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중독 증세를 보이며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1993년 원진레이온은 폐쇄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천연 소재의 섬유가 선호되어 레이온의 사용이 다시 늘어났다. 풍기 인견, 강화 인조 등의 생산이 다시 활발해지고 원피스, 블라우스, 바지 뿐만 아니라 팬티, 런닝셔츠 등 속옷으로도 생산되었다.

참고문헌 20세기 전반기의 한국견직물(장현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근대직물 100년(경기도 경운박물관, 2014), 섬유 패션 소재사전(공석봉·염삼주 공저, 한국섬유신문사, 1999), Design For Textile(오희선, 교학연구사, 2004).

필자 박경자(朴京子)

마고자

정의 저고리 위에 덧입는 맞깃형의 옷옷.

내용 마고자의 기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1887년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1820~1898)이 만주 보정부保定府에서 풀려 나올 때, 청淸의 복식이었던 마괘馬褂를 입고 온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흥선대원군 이전에 이미 저고리 위에 덧입었던 마상의馬上衣가 있었다.

이와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마괘자馬褂子’라는 명칭이 조선 후기 홍명복洪命福 등이 편찬한 『방언유석方言類釋』(1778년) 「복식류服飾類」에서 등장한다. 여기에서 마괘자를 ‘마상에 낄 낄 차른 옷’이라고 해석하



남자 마고자 | 길이 59.5 폭 49.5 화장 69 | 1946



여자 마고자 | 길이 27 폭 41 화장 62.5 | 1920

마고자 | 국립민속박물관

였다. 이유원李裕元(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1871년) 권32에는 “단괘短褂”를 ‘마괘’라고도 하는데 말을 탈 때 입는 옷으로, 옛날의 반비半臂처럼 소매 길이가 반팔인 것이 마괘이고 소매가 없는 것은 배자背子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마고자가 마괘 혹은 마괘자에서 온 명칭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존하는 유물 중 이와 같은 설명에 부합되는 옷은 출토유물인 방령의方領衣로 추정된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과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등에 소장된 방령의는 앞보다 뒷길이가 짧으며 네모난 것이 맞것 형식이다. 소매도 비교적 짧은 편이다. 방령의가 출토되는 것은 주로 임진왜란 전후의 시기이다. 방령의는 조선 말기에 들어와 네모난 것의 모서리가 둥글게 변화해 배자의 것과는 같은 모양으로 변화했고, 나중에는 아예 깃을 달지 않은 양식으로 전개되면서 오늘날의 마고자로 정착되었다.

마고자는 저고리와 비슷하지만 앞 중심선에서 단추로 여미도록 된 것이 차이점이다. 오늘날에는 마고자에 깃을 달지 않지만 조선 말기의 유물 중에는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아청색 도류불수 보문단 마고자처럼 배자 깃 같은 모양의 깃을 단 마고자도 있다.

남자 마고자는 위아래로 달린 단추 두 개를 맞은편

단추 고리 사이에 끼워 넣어 고정한다. 마고자 단추의 재료로는 은과 마노, 호박 등이 즐겨 사용되었다. 반면 여자의 마고자는 원삼 단추와 유사하게 국화무늬나 박쥐무늬를 넣은 암수 단추를 좌우에 달아 여민다.

특징 및 의의 마고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입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저고리 위에 착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한말 사진을 보면 포 위에 착용한 경우도 있어 특별한 원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마고자는 개성 지방에서 애용되었다고 하며, 대체적으로 남부 지방보다는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중부 이북에서 더 많이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멋을 위해서 봄 가을에도 마고자를 입기도 하였다. 고려대학교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은조사로 된 여성용 마고자 유물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어린이 마고자는 소매를 색동으로 하여 입었다.

참고문헌 方言類釋, 林下筆記, 마고자의 착용법 및 기원에 관한 연구(홍나영, 대한가정학회지41-5, 대한가정학회, 2003).

필자 홍나영(洪那英)

마미두면

馬尾頭冕

정의 국왕이나 왕세자가 편복便服 위에 착용하는 갖의 미칭美稱.

내용 조선시대의 성인 남성들이 일상에서 편복을 입고 상투를 튼 머리에 깃을 썼듯이, 왕이나 왕세자도 마찬가지였다. 마미두면은 왕이나 왕세자가 편복 위에 착용하는 깃을 말하는데, 백성들의 것과 구분하여 국왕이 착용하는 면관冕冠의 일종으로 높여 부른 명칭이었다. 마미두면의 용례는 왕세자이던 숙종(1661~1720)이 국혼을 올리던 1671년(현종 12)에 처음 기록되었다. 가례도감嘉禮都監에서 의대衣衛의 일종으로 제작하였으며, 1718년(숙종 44)에 있었던 경종과 선의왕후의 국혼 때에도 제작하였다. 마미두면을 착용하지 않을 때는 홍색 홀보자기[紅紬四幅單襖]에 써서 흑칠 깃집[黑漆

에 보관할 수 있게 일습으로 갖추었다. 이후 1750년(영조 26), 영조는 사치를 막고 왕실이 절검을 숭상수범하고자 『상방정례尙方定例』를 편찬하였고, 왕이나 왕세자가 착용할 마미두면을 절일節日이나 설 및 단오 때 상의원에서 각각 하나씩 총 세 개를 제작하도록 규정하였다. 완성된 마미두면은 반주홍정주硃紅鼎紬 보자기 네 폭으로 감싼 후 반주홍색으로 칠한 함[馬尾笠家]에 넣어 어용으로 들었다. 이후 왕이나 왕세자, 왕세손의 국혼 때에는 가례도감에서 마미두면과 함께 그것을 감쌀 보자기와 갓집을 일습으로 만들었으며, 왕이 착용하는 어용 마미두면은 반주홍 갓집에, 왕세자나 왕세손의 것은 흑칠 갓집에 넣도록 하였다. 1759년(영조 35)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 때나 1762년(영조 38) 정조와 효의왕후의 가례 때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은 19세기에 거행된 왕이나 왕세자의 국혼 때에도 계속 적용되어 1802년(순조 2) 순조의 국혼, 1819년(순조 19) 효명세자(후일 익종)의 국혼, 1837년(헌종 3)과 1845년 헌종의 국혼, 1851년(철종 2) 철종의 국혼, 1866년(고종 3) 고종의 국혼을 기록한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서 확인된다.



전 고종갓 | 총지름 31.5 높이 13 | 근대 | 세종대학교박물관

『상방정례』에 의하면 왕이나 왕세자의 마미두면은 양태涼臺 한 부, 죽모자竹帽子 한 부, 총모자鬘帽子 한 부, 총결조鬘結造(말총) 한 부로 구성되어 있다. 상의원에서는 지방에서 제작한 양태와 죽모자 및 총모자를 사용하여 어용御用 마미두면으로 완성하는 이원적 제작 체계였다. 곧 조선시대 내내 망건과 갓의 수요가 많아 말총과 대나무의 특산지에서 지방 장인(외공장外工匠)들이 망건과 총모자, 양태와 죽모자 등 반제품을 만들어 국가에 공납하였다. 어용 마미두면은 상의원에서 총모아 장이나 양태장 및 입자장 등 소속 장인(경공장)을 동원하여 공납 반제품에 말총鬘이나 대나무[大節長竹] 등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마미두면이 말총으로 만든 대우와 양태 위에 백사白絲를 올려 완성했다면, 대우와 양태 모두 대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진사를 올린 죽사립竹絲笠이 바로 사두면斜頭冕이었다. 『상방정례』에 의하면 사두면은 마미두면과 기본적인 재료는 같으나 대우 부분에 총모자 대신 죽모자를 사용하는 점이 다르며, 양태 위에 백사 한 냇을 한 올씩 올리고, 어교魚膠(부레풀)를 바르고 먹칠과 옷칠한 후 자적사로 영자를 달고 모단을 사용하여 완성하는 등 그 외 제작 과정은 대부분 일치한다. 마미두면이나 사두면이 완성되면 상의원에서는 각각 홍색 홀보자기에 싸고 갓집에 넣어 진상하였다.

사료에서 마미두면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1882년(고종 19)이었다. 왕세자였던 순종의 가례 때부터 마미두면은 일반 사립으로 대체되었고, 이후 왕실에서는 제작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기술은 이후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입자장인 전덕기와 김봉주를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갔다. 그들의 사후 정춘모가 1991년부터, 박창영 보유자가 2000년부터 그 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마미두면은 17세기 말 숙종의 국혼 때부터 그 명칭이 보여 이때부터 제작되어 19세기 말 순종의 국혼 전까지 제작되었다. 왕이나 왕세자 및 왕세손이 일상에서 착용하는 의대 위에 쓰는 갓을 일컫는데, 백사 한 냇을 비롯하여 매칠 일곱 석, 어교 네 냇, 먹 한 편, 탄 두 되 등을 재료로 사용한다. 반제품인 총모자나 양태를 한데 모은 다음 사립장絲笠匠이 양태 위에 비단

실[眞絲]을 어교로 발라 한 올씩 올렸고, 백사에 검은색을 내기 위해 먹칠이나 옷칠을 했다. 갓끈을 만들 모단冒段은 길이 두 자와 너비 두 치, 영자를 묶는 자적사 두 전 등을 호조에서 들여 완성하였다. 이렇게 세밀한 공을 들여 만든 마미두명은 조선시대 갓 중 최고급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왕의 권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嘉禮都監儀軌, 經國大典, 갓일(장경희, 화산문화, 2001), 우리 관모의 시말에 관한 연구(강순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의례 속 조선의 장인(장경희, 술과학, 2013), 인간문화재(예용해, 대원사, 1997), 조선시대 관모공예사 연구(장경희, 경인문화사, 2004).

필자 장경희(張慶姬)

마전

정의 생피륙이나 무명을 삶거나 빨아서 벌에 말려 하얗게 만드는 일.

내용 염색을 하기 전의 삼베나 모시, 명주 그리고 무명과 같은 천연섬유는 자연에서 섬유를 채취하고 가공하는 과정과 방적·방직하는 길쌈 과정에서 색소, 기름기, 풀 등 적지 않은 불순물이 묻게 된다. 섬유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 물을 들이면 염색이 고르게 잘 들지 않고 선명한 색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섬유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섬유에 따라 생베나 무명을 잿물에 담갔다가 삶아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누임(정련)’이라고 하며, 누인(정련한) 천을 개울의 깨끗한 물에 빨고 행구어 맑은 공기 가운데 햇볕에 널어 말려 하얗게 바래게 만드는 것을 ‘마전한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표백’이라고 일컫는 섬유나 섬유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색소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일컫는 것이다. 색소 물질은 염색에서 얼룩을 발생시키고 염색물의 색상에 영향을 주어 계획한 색상을 얻는데 방해가 되므로 염색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특징 및 의의 베틀에서 바로 내려온 생베는 누런빛이 도는 흰색, 즉 소색素色인데, 그것을 잿물이나 햇볕에 바래서 하얗게 표백하여 입었다. 누임은 전통적으로 천

을 잿물에 담가 두었다가 솥에 넣어 삶아서 부드럽게 누였다. 면직물은 알칼리 성분에 강한 특성 때문에 잿물로 세탁하였다. 잿물은 콩각지, 참깨 대, 서숙 대, 메밀짚, 벳짚 등을 태운 재를 시루에 담아 거기다 물을 부어 내려 받은 잿물을 사용하였다. 이런 잿물은 강한 알칼리성을 띠어 오염을 제거하는 훌륭한 세제 역할을 하였다. 반면 동물성 섬유인 견직물은 알칼리 성분인 잿물에 취약하여, 잿물에 빨면 직물이 노랗게 되어 버리거나 심하면 직물이 손상된다. 그래서 콩을 곱게 갈아서 체에 발친 물, 쌀뜨물, 등겨 끓인 물, 두부순물, 술 찌꺼기 등을 세제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잿물처럼 견직물을 손상시키지는 않으면서도 세정력을 가진 세제들이었다.

마직물은 주로 매화나무의 잎이나 쌀뜨물로 세탁했다. 마직물의 경우는 세탁 시 비비거나 치댈 때 올이 다칠 수 있다. 모시는 매화나무 잎을 찢어서 만든 좁은 물을 타서 불렀다가 맑은 물로 씻고 또 담갔다가 씻기를 반복하여 천의 끝이 하얘지도록 말리면 그 효과가 미묘하다고 전한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권16의 잡방雜方 부분에서 붉은 비름으로 생베를 삶으면 그 색깔이 모시처럼 하얘진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기록된 흰옷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된 재료를 살펴보면 백창포, 무, 합환나무, 매화나무, 토란, 주염나무, 붉은 팔, 옷차씨, 호박, 은행, 마늘 등과 같이 다양하다.

참고문헌 문헌으로 본 한국 전통 의복 관리법 연구(한지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오방색 꽃물 들이고(김지희, 자연염색박물관, 2007), 한국 고대 의복 소재의 염색 디자인 지식(문경현, 한국염색기술연구소, 2003),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조미숙(曹美淑)

말군 袜裙

정의 치마 또는 바지 위에 덧입는 승마용 바지.

내용 말군袜裙은 기록상 왕실 또는 상류층 여성의 복식으로만 확인되나, 조선 후기 풍속화에는 남성의 말군

착용 모습도 있어 남녀 모두 착용하였던 복장으로 볼 수 있다. 말균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국혼정례國婚定例』, 『상방정례尙方定例』,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등과 『연잉군관례등록延昞君冠禮謄錄』, 『명안공주가례등록明安公主嘉禮謄錄』, 『화평옹주가례등록和平翁主嘉禮謄錄』 등 군과 공주의 가례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한 여러 기록에서 확인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말균襪裙’으로, 후기에는 주로 ‘말균襪袴’으로 표기되었고, ‘말고襪袴’라는 표현도 드물게 쓰였다. 말균의 종류는 구성에 따라 겹말균袷襪裙과 홀로 구성된 단말균單襪裙이 있는데, 18세기 이후로는 단말균의 기록만 확인된다.

여성의 말균 착용은 상류층에게만 허락되었는데, 1412년(태종 12)에는 궁녀와 상기上妓 이외에 말균을 허락하지 말라 하였고, 뒤이어 1429년(세종 11)에도 여종은 말균을 입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한 차례 더 거론된다. 또한 1457년(세조 3)에는 높은 신분의 부인이 말균을 입지 않고 말을 타자 기생으로 취급하여 벌을 준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기록들로 볼 때 말균은 신분이 높은 여성에게만 착용이 허락되었으나 제대로 지

켜지지 않았고, 상류층 여성은 말을 탈 때에 반드시 말균을 착용해야 했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 말균을 착용한 모습은 의궤의 반차도와 풍속화에서 볼 수 있다. 『인조장렬후가례도감의궤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의 말균은 바지 옆선에 큰 주름이 있으며, 바짓부리는 주름 없이 옆으로 넓어 인천 석남동에서 출토된 말균과 비슷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화성원행반차도華城園幸班次圖>에 등장하는 말균은 뒤가 트여 있는 모습이 표현되었으며, 바짓부리는 끈으로 묶은 듯 잘록하다. 신윤복의 그림에는 말균을 겨드랑이까지 올려 저고리 위에 끈으로 고정한 모습으로, 허리말기가 넓으며 치마 위에 덧입어 풍성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남자의 말균은 기록에는 없으나 회화 자료에서 확인된다. <동래부사접왜사도東萊府使接倭使圖>, <사계풍속도四季風俗圖>, <평생도平生圖> 등의 자료에 긴 겉옷 위로 깃 아래까지 올려 입은 말균 착용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말균은 바짓가랑이가 넓고 밑이 트였으며, 바짓부리는 잘록하게 표현되어 끈으로 묶어 고정한 것으로 보인다.

말균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왕실 여성의 경우 단緞·능綾·초絁와 같은 고급의 견직물을, 상궁 이하 궁녀는 주軸, 면포綿布와 같은 평직의 견이나 면직물로 기록되어 있어 신분에 따라 재료에 차등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1795년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는 말균 제작에 필요한 재료와 비용에 대해 상궁과 시녀는 말고襪袴 감으로 백화주白禾紬 36척에 해당 4전씩 모두 14냥 4전, 아래 나인(하내인下內人)은 말균 감으로 사용한 옷감이 백주白紬 1필(35척)에 해당 2전씩 모두 7냥이라는 기록이 있어 같은 궁녀일지라도 직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직물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말균의 실물 자료로는 인천 석남동에서 발굴된 여성의 묘에서 출토된 것이 현재까지 유일하다. 폭 당 68~70cm의 숙초熟紬로, 길이 117cm, 허리 나비 13cm, 허리둘레 127cm, 배래 27cm, 부리 21cm로 만들어졌다. 각 바짓가랑이에 3폭 반을 잇고 좌우 가랑이가 앞 허리 중심에서 13cm 겹치도록 한 다음, 바지폭의 여유분은 모두 옆선 쪽에 맞주름 세 개(총 78cm)를 잡아 한 자리에 고정하고 허리를 달아 제작되었다. 바지 배래는 밑단 안쪽 끝에서 21cm 위로, 부리 쪽으로 17cm 들어간 지점과 대각선으로 잡아 박음질하였고, 부리를 제외한

말균

말균



① 말균 | 15세기 추정



② 말균 착용한 남성 | 19세기 말

③ 말균 착용한 여성 | 조선 후기

말균 | ① 전체길이 117 허리 63 | 인천 석남 | 인천시립박물관, ② 평생도 중 부분 | 국립민속박물관, ③ 신윤복 | 문중심사 중 부분 | 간송미술문화재단

여유 분량은 안감 쪽에서 반을 접어 겹친 다음 네 겹을 한꺼번에 수직 감침하였다.

특징 및 의의 말군은 말을 탈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높은 신분만이 착용이 가능한 승마용 바지이며, 실물 자료가 조선 전기 유물 단 한 건만이 확인되어 후대까지의 형태 변화를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기록이나 회화 자료를 통하여 색과 재료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색상은 모두 백색으로 기록되어 있다. 밑이 트인 바지인 개당고와 혼동될 수 있지만, 바지에 비하여 바지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뒤와 밑이 트여 있고 배래가 짧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기록에 영자백필단(纓子白疋鍛과 초록초영구(草綠綃纒具 등이 있어 부리를 묶는 끈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승마용 말군 외 궁중행사 때 무용복으로 사용된 동기(童妓의 말군 기록, 처용무(處容舞) 여기(女妓)의 말군 기록이 있는데, 동기는 홍초, 처용은 홍·흑·남색의 주, 여기는 백색의 사·라·능·초가 사용된 말군으로 동기와 처용의 말군은 색이 있으며, 여기는 상류층 여성의 말군과 큰 차이가 없다.

참고문헌 嘉禮都監儀軌, 國婚定例, 尙方定例, 園幸乙卯整理儀軌, 朝鮮王朝實錄,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김미자 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조선 시대 말군의 실물 제작법에 관한 연구(정미숙·송미경, 복식57-7, 한국복식학회, 2007).

필자 정미숙(鄭美淑)

말뚝땡기

정의 끝이 편편하고 납작한 어린이용 직사각형 땡기.

내용 말뚝땡기는 조선 후기에 주로 어린이용으로 만든 끝이 편편하고 뚱뚱한 땡기이다. 즉, 직사각형 땡기 중 말뚝땡기는 어린이용, 목판땡기는 어른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녀 어린이 모두 도투락땡기를 착용하는 시기를 지나 제비부리땡기를 사용하기 전에 드렸다. 이때, 미리 고를 접어 끈을 달거나 직사각형 땡기를 반으로 접어 만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반



땡기 드린 뒷모습 | 193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으로 접은 것은 긴 땡기를 접어 두 겹으로 만들고, 접은 부분이 직사각형이 되게 하여 네 겹으로 접힌 맨 윗부분 중심에 끈을 달아 머리 다발에 매었다. 어린이의 뒷머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땡기 위에 조그만 끈을 달아 뒤통수 밑에서 바깥 달았다. 도투락땡기처럼 긴 직사각형의 땡기를 반으로 접어 끈을 달아 머리에 매어 달았으나, 땡기를 접어 두 폭으로 겹쳐진 부분의 모양이 도투락땡기는 세모꼴, 말뚝땡기는 네모꼴이라는 점이 다르다.

특징 및 의의 말뚝땡기는 남녀 어린이가 함께 사용하였던 직사각형 땡기이다. 남아의 것은 검정색으로, 여아용은 붉은색의 비단으로 만들고, 전면에 나비, 꽃, 수壽, 복福 등의 글자 등을 금박으로 장식하였다. 일반적으로 제비부리땡기나 목판땡기에 비하여 길이가 짧고 너비가 넓은 편인데, 길이 63~330cm, 너비 5~9cm 정도이다. 또한 말뚝땡기의 실물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두 점과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세 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 소장하는 말뚝땡기 두 점 중, 검은색 말뚝땡기는 길이 100cm, 너비 8cm이며 20세기 유물이다. 인조견으로 제작하였으며, 국화꽃 돌을무늬를 여러 개 은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다른 하나는 붉은색 말뚝땡기로, 길이 68.4cm, 너비 8cm이다.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의 것인데 전체적으로 금박장식이 되어 있어 반가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려대학교박물관의 세 점은 모두 조선 후기의 말뚝땡기이다. 그중 하나는 길이 303cm, 너비 6cm로, 홍색

비단 양끝에 세모꼴로 연두색 비단을 대고 부분적으로 금박장식을 한 것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땡기에 관한 연구(이승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명선-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모자와 수식(석주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3),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81),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확사,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이호정(李祐廷)

말액

抹額

말액

정의 맨머리나 복두에 둘러쓰는 건巾 형태의 포백제布帛製 쓰개.

내용 ‘말액抹額’이라는 용어는 당대唐代에 처음 사용되었다. 그 전신은 머리에 두르는 띠 형태의 파帕 혹은 파수帕首라 불렸던 진대秦代의 쓰개로 보고 있으며, 중국 문헌과 벽화에는 당대부터 명대明代에 이르기까지 말액의 착용자와 그 색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무인武人, 춤추는 사람(무인舞人), 노래 부르는 사람(창인唱人)이 착용하였고, 특히 붉은색 계통(홍紅·비緋색), 백색, 황색 등이 사용되었다. 당대부터 나타난 무인武人용 말액은 대체로 붉은색 계통이고, 원대元代부터 등장한 무인舞人용 말액은 수를 놓아 화려한 황색 비단으로 지었다. 창인용 말액 기록은 다른 용도에 비해 빈도가 낮는데,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열전55)에 “백의白衣, 결과 녹삼缺勝綠衫, 금반비錦半臂를 입고 홍라 말액紅羅抹額을 착용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기록 중 고구려의 춤추는 사람이 강색 말액[絳抹額]을 썼다는 기록, 발해의 정효공주貞孝公主 묘 벽화(8세기 후반)에 묘사된 12명의 인물 중 무장武裝을 한 시위侍衛 두 명이 머리에 붉은색 말액을 착용한 모습, 『고려사高麗史』에서는 무장武裝이나 춤을 출 때(무무武舞) 수를 놓은 붉은색 말액(자수말액紫繡抹額, 비수말액緋繡抹額)을 사용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고려시대의 말액은 무무 시에 단독으로 사용된 데에 비해, 군사 복식으로 사용될 때는 입각모立角帽나 평건책平巾幘과 함께 착용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징 및 의의 『삼국사기』의 말액 관련 내용은 중국 『통전通典』의 내용을 근거로 언급한 것이다. 당 시기에 고구려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사람들이 고구려식 복장을 하고 있다는 『통전』의 내용을 통해, 고구려에서도 파帕 계통의 건巾과 유사한 형태의 쓰개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춤추는 사람들이 착용한 쓰개를 지칭할 때는 시기상 형태가 유사한 ‘말액’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즉, 발해 문화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감안할 때, 『통전』에 기록된 무용수들의 쓰개는 고구려에 정체성을 둔 것이며, 정효공주 묘에 묘사된 발해의 말액이 고구려의 풍습을 계승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舊唐書, 明史, 三國史記, 新唐書, 新元史, 元史, 通典, 後漢書, 말액에 관한 연구(강순제·전현실, 복식55-8, 한국복식학회, 2005), 中國古代服飾史(周錫保, 中國戲劇出版社, 1984), 中國服裝史綱(王宇清, 中華大典編印會, 1967).

필자 전현실(全炫室)

망건

網巾

정의 조선시대 성인 남자의 머리카락이 앞으로 흐르지 않게 이마를 감쌌던 머리띠.

내용 망건網巾은 말총으로 엮어 상투를 튼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마 위를 감쌌던 머리띠의 일종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잠잘 때를 제외하고 일상에서 늘 망건을 착용하였는데, 잠자리에 들 때야 비로소 상투를 풀고 망건을 벗어 두었다가 아침에 세수를 한 후에 다시 동여맸다. 특히 정조는 병을 조리하는 중이라도 잠자기 전에는 망건을 벗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몸 가까이 두는 망건을 귀하게 여겨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돌돌 말아 망건통에 넣어 보관하였고, 망건통 역시 소중하게 여겨 최대한 좋은 재료로 제작하였다. 이때 신분의 고저나 부유한 정도에 따라 망건통을 나무로 만들거나 그 위에 상어 껍질을 비롯한 고급 재료로 장식하기도 하였다.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에 의하면 망건은 본래 명나라에서 유래하여 비단으로 만들었다고 한



망건 | 길이 54.5 너비 8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망건 | 백은배 | 후원아집도 중 부분 | 19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다. 하지만 조선에 유입되면서 비단 대신 말총으로 재료를 바꾸고 형태가 단순해져 조선식으로 재창조되었다. 조선에서 망건의 재료인 말총은 말 목장이 많았던 제주도나 평안도에서 채취하였다. 『삼재도회(三才圖繪)』나 『천공개물(天工開物)』에 실린 중국의 망건은 아래쪽의 하망(下網)과 위쪽의 망대(網帶)로 구성되었는데, 조선에서는 아래쪽 하망으로만 되어 있다. 추존왕 원종(元宗, 인조의 아버지)의 셋째 아들인 능창대군(綾昌大君) 이전(李倔, 1599~1615)의 무덤에서 출토된 망건 유물을 통해 중국식 망건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망건을 제작하는 장인은 망건장(網巾匠)이라고 하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공조에 두 명, 상의원에 네 명이 소속되어 왕실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망건을 제작하게 하였다. 망건은 상중하 삼단으로 구분하여, 아래쪽에는 가는 테두리에 해당되는 ‘편자(邊子)’, 중간에는 넓은 ‘앞’과 ‘뒤’, 위쪽에는 ‘당줄’을 넣을 코를 만드는 ‘당’을 만들었다. 망건을 착용할 때는 당줄을 줄라매 크기를 조절하였고, 그 당줄을 꿰어 고정하기 위해 망건의 관자놀이 부분에는 ‘관자(貫子)’를 매달았다.

관자는 신분과 계층을 상징하는 역할도 하였는데, 『경국대전』이나 『조선부(朝鮮賦)』에 따르면 관자는 품계에 따라 재료에 차등을 두어 일품은 옥, 이품은 금, 삼품은 은으로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선 전기에는 관자를 만드는 관자장(貫子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망건의 수요가 증가하는 조선 후기에는 왕실의 국가 행사 때마다 동원되었다. 또 관자와 함께 망건의 앞쪽 이마 위에 ‘풍잠(風簪)’을 달아매어 입자가 뒤로 젖혀지지 않게 고정시켰다. 이 역시 관자처럼 고급 재료를 사용하기도 해 신분을 구분할 수 있었다. 『불교』에 의하면 상류층은 금패·호박·수정·밀화 등으로, 서민은 뼈나 뿔 및 나무로 만든 풍잠을 사용하였다.

18세기 이후 양반의 수가 늘고 신분제도가 해이해짐에 따라 망건의 수요가 많아졌고, 민간 수공업으로 대량 제작되었다. 게다가 18세기 말 금난전권(禁難專權)이 폐지되자 망건과 관자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망건전(網巾店)이 비약적으로 늘었고,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상인이 난립하면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 사태를 반영하여 박지원(朴趾源)은 『허생전(許生傳)』에서 주인공 허생이 망건을 매점매석하는 이야기를 실은 바 있다. 하지만 1895년(고종 32) 단발령(斷髮令)이 내려진 후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더 이상 망건이 필요 없게 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망건의 착용과 제작이 급속도로 감소하자 망건을 제작하는 기술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 망건장을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하였고, 임덕수를 보유자로 인정하여 명맥을 잇게 하였다. 그의 사후인 1987년에는 제주도의 이수여를 보유자로 인정하였다가, 그가 연로하자 2009년에 그의 딸인 강전향을 보유자로 인정하여 그 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망건은 망처럼 짜 이마에 둘러 머리를 간추리는 데 사용한 머리띠의 일종이다. 의관정제를 중요하게 여긴 조선의 선비들은 잠을 잘 때 이외에는 머리를 간추려 학처럼 고고한 기품을 유지하고자 언제나 망건을 사용하였다. 그러자 조선 후기에는 망건 착용이 크게 보편화되었고, 말총 생산 지역의 망건장들은 민간에서 망건을 대량 제작하였다. 왕실도 이를 공급 받아 사용하자 망건장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임진왜

란의 후유증으로 민간에서 망건을 제작하기 어려웠던 1627년(인조 5) 소현세자의 국혼 때는 망건장 박말남 朴耆男을 국가에 동원하였고, 이것이 조선 후기 이후 망건장을 동원한 유일한 사례이다.

망건을 제작한 기록은 조선시대 내내 확인되지만 착용한 예는 조선 후기 초상화나 풍속화에서 찾을 수 있다. 유물 또한 조선 후기의 것이 대부분이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망건장(장경희, 화산문화, 2001), 의궤 속 조선의 장인(장경희, 솔과학, 2013), 이익정묘 출토 망건의 소재 및 구성법에 관한 연구(채옥자·유효선, 복식59-8, 한국복식학회, 2009), 조선상식문답-전(최남선, 민속원, 1997), 조선시대 관모공예사 연구(장경희, 경인문화사, 2004), 조선시대 남자의 수식 연구1(장숙환,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10-1, 한국의상디자인학회, 2008), 조선시대 남자의 수식 연구2(장숙환,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12-2, 한국의상디자인학회, 2010).

필자 장경희(張慶姬)

매염 媒染

정의 염료가 섬유에 대해 염착성染着性이 없을 때 미리 섬유에 매염제를 처리하여 섬유에 고착하는 방법.

내용 『천공개물天工開物』에서 금황 염색은 “황백 달인 물에 염색하고 잿물 매염한다 芦木煎木染, 復用麻蒿灰淋, 鹹水漂.”라고 하였고, 다갈색 염색은 “연자각蓮子賣 껍질을 달인 물에 염색한 후 청반물에 담근다 蓮子賣 煎水染, 復用靑靛水蓋, 蓮子賣 蓮子賣.”라고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 잿물과 청반 등의 매염제 사용 근거가 제시됨을 알 수 있다.

매염제의 의미는 섬유에 직접 염색이 잘 안 되는 염료를 섬유와 결합시켜 염착 및 견뢰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말한다. 대부분 식물 염료는 전통적 매염제를 사용하거나, 특별한 화학적 처리로 섬유와 결합한다. 같은 매염제를 사용하여도 매염법과 농도에 따라 염색물의 색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염료가 섬유에 대하여 친화성이 없어 염착성이 없는 자연 염료나 매염 염료로 염색할 경우, 그 염료와 결합하여 불용성인 유색 화합물을 생성하는 약제로 미리 섬유를 처리하는 작업을 매염제라 한다.

매염제는 염기와 산의 중화에 의해 수소와 금속을 바꾼 중성의 금속 화합물이다. 즉, 섬유에 대하여 염착

성이 없는 염료로 염색할 때(매염 염료), 그 염료와 결합하여 불용성인 유색 화합물을 생성하는 약제로 미리 섬유를 처리하여 매염 염료로 처리하면 염색할 수 있다. 매염제의 종류는 자연에서 직접 얻는 천연 매염제와 특정 성분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일정한 수치가 고정되어 있는 화학 매염제로 나눌 수 있다.

천연 매염제는 조개껍질을 구워서 만든 석회, 콩대나 나무를 아궁이에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재를 이용한 잿물, 녹슨 철 등을 이용한 철장액, 오미자로 만드는 강산성의 식초물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 보조제와 매염제는 미음·얼음·진흙·타닌·백반·우유·콩즙·동물의 대변과 오줌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해당 물질에 들어 있는 다양한 성분의 금속 이온을 이용해 색을 낸다. 일정하지 않은 양으로 함유된 여러 부산물은 색상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하여 자연의 색감을 그대로 느끼게 한다.

반면에 화학 매염제는 특정 성분만을 화학적으로 합성했으므로 깊고 오묘한 자연의 옛 색감을 낼 수 없고 자극적이다. 매염제의 성분 중 염색의 색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소는 알루미늄·초산·동·주석·철·탄닌이다. 각 원소의 함량에 따라 색상의 명도와 채도가 달라진다. 대개 알루미늄 원소가 많을 때는 색상이 밝아지며 동·철·크롬·탄닌 원소가 많을 때는 어두운 색을 띤다.

매염 방법의 종류로 첫째, 선매염은 피염물을 미리 염색하기 전에 매염제로 처리한 후 염색하는 방법이다. 둘째, 동욕매염(동시 매염)은 염료에 매염제를 넣어 염색하는 방법이다. 셋째, 후매염은 염색을 먼저하고 뒤에 매염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 방법이다. 넷째, 봉합법(혼합법)은 종류가 다른 매염제를 혼합 용해해서 매염욕을 만들어 매염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병용법은 먼저 선매염하고 염색 후 다시 후 매염하는 매염법이다. 매염제의 사용으로 진하고 다양한 색을 얻을 수 있으며, 햇빛·마찰·땀·세탁 등 외부 조건에 대한 피염물의 색상 견뢰도가 높아진다.

참고문헌 天工開物, 과학용어사전(뉴턴편집부, 현존수, 2010), 전통색깔 물들임과 무늬넣기(김지희, 자연염색박물관, 2012).

필자 김지희(金芝希)

맥고모자 麥藁帽子

정의 개항 이후 남자들이 주로 착용했던 밀짚이나 보릿짚으로 만든 여름용 모자.

내용 맥고는 밀짚이나 보릿짚이다. 맥고모자는 표준국어대사전 정의에 따르면, “맥고로 만든 모자. 개화기에 젊은 남자들이 주로 썼다.”고 한다. 맥고모자는 좁은 의미로는 개화기에 남자들이 주로 썼던 맥고로 만든 모자이고, 넓은 의미로는 밀짚이나 보릿짚으로 만든 모자 일반을 의미한다. 맥고모자도 중절모, 중산모 등과 마찬가지로 서양에서 시작된 모자로 영어로는 보우터boater 또는 스트로헤트straw hat라고 한다. 좁은 의미의 맥고모자는 보우터라고 볼 수 있고, 넓은 의미의 맥고모자는 스트로헤트라고 볼 수 있다. 일본어로는 ‘麦わら帽子(麦藁帽子), かんかん帽, 藁帽子, ストローハット’ 등으로 표기되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인기가 있었고, 서양에서 착용되던 초기에는 격식을 차린 차림으로 인식되었다. 주로 남성이 여름에 썼고, 특히 배를 탈 때 많이 착용하여 보우터라고 불렸다. 짚으로 짠 모자라는 넓은 의미로 보면 여성용 모자도 포함될 수 있다.

맥고모자의 형태는 모자 윗부분(정수리)이 평평하고 납작하며, 모자의 관 부분과 챙이 만나는 바로 위에 리본이 둘러져 있다. 원래 단색이나 줄무늬가 있는 그로그랭grosgrain으로 된 리본이 달려 있었으나 후에



맥고모자를 쓴 남성 | 사리원 단오행사 중 부분 | 1937 | 국립민속박물관

다양한 소재의 리본이 부착되었다. 모정이 평평하여 ‘일자모一字帽’라고도 하였다. 파나마모자보다 챙이 좁고 모자의 윗부분이 낮다. 맥고모자의 챙도 대개 일자형으로 알고 있으나, 챙의 형태가 다른 것도 있다. 챙 뒤가 살짝 올라간 형태는 ‘긴구형모자’ 또는 ‘유학생모’라고 하였다. 넓은 의미의 맥고모자는 형태가 다양하다.

맥고모자의 소재는 원래 식물의 짚으로 밀짚·보릿짚 등이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기도 한다. 맥고모자 제작은 초기에는 짚을 표백하고, 그 후에 짚을 뺏뺏하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손으로 엮어 짚다. 표백한 후에 염색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1872년 처음 손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공업적 생산은 1928년 브라더Brother사에서 모자 제조용 재봉틀을 판매한 이후이다.

우리나라에는 서양에서 유학한 사람들이나 서양과 관련된 경험을 일찍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 1897년에 경성에서 조선인이 맥고모자에 양복을 착용한 기록으로 보아 19세기 말에 이미 착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부대신 송병준宋秉駿이 “인민을 일제히 단발케 하기 위하여 맥고자 몇만 개를 일본에 주문한다는 말이 있다.”라는 기사 내용에서 20세기 초에는 맥고모자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았고, 일본에서 수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홍선표는 1939년 기사에서 맥고모자는 혼마치토오리本町通り(현재 충무로 일대)에 살던 일본인이 많이 썼고 조선 사람은 쓰지 않았는데, 1909년경 임병삼이라는 조선인이 처음 썼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1900년대 초에 조선 사람들은 맥고모자를 즐겨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맥고모자는 단발령 추진과 일진회一進會를 떠올리게도 한다. 예를 들면, 1904년 일진회 회원이 머리를 자르고 맥고모자와 모시로 된 두루마기를 입었고, 1907년에는 농부의제실시農部衣制實施에 관하여 양복을 아직 구하지 못한 관원은 머리를 자르고 맥고모자만 착용하게 하였다. 이후 의관 개량에 대한 의견에서 립자笠子是 일본 맥고자日本麥藁子와 비슷하게 제조하자는 내용이 등장하였다. 두루마기에 맥고모자를 착용하고 길에서 양양하게 다니는 이들은 일진회원이라는 기사

와 함께 일진회원들이 단발령을 따르고 두루마기에 중절모, 중산모, 맥고모자를 착용할 경우 일반인이 일진회라고 지적하고 미움을 받더라도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 등이 있다.

이후 맥고모자는 파나마모자와 더불어 고종 승하(1919) 후 국상 기간에 백립 대신 착용하였고 그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1920년 이후 1930년대까지는 맥고모자와 파나마모자에 관한 광고와 기사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여름에는 맥고모자와 파나마모자가 많이 착용되었다. 맥고모자 수요가 많아지면서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1924년에는 체송인(遞送人)과 집배인(集配人)이 사용할 맥고모자를 제조하는 중이라는 기사도 있었다. 1908년 모자 제조 농공연구회를 설립하고 우선 맥고모자를 다수 제조한다는 기사가 있으나, 국내 생산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은 알 수 없다.

맥고모자가 널리 착용된 이후에는 맥고모자 가격, 유행, 세척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일반인에게 소개되었다. 1940년에서 6·25전쟁 사이에는 맥고모자와 관련된 신문 기사는 매우 적으며, 1954년에 영화 촬영에 사용하는 필름을 맥고모자 둘레에 두르는 데 사용하는 것을 단속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다양한 소재가 맥고모자 둘레에 사용된 예를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등장하는 맥고모자는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단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뺑이 더 넓고 모자 윗부분이 더 높고 굴곡진 밀짚모자 같은 것이었다. 이후 현재까지 맥고모자는 다양한 형태와 소재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맥고모자는 단발령 이후 머리가 짧아지면서 모자를 착용해야만 했던 상황에서 강요되어 사용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널리 착용되었던 모자 중 하나이다. 단발령 시행 때 일진회원들이 먼저 썼던 것으로 이들에 대한 나쁜 인상은 지울 수 없으나 이후 여름에 널리 착용하여 생산되었다. 1960년대 이후 생산된 맥고모자는 현재 알고 있는 뺑이 넓은 밀짚모자와 같은 것이다.

참고문헌 개항이후 남자 모자에 관한 연구(김이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양복의 기원(홍선표, 조광,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 한국 남자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남경미,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한국복식문화

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98), 네이버 일본어사전(jpdic.naver.com), 위키백과(wikipedia.org).

필자 남경미(南瓊美)

먹물

정의 먹을 간 액이나 송연(松煙)으로 흑색을 물들일 때 쓰는 염료.

내용 고대 중국에서는 천연으로 산출되는 석묵(石墨)의 분말에 옷을 섞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먹을 뜻하는 한자인 ‘묵(墨)’은 ‘검을 흑(黑)’과 ‘흙 토(土)’를 합한 글자이다. 일본의 정창원(正倉院)에 소장된 신라의 먹 두 점이 우리나라 먹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물이다. 삼국시대에 이미 좋은 먹이 생산되고 사용되었음은 명나라 도종의 陶宗儀의 『절경록(輟耕錄)』에 실린 고구려에서 송연묵을 당나라에 보냈다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고구려 고분인 안악 3호분과 모두루묘지(牟婁墓誌)에 있는 묵서명(墨書銘)(무용총 주실 서벽 수렵도의 기마인물에서 볼 수 있는 조미식 조우관과 개마총 주실 기마도의 두 번째 인물에서 볼 수 있는 금우식 조우관 등), 그리고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담징(曇徵)(579~631)이 제묵법을 일본에 전했다는 기록이 있다. 먹은 송진을 태워서 만드는 송연묵(松煙墨)과 기름을 태운 그을음으로 만드는 유연묵(油煙墨)으로 나뉜다. 송연묵은 주로 목판이나 목활자 인쇄에 사용한다. 유연묵은 금속 활자 인쇄에 사용한다. 1554년(명종 9)에 어숙권(魚叔權)이 편찬한 『고사촬요(故事撮要)』에는 먹의 제조법이 소개되었다. 전통 먹의 제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까다로운 작업으로 장인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먹을 만드는데 필요한 천연 재료를 구입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최근에는 광물성 그을음 또는 카본 블랙 같은 재료를 이용하고, 기계로 제작하는 공업먹을 주로 사용한다.

특징 및 의의 먹 중에는 송연묵의 색상이 가장 좋다. 먹이나 송연은 미세한 입자의 상태가 되어도 피염물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물리적인 삽입 상태가 되므로 침염의 방법으로는 견뢰도(堅牢度)가 낮아진다. 따라

서 적당한 바인더를 사용하여 피염물에 칠하는 방법을 많이 채택한다. 다만 『규합총서(閏閣叢書)』에서 “좋은 중국 먹을 갈아 물에 타고 신 초를 조금 쳐 흰 비단이나 명주에 들이면 짙은 잿빛이 붉고 푸른빛을 띠어 향내가 기이하고 품스럽고 곱다.”라고 침염법을 설명하였다. 일반적인 염법에서 송연은 입자가 고운 것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유발(乳鉢)에 송연을 담고 미세하게 갈아서 사용한다. 미리 아교에 섞어둔 송연에 콩즙을 넣고 교반하여 잘 섞이도록 한 다음 물로 묽게 하여 염색에 사용한다. 묽은 액을 솔로 찍어 여러 번 피염물 위에 바르고 마지막으로 콩즙을 칠한 다음 충분히 건조한 후 증열처리 한다.

참고문헌 전통 속에 살아 숨 쉬는 첨단 과학 이야기(윤용현, 교학사, 2012), 증보 천연염료 염색사전(조경래, 아취현, 2009),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소황옥(蘇晃玉)

메리야스

정의 편물 기계로 만들어진 옷감 또는 그 옷감으로 만들어진 복식.

내용 메리야스의 원료는 대부분이 면(綿)이었고, 모(毛) 중에는 면양·낙타·토끼(앙고라) 등이 있었으며 드물게 견(絹)이 쓰이기도 하였다. 메리야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면사나 모사로 신축성이 있고 촘촘하게 짠 천·속옷·장갑 따위를 만드는 데에 쓴다.”라고 정의되었다. 메리야스는 스페인어 ‘medias’ 또는 포르투갈어 ‘meias’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개항 이후 속적삼 대신 메리야스 셔츠를 입게 되었고, 속옷 중 특히 러닝셔츠(running shirt)를 ‘난닝구’ 또는 ‘메리야스’라고 부르기도 했다.

20세기 전기에는 메리야스로 양말, 속옷(셔츠, 팬츠 등), 상의(스웨터, 가디건 등), 장갑, 모자, 목도리 등을 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12년 기록에 서양 내의를 ‘메리야스 샤쓰’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메리야쓰’라고 표기하기도 하였다. 1950년 화신백화점 메리

야스 광고에는 ‘안다샤스·트레닝샤스·런닝샤스’ 등이 쓰였으며, 또한 다양한 긴팔 속옷도 있었다. 메리야스로 만든 복식 품목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현재는 더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메리야스 제품이 들어온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천주교가 전파되면서 선교사들을 통해 양말류가 들어왔으리라 추정된다. 1923년 『동아일보』 광고에 조선에서 생산한 면·모·편물·스웨터 광고가 등장하지만, 1940년대까지 대개 일본에서 수입하였다. 1930년대에는 메리야스가 널리 사용되어 생활필수품으로 여겨졌다고 하였다. 겨울용과 여름용으로 구분하는데, 겨울용은 안과 밖이 다른 두 실로 짜서 안에 털을 일으킨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메리야스는 대개 오사카(大阪)·나고야(名古屋)·도쿄(東京) 산인데, 대개 오사카에서 생산된 것이었고, 그 중 면 메리야스는 도쿄에서 생산된 것이 품질이 좋았다고 한다.

국내에서 메리야스가 처음 생산된 것은 1872년(고종 9)경으로 양말을 간단한 수편기(手編機)로 짜내는 가내 수공업형이었다. 그러다가 양장 착용이 늘어남에 따라 양말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생산도 늘어났다. 1906년 김기호가 평양에 양말 공장을 처음 설립하였고, 이후 양말 공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메리야스 공업은 1910년대까지도 소상인이나 수공업자들에 의해 소규모로 운영되었다.

한국에서 양말을 비롯한 메리야스 공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이며, 이것은 대중생활 양식이 크게 변화하는 것과 때를 같이한다.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메리야스 공업의 규모가 커지고 기업화되어 갔다. 평양의 메리야스 공업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은 1926년경이며, 이때 평양 양말 공장의 대부분은 근대식 자동기계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평양의 양말 공장에서는 이 시기부터 양말 이외의 내의, 장갑류의 제작에 착수했으며 특히 ‘목출모’ 제조는 평양 메리야스 공업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크게 기여했다. 또 ‘타올’은 일제 수입품보다 염가여서 한국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1933년에는 최초의 메리야스 내의류 전문 생산 업체로 메리야스 합명회사가 창립되었고, 1934년 조선에서는 최초로 조선 자본으로 메리야스 공장이 평양에



건설되었다. 면방직 이외에 1937년에 모방직 분야에
서 일본 자본에 의해 ‘조선모직’이 설립되고, 최초의 현
대적인 모방직 공장이 들어섰다. 1937년 이후 메리야
스 공업은 쇠퇴하게 되는데, 엄격한 통제로 군수품 이
회의 민수용 제품 생산은 극소량에 불과했다.

광복 이후 각종 생필품이 배급될 정도로 어려운 상
황에서, 각종 메리야스 기계의 국산화가 이루어져 한국
메리야스 공업의 발전을 이룬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55년에는 처음으로 한국 메리야스 제품이 미군수
품을 대체하여 국군에 납품되었고, 1957년부터는 미
국·홍콩 등지로 면직물 수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메리야스의 해외 수출이 시작되어 국제
시장에 메리야스 제품뿐만 아니라 기계까지 수출할 만
큼 발전하였다.

■

역 신

특징 및 의의 메리야스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편물 기계로
만들어진 옷감 또는 그것으로 만들어진 복식 품목 전체
를 말한다. 과거 ‘난닝구’라고 흔히 불리던 소매가 없는
속옷 상의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우
리나라에서는 양말이 먼저 생산되었고, 1930년대에는
양말뿐 아니라 각종 속옷에도 널리 메리야스가 사용되
었으나 양말을 제외한 메리야스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
입하였다. 양말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메리야스 산업은
광복 전 주로 평양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광복 후 다른
지역에도 생산 시설이 마련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
는 분야로 성장하였다.

참고문헌 식민지기 평양 메리야스 자본의 생산합리화(주익중, 경제사학18, 경제
사학회, 1994), 우리 생활 100년·옷(고부자, 현암사, 2001), 한국 남자 일반 복식
에 관한 연구(남경미,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한국 섬유 공업 기
술의 발달 1890~1960(박진희, 한국사론42, 국사편찬위원회, 2005), 한국여성
양장변천사(유수경, 일지사, 1990), 화학대사전(세화, 2001).

필자 남경미(南瓊美)

역신

정의 벚짚으로 발목까지 올라오게 만든 방한용 신.

내용 역신은 눈이 쌓인 길을 갈 때 방한용으로, 또는 미



역신(동구미신) | 길이 26 높이 13 너비 85 | 1991 | 국립민속박물관

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었다. ‘동구미’라는 바구
니처럼 울이 깊은 것이 특징이어서 ‘동구미신’ 또는 ‘동
구니신’이라고 불렸다. 제작 방법은 지푸라기를 바닥
에서 세 가닥 또는 네 가닥으로 시작하여 날을 드문드
문 눌러 바닥 날을 잡은 후 옆으로 올려 발목까지 엮은
뒤, 다시 밑으로 겹이 되도록 엮어 내려 바닥 면에서 마
무리한다. 이렇게 완성된 신은 엮은 가닥의 시작과 끝
이 안 보이고, 겹으로 두터워 보온 효과도 뛰어났다. 신
을 신고 덧신으로도 신을 수 있도록 크게 만들기도 하
였다.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매우 요긴하게 착용하였다.

참고문헌 조선시대의 신(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2016), 짚문화(인병
선, 대원사, 1997), 한국인의 신발, 화혜(최공호 외, 미진사, 2015).

필자 광경희(郭京熹)

면류관 冕旒冠

정의 황제·황태자·왕·왕세자·왕세손이 책봉 등의 대
례 시에 착용하는 관모.

내용 면류관은 다른 관들과 달리 관이 몸체와 그 위의
평천판(平天板)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평천관
(平天冠)’이라는 이칭이 있다. 평천판은 앞이 둥그렇고 뒤

가 네모진 전원후방前圓後方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는 고대인들의 우주관인 천원지방天圓地方의 개념,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원리를 상징한다. 길이 1척 6촌, 너비 8촌의 오동판梧桐板을 다듬고 옷칠을 하여 만드는데, 겉은 검은 증緇 혹은 단緞으로 덮고 안은 대홍광적大紅廣的으로 만든다.

이 평천판 아래 몸체를 관무冠武라고 한다. 관무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전단후고前短後高 원통의 형태로 서, 그 위에 얹은 평천판은 전면후앙前倣後仰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고대 중국에서부터 발달된 제관이면서 후한 대에 이르러 착용되었으며, 이렇게 앞이 뒤보다 면倣하여 숙여지므로 면류관을 ‘면冕’이라고 하였다. 기록이 남아 있는 모든 원전에서 무의 높이는 앞이 8촌 5분이고 뒤가 9촌이나 순종과 영친왕 사진자료의 높이는 이보다 짧다. 무의 틀은 대죽大竹으로 잘게 쪼개어 바구니를 짜듯이 하여 틀을 잡고 옷칠을 한 뒤 검은색 라羅로 세 겹을 배접하여 만들었다. 관무의 상·중·하단에는 도금한 은을 선으로 만들어 물려 관무를 견고히 하였다.

평천판과 관무 사이, 앞뒤 중심되는 부분에는 좌에서 우로 막대형의 옥량을 끼워 평천판과 옥량, 옥량과 관무가 맞물려 고정되게 하였다. 이 옥량을 옥형玉衡이라고도 하였으며, 평천판의 중심에 고정된 이 옥형은 관 전체의 균형을 잡고, 관무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옥형에는 검은 끈, 현담玄紘이 걸리어 귓전까지 내려오는데 양 끝에 벽옥碧玉의 옥전玉璫, 즉 충이充耳를 좌우 두 개씩 달았다. 이렇게 면류관 양옆 귓가에 늘어뜨린

충이는 주광충이黠纘充耳라 하여 주황색의 솜으로 둥그렇게 만들어 귀를 막는다는 의미의 상징물이었는데, 후에 옥전으로 대신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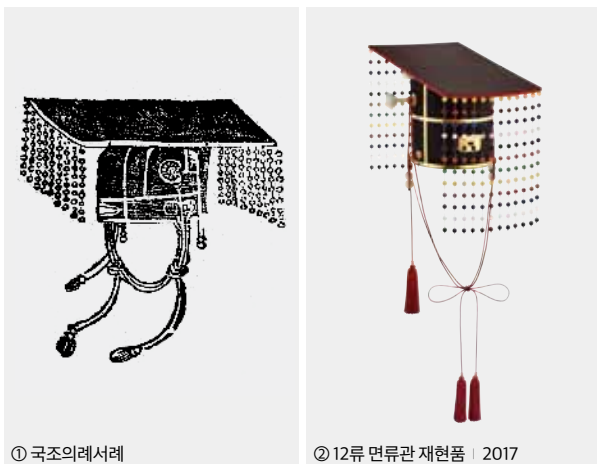
면관의 앞, 뒤로는 옥주를 펜 류旒를 드리우는데,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류의 수와 류에 펜 옥의 수 및 그 색에 차등을 두었다. 황제는 매 류마다 황黃·적赤·청靑·백白·흑黑·홍紅·녹綠 일곱 색의 열두 개 옥을 꿰어서 열두 가닥의 류를 드리웠고, 왕은 매 류마다 주朱·백·창蒼·황·흑 오색으로 아홉 개의 옥을 꿰어 9류를 드리웠다. 왕세자는 매 류마다 주·백·창의 3색으로 8옥을 꿰 8류를, 왕세손은 매 류마다 주·백·창의 3색으로 7옥을 꿰 7류를 드리웠다. 이 류는 평천판의 전방이 기울어져 있으므로 눈을 가리게 되는데, 『전한서前漢書』에 의하면 면 앞에 류를 늘이는 것은 눈 밝음을 가리기 위함이라 하였다.

금잠은 착용자의 우측에 잠두가 위치하고 좌측으로 그 끝이 나오는 방식이다. 면류관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자조紫組와 주조朱組를 사용한다. 조선시대 원전 기록에 의하면 면류관은 조組의 사용에 의해 한결 예의 형식을 따르는 것과 기능에 따르는 두 가지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로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와 『종묘의궤宗廟儀軌』, 『선조국장도감의궤宣祖國葬都監儀軌』,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춘관통고길례제복도설春官通考古禮祭服圖說』, 『예복禮服』,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의 기록과 같이 관冠에 엮어 턱 밑에서 묶어 술로 드리우는 자조와 금잠에 거는 주조, 두 종류의 조를 사용한 경우로 굉纒인 주조를 장식함으로써 더욱 고아古雅한 원래 관의 착용법을 표방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금잠이 장식화된 경우 조가 관을 고정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익종 어진에서와 같이 턱 밑에서 바짝 묶는 자조, 즉 영纒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되므로 금잠에 거는 주조는 생략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형식은 『세종실록오례世宗實錄五禮』, 『춘관통고春官通考』,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정조대왕국장도감의궤正祖大王國葬都監儀軌』 등의 기록과 익종 어진에서도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면류관을 쓰고 곤복袞服을 입으면 면복의 모습이 된다. 면복은 황제, 황태자, 왕세자, 왕세손이 용례에 따라 법복, 제복, 대례복으로 착용한다.



① 국조의례서례

② 12류 면류관 재현품 | 2017

면류관은 가례 때 육례六禮 중 납채納采, 고기告期, 친영親迎, 동뢰同牢에 법복法服의 관으로서 착용하였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지낼 때 제복의 관으로서 착용하였으며, 정조·동지·조희에 대례복의 관으로서 착용하였다.

참고문헌 景慕宮儀軌, 國朝五禮儀序例, 大韓禮典, 尙房定例, 世宗五禮儀, 禮服, 增補文獻備考, 왕의 면복 복원·복제 제작기술서1(국립고궁박물관, 2011), 조선왕조궁중의례복식(유송옥, 수학사, 1991),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학사, 1998).

필자 김정실(金京實)

면복

면복

면복 冕服

정의 면관을 쓸 때 착용하는 복식.

내용 한대漢代의 경학가 정현鄭玄(127~200)은 『주례周禮』 「대행인大行人」 경문經文의 주석에서 면복을 위와 같이 정의하였다. ‘면冕’은 면관冕冠을, ‘복服’은 거기에 딸리는 여러 부속품을 말한다.

면복은 중국에서 탄생해서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와 일본, 베트남에 전파되었다. 면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례』, 『의례儀禮』, 『예기禮記』, 『상서尙書』 등 고대의 유교 경서經書에서부터 보인다. 본래 대구면大裘冕·곤면衮冕·별면鷩冕·취면毳冕·치면希冕, 絺冕·현면玄冕 등 총 여섯 가지가 있어, 이를 합쳐서 ‘육면복六冕服’이라 불렀다. 육면복 제도는 주周나라에서 완성되고, 착용 신분은 천자天子·제후諸侯·경卿·대부大夫였다. 이후 면복은 중국 모든 왕조에서 끊이지 않고 착용되다가 만주족 정권인 청淸이 들어서면서 역사에서 사라지지만, 무늬는 다른 옷에 남아 청과 중화민국까지 이어진다. 착용 신분은 신하들까지 입는 것으로 내내 유지되다가 명대明代에 이르러 신하들의 착용을 금하고, 옷도 여러 종류의 면복 중 ‘곤면복’ 한 종류만 남긴다. 이 때문에 면복은 황제·황태자·친왕 등 황실의 구성원만 착용할 수 있게 되고, 본래 면복의 한 종류였던 ‘곤면복’이라는 명칭은 ‘면복’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면복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부터 확인되고, 상세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보인다. 착용 신분은 고려시대에는 왕이나 왕세자뿐만 아니라 신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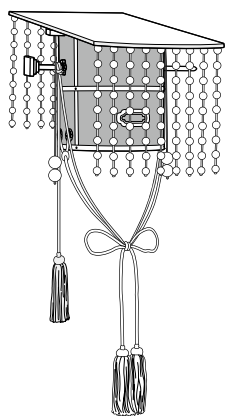
도 입다가, 조선시대에 명과 같이 왕·왕세자·왕세제·왕세손 등 군주 혹은 군주권 계승자만 입도록 범위를 축소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황제·황태자·친왕이 입었다. 제례祭禮·책례冊禮·등극의례登極儀禮·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 등에 사용되었다. 면복은 면관의 형태와 옷에 표현한 무늬, 그리고 다른 여러 요소들을 신분에 따라 차별화하였다.

면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관(면류관)이다. 면관의 앞뒤에는 끈에 펜 구슬을 드리우는데 이 끈과 구슬을 ‘류旒(‘옥조玉藻’라고도 함)’라고 한다. 대한제국 황제는 12류 면관을 쓰고, 황태자와 조선의 왕은 9류 면관, 왕세자는 8류 면관, 왕세손은 7류 면관을 썼다. 면관의 류 외에 신분을 구별하는 대표적인 것은 옷에 표현하는 무늬이다. 면복의 상의와 하상에는 총 12종류의 무늬, 즉 12장문章紋이 표현된다. 일日·월月·성신星辰·산山·용龍·화火·화충華蟲·종이宗彝·조藻·분미粉米·보黼·불黻이 그것이다. 황제는 12류 면관에 12장복, 황태자와 왕은 9류 면관에 9장복(일·월·성신 제외), 왕세자는 8류 면관에 7장복(일·월·성신·산·용 제외), 왕세손은 7류 면관에 5장복(종이·조·부미·보·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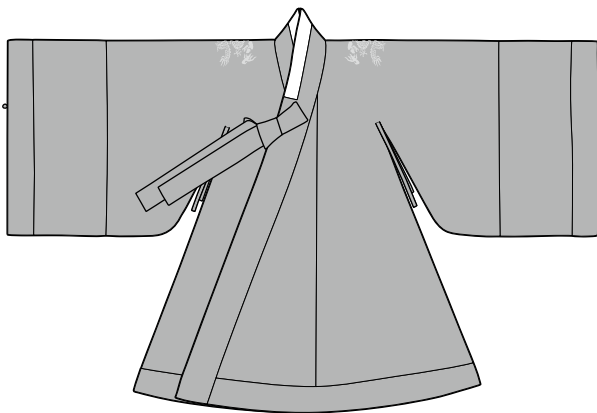
면복은 면관 외에 상의上衣·하상下裳·중단中單·혁대革帶·대대大帶·폐슬蔽膝·패옥佩玉·후수後綬·버선[襪]·석鳥·방심곡령方心曲領·규圭로 구성된다.

면관은 무武·면관[緹, 延]·양梁(‘형衡’이라고도 함)·비녀[簪, 笄]·뉴紐·류·충이充耳·관끈인 영纓과 굉紼 등으로 구성된다. 머리통을 감싸는 부분인 관의 몸체는 ‘무’, 그 위의 직사각형 판은 ‘연緹’이라 하고, 무와 면관은 양梁으로 결합시킨다. 무의 양 옆에는 구멍을 뚫어 비녀를 꿰는데, 구멍 주위는 미어지지 않도록 장식을 대고 이것을 ‘뉴’라 한다. 면관의 앞과 뒤에는 류를 늘어뜨리고, 양옆에는 충이充耳를 늘어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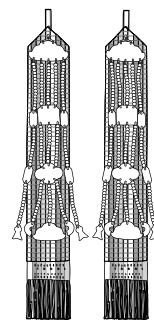
무는 앞을 낮고 뒤를 높게 하는데, 그 위에 면관을 얹으면 판이 앞으로 약간 기울어진 모양이 된다. 이 모양 때문에 관의 이름을 ‘면冕’이라고 했다. ‘면冕’이라는 글자에서 ‘모冑’는 ‘쓰개’의 뜻이고, ‘면冕’은 ‘기울어질 면冕’의 의미로 관의 전체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즉 ‘면冕’은 ‘기울어진 쓰개’라는 의미이고, 기울어진 모양은 무 때문에 나온 것이다. 면관의 앞쪽은 하늘[天]을 상징하도록 둥글게[圓] 하고 뒤쪽은 땅[地]을 상징하도록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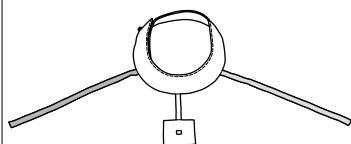
면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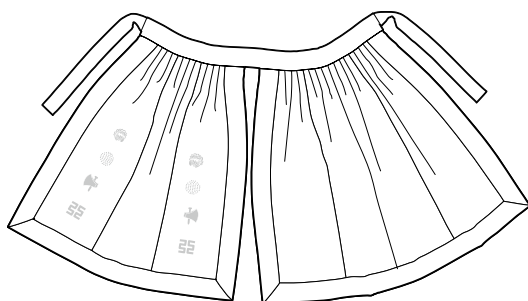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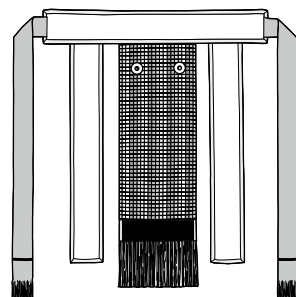
패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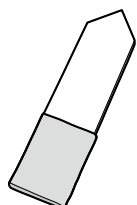
방심곡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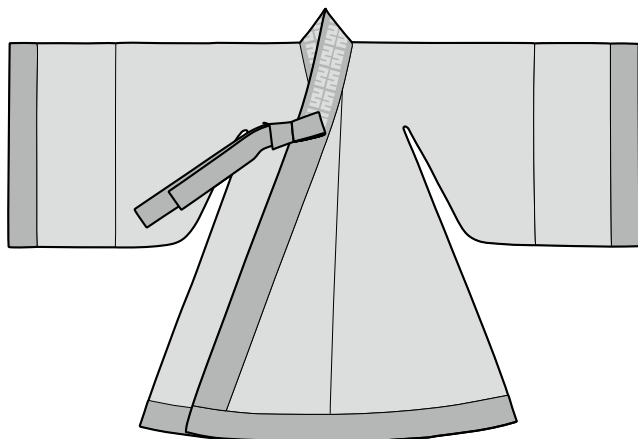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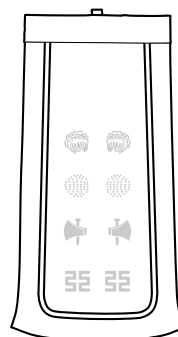
대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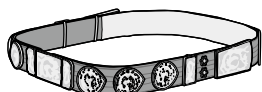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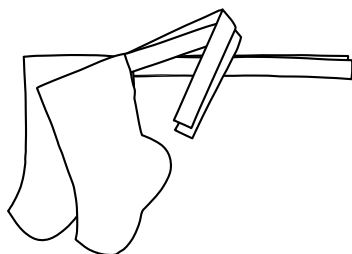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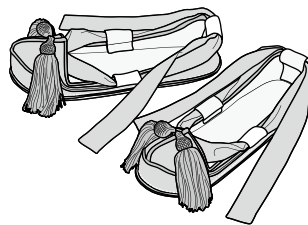
페슬



옥대



말



석

나계[方] 한다. 이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을 전원후방前圓後方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판의 겉은 직물로 감싸는데, 위쪽은 하늘을 상징하는 검은색[玄]으로 하고 아래쪽은 땅을 상징하는 붉은색[緋]으로 한다. 류는 끈에 옥을 꿰는 것인데, 앞뒤에 드리운 줄의 수와 옥의 수를 같게 한다. 즉 12류에는 12개의 옥을 꿰고, 9류에는 9개, 8류에는 8개, 7류에는 7개의 옥을 꿰는 것이다. 옥의 색은 대한제국 황제는 황색·적색·청색·백색·흑색·홍색·녹색의 7색을 썼고, 조선의 왕과 대한제국의 황태자는 적색·백색·청색·황색·흑색의 5색을 썼다. 왕세자와 왕세손은 모두 주색·백색·청색의 3색을 썼다. ‘충이’는 ‘귀를 막는다.’라는 의미이다. 원래 고대의 예서에서는 누런 솜을 둥글게 말아서 끝에 매단다고 했고, 누런 솜은 한자로 ‘주광黹纒’이라고 쓴다.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옥을 쓰는 것이 일반화되고, 명칭도 주광 이외에 ‘전纒’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또 옥은 원래 양쪽에 한 개씩만 꿰는 것이었는데, 명대에는 2개씩 꿰고 조선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2개씩 꿰었다. 관끈은 면복에서 본래 1가닥 끈인 꿩을 쓰는 것이 원칙인데, 후에 왕조에 따라 2가닥 끈인 영을 쓰기도 하고, 명대에는 꿩과 영을 동시에 쓴다. 조선 초기에 명에서 면복이 올 때는 꿩과 영이 모두 있었는데, 후기로 가면서 영만 사용한다.

상의는 윗도리이고 하상은 아랫도리이다. 상의는 하늘을 상징하는 검은색[玄]을 쓰고, 하상은 땅을 상징하는 붉은색[緋]을 쓴다. 하상은 앞에 두르는 전상前裳과 뒤에 두르는 후상後裳이 분리된 형태인데, 전상은 3폭으로 하고 후상은 4폭으로 해서 합계 7폭으로 만든다. 전상 3폭은 전前-천天-양陽-홀수[奇數]로 연계되는 우주의 이치를 반영하고, 후상 4폭은 후後-지地-음陰-짝수[偶數]로 연계되는 우주의 이치를 반영한다. 상의와 하상에는 신분에 따라 12장, 9장, 7장, 5장으로 수를 달리 해서 무늬를 표현한다. 12장복은 대한제국 황제가 입었고, 상의에 일·월·성신·용·산·화충의 6장을 표현하고, 하상에 화·종이·조·분미·보·불의 6장을 표현했다. 9장복은 조선의 왕과 대한제국 황태자가 입었고, 상의에 용·산·화·화충·종이의 5장을 표현하고, 하상에 조·분미·보·불의 4장을 표현했다. 7장복은 조선의 왕세자가 입었고, 상의에 화·화충·종이의 3장을 표현하고, 하상에 조·분미·보·불의 4장을 표현했다. 5장복은 조선

의 왕과 대한제국 황태자가 입었고, 상의에 종이·조·분미의 3장을 표현하고, 하상에 보·불의 2장을 표현했다. 상의에는 홀수, 하상에는 짝수로 무늬를 표현해서 홀수는 천天和 양陽, 짝수는 지地和 음陰을 형상화했다.

상의와 하상 안에는 중단을 입는다. 중단은 중의中衣라고도 한다. 제도상으로는 흰색이지만 국말의 유물은 청색으로 되어 있다. 깃과 가장자리에 흑청색 가선을 단다. 깃에는 불鬚무늬를 표현하는데, 황제는 13개, 황태자와 왕은 11개, 왕세자 9개, 왕세손 7개이다.

허리띠로는 혁대와 대대를 쓴다. 혁대는 가죽으로 만든 것이고, 대대는 직물로 만든 것이다. 혁대는 가죽의 겉을 직물로 싸고, 그 위에 띠돈[帶錢, 鈔板]을 붙여 장식한다. 면복을 입을 때 앞에 폐슬을 걸고, 양 옆에 패옥을 걸며, 뒤에 후수를 거는 용도로도 쓰인다. 대대는 겉을 흰색, 안을 붉은색으로 하고, 가장자리에 홍색과 녹색으로 가선을 두른다. 전체 형태는 허리에 두르는 부분인 ‘요纒’와 아래로 늘어뜨린 부분인 ‘신紳’으로 이루어진다. 또 대대의 앞부분 양쪽에 끈을 하나씩 늘어뜨렸는데, 이것은 고대의 뉴약을 본뜬 것이다. 뉴약은 남색 견사로 엮은 둥글고 가는 끈목인 동다회童多會를 쓰다가 1713년(숙종 39)부터 넓적한 끈목인 광다회廣多會로 바꾸었다. 동다회일 때는 장식용으로만 부착되었는데 광다회로 바뀌면서 허리에 묶는 실질적인 끈의 역할을 하게 된다.

폐슬은 고대 인류의 생식기 가리개에서 출발하여 예복의 장식물로 정착한 것이다. 하상의 색을 따라 붉은색이고 사다리꼴이다. 사방에 같은 색 가선을 대는데, 위쪽 가선은 영領, 아래쪽은 준純, 양쪽 옆은 비緋라 한다. 몸판과 가선을 붙인 바느질선 위에 오색다회를 올리는데, 이는 순綳이라 한다. 무늬는 조선의 왕, 왕세자, 대한제국의 황태자는 조·분미·보·불의 4장, 왕세손은 보·불의 2장, 대한제국 황제는 용과 화 2장을 표현했다.

후수는 한대漢代에 인장을 몸에 묶던 인끈인 수綴가 후대에 장식물로 정착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전기부터 후기까지 북경에서 금鋪직물을 무역해 구비했고, 1747년(영조 23) 영조가 상의원에서 직조하도록 명을 내리면서 세로줄 무늬 형태의 오색단五色緞을 국내 제작해 사용한다. 즉 적색·청색·검은색·옥색·녹색으로 몸



영친왕(9장 면복) | 근대 | 서울대학교박물관



① 익종 어진(7장 면복) | 19세기

② 순종(12장 면복) | 20세기

면복 | ① 국립고궁박물관, ② 순종실기 | 최연우

판을 짜고, 그 아래에 망수를 드리우도록 했다. 후수는 왕, 왕세자, 왕세손이 모두 같은 제도였고, 대한제국 황제는 훈색 바탕에 황색·백색·적색·현색·옥색·녹색의 6가지 색실을 섞어서 짜고, 황태자는 같은 훈색 바탕에 적색·백색·옥색·녹색의 4가지 색실을 섞어서 짜다.

패옥은 형衡·거珮·우珮·황璜·충아冲牙, [衡牙]로 구성되고, 형태가 각각 다르다. 서로 다른 형태의 여러 개의 옥을 꿰어서 허리 양 옆에 찬다.

버선과 석은 시대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적말赤襪과 적석赤舄을 쓴다.

규圭는 옥으로 만든 길쭉하게 생긴 물건이다. 면복을 입고 의례를 행할 때 손에 거머쥔다. 조선의 왕과 왕세자 등은 청옥에 무늬가 없는 것을 쓰고, 대한제국 황제는 백옥에 산山 무늬 4개를 표현했다.

방심곡령方心曲領은 목에 거는 장식이다. 둥글게 굽은[曲] 모양으로 생겨서 목[領]에 걸 수 있는 윗부분과, 모나게[方] 생겨서 가슴[心] 부분에 닿게 하는 아랫부분으로 된 이중 구조를 갖는다. 색은 흰색이고, 양 옆에 끈[纆]이 하나씩 달리는데 왼쪽은 녹색이고 오른쪽은 홍색이다. 곡령의 뒷부분이나 옆의 어깨에 닿는 부분에는 연봉매듭 모양의 단추를 달아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게 한다.

면복의 무늬는 각각 고유의 상징성을 갖는다. 일日(해)·월月(달)·성신星(별)은 합해서 삼신三辰이라 하고, 하늘의 밝음[明]을 취하기 위함이다. 용은 상황에 따라 몸을 변화시키는 ‘신묘한 변화[神化]’ 능력, 산은 백성이 우러러볼 수 있는 어둠[闇]과 만물을 생장시키는 능력을 상징한다. 화충은 오채색이 화려하게 들어간 산뿔[山雉]을 표현해서 문식文飾을 통해 군주의 인덕을 상징한다고 여겼다. 화는 화염으로, 밝음[明亮]과 상상의 기운을 상징한다. 종이는 표면에 호랑이와 원숭이를 표현한 제기祭器이다. 호랑이는 용맹함, 원숭이는 지혜로움을 상징한다. 조는 색상이 화려한 물풀[水草]로, 착용자의 인덕과 깨끗함을 상징한다. 분미는 쌀알[白米]이고,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을 상징한다. 보는 도끼[斧]로, 결단력을 상징한다. 불은 ‘아焔’자 꼴의 무늬이다. 같은 글자가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형상을 통해 군주와 신하가 때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고 때로는 뜻을 합쳐야 함과, 신하와 백성이 악에 등을 돌리고 선으로 나아가야 함을 상징한다.

상와 하상에 12장문을 표현할 때는 정해진 방식과 상징성이 있다. 상의의 무늬는 그림으로 그리고, 하상의 무늬는 자수를 놓는다. 그림은 양陽의 방식이므로 위를 표현할 때 쓰고, 자수는 음陰의 방식이므로 아래를 표현할 때 쓰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면복의 제도적 완성과 착용은 곧 면복을 착용하는 동아시아 유교식 국가의례의 완성과 신분제도의 엄격성을 의미한다. 국가의 크고 작은 의례에 천자 이하 여러 신하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각자의 신분에 맞게 차별화된 면복을 착용했기 때문이다. 면복은 대부 이상의 통치자 반열에 드는 신분의 예복으로 착용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중앙집권의 강화와 함

께 군주와 그 계승권자에게만 착용이 허락되었다. 이로써 면복은 점차 절대적 군주권을 상징하는 옷이 되었다.

면복은 전체 구성품의 형태, 색, 무늬를 통해 천지, 우주,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여, 이를 착장하는 군주가 지녀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함축시켰다. 면복은 고대 제정일치 사회에서 제복祭服으로 출발할 때부터 군주의 권위를 드러내는 옷임과 동시에, 군주가 백성을 이끌어 갈 때 취해야 하는 균형 잡힌 마음가짐과 태도를 설정한 복식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國朝喪禮補編, 尙方定例, 禮記, 儀禮, 周禮, 대한제국-잊혀진 100년 전의 황제국(최연우, 국립고궁박물관, 2010), 면복(최연우, 문학동네, 2015), 석에 적용된 회차와 수차의 배색 원칙(최연우, 복식64-6, 한국복식학회, 2014), 中國歷代帝王冕服研究(崔圭順, 東華大學校出版社, 2007).

필자 최연우(崔然宇)

면사 面紗

정의 예장禮裝을 위해 여성의 머리부터 온몸을 덮는 짙은 색의 보자기.

역사 면사面紗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얼굴을 가리는 쓰개를 착용한 사실을 알려주는 최초의 문헌은 『고려도경高麗圖經』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려 여인들이 귀천을 막론하고 몽수蒙首 쓰기를 즐겼다고 한다. 몽수는 검은색이며 온몸을 덮을 정도로 길이가 길었는데, 얼굴은 드러내고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에는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었으며 유행과 멋을 위해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조선시대에서는 유교사상으로 인해 내외법이 강조되었다. 양반 여성들의 외출에 면사를 착용하도록 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다. 1421년(세종 3) 6월 기록에는 면사와 말근襪裙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기녀로 오인되어 욕을 당한 부인에 대한 일화가 등장한다. 양반 부인은 외출할 때 면사를 착용해야 하지만, 사실상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는 일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471년(성종 2) 5

월 기록을 보면, 양반 부녀자가 길거리에서 면사 걷는 것을 금하자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 면사로 지칭된 쓰개가 보자기 형태의 면사였을지 챙이 넓은 모자 위에 천을 드리운 너울의 형태였을지는 불분명하다.

내용 면사는 넓게는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쓰개’를 통칭하는 말이다. 좁은 의미로는 왕실 여성 혹은 신부가 머리에 쓰는 예장용 보자기를 말한다. 서구식 혼례에서는 신부가 머리에 쓰는 흰색 베일veil을 ‘면사포面紗布’ 혹은 ‘면사보面紗襖’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보자기형 면사에 대한 기록은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나 『국혼정례國婚定例』, 『상방정례尙方定例』 등의 조선시대 후기 문헌에 나타난다. 이들 문헌에 따르면 면사는 비빈妃嬪과 숙의淑儀에게만 사용되고 신분에 따라 색상이 달랐다. 또한 상궁이나 내인에게는 너울만 있을 뿐 면사에 대한 기록은 없어 이들은 면사를 사용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왕비와 왕세자빈의 면사에는 의대衣襪에 기록된 겹면사와 법복法服에 속한 홀으로 된 면사의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법복에 포함된 면사는 적의翟衣와 함께 착용한 것이다. 『상방정례』에는 제작에 필요한 재료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법복용이건 평상시 의대용이건 모



면사 쓴 신부 | 1999 | 이길표

두 자적라紫의羅로 만들고 첩금貼金과 니금泥金이 재료로 들어가 있다. 즉 비빈의 신분에게 맞게 화려하게 꾸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의대용 겹면사에는 법복용 면사에서는 볼 수 없는 자적라 마리사기[首紗只]가 포함되어 있다. 속의는 가례嘉禮에 남색광사藍色廣紗로 만든 전면사前面紗를 착용했다. 전면사에는 색도 다르지만 첩금은 없이 니금만 사용된 것으로 보아 왕비나 세자빈의 면사에 비해 화려함도 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면사가 공주, 옹주의 혼례는 물론 민간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서울 지역의 혼례에서 면사를 착용한 사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구한말 궁중 풍속이 민간에까지 퍼진 것으로 추측된다.

특징 및 의의 조선 초기에는 ‘면사’라는 용어가 ‘너울’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후기로 들어 모자를 위에 천을 두른 자루형 쓰개는 너울, 보자기형 예장용 쓰개는 면사로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예장용으로 보이는 면사의 유물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한 점, 고려대학교박물관에 두 점 소장되어 있다. 이 유물은 직사각형의 자색 갑사에 동자童子, 박쥐, 학, 나비, 석류, 국화 그리고 각종 길상어문이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다. 또한 장서각에는 1837년 덕온공주德溫公主(1822~1844)의 가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한지로 만든 정사각형의 면사본이 남아 있다. 이 면사본에는 봉황무늬를 비롯해 목숨 ‘수壽’ 자무늬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참고문헌 尙方定例, 朝鮮王朝實錄, 여성 쓰개의 역사(홍나영, 학연문화사, 1995).

필자 홍나영(洪那英)

면주 綿紬

정의 방적사紡績絲로 직조한 평직의 견직물.

내용 『중국복식의관대사전中國服飾衣冠大辭典』의 기록에 따르면 면주綿紬는 중국 한대漢代에 이미 존재하였는데,

중국의 경우 시대에 따라 락絡, 시緇, 생시生纒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실린 흥덕왕(재위 826~836)의 복식령服飾令에 의복 재료로 기록되면서 통일신라시대부터 면주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신라에서 면주는 육두품의 겹옷과 버선, 오두품의 바지와 버선, 사두품의 속옷과 반비, 겹옷, 버선, 일반 평민의 겹옷, 속옷, 버선 등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1114년(예종 9)에 몽골 사신들이 면주를 공납품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으로 중국이 조선의 면주를 공적 혹은 사적으로 무역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명나라의 사신들은 자紫, 홍紅, 다갈茶褐, 유청柳靑, 초록草綠 등 다양한 색상의 면주를 종종 공납품으로 요구하였다.

조선은 공납품으로 면주를 진헌하기 위해 1423년(세종 5)과 1451년(문종 1)에 내섬시內贍寺, 내자시內資寺, 인순부仁順府, 인수부仁壽府 등에서 면주를 제직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시대 육조 중 하나인 예조에 면주를 하사해 주기를 청하자 가져온 토산물에 대한 답례로 하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본 국왕은 조선과 일본 상인과의 거래에 있어 시정과 감독을 청하였다. 이에 예조가 답하길 당시 일본인들이 서울에 와서 무역할 때 면주 1필匹의 값을 납철鐵인 경우에는 4근斤을 기준으로 하고, 동철銅鐵·소목蘇木인 경우에는 11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당시 면주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면주의 가치는 『탁지준절度支準折』의 기록에 의하면 색상별 면주 1척尺당 약 전錢 2냥兩 5전錢 8분分 6리里에서 전 2냥 8전 7분 1리로, 면주의 가치가 일반 주紬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면주는 『국혼정례國婚定例』,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등과 같은 문헌기록에 빈번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1900년대 초반 이후 문헌인 「별귀」에는 그 기록 빈도가 매우 낮다. 이 「별귀」에 의하면 면주가 왕비의 속치마인 단니의單裡衣, 단속곳, 치마, 바지 등에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 출토유물의 사례들을 볼 때 사대부와 서민 남녀의 평상복에도 많이 쓰였다. 또한 1915년의 『조선회보朝鮮彙報』에서는 면주가 ‘주를 정련한 것’으로 명주明紬, 백명주白明紬와 같다고 하였으며, 1920년의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에도 면주와 명주明紬가 동일하다

고 하여 근대에 이르러서 면주는 오늘날의 가장 기본적인 전통 직물인 명주와 동일한 직물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징 및 의의 꼬임이 있는 견방사를 경위사로 하여 평직으로 짜 광택이 적고 표면이 거칠며 비교적 두꺼운 물성을 나타내는 직물이다.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자충(疵蟲)과 폐사(廢絲)를 사용하여 실을 뽑아 직조한 탓에 실의 굵기가 일정하지 못하다. 이로 인해 직물의 표면이 거칠지만 견고하고 마모에 강한 특성을 지닌다.



명반

참고문헌 高麗史, 불기,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度支準折,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中國服飾衣冠大辭典(高春明·周汎, 辭書出版社, 1996).

필자 이은진(李銀眞)

명반 明礬

정의 응고제나 가죽의 무두질·지혈제·방취제·매염제로 쓰이는 황산알루미늄칼륨의 결정물.

내용 황산알루미늄칼륨의 결정물을 명반이라 하며 황산·칼륨·알루미늄(칼륨 명반, $KAl(SO_4)_2 \cdot 12 H_2O$)을 가리킨다. 물에 잘 녹고, 약산성이며 수렴성收斂性이 있다. 응고제나 가죽의 무두질·지혈제·방취제·염색할 때 매염제 등에 쓰인다.

특징 및 의의 무색과 백색의 결정으로 냄새가 없고 맛은 약간 떫다. 공기 속에서 표면이 풍화하여 불투명하게 된다. 명반의 결정은 물에 녹거나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높아진다. 염색할 때 매염제로 사용하는데, 색이 탁하지 않고 선명하게 잘 착색되어 더 곱게 발색하게 해준다.

참고문헌 한약재감별도감(김창민, 아카데미서적, 2014), 환경공학용어사전(화학용어연구회, 성안당, 1996).

필자 소황옥(蘇晃玉)

명주 明紬

정의 누에고치에서 풀어낸 견사(絹紗)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직조한 무늬가 없는 견직물.

내용 명주(明紬)는 현재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 전통직물 중의 하나이다. 이 명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문헌은 조선 후기 학자 이만영이 편찬한 『재물보(才物譜)』로 알려져 있다. 『재물보』에는 명주가 곧 ‘명주’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재물보』의 간행 연대를 1798년(정조 22)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본문 중에 나와 있는 관직명 등을 근거로 미루어 짐작한 것이고, 본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명주라는 명칭이 생겨난 연도를 정확하게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재물보』보다 앞선 1527년(중종 22)에 최세진이 간행한 한자학습서 『훈몽자회(訓蒙字會)』에 ‘주’는 곧 ‘명디류’라는 기록이 있지만, 현재 연구된 바로는 『훈몽자회』와 『재물보』 사이의 다른 문헌에서 ‘明紬’ 또는 ‘명주’라는 명칭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훈몽자회』의 ‘명디’라는 단어가 명주를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선 말기 궁중의 『불기』에도 명주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明紬’가 두 건, ‘명류’가 한 건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 명주가 기록되어 있는 1893년 『홍우순가계사의친왕길례시망처자삼간택영사건기(洪祐純家癸巳義親王吉禮時望處子三揀擇時領賜件記)』는 관련 인물과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으로 신뢰성이 높다. 또 조선 후기에 출간된 일본인들의 한국어 학술서인 『교린수지(交隣須知)』의 1881년(고종 18) 본에도 ‘明紬(명주)’가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직전의 기록인 충문공(忠文公) 김병국(1825~1904)의 상례 절차를 기록한 『충문공신종록(忠文公愼終錄)』에는 ‘명주’와 ‘면주’ 두 명칭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용도 면에서도 명주는 두루마기, 저고리, 바지 등 주요 의복의 소재였던 것에 반해, 면주는 의복이 아닌 건, 말, 욕건, 목건 등 부속품의 소재였다. 반면 1915년에 발행된 『조선회보(朝鮮彙報)』에는 요시나가(吉永彦太郎)가 8년 동안 수집한 직물의 명칭과 특징을 정리하여 기록한 <조선향염직물명칭류회(朝鮮向染織物名稱



명주 | 국립민속박물관

類>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는 면주가 ‘주를 련練한 것’으로 ‘명주’, ‘백명주’, ‘숙주熟紬’와 같다고 하였다. 또, 1920년에 간행된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에서도 면주가 ‘명주’와 같다고 하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문헌들은 명주를 면주와 동일한 것으로 기록하였고, 이를 통하여 볼 때 명주와 면주는 원래 서로 다른 직물이었으나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의미가 변화되어 두 명칭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일반적인 명주는 세리신sericin을 제거해 정련함으로써 유연성과 광택이 좋은 견직물을 말한다. 견직물은 이렇게 불순물이 제거된 후에야 우아한 광택과 풍부한 촉감을 갖는 성질을 가지게 되고, ‘scrooping’이라고 하는 은은한 비단 소리를 낸다. 이렇게 정련을 거친 명주는 부드럽고 따뜻하여 겨울과 봄, 가을 한복 감에 적당하다. 반면에 경사, 위사에 생사를 사용한 생견 직물인 생명주도 있는데, 생명주는 촉감이 까칠까칠하고 시원하여 여름철 한복감으로 적당하다.

전통적인 명주는 가내수공업으로 직접 실을 뽑고 베틀에 걸어 직조한다. 그러나 의생활 문화가 서구화됨에 따라 한복을 일상에서 입지 않게 되고, 합성섬유가 나타나는 등 시대의 변화 속에 전통의 수직手織 작업은 쇠퇴하였다. 특히 모시나 삼베처럼 실을 만들거나 직물을 짜는 공정이 까다로워서 수작업이 아니면 제작이 어려운 옷감과 달리, 명주는 개량식 직기로 대량 제작이 가능하여 전통적인 명주짜기가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이후 기계로 대량 생산된 것과 구별해서

수공手工으로 직조한 명주는 ‘손명주’라고 구분하였다. 손명주는 기계로 제작한 것에 비하여 자연스러운 물성을 지닌다. 1988년 국가 주도로 전통의 명주짜기를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경상북도 성주 두리실의 ‘명주짜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87호로 지정하였으며, 14대째 명주와 베를 짜은 두리실마을의 조옥이曹玉伊를 명주짜기 기능보유자로 지정하였다. 조옥이가 별세(2007)한 후에 전승자가 없어 명맥을 잇기 어려워지자, 문화재청은 2017년 4월 ‘두산손명주연구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하고 명주짜기 전통의 명맥을 잇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명주를 전통에 가까운 방식으로 제작하는 곳으로는 경주 두산마을과 성주 두리실마을이 있다.

명주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에가 지어 놓은 고치를 끓는 물에 넣어 여러 겹으로 끌어내면서 실을 얻는다.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풀어 타래실을 만드는 것을 ‘실써기’라고 하는데, 고치 열 개에서 실을 뽑으면 섬유 울이 열 울이 되며, 보통 품질의 명주를 짤 수 있다. 고치가 스무 개면 울이 가는 명주가 되고 서른 개면 울이 거미줄 같이 매우 가늘게 된다. 실써기로 만들어진 실을 풀을 먹여 말리고 틀에 감는다. 그다음 실을 걸고 베틀 아래를 발로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면서 명주를 짜기 시작한다. 명주의 한 새끼는 20울이다. 열다섯(보름) 새는 300울로 굵은 편이고 400울로 짜는 스무 새는 가장 고운 상등품이다. 열다섯 새와 스무 새 사이이면 보통으로 친다. 명주에 먹이는 풀은 해조류를 끓여서 사용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녹말가루를 풀어서 쓰어 사용한다. 예전에는 손바닥 형태의 넓적한 선인장을 가시와 껍질을 벗기고 갈아 찼어서 끈끈한 즙을 낸 후 잣을 함께 갈아 넣어 풀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아주 귀하게 여겨 집안의 큰 어른의 옷에만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忠文公愼終錄,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명주, 모시, 촌포의 제작 재현 연구(김보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전통옷감(민길자, 대원사, 1997),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직물오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출판부, 2002), 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吉永彦太郎, 朝鮮總督府, 1915).

필자 이은진(李銀眞)

정의 조선 후기에 사용된 단의 일종.

내용 조선 후기 중국에서 유입된 단직물 중 하나이다. 문헌에는 ‘冒緞’ 또는 ‘帽段’으로 나타난다.

1700년대 이후 의궤 기록에 따르면, 모단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에는 가례 시 납징納徵에 현색모단玄色冒緞 여섯 필, 혼색모단 네 필이 배정되며, 중궁전 법복 하피 한 갑으로 모단 여섯 자가 들어간다. 습례 시에는 조모早帽·익선관翼善冠·화靴 등을 흑모단黑冒緞으로 쓴 것으로 미루어 모단은 비교적 상등품의 단직물이었으리라 추정된다. 이외에 모단은 내의녀들의 머리 위에 얹는 가리마를 덮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갑주甲冑와 전건戰巾에 모단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

1617년 정사正使 오윤겸吳允謙·부사副使 박재朴梓·종사관從事官 이경직李景稷으로 구성된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국왕에게 보낸 선물 목록에 모단 100필이 포함되었다. 1698년 숙종의 명으로 편찬한 『수교집록受教輯錄』에서 서인庶人에게 모단으로 된 옷을 금하였으며, 『일성록日省錄』(1794)에는 안장 장식에 모단冒緞 대신 아청색鴉青色 목木으로 대신 쓰면 견실하여 다시 장만하는 일이 없다고 했다. 1750년에 집필된 『상방정례尙方定例』에 모단은 매년 연경에서 무역하는 품목에 들어 있으며, 『탁지준절度支準折』에 모단은 연경에서 무역하며 가격은 1냥 1전으로 공단과 같다.

특징 및 의의 모단은 조선 말기 일정 기간에 사용된 단의 종류이다. 단이라는 명칭을 통해 수자조직으로 제직된 견직물임을 알 수 있다. 모단은 주로 검은색을 사용하였으며, 문양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단의 일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식 전체에 사용하기보다는 일부 장식에 쓰였다.

참고문헌 萬機要覽, 尙方定例, 受教輯錄,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日省錄, 度支準折.

필자 심연옥(沈蓮玉)

정의 1920~1930년대 경성의 소비문화를 주도하고, 서구적 외양·취미·언어·의식 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여성들.

역사 ‘신여성’과 혼용되어 사용된 모던걸이라는 용어는 1924년 일본 기타자와北澤秀一の <모던걸의 출현モダンガールの青春>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일본과 거의 동시에 조선에 소개되어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신여성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new woman’으로, 일본은 이를 ‘新女子’로 번역하였고, 한자어 ‘新女性(신여성)’은 1910년대 말 중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번역어이다. 조선에서 ‘모던걸’이라는 말은 『신여성』 1925년 6월호에 실린 김기진의 기사에서 ‘신여성’을 ‘모던걸’과 번갈아 쓰면서 처음 등장하였고, 1927년부터는 신문과 잡지에 모던걸이라는 용어가 오르내리기 시작하였다.

모던걸은 사치스러운 의복을 입고 세상을 휩쓸고 다니는 여성을 칭하였고, 이는 신여성보다 훨씬 근대화된 여성들을 가리킨다. 조선 전체가 향학열이 만발하였던 1919년 무렵 모던걸, 즉 신여성이란 진보적인 시대의 선각자를 말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에 와서 신여성은 짧은 치마에 뽀족구두를 신은 허영심 외에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다. 모던걸이라는 용어는 신여성을 향한 동경의 시선 뒤에 자리한 경멸과 조소를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출구가 되었고, 신여성과 전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쁜 신여성’의 이름이 되었다.

내용 1920년 이후 활발한 민족운동과 함께 전개된 여성의 근대교육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신여성을 등장시켰다. 신여성은 주로 외국 유학생으로, 패션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1907년 동경에서 귀국한 김활란은 팜프도어(pompadour, 뺨머리) 헤어스타일에 발목 위까지 올라간 짧은 통치마를 입고 귀국하여 화제가 되었다. 신여성들은 한복에도 서양 장신구를 착용하는 등 전통과 새로운 양식을 자연스럽게 혼용하면

서 근대 패션에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1920년대에 이르면 단발머리에 흰 저고리와 짧은 치마, 양산과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은 신여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 조선의 모던걸은 양장의 소품과 개량한복을 혼용한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이는 사실상 1920년대 초에 정착한 전형적인 신여성의 복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완전히 양장으로 변신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갖는 여성 집단을 1920년대 후반 경성에서 찾기는 쉽지 않았기에, 조선 지식층은 트레머리, 송곳구두, 비단양산을 가지고 큰길에 나오는 모든 여자는 다 모던걸이라고 규정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던걸이 다의적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로 쓰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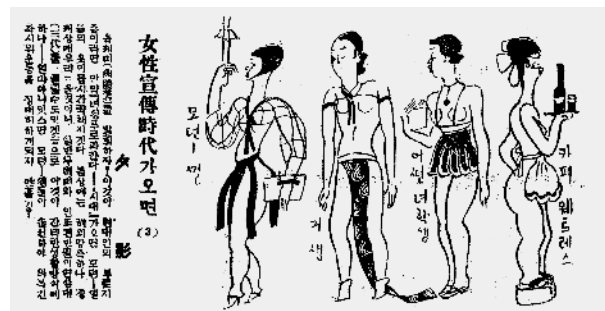
모던걸이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직업에 어울리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까이드걸’, ‘빠스걸’ 혹은 ‘틱켓걸’ 등이 그것이다. 진고개 찻집, 빙수집, 우동집, 카페를 전전하는 모던걸, 모던보이들은 흔히 ‘혼부라당’이나 ‘차당’ 등으로 불렸다. 실업의 시대에 직장을 구하지 못했던 모던보이와 모던걸이 주로 찾았던 장소인 카페에서 이들은 주로 맥주나 위스키,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기록된다.

또한 부정적인 의미의 ‘에뷰걸’, ‘마네깁걸’, ‘애활愛活소녀’, ‘스포츠걸’, ‘불량소녀’라는 용어는 1920년대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메이지 시대 신식 헤어스타일과 양장을 한 소녀들을 일컫는 표현이었다. 1925년 5월 10일자 『동아일보』 만평을 보면 소위 신여성은 드러누워 담배를 피우며 “피아노·연애·돈·자동차·미남자·미국 유학생·사치·음란이나 떠돌이는 불량소녀”로 그려졌다. 단발과 양장으로 상징되는 모던걸은 양복에 백구두를 신은 모던 보이와 함께 현대적 인간형으로 자리 잡았다. 신여성을 ‘모단毛短걸’이라 부를 정도로 단발머리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근대적 자아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1920년대에 쌀 두 가마 가격에 해당하는 구두를 산다는 것은 분명 사치였지만, 패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신여성들의 욕망은 강렬했다.

한국 모던걸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무용가 최승희崔承喜, 성악가 윤심덕尹心惠, 화가 나혜석羅惠錫, 교육자 김활란金活蘭, 비행사 박경원朴敬元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당시 의식표현으로서 패션을 활용하였고, 예술적 성향과



모리피는공작 | 1928. 2. 9 | 조선일보



여성선전시대가 오면 | 1928. 2. 7 | 조선일보

직업의식이 패션으로 표출되었다. 도회적인 양장과 롱 앤 슬림 룩의 영향으로 모던 이미지와 우아한 차림새, 통치마에 의한 클래식한 분위기와 서구 남성의 매니시한 패션, 레이스·꽃무늬 가르손느 룩의 로맨틱 이미지를 표방하였다.

모던걸의 상징은 파마나 단발·붉은 립스틱·짧은 원피스·실크스타킹·뽕족구두·커다란 핸드백이었고, 이들은 식민지 조선의 소비 보급과 유행을 선도하였다. 머리 모양은 뽕머리·트레머리·여학생 땀머리·단발머리·파마머리가 있다. 서양의 펌프도어가 일본을 거쳐 들어온 ‘히사시가미’ 스타일의 뽕머리는 머리에 쇠뿔을 얹어 놓은 듯하다 해서 ‘쇠뿔머리’라고도 불렸다. 이후에 머리를 틀어 뒤에 붙이는 ‘트레머리’가 크게 유행하였다. 최승희의 룩 보브 스타일 머리는 한때 조선 여성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여 모던을 빗대어 모단毛斷이라 할 만큼 짧게 자른 머리는 모던걸의 상징이기도 했다.



기생 임춘홍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한편 1920년대 여성 단발은 사회주의 유행으로 여성 해방과 반봉건 운동 차원에서 단발을 하였다. 한편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앞가르마를 3cm 정도로 짧게 타고 양옆머리는 귀 뒤로 바짝 넘겨 붙인 뒤 정수리는 부풀리고 목덜미쯤에 쪽을 틀어 붙이는 땡기머리가 다시 유행하기도 하였는데, 여염집 규수의 땡기머리와는 달리 느슨하게 머리로 귀를 덮어서 땡았다.

여성 미용사에 일대 혁명을 가져다준 파마는 1906년 런던에서 개업한 독일인 미용사 네슬러K. Nessler가 발명한 이래 전 세계에 보급되었다. 1933년 종로 사거리 화신상회에 자리 잡았던 오염주의 화신미용부에서는 파마·세팅·매니큐어·신부 화장 등을 다루었는데, 처음에는 배우·무용가·기자·작가들이 주 고객이었다가 1937년 무렵부터 도시 여성들에게 파마와 여성 모자가 유행하게 되었다. 영화의 영향으로 서양 머리를 본뜨거나, 파마머리에 전기 아이롱으로 웨이브 자국을 내는 머리 모양새를 따랐다.

모던걸의 패션 중에서도 특히 짧은 치마와 작은 양산의 유행은 결국 사치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손가방과 ‘빠니트케-스’는 엄청나게 큰 반면 머리와 양산 그리고 스커트의 길이는 무척이나 짧고 또한 작았다. 햇빛을 가리거나 비를 피하려면 큼직해야 할 양산은 작아지고, 손에 들고 다니기 위해선 작아져야 할 손가방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다. 모던걸의 겨울 패션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여우목도리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물론 곱지 않았으며, 특히 솜옷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고 떨며 걷는 빈민층과 비교되면서 증폭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여우목도리만을 고집하는 허영심, 즉 헛된 첨단 여성의 의식에 대한 비판의 측면이 더 컸다. 한편 고운 색상으로 염색된 영국제 털실이 수입되고, 1923~1924년 겨울 털실로 짠 목도리는 너무 크다는 이유와 색이 야하다는 이유로 시뵈릿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신여성들은 양장에 걸맞은 구두를 신었고, 당시에는 구두가 필수적이었지만 신분 과시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당시 구두 한 켤레 값은 8~9원으로 거의 한 달 봉급이었기 때문에 구두는 사치품이었다. 황금 손목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양산과 함께 신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은 대표적인 장신구로 ‘오페라뺨’이 있다. 악어가죽으로 만든 오페라뺨은 박래품舶來品으로, 신여성들이 화장품 등을 넣어 다니던 자그마한 손가방이다. 이 가방도 7~8원이나 하는 고가의 일본 제품이었기 때문에 사치품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특징 및 의의 포괄적으로 ‘모던걸’로 명명되었던 이들은 한편으로는 ‘못된 걸’, 즉 도덕적으로 ‘나쁜 여자’로 재현되었다. 외형적으로 서구적 외양과 취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섹슈얼리티와 젠더 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대 언론에서 비판받기도 했다. 이들은 패션과 스타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타인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대담한 언행을 보였다. 1920년대에는 신여성과 여학생의 소비가 허영과 사치로 비판을 받았고, 1930년대에 들어서는 신여성, 모던걸을 낭비적 소비의 주체로 인식하고 비난하였다.

시대의 첨단인 모던걸은 특히 이상, 박태원, 김기림 등 모더니스트들의 문학, 유진오의 『나비』, 이효석의

『장미 병들다』 등의 소설에 영향을 미치면서 1930년대 한국 문학사에도 흔적을 남겼다.

참고문헌 1920~1930년대 모던 세대의 형성과정(주창윤, 한국언론학보52-5, 한국언론학회, 2008), 근대를 보는 창 20(최규진, 서해문집, 2007), 불량소녀들(한민주, 휴머니스트, 2017), 식민지 조선의 모던걸(서지영, 한국여성학22-3, 한국여성학회, 2006), 조선의 '이트'가 된 모던 걸(류수연, 민족문화사연구52,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3), 한국 모던 걸 패션의 미적 특성과 스타일링 연구(양정희·박혜원, 패션비즈니스19,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20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최은수(崔銀水)

모던보이

정의 1920~1930년대 경성의 소비문화를 주도하고, 서구적 외양·취미·언어·의식 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남성들.

내용 ‘모던걸’이라는 말은 『신여성新女性』 1925년 6월 호에 처음 등장하였고, 1927년부터는 신문과 잡지에 모던걸과 모던보이라는 용어가 오르내리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사전을 보면 ‘모던modern’이라는 단어를 ‘새로운’ 혹은 ‘근대적’이라고 표현하였다. ‘모던걸’이라면 ‘새로운 여자’ 혹은 ‘근대 여자’를 의미하였고, ‘모던보이’라면 같은 의미의 남자를 말한다.



모던보이의산보 | 1928. 2. 7 | 조선일보

이런 의미는 당시 시대 배경과 관련하여 형성되었다.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중반 사이 식민지 경성의 대중문화와 소비문화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식민지 조선의 인구학적 변화 및 생산성의 증대, 도시의 특정 장소를 매개로 한 소비문화의 확산, 서구적 스타일의 유행과 함께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다. 일본의 식민지배하에서 계획적으로 근대화된 진고개 중심의 남촌南村은 근대 상품과 화려한 건물, 네온사인 등으로 뒤덮인 근대 도시가 되었다. 1921년 조지아丁字屋백화점을 시작으로, 1922년 미나카이三井백화점, 1926년 히라다平田백화점 등이 세워졌고, 이와 더불어 카페와 잡화점들이 남촌에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영락정(수표교 남쪽)·명치정·본정동·룡산·남대문동·신정(장충단 아래쪽) 사동은 근대적 유흥공간으로 변모하였다.

개화기 서양 문물의 교육을 받은 신여성과 모던보이들은 이런 근대 도시의 소비적인 삶과 유행에 민감한 존재였으며, 이른바 ‘모던 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하였다. 그중에서도 모던걸과 모던보이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일차적 특성이 바로 패션이었다. 짧은 치마와 작은 양산, 대모테 안경과 쥘병 모자가 그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그러나 실용적이지도 않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보석반지, 금시계나 작은 양산으로 치장한 패션은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양복과 어울리지 않는 넥타이를 매거나 남자도 화장을 하고, 가슴팍을 열어젖히는 등의 노출은 모던보이를 비판적이고 퇴폐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였다.

더불어 미국 영화의 소개와 유행도 근대적 소비문화의 부흥에 한몫을 하였다. 영화 <로이드의 야구(1917)>가 상영되면서 안경과 맥고모자의 로이드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영화배우 ‘빠렌티노의 구레나룻’이 유행하면서 염소털을 붙이는 것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영화배우 ‘빠스터 키-톤의 쥘병 모자’, 서부활극에 나오는 ‘카-보이의 가죽바지’는 남자들의 나팔바지를 유행시켰다. 이러한 유행의 확산은 경성과 뉴욕이나 파리가 거의 동시대적이었다. 1931년 뉴욕의 ‘파자마’가 서울과 일본에서 유행하기도 했다. 미디어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패션은 단기간에 조선 사람들을 ‘속성 세계인’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했다.

모던걸과 모던보이는 서구 영화에 등장하는 서양 배우들의 몸짓과 옷차림 하나하나를 흉내 내서 서구 문화로 자신을 치장할 때 비로소 자신이 가장 근대적일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듯 활동사진과 춤을 통해 서양 영화와 음악이 당대 모든 패션과 생각의 원천이 되었다. 또한 서구 춤도 함께 유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재즈곡에 맞춘 춤이나 ‘찰스톤(Charlston)’이 1930년대 초에 크게 유행하였다.

모던보이는 흰색 구두를, 모던걸은 하이힐을 신고 다니지만, 당시 구두 한 켤레 값은 8~9원으로 거의 한 달 봉급에 가까웠기 때문에 구두는 사치품에 속했다. 시계는 근대화의 대표 상품으로 단순히 시계 혹은 금시계가 아니라, “영국제 벤슨, 베넷트, 서서의 파섹크, 인터내셔널, 론진, 미국의 월삼, 엘진, 하-바드, 하밀튼” 등과 같이 구체적인 브랜드로 등장하였다.

이렇게 소비문화를 조선 전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박람회도 열렸고, 근대 상품 선전을 위해 마네킹을 일본에서 수입해 왔으며, 이를 보기 위해 모여든 조선인들은 마네킹을 닮으려 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서구 문화는 조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의 척도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거기에 내포된 교환가치적 속성은 강한 거부반응 또한 불러일으켰다. 모던걸, 모던보이의 등장은 새로운 서구적 외양과 취미, 언어, 의식 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위문화로서 모던보이는 새로운 유행을 선도했다고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보면 부정적 의미가 없지만, ‘모던보이’나 ‘모던걸’이 경멸과 조소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불량소년 혹은 불량소녀이라는 의미로도 통하는 시대였다. 1920~1930년대의 만화나 만평 속에 표현된 모던걸, 모던보이는 풍자적이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표현하였다.

참고문헌 1920~1930년대 모던 세대의 형성과정(주창윤, 한국언론학보52-5, 한국언론학회, 2008), 다방과 카페 모던보이의 아지트(장유정, 살림출판사, 2008), 모던뽀이 경성을 거닐다(신명직, 현실문화연구, 2003).

필자 최은수(崔銀水)

모란무늬

정의 모란꽃을 도안화한 무늬.

내용 모란이 갖고 있는 부귀의 상징성과 아름다운 외양 때문에 식물 무늬에서 모란은 연꽃과 함께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직조·금박·자수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모란꽃이 공예품의 무늬로 사용된 것은 연꽃보다는 천여 년 뒤의 일이다. 당나라 측천무후 때에 수도 장안에서 모란을 키우는 것이 크게 유행하여 그 이후 무늬로 발전되었다고 한다. 모란은 원래 중국산의 식물로 우리나라에서 ‘함박꽃’이라고 부르는 작약과 외형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모란은 목본木本이고 작약은 초본草本인 점이 다르며, 모란이 4월에 먼저 피었다가 진 후 작약이 5월경에 피기 시작한다. 서양에서도 모란은 ‘tree peony’, 작약은 ‘peony’로 구분하고 있다. 모란은 꽃잎이 탐스럽고 화려하기 때문에 ‘화왕花王’이라고 하며, 부귀를 상징하는 꽃이라 하여 ‘부귀화富貴花’로도 불렸다.

모란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래된 시기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선덕왕(선덕여왕)조善德王朝에 “모란화도牧丹畫圖와 씨앗이 진평왕(재위 579~632)때에 당에서 왔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유사三國遺事』 제27권에서는 중국 당 태종 때에 진평왕에게 모란 그림을 보낸 기록이 있다. 당 태종의 재위 기간이 626~649년이고 진평왕의 재위 기간이 579~632년이므로 실제로 모란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신라시대, 즉 626년에서



① 모란넝쿨무늬 | 17세기 경



② 모란넝쿨무늬 도식

모란무늬 | ① 장기 정씨 묘 출토 저고리 중 부분 | 안동대학교박물관, ② 장기 정씨 묘 출토 저고리 중 부분 | 국립문화재연구소

632년 사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실제로 삼국시대 공예품에서는 모란무늬는 없고, 고려시대가 되어 청자, 나전칠기, 청동기시대 등에서 중요한 무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직물에 표현된 모란무늬에 대한 기록은, 1123년 송 대(宋代) 휘종이 고려에 서공(徐兢)이라는 사신을 보내어 저술한 견문록『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부채를 붉은 라(羅)로 만들고 가운데에 모란꽃 두 송이를 수놓았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모란이 직물 자수 무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유물로는 고려 말기의 라 직물이 가장 오래되었다. 1302년 불복장품 두 점에 모란무늬가 보이는데, 하나는 주황색 라에 모란을 간단한 절지형으로 도안하여 금박을 찍었고, 다른 하나는 모란을 중심에 두고 주위에 덩굴무늬가 감기도록 익조직으로 직조한 청록색 라이다. 이는 동시대 고려청자에서 보이는 모란무늬와 조형성이 유사하며 아직 조선시대와 같이 모란의 특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조선시대에 모란무늬는 16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7세기에 매우 유행하며 18세기에 침체되었다가 19세기에 다시 활성화된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무늬는 모란무늬와 연꽃무늬인데, 두 무늬의 중요한 차이점은 꽃잎과 잎사귀에 있다. 모란의 꽃잎은 외곽선에 부드러운 파상곡선으로 표현한 반면, 연꽃의 꽃잎은 끝을 뾰족하게 표현하여 실제 꽃의 특징을 살리고자 하였다. 또한 잎사귀에서도 차이가 보이는데, 모란은 대부분 모란 특유의 손바닥 같은 잎사귀가 줄기에 연결되었으나, 연꽃은 타원형의 넓적한 연잎과 연방이 달려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모란무늬는 시대별로 조형적 특성이 변화하였다. 16세기의 출토유물에서는 모란무늬가 나타난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는 연꽃무늬가 워낙 유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7세기가 되면서 남녀의 복식에서 모란무늬는 본격적으로 유행 한다. 장기 정씨(1565~1614)를 비롯하여, 양천 허씨(1566~1626), 남양 홍씨(1584~1654), 여흥 민씨(1586~1656)를 비롯한 여러 곳의 출토유물에서 모란무늬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아졌다. 17세기의 모란무늬는 실물에 근접하도록 사실적으로 표현

된 것이 대부분이다. 꽃잎의 외곽선도 부드러운 파상을 이루며 풍성하게 표현하였고, 중심에는 꽃술을 삽입하고 잎맥까지 보일 정도로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잎사귀도 실물에 충실하게 세 갈래로 갈라진 형태를 보였다. 배열 방식은 크게 2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연꽃무늬와 같이 모란꽃 주위를 C자형 만초 덩굴이 휘감고 있는 모란덩굴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이응해(1547~1626)의 방령에서와 같이 모란이 짧은 가지에 연결된 절지형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연꽃무늬의 여백에는 방승·서각·산호·금정 등의 보배무늬를 넣어 강한 충전감을 준 반면에, 모란무늬의 여백에는 대부분 보배무늬 없이 모란꽃과 줄기만 도안하여 훨씬 단순하게 도안하거나, 나비와 벌과 같은 곤충무늬를 넣어 그림을 보는 듯한 회화풍으로 도안하였다.

18세기에는 모란의 유행은 잠시 사라지며 모란을 주 무늬로 표현하기보다는 사계절꽃무늬나 과실무늬의 보조 무늬로 들어간다. 예를 들면 사계절꽃무늬에서 모란은 봄을 대표하는 꽃으로서 여름의 연꽃, 가을의 국화, 겨울의 매화와 복합 구성을 이룬 경우도 많으며, 안동 권씨(1664~1722)의 직물에서와 같이 각종 과실무늬와도 함께 도안되는 등 보조 무늬로 사용되었다.

19세기 후기부터 개항기까지 100여 년 동안 모란무늬는 다시 직물 무늬의 중요한 소재로 활성화되는데, 이 시기의 모란무늬 형태는 전에 비하여 더욱 크게,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된 대화문(大花紋)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모본단이나 갑사 조직에 실제의 꽃 크기로 드문드문 배치하여 전 시대보다 여백을 느끼게 했다. 모본단이라는 옷감은 ‘摹本緞’ 혹은 ‘模本緞’이라고 쓰는데, 한자 뜻과 같이 실제 꽃의 길이와 크기를 측정하여 모양을 본뜬 다음, 그 본을 기준으로 직조한 방식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이처럼 이 시기의 사람들은 실제의 꽃과 같이 사실적으로 탐스럽게 표현한 모란을 매우 선호하였으며, 심지어 사군자무늬에도 매화·난초·국화·대나무 외에 모란을 하나 더 추가하여 5가지로 구성한 사례도 다수 보인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모란무늬는 직물 이외에 자수에서도 중요한 도안이었다. 특히 조선 말기가 되면서 모란무늬는 부귀함의 상징성 때문에 민가의 생활에까지

깊숙이 자리 잡게 된다. 조선시대는 신분이 엄격하게 구분되었던 사회이지만 모란무늬만은 상류층과 서민층의 구별 없이 애용되었던 무늬였다. 혼례복인 활옷과 수저집, 함보자기와 같은 혼례용품에 모란은 빠져서는 안 될 무늬였고, 방장·굴레·댕기·조바위·노리개 등의 일상생활 용품에서도 자주 놓은 모란꽃이 자주 나타난다.

이처럼 모란이 직물무늬에서 중요한 소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란무늬와 관련된 명칭은 많지 않았다. 『악학궤범樂學軌範』과 『순종실록純宗實錄』에 ‘모란문[牡丹紋]’이라 기록되었고, 중국어 학습서인 『노걸대老乞大』에 한자로 ‘전지목단纏枝牡丹’이라 쓰고 이를 ‘넉출모란문’으로 언해한 것 정도이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조효숙(趙孝淑)

모본단 摹本緞

정의 수자조직으로 제작된 문단의 일종.

내용 모본단摹本緞은 수자조직으로 제작된 문단이다. 경·위사 모두 정련한 연사撚絲를 사용하며, 바탕은 8매 경수자직, 무늬 부분은 위수자조직으로 직조된다.

『궁중발기宮中撥記』의 기록에 따르면 모본단은 남색·남송·자적·양남·다홍·옥색·홍·연분홍·분홍 등의 색이 있으며, 치마·의복·동의복·소고의·주의·토수 등에 사용되었다. 문양에 따라 별문모본단, 오복수모본단이 있었다. 별문은 고단에 많이 사용된 문양이며, 오복수는 다섯 마리 박쥐가 수자를 둘러싼 모습이다. 근대 이후 사용된 모본단에는 별문이나 오복수 문양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모본단을 줄여서 ‘모본摹本’이라고도 하였다. 꽃 무늬가 있는 직물인데로, 직조 전에 반드시 꽃 무늬를 실제 꽃의 길이와 크기에 맞추어 모양을 본뜬 다음 그 본을 기준으로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서양식 꽃 모양의 모본단은 ‘대화모본단大花摹本緞’ 또는

‘대화단大花緞’이라고도 하였다. 이 같은 중국 양식의 모본단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화문의 모본단이 제작되었다고 본다.

근대 이후의 모본단은 절화문折花紋을 사용하였는데, 주로 모란을 모티브로 하였다. 복잡하고 화려하던 전통적인 모란문의 조형에서 벗어나 간략하고 세련되게 변형하였다. 무늬가 작고 반복 무늬의 간격이 넓어 바탕의 경수자조직이 많이 나타나며 공단과 같은 광택이 난다. 근대 모본단의 전형적인 형태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왕세손 홍색창의에 사용된 직물이다. 1932년 12월의 『의대목록』에는 ‘대홍대화단창의내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이 같은 문양의 단직물을 대화단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대화단을 언제부터 모본단이라 부르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1915년의 『조선휘보朝鮮彙報』에는 영국산 목모본단木摹本緞이 기록되었는데, 중국산 견직모본단을 모직模織한 것이다. 또 일본산 모본단의 기록도 있는데, 이는 문수자紋繻子이며 생사生絲와 교직交織된 것이라고 하였다.

모본단은 불과 20여 년 전까지도 자주·남·옥색·분홍색 등으로 제작되어 여성의 저고리, 치마뿐만 아니라 이불감, 조바위, 남바위, 토시감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모본단은 수자조직으로 제작된 문단으로 광택이 많이 나고 부드러운 특징이 있다. 절화로 구성된 문양이 간결하고 단아하여 지금도 한복감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통 옷감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宮中撥記, 朝鮮彙報, 개화기 이후 한국 단직물에 관한 연구(신혜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년), 근대직물 100년(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13), 中國服飾衣冠大辭典(高春明·周汎, 辭書出版社, 1996).

필자 심연옥(沈蓮玉)

모슬린

정의 경사와 위사에 단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짠 고운 면직물.

내용 모슬린은 경사와 위사 모두 가는 면의 단사를 사용하여 평직 또는 능직으로 짠 유연한 직물로 흔히 무지(無地) 또는 날염하여 사용한다. 가볍고 비치는 직물부터 무게감이 있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광복·당목도 모슬린에 속한다. 용도도 내의·앞치마·심지·셔츠감·의복지·쉬팅·베갯잇·식탁보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얇으면서도 보온력이 있어 봄·여름뿐만 아니라 가을의 쌀쌀한 날씨에도 입었다. 원래는 양장용 직물로 개항기에 교복용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광복 이후에는 주로 봄·여름의 치마와 저고리용으로 사용되었다. 6·25전쟁 이전에는 흰색 모슬린 저고리와 검은색 모슬린 치마를 많이 입었다고 한다.

모슬린이란 이름은 이라크의 티그리스강 서쪽 도시 모슬(Mosul)에서 처음으로 제직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3세기 말에는 모슬에서 금실이나 은실을 넣어 제직하여 이를 모슬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중세기에는 무게가 두꺼운 면포로 모슬 지방의 산물을 말하는 용도로 쓰였다. 인도에서도 상질의 면 모슬린을 여러 가지 생산하였다. 오랫동안 유럽 여러 나라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인도산 모슬린을 수입했다. 유럽에서 최초로 모슬린을 생산한 곳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베이스레이로 1700년경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소모단사(48~70수)를 사용한 얇은 평직물을 모슬린 또는 메린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무슬린 드 레느(mousseline de laine)에서 유래한 듯하다. 무슬린 드 레느는 가는 번수 순모사로 제직한 모직물의 프랑스어 용어로 양모 모슬린을 뜻한다. 무슬린 드 수아(mousseline de soie)는 견의 모슬린이란 프랑스어로 가볍고 비쳐 보이는 평직의 견직물을 말한다. 무슬린 mousseline은 면으로 만든 모슬린보다 더 섬세하고 얇은 직물을 말하는데, 광범위하게 쓰이는 프랑스어로 모슬린이란 뜻이다.

참고문헌 근대직물 100년(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13), 섬유패션소재사전(공석봉·염상주, 한국섬유신문사, 1999), 최신 전국대표직물(섬유기술연구소, 1936), 패션전문자료사전(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1997), 피복재료학(김성련, 교문사, 2011).

필자 박경자(朴京子)

모시

정의 모시품의 줄기에서 얻은 실로 제직한 직물.

내용 모시품은 켜기품목 켜기품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겨울철에도 땅 속에 남아 있는 줄기 끝부분이 얼어 죽지 않아야 하므로 주로 습기가 많고 따뜻한 지방에서 서식한다. 모시는 다른 인피섬유(靱皮纖維)에 비해 비교적 길고 강인하며 광택이 있고 내구성이 풍부하다. 특히 물에 강하고 가벼워서 의복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에 애용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 몸에 붙지 않는 까슬까슬한 촉감 때문에 여름 의복 소재로 즐겨 사용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모시를 언제부터 짰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여러 고대 고분에서 모시 직물편이 발견되어 한반도에서는 늦어도 기원 전후에 모시를 직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문헌에는 삼베와의 구분 없이 ‘麻’ 혹은 ‘布’가 마직물의 총칭으로 사용되었다. 통일신라시대 860년(헌안왕 4)의 기록에 “한 사람은 집에 재물이 넉넉하여 사치스러운 옷을 입을 수 있는데도 항상 삼베(麻)와 모시(紵)로 스스로 즐겨워했다.”라고 쓰여 있어 이를 구분하여 사용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계림유사(鷄林類事)』에는 ‘저포(苧布)’를 ‘모시배毛施背’라고 명시하고 있고, 『목은집(牧隱集)』에는 “만 필의 모시(毛施)를 해마다 요구한다고 하며, 청저(靑苧)는 사(紗)보다 더 서늘하고 부잣집 얼음덩이 대자리와 맞먹는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동사강목(東史綱目)』 공민왕의



모시 | 국립민속박물관

기록에서도 “저썩를 모시毛施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시’ 또는 ‘모시베’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불리던 이름이며 하절기용 옷감으로도 사용되었다.

고대 고분에서 출토된 모시는 센티미터(cm) 당 7~40올까지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신라에서 30승 저삼단紵衫段을 생산하여 당나라에 보냈다고 하는데, 30승 저삼단은 곱게 짠 극세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나라의 사신인 서공이 고려의 개경에 한 달간 머물면서 기록한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고려 모시의 희고 깨끗함이 마치 옥과 같다고 하였으며, 왕을 비롯하여 신분에 차이 없이 백저포白紵袍를 착용한다고 하였다. 『동사강목』에 의하면 고려의 화문백저포花紋白紵布가 중국에서 진품珍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무늬 있는 모시인 문저포紋紵布는 원나라에서 공물로 요구받기도 하여 당시 고려의 문저포가 중국에까지 알려진 특산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각 문헌에 십이승백저포十二升白紵布·별승백저포別升白紵布·극상세저포極上細紵布·극세저포極細紵布·세저포黃細紵布·생저生紵·백중저白中紵·장저長紵 등의 다양한 모시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모시는 기후가 온화한 지역에서 서식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평택과 충청남도 천안 지방을 경계로 주로 남쪽 지방에서 재배되었다. 현재 모시를 제직하고 있는 지역은 충남 한산·서천과 경상남도 남해 등 몇 곳

이 되지만 한산 일대에서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다. 이 지역의 ‘한산모시’는 품질과 제직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가는 모시실로 짠 세모시가 유명하다. 한산모시가 품질이 우수한 까닭은 연평균 기온이 12.6℃로 여름 평균 기온이 높고 해풍으로 인해 습하며 토양이 비옥하여 모시재배에 적절하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모시가 잘 자라기 때문이다. 1910년 발행된 『조선산업지朝鮮産業誌』에는 “한산, 서천, 홍산, 비인, 임천, 정산, 남포 7군은 모시의 제직이 주된 곳이므로 저포칠소苧布七所라고 칭한다.”라고 하여 한산 지역에서 생산된 모시의 우수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산모시는 우리나라의 중요 전통직물로 인정받아 1967년 ‘한산모시짜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고, 1974년에는 ‘한산세모시짜기’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2011년에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에 전통직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모시의 제작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재배와 수확, 태모시 만들기, 모시짜기, 모시삼기, 모시긋 만들기, 모시날기, 모시매기, 모시짜기, 모시표백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수확한 모시를 속대로부터 껍질을 분리한다. 길쭉질을 벗기면 연두빛의 속껍질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모시의 재료이며 ‘태모시’라고 한다. 태모시는 물에 적셨다가 앞니로 가늘게 찢어서 침으로 훑어내는 ‘짜기’를 한다. 초보자는 입술이 갈라지고 혀에서 피가 나기도 한다. 이 모시짜기는 가장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과정으로 모시를 얼마나 가늘고 일정한 굵기로 찢느냐에 따라 모시의 품질이 결정되며 이후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므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름새용의 모시실을 만드는 기능자의 수가 현재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가늘게 찢은 모시실은 옷감으로 짜기 위해서 길게 이어 줘야 하는데 이 과정은 ‘삼기’라고 한다. 모시삼기를 할 때는 잇는 실이 항상 머리 쪽이 되도록 하고 침을 발라 습기를 주면서 삼는다. 어느 정도 실이 이어지면 굵은 실로 묶어 모시긋을 만든다. 모시 한 필을 짜는 데 필요한 양은 모시의 새수[枚數]에 따라 달라진다. 7~8새의 모시 한 필을 짜는 데에는 날실용으로 10긋, 씨실용으로는 8긋 정도가 필요하다. 다음은 직조하고자 하는 모

모시

모시



모시 두루마기 | 길이 123 폭 53 화장 66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시의 길이에 맞춰 날실을 정정하는 ‘날기’를 한다. 조슬대를 세워 놓고 열 개의 구멍에 모시실을 통과시켜 한 묶음으로 하여 새의 수와 길이에 맞춰 날기를 한다. 날기가 끝나면 개새대, 참새대, 바디, 뒷대, 사침대, 걸막대 순서로 가지런히 두고 실을 끼운다. 그리고 마당에 벼를 지피고 콩풀을 매기면서 모시매기를 한다. 매기에 풀을 사용하는 이유는 실의 이음새를 매끄럽게 하고 실의 강도와 탄력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다. 매기가 끝나면 베틀 위에 앉히고 잉아에 모시실을 걸면서 잉아대를 만든다. 전통 베틀에서 잉아에 실거는 과정은 베 짜는 모든 사람이 했던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사람들만 했다. 한 올이라도 빠지거나 잘못 걸면 베를 찢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베틀에 모시실 얹히기가 끝나면 꾸리에 모시실을 감아 실꾸리를 만들어 복집에 끼워 넣고 모시를 짜기 시작한다. 모시짜기를 할 때는 실내의 습도가 중요하므로 대개 봄부터 초가을까지 짠다. 예전에는 움집이나 토굴 등 습기가 많은 곳에서 직조를 하였으나 근래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 베짜기가 끝난 모시는 잣물에 20~30분 정도 담갔다 꺼낸 후 증기를 이용하여 찜술에서 찌서 풀기를 제거하고 표백을 한다. 그리고 깨끗이 행귀 말리고 다듬기를 하여 완성한다. 햇볕에 바라기를 할 때 반쯤 표백한 것을 ‘반저’라고 하고 완전히 하얗게 표백한 것을 ‘백저’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시 한 필을 생산하는 데에는 약 두 달 정도 걸린다.

모시옷은 세탁 후에 풀을 먹여 손질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항 이후 외국에서 수입되는 값싸고 손질하기 쉬운 옷감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모시는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으나 모시만이 갖고 있는 투명감과 촉감은 어떤 직물로도 대체되기 어렵다.

특징 및 의의 모시는 고대부터 전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직물이나 일부 제직 공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세모시, 특히 보름새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시실을 가늘게 짜는 과정은 매우 섬세한 기술을 요하는 과정이다. 이는 모시의 품질이 좋아야 가능하므로 한산모시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모시를 방

에서 짜는 것은 우리나라의 풍습으로 모시의 양이 적으면 시루에 찌고 많으면 증방(蒸房)에서 작업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저포법(苧布法)은 중국에는 없다고 하였다. 모시를 잣물에 담가 방구들, 즉 증방에 놓고 표백하는 방법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만 수행되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시는 일반적으로 7새에서 15새까지 제직되는데, 보통 10새 이상을 세모시라고 한다. 새가 높아질수록 가는 모시실로 제직하므로 세모시는 잠자리날개와 같은 투명감을 주는 섬세한 옷감이다. 모시의 가벼운 질감과 은은한 광택, 그리고 가슬가슬한 촉감은 모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다.

참고문헌 鷄林類事, 高麗圖經, 東史綱目, 牧隱集, 三國史記, 한·중·일 전통 모시 직조의 비교 고찰(박윤미, 한복문화8-1, 한복문화학회, 2015).

필자 박윤미(朴允美)

모자

帽子

정의 넓은 의미에서 머리에 쓰는 모든 것으로 추위나 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성 위주의 것과, 더욱 아름답거나 위엄 있어 보이기 위한 장식성 위주의 것, 예를 갖추고 차별화된 신분을 표현하기 위한 대사회적인 의미의 것 등, 머리에 쓰는 모든 것을 통틀어 일컫는 명칭.

개관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모자를 사용하였다. 고대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한 모자는 크게 건巾·입笠·모帽·관冠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따라 종류가 대단히 많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머리에 쓰는 것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우리말로는 ‘쓰개’라고 한다. 그러나 특히 ‘쓰개’라는 용어와 구분해서 모자를 ‘관모(冠帽)’라고 할 때는 신분이나 계급, 의례 등의 사회적인 의의를 가지고 격식을 갖추어 머리에 쓰는 것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벼슬아치들이 착용한 모자는 일반적으로 관모라고 지칭한다.



우리의 복식 관념에서 모자는 단순히 머리를 보호하거나 햇볕이나 비를 가리기 위한 실용적 기능 위주보다 신분을 나타내고 예의를 갖추는 의관의 역할에 더욱 중요성을 두어 다양한 형태로 변화·발전시켜 왔으므로 관모의 의미가 크다.

1. 상고시대 우리의 고유 관모는 삼각 형상의 모부(帽部)를 기본으로 한 변상(弁狀)의 관모였다. 우리 관모의 시원형이며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는 절풍(折風), 소골(蘇骨), 조우식(鳥羽飾)의 관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형겼 혹은 가죽 두 장을 앞에서 뒤로 이어 붙임으로써, 착용할 때는 모부가 삼각형의 변상을 이루게 된다. 여기에 조우를 장식한 관모는 조우를 장식하지 않은 절풍이나 소골보다 상위 계층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우리 관모의 특징으로까지 자리 잡았다.

조우(새 깃)에는 태양숭배 및 영혼불멸사상과 연계된 조류숭배의 관념이 내포되어 있는데, 조우를 머리에 장식하는 것은 수렵시대의 유속이며 한때 아시아 북방계 민족 사이에 행해졌던 풍습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생활 속의 습속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우리 관모에서 조우식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것은 당나라 장희태자(章懷太子)묘 벽화에 다른 빈객들과는 대조적으로 한인(韓人) 사절만이 조우를 꽂은 관모를 착용한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우식으로는 원래 새의 자연 조우인 깃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금속제를 사용하기도 했다. 신라의 금관총, 서봉총 등에서 발굴된 금관에는 금속제의 조익형(鳥翼形) 장식도 나타나는데, 조우의 금속화는 수식의 귀족적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밖에 한 장의 형겼으로 머리를 싸매는 데에서 출발한 건과 햇볕이나 비를 가리는 실용적인 용구로 출발한 입(笠)의 착용 예가 확인되나, 이들은 모두 단순한쓰개로서 존재했다.

2.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는 변상의 모(帽)를 기본으로 했던 우리 고유의 관모들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에 문헌에는 649년(진덕왕 3)에 “처음으로 중국의 복식과 의관을 착용하였다(始革中朝衣冠).”라고 하였고, 854년(흥덕왕 29)에 반포된 복식금제에는 복두(幘

頭)가 전 계급 남자의 관모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경북 경주 용강동 고분 출토 토용(730~780년), 황성동 고분 출토 토용(649년 이후 늦어도 680년대)에서도 복두가 확인된다.

복두는 당시 당(唐)에서는 일반 남자들까지 널리 착용하던 관모로써, 문화 교류를 통해 수용된 중국식 관모이다. 처음에는 커다란 한 장의 천 전후좌우에 네 개의 끈(각脚)을 내어 앞 좌우 두 개의 끈은 뒤로 묶고 뒤 두 개의 끈은 상투 앞으로 올려 묶은 형태인 ‘사대건(四帶巾)’에서 출발하였는데, 점차 전면 머리 위로 올려 묶었던 두 개의 끈은 퇴화하면서 뒤에 묶어 내린 두 개의 끈(이각二脚)만이 남게 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경문왕조(景文王條)에 보면, 왕위에 오르자 왕의 귀가 갑자기 당나귀의 귀처럼 길어졌는데 이를 복두로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왕후나 관인은 모르고, 오로지 복두장이만 알고 있었다는 복두와 관련된 설화가 있다. 이를 통해 이제 복두는 관인뿐만 아니라 왕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둔황 335호 석굴과, 제작 연대가 8세기 초로 인정되고 있는 장회태자 묘의 벽화에도 조우관을 쓴 한인 사절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조우관의 모부는 모두 변상관모로 되어 있으므로, 상대의 조우관은 중국 관모의 수용 이후에도 얼마 동안 계속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의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 아프라시압 궁정 벽화 인물의 모자는 고식(古式)의 복두에 조우를 꽂아 장식한 형상이다. 이는 조우관의 모부가 종래의 일률적인 변상관모에서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7세기 후반은 우리 관모제의 변천 과정으로 보면 중요한 전환기로 볼수있다.

3. 고려에서는 일반적으로 복두를 위로는 왕실·귀족으로부터 악공(樂工), 조례(皂隸), 노비,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두루 착용하였다. 다만 민서들의 관모로 『고려도경(高麗圖經)』에 기록되어 있는 사대문라건(四帶文羅巾), 오건사대(烏巾四帶)는 고식인 사대건이며 한 장의 천으로 머리를 싸맨 형태인 건(巾)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국관(國官), 귀인(貴人)이 사가에서 쓰는 양대(兩帶)의 오건은 전면에 올려 매었던 두 개의 끈이 퇴화한 연질(軟質)의 수



① 노상탁발 | 조선 후기



② 대구 시장의 모자 장수

모자 | ① 신윤복 | 간송미술문화재단

각복두垂脚幘頭를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관리의 공복에는 경질硬質의 전각복두展脚幘頭가 사용되었으므로, 양대의 오건이라 함은 이와 구분하여 불리던 명칭이었을 것이다.

고려 말기에는 원元의 영향으로 인해, 원나라 관리들이 착용했던 발립鉢笠이 수용되었음은 이 시기 발립 착용 인물의 초상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립은 위가 둥글고 첨(채양)이 작은 평량자형 입자笠子로 모체帽體 정상에 정자장식頂子裝飾을 한 것인데, 첨의 안쪽은 다른 색으로 꾸며져 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1367년(공민왕 16)에 입笠 정상의 재료에 차 등을 둔 정자頂子를 장식한 ‘흑립黑笠’을 관리들의 관모로 제정하였고, 그 밖에 흑초방립, 백방립 등의 명칭도 등장하였다. 이로써, 고려 말기에는 용구로서의 입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념 변화의 바탕에는 당시 발립의 수용과 착용이 적잖은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는 나아가 사회적인 관모로 자리매김된 조선 입제의

완성에도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선 시대 흑립과의 형태나 제작기술의 유사성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4. 조선시대는 관리의 관복 제도를 명나라보다 두 등급 낮추어 제정하면서 관모도 관품과 용도에 따라 두 등급을 낮추어 제정하였다. 왕을 비롯한 관리의 관모로는 면류관, 원유관, 익선관, 양관, 사모가 있으며, 이를 관품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하였다.

사대부들도 의관정제를 중시하는 관습에 따라서 일상 통행할 때 집 안에 있을 때도 반드시 관모를 착용하였다. 사대부들이 평상시에도 늘 착용했던, 통칭 편복 관모는 크게 입의 발달 단계와 편복관[巾制]의 수용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입제: 조선시대의 입笠은 모자집(대우)과 입첨(양태)의 구분이 명확한 평량자형平凉子形 갓과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방립형方笠形 갓으로 구분한다. 패랭이, 초립, 흑립, 백립, 주립, 옥로립, 전립戰笠, 戰笠은 평량자형 갓에 속하는 것들이며, 삿갓이나 방갓은 방립형 갓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은 용도와 신분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다. 입笠의 전반적인 발달 단계와 그 사용 행태(입제)를 중심으로 보면, 이들 중 흑립은 제작기술상 평량자형 갓의 가장 초기 형태의 것인 평량자(패랭이)-초립의 단계를 거쳐 완성된 조선 입제 발달의 최종 완성품이다. 이로써 협의로 ‘갓’이라고 하면 흑립만을 지칭하면서 조선을 대표하는 관모를 나타낸다.

형태 완성 과정	분화 과정
<평량자형> *평량자 *발립 발립 — 흑립 <방립형> *삿갓 *방갓	<평량자형> *평량자 — 초립 — 흑립 (자초립, 흑초립, 백립, 주황초립) 주립 *발립 — 전립(모전립, 죽전립) 병거지 *삿갓 — 삿갓, 대삿갓, 세 대삿갓 *방갓 — 흑죽방립, 백방립

입의 발달단계와 완성과정



모자

흑색의 갓, 즉 흑립은 사실 비기능적이며 비실용적인 모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비단끈과 각종의 옥을 꿰어 목 밑으로 길게 늘인 패영으로 갓을 머리 위에 고정시키고, 비가 오면 그 위에 갈모를 쓰며, 잘 다듬은 나무상자나 생피 갓집에 보관하는 등, 갓에 대한 사랑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지대한 것이었다. 또한 갓을 항상 상석에 걸어 둘 정도로 갓에 들인 관심과 정성은 의관을 존중했던 당시 시대의 복식규범에서 연유한다.

2) 편복관: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갓’에 대신하여 집안에서 늘 착용한 모자로, ‘○○관’으로 불리는 방관方冠·사방관四方冠, 동파관東坡冠, 와룡관臥龍冠, 정자관程子冠 등을 총칭하여 ‘편복관’으로 지칭한다. 원래는 중국의 문인, 학자들이 사용한 방건 혹은 사방평정건, 동파건東坡巾, 제갈건諸葛巾, 정자건程子巾 등에서 유래한 것인데, 우리는 이들을 조선시대 인종, 명종 대에 들여와 ‘○○관’이라 부르며 사용하게 되었다.

편복관은 대체로 모두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쉽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는 ‘건’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특히 ‘○○관’이라 지칭한 데에는 건보다 상위의 개념인 관을 더 애호했던 데에 기인한 것 같다.

집안에서도 늘 의관을 갖추어야 했던 사대부들은 ‘갓’에 비해 다루기 쉽고 손질이 간편하며 쉽게 접을 수 있는 편복관을 애용하였는데, 이러한 의식의 저변에는 당시 조선사회에 팽배하였던 ‘의관정제’의 생활 규범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 조선 말 대원군의 의복 간소화 시책으로 편복관이나 종래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큰 갓(흑립)이 점차 사라진다. 대신에 첩이 좁은 작은 갓(소립小笠)이 등장하였는데, 소립은 일반 남자들도 두루 착용하였다. 1895년 을미개혁 때에 단발령이 내려지고 남자들이 점차 상투를 틀지 못하게 되면서 평상시에도 갓이나 편복관을 쓰던 전통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된다. 물론 서구에서 도입된 각종의 해트hat 류가 있었으나 의관정제를 위하여 모자를 반드시 갖추어 써야 했던 우리의 복식 예의는 점차 사라지고 말았다.

관리들은 갑오개혁 이후 양복을 예복으로 착용하게 되면서 서구식 모자인 중절모, 중산모, 맥고모자 등의

모자를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예복의 모자는 영국 예복의 모자를 본뜬 것으로 앞뒤가 뽀족 나온 산山자 형인데 모자 정수리에 장식 깃털이 달려 있었다. 또 소레복인 프록코트frock coat에는 영국제 실크해트silk hat를 착용했는데 이를 당시는 ‘진사고모眞絲高帽’라고도 불렀다.

6. 우리의 관모제가 종식된 이후 잠깐 동안 일반 복식에는 양복·한복을 막론하고 서구식 모자를 착용하였다.

당시에 유행한 모자는 모두 해트류로 파나마모panama를 비롯해 중절모, 중산모 등이 있다. 그러나 1960년대는 서구에서도 남자들의 모자 착용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의 모자 착용이 줄어들었고, 1980년대는 중·고등학생의 교복이 폐지됨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제정되었던 일본식 교복과 교모도 사라지게 되었다.

오늘날은 군인·경찰 등의 제모制帽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헬멧helmet, 방한모, 각종 운동모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예의를 갖추기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자의 모자는 양장과 함께 들어왔지만 서구 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특수층에 한하였다. 여성관의 변화로 일반여성들은 외출 시에 착용하던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벗어버리고 그 대신 조바위, 아얌 등을 착용하기도 했으나 양장 착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도 곧 사라지게 되었다.

이처럼 전통의 관모들이 자취를 감추고 한때 서구식 모자가 이를 대신한 적도 있으나 우리의 생활 규범 속에 굳게 자리했던 ‘정장에는 모자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관념은 우리 관모제의 종식으로 소멸되고 말았다.

내용 머리에 쓰는 것을 유형별로 보면 크게 건·입·모·관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네 가지 유형의 모자는 차츰 형태와 제작기술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종류로 분화·발전하거나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되고, 신분과 용도에 따라 때로는 새로운 형태의 것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조선 말기에는 서구식 모자의 등장으로 해트류와 캡cap류의 모자가 등장한다.

1. 건: 관모 중 가장 간단한 것으로 천을 사용하는 것이



조선의 각료 | 근대 | 국립민속박물관

일반적이다. 자의字義에는 ‘한 장의 형겅으로 머리를 감싸는 모든 형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곧 머리에 덮어 씌워진 후에 비로소 어떤 형태를 이루는 건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건이 점차 여러 형상의 것으로 형태화된 이후에도 착용하지 않을 때는 간단히 접을 수 있었던 것과 상통하는 특성이기도 하다.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부인의 머릿수건이나 남자들이 머리를 덮어 뒤에서 묶어 내린 형상은 가장 원시적인 건의 형상이다.

고려시대에도 조건·문라건 등이 등장하며 이는 왕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했던 가장 소박한 모자의 하나였으며, 복두의 시원형인 사대건도 머리에 덮어 씌워진 후에 형태를 이루었던 하나의 건이다.

조선 초에 두건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망건이 생겼고,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의장조儀章條에 녹사錄事는 유각평정건有角平頂巾, 서리는 무각평정건을 쓰게 되어 있다. 또 별감은 자건紫巾, 세자궁별감은 청건靑巾, 나장은 조건阜巾, 인로引路는 자건, 학생은 치포건縹布巾을 쓰도록 되어 있다. 선비들은 망건 위에 탕건을 쓰고 그 위에 갓을 썼다. 평소 집안에서 착용한 탕건, 사방관, 동파관, 충정관, 와룡관, 정자관 등도 형상화된 건의 한 유형이며, 유학자들의 유건, 복건 등도 있다. 상중喪中에 쓰는 굴건, 두건도 건의 특수 용례 중 하나이다.

2. 갓: 갓의 한자 표기는 ‘입笠’으로서, 본래의 뜻은 햇볕이나 비와 바람을 가리기 위해 식물성 재료를 거칠게 엮

어 머리에 쓰는 실용적인 용구인 쓰개 가운데 하나이다.

갓을 착용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설문해자說文解字』, 『양사전良耜傳』, 『무양전無羊傳』에서도 ‘입笠’이 더위와 비를 막는 데에 쓰였다고 언급하고 있어 발생 초기에는 관모적冠帽的 요소보다는 도구적道具的 요소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점차 재료와 제작 방법이 발전하면서 종류와 용도가 확대된다.

고구려 감신총 벽화에서도 활을 당기며 매를 쫓는 <착립기마인물도着笠騎馬人物圖>를 볼 수 있는데, 입은 모정이 둥글고 차양이 넓으며, 끈으로 턱에 걸어 맨 듯한 모습이므로 조선시대 폐양립蔽陽笠과 아주 비슷하다. 『삼국유사』 원성왕조에 ‘착소립着素笠’의 기록이 보인다. 『고려사高麗史』 지권 26 여복에 의하면 1367년(공민왕 16) 9월 “백관시착립조알白官始着笠朝調”이라는 기록과 함께 이후 흑초방립, 백방립 등이 관리들의 관모로 제정되었으므로, 입은 고려 말에 이르러서 신분이나 관직을 나타내는 사회적 기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모인 흑립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3. 모: 모는 머리 전면을 싸는 모옥帽屋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관모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복두와 사모가 있다. 복두는 통일신라시대에 당에서 받아들였으며, 고려에 이르러 널리 착용되었다. 고려왕은 조복에 복두를 썼고 이직산원吏職散員들도 복두를 착용하였다. 복두 착용에 대한 금지 또는 허용에 관한 기록이 『고려사』에 보인다.

왕은 상복에 오사고모烏紗高帽를 썼는데, 이는 비단으로 만든 것으로 사모의 전신일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복두 대신 사모가 널리 착용되어 관원은 물론 일반 서민도 혼례 때에 착용이 허용되었다.

이밖에도 방한용의 각종 난모류煖帽類, 비를 막기 위한 우모雨帽, 화살을 막기 위한 투구 등의 쓰개도 있었다. 개화기 이후에는 중절모, 맥고모자, 파나마모자 등이 크게 유행하였다.

4. 관: 입, 건, 모에 대비하여 관은 상위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형태상으로도 잘 갖추어진 머리쓰개의 의미



가 크다. 『후한서舊唐書』 고구려조에 “왕은 백라관을 썼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안악 3호분 묘주의 관은 내관은 흑색이며 외관은 백색으로, 내관과 외관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일종의 이중관이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에서 왕만이 썼다고 하는 백라관일 것이다.

관으로 대표되는 것은 삼국의 금관이다. 금관의 원류는 시베리아 샤만의 녹각관鹿角冠에서 연유한 일종의 무관巫冠에서 발달한 것으로, 고구려·백제·신라의 호족 내지 왕이 썼다.

고려시대에는 왕의 면류관이 있었고, 건이나 모는 다양한 명칭이 있으나 관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뱃사람이 쓰는 죽관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죽관은 삿갓류의 모자에 대한 한자 차용의 명칭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관모로 면류관·통천관·원유관·익선관이 있었고, 신하의 것으로는 양관·제관이 있다. 일반 선비의 것에는 사방관·충정관·동파관·와룡관·정자관 등의 명칭이 있으나 이는 중국에서 문인들이 썼던 방건·충정건·동파건·제갈건·정자건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만 명칭에 ‘건’의 상위 개념인 ‘관’을 차용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5. 서구식 모자: 개화기 이후는 서구식의 모자도 사용하게 된다. 형태는 기본적으로 머리[頭]를 덮는 부분인 크라운crown과 햇볕을 가리는 부분인 브림brim으로 구성된다. 서양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브림이 크라운 전체에 맞물려 붙어 있으면 해트hat,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붙어 있는 것은 캡cap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현재는 모자를 쓰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이거나,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익숙한 서구식 모자는 아래와 같다.

1) 캡: 5~7쪽 정도의 조각을 이어 만든 크라운에 브림(챙)이 앞쪽이나 혹은 옆까지만 붙어있는 형으로, 부분적인 챙을 가진 모자 종류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야구모baseball cap, 수영모swimming cap, 스키모ski cap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근래에 젊은이들이 운동 시는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야구모를 즐겨 착용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2) 해트: 머리 부분인 크라운과 챙 부분인 브림으로 구성된 모자. 크라운이나 브림의 형상에 따라 여러 가지 해트류가 있다.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모자 | 근대 | 국립민속박물관

① 중산모: 더비derby나 보울러bowler의 별칭이다. 둥근 크라운과 양옆이 약간 올라간 좁은 브림이 달린 형태의 뽀뽀한 모자이다. 주로 딱딱한 펠트로 만들어진 검정색 모자이며, 영국신사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다. 원래는 영국의 비즈니스맨이 정장차림을 할 때 쓴 것으로, 윌리엄 보울러가 1850년경에 디자인했다고 해서 ‘보울러’라는 이름이 붙었다.

② 중절모: ‘소프트 펠트 해트soft felt hat’로 가장 일반적인 비즈니스 웨어용 모자이다. 크라운의 정상 가운데가 접혀 있는 데서 ‘중절모’라는 이름이 붙었다. 펠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양이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③ 맥고모자: 밀짚으로 만든 모자의 총칭이다. 주로 여름에 많이 사용되었다.

④ 실크해트: 원통형의 크라운으로 챙이 비교적 좁게 되어 있는 예장용 모자이다. 모닝코트, 이브닝코트 등 최고급의 예장용에 쓰인다. 원래는 17세기 후반부터 서구에서 대유행하였던 비버 해트가 기원이며, 비버 모피의 수요 부족으로 인해 실크를 대신 쓴 것이 이 모자의 시초이다. 오페라해트opera hat, 톱 해트top hat, 하이해트high hat라 부르기도 하고 토퍼topper라는 속칭도 있다. 우리나라는 개화기 초기에 상류층 사이에서 잠시 사용되었다.

⑤ 파나마모: 스트로 해트(밀짚모자)의 일종이다. 원래는 곱고 옅은 빛깔의 파나마풀, 혹은 에콰도르·콜롬비아 등 중남미 야자류의 섬유 등으로 만들었으나 오늘날은 파나마풀과 비슷한 섬유로 만든 것도 이렇게 부른

다. 여름에 쓰는 남성용 모자이다. 국상에 백립을 쓰는 우리나라는 단발령 이후 갓 착용이 어렵게 되자, 한 때 백립을 대신하여 파나마모를 사용하기도 했다.

3) 베레beret: 머리에 밀착되는 형태로 둥글납작하고 부드러운 채이 없는 모자이다. 한 장의 울이나 펠트로 만들며 빛깔과 소재도 다양하다. 교복을 비롯한 기타 유니폼에 사용하였으며, 요즈음은 예술가들이 즐겨 많이 착용한다.

4) 클로슈cloche: 프랑스어로 ‘중’이란 뜻이다. 크라운이 높고 브림이 중처럼 아래쪽으로 향할수록 퍼져 있는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모자가 머리 전체를 감쌀 정도이며 거의 눈썹 아래까지 눌러 쓰는 것이 특색이다. 1920~1930년대에 신여성 사이에서 유행하였고, 덕혜옹주가 양장에 클로슈를 쓴 사진도 있다.

5) 보닛bonnet: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며, 뒤에서부터 머리 전체를 싸듯이 가려 얼굴과 이마만 드러낸 모자이다. 크라운이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고, 턱 밑에서 끈으로 매며, 모자 가장자리를 러플로 장식한다. 개화기 초기에 일부 여학생 교복에 사용된 적이 있으며, 오늘날에는 유아용 모자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6) 터번turban: 중동이나 인도에서 많이 쓰는 모자이다. 긴 천을 머리에 둘러 심한 더위를 피하고, 또 바람을 막기 위해서 쓴다. 근래 터번을 모방한 디자인의 모자가 여성의 이브닝드레스에 많이 이용되었다.

7) 토크toque: 작고 채이 없으며 주름을 많이 잡아 머리에 꼭 맞도록 쓰는 모자이다. 근래에는 혼례용으로 웨딩드레스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19세기에는 이브닝드레스를 착용할 때 함께 썼으며, 꽃이나 베일로 장식하였다.

8) 헬멧helmet: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자의 일종이다. 철제나 알루미늄제, 플라스틱제 등이 있다. 사이클 등의 운동경기, 공장에서 쓰는 작업모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9) 후드hood: 머리 전체를 덮어 싸는 부드러운 모자로, 턱 밑에서 끈으로 매거나, 케이프나 코트에 달아 방한용으로 머리를 덮어쓰는 두건 모양의 모자이다. 코트나 재킷에 붙은 후드를 비롯하여 스키 등의 스포츠용으로 고안된 것도 있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는 예부터 모자를 중요한 복식 요소의 하나로 생각했다. 맨머리는 상민常民이나 죄인의 상징으로 여겼으며, 외출할 때는 물론 실내에서도 모자를 착용하였다. 모자를 착용하지 않을 때는 변소에 갈 때, 침상에 들 때, 죄수가 되었을 때 정도이다.

이러한 것은 일차적으로 상고시대 우리 복식이 갖는 엄격한 포피적包被的 성격과 무풍적武風的 요소에 ‘의관정제衣冠整齊’라는 복식에 관한 의례관념儀禮觀念이 더해진 데서 연유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모자’에는 한층 대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관모’로서의 의미가 더해진다. 우리 복식의 중요 요소로 자리하게 된 관모는 예를 갖추는 중요한 요소로서 연령별, 신분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되어 왔다. 서구 문물의 유입으로 시작된 의복 간소화 시책과 1895년 을미개혁 때 시행된 단발령으로 상투를 틀지 못하게 되면서 평상시에 갓이나 관을 쓰던 전통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점차 의복을 갖추어 입을 때는 반드시 모자를 착용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복식 예의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2000년 역사를 이어 온 우리 두식문화頭飾文化와의 결별, 의관정제라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왔던 ‘신분상징성’의 소멸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는 유교의 가치 이념인 ‘질서’와 ‘규율’, ‘서열의식’과 ‘형식주의’ 등의 개념을 복식에 구현하고, 형식과 격식을 갖춘 복장에서는 위엄과 권위의 가치까지 지향하였다. 의관정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치 지향의 적극적인 한 표현이었으나 서양복식으로 일반화된 현대사회는 더 이상 신분상징과 직결되는 그러한 가치들을 수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관모’로서의 의미가 강조되던 우리나라의 모자는 이제 시대의 유행을 반영하는 패션물로서의 기능만이 강조될 정도로 그 역할이 변화하였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高麗史, 三國遺事, 복식사전(라사라교육개발원, 라사라, 1991), 우리 관모의 시말에 관한 연구(강순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한국복식사연구(김동욱, 아세아문화사, 1973),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한국의 복식문화사(난사 석주선관장 10주기 기념논총 진행위원회, 학연문화사, 2006).

필자 강순제(姜淳弟)



모직물

毛織物

정의 양과 양 이외 동물의 털로 만든 직물 혹은 이들의 털을 혼방하거나 교직하여 짠 직물.

내용 일반적으로 모직물毛織物은 면양綿羊, 綿羊에서 얻은 양모사로 만든 직물을 말하지만, 고대 모직물의 소재는 양 이외의 동물, 즉 염소류(양고라 염소·캐시미어 산양), 낙타류(낙타·알파카), 기타(양고라 토끼·소·말·개·돼지 등) 동물의 털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우리나라에는 고대 서아시아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양과 양모 제품들이 전래되었고, 처음에는 유목민의 면양 사육으로 얻은 모피를 사용하다가 모직물 생산으로 발전했다. 신석기시대부터 철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조선의 여러 유적에서 다양한 짐승의 뼈 유물과 함께 모직물이 출토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동물의 가죽·털을 이용한 모피 및 모직물 생산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견·면·마직물에 비해 모직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용 빈도가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물의 털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모직물을 의복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모직물을 생산하는 제직 기관 및 판매 기관이 있었으며, 이렇게 생산된 모직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했다.

모직물은 다양한 조직으로 제직되었으며 견·면·마직물 등과도 교직되어 의복 외 벽걸이, 깔개 등의 소재로도 사용되었다. 고구려·신라·발해·통일신라·고려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고려는 비교적 제직 기술이 발달하여 화려한 직물을 제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중조직重組織 기법을 사용한 금계錦縐를 제직한 기록이 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와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구유毳裘와 답등毼毼이라는 모직물을 제직 및 수출한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는 다른 시대에 비해 출토복식 자료가 훨씬 풍부하고 모직물이 생산, 유통된 기록도 찾을 수 있지만, 출토직물 중에서는 견·면·마직물에 비하여 모직물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된 예는 드물다.

한국 전통 모직물의 종류는 평직으로 제직한 모갈

毛褐·모포毛布, 능직으로 제직한 사갈斜褐, 익직으로 제직된 모사毛紗·모라毛羅 등의 일반 직물 외에도 자수기법을 사용한 계수縐, 직금織金기법을 사용한 금계 등의 중조직 직물, 첨모조직을 사용한 융絨, 철직綴織으로 제직된 답등·구유·담毼, 펠트직인 전氈 등 매우 다양하다. 즉 한국 전통 모직물을 용도별로 보면 의복에 주로 사용된 모직물은 갈褐·계·융이고, 관모에는 모라, 깔개에는 주로 답등·구유·담·전 등이 사용되었는데, 의복보다는 관모·깔개·담요·벽걸이 등의 용도로 훨씬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같은 토끼털·낙타털 등을 소재로 사용하여 제직한 것이며 거칠고 짧은 털로 짠 것이었다. 『후한서後漢書』, 『설문說文』, 『석명釋名』에서 가난한 자의 의복이나 거친 의복, 천한 계급의 사람들에게 착용하도록 허락한 기록 등이 있어 하류층이 주로 사용한 거친 모직물임을 알 수 있다. 계수는 모직물을 제직한 후 자수를 덧놓은 것이며 『중국의관복식대사전中國衣冠服飾大辭典』에서 금계는 다채로운 모사를 사용하여 제직한 모직물로서 문양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마치 다채로운 금錦(비단)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중국고대복식사中國古代服飾史』에서 모직물 중 거친 실로 제직한 것은 같으며, 섬세하고 부드러운 것은 융이라고 했을 정도로 모직물의 융은 부드러운 외관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삼국사기』에 신라가 당唐에 5색 구유를 수출하고 10색 구유를 생산했다는 기록이 있다. 답등은 구유와 마찬가지로 카펫 또는 러그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서로 유사하지만 『중국의관복식대사전』에서 구유보다 더 섬세한 모직물이며, 기타의 문양, 제직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은 담요·모포·깔개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거친 모직물이며 『중국역대직염수도록中國歷代織染繡圖錄』에서 카펫의 제직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테피스트리, 즉 철직으로 제직하는 방법으로 제직한 것이라 한다. 『사주지노니아유적출토문물 사막왕자유보絲綢之路尼雅遺跡出土文物沙漠王子遺寶』에서는 담이 겹면에 털이 돋게 제직한 융단의 일종으로 위첨모직으로 제직한 것이라고 했으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 명칭이 문헌에 보이며 실제로 일본 정창원正倉院에서 현재 보존되고 있는 다양한 깔개 종류를 철綴이라고 하는 점, 호랑이·까치·소나

무 등의 문양을 넣어 철직으로 제직한 조선의 철직물이 담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철직으로 제직한 모직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은 『중국염직사中國染織史』에서 양이나 산양의 털을 겹쳐서 모 섬유의 축융성을 이용하여 수분·증기·압력·마찰 등을 가하여 축융한 펠트로서, 엄격히 말하면 직조한 것이 아니므로 직물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주로 깔개·신발·모자 등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고대 한국 전통 모직물의 종류는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직에 의한 문직물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주로 지문법·직금법·자수기법·철직·첨모직 등으로 문양을 표현하였다. 즉, 일반 모직물에는 무늬 부분에 동일한 색의 실을 사용하면서 조직에 변화를 주어 문양을 표현하는 지문법을 사용하여 단색으로 은은하게 표현했으며, 중조직 모직물인 계 종류에는 금사·은사·색사 등을 사용하여 문양을 바탕에서 분리시켜 표현하는 직금법 및 자수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색으로 화려하게 표현했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전장靛匠이 있어 다양한 색상의 전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문양의 종류 또한 기하학적인 문양과 식물문양의 비중이 높으며 동물문양이 사용된 경우도 있다. 오늘날 모직물은 비교적 길고 가는 양모를 사용해서 제직한 소모직물梳毛織物과 짧고 굵은 양모로 제직한 방모직물紡毛織物로 구분되며, 그 종류로서지serge·개버딘gaberdine·트로피컬tropical·소모플란넬worsted flannel 등이 있다. 보온성·흡습성·내구성·탄성 등이 우수한 기능성을 가지며, 현재 양복·코트 등 고급 옷감의 소재, 침구·카펫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史記, 日本書紀, 피복재료학(김성연, 교문사, 2000), 한국 전통 모직물의 유형과 특성(장현주, 복식54-8, 한국복식학회, 2004), 絲綢之路尼雅遺跡出土文物 沙漠王子遺寶(趙豐·于志用, 藝紗隊, 2000), 中國古代服飾史(周石保, 中國戲劇出版社, 1984), 中國歷代織染繡圖錄(高漢玉, 商務印書館香港分館·科學技術出版社 合作, 1986), 中國染織史(吳淑生·田自兼, 人民出版社, 1986), 中國衣冠服飾大辭典(周汛·高春明, 辭書出版社, 1996).

필자 장현주(張賢珠)

정의 목에 거는 장신구.

역사 우리나라 목걸이의 역사는 석기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목걸이의 역사를 기록한 문헌을 살펴보면,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한조韓傳에 “마한사람들은 영주璚珠, 즉 구슬을 목에 걸었다.”라고 하는 데에서 목걸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스키타이계 목걸이 장신구의 하나인 곡옥부 목걸이에 사용되는 곡옥은 그 상징성에 관해 ‘생명’, ‘다산多産’, 태양신 숭배 등 여러 해석이 있다. 스키타이계 문화에 속하는 파지리크 고분 5호분 벽걸이 모전의 기사도騎士圖에 그려진 말의 콧잔등과 가슴에 각각 하나씩 푸른색 곡옥이 달려 있는데, 이는 신좌神座에 앉아 있는 샤먼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하사받는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내용 신석기시대 목걸이는 멧돼지나 고라니의 이빨, 사슴이나 조류의 뼈, 상어 척추 뼈 등을 가공하여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끈으로 엮어 장식으로 이용하였다. 이는 미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초자연적 힘을 빌리거나 부적의 목적으로도 이용되었을 것이다. 청동기시대 옥 목걸이는 600여 개의 관옥을 꿰어 사리고, 반원형으로 다듬은 푸른색 천하석天河石을 매어 달았는데, 이는 의식용 장신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요령성 여대시 감정자구 후목성역 강상 무덤에서 출토된 고조선시대 옥목걸이가 있는데, 각종 관옥과 환옥을 연결하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 황성동 8호분 출토품인 원삼국시대 옥목걸이는 청색 곡옥曲玉, 마노제瑪瑙製 환옥環玉, 유리제 환옥, 소형의 유리제 구슬, 마노제 다면옥多面玉으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마노, 유리옥, 호박옥, 수정옥으로 만들어진 목걸이가 있다.

삼국시대의 목걸이는 신라 외의 모든 지역에서 다량으로 출토되었고, 다른 장신구의 착용 예를 보아 고려 지역에서도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지역에서는 목걸이 중 특이한 것은 금쇄식金鎖式으로 무령왕릉 출토 금제 금봉金棒은 약간 활처럼 휘어지고 가운

데가 불록하여 양단兩端은 가는 육각이 진 형태로 만들어진 금봉金棒을 일곱 개 연결한 7절七節 목걸이와 9절 목걸이가 있고, 그 외 각종 각양의 옥류를 연결한 옥 목걸이도 있다. 고분 출토 목걸이는 한 줄 또는 두 줄 이상 여러 줄의 목걸이도 있으며, 보통 일반 옥만을 연결한 목걸이와 곡옥을 수하시킨 곡옥부曲玉附 목걸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곡옥부 목걸이의 양식은 수하된 곡옥의 수와 연결된 옥의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고구려시대 목걸이 유물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 보루성에서 출토된 곡옥부 목걸이가 있으나 그 양식이 정확하지 않다. 주로 백제, 신라, 가야의 고분 출토품들을 중심으로 목 부위만을 장식한 경식頸飾과 가슴 부위까지 장식하는 경흉식頸胸飾으로 나누어 양식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한 개의 곡옥을 중심으로 연결한 경우 중 경식은 한 개의 곡옥을 중심으로 각종의 옥을 연결한 경우는 백제 지역이었던 전라남도 여수 미평동·장수 하월리, 충청남도 천안 두정동에서 출토된 목걸이들은 한 개의 곡옥을 수하시키고 각종의 옥들을 연결하고 있다. 특히 천안 두정동 출토품은 한 개의 곡옥을 중심으로 세 점의 금박옥이고 55점은 남색을 띠는 유리제 옥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주 미추왕릉지구 C지구 3호분 신라시대 출토품은 마노제의 곡옥·다면옥·환옥, 벽옥제의 관옥, 수정제의 대추옥, 유리제의 환옥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색상도 붉은빛과 푸른빛, 초록빛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유리 재질의 둥근 옥 중에는 지름이 1.8cm인 대형 구슬도 포함되어 있다. 그 표면에 파랑·

노랑·빨강·흰색의 색유리로 사람 얼굴과 오리, 꽃나무 무늬 등을 정교하게 만들어 붙였다. 경주 황남리 82호분 출토품은 한 개의 수정곡옥을 중심으로 85개의 유리옥이 좌우로 연결되었다. 황오리 1호분 남곽 출토품은 지름 1.5cm 내외의 감색유리옥 93개와 중앙부의 녹반백색 곡옥으로 이루어졌다. 황오리 5호분 출토품은 청색유리옥 35개와 대형 비취제 곡옥 한 개를 연결한 것이다. 금령총 출토품은 연한 녹색 곡옥 한 개에 유리 환옥 240개를 두 줄로 연결한 것이고, 식리총 출토품도 마노제곡옥 한 개에 유리옥 193개를 두 줄로 연결한 것이다. 황오리 54호분 갑총 출토품은 중앙에 대형 곡옥을 달은 유리옥 약 334개를 삼조로 연결한 것이다. 금령총 출토품 중 하나는 모두 투명한 수정옥, 곡옥 한 개, 육각형 수정다면옥을 연결한 것이고, 또 하나는 곡옥 한 개를 중심으로 수정환옥 주산알형 옥을 연결한 것이다. 호우총 출토품은 진한 감색유리옥과 수정다면옥, 경옥제곡옥 한 개를 연결한 것이다. 경주 인왕동 20호분에서 출토된 목걸이는 대형 곡옥을 중심으로 좌우로 옥을 연결하였다. 김해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유리제환옥, 마노, 수정제옥과 수하식으로 곡옥을 배치하고 있다. 대구 내당동 55호분에서는 유리옥 2연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그 하단에 곡옥 한 개를 달았다. 양산 부부총에서 출토된 남편의 목걸이는 비취 곡옥 한 개에 유리옥들을 연결한 것이다. 한 개의 곡옥을 중심으로 각종 옥과 금속제구형金屬製球形을 섞어 연결한 경우인 신라시대 금령총 출토품은 경옥제 곡옥 한 개, 금제



① 9절 목걸이 | 백제



② 곡옥부 목걸이 | 신라



③ 경흥식 다수곡옥부 | 신라

목걸이 | ① 지름 16 | 충남 공주 무령왕릉 | 국립공주박물관, ② 길이 33 | 경북 경주 노서동 | 국립중앙박물관, ③ 길이 64 | 경북 경주 천마총 | 국립중앙박물관

식옥, 유리옥을 연결한 것이다. 서봉총 출토품도 곡옥 한 개를 중심으로 유리 환옥·금제공옥·은제공옥·금제간이 연결되어 있다. 가야 고분 출토품인 경상남도 양산 부부총 출토 부인용은 중앙에 홍마노 곡옥이 있고 그 좌우에 수정다면옥, 홍마노 산치옥, 순금제 소고형小鼓形 공옥, 홍마노 관옥, 홍마노 다면옥, 청색유리다면옥 등을 배치하였다. 금제사슬과 금제곡옥을 연결한 경우인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금제사슬과 금제중공옥을 교호로 이어서 만들고 끝에 금제곡옥을 매달았다. 금옥과 곡옥을 연결한 경주 노서동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출토품은 금소환金小環 여러 개를 연결하여 속이 빈 구형球形을 만들고 심엽형心葉形 금판을 금줄로 연결하여 장식한 것을 44개 연결하고 끝에 비취곡옥 한 개를 달았다. 경흥식頸胸飾으로 경주 월성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경흥식은 일곱 줄의 청색옥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중간 장방형금구를 연결되어 있으며 한 개의 곡옥을 매달고 있다. 여러 개의 곡옥을 중심으로 각종의 옥을 연결한 양식 중 경식인 신라시대 금조총 출토품은 달개를 단 금구슬을 연결하고 두 개의 곡옥을 수하시켰다. 경남 합천 옥전 3호분 가야시대 출토품은 청색 유리제 구슬을 이용하여 수정 절자옥을 가운데에 두고 사이사이 비취곡옥 4개와 호박관옥을 끼워 만들었다. 합천 옥전 4호분 출토품은 청색의 유리구슬과 호박구슬, 관옥, 세 개의 비취, 마노 곡옥 등으로 연결되었다. 경흥식으로 천마총 출토품인 신라시대 경흥식은 가슴 쪽은 U자형으로 늘이고, 양끝의 일부는 등 뒤로 넘겼다. 환옥과 속이 빈 금제구슬을 이어서 여섯 줄로 엮고, 네모기둥 모양의 금장식을 중간에 넣어서 가슴 쪽은 다섯 줄, 등 쪽은 세 줄이 되도록 고정하였다. 가슴 쪽과 등 쪽 끝에는 벽옥제 곡옥을 각각 한 점씩 매달았다. 부산광역시 북천동 15호분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목걸이는 청색 유리구슬과 호박구슬, 관옥, 비취 세 개, 마노곡옥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유물의 예가 거의 없다. 현대에 들어와 목걸이는 기성복의 일반화로 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목걸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초커choker: ‘숨이 막히다, 질식할 지경이다.’라는 뜻으로, 목에 꼭 맞게 감긴 짧은 목걸이를 말한다. 2. 개목걸이dog collar

necklace: 개의 목걸이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목에 꼭 맞는 형태로, 폭이 넓은 목걸이를 말한다. 3. 로프네클리스rope necklace: 롱 네클리스long necklace라고도 하는데 보통 가슴 부분이나 허리 정도까지 오는 길이의 목걸이를 말한다. 4. 소트와르 네클리스sautoir necklace: ‘소트와르’는 프랑스어로 여성용의 긴 목걸이란 뜻으로, 목에 여러 번 감는 긴 네클리스를 말한다. 5. 비브bib: 비브는 턱받이를 뜻하는 말로 앞 중앙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된 목걸이를 말한다. 6. 체인 네클리스chain necklace: 금속이나 띠로 고리모양을 만들어 연결한 목걸이를 말한다. 7. 팬던트 네클리스pendant necklace: 끝에 팬던트를 매단 목걸이를 말한다.

특징 및 의의 목걸이에 사용된 곡옥은 부적으로 애용되었으며 곡옥부 목걸이는 고구려, 백제에도 그 양식이 있지만 주로 신라, 가야 지역에서 주로 애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는 팔찌가 유행하여 목걸이를 별로 착용하지 않았으며, 조선시대에는 목걸이 대신 노리개로 앞 장식을 대신하였다. 현재에 이르러 목걸이는 장식의 간편함과 화려함으로 인해 다른 어떤 장신구보다도 애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삼국시대에 남녀 모두 착용한 것에 비해 현대에는 주로 여성들이 착용하며, 남자들의 경우 힙합패션hip hop fashion에서 특이한 금 체인목걸이로 특정집단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고분출토 부장품연구(윤세영,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천마총(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74), 한국복식사개론(김문자, 교문사, 2015), 황남대총 남분 발굴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3), 황남대총 북분 발굴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5).

필자 김문자(金文子)

목공단 木貢緞

정의 무명실을 사용하여 수자직으로 직조한 직물.

내용 목공단木貢緞은 무명실로 짠 공단이다. 목木은 무명을 뜻하며 공단은 견직물 가운데 수자직繻子織으로 직

조한 매끄럽고 윤기 나는 직물을 일컫는다. 목공단은 이러한 공단의 특성을 무명에 접목시킨 직물로 일반 면직물에 비해 표면에 광택이 나고 매끄럽다. 일본에서는 면수자綿繻子 혹은 면주자綿朱子라고 하는데 5매, 8매, 10매, 16매 수자직으로 제작했으며 8매 위수자緯繻子가 가장 많았다. 일본에서의 수출용은 폭이 30.5인치, 길이는 25야드나 30야드이며 염색하지 않은 생지生地나 염색을 하고 수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옷감을 일본에서 수입했는데 1936년 무렵에는 면수자를 포함한 각 직물이 국내에서 거의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되었다.



목도리

특징 및 의의 무명실을 사용하였으나 수자직이라는 조직의 특징을 이용하여 제작한 직물로 공단과 같이 곱고 광택이 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實用織物の研究(西村益者, 東京織物研究會, 1931), 織物大系(家事經濟社, 普文館, 1930), 조선면사포자급(동아일보, 1936. 1. 29).

필자 박윤미(朴允美)

목도리

정의 방한 및 장식을 위해 목에 두르는 긴 물건.

내용 여성이 긴 옷감을 목과 어깨에 걸쳐 늘였던 것은 통일신라시대 表褙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는 피백披帛·영견領巾·영포領布라고도 불렸다. 당나라 복식의 영향을 받은 장식품으로, 경상북도 경주 용강동龍江洞 출토 귀부인 토용土俑에서 그 착장 모습이 확인된다. 834년(흥덕왕 9)의 복식금제에 따르면, 신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표의 재료가 달랐다. 진골 여성의 경우 계屬·수繻를 금하고 금은사金銀絲·공작미孔雀尾·비취모翡翠毛는 허용하였다. 육두품 여성의 경우에는 계·수·금錦·라羅, 금은니金銀泥를 표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오두품 여성의 경우에는 능綾을, 사두품 여성은 견縵을 허용하였다. 이를 보면 당시에 표가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 매우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도리를 한 아이 | 엘리자베스 키스 | 연날리기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장식적인 표를 우아하게 두른 여성들의 차림은 고려 시대까지도 이어졌다.

방한용으로 사용되는 현대의 목도리는 근대 이후에 나타난다. 초기의 목도리는 주로 수입품으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으며, 벨벳·모직·견직 등으로 만들었다. 목도리는 당시 신여성의 상징물 중 하나였으며, 솔shawl이라고도 불렸다. 180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는 여우목도리나 털실로 짠 목도리가 유행하였는데, 당시 일본 유학생들이 귀국하면서 목도리의 유행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다. 1920년대에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목도리를 온몸에 두르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잡지 『신여성』에서 ‘목도리’라고 풍자할 정도로 당시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염상섭·나도향·안석주·변영로 등 다수의 문인들이 참가한 「여학생의 목도리 시비」(신여성, 1923, 10)에서도 목도리의 과도한 길이와 자극적인 색채가 문제시되었다. 1924년 3월 8일자 『동아일보』 만평에는 여섯 자 길이의 붉은 담요 같은 털실 목도리가 두루마기(圖衣) 겹, 장갑 겹, 모자 겹, 이불까지 될 수 있다고 평하였고, 이처럼 큰 목도리를 두른 여학생

의 모습은 당시 사진으로도 확인된다.

1930년대에 이르러 목도리(솔)는 밝고 옅은 색이 중심이 되었고, 레이스로 짠 솔도 등장하였다. 레이스 솔은 일본에서도 좋은 품질로 생산되었으며, 인조견으로 만든 것도 생산되었다. 『동아일보』 1932년 4월 24일 기사를 보면, ‘꽃철 목도리’의 색은 대개 연분홍색, 연옥색, 흰색이고, 가격은 길이에 따라 50전에서 1원까지라고 소개하였다.

상류층 부인들 사이에서는 여우목도리가 유행하였고, 가짜 여우목도리를 하고 다니기도 하였다. 1939년 경에는 벨벳 솔이 유행하였고, 스카프의 사용도 늘어나서 한복 두루마기에 스카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목도리는 근대 이후 등장하여 신여성들 간에 방한용을 겸하여 여성 장식품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것이 차츰 일반화되고 여러 목도리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방한모를 대신하였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근대적 패션의 풍경-모던 걸, 여우 목도리를 버려라(김주리, 살림출판사, 2005), 인쇄매체를 통해 고찰한 우리나라 근대 수편물(이정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한국여성양장변천사(유수경, 일지사, 1990).

필자 김지연(金知娟)

목판댕기

정의 댕기의 끝 부분이 판판하게 네모진 형태의 댕기.

내용 목판댕기는 댕기의 끝 부분이 판판하게 네모진 형태의 것으로, 판댕기와 같은 명칭으로도 일컬어졌다. 남녀 모두 땀은 머리끝에 드린 것으로, 제비부리댕기와 함께 결혼하기 전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댕기이다. 일반적으로 미혼 여성은 제비부리댕기를, 미혼 남성은 목판댕기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조선 후기 풍속화나 민화 등의 자료에서 확인해 보면 여성들도 목판댕기를 착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목판댕기를 드린 처녀들은 대부분 짐을 가지고 있거나, 빨래를 하거나, 밥상을 들고 있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처녀들은

머리를 빗는 방법에서부터 차이가 있어 귀밑머리로 반가의 구수처럼 귀를 가리지 못했고, 금박이나 댕기의 코 부분을 장식하는 것은 고사하고 댕기 끝이 네모난 목판댕기만을 사용하였다.”라고 언급한 기존 연구도 있는 만큼 미혼 여성들이 평상시에 목판댕기를 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서울·경기 지방 휘모리잡가 중에 온갖 종류의 비단을 나열한 <비단타령(緋緞打令)>이 있다. 이 가사 중에는 “여인 간에 사용하는 머리에 도는 월자 등물 비녀 석왕 판댕기 칠보단장 화관이며”라는 내용이 있어 당시 판댕기, 즉 목판댕기는 타령에도 언급된 것처럼 서민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착용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마도 조선 후기 당시에는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의 목판댕기를 사용하였고, 1910년대 이후 금박이나 옥장식을 더한 것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목판댕기의 색과 착용에 관하여 “처녀는 홍색, 총각은 검정색 댕기를 사용하였다.”라는 언급이 있으며, 가끔 조선 시대 풍속화와 같은 회화 자료에서 여성들이 검은색 댕기를 하거나 반대로 남성들이 붉은색 댕기를 드린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목판댕기 하고 있는 여종 | 김홍도 | 후원유연 중 부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특징 및 의의 목판댕기의 크기는 착용 연령에 따라 달랐으며, 일반적인 유물들을 살펴보았을 때 높이 약 107~168cm, 너비는 약 5~6cm 정도이다. 본래 목판댕기에는 장식이 없었으나, 이후 금박을 하거나 옥판·옥이나 칠보로 제작한 나비를 장식하기도 하였다. 그중 목판댕기 혹은 그 변형으로 추정되는 실물 자료가 고려대학교박물관에 소장 중이다. 이 두 가닥으로 된 홍색 댕기는 조선 후기의 유물로, 박물관 측에서도 그 용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한다. 길이는 94cm, 너비 5.5cm이며, 금박으로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여느 목판댕기와 같이 긴 댕기가 가운데에서 접힌 형상을 하고 있지만, 꺾인 부분에 길이 6cm 가량의 고리 달린 사각형 직물이 있으며, 그곳에서 두 댕기 자락이 드리워져 있다. 중앙의 사각형 직물과 고리를 제외한다면 전형적인 목판댕기일 것이며, 따라서 이 유물은 목판댕기가 변형된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문헌 댕기에 관한 연구(이승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복식류 명품 도록(고려대학교박물관, 1990), 조선시대 풍속화(한국박물관회, 국립중앙박물관, 2002), 한국의 미19-풍속화(중앙일보사, 1987).

필자 이호정(李祐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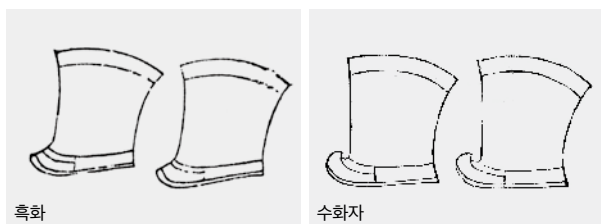
목화 木靴

정의 조선시대 왕과 관리들이 관복을 입고 착용한 신목을 길게 만든 신.

역사 화靴는 원래 북방의 기마유목민족이 말을 탈 때 벗겨지지 않고 활동하기 편하게 신목을 길게 만든 신이다. 이러한 화는 주변 민족들에게 보급되면서 원래의 활동복에도 사용되고 관복에 갖추 신는 의례용 신으로도 착용되었다. 우리나라의 화도 마찬가지로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주로 왕과 관리들이 관복冠服을 입고 착용하는 공적인 신으로 정착되었다. 여러 명칭의 화 가운데 목화木靴라는 신발이 있다. 한자 ‘木靴’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경상북도 영주 소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798년(정조 25) 목제齊齊 김용범金龍範이

문과에 급제하면서 지출된 내역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한자 어휘를 한글로 뜻풀이한 어휘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813년에 발간된 『아학兒學』에서 화靴를 목화화라고 풀이하였다. 그 이후 1856년의 『자류주석字類註釋』과 1908년의 『아학』에서 목화는 신목이 긴 신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 성리학자 이진상李震相(1818~1886)의 시문집인 『한주전서漢洲全書』와 『사례집요四禮輯要』에는 목화의 그림과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 “목화는 가죽을 사용하고, 두 겹 바닥은혜鞋와 같은데, 혹은 나뭇조각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위로 정강이의 반까지 찐다.”라고 하여 목화라고 부르게 된 이유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현존하는 화 유물은 『사례집요』의 목화 형태가 대부분이며 소재도 가죽보다는 우단 등 직물을 사용하여 만든 것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이유원李裕元(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 화 제작법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화자靴는 순전히 피물皮物로 하던 것이 뒤에 전靴으로 안감을 대고 외부는 청금선靑錦緞으로 둘러서 화 밖에 보이게 하고, 고급품은 금단錦緞으로 꾸몄으며, 근래의 신제新制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전체를 가죽으로 제작하다가 소재를 부분적으로 착용감이 좋은 직물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화는 1922년 『순종실록純宗實錄』의 고종 염습의 대殯襲衣褂에서도 나타난다.

수화자水靴子是 조선시대 무관이 용복戎服을 입고 갖추어 신던 화이다. 1726년(영조 2) “무신이 흑철릭을 입고 수화자를 신는 것은 활을 쏘고 걷을 때 편하게 하기 위함이며 효종 역시 일찍이 이것을 명하였는데 이제 모두 신기를 싫어하니 이상하다.”라는 내용이 있다. 1727년(영조 3)에도 무신의 수화자에 대한 논의에서 철릭을 입으면 수화자를 신어야 하고, 장복章服을 입으면 마땅히 향화項靴를 신어야 하므로 이를 격식으로 정하여 훈련도감과 어영청 대장 이하는 철릭에 향화를 신지 못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무관들은 철릭에 수화자를 신고, 장복 즉 단령에는 향화를 신는 것이 원칙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777년 이압李押은 연행록인 『문견잡기聞見雜記』에 수화자의 형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청인淸人이 신은 수화자에 대하여 “위아래 신분 모두 수화자를 신는데 그 아가리가 길고 좁아서 벗고 신기에 매우 곤란하나, 대개 행보에 편한 것



흑화 수화자 | 진찬의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목화 | 높이 280 길이 260 너비 7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을 취한 것이다. 신바닥은 천을 접어서 만들었는데, 극히 두껍고 단단하여 비록 진흙길을 걸어도 스며들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비록 청인의 것이지만 활동에 편리하게 좁게 만들고 습기가 스며들지 않게 제작하는 것은 조선의 수화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수화자의 모습은 여러 『진연의궤進宴儀軌』와 『진찬의궤進饌儀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유락船遊樂(궁중 행사에 쓰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악과 무용인 향악정재의 하나) 여령女伶(조선시대에, 궁중에서 베푸는 각종 잔치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던 여자)들이 철릭에 흑공단으로 만든 수화자를 착용하게 되어 있으며, 그 모습 또한 그려져 있다. 그와 함께 흑화의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형태의 차이가 있다. 수화자의 바닥 앞부분이 흑화보다 들리고 길이가 더 길어 보행에 편하게 제작한다는 기록에 부합된다. 그리고 소재와 관련한 기록으로 1752년(영조 28)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어영청에서 검정색 목면수화자를 제작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무관들이 신는 수화자는 실용적이고 착용감이 좋은 목면木綿으로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목화는 조선 후기에 왕과 관리들이 관복을 입고 착용한 흑색의 신이었다. 관복은 일반 서민들에게 혼례복으로 허용되어 관직이 없는 이들도 혼례 때에는 흥배가 달린 단령을 입고 목화를 신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목화라는 용어는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적어도 18세기 말 무렵에는 기록에 등장하는데, 그 이후로 ‘화靴’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헌의 그림에 표현된 목화의 형태는 밑창이 지면과 수평을 이루고 신목의 길이가 정강이 정도로 그 이전의 화보다는 짧은 편이다. 현존하는 목화 유물의 형태와 흡사하다. 유물의 소재를 살펴보면 밑창은 가죽을 대었고, 외피外皮는 대부분 흑색 우단이며 내피內皮는 흰색 융絨으로 된 것들이 많다. 신목 입구는 자주색이나 홍색 모전毛氈으로 도리를 둘렀으며, 왕실 및 상류층에서 사용한 목화의 경우에는 녹색 비단 금紵를 달았다. 신목 뒤쪽에는 트임을 넣었다. 앞 중심선에 흑색이나 흰색의 가죽 끈을 달아 안으로 길게 빼 주었다. 한편 수화자는 철릭과 같은 용복에 갖추어 신던 화이다. 활동하기에 편하도록 목화보다 길고 앞쪽 신발 바닥이 위로 들렸다. 문헌에 목면으로 제작된 수화자의 기록이 보인다. 실제 유물 가운데 청색 면직물로 만든 앞쪽 밑창이 위로 들린 화靴가 존재한다.

특징 및 의의 목화는 목이 긴 신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써 온 명칭이다. 목화라는 용어는 문헌으로 찾아보았을 때 거의 19세기 무렵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그려진 목화의 모습은 조선 초기 화의 모습과는 다르게 길이가 짧아지고 밑창이 바닥과 수평을 이루게 제작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나무를 재료로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 신이거나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이라는 뜻의 목화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김집승흥배와 함께하는 17세기 무관 옷 이야기(이은주·조효숙·하명은, 민속원, 2005), 조선시대 남자용 혁·포제 신에 관한 연구(곽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조선시대의 신(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2016), 한국인의 신발, 화혜(최공호 외, 미진사, 2015), 화혜·리(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필자 곽경희(郭京熹)

몸빼

정의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여성 노동복으로 나온 바지꼴의 아래옷.

개관 몸빼는 태평양전쟁의 전황戰況이 악화되자 일제가 ‘국가총동원법(1938)’과 ‘비상시 국민생활개선키준(1939)’ 등을 거치며 여성들에게 부녀회·노동·방공 훈련 등을 받을 때 ‘부인 표준복’으로서 입기를 강요한 옷이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전시체제 때는 여학생에게까지 몸빼입기를 강권強勸하지만, 일부 여학교에서 끝까지 반대하여 흑색바지나 주름치마를 입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활복으로 국민복화國民服化를 권장하다가 1941년에는 ‘대성전大聖戰 만오년에 조선 여성의 결전생활決戰生活, 스란치마 벗고 늠름한 몸빼복’ 등을 외치며 차츰 전시용戰時用으로 강제성을 띤다. 1943년에는 실용성까지 강조하면서 ‘긴치마를 벗고 몸빼로 나서자. 싸움에는 두 뭇’, ‘사치스러운 몸빼 모양만 찾는 것은 안 되며, 수수하고 활동적인 것’, ‘같은 값이면 모양 있게 통상복으로 입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면서 더욱 과감하게 강제성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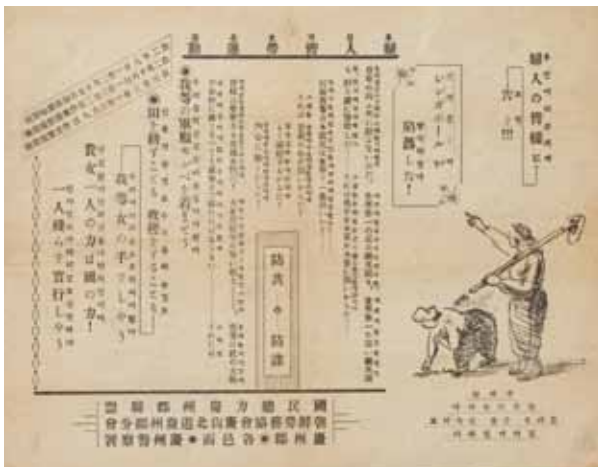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막바지에는 ‘왜색일소倭色一掃’를 강조하면서 ‘몸빼 벗기’ 등 일제의 잔재를 없애자는 운동이 벌어진다. 그러나 “빨래할 때는 십상이야. 구공탄 만지는 데는 그만이야.” 하면서 일부 여성 측에서 필요에 의해 애용되었다.

내용 몸빼는 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둘 다 현대 서양식 바지처럼 몸체와 가랑이로 나뉘는데 통은 현재 서양 것보다는 넉넉하면서, 허리나 부리에 단이나 고무줄로 조였다. 첫째, 초기初期 것은 허리 여밈 방법이 다르다. 조선시대 여자 속옷처럼 허리에 단을 대고 주름을 잡아 끈을 달았다. 허릿단 너비는 4~5cm쯤이며, 허리 옆선은 한쪽 또는 양쪽 좌우를 뒀다. 허릿단은 끈을 앞뒤로 달아 입을 때는 앞판 것을 먼저, 뒤의 것을 다음에 맨다. 옷을 벗거나 변便을 볼 때는 앞으로 맨 뒤쪽의 끈을 풀었다. 부리의 단도 덧단을 대고 주름을 잡았다.

둘째, 후기後期 것은 허리끈이 없어지면서 간편하게 허리나 부리에 고무줄을 넣었다. 몸빼를 입을 때 상의上衣는 적삼赤衫이나 저고리였는데 이 옷들엔 길이가 짧아 허리가 드러나므로 ‘가슴싸개’로 가리다가, 서양 옷이 들어오면서 길이가 긴 ‘블라우스’로 바뀐다.

훈련에 동원되었던 지방의 노인들 사이에는 “시숙이나 시아버지 앞에서 가랑이가 좁은 몸빼를 입고 손을 번쩍번쩍 쳐들고 호령을 지르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민망스러워서 혼났다. 시아버지께서 ‘젊은 년들이 갈 구쟁이 쳐들고 운동장 돌아다닌다.’라고 매우 역정을 내셨다.”라는 경험담들이 많다. 또한 갑자기 일이 생겨 ‘기차’를 탈 때는 눈속임으로 치맛자락 양쪽을 두 가랑이 사이로 끌어올려 끈으로 매고 바짓가랑이처럼 벌여지게 만들어 통과하기도 했다고 한다. 제주濟州에서는 크고, 입고 벗기 복잡한 감물(시즙柿汁) 들인 ‘갈굴종이’ 대신에 일할 때는 몸빼에 감물을 들인 ‘갈몸빼’를 선호選好하였다.

특징 및 의의 몸빼는 여성용 ‘하의’라는 점은 공통이지만, 조선시대 것과는 모양이나 격格이 다르다. 조선시대 여성의 하의는 겉에는 넓고 길며 한쪽이 트인 긴 치마를, 속에는 계층 및 용도와 계절에 따라 색·재료·바느질기법·크기 등 매우 다른 바지들을 입었다. 따라서 ‘몸빼 입기 강요’는 내외內外 개념이 강한 신분이 높거나 완고한 집에서는 받아들이기 수 없는 매우 난처한 일이었다. ‘가랑이가 벌어짐’은 일할 때는 물론이지만, 걸을 때도 매우 수치스럽고 거북스러운 행위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부하는 여성들에게 비국민적이며, 사치와



부인들에게 몸빼를 입고, 생산 활동에 전념하도록 권하는 문서 | 1942 | 국립민속박물관



몸빼 입고 배추 모종 심기 | 전남 장흥 | 2010 | 국립민속박물관

허영이라 하여 입기를 강요함으로써 세대에 동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몸빼 입기’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물자와 기술 부족으로 의료衣料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전통 속옷보다는 옷감이 적게 들고, 노동이나 활동하기에 간편하여 얼마동안 서민층에 정착된다. 특히 노인층에선 허리를 덮은 긴 서양의 윗옷 블라우스와 함께 1세기 동안 이어온 역사의 산증거물로 지금도 남아 있다.

참고문헌 경상도의 의생활(고부자, 경상도칠백년사3, 경상북도·경상도칠백년사 편찬위원회, 1999), 우리생활 100년·옷(고부자, 현암사, 2001), 의생활민속(고부자, 금강지·하, 충청남도·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3), 일제 말 전시체제기 여성에 대한 복장 통제(안태운, 사회와 역사74, 한국사회사학회, 2007), 한국민속 종합조사보고서17-의생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매일일보, 조선일보.

필자 고부자(高富子)

몽두리

蒙頭里

정의 궁중 연향에서 착용하는 여령의 정재복모才服이며, 기행나인의 복식, 궁중 여관의 상복喪服으로도 착용된 낮은 신분의 부녀용 겉옷.

역사 몽두리蒙頭里는 주로 궁중 여령女伶과 기행나인 및 하급 궁녀와, 낮은 신분의 여인에 의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착용되었다. 이는 다음 기록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1412년(태종 12)의 궁녀 및 상기上妓(나라의 정

재 때 춤을 추는 기녀) 외에 서인庶人의 부녀와 종비從婢·천례賤隸 옷을 몽두의蒙頭衣로 착용케 하자는 사헌부의 상소 기록이 있다. 1535년(중종 30) <중묘조서연관사연도中廟朝書筵官賜宴圖>에서 관찰되는 여기女妓들의 황색외의外衣 및 이형상(1653~1733)의 『병와집瓶窩集』에 기록된바, “중첩衆妾의 배자는 관기官妓가 착용하는 황색의 몽두리로 소매가 짧고 직령으로 저금底襟이 없다.”라고 한 자료, 그리고 1848년(헌종 14)의 『무신진찬의궤戊申進饗儀軌』 악기풍물조의 검기무여령 황색 몽두리에 대한 기록도 있다.

내용 궁중정재宮中呈才에서 여기가 착용하는 반수대금형半袖對襟形의 황색 몽두리는 여령 황초삼黃綃衫인 것으로, 정조19년(1795)의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이후 14건의 궁중진연 관련 의궤 기록과 7건의 도병圖屏에서 반수대금형 몽두리 형태의 황초삼이 관찰된다.

황초삼은 반소매의 쏘이 없는 대금형으로 배자의 형제形制인데 『삼재도회三才圖會』의 배자 도설에 따르면 배자의 제도는 소매가 삼衫보다 짧은 합임으로 길이는 삼과 같다 하여 여령 황초삼의 형태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첩의 배자는 관기가 착용하는 황색의 몽두리”라고 한 『병와집』과 “육상六尙 이하의 여관은 상복喪服으로 배자, 개두蓋頭, 두이頭爾, 포대, 소혜素鞋로 일습을 갖추며”, ‘배자’는 “본국의 몽두의”라 부기한 『세종실록世宗實錄』 흥례凶禮의 기록을 통해 반소매 대금형의 몽두리는 황초삼과 동일형제同一刑制의 복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황초삼은 황초단삼黃綃單衫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원행을묘정리의궤』의 황초삼 <복식도服飾圖>에 나타난 18세기 대금형 몽두리의 형태는 짧고 좁은 소매와 넓은 무가 특징이다. 이는 18세기 말의 작아진 저고리, 커진 치마의 형태가 몽두리에도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매는 좁으며, 큰 치마로 인한 넓은 무는 옆트임의 분량만큼 무의 사선 각을 깎아 내어 처짐을 보완하고 있다. 19세기에는 『기사진표리의궤己巳進表裡儀軌』(1809)를 제외하고 이러한 작은 무가 사라지고 소매가 넓어지며 『무신진찬의궤』(1848)부터는 무가 없고 옆트임이 강조된 형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황초의

금향협수

몽두리 | 무신진찬의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한제국에 선행된 네 번의 궁중 연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조선 후기 몽두리는 합임 외에 직령교임直領絞衿이 나타난다. ‘협수夾袖’라는 검기무여령복식이 몽도리蒙道里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신진찬의궤』(1848)에 수록된 검기무劍器舞의 경우 <복식도>에서는 금향협수金香狹袖로 기록되어 있고, 그 소입재所入材를 기록하는 악기품물조에서는 동일 품목을 몽도리로 기록되어 있다. 사용된 옷감 품목과 양을 비교하여 보면 의궤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금향협수와 같은 양의 옷감을 사용하여 만든 동일형제의 복식임을 알 수 있다. ‘협수’는 소매가 좁은 직령교임의 군복용 포袍이다.

이러한 직령교임의 몽두리는 궁중에서 기행나인의 복식으로도 착용된 것인데, 정미년 『순화궁가례시절차順和宮嘉禮時節次』(1847)에 기행나인 4인의 복식으로 ‘홍몽도리’ 한 쌍과 ‘황몽도리 한 쌍이 있다. 인조 장렬후(1638)부터 고종 명성후(1866)까지의 『가례도감의궤』의 동일 항목 기록에 ‘황장삼黃長衫’과 ‘홍장삼紅長衫’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궁중에서는 기행나인의 장삼을 몽두리라고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숙종 인현후 『가례도감의궤』(1681) 반차도에는 기행나인이 홍색과 황색의 포를 착용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순화궁가례시절차』의 기행나인 복식 기록과 일치한다. 따라서 궁중 기행나인의 몽두리에는 홍색과 황색의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몽두리는 몽두의蒙頭衣, 몽두리蒙頭里, 몽도리蒙道里 등으로 기록되며,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궁중의 여기와 여관 및 일반의 낮은 신분의 부녀도 착용한 포제袍制이다.

반소매 대금형 몽두리에는 배자, 황초삼, 황초단삼이 직령 교임형 몽두리에는 협수, 장삼長衫이 이칭異稱, 동일형제의 복식으로 나타난다.

참고문헌 戊申進饌儀軌, 園幸乙卯整理儀軌, 朝鮮王朝實錄, 조선시대 몽두의에 관한 연구(박성실, 복식55-8, 한국복식학회, 2005), 조선시대궁중진연복식(김경실, 경춘사, 2003), 조선왕조궁중의궤복식(유송옥, 수학사, 1991), 조선후기궁중연향문화3(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원, 2005).

필자 김경실(金京實)

몽수 蒙首

정의 고려시대 여성들이 머리에 써서 온몸을 가리던 검은색 쓰개.

역사 몽수蒙首를 쓰는 풍습에 대한 문헌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시대의 것이지만, 얼굴이나 몸을 가리는 유형의 것은 통일신라시대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얼굴을 가리는 폐면蔽面 관습은 고대 서아시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서역西域과 당唐나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먹리羃羅와 유모帷帽가 유행하였고, 이것이 통일신라에까지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얼굴을 가리는 쓰개 착용의 관습은 중국에서 당 태종 이후 점차 쇠퇴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송宋나라의 고승高僧이 저술한 『사물기원事物紀原』에 자색 면의面衣를 여자들이 멀리 나갈 때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이후에는 혼례 때 신부의 얼굴을 덮는 목적 혹은 상례喪禮에 착용하는 쓰개로 남아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 몽수에 대한 기록은 송나라 사신인 서경徐兢이 고려에서 돌아간 후 저술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여러 곳에 몽수에 관해 서술한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귀부조貴婦條에는 몽수에 대하여 “검은색의 라羅로 만드는데, 세 폭에 여덟 자 길이로 정수리부터 내려뜨려 다만 얼굴과 눈을 내놓고 끝이 땅에 끌리게 한다.”라고 기록하였다. 이로써 몽수가 검은 색 얇은 비단으로

만들었고, 머리부터 온몸을 충분히 가리고도 남을 정도로 긴 쓰개였음 알 수 있다. 몽수의 가격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천사조賤使條에는 가난한 집에서는 다만 몽수가 없는데 그것은 그 값이 은銀 한 근과 맞먹어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며, 금제禁制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몽수가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값비싼 쓰개였으되, 그렇다고 신분을 상징하는 쓰개는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다. 비첩조婢妾條에서도 백성의 처나 잡역에 종사하는 비婢나 비슷한 복식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일하고 구실을 들기 때문에 몽수를 아래로 내려 뜨리지 아니하고 정수리에 접어 올린다고 묘사하였다. 즉 신분이 낮은 여성도 몽수를 하였고 얼굴은 드러내고 다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기조女騎條를 보면, 공경귀인公卿貴人의 처가 출입할 때는 말꾼과 함께 말을 타는데 머리에는 검은색의 띠로 만든 몽수를 덮어쓰되 나머지 끝자락을 말 등에 내려 드리우고 띠를 받쳐 썼다고 묘사하였다. 서국은 이러한 모양새가 마치 당唐에서 유행하였다는 맥리와 유모의 남은 풍습 같다고 평하고 있다. 『고려도경』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당시의 몽수는 유교의 내외법에 따른 풍습이 아니라 새로운 유행으로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사高麗史』 권85에는 노의露衣와 입첩笠檐은 양반 처의 교외郊外 의복인데 이제 농부와 노예의 처까지도 또한 모두 이것을 입으므로 존비의 차별이 없으니 이제부터 일체 금단禁斷하고 이를 어기면 죄를 논한다고 하였다. 즉 몽수가 점차 신분의 차이를 두는 수단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려사』 열전 권43을 보면 정화鼎和의 처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다니다가 봉변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여성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쓰개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한다고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습은 조선시대로 가면서 점차 유교적인 생활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지켜지게 되었다.

특징 및 의미 몽수의 정확한 형태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부분을 접어 올려 머리 위에 얹을 수 있고 말을 탈 때 착용한 것을 고려하면 조선시대의 너울과 비슷한 형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일을 할 때도 머리 위에 접어 올리고 착용했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안에 입

자笠子를 넣지 않고 착용할 수도 있는 형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문헌 高麗史, 宣和奉使高麗圖經, 여성 쓰개의 역사(홍나영, 학연문화사, 1995).

필자 홍나영(洪那英)

무명

정의 목화에서 뽑은 실로 제직된 전통 면직물.

내용 면직물은 순수하고 검박하며, 위생적이어서 인류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의복의 재료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용품의 소재로 가장 널리 애용하는 천연 식물성 섬유 직물이다. 우리나라에서 면직물을 제직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며 당시에는 백첩포白疊布라고 불렀다. 『한원韓苑』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백첩포를 만드는데 청포靑布가 특히 아름답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 경문왕조(869년)에는 당나라로 “사십승백첩포四十升白疊布 40필”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까지 출토된 가장 오래된 연대의 면직물은 충청남도 부여 능산리 사지에서 발견된 백제시대의 면직물이다. 직물은 평조직으로 제직되었으며, 위사緯絲에 좌연左撚과 우연右撚의 강연사를 사용하여 표면에 추문皺紋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면의 재배가 본격화된 것은 고려 말 1363년(공민왕 12) 문익점文益漸(1331~1400)이 교지국交趾國에서 새로운 면 종자를 반입하면서부터이다. 교지국은 현재의 베트남 지역으로 민광 지역과 더불어 일찍부터 목화를 재배하고 면직물을 제직하였다. 고려시대 면직물 유물은 안동 태사묘에 소장된 신발의 안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유물은 고려 공민왕이 하사했다고 전해진다.

문익점이 반입한 면 종자는 국내의 기후와 토양조건에도 적합하여 면직물 재배는 반세기도 못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인 1398년(태조 6)의 기록에는 “여남은 개 씨앗 중 선생이 뿌린 것은 실



무명



무명 국립민속박물관

무명

패하고 정천익에게 건네 준 것 중 겨우 한 알만이 성장하여 그해 가을에는 씨앗 300여 개를 얻어 매년 그것을 늘려 나가다 1367년(공민왕 16) 춘분에는 향리 사рам들에게 씨앗을 나누어 재배하게 하였다. 또 호승(胡僧) 홍원(弘願)의 힘을 빌고 가비(家婢)로 하여금 실을 뽑고 무명 짜는 기법과 도구(器具) 조작법을 터득하게 하여 무명 한 필을 짜내기에 성공하였다. 이윽고 이웃들과 서로 배우고 익히게 되어 10년이 못 가서 목화의 재배, 무명 짜기의 기법은 향내에 퍼지고, 또 10년이 못 가서 일국 안에 번져 나갔다.”라고 하였다.

고려시대 1398년(공양왕 3)에는 백성에게 혼수용으로 값비싼 견직물 대신 무명을 쓰라고 영을 내렸으며, 조선시대 1401년(태종 1)에는 백성 상하가 모두 면직물을 입게 되었다는 기록이 『태종실록(太宗實錄)』에도 있어 조선 초기에 이미 면의 재배가 확산되고 의료(衣料)로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면직물은 목(木)·면포(綿布)·목면(木棉) 등으로 문헌에 기록되었으며, 일반적으로는 ‘무명’ 또는 ‘미명(명)’으로 불렸다. 정련의 유무에 따라 정련하지 않은 면은 생목 또는 생목면이라고 했으며, 잣물에 마전하여 햇볕에 하얗게 바랜 것은 백목, 백목면이라고 했다. 백목뿐만 아니라 천연의 갈색을 띠는 황목(黃木)이 있었으며, 30~40년 전까지도 전라도 일대에서 제직되었다. 전체를 황색으로 짜기도 하고 날실 또는 씨실에 백면사와 황면사를 섞어 줄무늬를 짜기도 했다. 나주에서는 황목을 ‘노랑미명’이라고 한다.

섬세한 정도에 따라 34승·21승·13승(삼승三升이라고도 함)·11승·10승·9승·8승·7승·6승·5승으로 나뉜

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가 가장 섬세하게 제직하는 것이 11승 정도이므로 34승, 21승의 면포는 가히 ‘공기와 안개 같은 면직물’이라고 표현할 만큼 고운 무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직기를 이용한 직문(織紋)의 면직물을 제직한 기록은 없으나, 축면(織面)을 짠 기록은 있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전공지(展功志) 권3에는 “중국의 면포는 운화사문상안(雲花斜文象眼) 등의 무늬가 있다. 동인(東人)은 방차로 실을 자을 때 좌측으로 돌리면 좌사(左絲)가 되고 우측으로 돌리면 우사(右絲)가 되니 좌우사(左右絲)를 서로 경사와 위사로 하여 짜니 무늬가 생긴다.”라고 하였다.

『궁중발기(宮中撥記)』에 기록된 세목(細木)으로 이름난 고장은 경주·창원·상주·진주·밀양·거제·거창·하동·고성·초계·청도·영천·예천·금산·함양·함천·영덕·개성·의령·문경·고령·현풍·영일·창령 등이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고양(高陽)의 세면포가 『규합총서(閨閣叢書)』에는 문경의 세목이 유명하다고 했다.

조선시대 면직업은 국내의 수요를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수출할 정도로 발달하였다. 세종 즉위년인 1418년에는 일본에 1,539필의 면포를 수출하였고, 차차 그 수량이 늘어 1423년(세종 5)에는 2,640필의 면포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중국에 예물로 보낸 면포의 종류에는 백목면(白木綿)·생목면(生木綿)·세목면(細木綿)·각색세목면(各色細木綿)·각색세면포(各色細綿布)·생상목(生上木) 등이 있다.

조선시대 육의전(六矣廛) 중에는 면포전(綿布廛)이 있어 면포를 전담 판매하였으며 후에는 백목전(白木廛), 은목전(銀木廛)이라고도 하였다. 『임원경제지』의 통계를 인용하면 출시되는 상품이 기록된 324개의 시장 중 면포는 240개소, 삼베는 139개소, 주(紬)는 60개소, 모시는 40개소이다. 조선 후기 시장에서 면직물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에 오면서 기계직 면포인 광목·옥양목 등이 대량 수입되고, 국내에서도 기계직 면포의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재래의 수공 면직물의 생산은 점차 줄어들게 되어 근래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에서는 무명 짜기의 전승을 위하여 1969년 전라남도 나주 지역의 셋골나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

정하고 기능보유자로 김만애를 지정하여 그 기능을 전승하게 하였다. 그 뒤를 이어 며느리인 노진남이 계승하였으나 2017년 별세하였다.

특징 및 의의 면직물은 천연섬유 중에서도 가장 인간 친화적이며 위생적인 직물로 고대에서 현대까지 의복의 재료뿐 아니라 생활용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섬유의 특성이 무기교하고 검박하여 사대부에서 일반 백성까지 상하 구별 없이 우리 민족이 가장 즐겨 입은 옷감이다.

무명은 춘하추동 어느 계절에나 사용할 수 있고 빨래하기 손쉬운 의복 재료로 수요가 많았다. 오늘날에는 간혹 무명의 질감을 좋아하여 응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명 대용으로 광목, 옥양목이 쓰인다. 이 직물들은 이불이나 홀이불로나 쓰일 뿐이며 옥양목은 여인들의 상복으로나 쓰이는 현실이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무명은 남자들의 겹바지, 또는 숨을 넣은 저고리·조끼·두루마기·홀바지·적삼과 여인들의 치마·저고리·적삼·속바지·단속곳·두루마기 감으로 쓰였다. 아주 고운 무명은 연옥색 또는 분홍으로 물들인 명주로 안을 받쳐 치마를 지어 입기도 하였다. 무명옷의 안감으로 명주가 많이 쓰인 것은 겉으로 보이기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귀중히 여길 줄 알았던 우리 민족의 의생활 방식의 일면이다.

참고문헌 林園經濟志, 閨閣叢書, 五洲衍文長箋散稿, 宮中撥記, 나주셋골나이(심연옥,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통옷감(민길자, 대원사, 1998), 한국직물오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 2002).

필자 심연옥(沈蓮玉)

무복 巫服

정의 굿을 연행할 때 무속인이 굿거리에 따라 착용하는 일종의 종교복식.

내용 무복巫服은 굿을 행하는 지역과 굿의 종류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는데 강신무降神巫와 세습무世襲巫, 강신무와 세습무 혼용으로 나뉜다. 강신무복은 서울·중

부지역 강신무가 착용하는 무복이고, 세습무복은 호남·남부 지역 세습무가 착용하는 무복이며, 강신무복과 세습무복의 혼용을 나타내는 제주와 경상·충청 지역으로 분류된다. 강신무는 굿거리마다 모시는 신을 달리 표현하려고 굿거리마다 다양한 무복을 갈아입는다. 서울 지역의 강신무가 착용하는 무복 종류나 구성의 근거는 굿거리를 그린 『무당내력巫堂來歷』(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을 통해서 확인된다.

자료에 따르면 무복은 제차를 12거리로 나누고, 굿거리에 해당하는 무복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부정거리不淨巨里에서 강신무는 평상복 차림을 하는데, 저고리의 수구와 깃에는 홍색 회장을 댄 반회장 황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착용하였다. 제석거리帝釋巨里에서 강신무는 고깔을 쓰고 백색 장삼을 착용했으며, 어깨와 가슴에 붉은색 대를 맨다. 불교를 상징하는 승복을 착용하여 불법승을 상징하였다. 대거리大巨里에서는 주립을 쓰고 남색 철릭을 입었으며, 홍색의 광대廣帶를 가슴 부위에 댔다. 호구거리戶口巨里에서 강신무는 면사를 쓰고 홍색 삼회장의 황색 저고리에 홍색 치마를 착용하였다. 별성거리別星巨里에서 강신무는 전립을 쓰고 홍색 소매가 달린 동다리를 입었으며 그 위에 흑색의 전복을 착용하고 가슴에는 청색의 대를 하였다. 감응청배感應請陪에서 강신무는 엷은머리에 녹색 장의長衣를 입고, 그 밑에 백색 속바지와 남색 치마를 입었다.

조상거리祖上巨里에서 강신무는 소매가 좁은 녹색의 포袍를 착용하고, 포 밑에는 백색의 속바지를 입는다. 남색치마 위에 백색의 대가 늘어져 있다. 만신말명에서 강신무는 수구가 넓은 황색의 몽두리를 입는다. 어깨 부위에는 홍색의 잣 무늬가 있고, 가슴 부위에 붉은색 대帶를 댔다. 구릉거리에서 강신무는 홍색 철릭을 입고, 청색 전대靑戰帶를 댔다. 성조거리成造巨里에서 강신무는 소매가 넓은 색동 원삼을 입었다. 창부거리唱婦巨里에서 강신무는 홍색 저고리에 녹색 치마를 입으며 흑색 쾌자를 입었다. 뒷전에서 강신무는 홍색 저고리에 녹색 치마를 입었다. 중부 지역인 서울 강신무의 경우에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춤이 추어지고 신이 내려 공수하는 과정에서 무속인은 거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포를 갈아입는다. 각 지역에서 착용하는 무복의 종류와 형태는 다양한데, 그중 무복의 종류가 가



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다. 굿거리에서 무속인이 평상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굿의 집행자로서 예비상태를 알리는 것이다. 무속인이 거리마다 해당 신의 의복을 입어 신이 내려왔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때 무녀가 착용하는 외의에는 무복 장삼·무복 원삼·무복 철릭·무복 동다리·무복 몽두리로 전통복식의 포裱이며, 이러한 무복을 갖추어 관모나 장신구를 착용한다. 무속인이 신을 모셔 놓고 연행하는 거리는 시기나 목적, 규모에 따라 다르다. 모시는 제신에 따라 무복의 유형이 다르고, 명칭 또한 다를 수는 있으나 착용하는 방식에는 기본형이 있다.

강신무가 굿거리에 따라 착용하는 무복은 무속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무복 철릭은 조선시대 융복으로 정착되어 전쟁 중에는 공복으로 착용하였다. 이는 굿거리에서 최영 장군이나 억울하게 죽은 문무백관의 신을

상징한다. 무복 장삼은 불교복식으로 출산을 관장하는 신이나 불법승을 상징하는 거리에서 착용한다. 무복 원삼은 궁중에서 왕비나 공주가 착용했던 궁중 여성의 복식으로 굿거리에서 가옥을 관장하고 가정을 지키는 신을 상징한다. 무복 몽두리는 무업을 하다가 죽은 무속인의 조상신을 상징한다. 무복 동다리는 조선시대 구군복으로 높은 벼슬을 했던 무관의 훈령을 상징한다. 이처럼 강신무가 무복으로 착용하는 외의에는 굿거리의 의미를 전달하고 주신을 대변한다. 무속인이 착용한 무복원삼에는 화관을 쓰고, 무복 장삼에는 종이 고깔이나 천고깔을 쓴다. 무복 철릭에는 흑립을, 동다리에는 병거지를 착용한다. 이는 조선시대 궁중복식을 착용함으로써 무녀를 신격화하며, 무녀를 통해서 신의 행위를 설명하는 상징이 된다.

반면 강신무와 대조를 이루는 세습무는 호남지역에서 연행하는 굿으로 신을 상징하는 무복을 착용하기 보다는 무가와 춤사위로 굿거리 성격을 나타낸다. 호남 지역 굿의 종류는 명칭이 다양한데, 대부분 죽은 사람의 혼을 위로하는 찢김굿이다. 남부 지역에서 세습무가 착용하는 무복은 서울이나 중부 지역과 달리 각 거리에서 무복의 종류가 단순하다. 호남 지역 무복에 대한 문헌상 기록이 <제석굿무가> 외에는 남아 있지 않는데, 점과 굿이 진행되는 동안 무복 장삼 외에는 서민들이 평상시에 착용했던 전통복식인 무복 바지·무복 저고리·무복 치마만을 무복으로 단순하게 착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습무 지역도 굿의 종류나 무속인의 성향에 따라 강신무와 세습무가 함께 참여하면서 세습무복도 종류가 다양해졌다. 일반적으로 무복이 전통복식인 무복 바지, 무복 저고리 외에도 다양한 외의外衣인 포와 관모를 착용한다.

강신무와 세습무가 혼용된 제주도나 경상·충청 지역에서는 현재 굿의 종류에 따라 무복 바지·무복 저고리·무복 장삼·무복 쾌자·무복 동다리·무복 두루마기·무복 철릭 등에 외의인 포에 해당하는 관모나 대를 착용한다. 이러한 무복은 현재 신복神服으로 간주되지만, 굿거리 현장에서만 입는 고유한 특수 복식이 아닌 과거 전통복식에서 차용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굿거리에서 착용하는 무복은 무속 문화의 환경적 변화로 구매나 관리 방법이 간편해졌다. 현대인의 감성을 중요시 여기면

무복

무복



바리공주 신장을 한 무녀



말명 신장을 한 무녀



산마누라 신장을 한 무녀



제석 신장을 한 무녀

서 현대 한복 형태나 색상 등 유행에 민감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1. 서울 진적굿: 서울 인왕산 입구에 위치한 굿당인 국사당에서 진적굿을 연행하였다. 진적굿에서는 주무를 포함하여 여섯 명이 참여하였는데, 무속인들이 착용하는 무복의 종류는 다양하였다. 굿거리마다 무속인이 착용하는 다양한 포는 황색 무복 몽두리, 색동 무복 원삼, 백색 무복 장삼, 남색 무복 철릭·홍색 무복 철릭·자주색 무복 철릭, 황색동이 달린 무복 동다리, 남색 무복 쾌자로 갖추어 입어 무속인을 신격화하였다. 다양한 무복인 포를 착용할 때는 머리에 쓰는 관모나 장신구도 굿거리에 따라 무복과 일습을 이루었다. 진적굿에서 무복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이다. 굿을 준비하는 초반부인 부정청배에서 무속인은 무복 저고리와 무복 치마를 입었다. 중반부에서는 굿거리의 신을 상징하는 신격의 무복을 다양하게 갈아입었다. 후반부 뒷전에서는 무복 저고리와 치마만을 착용한다.

2. 경상도 오구굿: 경북 영덕에서 연행되었던 병곡 오구굿은 굿거리 과정에서 무속인들은 무복 치마와 무복 저고리를 기본 복식으로 착용하였다. 하지만 여느 굿과 달리 무속인들이 많이 참여하여 무복 저고리와 무복 치마는 다양한 형태와 색상으로 변화를 주어 착용하였다. 특히 병곡 오구굿에서 무속인들이 착용한 무복 저고리와 무복 치마는 색상과 소재가 다양하여 전체 굿거리에서 무녀가 착용하는 무복 저고리와 무복 치마는 크게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무복으로 무복 남자저고리·무복 바지·무복 조끼·무복 두루마기·무복 쾌자·고깔·대를 착용하였다. 대는 가슴에 두르는 넓은 대와 머리에 두르는 좁은 머리띠를 함께 착용하였다.

3. 호남 저승혼사굿: 전남 목포 가정집에서 연행되었던 저승혼사굿은 고인이 된 남편과 생전에 혼례식을 올리지 못한 부인이 저승혼사굿을 하기 위해 의뢰한 굿이다. 주무인 세습무가 굿거리 중에 하늘색 옷고름이 있는 백색 무복 저고리와 백색 치마를 착용하였다. 굿거리 연행과정 중에 제석거리에서만 무복 장삼을 착용하였는데, 무복 장삼은 소매가 없는 반비 형태로 반소매



① 몽두리(서울 도당굿) | 2014



② 철릭(서울 유두천신굿) | 2015



③ 쾌자(제주 용왕맞이) | 2015



④ 장삼(제석거리) | 2004

무복 | ① 서울 중랑구 | 김은정, ② 서울 노원구 | 김은정, ③ 제주 제주시 | 김은정, ④ 서울 노원구 | 국립민속박물관

를 두 겹 접어 착용하였다. 머리에는 창호지로 접은 고깔을 썼다. 굿의 성격에 따라 저승혼사굿에서는 허재비를 만들어 망자를 형상화하였다. 무속인이 짚으로 만든 허재비에 전통 혼례식에 착용하는 남자 혼례복인 단령·사모·마고자·저고리·바지·저고리를 입혀 굿을 연행하였다. 종장인 중전에서 무속인은 백색 무복 저고리와 무복 치마만을 착용하였다.

4. 제주도 성주굿: 제주의 성주굿은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재현하면서 무속인이 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겸한 굿으로 무복을 착용하는 과정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었다. 성주굿에서 착용하는 무복은 중부 지역의 강신무처럼 다양한 무복을 착용하거나 남부 지역 세습무처럼 백색 한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주무만이 무복을

소지하였고 거리에 따라 달리 착용하였으나 무복은 다양하지 않았다. 굿거리 과정에서는 백색 무복 저고리와 무복 바지를 기본으로 백색 두루마기, 무복 꽤자만을 입었다. 그 외 색동대대인 흉대(가슴띠)를 하였고, 목에는 노란 끈으로 목 띠를 둘렀다. 머리에는 탕건을 쓰고 그 위에 흑색 갓을 썼다. 그 외 굿 연행에 참여한 다른 무속인은 무복으로 진분홍색 무복 두루마기나 평상복만을 착용하였다.

특징 및 의의 현재 굿거리에서 착용하는 무복은 권위와 위엄의 상징체제로 활용되어 전통복식의 형태가 지속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다양한 포를 착용하는 강신무는 무복 장삼, 무복 철릭, 무복 몽두리, 무복 원삼, 무복 단령, 무복 당의, 무복 도포 등을 착용하여 신을 형상화하고 있다. 세습무의 경우에는 무복을 화려하게 착용하지 않고 무복 치마, 무복 저고리, 무복 장삼만을 착용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호남이나 충청 지역에서도 세습무와 강신무가 함께 굿을 연행하고 있어 화려한 무복을 입기도 한다. 이러한 무복은 최근 무형문화재 지정에 따른 무속인의 인식변화에 따라 조선시대 착용했던 고유한 전통복식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참고문헌 무당내력(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민속원, 2005), 한국무속 복식의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김은정, 남도민속연구28, 남도민속학회, 2014),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9), 한국의 무복(김은정, 민속원, 2004), 호남의 저승혼사굿(나경수 외, 민속원, 2016).

필자 김은정(金垠呈)

무지기치마

정의 예복을 입을 때 겹치마가 자연스럽게 넓게 퍼지도록 하기 위하여 3~5층의 치마를 한 허리에 달아 만든 속치마.

내용 무족상, 무족군, 무지기는 무족치마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바지 일색인 속옷과 달리 가랑이를 나누지 않은 치마 모양의 속옷을 의미한다. 『청장관전서 靑壯館全書』 사소절士小節에는 “먼저 짧고 작은 흰 치마를



길이 72 허리 103



길이 117 허리 93.5

무지기치마 | 21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입고 그 위에 치마를 입는데, 무족無足에 오합五合 또는 칠합七合의 호칭이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거가잡복 居家雜服』에도 부녀들의 치마 안에 겹겹으로 짧은 치마 5~6개, 많으면 10개를 겹겹이 붙이고 한 허리에 달아 입는데 무족군이라 하며, 뻗뻗하게 풀을 먹여 부풀게 하여 마치 종을 얹어놓은 것 같다고 하였다. 1819년(순조 19)부터 궁중복식을 담당한 궁녀들이 기록한 『궁중발기 宮中撥記』에는 많은 양의 무족이와 무족상, 무족치마, 옷무족이가 있다. 특히 계사년(1893) 길례의 복 가운데에는 연봉 모양의 무족이도 있다.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에는 19세기 말 무지기치마가 있다. 3층으로 구성된 이 유물은 각 층의 밑단 부분을

분홍색으로 곱게 물을 들였다. 박성실 등은 이 유물을 조선 후기 상류층 부녀자들이 걸치마를 부풀리기 위하여 속에 받쳐 입는 속치마라고 하며, 무지기·무족군·무족상으로 설명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과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도 각 층의 밑단부분을 노란색·분홍색·옥색으로 물들인 3층으로 된 무지기치마가 있다. 이와 같이 무지기치마는 각 층의 밑단 부분에 홍색을 물들여 마치 연꽃과 같다고 하여 ‘연봉치마’ 또는 ‘연봉무지기’라고도 하며, 무지기라는 명칭에서 무지개 색깔을 연상하여 여러 가지 색을 염색하여 입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무지기는 예복을 갖추어 입을 때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실루엣에서 치마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받쳐 입는 3~5층의 속치마이다. 고려 때 부인들이 입었다고 하는 선군(旋裙)(길이가 각각 다른 여러 개의 치마를 한 허리에 달아 입어 치마폭이 넓게 퍼지도록 한 속옷)과 동일한 제도의 치마로 각 층마다 주름을 잡아 풍성하게 하여 오늘날의 페티코트(petticoat)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 구성은 3, 5, 7층 치마로 각 층마다 치마 길이를 다르게 하여 3, 5, 7합으로 겹쳐 한 허리에 달았다. 각 층의 치마는 모시 12폭을 이어 만들었으며, 치마 밑단 끝부분만 은은하게 염색하여 허리에 주름을 잡았다. 전래 유물들은 허리부터 단 끝까지 1~1.5cm로 잔잔한 플리츠를 잡았다. 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정정완은 어린애나 어린 색시는 삼색무지기(옥색·분홍색·노랑색), 나이 많은 사람은 층에 관계없이 옥색·녹색, 젊은 사람은 분홍무지기를 입었으며, 무지기 길이는 치마 길이보다 30cm 짧게 하고, 20cm씩 차이를 두고 3단 치마를 한 허리에 겨달아 입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발기」 기록에 무족이와 무족상, 무족치마의 소재는 저포가 대부분이지만 1847년 정미가례에는 저포와 함께 면포도 있으며, 정미년(1907) 「의대발기(衣襟件記)」에는 백색의 삼팔주 겹무족이, 정사년(1917) 「의대발기」에는 삼팔한 무족치마의 기록도 있다.

참고문헌 古文書集成, 옛 속옷과 침선(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06),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박성실·조효숙·이은주,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침선장(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안애영(安愛英)

정의 개화기 문관의 복장 중 황제를 알현하거나 궁중에서 공식적인 연회에 참석할 때 착용한 예복.

내용 대례복(大禮服)이란 개항 이후 복식제도에서 등장하는 용어이다. 특히 문관이 황제를 알현하거나 궁중에서 공식적인 연회 등에 참석할 때 착용한 예복을 말한다. 서양에서는 대례복을 궁정복식(court dress, court costume)이라고 불렀는데, 대한제국과 일본이 대례복으로 명명하여 복식제도로 수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문관대례복(文官大禮服)은 산형(山形)의 모자·연미복 형태의 상의·조끼·바지·검으로 구성된다. 서양식인 대례복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은 모자·상의·검 등에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을 자수하거나 새긴 것을 들 수 있다. 문관대례복은 19세기 중후반 이후 서양 주도의 국제 사회에 편입된 국가에서 받아들였는데, 대표적으로 대한제국과 일본을 들 수 있다. 대한제국은 서구식 문관대례복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통식 대례복을 제정하여 어느 정도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 대례복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는 1894년 갑오개혁 시기이다. 12월에 발표된 칙령 제17호에서는, 조신(朝臣)의 대례복은 흑단령을 쓰고, 궁에 나아갈 때 통상예복(通常禮服)으로는 토산의 명주로 만든 두루마기(周衣)·답호(搭護)·사모(紗帽)·화자(靴子)를 착용하라고 하였다. 간단하게 발표된 칙령이지만 그 내용에는 문관의 대례복이 흑단령이고 통상예복은 두루마기에 답호·사모·화자라는 것과 통상예복의 착용일은 궁에 나아갈 때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어서 불완전하지만 일종의 문관복장규칙이다. 칙령 제17호에서 처음으로 대례복 규정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전통양식인 흑단령이었다. 다음 해인 1895년 을미년에는 더욱 정교해진 형태인 ‘궁내부대신 조신이하 복장식 봉칙 반포’로 다시 발표되었다. 이를 을미의제개혁이라고 한다. 문관대례복 규정에 따르면 “대례복은 흑단령·사모·품대·화자 차림을 하되 모든 동가시(動駕時)·경절(慶節)·문안·예접시(禮接時)에 착용한다.” 이외에도 조복과 제복·소례



전통식 대례복(광수 흑단령) | 길이 118 폭 45 화장 91 | 조선 후기 | 고려대학교박물관



문관대례복



문관대례복



동농 김가진

문관대례복 | 국립민속박물관

복·통상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갑오의제개혁에 비해 좀 더 자세하게 규정된 대례복제도는 이전 시기와 같이 흑단령·사모·품대·화자로 구성되었고, 착용일이 대군주의 동가, 국가의 경절, 문안과 예를 갖추어 접할 때 착용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처럼 갑오의제개혁과 을미의제개혁은 근대 서양에서 유래한 대례복이라는 형식에 전통적 형태인 흑단령을 대응시킨 과도기적인 문관대례복제도였다. 이를 전통식 대례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제국이 성립한 초기인 1890년대 후반까지 이 대례복 규정을 따랐다.

대한제국은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3호 훈장조례와 함께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제식을 반포하였다. 문관복장규칙은 문관이 착용해야 하는 대례복·소례복·통상복의 착용자·착용일·일습의 구성을 규정한 것이다. 문관대례복제식은 이 중 대례복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1901년에는 문관대례복의 형태를 도식으로 발표하였다.

문관복장규칙에서 대례복은 칙임관과 주임관만 착용하고 황제께 문안드릴 때, 황제의 동가동여(動駕動興)(임금이나 왕세자가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감)를 수행할 때, 공적으로 황제를 알현할 때,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 때 착용하게 하였다. 이는 위의 을미의제개혁의 착용일을 계승한 것이다. 대례복 한 벌을 구성하는 품목은 대례모·대례의·조끼·바지·검·검대·백포하금(白布下襟)(옷깃 아래에 대는 흰색 땀받이용 천), 흰색 장갑이었다.

칙령 제14호 문관대례복제식에서는 상의·조끼·바지·모자·검의 형태적인 특징을 설명하였다. 먼저 상의는 짙은 흑감색(黑紺色) 라사(羅紗)로 만드는데, 형태는 연미복형이었다. 라사는 모직의 털을 일으킨 방모직을 말한다. 상의에는 칼라, 흉부의 좌우, 뒷길의 목 아래와 허리, 커프스, 포켓에 무궁화의 계급에 따라 무궁화 개수에 차등을 두어 자수하도록 하였다. 가장 높은 계급인 칙임관 1등의 경우 앞중심선 좌우에 반근화(半槿花) 6개, 가슴 좌우에는 전근화(全槿花) 6개를 자수하였다. 전근화의 개수는 계급이 2등, 3등, 4등으로 내려갈수록 4, 2, 0으로 줄어든다. 주임관은 반근화만 좌우에 4개를 자수하였다.

1900년 규정에 따라 제작된 대례복 유물로는 한국 자수박물관의 칙임관 민철훈 유물, 부산시립박물관의 칙임관 박기종 유물, 고려대학교박물관의 주임관 유물, 국립민속박물관의 주임관 유물이 있다. 현재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들은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 제작하여 들여온 것으로 파악된다.

문관복장규칙은 1904년, 1905년, 1907년에 걸쳐 관보에 정오正謨의 형식으로 개정이 있었다. 정오 개정에는 이전에 연미복 중 한 가지였던 소례복이 연미복과 프록코트로 분화되어 규정되었고, 상장喪章 규정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문관대례복제식은 1904년, 1905년에 마찬가지로 관보에 정오의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형태의 변화는 없었지만 자수하는 무궁화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서 앞중심에 자수하였던 반근화는 모두 사라졌다. 칙임관은 전근화의 개수를 6, 4, 2로 하여 계급을 구별하고, 주임관은 앞길에서 자수가 모두 생략되었다. 이러한 정오 규정에 따라 제작된 유물로는 연세대학교박물관의 칙임관 윤치호 유물, 광주민속박물관의 주임관 김봉선 유물, 국립민속박물관의 주임관 유물 1점이 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인 1906년에 문관대례복 규정이 크게 개정되었다. 먼저, 2월에 궁내부와 예식원 관원의 대례복이 문관대례복에서 분화하였다. 그 형태는 코트형이었고, 요맛꽃이 활짝 핀 형태, 반만 핀 형태, 봉우리 형태로 도안하여 가지에 도안하여 가지와 함께 자수하고 그 가지 수에 차이를 두어 11개, 9개, 7개씩 자수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문관대례복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1900년 규정의 대례복은 앞중심선에서 여며질 때 목 아래가 파여 있고 V자 형태였는데, 1906년 규정의 대례복은 앞목점에서 여며지는 세워진 칼라[人襟]의 형태였다. 현재 1906년 규정의 대례복 유물은 보고되어 있지 않으며 당시 촬영된 사진들을 통해 이를 착용했다는 것만 확인된다.

대한제국의 문관대례복은 1910년 국권이 상실된 후 정체성이 상실되는 과정을 겪었다. 1910년 12월 17일에 일본 황실령 제22호에서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은 조선의 귀족은 일본의 유작자有爵者 대례복을 착용하라는 규정이 발표되었다. 유작자란 공작·작·남작과 같은 작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대한제국이 독립된 주권 국가의 외관을 갖추어 국제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마련한 문관대례복의 성격이 변질되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이 개항한 후 서양이 주도하는 외교의례에 착용하여야 할 복식제도를 정하였다. 이를 문관대례복이라고 하고 일습은 산형의 모자·연미복형 상의·조끼·바지·검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문관대례복은 국가 상징 이미지를 문양화하여 금사로 자수한 것이 중요한 특징이었다. 대한제국이 제정한 문관대례복의 문양은 무궁화 문양으로 오늘날의 국화로 계승되는 문양을 처음으로 자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官報, 高宗實錄, 개항기 전통식 소례복 연구(이경미, 복식64, 한국복식학회, 2014), 대한제국 1900년 문관대례복 제도와 무궁화 문양의 상징성(이경미, 복식60, 한국복식학회, 2010), 대한제국기 궁내부 대례복 연구(최규순, 정신문화연구3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대한제국기 서구식 문관 대례복 제도의 개정과 국가정체성 상실(이경미, 복식61, 한국복식학회, 2011), 제복의 탄생-대한제국 서구식 문관대례복의 성립과 변천(이경미, 민속원, 2012).

필자 이경미(李京美)

문관복장규칙

文官服裝規則

정의 대한제국 문관의 복장을 규정한 칙령.

내용 근대의 서양식 복식규정은 대체로 ‘○○규칙規則’, ‘○○제식製式’, ‘○○도식圖式’의 세 가지 유형으로 반포된다. ‘규칙’에서는 복식의 종류, 착용신분, 착용상황, 복식 종류별 구성요소 등을 규정한다. ‘제식’에서는 ‘규칙’에서 정한 구성요소의 세부형태, 크기, 장식 등을 문자로 표현한다. ‘도식’에서는 ‘제식’의 규정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제도는 문관·육군·경찰 등 착용 대상에 따른 복식 규정 세트로 볼 수 있는데, 동시에 발표하기도 하고 각각 발표하기도 하였다.

문관복장규칙은 대한제국 시기에 발표된 문관의 복장을 규정한 칙령으로, 1900년(광무 4) 4월 17일에 칙령 제14호로 공포되었고, 4월 19일에 관보 호외로 발표되었다. 문관복장규칙은 의정부 참정 김성근金聲根

(1935~1919)이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발표하였는데, 11조의 규칙과 1조의 부칙 총 12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관복장의 착용자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에는 제1, 2, 9, 10, 11조가 해당한다. 문관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으로는 먼저 무관武官과 경관警官을 제외한 모든 문관으로 임명받은 자이고(제1조), 여기에 궁내부와 외각부원의 대소 관인도 포함되었으며(제9조), 문관의 복장에는 대례복大禮服·소례복小禮服·상복常服이 있었다. 대례복은 칙임관과 주임관만 착용할 수 있고, 소례복과 상복은 칙주관임관이 공통으로 착용할 수 있었다.(제2조) 이때 칙임관, 주임관, 관임관이란 갑오개혁 시기에 문무관의 관제를 개혁해 새로 생긴 관직명으로, 왕이 직접 임명한 관직이 칙임관이다. 무관과 경관은 문관으로 전임하면 문관복장규칙을 따르고 무관은 때에 따라 무관복장을 착용해도 되며(제10조), 관임관의 경우는 소례복으로 대례복을 대신할 수 있었다(제11조).

둘째, 문관복장의 착용일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에는 제3, 4, 5조가 해당한다. 대례복은 황제에 문안드릴 때, 황제의 동가동여動駕動輿에 따를 때, 공적으로 황제를 알현할 때, 궁중에서 공적인 연회에 참가할 때에 착용한다(제3조). 소례복은 궁내에 나아가 황제를 알현할 때, 공식 연회에 참가할 때, 상관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할 때, 사적인 하례와 위문시에 착용한다(제4조). 상복은 임시로 진현할 때, 연거할 때, 집무할 때 착용한다(제5조).

셋째, 일습의 구성품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에는 제6, 7, 8조가 해당한다. 대례복 일습은 대례모, 대례의, 조끼, 대례고, 검, 검대, 백포하금白布下襟, 백색 장갑으로 구성된다(제6조). 이때 백포하금은 칼라 아래에 덧붙이는 땀받이용 흰색 천이다. 소례복 일습은 진사고모(실크햇트silk hat)·구제 연미복·조끼·바지로 구성된다(제7조). 즉, 소례복은 서양 남성의 예복인 연미복에 실크햇트를 착용하는 것이다. 상복 일습은 구제 통상모·구제 통상의·조끼·바지로 구성된다(제8조). 즉, 상복은 서양에서 남성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한 슈트이다.

이와 함께 부칙인 제12조는 외국에 주재하는 공사관원부터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할 것을 명하고 있어서

문관복장규칙의 제정에는 외교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900년에 발표된 문관복장규칙은 1904년(광무 8), 1905년(광무 9), 1907년(광무 11)에 걸쳐 관보에 정오의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그렇게 제정된 규정을 모두 반영하여 완결된 문관복장규칙은 1908년(융희 2)에 간행된 『법규류편法規類編』에 총 제12조와 부칙 제1조로 정리되어 있다. 『법규류편』에는 새로운 칙령이 아닌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4호로 본 내용을 실었기 때문에 정오의 내용을 반영하여 칙령 제14호를 수정 시행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관복장의 착용자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에는 제1, 2, 10, 12조가 해당한다. 착용자에 대한 규정은 1900년 제도와 같다. 여기에 제10조에서 무관이 문관복장규칙에 따르지 않고 무관의 복장을 착용할 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예장은 소례복으로, 상장은 상복으로 통용한다고 하여 문관복장과 무관복장을 통용하는 방법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둘째, 일습의 구성품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에는 제3, 4, 5조가 해당한다. 대례복 일습은 1900년 규정과 같다. 소례복은 진사고모, 홍부가 열려 있는 형태의 조끼, 상의와 같은 색 재질의 바지, 구두로 구성되는 연미복과 진사고모, 홍부가 좁혀진 형태의 조끼, 상의와 다른 색 재질의 바지, 구두로 구성되는 프록코트의 두 종류로 분화되었다. 상복은 서구제 평모, 서구제 뒷단이 짧은 상의, 조끼, 바지로 구성되어 1900년 규정보다 형태적 특징을 세밀하게 묘사해 주었다.

셋째, 문관복장의 착용일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에는 제6, 7, 8, 9조가 해당한다. 대례복은 진하할 때, 동가동여할 때, 공적으로 황제를 알현할 때, 궁중에서 배식할 때에 착용하고(제6조), 소례복은 각국 사신을 소접할 때, 궁중에서 사연할 때, 국외 관인과 만찬할 때 착용하며(제7조), 평상복은 벼슬에 나아갈[仕進] 때, 집무할 때, 연거할 때 착용하였다(제8조).

넷째, 제12조는 상장喪章에 대한 규정으로 대례복, 연미복, 프록코트는 조전照前 착용하되 부칙인 제13조는 현재 대례복을 갖추지 못한 관원은 소례복(프록코트)으로 대신 착용하여도 무방하다는 규정이다.

1908년 문관복장규칙은 1900년 칙령 제14호에

비해 특히 소례복을 연미복과 프록코트로 분화하고 그에 따라 착용일 역시 구별한 점이 특기할 사항이다. 연미복과 프록코트 일습의 구성은 상의 형태의 차이와 함께 조끼의 형태, 착용하는 바지의 색이 다르다. 또한 상장喪章의 규정이 새롭게 부가되었다. 이상을 통해 개정된 문관복장규칙은 1900년 제도보다 더 세분화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규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문관복장규칙이 국권 상실 이후에는 일본 대례복 제도를 따르게 되어 대한제국의 대례복이 아닌 일본의 대례복을 착용하였다. 이로부터 문관복장규칙은 의미를 지닌 법령으로 작동했지만 문관대례복제식이 일본식으로 바뀌어서 복식제도에서 식민지의 외관과 행위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기에 문관복장규칙을 제정한 것에 대해 서양이 주도하는 국제 외교 관례에 따라 대례복, 소례복을 착용함으로써 근대 주권국가의 외관과 매너를 갖추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시기부터 국가 간 외교활동을 위해서는 미리 그 내용을 알려 주는 초청장을 발송하였는데, 초청장에는 드레스코드가 명기되었다. 이러한 초청장을 통해 문관복장규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인 헤르만 산더H. Sander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대한제국의 초청장은 1907년(광무 11)의 황태자 생일(천추성절)의 초대장으로, 왼쪽 아래에 보면 ‘착대례복 패대수장着大禮服 佩大綬章’이라는 드레스코드가 적혀 있다. 즉, 황태자의 생일에 초대하는데, 대례복을 착용하고 대수장이라는 훈장을 패용하고 참석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석하는 의례의 종류에 따라서 대례복인지 소례복인지를 미리 정하여 그 의례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에 맞추어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미리 법령이라는 형식을 통해 정한 것이 문관복장규칙이다.

특징 및 의의 문관복장규칙은 문관의 복장에 서구식 제복을 도입한 것으로서, 19세기 후반 이후 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관계에서 세계 통용의 복식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官報, 高宗實錄, 대한제국기 궁내부 대례복 연구(최규순, 정신문화연구 3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제복의 탄생(이경미, 민속원, 2012).

필자 이경미(李京美)

정의 길상吉祥의 뜻을 지닌 문자들을 장식적으로 도안한 무늬.

개관 문자무늬에 쓰이는 문자는 대부분 한자, 즉 사물의 형상을 본따 만든 상형문자이다. 따라서 뜻을 가진 문자이기 이전에 회화적 성격에서 비롯된 형태의 조형성과 글자 자체가 갖는 의미 때문에 문양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문자를 직물무늬로 넣기 시작한 최초의 사례는 650년(진덕여왕 4)에 「오연태평송五言太平訟」을 지어 무늬로 직금織錦하여 당나라에 보냈다는 기록에서 문자무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평안북도 보현사에 고려시대의 직물로 전해지는 문자무늬 직물 조각이 한 점 있으나, 문자무늬는 특히 조선시대에 유행하였으며 실제로 문자무늬가 들어간 복식유물이 출토된 것은 17세기부터이다. 이단하李端夏(1649~1689) 부인이 입었던 원삼에도 수壽, 복福 자와 함께 길상식물들이 조합된 금선단이 남아 있다. 그 후 1722년(경종 22)에 사망한 안동 권씨 집안의 원삼과 배개용 옷감에도 금사를 사용하여 수壽 자와 희喜 자를 직조한 금선단이 나타나는 등, 문자는 점차 옷감 무늬의 소재로 자리 잡아갔다. 직물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자무늬는 수壽 자, 복福 자, 희喜 자인데 둥글게 혹은 네모형으로 도안한다.

문자무늬에 주로 사용된 길상어문吉祥語文 중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선배와 후배, 친구와 친구 간의 도리와 서열을 정하는 단순화한 도덕률이며 여덟 가지 덕목인 효孝·제悌·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를 글자로 나타내고 그 속에 여러 뜻에 맞는 그림을 그려 넣고 표현한다. 효는 자녀가 부모에게 특히, 어머니에 대한 정성과 애정을 뜻하며, 제는 형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할 것을 뜻하며, 충은 하늘의 뜻을 받은 임금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신하의 도리라는 뜻을 나타내며, 신은 믿음과 약속을 중요시하라는 의미가 있다. 예는 하늘이 내려 준 인간관계의 서열을 따르는 것이며, 의는 한 번 맺은 인연과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뜻

을 지니고 있으며, 염은 체면과 절개를 지킨다는 뜻이며, 치는 인간적 도리를 벗어난 부끄러움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대표적인 길상어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수壽: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기를 기원. 2. 수복문壽福文: 만복萬福을 누리고 귀하게 살며, 장수를 기원. 3. 희龍: 용호상희龍虎相喜를 뜻하는 것으로 부부가 서로 즐거움을 나눈다는 의미. 쌍희자는 음양의 화합을 이상으로 여기는 동양의 전통사상에서 나온 의미. 4. 만수무강萬壽無疆: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기원. 5. 수복강녕壽福康寧: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고 편안하기를 바램. 6. 자손창성子孫昌盛: 자손을 많이 낳아 가문이 번창 기원. 7. 부귀영화富貴榮華: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행복한 삶 영위. 8. 이성지합二姓之合: 남녀 화합. 9. 만복지원萬福志願: 만복을 염원. 10. 백년동락百年同樂: 백년 이상 동고동락 기원. 11. 수여산壽如山 부여해富如海: 수명이 산을 이루고 복이 바다를 이룸. 12. 부귀다남자富貴多男子: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아들이 많음을 기원.

내용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 소장된 고려시대 은제 팔찌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길大吉·평안平安·건강健康 등 총 23자의 명문을 새겨 넣어 삶의 염원을 담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동경에 중앙 상단에 두 줄로 '황비창천堯丕昌天(밝게 빛나고 창성한 세상)'이라는 명문을 양각한 문자무늬가 있다. 다른 동경에는 수산복해壽山福海의 네 글자를 양각한 문자무늬가 있다.

조선시대 남자아이 관례 때 주로 착용하는 사귀삼은 수자壽字, 편복蝙蝠, 표주박문이 직조된 분홍색 생고사로 지었다. 깃·섶·도련·소매 끝에는 흑색을 둘렀으며 각 선에는 여러 길상어문을 금박하였다. 소매의 선에는 수부귀壽富貴 다남자多男子를, 뒤 소매에는 부여해수여산富如海壽如山을, 섶에는 자의자손子宜子孫 수여금석壽如金石을, 앞길에는 자구다복自求多福 영언배명永言配命을, 뒷길의 선에는 자손창성 수복강녕을, 각 글자 사이에는 원수문圓壽紋을 금박하여 변화를 준다. 이러한 문자는 건강하고 부귀를 누리며 오래 살고 자손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아기의 돌복 복식 중 하나인 전복에는 수복강녕·효제충신孝弟忠信·인의예지仁義禮智·만수무강 등 길상어문이 금박되어 있다. 활옷은

원삼과 비슷하나 다홍색 비단에 꽃과 수복장수를 뜻하는 무늬와 길상어문 등을 수놓아 화려하게 꾸몄다. 불로초·산·바위·물결·동자·연꽃·모란·나비·구룡(어미 봉과 새끼 봉) 등의 무늬와 이성지합二姓之合·만복지원·수여산 부여해·백년동락 등의 글씨를 수놓았다. 황원삼은 순정효황후의 것으로 전해지는데, 문자무늬에는 수복壽福 이외에 백복百福·백수百壽·천만세千萬世·다남多男 등 아홉 개의 글자를 넣어 오랫동안 복을 누리며 살고 자손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직접적으로 도안하였다. 당의는 가슴과 등, 양 어깨에 오조룡五爪龍을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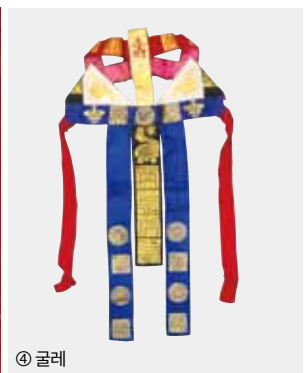
① 영친왕 사귀삼



② 순정효황후 원삼



③ 연사 중 문자무늬



④ 굴레

문자무늬 | ①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② 세종대학교박물관, ③ 고려대학교박물관, ④ 국립민속박물관

박한 보補가 부착되어 있다. 앞길과 뒷길, 고름, 소매 등 전체에 ‘수壽’, ‘복福’ 자를 금박하였다. 여자저고리는 두록색 도류사 겹감 전체에 수壽·복福 자 금박이 찍혀 있으며 깃, 끝동, 겨드랑, 고름을 자주색으로 장식하였다. 이외 저고리에도 주로 옷고름이나 깃, 끝동 등에 금박으로 길상어문을 표현하였다. 왕실 가례 시 주로 사용된 면사는 홍색 순인으로 만들었으며, 가운데에 팔각형으로 금박을 두르고 그 안에 길상문과 ‘부귀다남자’ 등의 글씨를 찍었다. 네 모서리에서 중심 쪽으로 부귀富貴 등의 글자와 길상문을 일렬로 찍어 연결하였다. 복건은 위쪽이 뾰족하게 솟고, 뒤쪽은 자락으로 늘어뜨려지는 형태이다. 이마가 닿는 부분에 끈이 달렸고, 끈과 도련에 수壽, 복福, 인의예지仁義禮智 등의 문양이 금박되어 있다. 굴레는 남녀 어린아이들이 방한과 장식을 겸해 머리에 쓰던 것으로 이마 부분에는 수壽자문이 수놓이고 술이 달린 화형花形 장식이 부착되고, 드림장식에는 수복과 강녕이 금박되어 있다. 제비부리댕기에는 완자 테두리 안에 화문을 줄줄이 배치하고 양쪽 끝에는 수와 복자를 배치하는 등 앞뒤에 동일한 무늬로 금박하였다. 고이댕기는 두 갈래이며, 끝부분이 삼각형으로 붙어 있다. 댕기의 윗부분에는 황금색 실로 ‘오복구전五福俱全 자손창성子孫昌盛’ 복이 함께하고 자손이 번성하기를 비는 수가 놓여 있으며, 전면에 걸쳐 십장생이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다. 조바위는 여성의 외출용 방한모로 겉은 검은색 단, 안은 붉은색 명주로 만들어져 있고, 길의 한 측면 테두리 부분에 화문이 둘러져 있으며, 그 안으로 ‘수壽·복福·강康·녕寧·만萬·수壽·여如·의意·길吉·상祥’ 자 무늬와 중앙에 봉황을 금박으로 박았다. 다른 한쪽에는 만萬, 수壽 자 대신에 무無 자, 강疆 자 무늬가 금박되어 있다. 전모는 하류층의 외출용 입모로, 기름에 전 유지로 육·십각형으로 만들었으며 여기에 나비나 꽃무늬를 비롯하여 수壽·복福·부富·귀貴 등의 글자를 그려 넣었다. 완대는 활을 쏠 때, 활을 쥐는 쪽의 팔소매를 걷어매는 띠로 겹감은 녹색 용이고 안감은 청색 견직물로 가장자리는 검은색 선을 둘렀다. 앞면 가장자리에는 아토편 자 돌림문과 박쥐문이 징금수로 놓이고 중앙에는 희鬚 자 무늬가 수놓아졌다. 뒷면에는 양측면 네 곳에 고리를 달고 옥단추를 달았으며 끈줄을 꿰었다. 글자노리개는 글자가 투각된 백동白銅을 주체로 한 노리개로, 아랫부분에 분홍

색의 봉술을 달았다. 백동에 투각된 글자는 “수壽·부富·다多·남男·자子”이며, 장수와 부귀를 상징한다. 또 다른 글자노리개는 은銀으로 된 수壽·부富·귀貴 문자를 노리개 중심에 두고, 홍·두록·황색의 삼색견사三色絹絲로 국화매듭과 딸기술을 달아 장식하고 있다. 수·부·귀 문자는 글자 그대로 장수와 부귀를 뜻하는 데서 해자楷字 전자篆字의 형태로 문양 조각 등에 널리 활용되었다. 귀주머니는 각진 형태로 왕비가 사용하였다. 홍색과 녹색의 모본단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상부와 후면 상부에 복福 자와 수壽 자, 하부에는 영寧 자를 금박하였다. 아래에는 오복꽃 광주리 무늬를 금박하였으며, 6각의 주머니 둘레를 굵은 두 줄의 금박을 찍어 윤곽이 한결 강조되었다. 염낭은 홍색 비단 바탕에 금사와 은사로 원수문圓壽紋(원 안에 수자를 도안한 무늬)을 중앙에 수놓고, 그 좌우에 불로초, 박쥐, 난초 무늬를 정교하게 수놓았다.

특징 및 의의 문자무늬도 신분이나 남녀의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이들 문자무늬는 대부분 다른 무늬와 함께 복합무늬로 구성되었으며, 직물뿐 아니라 금박과 자수에도 중요한 소재였다. 조선시대 직물무늬와 사규삼·전복·복건·굴레·댕기·면사·원삼·활옷·당의·저고리·전모·노리개 등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자수문양(국립민속박물관, 2002), 중국길상도안(노자키 세이킨, 변영섭·안영길 역, 예경, 1992), 한국전통문양1(임영주, 예원, 1998), 한국전통문양집1-박물관시리즈(궁중유물전시관, 안그래픽스, 1995),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김문자(金文子)

물푸레나무

정의 낙엽교목落葉喬木으로 황색을 물들일 때 쓰는 염료.

내용 가지를 잘라서 물속에 넣으면 물을 푸르게 한다고 해서 물푸레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다. 수피는 건위·소염제 또는 염색제로, 황갈색 목재는 운동기구·충개머리판·가구재 등으로 쓰임새가 많다. 대개 암·수가 따

로 있고 있는 마주 나며, 작은 잎으로 된 겹잎이다. 껍질 [秦皮]은 약재로 쓴다. 물푸레나무·쇠물푸레나무·좁쌀물푸레나무도 함께 약용으로 쓰인다. 해열·진통·소염·수렴 등에 약효가 있어 류머티즘·통풍·기관지염·장염·설사·이질·대하증 등의 질환을 치료한다.

특징 및 의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진피를 가루로 만들어 끓여서 염색한다.”라고 기록되었다. 물푸레나무 껍질은 무척 단단하여 채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나무껍질과 심재를 가루로 만든 후 물에 넣고 약 30분간 끓인 후 가루를 걸러낸다. 그다음 명반으로 미리 매염한 목면을 넣어 다시 20분간 끓이면 옅은 갈색을 띤 황색으로 염색된다.

참고문헌 대한식물도감(이창복, 향문사, 1982), 우리 생활 속의 나무(정현관, 국립산림과학원, 2007), 증보 천연염료 염색사전(조경래, 아취현, 2009), 특용수 재배학(임경빈, 향문사, 197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식물(nature.go.kr), 두피디아(doopedia.co.kr),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소황옥(蘇晃玉)

미용실 美容室

정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미용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개관 서구 영화가 탄생시킨 유행 가운데 하나는 머리 패션이라고 할 정도로 영화는 단발의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최영수의 만문만화 <방향하는 전발(電髮)>은 이러한 영향을 잘 설명하고 있다. 최영수는 만문만화에서 “퍼머넨트가 전발로, 전발이 숙발(淑髮)로, 숙발이 다시 퍼머넨트”로 수시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단발을 비롯한 여성의 패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영화 가운데 프랑스 영화 <몸파리>, 미국 영화 <명금(The Broken Coin)>(1916), <묵시록의 네 기사들(The Four Horsemen of Apocalypse)>(1923)의 주인공 역시 단발의 퍼머머리이며, 1930년대에 수입된 채플린의 영화 <반들어 총(Shoulder Arms)>과 <가짜 목사(The Pilgrim)>의 주인공 올기 퍼비안스 역시 단발 파마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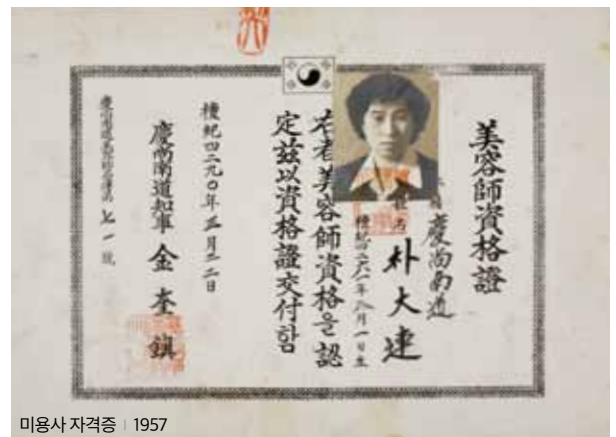
리를 하였다. 즉 플래퍼(단발 파마머리)의 머리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영화에 의해 자극 받은 여성들이 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시켜 줄 기구가 필요했다. 이러한 머리 유행을 조장한 기구는 미용실이었다. 미용은 크게 두부기술(頭部技術), 미장기술(美粧技術), 전신미용(全身美容)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내용은 두부기술에 대한 것이다.

내용 서울에 생긴 첫 한국인 미용실은 1933년 2월 초 서울 종로 화신백화점 안에 문을 연 ‘화신미용부’였다. 오엽주는 일본에서 미용기술을 배워 파마·세팅·매니큐어·신부 화장을 다루었는데, 미용실이 봄비자 일 년 후 다시 일본에 가서 미용실을 연구하면서 1936년부터 일본에서 기구를 들여다 파마를 시작하였다. 그 뒤에는 미용학원을 차려 후진 양성을 하였다. 그녀는 종로 영보빌딩 4층에 ‘엽주미용실’을 새로 내고 동경 긴자의 일류 미용실에 필적하는 일류 시설을 갖추었다. 당시 조선인 미용실은 ‘화신미용부’ 하나였으므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장난기 있는 남정네나 주정꾼들이



머리인두 | 광복 이후



미용사 자격증 | 1957

미용실 | 국립민속박물관

날마다 물려와 기웃거렸다고 한다.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기 위해서는 쌀 두 섬 값이 필요했다. 그 뒤 미용실이 곳곳에 생겨 평균 가격이 10원이 되었지만 그래도 매우 비싼 가격이었다. 당시 화신 미용부를 드나들던 고객들은 주로 배우·무용가·신여성·부호 집안의 여성·일류 기생들이었다.

특징 및 의의 국내에는 1920년에 여성의 미용을 위한 전문 미용실이 등장하였는데, 1920년 8월 13일자 신문에 경성 미용원의 광고가 최초로 실렸다.

신여성 중 오염주는 일본에서 배우 활동을 할 만큼 유행의 선두주자였다. 일본에서 미용기술을 배워 차린 화신 미용실은 파마·세팅·매니큐어·신부 화장 등을 다루었고 가스 난방에 의한 따뜻한 물이 항상 나오고 드라이어가 있는 최신 시설로 특수층에 속하는 여성층이 이곳을 애용했다. 이 미용실은 일본 화장품 회사가 장식을 맡아 삼면경 달린 화장대, 긴 의자, 소파 등 호화롭게 꾸며 주었으나 수입은 모두 일본 화장품 회사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후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미용실이 진고개(충무로)에 여섯 군데 정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여성에 의해 처음 미용실이 개설된 것은 1933년이다.

단발이나 파마와 같은 서양식 머리는 신여성들과 여학생 그리고 영화에 의해 조선 여성들에게 알려져 확산되기에 이르렀고, 미용실은 유행을 전파하는 또 다른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개화기 이후의 남성 머리양식의 변천과 재현에 관한 연구(김민정,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미국 신여성과 조선 신여성 비교 연구(박현숙, 미국사연구28, 한국미국사학회, 2008), 옷과 그들(김유경, 삼신각, 1994),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단발과 파마는 여성해방의 상징(이이화, 한길사, 2015), 한국 머리 카락 논란의 역사-단발령에서 노컷운동까지, 1895~2007(강준만, 인물과 사상, 2007), 한국생활문화 100년 1894~1994(전완길 외, 장원출판사, 1995), 동아일보(1926. 7. 22), 동아일보(1929. 1. 24).

필자 김현경(金炫京)

미투리

정의 삼[麻]이나 모시 또는 노끈 등으로 엮어 만든 짚이 좋은 짚신.

내용 미투리를 삼신이라고도 하며, 한자로는 마혜[麻鞋], 망혜[芒鞋], 승혜[繩鞋]라고 표기한다. 지역에 따라서 무커리, 미커리, 미쿠리, 메토리, 메투리 등으로 불린다. 미투리 중에서도 섬세한 제품은 사대부들이 나들이할 때 신기도 했다. 미투리는 짚신보다 고급품이었으나,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신이 등장하면서 점차 일반 서민층들의 고급 신으로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朴齊家]의 『북학의[北學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미투리는 백리 길을 가면 구멍이 나고, 짚신은 십리 길만 가도 구멍이 난다. 미투리 값은 짚신 값에 비해 열 배나 비싸기 때문에 비천[卑賤]한 백성들은 모두 매일 같이 짚신 갈아 신기에 여념이 없다. 가죽신 값은 또 미투리의 열 곱이 된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가죽신이 가장 고급 신이었고, 짚신보다 미투리가 고급 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투리의 주재료는 삼이었으나 점차 닥나무 껍질, 청울치(철렁쿨), 종이, 무명실 등과 같은 사치스러운 재료를 사용하여 삼기도 했다. 미투리는 절치·탐골치·무리바닥·지총미투리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대개 미투리를 삼을 때 사용한 재료나, 만든 고장에 따라서 구분되었다.

미투리 관련 유물 중, 경상북도 안동 정상동에 위치한 이응태[李應台](1556~1586)의 묘에서 출토된 미투리가 오늘날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투리는 삼으로



미투리 | 국립민속박물관



만들기 때문에 황토색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응태 묘에서 출토된 미투리는 검은 실처럼 보이는 것이 엉켜져 있다. DNA를 검사한 결과, 이 미투리는 삼과 머리 카락을 엮어 삼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징 및 의의 미투리는 삼이나 모시, 노끈, 칠닝쿨, 종이, 무명실 등과 같은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엮은 신으로 양반층이나 서민들의 고급 신으로 사용되었다. 미투리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섬세하게 엮었기 때문에 짚신보다 튼튼하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미투리 출토유물 중 이응태의 묘에서 출토된 미투리와 여러 유물은 조선 중기 양반 가문의 복식과 장례 풍습을 연구하는 데 긴요한 자료로써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北學議, 선비의 아내-조선 여성들의 내밀한 결혼 생활기(류정월, 역사학의 아침, 2014),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 묘 발굴조사 보고서(안동시·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영남대로-부산에서 서울까지 옛길을 걷다(신정일, 휴머니스트, 2007),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필자 이관호(李官浩)

바느질

정의 바늘에 실을 꿰어 옷을 짓거나 꿰매는 일.

개관 우리나라의 침선은 자연의 상태에서 짐승의 가죽이나 털과 뼈 등으로 만든 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 데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바느질 관련 유물은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골침 및 가락바퀴이며, 청동기시대 유물로는 함경북도 나진 초도 유적에서 출토된 뼈바늘이 있다.

삼국시대의 유물로는 뼈로 만든 골침과 634년(선덕여왕 3)에 세운 분황사 석탑에서 나온 금속제 바늘과 침통 및 가위가 있다. 고려시대에는 귀금속의 품귀 등으로 인하여 금·은제 바늘이나 바늘통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나, 선각線刻이나 주금鑄金등으로 문양을 세공하는 다양한 기법이 등장한다.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으로 볼 때 장복서掌服署에서 어의御衣(임금이 입는 옷 등)를 공급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 기법상의 다양성을 보인 금속제 바느질도구가 그대로 이어졌는데, 죽침竹針, 골침骨針과 함께 철침鐵針이 많이 쓰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살펴보면 경공장 공조工曹에 침선장이 10명, 상의원에는 40명, 제용감에도 20명이 소속되어 궁중복식 제작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민간에서는 유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내외법이 심하여 여인의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거의 집 안에서 보내야 했던 여인이 가정에서 옷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예절을 숭상하던 우리 조상은 의복을 정갈하게 갖추어 입는 것에서 예禮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바느질을 여인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여겨 여자아이의 나이가 대여섯만 되면 바느질을 가르쳤다.

개화기인 1890년대 후반에는 재봉틀이 보급되면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손바느질법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의복생활도 양장화, 기성복화되어 예전처럼 침선을 여자의 큰 부덕으로 여기던 사상이 변하게 되었다.

내용 바느질도구는 크게 재봉도구와 정리도구로 나눌 수 있다. 재봉도구는 옷감을 마름질해서 꿰매어 일정한 형태를 완성시키는데 소용되는 일체의 용구로, 규중칠우閨中七友라고 하여 바늘·실·자·가위·인두·다리미·골무 등이 있다. 재봉도구 등이 부녀자들의 애중품이었음을 알 수 있는 글이 있는데, 일곱 가지 도구를 의인화하여 소설로 풍자한 『규중칠우쟁론기閨中七友爭論記』와 27년 동안 사용한 바늘에 대한 제문祭文인 순조 대 유씨俞氏부인이 쓴 「조침문弔針文」이 있다.

정리도구는 자질구레한 재봉도구를 넣어 둘 수 있는 반진고리를 비롯하여 바늘과 실을 정리할 수 있는 바늘집, 바늘쌈, 바늘꽃이 및 실침과 각종 실패 등을 말한다. 재료는 나무·종이·버들·대·싸리 등이 있으며, 장식은 주칠하거나 자개를 박기도 하고 십장생·사군자·꽃·문자 등 여러 가지 문양을 넣기도 하였다.

의복을 만드는 옷감은 계절별로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봄과 가을에는 얇은 견직물을 사용하여 겹옷을 만들었다. 여름에는 모시나 삼베 등을 사용하여 홑옷을 만들었으며, 겨울에는 면직물이나 밀도 높은 견직물을 사용하여 솜을 옷감 안팎 사이에 두어 보온 효과를 높여 솜옷이나 누비옷을 만들었다.

옷을 짓는 공정은 크게 ‘마름질’과 ‘바느질’로 나뉜다. 우리 옷은 옷감을 평면으로 마름하여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기보다는 옷감을 직선으로 마름하고 다시 이것을 인체에 맞추어 곡선으로 바느질하는 것이 전통복식 재단법이다. 평면적인 옷감을 직선으로 재단하여 다시 입체적인 인체에 맞도록 남은 부분을 주름잡거나 끈으로 고정하여 미적 감각을 살린다.

여성 실학자인 빙허각(憑虛閣) 이씨가 지은 『규합총서(閨閣叢書)』에는 옷 마르기 좋은 날과 꺼리는 날을 기록하였다. 옷 마르기 좋은 날은 갑자·을축·병인·정묘·을사·계유·갑술·을해·병진·기축·정축·기묘·경진·갑오·을미·병신·경자·신축·계묘·갑진·무신·기유·계축·갑인·을묘·신유 등의 날이다. 그리고 각(角)·항(亢)·저(祗)·방(房)·두(斗)·우(牛)·허(虛)·벽(壁)·규(奎)·누(婁)·익(翼)·진(鎭) 등의 날이다. 옷 마르기 꺼리는 날은 1·2·4·5·7·8·10·11월의 사일(巳日)과 3·6·9·12월의 축일(丑日)로 보았다.

재봉법을 전문적으로 다룬 최초의 신서는 1925년 숙명여자 고등보통학교 교원이었던 김숙당(金淑堂)이 지은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이다. 『조선재봉전서』에서는 기초재봉방법과 솔기재봉방법 등을 15항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감침질하는 법: 감침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꺾은 두 술을 똑같이 잡고 두 올을 걸러 한 올씩 떼서 바늘을 반듯이 꺾어 잡아당기는 법인데, 실이 너무 바르도록 잡아당기지 말 것, 둘째는 적삼 단 같은 데 하는 것인데, 손 앞은 높게 하고 뒤쪽은 낮게 하여 뒤는 한 올씩 뜨고 앞은 깊이 뜨는 법이다. 자주 뜰수록 곱다.

2. 홈질하는 법: 홈질은 바느질 두 겹을 왼손에 꼭 잡고 두 번째 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바늘을 잡고 가운데 손가락은 호는 감 뒤로 감 뒤로 내밀어서 바늘허리를 받쳐, 골무 낀 손으로 내밀어 가면서 세 땀을 떼서 혼 것은 뒤로 밀면서 바늘을 앞으로 밀어 다시 세 땀을 뜬다. 이와 같이 계속하면 올이 바르게 호아진다.

3. 박음질하는 법: 박음질에는 온땀침과 반땀침이 있다. 온땀침은 땀을 뜨되 바늘 뺨 밑의 곳도 뜨고 또 뜨는 것인데, 겹자락이 줄어들지 않도록 안팎 두 겹을 꼭 쥐고 바늘을 충분히 내밀어 올바르게 박는 것이다. 반땀침이라는 것은 땀 반씩 떼서 박는 것이다.



반질고리 | 조선



바느질 가위 | 길이 27 | 1950



바느질 자 | 길이 55.2 너비 2.2 두께 0.5 | 조선



실패 | 일제강점기

골무 | 광복 이후

바느질 | 국립민속박물관

4. 상침 뜨는 법: 상침은 세 땀을 곱게 박고 세 땀 박은 사이만 곱걸려서 또 세 번씩 박는 것이다. 세 땀을 박지 않고 두 번씩만 박는 법도 있으니 이것은 두땀상침이라 한다.

5. 휘감치는 법: 무엇이든지 올이 풀려 나오지 말라고 설핏 설핏하게 감치는 것을 말한다.

6. 사뜨는 법: 바늘을 뒤로 꽃아 안으로 빼고 또 뒤로 삼사(三四) 푼 띄어 앞으로 빼서 뒤로 그 실 다음을 뜨고 또 아래실의 다음으로 뜨면 용마름이 지면서 곱게 떠진다.

7. 시침 놓는 법: 시침은 옷을 지은 후에 안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또한 모양으로 보이는 고로 깊이와 땀이 곱고 고르게 할지니 시침은 대개 바늘 길이만큼씩



침저하고 기산풍속도 |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뜨면 알맞다. 시침을 또 마름질할 때에 각각 나지 말라고 시치는 경우가 있다.

8. 공그르는 법(습치 놓는 법): 공그르는 것은 두 번 꺾어서 접어 감치는 것과 반대로 접은 안은 뒤로 두고 원체는 앞으로 들고 바늘을 뉘여 들고 겹쳐 권 대로 디밀어 사오四五 푼씩 뜨면서 원체는 한 올씩 뜨는 것이다.

9. 미는 법: 미는 법은 바느질감을 원편 무릎에 대고 바느질감 바른쪽 끝에 바늘을 꽂아 바느질감을 짝 붙여 놓고 왼손가락으로 밀어가면서 감치는 것인데 잘못하면 깊어지고 늘어지니 조심하여 가늘고 올이 맞도록 해야 한다.

10. 솔기하는 법: 솔기를 꺾어 하는 것은 꺾은 금을 호지 말고 금에서 한 올만 밖으로 호아서 풀을 조금 칠하고 먼저 꺾은 금대로 꺾어 인두를 치면 솔기가 곱게 된다.

11. 가름솔하는 법: 가름솔은 꺾지 말고 잠깐 금을 내어 올을 쫓아 호아서 갈라 인두를 치고 그 위에다가 풀을 조금 발라서 또 한 번 치고 거죽으로 또 인두를 치면 곱게 된다.

12. 곱솔하는 법: 곱솔은 한 번 꺾어서 호고 그 뒤를 베어 버리고 또 접어서 하는 것을 곱솔이라 한다.

13. 쌈솔하는 법: 쌈솔 하는 법은 세 가지가 있다.

1) 두 겹으로 혼 다음 또 꺾어서 한 번 호아 얇게 베고 꺾어 박는 것이다.

2) 한편은 거죽으로 꺾고 한편은 안으로 꺾는다. 거죽으로 꺾은 데에 안으로 꺾은 것을 대고 얇게 호되 거죽

으로 꺾은 것이 뒤로 가고 홀때는 뒤쪽이 두 올을 내밀어서 혼 뒤에 인두를 치고 그 후에 거죽도 베어 버리고 안으로 꺾은 것도 베어 버리고 안쪽으로 접어서 박되 손으로 바깥으로 밀면서 가늘게 박는 것이다. 재봉틀에 대고도 빠지지 않게 박을 수가 있다.

3) 두 겹을 다 거죽 쪽으로 꺾어 놓고 호아서 베어 버리고 안으로 꺾어 얇게 박는 것이다.

14. 뒤옹솔하는 법(통솔): 뒤옹솔하는 법은 거죽으로 박아 꺾고서 얇게 베고 안으로 뒤집어 베어 낸 시접이 솔기 속으로 들어가게 박아 꺾는다.

15. 솔 나는 법: 무명이나 옥양목 옷솔은 한 번 꺾어 박고 박은 밑은 밑을 베고 갈라서 그 위를 가늘게 재봉틀에 박든지 감치든지 하는 것을 솔 난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혼기에 들면 혼수 준비로 수繼를 놓고 혼수품은 스스로 만들었는데, 사대부가에서는 신랑의 도포를 신부가 직접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시집살이가 시작되면 옷을 만들도록 하여 며느리의 솜씨를 알아보았다.

바느질은 단순히 옷을 만들거나 수선하는 일만이 아니라 노인을 공경하는 며느리의 덕(婦德)의 한 덕목이었으며, 새댁의 버선 예물을 짓고 선달그름에는 어른의 새 옷을 지어 주었다. 동짓날에는 시부모에게 양기를 받으면 유익하다고 하여 시어른의 버선을 지어 그 양기를 밟게 하는 풍속이 있었다.

옛 어른들은 혼수와 수의壽衣를 마련할 때는 좋은 날을 받아서 하든가, 금기하는 일이 있었다. 혼수품은 팔자 사나운 과부나 아들을 못 낳는 여자는 만들지 않았다. 수의는 저승에서 입는 최상의 옷이므로 금기하는 일도 많았다. 수의를 만들 때는 뒷바느질을 하지 않았는데 뒷바느질을 하면 ‘영혼이 이승에 미련을 두게 되어 저승으로 가서 안착을 못 한다.’라고 하였다. 수의는 실 끝에 매듭을 짓지 않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매듭을 지으면 ‘이승에서 맺힌 원한을 풀지 못하고 저승에 가는 격’이라 후손들이 피해를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네에 초상이 났을 때는 ‘초상이 난다’고 하여 바느질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금기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하며, 내면에는 의리와 예의, 염치, 도덕성이 깔려 있는 반면에 여성 천시나 유사연상적類似聯想的 주술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바느질에 관련된 금기는 “옷 입은 채 껌매거나 단추를 달지 않는다(옷 복福이 없어진다).”, “색시나 신랑 옷은 홑옷과 솜옷은 입히지만 겹옷은 입히지 않는다(앞길이 막힌다).”, “과부는 색시 옷을 만들지 않는다(과부 팔자가 된다).”, “천화일天火日(토끼, 말, 쥐, 닭날)에 옷 마르지 않는다(옷에 불이 난다).”, “남에게 실을 꿰어 줄 때 매듭지어 주지 않는다(매듭이 풀릴 때까지 정이 떨어진다).”, “남자 두루마기(또는 남자요) 뜯어서 여자의 속옷 해 입지 않는다(남자가 재수 없고 약해진다).”, “아래 옷 고쳐서 옷옷 만들지 않는다(등창이 난다).”, “첫 닭날에는 바느질이나 길쌈을 하지 않는다(손이 닭 발처럼 된다).” 등이 있다.

바느질에 관한 속담은 “여덟 새[八升] 무명에 석새[三升] 바느질”, “석새 무명에 여덟 새 바느질”, “버선불 댈 줄 알면 어머니 없어도 산다.”, “외바늘 귀 타지기 쉽다.”, “식전에 가위 만지면 해롭다.”, “꿈에 실과 바늘 얻으면 만사가 길하다.”, “바늘에 실 길게 꿰면 멀리 시집 간다.”, “아기 백일 옷 백 줄 누비면 장수한다.”, “정월초하룻날 바느질하면 생손 앓는다.”, “칠월칠석날 밤 바늘에 실 꿰면 바느질 솜씨 는다.” 등이 있다.

참고문헌 閨閣叢書, 조선재봉서(김숙당, 활문사, 1925), 침선장(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5), 한국복식 2천년(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금종숙(琴鍾淑)

바지

정의 양쪽으로 다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랑이가 나누어져 있는 형태의 의복으로, 남자가 곁에 입는 아래옷.

개관 바지는 북방 기마민족의 영향을 받은 우리 민족 남녀 모두가 착용하는 일반적인 복식이다. 문헌에는 고袴·고의袴衣·곤褌·가반柯半·가배柯背·말군襪裙·리의裏衣·바지[把持, 把赤]·봉디·봉지 등의 다양한 용어로 나타난다. 바지의 형태와 색상, 직물, 구성법에 따라서 많은 용어가 선택적으로 사용되었다.

일단 색상에 의해서는 적황고赤黃袴·청금고靑錦袴·

자고紫袴·백고白袴·백저궁고白紵窮袴·황고黃袴·조고早袴·백주고白紬袴 등의 기록이 보이고, 직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청금고靑錦袴·릉고綾袴·갈고褐袴·백저궁고白紵窮袴·문릉관고文綾寬袴·백주고白紬袴 등으로 나뉘며, 바지의 구성법에 따라서는 홀바지[單袴]·겹바지[袂袴]·솜바지[縣袴]·누비바지 등으로 구분된다. 바지의 형태에 의해서는 궁고窮袴·태구고太口袴·대구고大口袴·고대구袴大口·관고寬袴·장고長袴·광고廣袴·당고唐袴·고장고古長袴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바지의 다양한 명칭에 따른 형태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바지의 다양한 명칭

명칭	특징
1 태구고太口袴 대구고大口袴 고대구袴大口	통이 넓은 바지(=관고寬袴, 광고廣袴)
2 장고長袴	긴 바지
3 당고唐袴	통이 좁은 바지
4 고장고古長袴	고쟁이, 고장바지, 꼬장바지
5 독비곤獨鼻褌	잠방이
6 말군襪裙	기마시 착용하는 여성의 특수의를복바지. 말고襪袴:末袴:末古라고도 함.
7 봉기[奉只] 봉지[鳳池]	바지의 궁중용어로 왕과 왕비의 바지.
8 고의袴衣	속바지.
9 개당고開襠袴	『광재물보廣才物譜』에 따르면 ‘밑이 터진 바지’로, 밑이 막힌 합당고를 입고 그 위에 개당고를 입었던 기록이 있음.
10 가반柯半 가배柯背	가반柯半은 신라에서 바지라고 하였고, 가배柯背는 고려 손목이 지은 『계림유사鷄林類事』에 고袴를 가배柯背라고 하였는데, 이는 신라시대의 가반柯半과 관련된 용어로 추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김동욱(1922~1990)은 바지 명칭이 가반에서 가배-가의-고이-괴로 변하였다고 주장함.

바지를 지칭하는 용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이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문헌까지 이 용어가 가장 지속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고는 전 시대를 걸쳐 남녀 하의를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바지라는 명칭의 어원인 ‘파지把持’는 『고려사高麗史』에 흔적이 보이고, 조선 초기부터 바지 형태의 하의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영조 때 『국혼정례國婚定例』에는 여자의 말군에

대응하여 남자의 하의를 가리켰고, 『상방정례(尙方定例)』에도 모두 ‘파지’로 기록되어 있다가 『궁중의대발기』에서 처음 ‘바지’라는 표기가 사용되었다. 또 16세기 순천 김씨 언문 간찰, 17세기 현풍 광씨 서간류, 조선 말의 다양한 의복 발기류에도 바지라는 용어가 나타나며, 남녀 모두의 하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바지의 명칭은 남녀 바지 모두 사용한 기록도 있고, 남녀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의를 지칭하는 남녀 공용의 명칭으로는 ‘단고(單袴)’와 ‘곤자(裨子)’가 있었으며, ‘바지’라는 우리말 표기는 16세기부터 남녀에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자의 하의류에서는 일반적으로 속옷을 지칭하는 ‘리의(裏衣)’가 문헌에 더 일찍 등장하였고, 이 밖에도 속속곳·단속곳·너른바지 등 여자 속바지의 명칭이 세분화된 것으로 보아 치마 안에 바지를 겹쳐 입었던 당시 여성의 옷차림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 조선시대 남자 바지는 형태·시기별로 세 단계의 변화 과정이 보인다. 첫 번째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임진왜란 이전 시기까지로 속곳형 바지를 주로 입은 시기이다. 다음은 임진왜란 전후의 과도기 형태로 속곳형 바지와 사폭 바지의 중간 형태의 바지를 입은 것으로 현재 여러 출토유물을 통해 확인된다. 마지막 단계는 사폭 바지로, 임진왜란 이후부터 많이 보이며 현재까지 입고 있는 바지와 거의 같은 형태이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도 중간 과도기형 바지와 사폭 바지가 혼용된 유물이 나오고 있어서 시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속곳형 바지는 당襠이나 밑이 있는 바지로 바지통과 부리가 넓고 트임이 있으며, 허리에 주름이 잡혀 있다. 크게 개당고형(開襠袴形)·합당고형(合襠袴形)·세가닥 바지로 나눌 수 있다. 개당고형은 여자 속바지와 같은 양식으로 바짓가랑이 밑에 당이 각각 달려 있으며, 좌우당이 겹쳐져서 입으면 속이 가려진다. 합당고형바지는 밑이 막혀 있으며, 허리에 트임이 있어서 입고 벗기에 편리하게 하였으며, 허리 중심 방향으로 주름이 잡혀 있으며, 단속곳과 같이 바지통은 넓다. 세가닥 바지는 가랑이 한쪽이 짧은 것과 긴 것이 같이 달린 이중구조 형태로 현재까지 네 개의 분묘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길이 108 허리 91 | 변수 묘 출토 | 16세기 초반



길이 107 허리 145 | 이진승 묘 출토 | 18세기 중반



길이 117.5 허리 126 | 신광현 묘 출토 | 18세기 말

바지 | 국립민속박물관

밑이 막혀 있으며 숨을 두고 누벼져 있다. 용변 시에는 이중으로 된 가랑이에서 짧은 것을 위로 걷고 간편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사폭 바지는 큰사폭·작은사폭·마루폭과 허리로 구성되어 있고, 트임과 주름이 없으며, 바짓부리에 대님을 매고 허리에는 허리띠로 여며서 입는다. 현재 입는 한복 바지와 같으며, 임진왜란 전후 시기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속곳형 바지와 사폭 바지의 중간 형태의 과도기 단

계로 보이는 바지로는 고여우(?~1640) 묘에서 출토된 것이 있는데, 전체 형태는 허리에 주름이 있는 속곳형 바지인데 특이하게 사폭과 마루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몰 시기가 임진왜란 전후 것으로 추정되는 전傳 박장군의 바지는 사폭 바지처럼 바지통은 좁으나 사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가랑이 부분에 당이 대어져 있다. 장흥 임씨(1590년대 추정) 묘 바지는 사폭과 마루폭으로 구성된 사폭 바지이나, 사폭이 매우 좁고 허리에 맞 주름이 잡혀 있다. 이러한 과도기 단계의 유물들로 봤을 때 속곳형 바지와 사폭 바지가 혼용되다가 서서히 사폭 바지로 바뀌어 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남자 바지가 사폭 바지로 변화된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로, 이러한 변화는 명명의 영향으로 보인다. “본국의 바지는 넓고 커 비용이 많이 든다. 중국의 바지는 세 폭이면 된다.”라는 1431년(세종 13) 조선 초기의 기록과, 심재(1722~1784)의 『송천필담 松泉筆譚』의 “선조 임진왜란 후에 …… 우리나라 남자는 중국에서 전래된 당고唐袴를 입게 되었고, 여자는 종래에 남자가 입던 고장고古長袴와 광고廣袴를 함께 입게 되었다고 하였다.”라는 18세기의 기록을 비교했을 때, 임진왜란 이전에 남자 바지는 여자의 속곳 형태처럼 폭이 넓은 바지였다. 전쟁을 치르면서 물자가 부족해지자 폭넓고 거추장스러운 복식에 대한 반성을 하고, 활동의 불편함 등으로 인하여 중국의 남자 바지인 사폭 바지를 도입하여 널리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시기별 출토유물을 통해 남자 바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속곳형 바지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변수邊隋(1447~1524) 바지는 속곳형 바지 두 점이 습의용으로 한 허리에 꿰매서 입혀져 있었다. 개당고형 바지로 속에 솜을 두었고 삼각무가 있으며, 허리 좌우 앞뒤에는 한쪽에 네 개씩 바지 중심 쪽으로 주름이 잡혀 있으며 넓게 퍼진 형이다. 직물은 겉감과 안감 모두 거친 주紬로, 겹이다. 최경선崔景璿(1561~1622) 바지는 속곳형 바지가 여섯 점이 출토되었는데, 개당고형(3점)은 부리 쪽이 약간 좁아지는 형이고, 합당고형(3점)은 넓게 퍼진 형이다. 직물은 면포綿布·주·삼베[麻布]이고, 구성은 홑(4점)·솜(1점)·겹(1점)이다. 습용襲用 바지는 속에 합당고를 입고 겉에 개당고를 입었다.

이진송李鎭嵩(1702~1756) 바지는 사폭 바지형으로 다섯 점이 출토되었고, 보공으로 넣은 네 점은 직물이 주이고, 겹누비 바지이다. 속에 솜을 넣지 않고 누빈 것이 특징이며, 누비 간격은 1~1.2cm로 고운 것과 5.5cm로 간격이 넓은 것도 있다. 습용 바지도 직물이 주이고, 바지 두 벌(겹바지, 홑바지)을 한 허리에 꿰매서 입었다.

신광헌申光憲(1731~1784) 바지는 사폭 바지형으로 세 점을 습용으로 입었다. 속에 홑바지를 입고, 그 위에 겹바지를 겹쳐 입은 후에 바짓부리에 행전을 찻으며, 허리띠와 대넒이 남아 있는 드문 사례이다. 바지·허리띠·대넒 직물은 모두 주이며, 허리띠 길이는 200cm, 대넒은 65cm이다.

참고문헌 변수 묘 출토복식 고찰(최은수, 생활문화연구11, 국립민속박물관, 2003), 여산 송씨 일가 묘 출토바지 고찰(권영숙·김정순·백영미, 한국의류산업학회지9-4, 한국의류산업학회, 2007), 의복명칭의 분화를 통해 본 조선시대 복식문화 고찰(강순제·김은정, 복식53-4, 한국복식학회, 2003), 이진송 묘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최은수, 이진송 묘 출토 복식, 국립민속박물관, 2010), 조선시대 남자바지에 관한 연구(구남옥, 복식52-7, 한국복식학회, 2002), 최경선 묘 출토복식 연구(김진경·송미경·진덕순, 복식66-5, 한국복식학회, 2016).

필자 최은수(崔銀水)

박가분 朴家粉

정의 1918년부터 1937년까지 박가분제조본포朴家粉製造本舖에서 만들어 판매한 화장용 백분白粉.

내용 박가분朴家粉은 서울특별시 종로4가 배오개에서 포목을 취급하던 박승직상점朴承稷商店에서 단골들에게 나눠주었던 사은품을 1916년에 상품화한 것이다. 가내수공업의 형태로 제조하다가 1920년에 조선총독부식산국殖産局에서 화장품 제조등록 1호를 취득한 이후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1922년에 경성생산품평會京城生産品評會에서 심사장審査長 상을 받았다.

박가분은 전통적인 백분 재료인 쌀가루와 보릿가루, 조개를 태운 흰색 가루, 찹가루 등에 납을 식초로 처리한 후 가열·건조해 얻은 납꽃을 섞어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분을 네모난 덩어리로 건조한 뒤 종이에 싸서



박가분 | 가로 4.8 세로 4.8 높이 1.7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박가분을 애용하시는 각위에게 조선 물산 장려를 축하합니다. | 1923. 1. 26 | 동아일보

상자에 담아 포장했다. 뚜껑에는 꽃무늬를 배경으로 박가분이라는 상표를 인쇄해 붙였다. 백분을 개별 상품으로 제조해 판매자의 이름을 넣고 전국 각지의 포목점과 잡화점에서 판매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브랜드 화장품으로 평가된다. 당시 박가분의 판매 가격은 한 상자당 50전, 박가분제조본포의 실제 출고가는 42전 5푼이었다.

1920년대 초반 박가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서가분(徐家粉), 장가분(張家粉), 설화분(雪花粉), 구라부(구라부) 백분 등이 등장했고, 왜분(일본제), 청분(중국제) 등 외래품까지 들어오면서 백분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하지만 1920년대 중반에 박가분을 바른 얼굴이 푸르게 변하는 부작용이 알려진 뒤, 그 원인이 백분에 섞인 납 성분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박가분 역시 연분(鉛粉)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납중독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출시 이후 상표와 포장을 도용해 제조한 함량 미달의 저품질 유사 상품이 유통되면서 박가분은 제품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1930년대 초반 유사품 제조업

자와의 법적 소송이 이어지고, 1935년에 박가분제조본포의 제분 건조실에 불이 나 건물 1동이 소실되는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1937년에 박가분 생산을 중단한 채 자진 폐업했다.

특징 및 의의 박가분은 판매를 시작한 1920년대 초반부터 1930년대까지 본격적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실었다. 박가분 광고에는 “콩알만큼 떼어 손바닥에 놓고 물을 떨어뜨려 개면 백 배 이상 불어나서 안면에 만족하게” 바를 수 있다는 사용 방법을 비롯하여 “화장계化粧界의 복음福音”, “부인 화장계의 패왕霸王”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여기에 “박가분을 항상 발느시면 죽은개와 여드름이 업서지오. 얼굴에 잡티가 업시 피부가 윤택하고 고아짐내다.”라고 효능과 효과를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되기도 했다. 유사 상품 등장이 이어지자 박가분은 제조·판매자의 이름을 걸고 생산한 상품이라 믿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분이 잊지마는 신용이 확실하고 책임이 분명한 박가분을 차지옵소서.”라고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까지 수록했다.

참고문헌 광고로 보는 한국 화장의 문화사(신인섭, 김영사, 2002), 우리 생활 100년-웃(고부자, 현암사, 2001), 이것이 한국 최초(김은신, 삼문, 1996).

필자 조희진(趙熙眞)

반물

정의 쪽잎을 물에 담가 추출한 짙은 남색으로 염색하는 방법.

내용 반물 이외에 염료는 쪽 상태에 따라 남전(藍靛·니람泥藍·청대靑黛)가 있다. 남전은 전람(靛藍·전靛)이라고도 한다. 전靛은 일정 기간 남을 발효하여 얻은 발효액에 석회류를 넣어 쪽의 염료 성분을 가라앉혀서 얻은 침전물을 굳힌 단단한 감색(紺色)의 덩어리를 말한다. 이때 고운 진흙처럼 된 쪽 침전물을 니람이라 한다. 남전을 분말화한 것을 청대靑黛라 한다. 청색 계통은 쪽으로 염색했는데, 염색 횟수에 따라 색상이 짙어져서 청靑·

紺紺·남藍·표縹 등 여러 색으로 표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관영수공업자인 청염장靑染匠을 상의원尙衣院에 열명, 제용감濟用監에 스무 명을 두어 전문적인 염색을 했으며, 민가에서는 마을 단위로 개인 수공업 형태로 염색을 했다.

특징 및 의의 반물은 요람이나 청대를 사용하여 염색한다. 『규합총서閤叢書』에는 쪽풀에서 색소를 추출한 후 명아주 잿물로 처리하여 염색한다고 기록하였다. 온전한 쪽잎을 항아리에 담아 물을 붓고 뜨지 않도록 돌로 눌러 하루쯤 담가 태양으로 열이 더해지면 담황록 색소가 추출된다. 이 물을 다른 그릇에 옮겨서 명아주 잿물(여회黎灰)을 붓고 푸른색 거품이 일어날 때까지 젓는다.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모시나 무명을 담가 염색한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따르면, 쪽잎을 따서 잘 닦은 다음 물에 담가 발효하여 봉호 잿물을 넣어 얻은 염액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염색하면 검은 청색인 아청색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증보 천연염료 염색사전(조경래, 아취현, 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한눈에 보는 전통천연염색(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2), 두피디아(doopedia.co.kr).

필자 소황옥(蘇晃玉)

반비 半臂

정의 반소매가 달린 상의의 총칭.

역사 『삼재도회三才圖會』에서는 “수나라에서는 내관이 반도半塗라는 장수의長袖衣를 입었는데, 당 고조가 그 소매를 감하고 이르기를 반비半臂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지금의 배자背子이다. 우리나라에서 반비라는 명칭이 처음 나오는 곳은 홍덕왕 복식금제로 남자 4두품까지만 착용이 허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착용되었던 반비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 후기에 와서는 ‘담호襜褕’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기록에 보이는 ‘반비’는 다음과 같다. “1406년(태종 6) 임금이 덕

수궁에 나아가 헌수하고 즐기다 임금이 그제야 교자를 탔다. 비단 반비를 입었는데 취한 것을 부축 받으며, 환궁하였다.” “1460년(세조 6) 계양군 이증 등을 인견하고 의장의 숫자를 줄이게 하다. 옛날에 세종世宗께서 대군大君에게 명하여 원룡반비圓龍半臂의 옷을 입게 하였지만 ……” “1506년(연산군 12) 거동 행차에 따르는 인원 선발과 금표를 범한 자의 처벌 등에 대해 전교하다. 나장의 옷 색깔은 검은색 철릭위에 반비를 입는다.” “순조대왕 행장行狀에 일찍이 비단 반비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 등의 내용으로 ‘반비’라는 명칭이 조선 후기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 통일신라시대 반비의 착용 모습은 경북 경주 용강동 고분에서 출토된 토용에서 볼 수 있다. 둥근 목둘레에 무릎 아래 길이이며 옆트임이 있는 모습인데, 허리에는 대를 매고 있다. 경주 원원사지遠願寺址 삼층석탑三層石塔에 새겨진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이 착용한 반비는 반소매 아래에 러플이 달린 독특한 모양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의 복식이 전수된 것으로 추측되는 일본 정창원正倉院 유물 중에 보이는 반비는 길이 98cm로 무릎 아래를 내려오는 긴 길이로 여밈이 깊어 용강동 출토품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며 옷고름이 안 달려 있어 허리에 대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정창원 유물 반비는 길이가 102cm이며 전자보다 여밈은 그다지 깊지 않으며 허리를 여미는 옷고름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 유물 모두 옆트임이 없고 허리 아래를 이색 천으로 장식했음을 보여 준다.

고려시대에는 충남 서산 문수사文殊寺의 금동여래불상의 복장腹藏에서 나온 반비는 반소매의 모시포이다. 깃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옆 터진 양쪽에 이중 주름을 잡았다. 경남 합천 해인사의 비로자나불 복장품腹藏品 중 하나인 반비는 문수사에서 나온 것과 거의 동일 양식이다. 마포로 만들었으며 이중 깃이며 동정을 댄 자국은 없다. 양옆에 무릎 달아서 옆주름을 처리하였고, 위에서부터 약 7cm 정도만 감쳐 두고 그 아래는 트임을 주었다. 보통의 포 위에 덧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반비의 착용 모습으로 풍속화 속 나장이 검은색 철릭 위에 반비를 입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반차도에는 뒤와 옆모습만 표현되어 있어 앞모습을 알 수는



없으나 겨드랑이 아래부터 트여 있어 세 자락으로 구성된 옷으로 여겨진다. 반비의 길이는 포의 길이에 맞춰 1700년대에는 길이가 짧아졌다. 색상은 『경종단의 왕후부묘도감의궤 景宗端懿王后祔廟都監儀軌』에만 청색이며 나머지는 모두 흑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겉에 입는 반비는 옆이 트여 있는 세 자락의 옷으로 길이가 허리 아래부터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것도 있으나 안에 입는 포가 짧아짐에 따라 반비 역시 짧아졌다. 조대 緋帶나 포대 布帶로 두르기도 하고, 반비의 앞자락을 뒤로 돌려 묶기도 했다. 또한 허리띠를 두르지 않기도 했다.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의 나장복 유물은 반소매이며 앞길은 진동과 양쪽 길의 길이가 같아서 마치 조끼와 같이 앞자락이 없는 형태이다. 뒷길은 한 자락으로 길게 내려와 있다.

특징 및 의의 통일신라시대 반비는 소매가 조금 달린 정창원 유물에 비해 소매가 거의 반수 半袖이며 소매 아래를 러플식의 장식을 한 것이 특징이다. 고려시대는 직령고임식이며 양옆에 무를 달아 옆주름을 처리하고 밑에 트임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반비’라는 명칭으로 반소매의 옷 명칭들이 남아 있다. 현재에도 우리 전통복으로 주로 남자들이 착용하는 소매가 짧은 옷들이 반비의 사용 예를 보여 준다.

참고문헌 三才圖會, 신라 복식의 변천 연구(권준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조선 말기 나장복에 관한 연구(박윤미·임소연, 복식66-1, 한국복식학회, 2016), 한국복식사개론(김문자, 교문사, 2015),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正倉院(shosoin.kunaicho.go.jp).

필자 김문자(金文子)

반지 半紙

정의 둥글게 만들어 손가락에 끼는 고리 모양 장신구.

내용 반지 半指, 斑指는 손가락에 끼는 장신구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환 指環이라고도 하며, 『훈몽자회 訓蒙字會』에서는 지환을 “가락지 또는 계지 戒指라고도 한다.”라고 하여, 반지를 이르는 명칭으로 계지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지환을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세부 개념으로서의 반지는 한 짝으로 된 것을 말하며, 두 개가 짝을 이룬 형태는 가락지, 두 짝이 붙어 있는 것은 합반지 合半指라고 한다. 『조선어사전 朝鮮語辭典』에는 가락지를 두고 “장식용으로 손가락에 끼는 금·은·주·옥들의 고리. 가락지는 두 짝으로 되고 반지는 한 짝으로 된 것. 지환 指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짝을 끼는 반지는 두 짝인 가락지의 반 半을 낀다고 하여 ‘반지’로 불렸다고 한다. 가락지는 예로부터 정성을 담은 신표 信表로 주고받았으며, 반지는 미혼·기혼을 가리지 않고 끼지만 이성지합 二姓之合과 부부일신 夫婦一身을 상징하는 가락지는 기혼 여자가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기록에서 반지는 이규보 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동명왕 東明王」에서 처음 보인다. 주몽 朱蒙과 송양 松讓이 활쏘기 재능을 겨루는데, 주몽이 옥지환을 백 보 밖에 걸어 놓고 활을 쏘 맞추니 송양이 크게 놀랐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관습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남아 있는 유물로는 함경북도 무산 호곡동 유적에서 출토된 B.C. 4~2세기의 청동지환과 평양시 낙랑 무덤에서 출토된 B.C. 1세기 후반의 은지환 등이 있다. 이처럼 반지는 삼국시대 고분에서 많이 출토되며, 이 시기부터 활발하게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 장신구는 지배계급이나 왕족으로 추정되는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반지는 일부에서만 출토되어 특정한 사람들만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체의 일부분으로서 노동을 해야 하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착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관이나 관모, 귀걸이, 허리띠 등의 다른 고분 출토품과 달리 실생활에서도 착용이 간편하면서 계급을 표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반지는 손가락에 착용하는 장신구의 특성 상 형태에 큰 변화 없이 하나의 고리로 된 기본형을 이루고 있으나 나라에 따라 모양이나 세부 장식에 차이가 있었다.

고구려 지역에서는 반지가 많이 출토되지 않았으며, 은제 銀製에 장식이 거의 없거나 단순한 경우가 많아 장식적인 목적보다는 부와 권력의 상징적 의미로 특정 계층에서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백제 지역에서는 삼



① 금반지 | 경북 경주 금령총 | 신라



② 은제 반지 | 조선



③ 가락지 | 20세기

반지 | ① 지름 1.5 | 국립중앙박물관, ② 지름 2.1 | 국립중앙박물관,
③ 지름 3 두께 1 | 국립민속박물관

국 중 가장 적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어 반지를 거의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토된 유물도 단순한 새김문으로 장식한 것이 대부분이다. 신라 지역의 경우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금제金製 반지가 많이 보이는 특징이 있다. 한 고분에서 열 개 이상의 지환이 출토되고, 피장자의 양손에 모두 반지를 착용한 채로 발굴되거나 열 손가락에 모두 끼고 있던 경우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반지 착용이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남성 피장자도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녀 구분 없이 패용된 것으로 보인다. 왕릉王陵급 고분에서 출토된 것일수록 금으로 된 것이 많으며, 누금세공鑲金細工 또는 구슬이나 유리를 상감象嵌하는 기법을 통해 화려하게 장식한 지환이 많다. 가야에서도 금·은반지가 고루 발견되는 등 신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장식은 다소 간소하다. 삼국시대 반지는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키노시마沖ノ島 7호

유적과 니자와센즈카新澤千塚 126호분 등에서 신라 또는 삼국시대의 반지와 유사한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고려시대의 반지 유물은 금·동·청동 등으로 만든 간결한 고리 모양으로 주로 남아 있다. 반지의 손바닥으로 향하는 부분이 C자 형으로 뚫려 있어 크기 조절이 가능하도록 한 형태도 있으며, 옥玉에 꽃과 새 모양을 조각한 것도 있다. 대몽항쟁기 이후 고려 부녀자들이 원으로 끌려갈 때, 부모와 친척들로부터 반지를 정표로 받아 끼고 갔다고 한다. 이것이 ‘고려양高麗樣’의 일종으로 원에서 크게 유행하였다고 한다. 한편,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는 현대의 반지와 같이 고리형 몸체의 윗부분에 네 개의 집게 모양 발을 물려 보석을 박아 놓은 반지가 수록되어 있다. 성천부사成川府使 심익창沈益昌의 부인 정산 이씨(1651~1671)의 묘에서도 보석을 박은 옥지환과 은지환이 출토되어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형태의 반지가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주와 홍보석을 박은 반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궁중발기[宮中件記]」에도 진주장도금지환珍珠粧鍍金脂環, 진주장옥지환珍珠粧玉脂環, 진주장산호지환珍珠粧珊瑚脂環 등 금속이나 옥석류玉石類에 다른 보석을 감입嵌入하여 장식한 것으로 보이는 반지의 물목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반지의 형태는 표면에 무늬를 음각하거나 파란[琺瑯](칠보)으로 장식한 반지나 가락지이며, 옥·비취翡翠·밀화蜜花·산호珊瑚 등은 재료 그대로를 살려 장식 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무늬 없는 민지환珉指環은 할머니나 어머니가, 아름답게 꾸민 것은 젊은 새댁이 껴다. 가락지는 상류층과 서민층에서 차별 없이 사용하였으나 옥·비취·산호 등은 상류층에서 착용하였으며, 서민층에서는 간결한 무늬가 새겨진 은이나 백동, 동가락지를 많이 사용하였다. 동가락지는 구리를 몸에 지니면 편두통이 생기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어 민간에서 많이 착용했다고 한다. 장식 무늬로 복福과 장수, 자손번창 등을 기원하는 박쥐문과 수壽·부富·귀貴·다多·남男·자子의 문자무늬, 국화·매화 등의 화초무늬나 기하무늬[幾何文]를 주로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궁중이나 상류층 부녀자들이 계절에 따라 각각 다른 반지를 끼었는데, 『순화궁첩초順和宮帖草』, 『사절복색자장요람四節服色資粧要覽』에는 “10월부

터 정월까지, 즉 겨울에는 금지환을 끼고 2월부터 4월까지는 파란지환을 낀다. 5월 단오날이 더워 초사당한 삼納紗唐汗衫을 입을 때에는 옥지환이나 자마노紫瑪瑙지환을 끼고 8월 중순 광사당고의廣紗唐袴衣를 입을 때에는 다시 파란지환을 꺼서 9월의 공단당고의貢緞唐袴衣를 입을 때까지 끼게 된다.”라고 하였다. 겨울에는 금반지, 여름에는 옥·마노반지, 봄·가을에는 파란반지 등을 낀 것을 알 수 있다. 금반지는 비빈妃嬪들의 정장正裝에만 끼었으며, 겨울이 아니고 한여름이라도 직금織金 당의에 스란치마나 대란치마를 갖추고 큰머리 칠보를 하는 예장禮裝 차림에는 금반지를 착용했다. 여름용 반지는 재질이 무른 고급 옥석으로 되어 있어 굽게 만드는 것이 보통이며, 일할 때를 피하여 나들이 갈 때나 의식儀式이 있을 때 끼었다. 두툼한 은이나 호박가락지는 노리개 대용으로 웃고름에 매어 차기도 했다.

특징 및 의의 반지는 작고 간단하면서도 눈에 잘 띄는 손에 착용하는 장신구로서 고대로부터 실생활에서 신분을 상징하는 역할을 해왔다. 조선시대에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남녀 간 애정과 신뢰의 정표이자 혼인의 상징물로서 착용하였다. 반지는 가장 작고 소소한 장신구였지만 고대로부터 조선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른 문화와 양식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다채롭게 변화해왔다. 삼국시대의 반지를 통해서는 문화 교류의 일면을 엿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의 반지는 장수와 자손번성 등 현세의 행복을 기원하는 상징적 도구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담인복식미술관 개관도록(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9), 삼국시대 지환에 관한 연구(차현주,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장신구(석주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80), 조선시대 후기 공중패물 연구(박혜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조선여인의 미(부산박물관, 2005), 조선조궁중풍속연구(김용숙, 일지사, 1987).

필자 오선희(吳宣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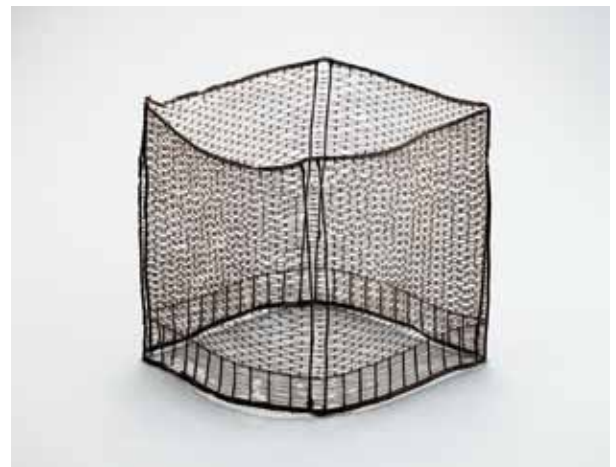
방건 方巾

정의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일상에서 상투 위에 썼던 상자 모양의 쓰개.

내용 방건防은 사각형 면 네 개가 연결되어 제작된 네모형의 쓰개로, 사대부들이 망건 위에 쓴 평상시 쓰개였다. 말총을 이용하여 실을 엮어 짠 것으로 탕건과 형태는 다르지만, 짜임새는 유사하다. 이마에 닿는 부분과 머리 위를 감싸는 부분은 다른 조직으로 짜여 제작되었다.

방건은 그 형태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방관·사방관·사방평정건으로도 불리었다. 중국 명나라에서는 선비들이나 문인, 유학자들이 사용했는데, 이는 이미 남조의 사대부들이 즐겨 쓰던 것으로 외출할 때나 집에서 쓴 사각형의 두건 형태의 쓰개였기 때문에 사방평정건·사방각건이라 불리었다. 명대明代 초기부터 사방평정이라는 정치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더욱 널리 착용하게 되었다. 이를 사라紗羅 같은 비단으로 만들어 유생이나 중소지주中小地主, 퇴직 관료들이 일상복과 함께 널리 사용하였다. 명대 말기가 되면 높이가 극히 높아져 마치 머리 위에 책장을 얻은 것 같은 형상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방관方冠·사방관四方冠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방관은 주로 유학자들이 평상시 상투에 망건을 쓴 모습에서 예를 갖추기 위해 썼던 간편한 쓰개인데, 평상시에 착용하는 의복인 도포, 중치막 등의 편복과 함께 썼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606년(선조 39)에 중국 사신이 다례茶禮를 행한 뒤에 상의를 벗고 방건과 도포道袍를 착용한 모습의 기록에서 확인되어 편안한 차림에 썼던 쓰개임을 알 수 있다.



사방관 | 가로 28 세로 17 | 1900년대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방건 | ① 신한평 | 이광사 초상 | 국립중앙박물관, ② 김홍도 | 서당 중 부분 | 국립중앙박물관

방건의 형태에 관한 기록은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 “방관은 사각(四角)이면서 편평하다. 이것은 옛 각건(角巾)의 유제(遺制)이다.”라고 하였다. 조선에서는 중기부터 벼슬을 한 사람들(향사(鄕士))이 평상시에 갓 대신에 즐겨 썼던 쓰개 중의 하나였고, 조선 말기까지 형태에 큰 변화 없이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사방관을 착용한 모습은 초상화나 회화 자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위가 막혀 있는 상자형이 대부분이며 위가 터진 것은 조선 말기의 유품 중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처음에는 형상에 구분 없이 방건·방관·사방관의 명칭이 혼동되어 사용되었으며, 이를 구분하여 부르게 된 것은 조선 말기로 추측된다. 정수리 부분이 막힌 것은 사방관·방관이라 하였고, 정수리 부분이 없는 것을 사방건·방건이라 하여 구분하였다. 조선 중기에는 위가 막혀 있는 형태였으며 사방이 유사한 크기로 제작되었다. 17~18세기로 갈수록 위가 막힌 형태로 점차 윗부분이 넓고 아래 부분이 좁은 형태로 변화되었다. 조선 후기인 19세기에는 윗부분이 열린 형태의 방건을 주로 착용하였다.

방건의 유물에서 보면 위가 열려 있는 방형의 쓰개로 말총으로 제작되었다. 하단에는 선을 대어 단을 구획하고 세로 방향으로 사슬뜨기를 하였다. 그 윗부분은 마치 마름모 형태로 짜여 있어 그 내부가 비쳐 보이고, 뒤 중심선과 가장자리는 대오리로 선을 대어 보강하였다. 방건은 말총을 섬세하게 엮어 만들기도 했지만, 형겅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중국의 방건은 포백제가 대부분인데, 조선시대에는 고운 말총 외에도 검은색의 사(紗)나 라(羅) 등의 직물도 사용되었다.

방건은 담와(澹窩) 홍계희(洪啓禧) <평생도(平生圖)>에서 보면 일곱 명의 남자들 중에 여섯 명이 갓이 곧은 형태의 포를 착용하고 방건을 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착용한 모습은 사각형의 면이 이마를 감싸게 착용하였다. 김홍도의 풍속화 중 <자리짜기>의 남자, <서당>의 훈장, <기와이기> 등에 등장하는 남자의 쓰개가 모두 위가 막혀 있는 방건이었다. 방건은 풍속화에서 보면 평평한 면이 이마에 오도록 쓰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검정색 말총을 성글게 엮어 만든 방건은 네 개의 면을 연결하여 만들어진 사대부가의 평상용 쓰개이다. 특히 방건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집안에서 쓰던 편복용 관모 중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사용하였다. 탕건과 마찬가지로 근세 이후 남자들의 머리 형태가 짧아져 탕건을 사용하지 않은 이후에는 사용례가 줄어들어 유물로만 남아 있다. 평면의 형태로 다른 남자들의 쓰개보다 제작법이 간단하고 보관법도 간편했다.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모양은 사각형의 형태로 제작되었지만, 중기 이후 모체의 윗부분이 넓고 아래 부분이 좁은 형태로 변화가 있었다. 또 사방이 막힌 형태에서 후기에는 윗부분이 열려 있는 형태로 변화가 있었다. 방건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평상시에도 예를 갖추기 위해 썼던 다른 쓰개보다 간편한 형태로 당시 남자들이 쓰개를 통해 예를 갖추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三才圖會, 林園十六志, 朝鮮王朝實錄, 우리 관모의 시말에 관한 연구(강순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조선시대 풍속화(국립중앙박물관, 20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9(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中國古代服飾史(周錫保, 中國戲劇出版社, 1986), 中國古代服飾研究(沈從文,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1).

필자 김은정(金恩姘)

방립 方笠

정의 중앙 부분이 오목한 원뿔형으로 만들고, 갓의 가장자리를 네 개의 꽃잎 모양으로 마무리한 외출용 쓰개.

내용 방립(方笠)은 삿갓의 일종으로 겹은 가늘게 쪼개고

다듬은 대오리를 사용하고 안쪽은 왕골을 엮어 대어 샷갓같이 만든 후 입첨笠簷의 가장자리를 네 개의 꽃잎 모양으로 마무리하여 샷갓보다 섬세하고 정교하게 제작한 외출용 쓰개이다.

방립은 굴갓·방갓이라고도 하는데, 방립형 갓이라고 하면 방갓과 샷갓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 방갓은 흑죽방립과 백색방립의 색으로 구별된다.

방립의 쓰임새는 시대에 따라 달라서 신라와 백제 시대에는 일반인이 모두 일상에서 사용하였다고 해서 나제립이라고도 하였다. 여복輿服 관복에 관한 규정으로는 『고려사高麗史』에서 1362년(공민왕 11)에 대언大言, 반주班主 이상에게 모두 흑초방립을 쓰라고 하였다. 1375년(우왕 원년)에는 각 사司의 서리胥吏들에게 흰 방립을 쓰라고 하여 관직의 서열에 따라 흑색과 백색을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직물이 사용된 기록도 볼 수 있다.

방립은 조선시대에 그 쓰임새가 변하게 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416년(태종 16)에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하급관리인 아전衙前의 방립方笠에 흑칠黑漆하여 쓰게 하였다. 그런데 1425년(세종 7)의 기록에는 길주·경성·경원·갑산의 아전들은 평립平笠을 쓰고, 북청·단천의 아전은 방립을 쓰고 있어 같은 관리직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44년(세종 26)에는 도절제사都節制使가 해임된 후 방립方笠을 쓰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어 방립은 낮은 관직 혹은 관직을 벗은 사람들의 쓰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472년(성종 3)에는 예조禮曹에서 평안도 향리들의 평상복에 『대전大典』에 따라 흑죽방립黑竹方笠을 쓰도록 건의하였다. 이처럼 방립은 임진왜란 전에는 아전의 쓰개, 관직이 없는 사람의 쓰개, 향리의 평상복 쓰개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지방의 낮은 관직인 아전 등의 서리胥吏사회에서도 방립을 사용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거의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상중喪中에 있는 남자들의 외출용 쓰개로 사용하거나 농민의 쓰개로 쓰였다. 조선 말기 사진 속에는 행상인들의 쓰개에서 확인되거나 특수한 용례로는 여자의 외출용 쓰개로도 활용되어 특정 관직자의 신분을 표기하는 쓰개라기보다는 외출할 때 햇빛이나 비를 막기 위한 일상적인 용도로 쓰였다.



① 방립 | 1907



② 상중 의출용 쓰개



③ 방갓 쓴 상인

방립 | ① 높이 21.5 너비 51 | 국립민속박물관, ③ 국립민속박물관

유물을 통해 본 방립은 굵은 얇은 대나무로 제작하고, 안은 왕골을 엮은 형태로 갓의 끝부분이 네 개의 꽃잎 모양인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안쪽에서 보면 머리에 맞춰 쓸 수 있게 제작한 미사리가 있는 것과 미사리가 없는 것으로 나뉜다. 방립은 일반적으로 대나무와 왕골로 제작되나 유물 중에는 가장자리를 삼베로 덧붙여 놓은 것도 있는데, 끝부분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방립의 크기는 착용했을 때 대체로 남자들의 어깨 너비 정도이거나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정도이다. 이에 반해 여성이 쓰는 방립은 미사리 없이 상반신을 덮을 정도로 컸는데, 개성에는 이렇게 큰 방갓을 얹은 여성이 먼 길을 떠날 때에 내외용 쓰개 대신으로 사용하던 풍속이 있었다.

방립과 함께 입은 의복은 사진이나 회화 자료에서 보면 도포나 소매가 넓은 포를 입고 있었고, 조선 말기에는 두루마기 또는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있어, 상중의 남자나 행상인들의 쓰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방립은 대나무를 얇게 쪼개어 겹을 만들고, 안쪽에는 왕골을 받쳐 만들어 원뿔 모양으로 만들며 갓의 가장자리를 꽃잎 모양으로 만들어 샅갓보다는 정성을 들여 제작한 외출용 쓰개이다. 조선 전기에는 낮은 계급의 쓰개로 사용되었으나, 중기 이후에는 점차 사용하지 않았으며, 행상인과 상인(喪人)이 사용하는 정도였다. 이북 개성 지역에서는 여성이 먼 길을 떠날 때 썼던 외출용 쓰개로 남성의 것보다 크게 제작하여 얼굴과 상반신 일부를 가렸다.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조풍연, 서문당, 2004), 우리 관모의 시말에 관한 연구(강순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조선시대의 관모(윤양민숙박물관, 19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김은정(金恩姘)

방심곡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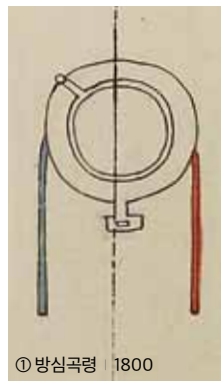
方心曲領

정의 왕·왕세자·왕세손의 제복(祭服)인 면복(冕服)의 현의 玄衣나 문무백관이 제복으로 입는 청초의(靑綃衣) 또는 흑삼(黑衫) 위에 더하는 부속물.

역사 방심곡령(方心曲領)의 유래는 중국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당나라 때 복식이라고만 알려졌고 송나라 사람들 역시 실물을 얻지는 못했다고 하니 그 유래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425년(세종 7)에 명나라가 공민왕조에 내린 원유관(遠遊冠)·강사포(絳

紗袍)의 내부에는 방심곡령이 있었는데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묻고, 또 언제부터 쓰지 않았는지 글로 아뢰라고 하였다. 이에 관해 1426년(세종 8) 예조와 의례상정소가 조정의 관복제도를 조사하여, 임금의 면복과 원유관·강사포에는 방심곡령이 있어야 하며, 배신(陪臣)이 조현하는 의복과 제사 지낼 때 관복에도 방심곡령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1430년(세종 12) 악공의 복식을 조사하여 악정(樂正)은 붉은 공복(公服)에 방심곡령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532년(중종 27) 동가제(動駕齋) 복식을 의논한 내용에 따르면 면복이라도 방심곡령은 바로 제사를 올릴 때 입는 것이라고 하여 제사를 올릴 때에는 착용했으나 올라가고 내려올 때에는 착용하지 않았다. 뒤따른 망묘례(望廟禮)는 역시 신명(神明)과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심곡령을 착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예조의 뜻을 따랐다. 이로써 중종(中宗) 대 이후 방심곡령은 제사를 지낼 때 더하는 부속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방심곡령의 둥근 부분은 하늘을 상징하고 모난 부분은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늘과 땅에 온 정성을 다해 조상을 모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대례복인 면복 위에 방심곡령을 둘렀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차림이다. 그러나 반드시 면복 위에만 착용한 것은 아니었다. 1426년(세종 8)에는 역대 제왕의 화상을 보면 강사포를 입을 때 방심곡령을 했다는 지신사(知申事) 곽존중(郭存中)의 말에 따라 강사포에 방심곡령을 더했다. 그러나 1532년(중종 27)에는 제사를 올릴 때 방심곡령을 입는 것이라는 전교에 따라 조복 등의 옷에는 착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왕을 비롯하여 왕세자, 왕



방심곡령 | ① 정조국장도감의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② 길이 97 화장 84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세손 등은 제사를 지낼 때 면복에 방심곡령을 더하였으며, 문무백관의 경우에도 제사에 참여하는 헌관만 방심곡령을 더하였다. 특히 『제기악기도감의궤(祭器樂器都監儀軌)』에는 방심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기록되어 있는데, 방심 121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로 1건당 단추(단초緞綯) 3개, 백초 3척²이 들어가므로, 전체 필요량은 백초 10필³ 13척이 들어가면, 좌우 영자 242건에 매 건마다 초록주(草綠紬) 4촌, 홍주(紅紬) 4촌이 들어간다고 하였다. 백관의 방심곡령의 형태를 보면 뒤에서 목은 끈이 보이는데 이는 왕, 왕세자, 왕세손의 늘어뜨린 끈과 같은 것이었다. 한편, 현전하는 초상화 중 방심곡령을 두른 예는 효명세자(孝明世子)의 예진(睿眞)에서 확인되는데, 이 예진은 화재로 인해 반 이상이 불탔지만 방심곡령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이 방심곡령에도 왼쪽으로 녹색, 오른쪽으로는 홍색의 끈이 달려 있다.

특징 및 의의 방심곡령은 형태상 목에 두르는 곡령(曲領)과 가슴 앞으로 내려오는 방심(方心)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국조오례서례』를 보면 「제복도설」에서 방심곡령을 흰색 비단인 백라(白羅)로 만들며, 양쪽 측면에 끈이 달려 있는데 왼쪽은 녹색이고 오른쪽은 홍색이라고 하였다. 왕·왕세자·왕세손의 방심곡령은 왕의 방심곡령과 형태 및 재질이 같았지만, 문무백관의 방심곡령은 백초(白紬)로 만들었으며 곡령만 보이고 방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序例, 祭器樂器都監儀軌, 朝鮮王朝實錄, 면복(최연우, 문학동네, 2015),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조선 왕조 궁중의궤복식(유승옥, 수확사, 1991).

필자 이민주(李民周)

방염 防染

정의 섬유나 천에 염료액이 스며들지 않게 실 또는 고무줄로 묶거나, 밀납·납류로 염료를 막고 염색하는 방법.

내용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섬용지(贍用志) 채색 편에서

시칠(柿漆) 제조법을 보면 “뜻감 한 말의 감꼭지를 따고 물 두 되 다섯 홑을 넣고 찼어서 하룻밤을 재운 뒤 짜내고 찌꺼기는 물에 타서 이를 재운 뒤 다시 짜낸다. …… 모두 물이 쉽게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였다. 감은 방수, 방충이 되기 때문에 단청도료를 칠하기 전에 시칠했으며, 부채·한지·가방·지호·합·가구 등에 칠하여 사용하는 방염, 방충을 제시하였다.

공예 염색이나 산업적 날염 방법으로 사용한 방염은 형지날염이나 호형방염으로 찻쌀가루와 겨의 혼합료로 문양 부분을 하얗게 방염한다. 바탕 염색은 단색이나 바림기법(gradation)으로 색을 바탕 붓으로 그리거나 침염 방식으로 염색하는 방식이다.

방염에는 감을 발효하고 칠하여 방염하거나 방염호를 그대로 놓거나 방염제를 넣어 인날(印捺)하여 건조 후, 바탕 염색을 하는 백색방염이나 발염법(拔染法)이 있다. 바탕 염료보다 강한 염료에 착색제를 넣어 인날해 건조한 후 바탕 염색을 하는 착색방염(着色防染)도 있다. 또한 납방염이라 하여 천에 파라핀·목납·백납·밀납 등 다양한 납(蠟) 종류 중 세 가지를 선택하여 공예 염색에 단계적으로 방염한다. 이후 회화처럼 그림을 그려 채색하고 다시 방염하여 염색하는 납방염은 공예 염색 방법 중 가장 세밀한 기법이다.

참고문헌 林園經濟志, 염료식물 재배 및 염직물 제작에 관한 연구(김지희, 교육부지원 지역개발과제,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천연염색(이종남, 현암사, 2004), 두피디아(doopedia.co.kr).

필자 김지희(金芝希)

배넛저고리

정의 생후(生後)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초생아를 씻기고 입힌 깃과 셔를 달지 않은 옷.

개관 배넛저고리가 언제부터 왜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아기의 탄생은 가문 번창과 종족 번식에 일차 관문이며, 이 옷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생후 최초로 입는 옷이라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

1950년대까지도 아기에게 ‘사흘^{三日} 날 아침’과 ‘첫 옷 입히기’는 매우 큰 관심사였다. 이는 인간이 일생을 거치는 사례^{四禮} 등 큰 관문들 중에서도 가장 각별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 중기 오희문^{吳希文}(1539~1613)의 『쇄미록^{瑣尾錄}』에도 “오늘이 곧 새로 난 아기의 삼일이다. 몸을 씻기고 비로소 새 옷을 입히고 이름을 창업이라고 지었으니 ……”라고 한 것도 그 한 예이다.

태어난 아기는 ‘포대기(쌀깃)’에 싸 두었다가 사흘 날 아침에 첫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혔다. 여기에는 ‘첫 의례복’ 또는 ‘첫 예복’이라는 명목 아래 무병장수·부귀공명 등과 함께 유사연상^{類似聯想}·주술행위, 생활철학과 실용·과학·합리성이 담겨 있다. 여유나 관심이 있는 집에서는 남존여비^{男尊女卑}, 특히 장손과 장남 우대사상이 철저했다. 유물에서 ‘반소매’가 드문 것도 이러한 특징 중 하나이다.

내용 꼴(형태·모양)은 우리나라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저고리의 기본 틀(구조)은 길(몸통)·소매·깃·동정·섶·웃고름이다. 그러나 배넛저고리는 길과 소매, 웃고름뿐이며 색이나 재료·바느질도 일반 저고리보다 매우 단순하며 엉성하다.

흰색으로 만들었는데, 내면에는 겹양과 우려·실용을 담고 있다. 아이 때부터 ‘무색(염색^{染色}, 색옷)’은 쓰지 않았다. 염색한 고운 것으로 만들면 “옷 욕심이 세지고, 귀신이 해코지하기 때문”이라 해서였다. 웃감은 주로 면류^{棉類}로 하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짠 무명을 쓰다가 차츰 시중에서 파는 느린(성긴) 무명류·광목·인조·옹絨(모달리)·소창지(오열베, 오일미닝) 등을 썼다. 완고한 집에서는 “웃옷은 ‘윗사람’, 즉 양반을 상징한다.”라고 하여 집안에 복^福 있는 남자 어른이 입던 ‘웃옷’(상의^{上衣}, 표의^{表衣})으로 했다. 이는 조상의 운^運과 복, 혈연적 유대감, ‘헌것’은 겹양과 ‘삭복^{朔福}의 미덕’을 기르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수의^{壽衣}를 만들고 남은 것도 쓰였다.

옷 만드는 시기는 출산이 가까워질 때나 해산^{解産} 후이다. 대부분 출산 후에 만들었는데 이는 미리 준비하면 ‘귀신(삼신할머니)의 심술(해코지)로 출산이 더디거나 불상사가 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보통 두 벌이나 세 벌을 만들고 더러워지면 갈아입혔다.

만드는 사람은 “첫아이 것은 친정에서 만들어온



배넛저고리 | 길이 28 폭 26 화장 33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다.”라고 하였으나 주로 시어머니·할머니·친정어머니 또는 아기 엄마가 산후^{産後}에 만들기도 했다. 무엇보다 첫아들을 낳고, 부부해로^{夫婦偕老}하고 무병장수하며, 행동거지가 바르며 복덕^{福德} 있는 어른이 만들어 주는 것을 으뜸으로 여겼다.

바느질은 ‘홈질’과 ‘휘갑치기’ 두 가지로 했다. 바느질거리 중에서도 가장 성글고 불품없는 초보자 수준으로 한다. 홈질(웃감 두 장을 포개어 바늘땀을 위아래로 드문드문 호는 바느질)은 진동(어깨선에서 겨드랑이까지 폭이나 넓이)과 소매배래에, 휘갑치기(마름질한 웃감의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게 꿰매는 일)는 ‘도련’(저고리나 두루마리 자락의 가장자리)과 ‘소맷부리’(수구^{袖口}) 등 시접이 풀린 곳에 했다. 솔기는 아기살에 배기지 않도록 대부분 겹으로 내놓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웃고름인데 ‘명^命줄’이라 하며 길이는 길게, 반드시 무명실로 썼다. 이는 ‘무병장수’를 인간 최상의 염원이자 큰 목표로 삼았던 흔적이다. 실은 ‘홀수’로 일곱이나 아홉 가닥으로, 겹고름은 ‘돌띠’처럼 허리에 한 바퀴 돌려 뉘 수 있도록 길게 달았다.

옷의 길이는 배가 덮이도록 길며, ‘등술기’는 내지 않았다. 소매는 웃고름과 함께 이 옷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이 나와서 손톱으로 얼굴을 핏하지 못하게’ 길게 만드는 것이다. 긴소매의 역할이나 의미는 지역마다 다르게 덧붙여지기도 한다. 제주^{濟州}에서는 ‘파리 쫓기 위험’, 경상도에서는 ‘손은 도둑질에 쓰는 등 죄 많은 물건이라 소매가 짧으면 자라서 퇴박 받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 양반이나 관복^{官服}의 소매를 손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길게 만든 것과 상통한다. 특

별히 배넛저고리에서의 소매길이 장단(長短)은 남존여비 사상의 단면으로 ‘남아(男兒) 것은 길게, 여아(女兒) 것은 짧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배넛저고리는 영성하고 볼품없이 만든 옷인 것 같지만 실용과 과학, 합리성을 담고 있다. 먼저 깃을 달지 않은 점이다. 깃을 달면 아기는 열이 많은 데다 깃이 살에 닿으면 답답하고 살이 짓무르기 쉽다. 다음으로 시접이나 솔기는 밖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연약한 살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함이다. 아울러 실로 고름으로 삼은 것은 장수와 연결시키고 있지만, 늘 누워 있는 아기의 등살이 옷에 배기는 것을 막기 위한 배려인 셈이다. 제주의 ‘봇뒤창옷’에서 대소변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뒤의 아래쪽을 터 두는 것 등은 유사연상과 실용의 양면이 특히 돋보이는 부분이다.

지역사례 제주도에서는 배넛저고리를 ‘봇뒤창옷’이라 했다. ‘봇’은 여성의 ‘자궁(子宮)’, ‘뒤’는 ‘후(後)’, 즉 ‘아기가 태어난 다음이라는 뜻’이다. ‘창옷’은 뒤가 트인 ‘홀옷’을 말한다. 창옷은 남자 어른이 입는 상의 가운데 포류(袍類) 중 하나이다. 태어난 아기에게 처음 입히는 홀옷이긴 하지만, ‘어른이 입는 큰 옷’을 입힌다는 의미이다. 창옷의 길이는 엉덩이 아래까지 길게 하되 뒷쪽의 허리 아래는 터놓았다. 이 뒤트임은 대소변을 봐도 옷에 묻지 않게 하자는 실용과 지혜가 담겨 있다. 옷감으로 삼베(마포(麻布))를 사용한 것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삼베를 쓴 이유는 “부스럼 나지 말고, 가렵지 말며, 참으라(인忍)”는 의도라 했다. “삼베의 거친 촉감은 여린 살갗에 견디기 힘들다. 물이 귀하고 살기 고된 제주에서 아기 목욕을 자주 시키지 못했으니 가렵기 마련이다. 따갑고 가려워서 몸을 움쩍거리니 거친 삼베 자극으로 더 아프다. 아프니 보채고 울어도 아무도 돌봐 주지 않는다. 그러나 혼자 참고(인내(忍耐)) 해결해야 하는 신세”라는 것이다. ‘험한 세상 살려면 미리 단련하고 각오해야 할 것이며, 아니면 생(生)을 포기해라’ 했던 제주 사람의 처절함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삼베옷은 단순히 이들의 한(恨) 맺힌 ‘푸념’만이 아니라, 효능을 미리 간파한 지혜의 소산이다. 여름옷으로, 상처치료용으로, 특히 여성들의 해산 때나 ‘달걸이, 가짐거리(월경대(月經帶))’에서 터득한 효능을 알고 썼을 것이다.

특히 제주도 지역 남자아이의 것은 소매길이를 삼베 한 폭(幅)을 통으로 써서 ‘춘(온)소매’라 하고, 여자아이의 것은 반폭만 써서 길이가 짧은 ‘반소매’로 했는데 이는 ‘여자는 반쪽짜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특정한 옷에는 옷감이나 색·크기·무늬 등에 각기 다른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는데 배넛저고리가 가장 많다. 명칭은 전국적으로 40여 가지나 되는데, 가장 많은 것이 ‘배넛저고리’이다. 태어났지만 아직 미숙한 영아(嬰兒)들이 입는, 즉 ‘눈도 코도 없는 옷’이라는 말과 격이 맞는 표현이다. ‘일안(이레안)저고리’는 태어나서 “세이레(21일) 동안 입힌다.”고 함이다. 이는 ‘7일에 한 번씩 세 번 입힌다’는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중 핵심은 ‘눈도 코도 없는 옷’이라는 데에 있다. 즉 중요한 부분은 없고, 길·소매·옷고름 세 부분뿐이라는 점이다. 이 표현은 다른 어떤 옷보다 가장 직설적이며 특징을 잘 나타내었다. 성인의 저고리 중에 있는 동정·깃·섶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조상들은 피복거리를 여러모로 인체와 연관시켰다. 특히 저고리는 상의(上衣)이므로 각별했다. 저고리는 인간의 얼굴이요, 상체(上體)를 상징했다. 따라서 깃과 섶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반면 사람으로 치면 눈과 코인데, 이것이 생략되었음을 비유한 말이다. 또 다른 의미로 ‘생략됨’은 ‘격을 갖추지 못함’, 즉 ‘미완숙(未完熟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의술(醫術)이 발달하지 못한 탓에 영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출산에서부터 100일이나 돌을 넘기기가 어려웠던 까닭도 있다.

배넛저고리가 다른 옷과 특별히 달리 취급되는 것은 ‘물림’과 ‘운수 좋은 옷’이라는 점이다. 첫 배내옷의 운수 좋은 효험과 물림은 남자아이 옷에만 해당되며, 그중에서도 장남, 그보다 장손 것이 더욱 좋다. 오빠 것을 여동생이 물려 입지만, 누나 것은 금물이다. 운수 좋은 옷은 많이 활용되었는데 특히 빨지 않은 것이 더 효험이 있다 하여 잘 보관해 두었다가 시험·재판·전쟁에 나갈 때 겹옷의 등판 속에 꿰매었다. 얼마 전까지도 자신이 입었던 옷이나 남의 것이라도 얻어 시험장에, 국회의원 유세 때, 노름판까지 이용되었던 경우가 많다. 전에는 할머니가 손자 몰래 등바대(홀옷의 깃고대 안 쪽으로 길고 넓게 덧붙여서 등에 대는 형질)로 대 주거

나 꾸러미 속에 지니고 다녔다 한다.

아기 옷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다. 곳곳에 ‘삼신 할머니’가 지키고 있다가 잘못하면 ‘자신을 업신여기는 처사’라 하고 아기에게 ‘해코지’로 앙갚음하기 때문이다. 특히 낡아서 처리할 때나 빨 때도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았다. 버리거나 걸레 같은 허드레로 쓰면 아이가 쓸모없고 천한 사람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행주’로 썼는데, 고로古老(옛 일을 잘 알고 있는 노인)들의 표현으로 “행주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닦아 주며, 깨끗한 물속에서만 논다.”라는 이유이다. 낡거나 쓰임이 없어지면 대부분 아궁이에서 태우는데, 정성을 다하는 집에서는 새벽에 집 밖의 깨끗한(정淨) 곳의 방위를 택했다. 빨 때나 말릴 때도 정성을 들였다. 빨 때 세게 두드리거나 비틀어 짜면 아기가 놀란다. 말릴 때도 낮에 햇빛 잘 비치고, 깨끗하고, 바른(正) 곳을 택했다. 밤에는 절대로 널지 않는데 나쁜 악귀가 접하여 아기가 아프기 때문이다. 옷을 입을 사람이 없어도 남에게는 빌려주거나 아무에게나 넘겨주지 않았다. 액막이 같은 나쁜 일에 쓰거나, 자신의 복과 운이 옮겨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옷을 직접 장만했던 세대는 주로 1920년대 초반에 출생한 여성들이며, 1950년대 이후부터는 주로 시장에서 파는 기성복을 사 입히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경상도의 의생활(고부자, 경상도 칠백년사3, 경상북도·경상도칠백년사 편찬위원회, 1999), 민속조사에 나타난 초생아 옷의 사상 및 상징(고부자, 전통의 생활연구3, 단국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 2009), 우리나라 유아의례와 복식의 민속연구(고부자, 비교민속학34, 비교민속학회, 2007), 의생활민속(고부자, 금강지-하, 충청남도·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3), 제주도 의생활의 민속학적 연구(고부자,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필자 고부자(高富子)

배씨댕기

정의 여아가 태어나서 처음 사용하는 댕기.

내용 배씨댕기는 3~4cm의 사각형(마름모꼴) 또는 원형의 비단 혹은 전뵈, 용 위에 천도 모양의 은이나 국화꽃 모양의 은파란 장식, 유리 장식 등을 엮고 양옆에 끈



배씨댕기 | 길이 3.5 | 19세기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을 달은 형태로, 끈을 머리카락과 함께 땡아 고정하던 댕기이다. 여자아이들이 앞머리를 정리하고, 바둑판머리나 종종머리를 땡을 때 앞가르마에 장식용으로 사용하였다. 머리가 길어져 눈을 가릴 정도이지만 땡을 만 큼의 길이는 되지 않을 때, 주로 3~4세의 아이들이 가르마를 타고 바둑판머리나 종종머리와 함께 땡아 착용했다. 따라서 배씨댕기는 여아가 태어나서 처음 사용하는 장식구였으며, 아이의 건강과 운세를 위하여 병마와 액운을 막으려는 주술적 의미도 포함되었다. 바둑판머리는 빗으로 가르마를 곱게 가르고 둘 혹은 넷, 여섯 개의 바둑판 모양으로 머리카락을 가린 다음 다홍색 실을 섞어 땡았다. 이때 머리카락을 가린 중간에 배씨를 놓고 양편으로 댕기를 당겨 귀밑머리를 섞어 함께 땡은 후 뒤로 묶어서 댕기를 드렸다. 뒤에 묶은 머리 위에 작은 끈으로 매어 둔다. 이를 바둑판머리 혹은 종종머리라고 하였으며, 이렇게 하면 앞머리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집안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붉은색 끈(조름댕기)만으로도 종종머리를 하였다.

특징 및 의의 배씨댕기의 실물 자료가 다수 남아 있어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에 소장된 배씨댕기는 3.5×3.5cm 크기의 마름모꼴 배씨 위에 파란을 입혀 만든 꽃 모양 은장식을 올

린 것이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에는 19세기의 배씨댕기 세 점이 소장되어 있다. 그중 길이 23.5cm의 자주색 배씨댕기는 자주색 명주 받침 위에 둥근 산호를 물고 있는 은제 겹국화로 장식되어 있으며, 같은 원단으로 만든 가는 끈이 양쪽에 달려 있다. 초록색 배씨댕기는 길이 25.5cm이고, 초록색과 홍색 전으로 된 받침 위에 파란[瑠璃]을 올린 작은 국화꽃이 붙어 있다. 양쪽에 홍색 실을 꼬아 달았는데, 한 가닥에 분홍 풍사로 만든 장식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홍색 용으로 제작된 배씨댕기는 길이 34cm이며, 받침 위에 꽃이 새겨진 은제 천도 장식이 붙어 있고, 홍색 용으로 만든 끈이 양쪽에 달려 있다.

배자

배자

참고문헌 관모와 수식(석주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3), 땀기에 관한 연구(이승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명선-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전통장신구(장숙환, 대원사, 2002),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이호정(李祐廷)

배자
褙子

정의 저고리 위에 입는 소매가 없는 간편한 덧옷.

내용 배자褙子は 남녀 공용으로 저고리 위에 입은 소매가 없는 간편한 덧옷으로 대체로 소매가 없으나 짧은 소매가 있는 것도 있다. 옷의 길이 또한 긴 것과 짧은 것 등 다양하게 있다.

중국 명나라에서 조선에 사여한 왕비 복식 가운데 ‘배자褙子’가 있으나, 그 형태는 알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가운데 배자褙子의 기록은 『태종실록太宗實錄』·『세종실록世宗實錄』·『단종실록端宗實錄』·『세조실록世祖實錄』·『예종실록睿宗實錄』·『성종실록成宗實錄』·『숙종실록肅宗實錄』·『영조실록英祖實錄』·『순조실록純祖實錄』·『고종실록高宗實錄』에 총 24회이다. 중국에서 사여한 왕비의 배자 또는 상례 때 궁중에서 상복喪服으로 입는 배자, 그리고 영조英祖의 국상 때 소렴小殮 시 사용된 옷과 재궁의대梓宮衣襖에 사용된 배자褙子의 기록이 있다. 그 외 『순조실록』과 『고종실록』에는 평상시 착용



① 배자 | 1890



② 성협 | 투전 중 부분

배자 | ① 길이 44 폭 32 진동 28.5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국립중앙박물관

하는 배자에 관한 기록이 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배자褙子は 색이 있는 명주나 견을 사용하여 만든다. 길이는 군褙과 나란하며 맞깃이고 옆이 트이고 원매圓袂이다. 더러는 반팔로 하고 더러는 소매가 없다. 오례의五禮儀에 본국本國의 몽두의蒙頭衣라 한다.”라고 하였다. 『사례편람』에 기록된 배자는 소매가 짧거나 없는 긴 길이의 조끼와 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긴 길이 배자의 실물은 남아 있지 않다. 조선 전기 유물로 경기도박물관 소장 심수륜(1543~1589) 묘 출토 배자는 전단후장으로 직사각형 두 장으로 어깨와 옆을 매듭단추로 여몄다. 앞 목둘레만 둥글게 뾰였다. 속에는 저주지를 넣었으며, 겹감과 안감은 명주로 만들었다. 17세기 이후 출토복식에서 짧은 소매가 있는, 원삼 깃 형태의 배자가 수습된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밀창군 이직李穡(1677~1746) 묘 출토 배자, 경기도박물관 소장 의원군 이혁李穰(1661~1722) 배자 등이 있다. 의원군 이혁의 묘에서는 짧은 소매가 있는 것, 소매가 없는 것, 방령형 깃이 달린 것의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배자가 수습되었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동래 정씨 일가(1574~1669) 묘 출토 배자에는 방령형 깃이 달려 있다. 또한 탐릉군 이변李寬(1636~1731) 묘에서는 앞에서 X자로 교차되게 여밀 수 있는 누비 배자도 수습되었다. 조선 후기 그림에서도 어렵지 않게 배자 입은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를 지낸 석천石泉 전일상(1700~1753)의 1748년 6월의 모습을 그린 <석천한유石泉閑遊>에서 석천이 포袍 위에 갈색의 배자를 입은 모습이 그려져 있

다. 조선 후기 남자 배자의 실물을 살펴보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고종高宗(재위 1864~1907)의 배자는 황금색 영초단英綃緞에 안은 녹색 기모용으로 넣고 주변은 검은색으로 선을 둘렀다. 전단후장에 깃과 동정이 있으며 옆선은 완전히 트여 있다. 옷고름은 앞자락에 달고, 고리는 옆선 뒷길 전동에 달았다. 현재는 옷고름이 없어진 상태이다. 이 유물 외도 남아 있는 남자 배자는 고종 배자와 거의 같은 형태이다. 앞뒤 길이는 7~8cm 차이가 있는데, 옆트임은 완전히 트여 있으며 고리로 옷고름을 걸어 앞에서 묶게 되어 있다.

여자용 배자는 대부분 남자의 배자보다 길이가 짧다. 보물 제1660호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 유물 가운데 1662년 복장된 여성용 배자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파평 윤씨(1735~1754)의 배자는 방령형 깃에 동정이 달려 있고, 앞중심에서 매듭단추로 여미고 겨드랑이에 끈을 붙여 앞뒤 자락을 연결한 형태이다.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의 『풍속도첩風俗圖帖』에 신부 큰상 받는 모습에 신부와 시어머니 모두 저고리 길이처럼 짧고 날렵한 소매 없는 배자를 입은 모습이 있다. 봄·가을용 배자는 얇은 옷감을 겹으로 깨끼 바느질하거나 가장자리에 짙은 색 선을 둘러 멋을 내었다. 여자용 배자는 소매는 없으며 원삼 깃에 동정을 달았다.

지역사례 박성실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 지역의 배자는 맞깃으로 되어 있고, 동정이 있는 점에서는 큰 저고리와 형태가 같았으나 소매가 없는 것이 달랐다. 배자의 색깔은 남색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도 자주색이나 짙은 색깔이 많았다. 1920년 무렵까지만 해도 처녀들도 배자를 입었으나 점차 중년 부인들과 노년층 여자들이 많이 입게 되었으며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에서 즐겨 입었다. 개성 지방에서는 배자를 ‘어깨띠기’라고도 불렀으며, 기생들이 입는 천한 옷이라 하여 점잖은 집안에서는 입지 않았다고 한다. 봄가을에는 얇고 성글게 짠 사紗 종류의 비단이나 모시를 사용하여 겹으로 하였고, 초봄이나 늦가을에는 두터운 비단을 겹감으로 하고 무명 등을 안감으로 하여 지었다. 여자 털배자는 평양 지방에서 ‘등걸이 털배자’·‘털등거리(털배자)’라고 하였으며, 안감은 양털이나 토끼털을 사용하

였고 겹감은 비단이나 모직물로 만들고 가장자리 장식은 물범·수달이나 무늬가 있는 모피를 사용하였다. 털배자는 소매가 없고 앞뒤 길이 차이가 있었는데 뒤가 더 짧았다. 도련은 저고리의 도련 형태이다. 털배자의 특징은 깃이 원삼 깃 형태의 합임이나 깃 다는 방식은 원삼 깃과는 다른 점이다. 깃은 목 뒷부분과 앞부분을 나누어 재단하여 다는 독특한 방법이다. 깃 위에 동정이 달려 있다. 털등거리는 평양 지방에서 중년 이상의 여자들이 겨울과 초봄, 늦가을에 많이 입었으며, 남색 털등거리는 지방적 특색이 풍기는 옷으로서 신부의 혼례복으로 사용하는 풍습이 있다. 다른 지방과 달리, 평양 지방 신부혼례복은 치마저고리 위에 원삼이나 활옷 대신 털등거리(털배자)를 입는다. 특히 평양 지방의 혼례식 때는 신부뿐만 아니라 신부 들러리들도 털등거리를 입는데 신부 들러리들은 갓 혼인한 신부들이다.

특징 및 의의 배자는 남녀 공용의 소매가 없는 옷으로 방한용이 주목적이었지만, 여자들은 봄가을에도 얇은 옷감으로 만들어 덧입기도 했다. 조선 중기에는 짧은 소매가 있는 것도 있었지만, 18세기 후기 이후에는 소매가 없는 옷으로 변했다. 깃은 원삼형이나 방령형 깃이 달려 있으며, 합임으로 동정이 달려 있다. 깃 아래에는 원삼 단추 또는 매듭단추와 같은 것이 달려 있다. 배자는 어깨는 연결되어 있지만, 옆트임은 완전히 트여 있거나 겨드랑이 아래에서 깊은 옆트임이 있다. 남자 배자는 대부분 뒷길에는 옷고름이 달려 있고, 앞길에는 고리가 달려 있어 뒷길의 옷고름을 앞길의 고리에 끼어 앞에서 묶게 되어 있다. 남자 배자는 저고리나 포 위에 입는다. 여자 배자는 저고리 위에 입는데 형태는 소매가 없으며, 길이는 저고리 길이와 거의 같은 짧은 길이이다. 배자는 조선 후기의 덧입는 옷이라는 특색이 있다. 특히 평양 지방에서 즐겨 입었던 여자 털등거리(털배자)는 광복 이후에도 겨울철 보온용으로 즐겨 입어 오늘날까지 겨울철 방한용 덧옷으로 입는다.

참고문헌 다시 태어난 우리옷 한생(서울역사박물관·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6), 명선-중(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북한지방의 전통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8), 조선시대 무수에 관한 연구(이주영,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한국의 미20-인물화(중앙일보사, 1985).

필자 송미경(宋美京)

백라관 白羅冠

정의 백색 라羅로 만든 관冠.

내용 백라관白羅冠에 대한 기록은 『구당서舊唐書』 고려(고구려)조에는 “왕은 오채로 된 옷을 입고 백라관을 쓴다唯王五綵 以白羅爲冠.”라고 하였으며, 『신당서新唐書』 「동이전東夷傳」에는 “백라로 만든 관高句麗王服五采, 以白羅製冠”이라고 기록되었다.

백라관

백라관

고구려 고분벽화 중 1949년에 황해도 안악에서 발견된 안악 3호분은 벽화에 묘주의 생존 시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회랑의 동쪽 벽면에는 25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행렬도>가 그려져 있다. 소가 끄는 수레를 탄 주인공을 중심으로 앞쪽에는 악대가 노래와 연주, 춤을 추며 나아가고 수레 뒤쪽으로는 의장 기수, 시녀, 말을 탄 문관 등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웅장한 행렬은 당시 무덤 주인공의 지위가 매우 높았음을 말해 준다. 회랑에 위치한 250여 명이 등장하는 <행렬도>는 묘주의 높았던 신분을 반영하는 듯 규모가 방대하며 매우 장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차를 탄 묘주는 행렬의 3분의 1정도 지점에서 등장하며, 묘주 바로 앞에는 왕을 상징하는 성상변聖上幡이라는 붉은 글자가 쓰인 검은 깃발을 든 인물이 행진하는 모습이 보인다. 북한의 미술사학자 주영현朱榮憲은 이를 미천왕릉美川王陵으로 본다. 그러나 1990년대에 와서는 고국원왕릉故國原王陵이라고 하는 설이 지배적이다. 안휘준安輝濬은 “안악 3호분은 중국인인 동수多壽의 묘로 보기보

다는 역시 고구려 왕의 능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안악 3호분 벽화 주인공은 흑색의 책 위에 흰색의 라로 만든 덧 관을 썼는데, 관의 앞이마 부분에는 금색의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이 테는 다시 귀의 가운데 부분에서 위로 연결되어 있다. 관끈이 귀의 뒷부분에서 내려와 턱에서 묶여져 있고, 가슴 부위까지 늘어져 있으며, 끈 끝부분은 화려한 장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와 달리 중국의 경우, 무관들이 착용한 관에 연결된 끈들은 5촌(약 11.5cm)으로 제한하였다. 섬유조직을 보면 그 짜임이 매우 성근 그물 모양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이 같은 이유로 여러 화상석에서는 관들을 그물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안악 3호 고분벽화 주인공의 덧 관은 그물 모양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에서 비교적 성근 사紗로 관을 만든 것과 달리 고구려는 비교적 고운 라羅로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안악 3호 무덤벽화에 보이는 왕의 관과 달리 평안남도 강서군 덕흥리 무덤벽화와 쌍영총 주인공의 관은 청라관靑羅冠으로 비교적 섬세한 그물로 표현되어 있어 비교적 성근 라羅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이 고분들의 주인공이 안악 3호 무덤벽화의 주인공과 같은 왕의 신분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같은 요소들은 안악 3호 고분벽화에 보이는 주인공이 쓴 관이 고구려왕이 쓴 백라관임을 알게 하며, 위의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

특징 및 의의 백라관은 흑색 책 위에 고운 흰색 라羅로 만든 관을 덧쓴 관이다. 중국의 무관과 달리 긴 끈을 늘이고 그 끝에 장식을 가한 고구려왕의 관모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하가 착용하던 청라관과 비교되는 형태이다.

참고문헌 고구려고분벽화(조선화보사출판부, 조선화보사, 1985), 한국고대복식(박선희, 지식산업사, 2002), 한국미술전집4-벽화(김원룡, 동화출판공사, 1980),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개론(김문자, 교문사, 2015).

필자 김문자(金文子)



① 백라관 고구려

② 청라관 고구려

백라관 ① 안악 3호분, ② 덕흥리 고분

백반

정의 $K_2SO_4Al_2(SO_4)_3 \cdot 24 H_2O$. 명반석(明礬石) Alumen을 구워서 얻은 결정체로 만든 약재로 표백제나 매염제로 쓰이는 염료.

내용 $M^I Al(SO_4)_2 \cdot 12 H_2O$ 의 일반식을 갖는다. M^I 은 1가 금속이온인데, 1가 금속이온에 따라 칼륨백반($KAl(SO_4)_2 \cdot 12 H_2O$), 암모늄백반($(NH_4)Al(SO_4)_2 \cdot 12 H_2O$)이라 한다. 대개는 칼륨알루미늄백반을 백반이라고 부른다. 약으로 사용하는 백반은 가공 제품이 우수하다. 가공 방법은 삼질을 제거하고 열을 가하여 빨갛게 되면 연기가 다 날 때까지 기다린 후 꺼내어 분말로 만들어 사용한다. 백반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응고시키므로 수렴 작용을 나타내며 지혈 작용, 항균 작용, 방부 작용도 한다. 가죽 표백제나 매염제로 사용된다.

특징 및 의의 백반은 명반석을 가공하여 얻은 결정으로 명반 99% 이상을 함유한다. 한약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천연으로 산출된 백반은 대부분 암모늄명반이 섞여 있다.

참고문헌 증보 천연염료 염색사전(조경래, 아취현, 2009), 한약재감별도감(김창민 외, 아카데미서적, 2014), 한의학대사전(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정담, 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소황옥(蘇晃玉)

백의

정의 우리 민족이 즐겨 입어 온 흰빛의 옷.

내용 ‘백의(白衣)’는 고려 충렬왕(忠烈王) 이후, 조선 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금지와 탄압에도 ‘백의민족’이라는 상징과 함께 우리 옷으로 자리 잡아 왔다. 상고시대의 기록에 나타난 ‘백의승상’ 습속에 따르면 부여에서는 ‘재국의상백(在國衣尙白)’, 변진(弁辰)은 ‘의복정결(衣服淨潔)’, 고구려는 ‘기인결청(其人潔淸)’이라고 하였다.

백의는 세 가지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다. 첫째 ‘소색(素色)의 옷’, 둘째 ‘상복(喪服)’, 셋째 ‘관직(官職)이 없는 자’이다. 이는 입성거리(衣)로서의 ‘흰옷’과, 가공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것으로의 ‘소복(素服)’이 갖는 서로 다른 상징성 때문이다. 백의는 ‘흰빛’ 또는 ‘희다’와 더불어 ‘백색(白色)’으로 통용되지만, ‘소(素)’는 소재(素材) 본래의 것으로서 ‘소색’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백색 옷은 누구나 입지만, 소색은 상주(喪主), 즉 부모를 여읜 자식이거나 그에 못지않은 별 받은 자들이 입는 소복 또는 ‘상복색’이라는 개념도 한몫을 한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사회의 근간이었던 성리학의 이념 속에서도 1648년(인조 26) “백의를 입고 백모(白帽)를 쓴다면 상인(喪人)이 흰 옷을 입은 것과 같아 불길한 징조”라 하여 금한 일이 있다. 그러나 1799년(정조 23)에도 성복(成服)을 벗기 전에 백관들이 입었던 백색 단령(團領)을 ‘백의’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백의와 상복은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상이 보인다.

백의는 당시 국가가 원하는 민본주의(民本主義) 통치 개념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백의도 과거를 열 번까지 볼 수 있는데……”, 『연려실기술(鍊麋室記述)』에 “백의장원, 관직이 없는 유생·선비”라고 하여 문헌상에는 일반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외에 많이 등장하는 ‘백의종군(白衣從軍)’도 같은 맥락이다.

백의는 1900년대 초기 한국에 온 외국인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한국인이 모두 흰옷을 입고 있다는 데서 ‘백민(白民)’이라 했고, 1920년대에도 “사람들이 운집하는 시장은 마치 ‘솜밭’같이 희다.”라고 했다.

일제강점기 탄압 때도 백의는 우리 정서 속에 살아 있었다. 여학생 교복인 저고리나 상의(上衣)는 대부분 흰색으로 지정하였다. 또 고종(高宗)의 국상(1919)과 순종(純宗)의 국상(1926) 때는 민초들까지도 ‘백의’에 ‘백모(白帽)’를 갖추었던 점 등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백의민족의 유래에 대해 일제식민주의자들 가운데 도리아마(鳥山喜一)는 『조선백의고(朝鮮白衣考)』에서 “고려가 몽골에 침략당한 후 망국의 슬픔 때문에 백의를 입기 시작”했다 하였고, 야나기 무네요시(柳堂悅)는 “이민족이 겪은 고통, 많은 역사적 경험 때문”이라 하였다.



① 사월 초파일 | 1930년대

色衣를獎勵
醴泉 【예천】 예천군(醴泉)에서는 금년 11월이후 장날을 이용하여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수백으로 물품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楊口 장원도 양구군(楊口)에서는 수년에래 색의와 단발을 장려하여 오드바 금년부터는 흰옷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읍내 장날을 이용하여 청년단과 각 관공리가 집합하여 악대를 싣고 시내를 순회하며 색의와 단발을 선전 장려하였다고 한다.

② 색의를 장려 | 1933. 11. 14

백의 | ① 국립민속박물관, ② 동아일보

이러한 백의 착용에 대한 금지는 일제강점기 때 점차 노골화된다. “장날 흰옷 입은 사람에게 붉은색이나 검정 물로 물총을 쏘거나 뿌려서 흰옷을 다시 입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가장 흔한 예이다. 1930년대부터는 총독부 주관으로 실험을 통한 수치를 들면서 ‘백의 폐지의 당위성’을 신문이나 기관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편, 다시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구실도 있었다.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B29폭격기가 일본을 대상으로 폭격할 때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하여 “흰옷을 입으면 한국 사람으로 알고 폭격을 가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다. 이후 일제강점기 막바지에 흰색은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적기 표식 백의를 벗자.”라는 마지막 강요를 끝으로 백의 말살 정책은 끝난다.

특징 및 의의 백색은 태양을 상징하는데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태양숭배사상이 강하여 광명을 나타내는 의미의 흰빛을 신성시하면서, 백의를 즐겨 입었다. 따라서 백의는 하늘과 땅·우주 삼라만상을 경외하며 숭배

하는 민족 고유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제사나 천제의식天祭儀式 때 흰옷을 입고, 흰떡·흰술·흰밥을 올리는 의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순색純色’으로 신성한 의미를 갖는데, 청정·순결·광명·도덕의 표상으로 ‘서색瑞色’이라 하였다. 이 사상은 근세 민간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으니, 갓난아기에게 생후 3일 만에 입히는 ‘흰 것’ 만든 배냇저고리가 그것이다.

‘금지’와 ‘탄압’이라는 많은 시련 속에서, 또 거세게 밀어닥친 서양풍西洋風の 유입에도 불구하고 백의는 민족 고유의 기본형인 저고리·바지·치마·버선·포복에 이르기까지 지켜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일상에서 거의 자취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가장 중시해 왔던 의례복인 백색의 상복이나 제례복祭禮服은 국가는 물론 옷 사람들이나 일반 가정에서도 제대로 된 것을 보기 어려워졌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단군기행(박성수, 교문사, 1988), 우리 생활 100년·옷(고부자, 현암사, 2001), 조선기행(에른스트 오펜트, 한우근 역, 일조각, 1974), 조선일보.

필자 고부자(高富子)

백일옷

정의 아기가 태어나 백일百日이 되는 날을 기념하여 입히는 옷.

내용 아기의 성별과 상관없이 흰색으로 깨끗하게 지어 입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연한 옥색이나 하늘색, 분홍색 등의 유색 옷감으로 만든 예를 확인할 수 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처음 입히는 배냇저고리와 달리 백일 옷으로 마련하는 저고리에는 어른의 것과 마찬가지로 깃과 셔를 모두 달았다. 다만 백일 무렵까지는 아이의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자주 기저귀를 갈아야 하기 때문에 저고리가 벗겨지거나 벌어지지 않도록 겹깃 쪽에 돌피를 달아 묶어 주었다. 기저귀를 갈기 쉽도록 아래 쪽을 띄워 놓은 풍차바지를 함께 입힌 예가 있으나 대개의 경우 저고리를 길게 만들어 하반신까지 모두 감쌀 수 있도록 했다.



백쪽저고리와 바지 | 저고리길이 33 폭 28 화장 33, 바지길이 43 허리 55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한국 문화 속에서 백(100)은 완전수인 동시에 아주 큰 숫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백일을 맞이한 아기에게 옷감 백 조각을 이어 만든 저고리를 입히거나 백 줄을 누빈 옷을 만들어준 것은 숫자 백의 의미와 연결 지을 수 있다. 백 조각의 옷감이나 백 줄의 누비는 모두 백일과 통하며, 만드는 사람의 정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수한 어른이 입던 옷을 잘라 아기의 백일옷을 지으면 그 아기 또한 무병장수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손이 귀한 집에서는 집안 어른들의 흰 옷 조각을 모아 저고리를 짓기도 했다.

참고문헌 첫돌 복식의 착용 양상과 통과례적 의미(조희진,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한국전통 어린이 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0).

필자 조희진(趙熙眞)

버선

정의 발을 보호하고, 보온을 위해 옷감으로 만들어 발에 신는 복식.

내용 버선은 한자어로 ‘말襪’, ‘족의足衣’라고 하며, 궁중에서는 왕위와 관련된 이들(왕이나 왕비, 세자와 세자빈)의 버선을 ‘족건足巾’이라고 했다. 버선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통일신라시대에는 ‘말’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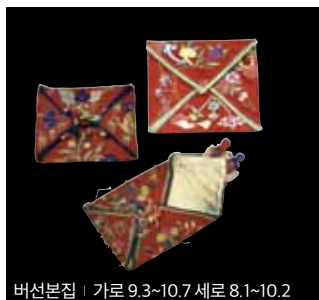
는 목이 긴 버선이 있었다. 특히 여자의 버선은 버선목이 따로 있는 ‘말요襪櫛’라고 하며 버선목에 끈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옷감은 옷과 같은 고급직물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계급의 차별 없이 흰색의 포布로 버선을 만들었으며, 조선시대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급에 상관없이 흰색 포의 버선을 신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 일가의 복식 가운데에도 흰 무명으로 된 왕의 백말白襪과 영친왕비의 백말이 있다. 그러나 조선 왕실복식을 기록한 『상방정례尙方定例』에는 왕(대전)과 왕비(중궁전)의 법복法服과 세자와 세자빈의 법복에는 법복의 색과 같은 비단으로 된 적말[赤襪次大紅廣的]과 흑말[黑襪次冒綴]이 있다. 법복에 신는 말은 목 부분이 통으로 재단된 것과 따로 재단된 두 종류의 도식이 있으며 회목 옆이나 부리 뒤쪽에는 바지 위로 묶을 수 있도록 끈을 달았다. 영친왕비(1901~1989)의 유물 가운데에도 적의를 착용할 때 청석靑鳥과 함께 신었던 목 부분이 통으로 재단된 청말靑襪이 있다. 이러한 말들은 죽건인 버선을 신고, 그 위에 말을 신는 것으로 이해된다.

1819년 이후 궁녀들에 의해서 작성된 「궁중발기宮中撥記」에는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죽건이 있고, 유년기관계 발기에 오목이가 있으며, 버선은 세는 단위를 ‘결레’라 하였다.

특징 및 의의 버선은 좌우를 구분하여 짝을 만들어 한 결레로 되어 있다. 버선의 부위에서 버선등(발등)에 이음술기를 수늬이라고 하며, 뒤꿈치에 들어간 곳에서부터 수평으로 앞목에 이르는 부분을 회목이라고 한다. 수늬의 술기처리는 버선의 좌우를 구별하여 짝을 이루는 기준이 된다. 수늬의 시점이 왼쪽으로 꺾여서 왼쪽이 두꺼우면 왼쪽 버선, 시점이 오른쪽으로 꺾여서 오른쪽이 두꺼우면 오른쪽 버선이다. 이렇게 좌우의 버선이 짝을 이루어 한 결레가 된다. 회목은 넓이가 넓을수록 버선 신기가 쉬워지며, 회목의 넓이에 따라 버선의 착용감이 달라진다. 버선에는 수늬이 곧은 ‘곧은목 버선’과 수늬이 누운 ‘누인목버선’이 있으며, 구성방법에 따라 홀·겹·숨·누비버선이 있다. 특히 어린이용으로 오목이(타래버선)가 있다. 곧은목버선은 신어서 회목의 여유가 있으며, 누인목버선은 신어서 회목이 끼게 되어 있다. 출토 유물 버선은 대부분 ‘누인목버선’으로 소재는



버선본 | 길이 18~32



버선본집 | 가로 9.3~10.7 세로 8.1~10.2



버선 | 길이 26 높이 41 | 1920년대

버선 | 국립민속박물관

겉감은 세목細木이나 광목이며 안감은 광목, 거친 면, 또는 삼베로 되었다. 대부분 전래유물은 흰색으로 20세기 초 버전들로 ‘곧은목버선’이다. 소재는 신분의 상하 없이 다 같이 흰색이며, 소재는 주로 목면木棉이다. 서양목이 들어오면서 「발기」의 기록에서도 족건의 의차衣次(옷감)에 서양목·옥양목·세목 등이 있다.

타래버선은 어린이용 버전으로 돌옷의 일습一襲으로 착용하며, 숨을 두어 누빈 뒤에 색실로 수를 놓아 장식하였다. 발목 뒤에 남아는 남색 끈, 여아는 홍색 끈을 달아 앞으로 돌려 매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참고문헌 古文書集成, 尙方定例, 명선-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영친왕 일가 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81), 조선조 궁중복식연구(김용숙, 일지사, 1987).

필자 안애영(安愛英)

방거지

정의 조선시대 신분이 낮은 무인 등이 쓰는 전립을 속칭하여 이르는 말.

내용 ‘병거지’나 ‘병테기’라는 명칭은 북방 호족胡族으로부터 온 외래어이며,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정확한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병거지의 재료는 짐승의 털을 다져서 만들었으므로 전립氈笠이라고도 하였다. 전립은 동물의 털에 습기와 열을 가한 후 다져서 펠트처럼 만들고, 그것을 북발형覆鉢形의 둥근 모옥帽屋에 양태를 단 입자형笠子形으로 만든 것이다. 전립은 전형적인 우리의 입자笠자와는 계열을 달리한다.

중국 명나라 『삼재도회三才圖會』의 전립도氈笠圖에는 정자 장식을 한 전립이 호인胡人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氈으로 모자를 만들어 쓰는 습속은 수隋·당代唐代에도 있었고, 송代宋代에는 북방 여러 민족의 영향, 특히 거란의 영향으로 전립을 쓰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전으로 만든 쓰개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高麗史』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1387년(우왕 13)에 “동반과 서반의 7품 이하는 전모氈帽과 사대絲帶를 착용하게 하고……”라는 기록을 통해 모 소재의 쓰개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시초는 고려 말경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의 전립과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는 “우리나라의 전립은 옛날에는 군사들만 썼으므로 전립이라고도 하며 평민들은 다만 평량자平涼子를 썼는데,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 후부터 군민통용軍民通用의 입모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청성잡기靑城雜記』에는 “우리나라 풍속에 양반은 모두 흑립을 쓰고 일반 백성은 대체로 전립을 쓰므로 흑립은 양반을 지칭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사람들은 대부분 모氈전립을 쓰는데, 대개 오랑캐의 습속을 가깝게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오년(1618)에 명나라의 요청으로 요동遼東으로 출병한 뒤로는 나라에 모전립을 쓰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서로 보고 본뜨다가 마침내 온 나라 안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정묘호란 이후로는 사대부 가운데도 이를 쓰는 사람이 있었고, 무인武人은 비록 대관大官이라도 다 그렇게 하였다. 모전립은 전립이라고도 하니, 이는 곧 전쟁의 징조였던가.”라는 기록이 있다. 즉 전립은 우리 고유의 풍습이 아닌 호풍胡風이며, 군인들이 쓰던 것이라 ‘전립’이라 명명되었다. 17세기 초반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군인뿐 아니라 일반 사람에게도 유행하게 되었다.

전립 중에서 고급 무관이 쓰는 것은 ‘안울림병거지’라 하고, 병사처럼 낮은 무인들이 쓰는 것은 ‘병거지’라 하였다. 고급 무관의 안울림병거지는 품질이 좋은 모기로 만든 것으로 양태 안쪽에는 남색藍色 운문단雲紋緞으로 안을 올린 형태이다. 정수리에는 직급에 따라 모정帽頂에 도금한 것, 금·은·말총·나무 같은 재료에 구분을 둔 정자를 장식하고, 여기에 공작미孔雀尾, 상모象毛, 獐毛를 달고 끈으로 밀화영蜜花纓을 달았다. 이에 반해 조선 조 궁중 또는 반가의 군노軍奴, 전령, 사대부가의 하인 등이 착용한 병거지는 돼지털을 모아 다져서 거칠게 만들었다. 모정은 높고 둥글며 장식이 없고 끈을 매달았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된 홍색병거지는 조선 말 아전이나 광대용으로 입의 틀은 모전과 홍저모紅猪毛에 만들고, 모정과 입 사이에는 오색실과 색종이로 장식하였다. 턱의 끈은 검은색이 달려 있고, 상모를 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특징 및 의의 병거지는 대부분 흑의와 병용해 사용되었다. 지역에 따라 황해도에서는 병터지, 제주도에서는 털벌립, 털병것이라 불린다. 농악패의 잭이들이 쓰는 모자도 병거지 또는 상모라 부른다. 농악에서는 공작미를 달지 않고, 종이나 깃털로 상모를 길게 만들어 단



높이 13.5 지름 50 | 광복 이후



높이 7 | 조선

병거지 | 국립민속박물관



평생도 중 부분

다. 혼례식 때 신행에 뒤따르는 짐꾼들도 병거지를 쓰며, 무당굿에서도 전복을 입고 병거지를 쓰고 굿을 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才圖會, 林下筆記, 青城雜記, 靑莊館全書, 군복 관모에 관한 연구(강순제, 학예지4,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5), 명선-중(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조선상식문답(최남선, 동명사, 1948), 한국군복의 변천사 연구(김정자, 민속원, 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한민족역사문화도감-의생활(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문화재청(cha.go.kr).

필자 엄정하(廉貞夏)

벨벳

정의 표면에 0.3~1mm 정도의 짧은 보풀이 일게 한 경파 일직물.

내용 벨벳velvet은 비로드비로드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포르투갈어 벨루두veludo의 일어식 발음으로 한 문치의 양털 또는 심은 털tufted hair을 뜻하는 라틴어 벨루스vellus에서 유래하였다. 벨루티Velluti가문의 발명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여 이탈리아어로 벨루토velluto라 하였다. 특히 14~16세기에 걸쳐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복식 재료로 생산되어 유럽 각국에 보급되었다.

벨벳의 제조 방법으로는 철사법과 이중직물법이 있다. 철사법은 지조직을 평직이나 능직으로 제직하고, 파일조직은 파일경사에 철사를 삽입한다. 이후 지조직과 교대로 제직한 후에 절모하여 컷파일로 하든가, 절모하지 않고 고리 모양의 루프를 표면을 치밀하게 나타낸다. 이중직물법은 상하 두 매의 지조직이 있고, 파일경사가 두 매의 지조직의 지위사와 교대로 교차하면서 두 매의 직물 간을 왕래한다. 이렇게 짜여진 것을 빔에 감기 전에 두 매 지조직 사이 파일경사를 끊으면 두 매의 파일직물이 얻어진다. 오늘날의 대부분 벨벳은 이중직물법으로 만들어지는 컷파일이다.

파일경사에는 견·레이온·나일론 등이 사용된다. 지조직은 합성섬유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견사가 사용되었으나 이후 나일론·레이온·폴리에스테르 등 다른 섬유를 사용할 때가 많다. 일반적인 벨벳은 직물 전



벨벳치마 | 길이 129 폭 42 | 195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체가 파일로 이루어진 겨울용 벨벳이다. 바닥과 무늬 부분을 구분하여 무늬 부분에만 파일이 있는 것은 봄·가을용 춘추 벨벳이다. 여름용 벨벳은 춘추 벨벳과 같은 형태인데, 바닥 부분의 조직이 시폰 등으로 춘추 벨벳보다 성글다. 또한 무늬 부분에 프레스 가공을 하여 누른 벨벳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벨벳은 1931년경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으며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워낙 비싼 사치품이라 사용이 극히 제한되었다. 광복 이후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 오랫동안 유행하였다. 1940~1950년대에는 주로 인견사로 만든 겨울용 벨벳이 프랑스·독일·일본 등지에서 밀수입되어 사용하였다. 1960년대 중후반에는 춘추용 벨벳이 유행하였고,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초반에는 폴리에스터 등 합성섬유로 만든 겨울용 벨벳이 다시 유행하였다. 1970~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직물산업의 발전으로 한국산 벨벳이 해외에 수출되기 시작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수입산을 선호하였고 혼수의 필수용품이기도 했다.

특징 및 의의 벨벳은 촉감이 부드럽고 광택이 뛰어나 오랫동안 양장과 한복에 쓰였으며 주로 드레스·코트·슈트·

모자 등과 한복에서는 주로 여성의 치마, 저고리용으로 사용되었다. 쇼파·카펫·커튼 등 실내 장식 등에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벨벳과 유사한 침모직물에는 벨벳보다 파일이 길고 덜 촘촘하며 유연한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경파일직물인 벨루어velour가 있다. 또한 벨벳보다 촘촘하고 주름이 덜 생기는 면 소재의 위파일직물인 벨베티n velveteen(우단) 등이 있다. 전통직물 중 융絨 직물류가 벨벳과 같이 견사를 사용한 경파일직물이다.

참고문헌 근대직물 100년(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13), 섬유소재1(한국의류학회, 1989), 섬유 패션 소재사전(공석봉·염삼주, 한국섬유신문사, 1999), 한국직물오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출판부, 2002).

필자 박경자(朴京子)

변형모 弁形帽

정의 글자 그대로 두 손을 합장한 것과 같은 모양의 모자.

역사 변형모弁形帽는 원래 말을 탈 때 바람을 막아 주었으므로 고구려에서는 ‘절풍折風’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다. 삼한三韓 중 변한弁韓, 弁辰의 이름에 들어가는 ‘변弁’도 뽕죽한 변, 즉 ‘고깔’을 좋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변한에서도 전술한 우리 기본 관모인 변형모를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관련 고기록에는 주로 ‘변’·‘절풍折風’·‘소골蘇骨, 骨蘇’ 등으로 표현되었는데, 석명釋名 석수식釋首飾에 보면 “弁자는 양손을 합장할 때의 모습이다.”라고 하였다. 즉, 좌우가 평면이고 앞뒤로 봉합선이 있는 모부帽部를 이루는 형태가 변형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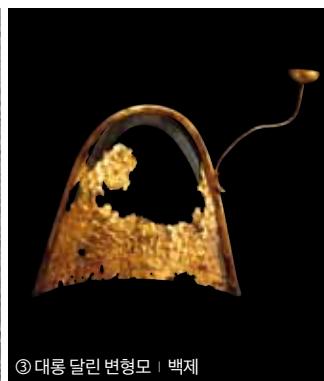
변형모는 원래 스키타인들이 주로 착용하였던 것으로 스키타이 연구자들이 스키타이계 복식의 가장 특색 있는 것으로 내세우는 것이 이 변형모로서 ‘conical hat’ 또는 ‘pointed cap’으로 불리는데, 보통 2매의 둘레를 앞뒤로 봉합하여 귀(변형모의 좌우 자락)를 늘어뜨리는 형태이다. 귀가 달려 있는 스키타이 관모는 파지리크 3호분Pazyryk barrow no.3(B.C. 299~260년)에서 출토된 펠트와 가죽으로 만들어진 남성용 관모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또한 B.C. 252~238

의 것으로 추정되는 파지리크 5호분에서 모전毛氎 벽
걸이가 출토되어 그 위에 새겨진 인물상의 관모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후대까지 서양인들의 관모로 남아 있
던 프리기아 모자^{phrygian cap}와 같은 형태이다. 귀가 달
린 관모는 그대로 아래로 늘어뜨린 채 쓸 수도 있고, 귀
를 턱 아래에 묶어 쓰는 방법, 모자 뒤로 여미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래
로 자락을 늘어뜨리는 형태는 늘어진 자락이 사라지고
B.C. 4세기경의 유물인 쿨오바 고분 출토 호^호에 그려
진 인물상처럼 변형되었다가 점차 장식화되어 몽골 노
인울라 유적에서 출토된 견제^{絹製} 변형모처럼 귀를 내
놓고 턱 아래에서 끈으로 묶게끔 변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스키타이계 관모들은 앞에서 보면 이
등변 삼각형 모양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 모습은 스
키타이계복식을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B.C. 600~400
년경 아나니노 고분 출토 핀란드계 스키타이인 인물
상이나 쿠반강 위역에서 출토된 사마르티아인 인물상
(B.C. 3세기경)의 관모, 그리고 3~4세기경의 스키타이
계 관모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미얀 계곡 출토 인
물상 등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백화수피^{白樺樹皮製}(백화
는 자작나무를 말하는데 자작나무는 한대성^{寒帶性}의 갈
잎 큰키나무로서 목질이 매우 단단하며 껍질에는 방부
제와 같은 성질이 들어 있으며 흰 껍질은 얇게 벗겨진
다)로 만든 변형모가 몽골 노인울라 출토품에 보이는
데, 같은 형태가 신라 백화수피제 변형모에도 있다.

내용 기본 형태는 고분벽화 인물도에서 보는 것과 같
이 변형모이며, 경기도 연천 호로고루 성에서 출토된 토
기 관모 모형 같이 정면에 조우식을 꽃을 수 있는 장식

판이 달려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평상시에는 장식
판이 달려 있는 변형모만 착용하고 특별한 때에 조우식
을 꽃아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국 모두 공
통적인 양식을 보여 준다. 계급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
여, 일반적인 가죽관인 ‘절풍折風’과 구별하여 비단과 금
은 장식을 가한 귀자^{貴者}의 변형모를 ‘소골蘇骨’이라 불
렀다. 그 외 고분벽화에서 채이 달려 있는 입형^{笠形} 변형
모^{弁形帽}를 볼 수 있다. 이는 채이 달려 있어 후대의 입모
笠帽의 전신으로 보이거나 다만 대우(채이 달린 모자의 머
리들어가는 부분)가 주발을 얹어 놓은 둥근 형태가 아
닌 앞에서 보면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는 변형모였을 것
이다. 즉 평상시에는 변형모만을 착용하고 외출 시나 햇
빛을 피하고자 할 때만 후술할 신라 고분 출토 백화수
피제 채와 같은 것을 덧써워 착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에서는 <왕회도王會圖>에 나타난 백제 사신처
럼 일반적인 변형모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 부여에서
출토된 사람 얼굴 토기에 보이는 변형모는 앞면에 조우
식을 꽃을 수 있는 장식판을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충청남도 서산 부장리 출토 금동제 변형모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좀 더 사면이 비스듬한 쪽 앞면에는 장식
판을 붙이고 뒤에도 또 다른 장식판을 붙였다. 전라남
도 나주 신촌리 9호분 출토품인 금동제 변형모는 원래
도금된 것으로 반원형 동판을 맞붙여 테두리를 둘러 접
착하였다. 대륜식입식관과 함께 출토되어 내관^{內冠}으로
추정되나 경주 천마총 신라시대 출토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독립된 하나의 관모로도 착용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반원형 동판을 맞붙여 테두리를 둘러 접착시켰다.
한편 익산 입점리 출토품은 후두부에 독특한 형태의 긴
대롱 끝에 반구형^{半球形}의 장식을 붙였다. 전남 고흥 안



변형모 | ① 대안리 1호분, ② 충남 부여 관북리 | 국립부여박물관, ③ 전북 익산 입점리 고분 | 국립전주박물관, ④ 높이 19 | 경북 경주 천마총 | 국립중앙박물관

동 고분에서도 동일한 양식의 변형모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백제만의 독특한 양식이며 일본에도 같은 양식이 있어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변형모의 착용 모습은 경주 황남동 출토 부상(夫像) 토우나 경주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상에서도 볼 수 있다. 신라 변형모의 종류로는 고분출토품의 재료와 형태에 따라 백화수피제 변형모와 금속제 변형모, 입형(笠形) 변형모로 나눌 수 있다. 백화수피제 변형모는 백화수피 두 장을 합쳐 둘레를 꿰맨 것으로 모정(帽頂)이 원정형(圓頂形)이든 방정형(方頂形)이든 앞에서 보면 전부 이등변 삼각형의 변형(弁形)이 된다. 고분 출토품 중에는 백화수피를 여러 겹 겹쳐서 누빈 관모의 내 외면에 비단 같은 고운 섬유질이 부착되었고 표면에는 수많은 금제 원형(圓形) 영락(纓絡)이 장식된 것도 있다. 이처럼 비단을 입힌 백화수피 변형모가 전술한 법흥왕대의 공복에 착용된 금관(金冠)이나 비관(緋冠)이 아닐까 한다. 금속제 변형모는 재료가 신축성이 있는 피혁제나 백화수피제가 아니므로 변형(弁形)의 고정된 형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경주 천마총 출토 금제변형모는 얇은 금판을 활모양으로 구부려 원정부(圓頂部)를 만들고, 산형문(山形文)을 전면에 투각하고, 둘레에는 테를 두르고 있으며 관모 하변 주위에는 못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 끈을 꿰는 구멍일 것으로 생각된다. 전면에는 조우식을 꽂을 수 있는 장방형관을 부착하고 있다. 경주 황남대총 남분 출토 은제변형모도 천마총 출토품과 거의 같은 양식이며 이것도 전면에 조우식을 꽂을 수 있는 판이 붙어 있다. 이로써 금속제 변형모는 독립된 관모로도 사용되었을 것이나 그 형태로 보아 조우관의 모관(母冠)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 외 입형 변형모가 있는데 경주 천마총 출토 입형 변형모는 모옥(帽屋)은 변형모로 되어 있고 모자챙은 얇은 백화수피를 부채 모양으로 잘라 두 장을 합해 여러 장을 조금씩 겹쳐서 좁은 쪽을 안쪽으로 방사형으로 만들어 가운데가 뚫린 모양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입형 변형모의 착용 모습은 전술한 고구려 감신총 고분벽화와 같이 평시에는 변형모만을 착용하고 외출 시에는 그 위에 모자챙을 얹어 착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야의 변형모는 경남 합천 옥전 23호분에서 출토된 변형모인데, 부식이 좀 되었으며 상부에 긴 대롱이

달린 것이 특이하나 기본 형태는 신라의 변형모들과 양식이 같다. 조우관의 모부(母部)로서 백화수피제 변형모가 양산 부부총과 대구 비산동 37호분 제2석곽에서 출토되어 가야의 변형모도 단독으로, 또는 조우관의 모부로 착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스키타이계 변형모들은 처음에는 가죽 두 장을 앞뒤로 봉합하여 귀를 덮는 형태로 말을 탈 때 방한을 위해 착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점차 장식화되어 귀를 내놓고 턱 아래에서 끈으로 묶는 형태로 변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더욱 장식화되어 겨우 머리 위에 얹혀 있는 정도로 축소된 형태로 변했으며, 조우관의 모부로 사용되는 장방형관이 붙어 있는 경우와 안 붙어 있어 독립된 관모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혼용되었다.

변형모는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양식으로 현재에도 젊은이들이 애용하는 귀 달린 모자나 서양에서 주로 착용하는 잠잘 때 쓰는 모자(sleeping cap) 등에 사용된다.

참고문헌 국립경주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 통천문화사, 1996), 삼국시대 관모 및 관식 유물 감정을 위한 기준 설정(김문자, 복식59-5, 한국복식학회, 2008), 한국복식사개론(김문자, 교문사, 2015), 高句麗古墳壁畫(朝鮮畫報社出版部 編, 朝鮮畫報社, 1985), 韓國服飾文化の源流(金文子, 金井塚良一 譯, 勉誠出版, 1998), Treasures from Scythian Tombs (Kupriyanova, M. I. Artamonov trans, Thames & Hudson, 1966).

필자 김문자(金文子)

보배무늬

정의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기물 중에서 복되고 좋은 일을 전해 줄 것으로 여긴 상징물을 도안으로 만든 무늬.

내용 보배무늬는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무늬로, 자손을 많이 낳고 번창하여 가문을 복되게 하고, 삶이 평안하고 장수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동양의 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보배무늬는 조형미나 장식 효과보다는 무늬가 가지고 있는 길상적인 의미나 액을 막는 상징성 때문에 의복뿐만 아

나라 장신구, 생활소품, 침구, 가구 등 일상생활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직물에 나타나는 보배무늬는 저고리, 치마, 원삼, 단령, 이불, 보자기 등 남녀의 구분 없이 일상복 및 침구에서부터 예복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는데, 대개 주 무늬로 활용되기보다는 구름무늬나 연꽃무늬 등을 주 무늬로 하고 그 여백을 채우는 보조무늬로 사용되었다. 보배무늬가 주 무늬로 사용된 사례는 불복장물처럼 불교 관련 용도의 직물에서 일부 찾을 수 있으나 17세기 즈음부터는 창의, 도포, 배자, 저고리, 구의, 대령금 등 일반 복식에서도 일반보배무늬나 팔길상무늬를 단독의 주 무늬로 활용한 사례들이 나타났다.

보배무늬는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三國遺事』나 『고려사高麗史』에 ‘칠보七寶’라는 기록이 있으나, 단순히 일곱 가지의 보석을 말하는 것인지 보배무늬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보배무늬와 구름무늬가 함께 사용된 ‘운보문’이 통일신라시대 불교 공예나 불화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고려 이전에 불교문화와 함께 전래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옷감에서 보배무늬가 사용된 유물의 가장 이른 시기는 고려 말기이다. 1346년 문수사의 아미타불 복장직물, 1346년 장곡사의 철조약사불 복장직물, 1360년에 공민왕이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태사묘 직물 등이 있다. 직물의 무늬로서 ‘칠보’라는 명칭이 기록된 것은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1504년(연산군 10)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에는 “남필단만금선藍匹段滿金線을 칠보세화문七寶細花紋으로 짜서 들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 시기 출토 직물에는 ‘칠보세화문’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작은 꽃들과 보배무늬들을 함께 도안한 경우가 많다. 조선 말기의 「불교」에는 칠보문사, 칠보문갑사, 칠보소룡문갑사, 칠보소룡문사 등의 직물 명칭이 있는데, 이처럼 조선에서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옷감 무늬는 주로 ‘칠보문’이라고 불렸다. 반면 중국에서 보낸 직물을 기록한 자료에는 주로 ‘팔보문’이라는 명칭이 자주 나타났다. 『세종실록世宗實錄』 1433년(세종 15)의 기록에는 ‘팔보골타운八寶骨朵雲’, 『문종실록文宗實錄』 1450년(문종 즉위)의 기록에는 ‘골타운감팔보骨朵雲嵌

八寶’, ‘팔보천화운八寶天花雲’과 같이 대부분 팔보가 기록되었다. 중국어 학습서인 『박통사朴通事』,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에도 보배무늬의 명칭은 ‘팔보골타운’, ‘천화감팔보’라 쓰여 있다.

특징 및 의의 직물에 나타나는 보배무늬는 네 종류가 있다. 도가道家の 팔선무늬, 불가佛家の 여덟 가지 보배를 나타내는 팔길상무늬[八吉祥紋], 불경에서 보이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의 칠보무늬, 그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길상을 추구하는 물건들을 도안한 일반보배무늬가 있다. 직물무늬로는 이 중 일반보배무늬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팔선무늬는 여덟 명의 신선이 각각 지니고 다닌 물건을 도안한 것으로, ‘암팔선무늬’ 또는 ‘팔길선무늬’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각각 이철괴李鐵拐가 지닌 중생을 구원하는 약품을 상징하는 호로胡蘆, 종리권鍾離權이 지닌 기사회생을 상징하는 부채인 보선寶扇, 여동빈呂洞賓이 지닌 악을 물리치는 보검寶劍, 남채화藍采和이 지닌 널리 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꽃바구니인 화람花籃, 장과로張果老가 지닌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어고魚鼓, 하선고何仙姑가 지닌 몸을 깨끗하게 하는 하화荷花, 조국구曹國舅가 지닌 세상 모든 것에 천상의 소리를 전하는 음양판陰陽板, 한상자韓湘子가 지닌 만물에 영혼을 불어넣는 피리, 옥적玉笛이다. 팔선무늬의 길상물은 보통 끈이나 리본으로 감겨져 있는데, 이 끈들에는 부적의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 불가의 팔길상무늬는 극락정토에 있는 여덟 가지의 보배를 도안한 것이다. 부귀와 번영을 상징하는



보배무늬 ① 연안 김씨 묘 출토 저고리 중 부분 | 국립문화재연구소, ②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물고기인 금어金魚, 연속과 윤회를 상징하는 매듭인 반장盤長, 영원히 구르는 수레바퀴인 법륜法輪, 세상만사를 두루 덮는다는 보개寶蓋, 생사 해탈을 의미하는 사리병 형태의 보병寶瓶, 접고 펴는 것이 자유로워 중생교화를 의미하는 보산寶傘, 소라 모양으로 묘한 음악을 연주하는 해나海螺, 고결함을 상징하는 연꽃 등이다. 직물에 문양으로 표현된 팔길상무늬는 조선시대의 직물 문양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드물고, 다른 문양과 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전륜성왕이 지니고 있었다는 칠보는 특히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는 보물로 여겨져 왕실의 기물에 많이 사용하였다. 교통과 통신의 수단인 감마보紺馬寶, 올바른 정치와 외교를 의미하는 금륜보金輪寶, 복스럽고 길한 일을 의미하는 백상보白象寶, 국방과 치안을 의미하는 병장보, 소원 성취를 의미하는 신주보神珠寶, 헌신적인 궁녀를 의미하는 옥녀보玉女寶, 창고의 재물 관리를 의미하는 주장신보主藏臣寶 등이 있다. 전륜성왕의 칠보무늬는 일반보배무늬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금륜보는 전보와 비슷하며, 마보는 특경보, 백상보는 쌍서각, 병장보는 서책, 옥녀보는 방승과 유사한 형태이다. 전륜성왕의 칠보무늬 중에서 궁중 기물장식에 많이 사용된 것은 금륜보, 백상보, 병장보, 옥녀보인데, 일반보배무늬와 형태가 유사하여 전보, 쌍서각, 서책, 방승으로 부르기도 한다. 일반보배무늬는 중국의 경우 ‘잡보문雜寶紋’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헌에는 ‘잡보문’에 관한 기록이 없고, 주로 ‘칠보문’ 또는 ‘팔보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 유물들은 정확하게 7~8개의 무늬를 갖추어 사용하기보다 4~10개의 보배무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팔선무늬, 팔길상무늬에 비해 간결하게 도안되었다.

일반보배무늬는 옛날 돈의 형태로 보배와 복의 의미를 담은 전보錢寶, 화첩과 책 모양으로 타고난 복과 벼슬을 의미하는 서보書寶, 무소불의 형태로 다복과 장수를 의미하는 서각犀角, 도끼 모양으로 정의를 나타내는 보鬚, 길상의 뜻을 가진 보자기의 장식품인 방승方勝,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길상물을 의미하는 보주寶珠, 고귀함과 복, 장수를 상징하는 산호珊瑚, 두루마리로 만들어진 책의 형태로 진실의 저장고를 상징하는 폭보幅寶, 돌이나 옥으로 만든 중국 고대의 악기로 경사스러움과 기

쁨을 상징하는 경보警寶, 무한하며 장구하다는 뜻의 만자卍字, 영지버섯 형태로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여의如意, 불사不死를 상징하는 영지靈芝, 마음먹은 일을 성취하게 해 주는 구슬로 여의보주, 여의주 등으로 불리는 화주火珠 등이 있다. 그 외에 매화梅花, 은정銀錠, 애엽艾葉, 파초, 화염火焰 등도 드물게 보인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보문의 유형과 조형성 연구(이주영·장현주·도주연·장정아, 복식54-2, 한국복식학회, 2004),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우리나라 전통무늬2-도자기(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우리나라 전통무늬3-나전·화각(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의 전통문양(임영주, 대원사, 2004).

필자 이은진(李銀眞)

복건 幅巾

정의 유생이나 남자 아이들이 쓰던 검은색 비단으로 만든 쓰개.

내용 옷감 한 폭을 이용하여 만들었다고 하여 한자어 ‘幅巾’으로 기록되는 남성용 모자로 검은색이 일반적이며 검은색에 가까운 아청색도 있다. 형태는 검은색 비단 한 폭을 반 접어 만든 직사각형 모양에 이마 부분에 맞주름을 잡고 뒤통수 부분이 둥글게 구성되어 있으며 귀 달은 위치의 양쪽으로 끈을 달았다. 착장 시 뒤통수에서 끈을 묶어 고정하면 머리 뒤로 넓고 긴 자락이 늘어진다.

복건은 특히 유학자의 상징일 정도로 의미 있는 모자로 유생들이 심의를 입을 때 즐겨 착용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과 『대전통편大典通編』 예전禮典에 학내學內에 있을 때 학생들은 쓴다고 기록된 치포건繼布巾이 복건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 초기부터 유생들의 모자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의 김이안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이재 초상 등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초상화 중에서 심의를 입고 복건을 착용한 유학자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조선 말기 사진 자료에서 학창의와 함께 착용한 모습도 확인된다. 한편 북한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이 소장한 김득신金得臣



① 복건

② 송시열 초상 | 조선

복건 | ① 길이 52 머리둘레 43 | 국립민속박물관, ② 국립중앙박물관

이 그린 <노상알현路上謁見圖>에는 말을 탄 인물의 모습에서 갓에 복건을 쓴 모습을 볼 수 있다.

복건은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상례喪禮와 제례祭禮 편에서 망자의 습의襲衣와 제례 때에 복건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 특히 당시의 복식 제도를 수용하여 망자의 수의로 조선 전기와는 약간 다른 복식을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복건과 심의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수의로 심의와 복건을 입고 출토된 사례가 있다.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김확(1572~1633) 묘,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이익정(1699~1782) 묘의 출토 경우가 대표적으로 심의와 함께 복건, 대대, 조대 일습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점차 유생들의 착용 수가 줄어들면서 조선 말기에는 미혼 남자나 어린아이의 통상 예복으로 정착하였다. 혼례를 치르지 않은 남자 아이가 관례冠禮를 치를 때 관례자가 초가初加 때 심의를 입으면서 치포관과 복건을 착용하였다. 왕실에서는 왕자의 백일복, 돌복, 설빔 등에 복건을 마련한 기록이 있다. 1898년의 「무술스월아기시빅일의복불기」에 따르면 국말 왕실에서는 어린 왕자의 백일에 복건·괘자·두루마기·전대·배자·저고리·바지·버선·행전을 갖추었다. 이때 아청색 인접문사 복건에 옥판과 석옹황을 장식하였다고 하며 「무술구월아기시돌싱신의복불기」(1898)의 돌날에는 사규삼四揆衫을 입으면서 백일 때와 같은 모양의 복건을 이용하였는데 옷의 주인공은 영친왕이었다. 「경즈칠월친왕즈가순빈즈가봉작시의복불기」(1900)는 영친왕이 만 3세 때에 올린 물목인데, 이때 착용한 복건은 아청색 광수사로 만들어 금박을 치고 옥판과 석옹황으로

장식한 것이었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의대목록』은 구궐 왕자의 돌복과 관련된 것인데, 아청색 별문단 복건에 무늬를 금박친 형태이다. 이때 공정책과 함께 마련된 것으로 보아 복건을 쓰고, 그 위에 공정책을 덧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왕자가 자색 용포를 입고 복건과 공정책을 착용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사진 자료가 전해진다.

이와 같이 복건은 남자 아이들의 돌복으로는 물론, 관례 전까지 널리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전복에 두루마기나 동다리, 사규삼 등의 차림에 복건을 썼다. 성인 남성들의 복건과 비교하면 모양과 색상은 같으나 아이들의 복건에는 가장자리와 끈 부분에 봉황이나 박쥐, 수복강녕 등 좋은 의미를 지닌 글자나 무늬를 금박으로 찍어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마 부분에 옥판이나 석옹황 등의 장식물을 달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검은색 비단 직물 한 폭으로 만들어진 남성용 모자로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쓰는 모자 종류로, 특히 유학자들의 상징인 의미 있는 모자이다. 조선 말기까지 사대부나 유생이 심의나 학창의를 입을 때 복건을 썼으며, 17세기 이후 심의를 입을 때 수의용 모자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관례 때에는 남자 아이가 심의를 입고 복건을 착용하였다. 조선 말기 이후에는 남자 어린이의 대표적인 모자로 이용되었고, 첫돌을 맞은 남자 아기의 쓰개로 이용되어 오늘날까지 돌복 일습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궁중발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이명은,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심의(경남대학교출판부, 정혜경, 1998), 영친왕 일가 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전통어린이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한민족역사문화도감-의생활(국립민속박물관, 2005).

필자 이명은(李明恩)

복두
幘頭

정의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 후기까지 착용했던 남자의 중국식 관모류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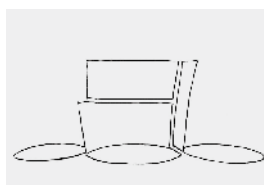
역사 복두는 중국에서 발생한 관모류 중 하나로 원래 머리를 감싸는 단순한 형태에서 출발하여 ‘복두’라고 불렸으나 이후 시기에 따라 그 의미나 형태가 변화하였다. 본래 한 폭의 검은 천을 앞에서 뒤로 묶었으며, 후주後周 무제武帝(재위 572~578) 대에 와서 사각을 내어 뒤의 두각은 앞으로 올려묶고 앞의 두각은 뒤로 묶었으므로 이를 사대건이라고도 하였다. 앞으로 올려 묶었던 두 개의 각은 모부가 단단해지면서 퇴화하고 뒤의 두각만 아래로 드리워졌다. 수대隋代에 와서 비로소 오동나무로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신분의 귀천 없이 착용하였다. 당대唐代에는 증縉 대신 라羅직물을 사용하였으며, 관형화冠形化되 단단히 고착된 경질硬質 복두의 두 각은 다양한 형상을 보인다. 왕과 백관들이 착용하였는데 왕의 것은 각이 위로 굽고, 백관의 복두는 양각을 밑으로 늘어뜨렸다. 오대五代 시기 이후부터 점차 평직平直으로 변하여 일반적인 복제가 되었다. 송대宋代에는 복두에 관한 복제가 완성되어 군신이 모두 평각인 전각복두展脚幘頭를 사용했는데, 모체帽體가 낮고 각이 길었다. 이후 명대까지 복두를 착용하였다.

내용 중국의 관제였던 복두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때는 신라 28대 진덕여왕 때이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사기 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에 649년(진덕여왕 3) 정월부터 중국의 의관을 입기 시작하였다는 기록과 『삼국유사 三國遺事』 「원성대왕조元聖大王條」에 나오는 복두에 관한 설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서는 복두가 백관의 관모이자 왕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신라의 복두는 당當의 복제에서 착용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흥덕왕의 복식금제服飾禁制를 통하여 왕과 귀족, 평민까지도 착용하였는데, 계급에 따라 사용한 소재 및 재료에 차이가 있었다. 6두품은 세總·라·견縵을, 5두품은 라·시縵·견을, 4두품은 시와 견을, 평민은 견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두는 고려시대 때 가장 성행하였는데, 초반에는 통일신라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사용하다가 광종 때 백관의 공복을 정하였다. 이때 제정한 복두는 중국 오대 시기에 착용했던 전각복두이며, 초기에는 각의 길이가 어깨 너비를 넘었지만 말기에는 그 길이가 짧아



① 복두 | 조선



② 종묘의례



③ 강민첩 초상 | 18세기

복두 | ① 높이 19.5 너비 44 | 국립민속박물관, ② 규장각한국학연구원, ③ 진주 강씨 백각공파 종친회

졌다. 또한 왕·문무백관 및 사인舍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용하였고, 말기에는 1252년(고종 39)에 최항崔沆의 일꾼에게 복두를 쓰는 것을 왕이 허락하면서부터 낮은 계층의 사람들도 착용했다고 전해진다. 고려시대 복두 중 특히 장위복仗衛服(군복)으로 사용된 것은 화려하고 종류도 다양했다. 전각복두는 양각이 좌우로 평시된 것으로, 송대의 제도와 같았고 신분의 귀천이 없이 모두 사용하였다. 금화곡각복두金花曲脚幘頭는 복두의 양각을 꺾어 올려 오른쪽으로 조금 굽도록 구부렸으며, 금화로 장식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복두는 먼저 왕세자와 백관의 공복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제정되어 있었으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후 공복의 착용이 사라지면서 그 용도가 점차 국한되어 사용이 줄어들었다. 관례복이나 급제관복으로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으며, 서리계급의 유일한 관모이자 악공복으로 사용되었다. 급제관복에 있어서는 과거에 장원급제하면 복두에 어사화를 꽂고 삼일유

가三日遊街하는 풍습이 있었다. 악공들이 착용했던 복두는 교각복두, 연각복두, 모라복두와 장식적인 기교를 가한 족화복두, 화화복두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 초기 사료인 『악학궤범樂學軌範』의 기록에는 “복두는 종이를 배접하여 만들고 안에는 고운 베를 바르고 검은 칠을 하며 각이 있는데 악공이 쓰는 복두는 전후양각에 채화를 그린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

복두의 실물은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복두는 높이 19.5cm, 너비 44cm으로, 뒤가 높고 앞이 낮은 모부帽部의 뒤쪽 좌우에 각부脚部가 연결되어 있으며, 종으로 만들어진 틀 위에 직물을 씌워 제작한 것이다. 모부의 양 측면에 어사화를 끼울 수 있도록 고리가 달려 있으며, 양 측면 상단과 뒷면 하단에 끈이 여러 갈래 묶여 있다. 복두에 어사화를 끼워 착용한 모습은 조선시대 풍속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의 기산풍속도에도 과거 급제자와 재인才人의 모습으로 어사화가 꽃힌 복두를 쓰고 앵삼鶯衫을 착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복두는 사모의 원형으로 서로 모양이 유사하다. 당대當代 이후 복두는 모체가 2단으로 턱이 저 앞턱이 낮으며, 두 단 모두 평평하고 네모지게 만들어 좌우에 각을 부착하였다. 본래 부드러운 재질을 머리에 두르는 데에서 기원한 복두는 상투 앞으로 올려 묶었던 앞의 두각은 퇴화하고 뒤에 묶어 내린 두각도 경질화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각의 형상이나 장식 여부에 따라 전각복두, 절각복두, 교각복두, 채화복두 등으로 구분되며, 시대와 용도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였다. 또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썼던 어사화를 꽃은 복두는 턱이 지지 않고 각이 져 있으며 위가 평평한 것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2004), 한국복식문화의 흐름(백영자·최정, 경춘사, 2011),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확사,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조우현(趙又玄)

정의 일반인들의 복식 사치를 금하고 복식에 따른 신분의 구별을 위하여 만든 제도.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복식금제는 통일신라시대에 내려졌다. 통일 후 신라는 태평성대가 계속되어 모든 문화는 난숙기에 들어섰으며, 이에 따라 도덕은 차츰 해이해지고 복식제도도 문란해져, 사치에 흘러 834년(흥덕왕 9)에, “사람에게는 상하가 있으며 지위에는 존비尊卑가 있고 이름도 같지 않으며 의복 또한 다르다. 풍속이 점점 천박해져 백성들은 다투어 사치에 흐르고, 다만 이방異方의 것을 진귀하다 숭상하고 도리어 토산물을 속되고 천하다 하여 싫어하며, 분수를 지나쳐 예의에 거슬리고 풍속이 쇠락해 가고 있다. 감히 구장舊章에 쫓아 써 밝힐 것을 명하노니, 만약 고의로 이를 범하면 상형常刑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복식금령服飾禁令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기록은 그 시대 복식제도의 전모를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각종 직물이나 값비싼 사치품이 밀수입되어 이를 금지하자는 논의가 빈번히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빈번한 복식금제가 있었는데, 전 통치기간을 통해서 의복뿐만 아니라 직물, 복색, 금·은·주옥, 가제, 입모, 화혜와 혼인사치 등 다양한 금제가 내려졌다.

내용 통일신라시대 흥덕왕 복식금제를 정리하면 금령의 대상이 된 품목은 22항목인데, 이것을 진골대등眞骨大等·6두품六頭品·5두품五頭品·4두품四頭品·평인의 다섯 단계로 구별하고 남녀별로 그 재료의 직물·문양·장식·색채·포량布量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제하였다.

고려시대 복식금제는 1389년(공양왕 1) 허응許應 등이 올린 상소문에서도 대소신료大小臣僚의 의복에 사라단자紗羅段子를 금하고, 사치품 거래를 금하며, 이를 어기고 몰래 매매하는 자를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그 재물로써 상줄 것을 건의하였다.

조선시대 복식금제는 1394년(태조 3)에 내린 금제의 내용을 보면 1. 양부의 관원 외에는 사라능기紗

羅綾綺의 의복을 입을 수 없다. 2. 서인, 공상천례工商賤隸는 직품이 있더라도 은과 명주, 사피斜皮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혼인할 때도 직품에 따라서 사용해야지 분수에 넘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1429년(세종 11)에는 1. 본래 은대를 띌 수 없는 사람은 혼인할 때도 시산時散의 직품에 따라 각대와 실띠條兒를 한다. 2. 대소 부녀를 수종하는 여종은 말군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입모도 모시만 허용하며, 모침帽檐의 길어도 주부 것 절반이 되도록 한다. 3. 신분의 상하에 따른 의복 승수의 구분은 없으나, 모시·베·무명·명주·무명과 무늬를 놓아 섞어 짠 비단은 1품부터 양반 자제에 이르기까지는 12승 이하로 하고, 공상인과 천노는 8승 이하로 한다. 초구貂裘는 양반 자제 이외는 입지 못한다. 4. 각 품계의 관리는 금대와 은대에 홍색 가죽으로 장식함을 금한다. 5. 서인·공상인·예비隸婢는 사피로 된 신과 초자礪子로 된 의복을 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령은 지켜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금제령을 다시 내리기도 하였다. 1637년(인조 15)에는 당상관은 단령團領과 용복戎服 외에는 필단匹段과 팽단彭段은 착용하지 말며, 당하관은 방사주方絲紬·화사주花絲紬·면주綿紬의 표의表衣를 착용하지 말며, 유생은 모의毛衣를 착용하지 말며, 삼의사三醫司는 유생과 동일하며, 사족의 부녀는 수의상繡衣裳과 문채 있는 필단을 착용하지 말고 장식은 금봉자金鳳釵·주전珠鉞·원가환圓假寶을 사용하지 말며, 서인은 면주綿紬 및 모의毛衣를 착용하지 말라고 하였다.

『수교집록受教輯錄』(1698)에서는 1. 당상관은 공복 이외에 금단을 입지 못하며, 당하관은 초견 및 자적의를 입지 못한다. 2. 유생은 모의와 자적의 및 허리띠를 사용하지 못한다. 삼의사도 동일하다. 3. 사족 부녀는 모두 남편의 작품爵品에 따르나, 대단면수大段綿繡를 입지 못하고 봉채·금옥채·주전·가환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신부는 금하지 않는다. 4. 서인은 사립斜笠·면주·백저포·모로 된 옷을 입지 못한다. 5. 사족 부녀가 수繡의 의상을 입으면 그 가장도 또한 죄를 논한다. 6. 서인으로서 도포·모의·저포를 입는 것, 7새[七升] 이상의 세포의·자적대紫의帶·흑염호피黑染狐皮·당담포堂僮甫·이엄耳掩·모단帽段·운두화雲頭靴·대소분토大小分土를 입는 것을 금한다. 7. 사족의 첩 및 얼속孽屬, 의역醫譯

등의 잡직을 가진 자의 처·여로서 초피여모를 쓰는 것을 금한다. 8. 상녀常女로서 너울모[羅兀帽], 단緞의 족두리를 쓰는 것, 주옥의 지환을 쓰는 것, 사라능단紗羅綾緞을 입는 것을 금한다(기생·의녀는 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추관지秋官志』(1781)에 1. 주의紬衣는 겉에 입는 무늬가 있는 상복上服이었다. 그런데 귀천·노소가 섞여 있으니 구별되지 않으므로 법률을 만들어 장복章服 외에 사서士庶의 나이 50세 이하는 일절 금하라고 하였다. 2. 조신의 장복·용복은 모두 운문을 사용한다. 3. 장군 이하의 군복은 운문과 왕이 상으로 내린 단사대점문緞紗大襟文 외에는 제반 문품은 사용하지 못한다. 4. 주우사注雨紗·항라抗羅·지주只紬·소능 중의 유문은 금한다. 5. 사족 부녀는 가체를 폐지하고 족두리를 대용하게 하였으나 실시하지 못하였다.

『임하필기林下筆記』(1871)에 의하면, 1. 당상관의 장복章服 외에는 무늬가 있는 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2. 당상관의 장의障衣에 무늬 있는 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3. 사족의 남부男婦는 단지 면주를 입고, 견단絹段은 입지 못하며, 시정市井의 남부는 단지 목면을 입으며 면주는 입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음양오행설이나 사대의 예로서 염색에 대한 금지가 많았다. 1449년(세종 31) 대홍大紅으로 물들인 외의外衣는 대소 조사大小朝士들이 이미 입지 못하니, 이 뒤로는 양반 부녀의 외의와 서인庶人과 천인賤人 남녀의 안팎 의복은 모두 대홍색帶紅色을 쓰지 말고, 도홍색桃紅色과 분홍색만 쓰게 한다는 금제가 있었다. 이외 금제에 나타난 복색은 황색·백색·홍색·자색·회색·옥색·녹색 등이다. 황색은 중국 황제의 색이므로 금하였다. 백색은 동방지인이 서방의 색을 숭상함은 옳지 못하며 상복과 다를 바 없어 망국의 징조가 있는 색이라 하여 금하였다. 홍색은 중국의 천자색인 황색과 가깝다는 데서 금령을 내렸다. 또한 자색은 우리나라 임금의 색인 동시에 원료가 왜倭에서 들어오는 단목丹木·소목蘇木이었기 때문에 금하였다. 회색·옥색도 길조가 못 되고 망국의 징험이 있다 하여 금하였다. 녹색은 궁안에서 즐겨 입으므로 아래에서도 따르니 상하가 무별하다 하여 금령을 내렸다.

조선시대의 금·은·주옥의 금제는 전술한 직물금제

처럼 제도의 통제력이 강하지 않아서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가채 금지령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1757년 교지에 보면 그 뒤부터 체계는 예복에만 쓰이고 대신 족두리를 쓰고, 왕손 외에는 용봉채를 금지하게 되었다. 1788년(정조 12) 10월에 절목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1. 사족의 처첩과, 여항의 부녀로 무릇 ‘다래’를 땀아 머리에 엮거나, 본발로 머리에 엮는 제도는 일절 금한다. 2. 체계에 대신하는 낭자의 쌍계雙髻와 사양계絲陽髻는 출가 전에 쓰는 것이므로 써서는 아니 되고 대신 머리를 땀고 ‘쪽’으로 대신하라. 머리에 쓰는 것은 전과 같이 족두리로 하되 면서綿絮·양죽涼竹은 밖과 안 모두 흑색으로 한다. 3. 상천常賤의 여인으로 거리에서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것과 공사천公私賤이 본발을 가지고 머리 엮는 것은 허용하되 ‘다래’를 드리거나 더 엮는 것을 금한다. 효종 때에는 양태[涼臺]가 넓은 것은 문을 드나드는 데 방해가 되므로 금지하라고 하였다. 이도 잘 이행되지 않아 1430년에 다시 똑같은 금령을 내렸다.

신발에 대한 금제는 1449년(세종 31)에는 양반의 부녀와 여기女妓 외에는 사라·능단혜紗羅綾段鞋를 쓰지 못하게 하고, 남자의 피초혜皮草鞋는 높고 낮은 이를 막론하고 신는 것을 금지한다. 악공에 대한 착화의 금제, 성종 때 승려의 피혜皮鞋 착용의 금지, 숙종 때 지혜紙鞋 금지, 정조 때는 백화白靴 착용의 금지 등이 있었다.

혼례에 대한 금제도 신부의 복식도 비단 대신 붉은 명주·모시·면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1520년(중종 5) 혼인의 사치는 오랑캐의 습속이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1516년 11월에는 혼인 때 사라능단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교지로 전하였다. 이상의 금제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제가 내려졌다. 특히 『대전속록大典續錄』을 보면 신부가 청선의·홍선의·금선의를 입으면 수모手母도 같이 벌하였다. 대군·제군·공주·옹주의 가례 때에는 『오례의五禮儀』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또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教輯錄』에는 납채 때 채단 혹은 백금으로 함을 채우는 것을 금한다고 하였다.

특징 및 의의 복식금제는 계급 구분과 사치 금지를 위한 법령이지만, 오히려 당시의 복식 제도를 살펴볼 수 있

는 좋은 근거자료를 제공해 준다. 조선은 초기부터 빈번한 복식금제가 있었다. 의복뿐만 아니라 직물, 복색, 금·은·주옥, 가채, 입모, 화해와 혼인 사치 등 다양한 금제가 내려졌다. 일정 부분 사치를 막는 장치로 복식금제가 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나 전반적으로 복식금제는 그다지 성공적인 제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복식금제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대상자들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할 때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한 엮은머리에서 쪽진머리로의 이행은 하급계급에 허용된 엮은머리로 인해 계급 구분을 원하는 상류층들이 자진해서 쪽진머리를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원래 엮은머리의 가채 장식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시행된 이 같은 복식금제는 쪽진머리 위에 엮도록 허용된 족두리 과잉 장식 때문에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는 기현상이 생겨났다.

참고문헌 大典續錄, 林下筆記,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秋官志,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98).

필자 김문자(金文子)

볼끼

정의 뺨과 턱을 싸서 정수리에 묶는 간단한 추위막이.

내용 볼끼는 뺨과 턱을 감싸서 추위를 막는 방한용품이다. 비단에 털을 대서 만들거나 무명 등에 솜을 두어 만들었는데 색상은 흔히 남색이나 자주색을 사용하였다. 현전하는 볼끼 유물로는 하나의 조각으로 만든 일체형과 짧은 조각 두 개를 좌우로 연결하여 만든 분리형이 있다. 분리형 볼끼는 난모의 일종인 남바위 좌우에 달던 두 조각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양 끝에는 정수리에 고정시킬 수 있는 끈을 달았다. 난모가 없을 때는 볼끼만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노인들은 주로 볼끼 위에 남바위나 조바위 등을 덧쓰기도 했다.

볼끼의 역사는 오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기록으로는 조선 전기인 15세기 중기부터 확인된다. 『세



① 불끼 | 길이 20 | 19세기 말



② 불끼 쓴 여인과 아이 | 일제강점기

불끼 | 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엘리자베스 키스 | 보건 포스터 | 국립민속박물관

종실록^{宗實錄}의 1446년(세종 28) 3월 27일 기록에 따르면 왕비의 상제로 승휘 재최기년 복식으로 백저포로 마련한 ‘과시^{裹賜}’가 있었다. 과시란 ‘불싸개’이니 불끼로 볼 수 있다. 또, 『세조실록^{世祖實錄}』에는 1460년(세조 6) 4월 9일에 세자빈 집으로 납정한 물품이 기록되어 있다. 그중에 ‘협리^{頰裏}’ 한 점이 있는데 이는 ‘협과^{頰裹}’의 오류로 보인다. ‘리^裏’와 ‘과^裹’는 글자가 비슷하여 잘못 기록되기 쉬운 글자이다. ‘협과’라는 것 역시

풀어 보면 ‘불싸개’가 된다. “협과는 한 개를 마련하는데 비단^帛으로 만든다. 길이는 1자 7~8치(약 82cm)이고 너비는 2치(약 9cm)이다. 양끝을 줄여서 턱을 감아 정수리에서 묶는다.”라고 하여 치수와 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과시’나 ‘협과’가 불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제작한 의궤^{儀軌}나 등록^{謄錄}에도 왕실 여성들과 궁녀들의 불끼 관련 기록이 보인다. 17~18세기 전기 기록에는 ‘보을기^{甫乙只}’ 또는 ‘보을리^{甫乙裏}’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에 세자빈의 “보을기는 감한다^{甫乙只一減}.”라고 기록되어 있어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749년 『국혼정례^{國婚定例}』에는 공주와 옹주의 가례 때 자적광적보을기^{紫的廣的甫乙只}를 준비하였다고 하고, 1830년 『복온공주가례등록^{福溫公主嘉禮謄錄}』과 1837년 『덕온공주가례등록^{德溫公主嘉禮謄錄}』에도 역시 공주 의복 중 ‘자적광적보을리^{紫的廣的甫乙裏}’ 한 점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1847년 『정미가례시일기^{丁未嘉禮時日記}』에 따르면 경빈 김씨 가례 때 불끼를 두 건 마련하였는데, 두 점 모두 흑색 고양이 털을 두른 자적단 불끼^{紫的緞黑貓皮裏只}였다. 한문본에는 ‘虬只’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글본에는 ‘불끼’라고 기록하고 있어 둘이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끼는 조선 전기에는 한자로 과시·협과로 기록되기도 하고, 후기에는 보을리·보을기, 불기·불끼 등으로 기록되면서 오랜 전통을 유지해 왔다.

특징 및 의의 기록으로 확인되는 조선시대 불끼의 재료에는 신분별로 차이가 있었다. 1627년 소현세자가례 때를 비롯하여 1671년 4월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肅宗仁敬王后嘉禮都監儀軌}』 등에는 상궁과 아지^{阿只}, 시녀와 유모, 기행내인의 불끼 재료로 백주^{白紬}를 다섯 자씩 준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흰 불끼는 때에 따라 생략하기도 하였는데, 왕실 여성들은 자적색을 사용하고 상궁 이하 궁인들은 백색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918년 사진 중에는 상궁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흰색 불끼를 하고 그 위에 조바위를 쓰고 있어 불끼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겨울한복(뿌리깊은나무, 대원사, 1989), 덕은공주가례 등록을 통해 본 공주가례복식(이은주, 한국복식3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2), 마지막 황실, 잊혀진 대한제국(서울대학교박물관, 2006), 명선-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정미가례시일기 주해(황문환 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필자 이은주(李恩珠)

봉지

정의 바지의 한자 표기의 하나이자 궁중에서 쓰이는 왕, 왕세자, 왕비, 왕세자빈의 바지 명칭.

내용 봉지의 기록은 16세기 『미암일기(眉巖日記)』 중 1568년의 일기 내용에 겹바지를 뜻하는 ‘갑봉지(甲捧地)’와 1632년 『인목왕후빈전도감의궤(仁穆王后嬪殿都監儀軌)』에 ‘백숙초(白熟綃) 봉지(鳳池)’가 있는데 봉지의 ‘봉’은 ‘반들 봉’이므로 ‘밧지’, 즉 ‘바지’의 이두식 한자표기이다. 반면, 조선 말기 「궁중 발기」에 기록된 봉지는 왕, 왕세자, 왕비, 왕세자빈의 바지를 칭하는 높임말이다. 신분이 낮은 왕자의 경우 바지로 표기하여 대별하였다. 발기에서의 왕과 왕세자의 봉지는 부리가 좁은 사폭 바지 형태이며 어린 왕세자의 경우 대소변을 가리기 쉽도록 밑이 트인 풍차바지 종류로 보여진다. 색상은 대부분 백색이나 「병오십이월가례시영친왕의복불고」의 경우 영친왕이 특별히 보라색 삼팔주 봉지를 입었다. 옷감은 노방주, 정주, 삼팔주, 숙갑사, 옥양목 등이다.

왕비와 왕세자빈의 봉지는 하나만 입기도 하였으나 너른봉지와 봉지, 또는 단속곳과 봉지를 일작으로 갖추어 입었다. 여성의 봉지 형태는 남성의 것과는 차이를 보여 밑이 트이고 부리가 좁아지는 봉어배래 모양이다. 색상은 모두 백색이고, 옷감은 갑사, 장원주, 수화주, 화방주, 정주, 생수갑사, 왜사, 생항라, 은조사 쌍문초, 저항라, 세저포, 서양사, 서양목, 광포, 소주포 등이 사용되었으며 오목누비, 납작누비, 잔주누비, 잔누비, 솜, 겹, 단, 쟁친 봉지 등으로 다양한 구성법으로 제작되었다. 이상으로 볼 때 봉지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봉지가 다양한 옷감과 구성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바지는 한자 표기로 쓰이기도 하였으나 조선 말기에는 궁중에서 왕, 왕세자, 왕비, 왕세자빈의 바지를 특별히 높여서 부른 명칭이다. 왕과 왕세자의 봉지는 사폭바지 형태이며, 어린 왕자의 경우 밑이 트인 바지로 추정된다. 왕비와 왕세자빈의 봉지는 밑이 트인 봉어배래 형태이며 특별한 날에는 너른봉지나 단속곳 안에 갖추어 입었다. 조선 말기의 왕실에서 특별히 칭한 명칭이지만 한자 표기의 하나로 쓰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반가에서도 봉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궁중발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이명은,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낙선재 주변(김명길, 중앙일보사, 1977),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전통어린이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이명은(李明恩)

봉황무늬

정의 전설상의 새인 봉황을 소재로 도안한 무늬.

내용 봉황(鳳凰)은 날개 달린 족속의 수장으로 사람들은 흔히 조왕(鳥王)이라 하였고, 어진 임금의 나라를 잘 다스려 나라가 편안하면 나타난다고 믿어,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상서로운 새로 여겼다. 봉황의 모습에 대해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신성한 새(神鳥)이며, “앞부분은 기러기. 뒷부분은 기린, 뱀의 머리에 물고기의 꼬리, 황새의 이마와 원앙의 깃, 용과 같은 비늘무늬와 호랑이 같은 등. 제비의 턱과 부리는 닭과 같으며, 깃털은 오색을 갖추었다. 동쪽의 군자가 사는 나라에서 나와서 사해의 밖을 날아 곤륜산을 지나 황하의 중류에 있는 지주라는 바위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약수에 깃털을 씻고 저녁에 풍혈에서 자는데, 이 새가 세상에 나타나면 천하가 안녕해진다.”라고 하여 여러 동물의 모습을 조합하여 새들 중 가장 화려한 새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봉황 한 쌍이 춤을 추는 도안으로도 나타났는데, 이때 수컷을 봉凰, 암컷을 황凰이라 하였다. 암수의 모습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은 없었으나 꼬리의 모양을 다르게 하여 하나는 꼬리를 지



그재그로, 다른 하나는 꼬리를 긴 곡선으로 뺀 넝쿨 모양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간혹 꼬리가 같은 모양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 17세기 김화 金樞의 부인 동래 정씨 묘에서 출토된 치마의 봉황무늬가 그 예이며, 조선 후기 벼갓모를 장식하는 구봉문 九鳳紋 역시 한 쌍의 봉황이 동일한 모습이다. 또한 한 마리 혹은 여러 마리의 봉황을 함께 표현하더라도 암수를 구분하는 ‘봉황’이라는 명칭 대신 주로 ‘봉’이라 하였다. 그 예로 궁궐을 ‘봉궐 鳳闕’, 임금이 타는 수레를 ‘봉련 鳳輦’이라 하였으며, 왕실 부인의 예복에 장식하던 흉배를 ‘봉흉배’, 봉황 장식이 있는 비녀를 ‘봉잠 鳳簪’, 예복 용 대를 ‘봉대 鳳帶’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의 모양을 다르게 표현한 것은 암수를 구분하는 의미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한 쌍을 조화롭고 화려하게 표현하려는 장식적 효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봉황무늬가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삼국시대 고분벽화의 주작 朱雀이다. 주작은 봉황과 유사한 형태에서 출발하였으되 용도와 형태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주작은 주로 남쪽을 수호하는 수호신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봉황은 용과 함

께 왕실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에 따라 더욱 화려해지면서 구별이 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봉황무늬가 확인되는 복식자료는 고려 말 불복장으로 쓰인 직물에서 처음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사 高麗史』에는 서울과 지방 민서 民庶들의 의복과 기물 器物에 용과 봉황무늬를 금지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고려시대 용과 봉황의 무늬를 사용하는 데에 신분에 따른 규제가 있었다는 것과 더불어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다는 내용으로 고려시대 봉황무늬 직물과의 연관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 신분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면서 용봉무늬는 왕실을 상징하는 무늬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세종 대의 기록에 의하면 “대연(왕의 가마) 장식은 황금으로, 밖에는 구름과 용을, 안에는 구름과 봉황을 그려 넣는다.”라고 하였고, 왕실 사찰로 잘 알려진 회암사 터에서는 용과 봉황무늬가 있는 기와가 발견되어 왕과 왕비의 업무 공간이나 처소 등 궁궐의 주요 건축물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봉황과 왕실 사이의 관련성을 증명하고 봉황이 왕실의 상징적 무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17세기 이후로는 봉황무늬가 있는 복식이 종종 확인되는데, 바탕색과 무늬가 동일한 색조로 직조된 것과, 금이나 색사를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되는 경우가 있다. 동일한 색으로 직조된 봉황무늬 직물은 왕실이나 상류층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직물로 왕실의 상징보다는 장식적으로 활용된 것이었다. 이러한 봉황무늬는 17~18세기 초까지 확인되는데, 봉황과 꽃무늬가 함께 규칙적으로 반복되거나 원형의 용과 봉황이 반복된 무늬이다. 그 예로는 광해군 부인 유씨의 저고리, 김화 부인 동래 정씨(1567~1631) 묘 출토 치마, 류성구 부인 전주 이씨(1620~1663) 묘 출토 치마, 심익창 沈益昌 부인 사천 목씨(1657~1699) 묘 출토 저고리 등이 있다. 왕실 복식에 표현된 봉황무늬는 모두 금가루를 아교에 개어 그리는 니금, 금실을 넣어 짜는 직금, 금을 얇게 펴 만든 금박, 금사와 오색의 색사를 사용한 자수 등으로 화려하고 세밀하게 표현되었다. 왕실의 상징으로 사용된 봉황무늬는 17~18세기에는 왕실과 관련된 가문의 복식에서도 드러나는데, 그중 성종의 손자며느리인 완산군 부인 평양 이씨(1502~1579)의 무덤에서 출

토된 예복이 있다. 직물은 봉황무늬 부분에 특별히 굵은 실을 넣어 입체적으로 짠 고급 비단으로, 지름 8cm의 원형 안에 다섯 갈래의 꼬리가 하나는 지그재그, 다른 하나는 넝쿨모양으로 표현된 두 종류의 봉황이 번갈아 반복된 무늬로 장식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봉황무늬는 회암사에서 발견된 봉황무늬수막새와도 유사하다. 그 외 심익창 부인 성산 이씨(1651~1671)의 묘에서 출토된 자수스란치마와 직금봉스란치마, 이단하李端夏(1625~1689) 부인 청주 한씨의 원삼에 부착된 자수 봉황배가 있다.

왕실 여성 예복에 봉황무늬에 대한 기록은 1638년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며, 이후로 20세기 초까지 왕실 여성의 상징적 의미로 꾸준히 사용되었다. 인조장렬왕후 가례 때의 기록에 의하면 적의·노의·홍배겹장삼, 단삼單衫이 봉황무늬로 예복을 장식하였다. 적의에는 금사를 넣어 직조한 봉황배를 달고 오채화운 봉금원문(오색의 물감과 금가루를 사용하여 그린 둥근 봉황무늬) 36개를 앞과 뒤에 그려 넣도록 하였다. 금원문의 원형 안에는 여의주를 중심으로 좌우에 구름을, 상하에 봉황을 배치하였는데, 꼬리의 형태를 서로 다르게 표현하여 화려하게 채색하였다. 노의 역시 원형봉황무늬(금원문양) 315개를 전후좌우에 금박(부금)하도록 하였고, 홍배겹장삼과 단삼에도 금실을 넣어 직조한 봉황홍배를 달도록 하였다. 숙선옹주(1793~1836)의 묘에서 출토된 원삼에 부착된 금사 자수봉황배 등도 왕실 여성의 봉황 장식 사례를 보여준다. 19세기 이후의 봉황무늬는 왕실 여성의 복식에서만 확인되는데, 고종의 후궁 귀인 양씨의 봉보鳳補가 부착된 원삼의 착용 모습을 통하여 조선 말기 왕실 여성의 봉보와 예복 착용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친왕비(1897~1970)의 유품인 적의, 원삼, 봉스란치마 등을 통해 조선 말기에 제작된 금사를 넣어 직조하거나 금박으로 장식한 봉황무늬를 볼 수 있다.

특정 및 의의 봉황은 존귀한 성품을 가진 신령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어 길조인 동시에 성군을 상징하게 되면서 왕실과 관련된 건축과 물품에 장식무늬로 사용되었다. 특히 17세기 이후부터 조선 말기까지 왕실 여성의 예복

을 봉황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봉황무늬는 왕실 여성을 상징하는 무늬 중 대표 격으로 인식되었다.

참고문헌 說文解字, 궁궐 장식(허균, 돌베개 2011), 영친왕 일가 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의문의 조선-무늬(경기도박물관·민속원, 2016), 조선 왕실 선성군 모자의 특별한 외출(경기도박물관·민속원, 2014).

필자 정미숙(鄭美淑)

비녀

정의 부인들의 쪽머리를 고정하는 머리 장신구.

역사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사슴뿔로 만든 비녀가 농포동 패총에서 발견되었고, 백제 유물 중 부여에서 발견된 비녀는 금장식이 달린 은비녀로 끝이 고리처럼 구부러져 있어 당시의 비녀 형태를 알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통일신라시대 흥덕왕이 만든 복식금제(834, 흥덕왕 9)를 보면, 계급에 따라 비녀의 재료를 차별화하였다. 신라의 신분제인 골품제에 따라 진골녀眞骨女는 차釵에 누각鏤刻을 하거나 철주綴珠(진주 장식)하는 것을 금하는 기록이 있다. 6두품六頭品 여성은 순금 사용을 금하였으며, 평민 부녀자에게는 유석鑠石을 사용하게 하였다. 신분에 따라 비녀의 재료의 달리해 상류 계급은 금·은·옥 등을 사용하고, 서민 계급은 나무·뿔·뼈 등으로 만든 비녀를 사용하게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고대 이후 여자들의 머리 형태가 거의 이어져 머리에 비녀를 꽂았다고 한다. 이 시기 비녀 유물(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을 보면, 청동과 금동으로 만든 비녀의 잠두蠟頭(비녀 머리 부분)에 꽃과 새 문양이 음각되어 있거나, 그냥 잠두만 있는 것도 있다. 또한 고려 말 <하연河演부인상>의 초상화를 보면, 하연의 부인이 여모女帽를 쓰고 뒤쪽에 비녀[釵]를 꽂아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 채는 끝이 둘로 갈라진 비녀이다. 『악학궤범樂學軌範』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차釵와 잠簪은 금 또는 도금을 하고 진주와 랄주刺珠 등으로 꾸민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중기에는 여자들의 머리 형태로 얹은머리가 유행하면서 다리를 고정하는 비녀, 예장용인 어여머리 같은 가체에 비녀를 사용하여 하여 고정하였다. 조선 후기 1756년(영조 32) 영조의 여인의 발제개혁髮制改革으로 얹은머리 형태가 금지되어 부녀자의 머리 형태가 얹은머리에서 쪽진머리로 변하면서 비녀가 널리 사용되었다. 이전에는 얹은머리를 위해 가체와 장식에 대한 사치가 심했으나, 영조와 정조 때 여러 차례 가체에 대한 금령禁令이 내려지고, 순조 중엽에는 쪽진 머리가 일반화되면서 비녀의 사용이 많아져 비녀의 종류, 장식 등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비녀

비녀

내용 비녀는 머리를 수발修髮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면서 장식의 역할도 하였다. 비녀는 머리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것과 화관花冠·족두리 등을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한다. 머리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비녀는 만든 재료와 잠두의 형태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고, 예장용·평상용·계절·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달랐다.

재료에 따라서는 금비녀·은비녀·옥비녀·비취비녀·영락비녀·산호비녀·죽비녀·목비녀·각비녀 등이 있고, 잠두의 형태에 따라서는 용잠龍簪, 봉황장식은 봉잠鳳簪, 원앙잠鴛鴦簪, 오두잠烏頭簪, 매조잠梅鳥簪, 매죽잠梅竹簪, 죽잠竹簪, 죽절잠竹節簪, 연봉잠蓮鳳簪, 목련잠木蓮簪, 목단잠牡丹簪, 석류잠石榴簪, 국화잠菊花簪, 화엽잠花葉簪, 초롱잠草籠簪, 호도잠胡桃簪, 어두잠魚頭簪 등으로 구분한다. 용잠과 봉잠은 왕비와 세자빈이 예장할 때 사용하였으며, 명부·사족·부녀들은 용잠의 사용을 금하였다. 혼례 때만 일반 부녀자의 용잠 사용이 허용되었고, 그 밖의 비녀가 평상용으로 사용되었다.

조선 헌종의 후궁 경빈慶嬪 김씨(1832~1907)가 쓴 『사절복색자장요람四節服色自藏要覽』에는 2월에는 모란잠, 4·8·9월에는 매죽잠이나 옥모란잠, 5월에 민옥잠, 용잠, 10월부터 용잠 등을 계절에 따라 옷에 맞춰 비녀를 다르게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궁중의 여인이 쓴 개인의 비녀 사용의 내용처럼 일반 상류 계층에서도 비슷하게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 요람에는 젊을 때는 옥철보 비녀, 나이가 들어서는 금철보 비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도 있어 연령에 따라서도 비녀를 다르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비녀 | 조선



② 의기 계월향 초상 중 부분 | 조선

비녀 | ① 길이 9~15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② 국립민속박물관

화관과 족두리에 사용한 비녀는 관에 꽂아 관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화관에는 좌우 양쪽으로 비녀를 꽂아 장식하였고, 족두리잠은 보조비녀인데 족두리를 머리에 고정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도록 꽂았다.

특징 및 의의 비녀의 잠두의 수식은 그 형태가 대부분 여인의 절개나 길상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부귀·장수·다남 등을 기원한다. 조선시대는 유교의 덕목에 따

라 여성의 정절을 상징하는 매화와 대나무 문양의 비녀를 즐겨 사용하였다. 단오에는 잡귀를 없애기 위하여 몸에 치장했던 단오장端午粧(단옷날에 차는 노리개)으로 창포 뿌리를 깎아 비녀 창포잠菖蒲簪을 만들고, 창포잠에는 장수와 복을 기원하기 위한 ‘수복壽福’의 글자를 새기고 끝에 연지를 발라 머리에 꽂았다. 또한, 비녀는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어 머리를 꾸미는 장신구 이상의 의미가 있다.

비녀는 혼례를 치른 여인의 표식이 되기도 하였고, 비녀를 꽂는 의례인 ‘계례笄禮’는 성인이 된다는 표징이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도 비녀를 꽂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을 하대하였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비녀를 뽑고 머리를 풀어 늘어뜨리는데, 부모를 잃은 죄인의 표식이자 죄책감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상주喪主가 되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난 후에야 풀어 내린 머리를 올려 검은 쇠뿔 비녀를 꽂고, 100일 후에는 나무 비녀를 꽂는다. 이 나무 비녀는 검소와 근신의 표시로 삼년상이 끝날 때까지 꽂았다. 또한 여자가 죄를 지어 관아에 하옥될 때도 계급과 빈부에 상관없이 비녀를 빼고 머리를 풀어 늘어뜨렸다.

참고문헌 근세복식과 우리문화(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03), 명선-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전통장신구(장숙환, 대원사, 2002),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박성실·조효숙·이은주,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조선 후기 여성 수식 장신구에 관한 연구(이유정,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한국복식 2천년(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81),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확사,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복식풍속사연구(조효순, 일지사, 1992).

필자 소황옥(蘇晃玉)

빗

정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어서 가다듬는 화장도구.

내용 옛사람들은 머리를 길러서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빗을 사용했다. 1895년 단발령이 선포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머리를 길렀기 때문에 상하를 막론

하고 빗을 사용하여 가지런히 정리하였다. 꼭 빗이 아니더라도 형태가 다른 머리를 정리할 수 있는 기구를 집 안에 갖추어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람들은 유교 전통에 따라 우리 몸의 작은 터럭 하나라도 부모에게서 받아 손상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을 효의 시작으로 보았다. 즉 올바른 머리 보호와 관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빗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사용한 화장도구이다. 낙랑 유적과 안압지에서 열레빗과 통일신라시대 대모빗 출토가 이를 증명한다. 당시 대모빗은 빗살과 빗등이 직각을 이루며, 금제화형장식金製花形裝飾을 배치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빗은 국장에서도 필요한 수를 제작해서 사용하였다. 경공장과 외공장에 각각 빗을 제작하는 장인을 배치하였다. 빗 제작과 공급은 그만큼 왕실이나 지방 관아에서 필요한 분야였다. 조선 왕실은 경공장으로 본조本曹에 죽소장竹梳匠 2명·목소장木梳匠 2명, 상의원尙衣院에 목소장 2명·죽소장 2명을 배치하였다. 외공장은 충청도에 소성장梳省匠 1인, 경상도에 소장 2명·소성장 3명, 전라도에 소장 1명·소성장 1명, 강원도에도 소장 1명·소성장 1명을 배치하여 빗을 제작하도록 법제화하였다. 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진목소眞木梳 각 두 벌을 제작하고 소함梳函에 넣는다고 기술하였다. 소함은 나무를 바탕으로 제작해서 나전을 입혀 칠하고, 안에는 붉은 비단을 발랐다. 선조 국장 시에는 국장도감 이방二房에서 나전을 입힌 소함에다 소첩梳貼도 제작해서 사용하였다. 이방은 나무빗[木梳]과 참빗[眞梳]을 2개씩 제작해서 자문지咨文紙로 만든 첩에 넣고, 홍단으로 싸서 선조의 국장에 사용하였다.

빗의 형태는 크게 두 종류로 열레빗과 참빗으로 나뉜다. 열레빗은 반달과 장방형으로 한쪽에 빗살을 성글게 배치해서 엉키거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게 하였다. 참빗은 빗등을 중심으로 양쪽에 빗살을 촘촘하게 배치해서 열레빗으로 빗은 다음 곱게 빗어서 넘기는 데 사용하였다. 열레빗은 반달 모양으로 생겨서 월소月梳라고도 한다. 열레빗은 빗살이 굵고 성글어서 긴 머리를 빗질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와 반대로 참빗은 빗살이 매우 촘촘하다. 보통 열레빗으로 대강 머리카락을 정리한 다음에 참빗으로 빗어서 가지런히 정리한다. 참빗



① 참빗 | 조선
② 열레빗 | 조선

빗 | ① 길이 9너비 5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11너비 7 | 국립민속박물관

은 열레빗으로 빗어서 내린 머리에 곁을 곱게 하는 것이 외에 때를 뺄 때 등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빗치개 중간에 참빗을 배치해서 기능을 겸용하게 하였다.

빗

열레빗은 면빗[面梳]·상투빗·음양소[陰陽梳] 등으로 각기 다르게 쓰였다. 면빗의 크기는 월소보다 약간 작고 빗살이 촘촘하고 고와서 잔머리 정리와 머리를 땀을 때 효과가 매우 좋다. 이 빗은 머리를 빗은 후에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난 머리털을 빗어 넘기며, 머릿결을 맞추어 가면서 땀을 때도 역시 효과가 있다. 상투빗은 남성들이 상투를 틀고 난 후에 상투 뒤쪽으로 꽂아 망건을 고정하려고 만들었으며, 빗살이 좁고 깊은 것이 특징이다. 음양소는 빗등을 중심으로 한쪽은 빗살이 성근 열레빗, 다른 한쪽은 이보다 촘촘한 빗살을 배치해서 참빗 기능을 한다.

그리고 열레빗은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크기가 아주 다양하다. 작은 열레빗은 머리카락 손질을 마무리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이 빗은 야외에서 머리카락이 바람 등으로 흩어지면, 휴대하다가 간단히 정돈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특히, 빗집을 만들어서 빗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관하는 작은 빗도 있다. 이는 빗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 목적도 있다. 빗은 주로 박달나무·괴목·대나무·대추나무·도장나무·소나무 등으로 제작하였다. 특히, 제주도산 해송으로 만든 빗은 각종 질병을 낮게 하거나 홍역 등 귀신을 쫓는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인기가 많았다.

열레빗은 빗살과 빗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빗살은 머리카락을 실제로 빗어서 가지런히 정리하며, 빗등은 머리카락 손질할 때 손으로 쥐는 부분으로 손잡이 역할을 한다. 열레빗은 빗등 모양에 따라서 반달형과 장방형을 띤다. 반달형은 빗등을 둥글면서 밋밋하게, 또는

여러 개의 오목한 곡선을 주기도 한다. 후자는 사용자가 손에 쥐면 미끄럽지 않아서 머리카락을 매우 안정적으로 빗을 수 있다. 모두 빗질의 효율성을 감안했겠지만, 장인은 미적 감각도 염두에 두고 빗을 제작하였다. 반달형은 빗살 역시 길이가 안쪽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바깥쪽으로 올수록 작아진다. 장방형은 바깥쪽과 중앙부분의 빗살의 크기가 일정하다. 반달형이든 장방형이든 빗은 빗등에서 빗살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가늘게 제작한다.

열레빗은 빗등과 빗살의 배치 방법에 따라서 일체형과 조합형으로 나눈다. 일체형은 대부분 열레빗 형태로 빗살과 빗등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이루어졌다. 조합형은 빗등과 빗살을 분리한 형태의 빗이다. 이런 방식의 빗은 빗등의 한쪽을 홈으로 길게 판 후에 빗살을 끼워서 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머리는 기름을 발라서 탐스럽게 유지하였다. 빗은 머리카락에 기름을 바를 때에도 사용하였다. 이는 빗에 기름을 묻혀서 빓으면 머리카락 깊숙한 부분까지 바를 수 있기 때문이다. 왕실에서는 머릿기름으로 참기름을 발랐다. 『탁지정례[度支定例]』에 기름은 때달 올린 공상 물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궁전·빈궁·원자빈궁·세손빈궁에 각각 기름을 올렸다. 사대부나 일반 백성은 동백기름이나 아주까리기름을 발랐다. 비듬 제거에는 들기름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기름은 머릿결을 윤택하게 하지만, 끈적한 성질로 빗살에도 때 등을 쉽게 부착시켜서 잘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때 빗치개를 이용해서 빗살에 낀 때를 빼낸다.

참빗은 일반적으로 대쪽을 잘게 쪼개서 살을 만들어서 빗살을 촘촘히 박아 앞뒤로 대쪽이나 목제, 우골[牛骨]을 대어 굳힌 것으로 아주 가늘고 촘촘하다. 따라서 참빗은 주로 머리를 정갈하게 다듬거나 비듬과 머리카락의 때 같은 불순물 제거에도 사용한다. 때를 뺄 때는 숨을 뿔대어서 머리카락을 빗으면 잘 빠진다. 참빗은 직사각형이 대부분이며, 크기에 따라 대소·중소·어중소·밀소 등으로 구분한다. 양 가장자리에 넓적하게 댄 모퉁이 부분의 마구리 재료에 따라 참빗을 구분하기도 한다.

참빗은 여러 해 동안 사용하면 살이 현다. 길이 잘 든 헌 참빗에서 성한 살을 골라서 다시 매어서 사용하

는 빛을 ‘되미기’, ‘되매기’ 참빗이라고 불렀다. 이 참빗은 비록 한 번 썼던 헌 빗이지만, 길이 잘 들어서 새 참빗보다 잘 빗어진다고 하여 특별히 거래되었으며, 더욱 귀한 것으로 여겨져 값도 비쌌다. 근래에 들어 참빗은 주로 금속이나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며, 커트나 퍼머머리가 일반화하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관광용품으로 생산된다.

빛에 표현된 문양과 장식은 아름다움 그 자체와 자신들의 현실적인 바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빛은 나무 이외에 뿔, 대모 등으로 제작하였는데, 재질을 그대로 사용해서 질감을 드러냈다. 아무런 장식 없이 제작한 나무와 뿔은 자연스러운 미를 그대로 보여 준다. 특히, 대모는 그 자체로 갈색과 검은색의 조화가 문양을 장식한 듯하며 중후한 감을 보여 준다. 다른 경우는 나무에 나전을 입히고, 낙화하고, 주철을 하였다. 주철빛은 단색 칠로 단출한 맛을 자아낸다. 뿔은 화각 기법으로 아로새겨서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였다. 화각빛은 빗등에 용, 만개한 꽃과 잎새 문양을 그려서 아름답고, 세공이 매우 정교하여 여인네들 사이에서 애용품으로 인기가 단연 으뜸이었다. 빛은 종류와 의미, 비용에 따라 머리를 정리하는 도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정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에 따라서 빛에 각종 문양으로 칠하고 조각하고 장식하였다.

국양문(鞠良文)(1914~1998)은 주로 아홉 가지 형태의 참빗을 제작하였다. 음양소·대소·중소·퇴침소·진양소·화각소·민갑소·밀소·씨울치 등이다. 참빗을 아홉 종류나 제작한 사실은 우리 빗이 실제 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였음을 알게 해 준다. 그는 참빗 제조 과정을 빗살 제작·빗살 염색·매기 제작·대등 제작·낙죽·참빗 꾸미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또 자작칼·대대린 칼·백칼등달이·조름칼·전집·장석대·얼대·밀칼·중벌칼·한판·한 대 가래칼·주름대·골판 등을 각 과정에 따라서 제작도구로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참빗을 생산하였다. 근래에 참빗 생산지로 이름 있는 지역은 전라남도 영암과 담양이다. 영암 참빗은 쇠뿔(牛骨)로 마구리를, 대쪽으로 등대를 제작하였다. 등대는 대쪽으로 만든 붓 끝에 염산(靑剛水)을 찍어서 매화 등을 그리고, 불에 지져서 표

현하였다. 담양 참빗은 마구리와 등대 모두 대쪽을 이용하였다. 등대는 낙(烙)으로 무늬를 그리는 것이 특징이다.

참빗과 관련한 옛말도 전해지고 있다. “참빗 새 훔듯”, “참빗으로 이 훔듯 한다.” 같은 속담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아주 세심하면서도 철저하게 추진한다는 의미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참빗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나타낸 것이다.

특징 및 의미 빛은 오래전부터 사용하였고, 현대에 들어서도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화장구이다. 빛은 남녀노소와 상하 귀천을 불문하고 예나 지금이나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다. 그 이유는 머리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구조와 형태가 단순해 보이지만, 빛의 사용 가치는 매우 높다. 빛을 크게 열레빗과 참빗으로 나뉘는데, 그 기능은 매우 뚜렷하다. 장인과 사용자는 빛의 실용적 기능 못지않게 다양한 문양과 장식으로 자신들의 염원과 아름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참고문헌 國葬都監儀軌, 國朝五禮儀, 민족생활어사전(이훈중, 한길사, 1993), 한국수공예미술(김종태, 예경산업사, 1990).

필자 박종민(朴鍾珉)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의 생활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of Basic Necessities

CLOTHING

부록

I. 분야별 도판 II. 속담·관용구 III. 색인 IV. 필자

모자

상의

하의

겉옷

속옷

대

신발

장신구

머리모양

화장

일습

염색

무늬

용어

분야별 도판





가리마 (20p.)



신윤복 | 청금상연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갓 (42p.)



① 갓 쓴 양반들 | 김홍도 | 연광정연회도 중 부분 | 19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② 입영(갓끈)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③ 입식(호수) | 길이 38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④ 흑립 | 높이 20.5 지름 72.3 | 19세기 초 | 국립민속박물관, ⑤ 갓집 | 높이 14 지름 41.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갈모 (28p.)



① 갈모와 갈모테 | 갈모 길이 38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갈모 쓴 우체부 | 영월책박물관

감투 (36p.)



채용신 | 최익현 초상 | 1905 | 국립중앙박물관

개두 (48p.)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상) | 1689 | 국립중앙박물관

건 (56p.)



① 흑건 | 덕흥리 고분 | 고구려, ② 머릿수건 | 각저총 | 고구려, ③ 조건 쓴 나장 | 신유복 | 주사거배 중 부분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고깔 (67p.)



가로 30 세로 34 | 198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굴레 (102p.)



높이 18 길이 4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너울 (133p.)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중 부분 | 1759 | 국립중앙박물관

남바위 (130p.)



①



②

① 가로 18 세로 34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남바위 위에 제관을 쓴 관리 | 엘리자베스 키스 | 종묘제례관리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대륜식입식관 (170p.)



① 수목낙각형입식관 | 경북 경주 황남대총 북분 | 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② 목형입식관 | 부산 동래 복천동 11호분 | 가야 | 국립김해박물관, ③ 금동관 | 전남 나주 신촌리 9호분 | 백제 | 국립나주박물관, ④ 수목낙각형입식관 | 경북 경주 천마총 | 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동파관 (196p.)



윤두서 | 심득경 초상 | 1710 | 국립중앙박물관

마미두면 (209p.)



전 고종 갓 | 높이 13 지름 31.5 | 근대 | 세종대학교 박물관

망건 (214p.)



①



②

① 백은배 | 후원아집도 중 부분 | 19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② 길이 54.5 너비 8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면류관 (220p.)



12류 면류관 재현품 | 2017 |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면사 (226p.)



면사 쓴 신부 | 1999 | 이길표

방건 (282p.)



①



②

① 가로 28 세로 17 | 1900년대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② 신한평 | 이광사 초상 | 18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③ 방건 쓴 훈장 | 김홍도 | 서당 중 부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방립 (283p.)



①



① 높이 21.5 너비 51 | 1907 | 국립민속박물관, ② 상중 외출용 쓰개

백라관 (292p.)



안악 3호분 | 고구려

병거지 (296p.)



①



① 높이 7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② 평생도 중 부분 | 국립민속박물관

변형모 (298p.)



① 높이 19 | 경북 경주 천마총 | 신라 | 국립중앙박물관, ② 대안리 1호분 | 고구려, ③ 변형모 쓴 사람 얼굴무늬 토기 | 충남 부여 관북리 | 백제 | 국립부여박물관

복건 (302p.)



①



① 길이 52 둘레 43 | 국립민속박물관, ② 송시열 초상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복두 (303p.)



강민첨 초상 | 18세기 | 진주 강씨 백각공파 종친회

볼끼 (307p.)



①



① 길이 20 | 19세기 말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엘리자베스 키스 보건 포스터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사모 (437p.)



① 높이 16.5 지름 17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② 백사모 | 높이 16.5 지름 19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③ 정몽주 초상 | 14세기 후반 | 경기도박물관, ④ 이돈상 초상 | 19세기 중반 | 경기도박물관

삿갓 (443p.)



① 높이 21.5 지름 63.7 | 195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② 삿갓 쓴 여인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상모 (446p.)



① 부포상모(김제농악) | 국립민속박물관, ② 채상모(평택농악) | 국립민속박물관

상관 (445p.)



① 굴건 | 길이 48 너비 17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수질 | 길이 95.5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송낙 (478p.)



① 송립(송낙) | 높이 18 | 1850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김홍도 | 시주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상투관 (455p.)



① 높이 60 지름 5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② 임매 초상 | 1777 | 국립중앙박물관

쓰개치마 (499p.)



①



②

①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② 신윤복 | 월하정인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아암 (501p.)



①



②

① 길이 132 너비 28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아암을 쓴 어린 기생 | 1909 | 국립민속박물관

양관 (507p.)



①



②

① 금관 | 높이 20 지름 17.5 | 19세기 말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금관조복을 입은 관리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원유관 (551p.)



높이 21 지름 18 | 1900년대 |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유건 (55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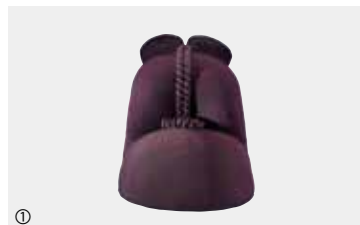
가로 24.8 세로 21.9 | 19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이엄 (564p.)



길이 42 너비 4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익선관 (565p.)



①



②

③

① 영친왕 익선관 | 높이 22 가로 20.5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태조 어진 중 부분 | 1872 | 어진박물관, ③ 영조 어진 중 부분 | 1900 | 국립고궁박물관

장옷 (582p.)



①



②

① 길이 122.7 폭 51.5 화장 78 | 1997 | 국립민속박물관, ② 신윤복 | 연소담청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전립 (599p.)



① 신윤복 | 쌍검대무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② 높이 9.5 지름 34.5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전모 (601p.)



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신윤복 | 전모 쓴 여인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정동벌립 (605p.)



① 높이 14 지름 48.5 | 21세기 | 국립제주박물관, ② 정동벌립과 도롱이를 쓴 농부 | 제주대학교박물관

정자관 (606p.)



① 높이 35 너비 26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이채 초상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조바위 (618p.)



①



②

① 길이 34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민씨 가의 규수 | 1938 | 국립민속박물관

조우관 (622p.)



①



②

③



④

① 수렵도 | 무용총 | 고구려, ② 충남 공주 수촌리 4호분 | 백제 | 국립공주박물관, ③ 금제관식 | 높이 40 | 경북 경주 금관총 | 신라 | 국립중앙박물관, ④ 금동제불황형장식 | 높이 13.1 | 평북 운산 용호동 1호분 | 고구려 | 국립중앙박물관

족두리 (624p.)



①



②

① 높이 8 너비 11 지름 9.5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조반 부인 초상 중 부분 | 조선 초기 | 국립중앙박물관

주립 (626p.)



①



②

① 높이 14 지름 15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신윤복 | 무녀신무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중산모 (631p.)



영업확장기념키 위아야 특별대여가제공 | 1921. 10. 21 | 동아일보

중절모 (632p.)



높이 13 너비 32 | 196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책 (650p.)



① 장하독 | 안악 3호분 | 고구려, ② 책 쓴 고관 | 덕흥리 고분 | 고구려, ③ 행렬도 | 안악 3호분 | 고구려

천의 (653p.)



① 길이 92 너비 153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790 너비 275 | 근대 | 온양민속박물관

초립 (660p.)



① 신운복 | 주사거배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② 높이 12 지름 24.5 | 국립민속박물관

치포관 (674p.)



허전 초상 | 19세기 후반 | 경기도박물관

탕건 (683p.)



① 높이 14 너비 17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탕건 쓴 양반들 | 수갑계첩 중 부분 | 1814 | 국립중앙박물관

털벌겅 (686p.)



털벌겅 | 높이 11 너비 50 | 광복 이후 | 제주대학교 박물관

통천관 (688p.)



고종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패랭이 (69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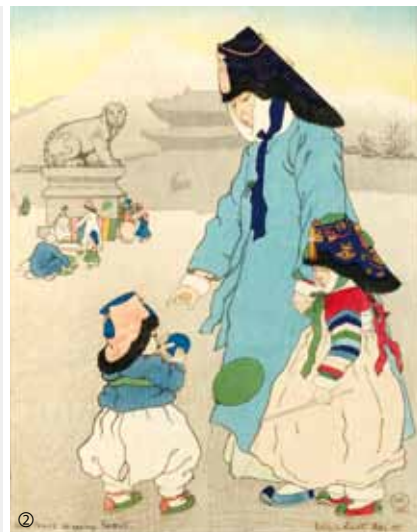
높이 12 지름 33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풍차 (708p.)



①

① 길이 38 너비 36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엘리자베스 키스 | 정월 초하루 나들이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화관 (747p.)



①



②



③

① 엘리자베스 키스 판화전 포스터 | 1991 | 국립민속박물관, ② 높이 14 너비 16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③ 높이 9 가로 12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호건 (736p.)



①



②

① 길이 50 지름 19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일제강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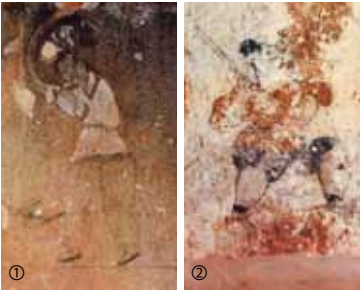


결마기 (63p.)



① 길이 67 폭 72 화장 75 | 청주 한씨 묘 출토 | 16세기 추정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삼회장 저고리 | 길이 16 폭 34 화장 53 | 1831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고 (66p.)



① 뽕나팔을 부는 사람 | 안악 3호분 | 고구려, ② 문지기역사 | 약수리 고분 | 고구려

과두 (82p.)



남자 과두와 유사한 여자 요대 | 안동 김씨 묘 출토 | 18세기 | 경기도박물관

당의 (164p.)



① 천장례 단체 사진 | 1911 | 국립고궁박물관, ② 광해군비 당의 | 길이 76 폭 52 화장 90.5 | 17세기 초반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③ 영친왕비 운봉문직금단 두 벌 당의 | 길이 78 폭 59 화장 69.8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동의대 (194p.)



영친왕 별문숙고사 숨저고리 | 길이 56 폭 52 화장 69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배넛저고리 (286p.)



길이 28 폭 26 화장 33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등거리 (202p.)



길이 43.5 너비 31.5 | 1946 | 국립민속박물관

소고의 (472p.)



① 영친왕비 화문장미사 삼회장 저고리 | 길이 29 폭 49.5 화장 69.5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영친왕비 명주 속저고리 | 길이 28.5 폭 48.5 화장 68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색동저고리 (457p.)



①



②

① 길이 17 화장 35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② 엘리자베스 키스 | 석가탄신일 | 1929 | 국립민속박물관

저고리 (588p.)



①



②

① 길이 62 품 52 화장 60 | 조선 초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33 품 45 화장 65.5 | 20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적삼 (592p.)



길이 39 품 50 화장 68 | 193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조끼 (616p.)



길이 47 품 47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최의 (662p.)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토시 (687p.)



①



②



③

① 신윤복 | 야금모행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② 길이 25 너비 14 | 국립민속박물관, ③ 길이 18 지름 11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거들치마 (55p.)



길이 135.6 폭 544.5 허리 99 | 남양 홍씨 묘 출토 | 1400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두렁치마 (198p.)



길이 40 | 1880년대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몸배 (254p.)



부인들에게 몸배를 입고, 생산 활동에 전념하도록 권하는 문서 | 1942 | 국립민속박물관

말군 (211p.)



① 신윤복 | 문종심사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② 길이 117 허리 63 | 인천 석남 | 15세기 추정 | 인천시립박물관

바지 (275p.)



① 길이 108 허리 91 | 변수 묘 출토 | 16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117.5 허리 126 | 신광현 묘 출토 | 18세기 말 | 국립민속박물관

상 (443p.)



어양태수 | 덕흥리 고분 | 고구려

스란치마 (485p.)



영친왕비 화문단 부금 남스란치마 | 길이 133 허리 107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자락치마 (568p.)



덕혜옹주 별문숙고사 치마 | 길이 104 폭 266.3 허리 87.5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잠방이 (575p.)



김홍도 | 경답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전행옷치마 (603p.)



영친왕비 김상문작금단 전행옷치마 | 길이 142 허리 95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조끼허리 (617p.)



길이 45 허리 55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최상 (661p.)



길이 69.5 허리 90 | 1941 | 국립민속박물관

치마 (671p.)



① 쌍영총 | 고구려, ② 치마저고리를 입은 왕실 여인들 | 1900년대 초

풍차바지 (709p.)



길이 49 허리 66 | 196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행전 (72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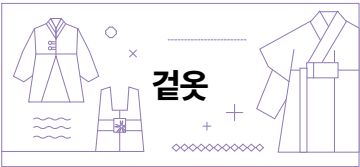


① 영친왕 모시 행전 | 길이 22.8 너비 19.6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행상 | 김홍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행주치마 (729p.)



신윤복 | 정변야화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가사 (21p.)



① 서산대사 진영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② 2016 | 박춘화

강사포 (46p.)



고종황제 어진 | 1918년경 | 국립고궁박물관

까치두루마기 (120p.)



길이 58.5 품 35 화장 45 | 국립민속박물관

난삼 (125p.)



① 길이 132 품 30 화장 85 | 조선 후기 | 고려대학교 박물관, ② 과가하는사람 | 기산풍속도 | 2002년 복제 | 국립민속박물관

곤룡포 (73p.)



① 영친왕 윤보문사 홍룡포 | 길이 119.5 품 53 화장 90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고종 어진 | 20세기 초반 | 국립중앙박물관



단령 (151p.)



①



① 길이 137 폭 58 화장 127.5 | 김학 묘 출토 | 17세기 초반 | 경기도박물관, ② 단령 입고 사모 쓴 남자 | 20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담복 (161p.)



천담복 | 길이 128 폭 54 화장 95 | 1865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담호 (162p.)



길이 136 폭 59 화장 46 | 16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더그레 (181p.)



길이 119.5 폭 59.5 화장 20.5 | 18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도롱이 (182p.)



①



②

① 길이 120 너비 60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② 도롱이 입고 삿갓 쓴 남성 | 1910 | 김영준

도포 (186p.)



이명기·김홍도 | 서직수 초상 | 1796 | 국립중앙박물관

동다리 (192p.)



①



②

① 길이 118 폭 46 화장 84 | 19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대한제국동가도 중 부분 | 19세기 말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두루마기 (199p.)



①



②



③

① 길이 119 폭 51 화장 70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③ 1930 | 국립민속박물관

사규삼(四襟衫) (436p.)



길이 51.5 폭 32 화장 34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마고자 (208p.)



①



②

① 남자 마고자 | 길이 59.5 폭 49.5 화장 69 | 1946 | 국립민속박물관, ② 여자 마고자 | 길이 27 폭 41 화장 62.5 | 1920 | 국립민속박물관

소창의 (474p.)



길이 128 폭 58 화장 96 | 이진송 묘 출토 | 18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심의 (496p.)



①

역주름포 (505p.)



길이 104 폭 66 화장 99 | 16세기 말 | 국립민속박물관

배자 (290p.)



①



②

① 길이 44 폭 32 진동 28.5 | 1890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성협 | 투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②

① 길이 133.5 폭 93 화장 132.5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이재 초상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원삼 (549p.)



①



① 동궁비 원삼 | 길이 145 폭 44 화장 135 | 20세기 초반 | 세종대학교박물관, ② 순정효황후와 의친왕비의 원삼 착용 | 1900년대 초 | 서울대학교박물관

장삼 (577p.)



길이 140 폭 78 화장 126 | 나부 부인 용인 이씨 묘 출토 | 16세기 | 대전시립박물관

중단 (630p.)



영친왕비 무문주 중단 | 길이 143 폭 53 화장 105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중치막 (634p.)



①



②

① 길이 129 폭 60 화장 119 | 18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신윤복 | 상춘야흥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전복 (602p.)



①



②

① 길이 128 폭 47 | 19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52 폭 36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적의 (593p.)



①



②

① 길이 155 폭 53 화장 101 | 20세기 초반 | 세종대학교박물관, ② 순종 근현례식 기념 사진 | 1922 | 국립고궁박물관

직령 (635p.)



① 길이 138 폭 74 화장 115 | 이연충 묘 출토 | 16세기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이조년 초상 | 성주 이씨 대종회

창의 (648p.)



길이 130 폭 44 화장 118 | 남오성 묘 출토 | 18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철릭 (657p.)



① 요선철릭 | 길이 124 폭 59 화장 113 | 16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118 폭 62 화장 97 | 17세기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괘자 (676p.)



영친왕 모란문갑사 괘자 | 길이 119 폭 51 어깨 9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학창의 (715p.)



① 길이 125 폭 50 화장 101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이한철·유숙 | 이하응 초상 와룡관학창의본 | 1869 | 서울역사박물관

활옷 (751p.)



복은궁주 활옷 재현품 | 길이 143 폭 48 화장 109 | 20세기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개집 (54p.)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고의 (71p.)



길이 86 허리 104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고쟁이 (72p.)



①



②

① 길이 96.5 허리 98 | 1920 | 국립민속박물관, ② 살창고쟁이 | 길이 104 허리 90 | 국립민속박물관

다리속곳 (148p.)



길이 22.5 허리 55 | 21세기 |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단속곳 (159p.)



길이 93 허리 95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대숨치마 (174p.)



길이 118.5 허리 100.5 | 21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대자 (176p.)



영친왕비 명주 가슴가리개 | 길이 110 너비 30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무지기치마 (262p.)



길이 72 허리 103 | 21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속적삼 (476p.)



길이 33.5 화장 69 | 1940~1950년대 |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속치마 (477p.)



①



②

① 길이 95 허리 93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② 영친왕비 진주사 속치마 | 길이 89.5 허리 87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한삼 (72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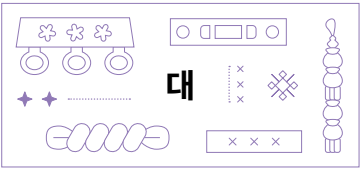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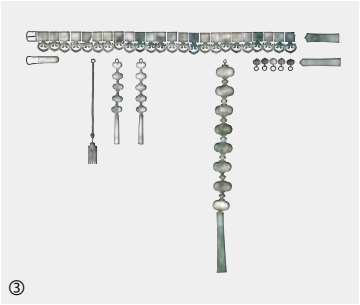


②

① 품 69 화장 104 | 16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② 여령의 오색 한삼 | 신축진찬도병풍 중 부분 | 국립고궁박물관



과대 (81p.)



① 은제 과대 | 공주 무령왕릉 | 백제 | 국립공주박물관, ② 금제 과대 | 경주 천마총 | 신라 | 국립중앙박물관, ③ 은제 과대 | 경산 임당동 고분 | 가야 | 영남대학교박물관

대구 (169p.)



① 마형·호형대구 | 경북 영천 어은리 | 청동기시대 | 국립중앙박물관, ② 마형대구 | 충남 천안 청당동 | 원삼국 | 국립중앙박물관

돌띠 (188p.)



이지영

세조대 (469p.)



① 조선 | 경기도박물관, ② 권기수 초상 | 1919 | 국립전주박물관

야자대 (506p.)



① 모란금대 | 길이 172 | 안동 태사묘 | 14세기 | 안동민속박물관, ② 약공이 착용한 야자대 | 무신전 찬도병 중 부분 | 1848 | 국립중앙박물관

옥대 (534p.)



① 영친왕 옥대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영친왕 비 옥대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요질 (541p.)



길이 126 | 국립민속박물관

전대 (598p.)



① 남전대 | 길이 234 너비 10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② 대화단 부금 전대 | 길이 220 너비 8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혁대 (731p.)



각대 | 가로 45 세로 30 | 19세기 말 | 국립민속박물관



금동신발 (110p.)



① 길이 34.8 | 고무려 | 국립중앙박물관, ② 전북 고창 봉덕리 1호분 | 백제 | 국립전주박물관

가족버선 (24p.)



길이 28 너비 30 | 근대 | 제주대학교박물관

구두 (98p.)



① 고종 어진 | 1907 | 한미사진미술관, ② 회령의 기생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고무신 (69p.)



① 고무신 상인과 손님 | 일제강점기 | 김영준, ② 어른용 고무신 | 너비 65 길이 230~240 | 197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나막신 (122p.)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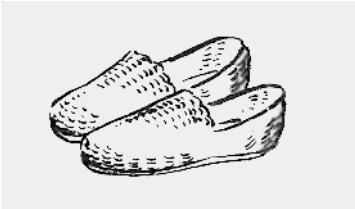
②



③

① 구유형 나막신 | 길이 16.5 너비 6.5 높이 6 | 20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② 곤돌라형 나막신 | 길이 25.5 너비 7.5 높이 16 | 국립민속박물관, ③ 전신윤복 | 대패도 중 부분 | 국립중앙박물관

노파리 (138p.)



국학도감 | 일조각

녹피혜 (139p.)



길이 26 너비 8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당혜 (166p.)



길이 240 너비 7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먹신 (220p.)



먹신(동구나신) | 길이 26 너비 85 높이 13 | 1991 | 국립민속박물관

목화 (252p.)



길이 260 너비 70 높이 28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미투리 (271p.)



국립민속박물관

버선 (295p.)



①



②

① 길이 26 높이 41 | 192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② 버선본집 | 가로 9.3~10.7 세로 8.1~10.2 | 국립민속박물관

석 (464p.)



영친왕비 청석 | 길이 25 높이 5.9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설피 (468p.)



길이 42 너비 29.5 | 195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운혜 (545p.)



①



②

① 남자 운혜 | 길이 26 높이 5.5 | 18세기 후반 | 국립민속박물관, ② 여자 운혜 | 길이 18 너비 5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유혜 (557p.)



길이 28.5 너비 7.5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장화 (583p.)



누비화 | 길이 32 높이 39 | 밀창군 이적 묘 출토 | 18세기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타래버선 (679p.)



①



②

① 길이 20.6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길이 21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짚신 (643p.)



①

정 (604p.)



버선 | 전체길이 54.5 발길이 24.5 바닥지름 8 | 김학묘 출토 | 1633 | 경기도박물관



②

① 길이 27 너비 8 | 국립민속박물관, ② 김득신 | 성하직구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태사혜 (684p.)



① 길이 18.3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유아용 태사혜 | 길이 15 너비 5.5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혜 (733p.)



① 운혜 | 195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② 흑피혜·녹피혜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흑피화 (762p.)



흑피화를 신은 악사 | 오향천제반차도 중 부분 | 국립고궁박물관



관자 (88p.)



지름 1.5~2.5 | 19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고이랭기 (71p.)



길이 270 폭 10 | 고려대학교박물관

귀고리 (106p.)



① 태환식 원추형 귀고리 | 길이 6 | 서울 광진구 능동 | 고구려 | 국립중앙박물관, ② 다조식 귀고리 | 길이 8.3 | 충남 공주 무령왕릉 | 백제 | 국립공주박물관, ③ 태환식 귀고리 | 길이 8.7 지름 3.8 | 경북 경주 보문동 부부총 | 신라 | 국립중앙박물관, ④ 세환식 다조식 귀고리 | 길이 7.6 | 경남 합천 옥전 24호분 | 가야 | 합천박물관, ⑤ 은제 귀고리 | 길이 5.8 | 경기도 개성 부근 | 고려 | 국립중앙박물관, ⑥ 백제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⑦ 국립민속박물관

규 (109p.)



영친왕 규와 주머니 | 길이 17.3 너비 4.2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노리개 (135p.)



①



②

③

① 대삼작노리개 | 전체길이 41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② 과불노리개 | 길이 13.5 | 20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③ 범발톱노리개 | 길이 15 | 20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다회 (148p.)



다회틀 | 김은영

도투락대기 (184p.)



①



②

③

① 회흔례도 중 부분 | 18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② 길이 114 너비 22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③ 길이 95.5 너비 30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동곳 (191p.)



①



②

① 은제 동곳 | 길이 5.1~9.6 | 고려 | 국립중앙박물관, ② 길이 3.7~4.5 | 조선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뒤꽃이 (201p.)



①



②

① 국화뒤꽃이 | 길이 7 너비 4.2 | 19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빗치개뒤꽃이 | 길이 18.4 너비 4.8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떠구지 (204p.)



①



②

① 가로 36.5 세로 23 | 19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영친왕비의 큰머리 후봉잠 | 길이 32.6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떨잠 (206p.)



①

②



③

① 영친왕비 백옥 꽃떨잠 | 길이 11.3 지름 8.2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영친왕비 백옥 나비떨잠 | 높이 9 폭 7.5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③ 떨잠 꽃은 어여머리 | 권오창

말뚝뎡기 (21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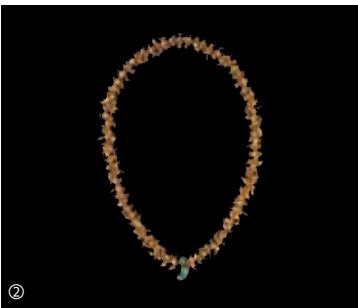


193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목걸이 (247p.)



①



②



③

① 9절 목걸이 | 지름 16 | 충남 공주 무령왕릉 | 백제 | 국립공주박물관, ② 곡옥부 목걸이 | 경북 경주 노서동 | 길이 33 | 신라 | 국립중앙박물관, ③ 경흥식 다수곡옥부 | 길이 64 | 경북 경주 천마총 | 신라 | 국립중앙박물관

목도리 (250p.)



엘리자베스 키스 | 연날리기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목판댕기 (251p.)



목판댕기 하고 있는 여중 | 김홍도 | 후원유언 중 부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반지 (280p.)



①



②



③

① 금반지 | 지름 1.5 | 경북 경주 금령총 | 신라 | 국립중앙박물관, ② 은제 반지 | 지름 2.1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③ 가락지 | 지름 3 두께 1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방심곡령 (285p.)



제복 | 길이 97 화장 84 | 조선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배씨댕기 (289p.)



길이 3.5 | 19세기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비녀 (311p.)



①



②

① 길이 9~15 | 조선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② 의기계월향 초상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사선 (43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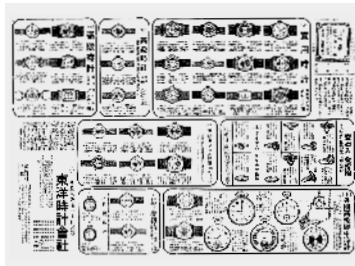
①

① 김홍도 | 노상파안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② 신랑전안 | 기산풍속도 | 조선 |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②

시계 (488p.)



동양시계회사 광고 | 1937. 12. 7 | 동아일보

안경 (502p.)



①



②

① 꺾기다리 안경 | 길이 13 지름 4.8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② 김득신 | 밀희투전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안경집 (50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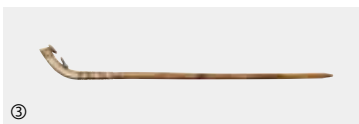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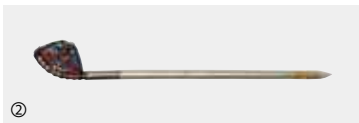
가로 15.5 세로 8 | 국립민속박물관

어사화 (518p.)



① 어사화 | 길이 165 | 19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김홍도 | 담와 홍계희 평생도 중 부분 | 18세기 후반 | 국립중앙박물관

잠 (573p.)



① 용잠 | 길이 37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칠보매죽잠 | 길이 31.2 비너머리 3.9 | 조선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③ 죽절잠 | 길이 22 | 조선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장도 (57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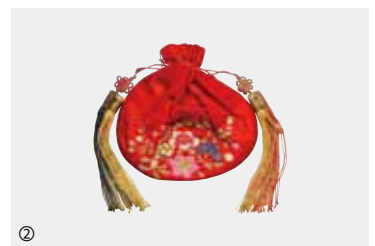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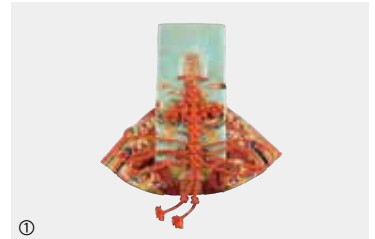
① 온양민속박물관, ② 미인도 | 근대 | 동아대학교 박물관

제비부리댕기 (615p.)



① 길이 53.3 너비 7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107 | 근대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주머니 (627p.)



① 영친왕비 수복자문 자수 귀주머니 | 높이 14 너비 14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두루주머니 | 길이 10 너비 1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③ 이진 십장생문 자수 약주머니 | 높이 14 너비 14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첩지 (658p.)



길이 6.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팔찌 (693p.)



① 은제 용문 팔찌 | 지름 8 | 충남 공주 무령왕릉 | 백제 | 국립공주박물관, ② 금제 톱니식 팔찌 | 지름 8 | 경북 경주 노서동 | 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③ 금판환식 팔찌 | 너비 2.1 지름 7.2 | 경북 경주 황남대총 북분 | 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④ 은도금 타출꽃 새무늬 팔찌 | 지름 9 | 고려 | 국립중앙박물관

패옥 (696p.)



영친왕비 패옥 | 길이 77 너비 9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페슬 (700p.)



영친왕비 페슬 | 길이 54 너비 35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포선 (705p.)



① 성협 | 노상풍정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② 외출 중인 상제

하피 (713p.)



길이 49.5 너비 11 | 20세기 초반 | 세종대학교박물관

향갑 (730p.)



은삼작노리개 | 술길이 37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홀 (74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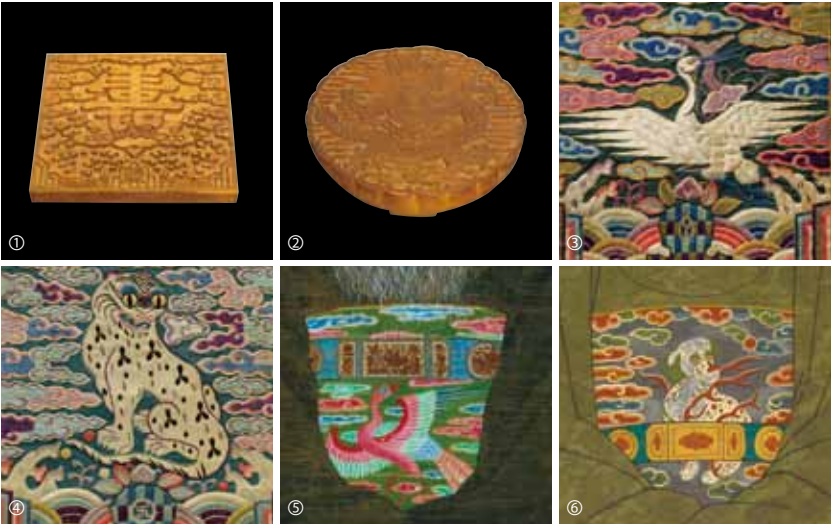
① 길이 84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상 | 조선 | 경기도박물관

후수 (756p.)



길이 78 끈길이 47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홍배 (758p.)



① 홍배판 | 가로 19.5 세로 19.5 두께 2 | 19세기 말 | 국립민속박물관, ② 오조룡보판 | 지름 19 두께 2.7 | 1896 | 국립민속박물관, ③ 단학홍배 | 가로 20 세로 21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④ 단호홍배 | 가로 20 세로 21.5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⑤ 공작홍배 | 이준도 초상 중 부분 | 1740 | 충현박물관, ⑥ 사자홍배 | 김중만 초상 중 부분 | 18세기 | 경기도박물관



가채 (25p.)



①



②
① 미인도 | 조선 후기 | 해남 윤씨 종가, ② 가로 12 세로 14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건국 (57p.)



① 묘주 부인의 시녀들 | 안악 3호분 | 고구려, ②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 | 안악 3호분 | 고구려

단발머리 (157p.)



여류음악가 박경희씨 귀국 | 1928. 10. 24 | 동아일보

대수 (173p.)



영친왕비 적의 차림 대수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땅은머리 (203p.)



명차는 모양 | 기산풍속도 | 2002년 복제 | 국립민속박물관

상투 (45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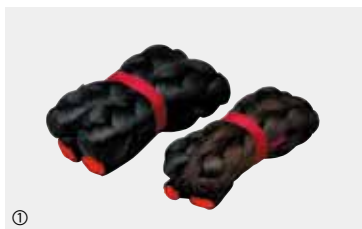
①



②

① 윤집 초상 | 19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② 김홍도 점심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새양머리 (456p.)



①



②

① 1850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나인복 | 권오창

쌍계 (49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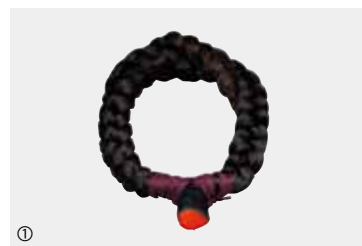
①



②

① 덕흥리 고분 | 고구려 | 국립중앙박물관, ② 평생도 중 부분 | 20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어여머리 (519p.)



①



②

① 어염족두리 | 길이 31 | 19세기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예복 차림의 순정효황후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쪽머리 (647p.)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엷은머리 (520p.)



①



②

① 환계를 한 여인 | 안악 3호분 | 고구려, ② 신윤복 | 단오풍경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참지머리 (659p.)



① 도금봉참지 | 길이 5 | 조선 |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② 상류사회의 부인

큰머리 (678p.)



큰머리 올린 여인

하이칼라머리 (711p.)



석남 송석하 가족사진 | 1938 | 국립민속박물관



경대 (5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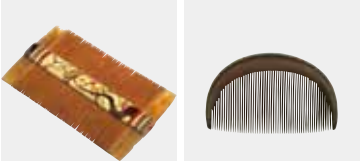
① 가로 13 세로 17 높이 12 | 조선 후기 | 국립민속 박물관, ② 김홍도 | 큰머리 여인 | 19세기 | 서울대학교박물관

박자분 (277p.)



가로 34.8 세로 34.8 높이 1.7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 박물관

빗 (313p.)



① 참빗 | 길이 9 너비 5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② 열레빗 | 길이 11 너비 7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연지 (52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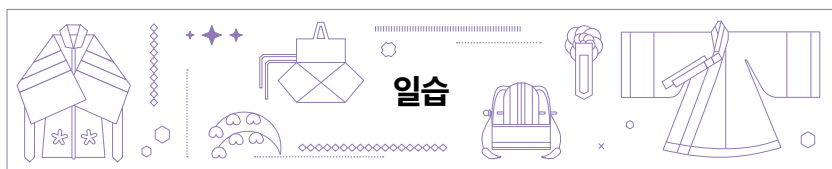


지름 4 두께 1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화장재료 (750p.)



영친왕비 청화백자당초문 분합 | 지름 6.6 높이 2.8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구군복 (96p.)



① 철종어진 | 조선 | 국립고궁박물관, ② 권오창

궁녀복 (103p.)



① 화정능행도병풍 중 부분 | 국립고궁박물관, ② 신축진찬도병풍 중 부분 | 국립고궁박물관, ③ 무신년진찬도 중 부분 | 국립중앙박물관

계례복 (65p.)



초례 | 경북 안동 | 1992 | 김시상

관례복 (86p.)



시가례 | 경북 안동 | 1992 | 김시상

교복 (92p.)



①



②

① 여자 여름 교복 | 1950년대 | 중앙여자고등학교, ② 남자 겨울 교복 | 1960년대 | 서울역사박물관

경찰복 (61p.)



① 구한말 순검의 경찰복, ② 경무관 복장

기녀복 (112p.)



신윤복 | 청루소일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돌복 (189p.)



돌복과 돌상 | 1937 | 김영준

농악복식 (139p.)



① 걸궁패 | 1938 | 국립민속박물관, ② 구례잔수농악 | 국립민속박물관, ③ 평택농악 | 국립민속박물관, ④ 이리농악 | 국립민속박물관, ⑤ 임실필봉농악 | 국립민속박물관, ⑥ 진주삼천포 농악 | 국립민속박물관, ⑦ 강릉농악 | 국립민속박물관

면복 (222p.)



① 익종 어진(7장 면복) | 19세기 | 국립고궁박물관,
② 순종(12장 면복) | 순종실기 | 최연우

무복 (259p.)



① 바리공주 신장을 한 무녀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산마누라 신장을 한 무녀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문관대례복 (263p.)



① 광수 흑단령 | 길이 118 폭 45 화장 91 | 조선 후기 | 고려대학교박물관, ② 동농 김가진 | 국립민속박물관

상복 (447p.)



경북 안동 | 학봉종택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백일옷 (294p.)



백쪽저고리와 바지 | 저고리길이 33 폭 28 화장 33, 바지길이 43 허리 55 | 국립민속박물관

상복 (450p.)



① 상복 차림의 사대부들 | 기영회도 중 부분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② 남구만 초상 | 18세기 초반 | 국립중앙박물관

승복 (486p.)



권오창

시복 (490p.)



권응수 초상 | 1604 | 권경민

신식군복 (493p.)



①



②

① 1900년 이후 더블브레스티드 형태의 육군 예장 | 육군박물관, ② 1897년 제식의 늑골복 형태의 육군 예장

양복 (510p.)



①



②

①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최신 유행되는 남자의 가을 양복 | 1933. 9. 13 | 조선중앙일보

양장 (514p.)



①



②

① 첫 양장 여성 윤고라, ② 양장점 | 서울 서대문구 | 1960년대 | 서울역사박물관

원불교복 (547p.)



남자 법의 | 섬길이 83 품 23 소매길이 33 | 원불교 역사박물관

웨딩드레스 (552p.)



① 영친왕비 결혼 기념사진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1971 | 안우정

용복 (558p.)



①



②

① 권오창, ② 용복납은모양 | 기산풍속도 |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제복 (611p.)



종묘대제 재현 | 서울 종로구 | 2009 | 서현강

조복 (619p.)



이하응 초상 금관조복본 | 18~19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천주교복 (65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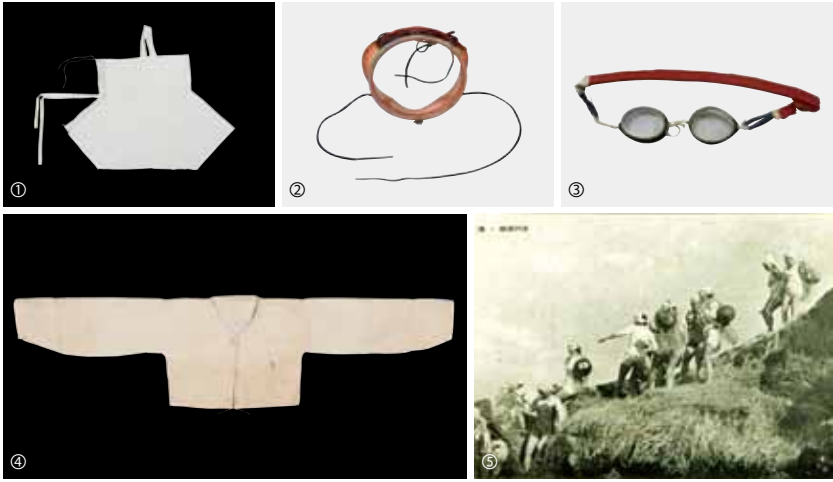
한국식 제의와 영대 | 오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탈춤복식 (680p.)



① 노장(봉산탈춤) | 국립민속박물관, ② 말뚝이(고성오광대) | 국립민속박물관, ③ 백정과 양반(하회별신굿탈놀이) | 국립민속박물관, ④ 영감과 덜머리집(봉산탈춤) | 국립민속박물관, ⑤ 초랭이와 이매(하회별신굿탈놀이)

해녀복 (724p.)



① 물소중이 | 길이 49 허리 72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② 왕눈 | 광복 이후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③ 족쇄는 | 길이 12.5 너비 4.5 | 광복 이후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④ 물적삼 | 길이 35 폭 44 화장 69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⑤ 제주 해녀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혼례복 (739p.)



① 일제강점기, ② 1933 | 국립민속박물관, ③ 1961 | 최은수



꼭두서니 (121p.)



국립민속박물관

날염 (127p.)



날염보 | 봉황문인문보 | 국립고궁박물관

납힐 (132p.)



납힐 남염 | 자연염색박물관

도토리 (184p.)



국립민속박물관

소방목 (473p.)



국립민속박물관

오미자 (533p.)



국립민속박물관

오배자 (534p.)



국립민속박물관

울금 (546p.)



국립민속박물관

자초 (572p.)



국립민속박물관

쪽 (645p.)

쪽 염색 | 전남 나주 | 최은수
① 니람, ② 니람과 잣물 혼합, ③ 염색한 직물을 건조

협힐 (732p.)



협힐 홍화염 | 자연염색박물관

홍화 (743p.)



홍화 염색 | 충북 단양 | 2009 | 김경열
① 잿물에서 색소 추출, ② 오미자신국을 넣어 중화 발색, ③ 발색된 염액에 염색작업, ④ 완성된 연지

황련 (754p.)



국립민속박물관

황벽 (754p.)



국립민속박물관

회염 (755p.)



회염보자기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과실무늬 (83p.)



① 석류와 석류꽃무늬 | 안동 권씨 묘 출토 치마 중 부분 | 18세기 전반 | 경기도박물관, ② 포도다람쥐 무늬 | 안동 권씨 묘 출토 당의 중 부분 | 18세기 전반 | 경기도박물관

곤충무늬 (76p.)



① 잠자리무늬 | 파평 윤씨 묘 출토 저고리 중 부분 | 16세기 | 고려대학교박물관, ② 나비무늬 | 청송 심씨 묘 출토 습신 중 부분 | 18세기 | 충북대학교 박물관, ③ 벌무늬 | 여흥 민씨 묘 출토 천금 중 부분 | 17세기 | 경기도박물관

기하무늬 (116p.)



① 귀갑무늬 도식 | 아미타불복장 직물 중 부분 | 14세기 | 국립문화재연구소, ② 금무늬 도식 | 안동 권씨 묘 출토 저고리 중 부분 | 18세기 | 국립문화재연구소

길짐승무늬 (118p.)



① 기린홍배 | 가로 25.5 세로 23.1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② 쌍호홍배 | 가로 21 세로 22.5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③ 거북홍배 | 가로 21 세로 24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날짐승무늬 (128p.)



① 윤안홍배 | 유순익 초상 중 부분 | 17세기 | 경기도박물관, ② 윤학홍배 | 이세백 초상 중 부분 | 18세기 | 경기도박물관, ③ 평무늬 | 영친왕비 적의 중 부분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동자무늬 (194p.)



① 활옷 중 부분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청주 한씨 묘 출토 치마 중 부분 | 16세기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모란무늬 (234p.)



모란낭쿨무늬 | 장기 정씨 묘 출토 저고리 중 부분 | 17세기경 | 안동대학교박물관

문자무늬 (267p.)



① 영친왕 사규삼 | 근대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② 면사 중 문자무늬 | 고려대학교박물관

보배무늬 (300p.)



불가의 팔길상무늬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봉황무늬 (309p.)



① 동래 정씨 묘 출토 치마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② 사천 목씨 묘 출토 저고리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사계절꽃무늬 (433p.)



사계절꽃넙쿨무늬 | 여흥 민씨 묘 출토 장옷 중 부분 | 17세기 | 경기도박물관

사군자무늬 (434p.)



사군자와 모란무늬 | 안동 김씨 묘 출토 직물 중 부분 | 윤양민속박물관

연꽃무늬 (52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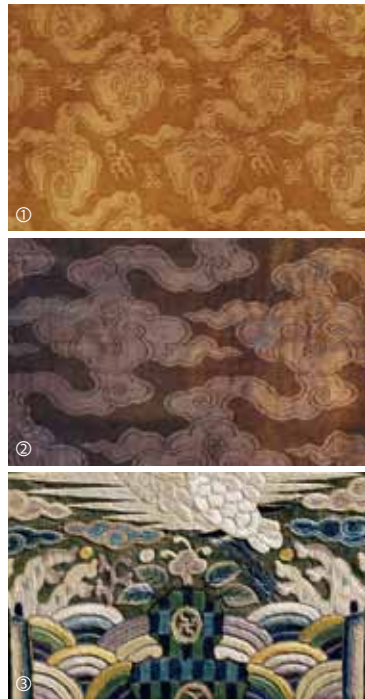
① 연안 김씨 묘 출토 치마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② 의원군 묘 출토 단령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용무늬 (541p.)



① 태조 어진 중 부분 | 1872 | 어진박물관, ② 순정 효황후 원삼 중 부분 | 근대 | 세종대학교박물관

자연산수무늬 (570p.)



① 구름보배무늬 | 평양 이씨 묘 출토 저고리 중 부분 | 16세기 | 경기도박물관, ② 구름무늬 | 여흥 민씨 묘 출토 관뎃개 중 부분 | 17세기 | 경기도박물관, ③ 산수무늬 | 흥배 중 부분 | 19세기 | 경기도박물관



갈옷 (32p.)



남성 갈적삼·갈중이 | 2013 | 고부자

갈무리 (30p.)



다듬이질과 다리미질 | 국립민속박물관

다듬이질 (145p.)



다듬이질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다리미질 (147p.)



달님질하고 | 기산풍속도 |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모던걸 (230p.)



① 소리피는공작 | 1928. 2. 9 | 조선일보, ② 여성 선전시대가 오면 | 1928. 2. 7 | 조선일보

미용실 (270p.)



머리인두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모던보이 (233p.)



모던보이의 산보 | 1928. 2. 7 | 조선일보

바느질 (272p.)



①



②



③



④



⑤



⑥

① 반진고리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② 바느질 가위 | 길이 27 | 1950 | 국립민속박물관, ③ 바느질 자 | 길이 55.2 너비 2.2 두께 0.5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④ 실패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⑤ 굴무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⑥ 침저하고 | 기산풍속도 |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백의 (293p.)



사월 초파일 | 193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상장 (452p.)



경북 안동 학봉종택 | 2008 | 국립민속박물관

색복장려운동 (459p.)



색복장려 깃발 | 일제강점기 | 국립여성사전시관

생활한복 (462p.)



① 까치 차림옷 | 20세기 | 우리들의 벗, ② 누비 두루마기·주름 치마 | 20세기 | 돌실나이

세탁 (470p.)



① 청계천 빨래터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김홍도 | 빨래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양복점 (513p.)



종로 양복점 도구 모음 | 국립민속박물관

양태 (517p.)



지름 34.5 안지름 14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이발소 (563p.)



① 이발용 소도구 | 국립민속박물관, ② 교통이발관 | 인천 강화 | 2012 | 국립민속박물관

재봉 (585p.)



①



②

① 바느질 하는 여인들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재봉틀 전단지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포목점 (703p.)



독일양행포목부 광고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한복 (717p.)



2016 | 이지영

출토복식 (665p.)



①



②



③



④



⑤



⑥

출토복식 보존처리 과정 | 국립민속박물관

① 출토, ② 응급 세척, ③ 세척망 고정, ④ 분무로 행구기, ⑤ 손다림질, ⑥ 보존처리 완료(대창의)

모자

상의

하의

겉옷

대

속옷

신발

장신구

머리모양

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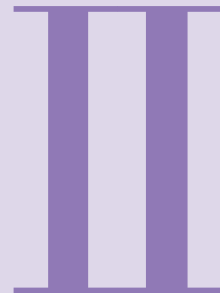
화장

갈무리

바느질

옷

속담·관용구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	가난한 상주 방앗 대가리 같다	1. 사람의 몰골이 허술하여 불품없어 보임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2. 무슨 물건이 탐탁하지 못하고 어색해 보이며 값없어 보임을 이르는 말. 3. 머리가 모시처럼 희게 되었다는 뜻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말을 이르는 말.
2	가진 돈이 없으면 망건 풀이 나쁘다	몸에 지닌 돈이 없으면 비록 망건을 썼어도 그 풀이 하찮게 보인다는 뜻으로, 돈이 없으면 그만큼 겉모양도 허술해 보이고 마음도 떳떳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갈모 형제라	갈모의 모양이 위는 뽕죽하고 아래는 넓은 데서, 아우가 형보다 나은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감나무 밑에 누워도 삿갓 미사리를 대어라	감나무 밑에 누워서 절로 떨어지는 감을 얻어먹으려 하여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삿갓 미사리를 입에 대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의당 자기에게 올 기회나 이익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이르는 말.
5	감투를 쓰다	벼슬자리나 높은 지위에 오름을 속되게 이르는 말.
6	감투가 커도 귀가 짐작이라	귀를 가능하여 감투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 어떤 사물의 내용을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짐작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감투를 벗다	벼슬자리를 그만둠을 속되게 이르는 말.
8	감투를 씌우다	벼슬자리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만듦을 속되게 이르는 말.
9	갓 사러 갔다가 망건 산다	1. 사려고 하던 물건이 없어 그와 비슷하거나 전혀 쓰임이 다른 것을 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제 목적을 바꾸어 남의 권고에 따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갓 쓰고 구두 신기	전혀 격에 어울리지 아니하게 차려입은 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11	갓 쓰고 넥타이 매기	전혀 격에 어울리지 아니하게 차려입은 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12	갓 쓰고 망신한다	한껏 점잔을 빼고 있는데 뜻하지 아니한 망신을 당하여 더 무참하게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갓 쓰고 박치기해도 제멋이다	갓 쓰고 박치기를 하여 갓이 망가지게 되는 것도 제멋으로 하는 짓이란 뜻으로, 남이 어떤 짓을 하거나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말.
14	갓 쓰고 자전거 타기 ^[탄다]	전혀 격에 어울리지 아니하게 차려입은 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15	갓장이 흰 갓 쓰고 무당 남 빌려 굿하고	제가 제 것을 만들어 가지지 못하고 제가 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	개 대가리에 관	웃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개구멍에 망건 치기	남에게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막고 있다가 막던 그 물건까지 잃는다는 뜻으로, 되지도 아니할 일을 공연히 욕심만 내어 어리석게 시작하였다가 도리어 손해나 망신을 당함을 이르는 말.
18	개구멍으로 통량갓을 굴려 널 놔	남을 속이는 데 놀랄 만큼 교묘한 사람을 비꼬는 말.
19	개에게 남바위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말을 이르는 말.
20	고깔 뒤의 군 형질	필요도 없는 것이 늘 붙어 다녀 귀찮게 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	굴이 상투 끝까지 나다	매우 화가 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2	관 쓴 도둑놈이다	공금이나 국민들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관리라는 말을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23	권에 띄어[못 이겨] 방립 산다[흔대]	남이 원하는 말이면 무엇이든 잘 듣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
24	급하다고 갓 쓰고 똥 싸라	아무리 급해도 예의는 지켜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5	급하면 나라님 감투끈 살 돈도 잘라쓴다	사정이 급하게 되면 임금의 감투끈을 살 돈까지도 잘라내다가 쓰게 된다는 뜻으로, '어쩔 수 없는 급한 처지에 이르게 되면 이리저리한 형편이나 사정을 가리게 되지 않음'을 비겨 이르는 말.
26	나라님 망건값도 쓴다	사람이 급할 때 어떤 돈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써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7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무릎에 망건 뒀다	자기 주권이 없이 남이 한다고 덩달아 따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8	너울 쓴 거지	배가 몹시 고파서 체면을 차릴 수 없게 된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9	노닥노닥 기워도 마누라 장옷	지금은 낡았지만 처음에는 좋았다는 뜻으로, 본디 소중한 물건이었고 아직도 그전의 모습이나 가치가 남아 있음을 이르는 말.
30	누워먹는 팔자라도 샷갓 밑을 도려야 한다	의당 자기에게 올 기회나 이익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이르는 말.
31	달밤에 샷갓 쓰고 나온다	가득이나 미운 사람이 더 미운 짓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2	뚫어진 병거지에 우박 맞듯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구 쏟아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3	망건 끝에 앉았다	어떤 일에 얽매어 꼼짝도 못 하게 됨을 이르는 말.
34	망건 쓰고 귀 안 빼는 사람 있느냐	망건을 쓰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귀를 내놓는다는 뜻으로, 돈 버는 일이나 먹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5	망건 쓰고 세수한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그다음에 망건을 쓰는 법인데 망건을 먼저 쓰고 세수를 한다는 뜻으로, 일의 순서를 바꾸어 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36	망건 쓰자 파장	준비를 하다가 그만 때를 놓쳐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7	망건 편자를 좁는다	아무 잘못도 없이 매를 맞고 의관을 찢기고도 호소할 데가 없어 남아 있는 망건 편자만 좁는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8	망건골에 앉았다	어떤 일에 얽매어 꼼짝도 못 하게 됨을 이르는 말.
39	못 먹는 잔치에 갓만 부순다	소득 없는 일에 손해만 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0	못난 색시 달밤에 샷갓 쓰고 나선다	가득이나 미운 사람이 더 미운 짓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1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망건값 달라 한다	남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집을 잡음을 이르는 말.
42	미운 중놈이 고깔 모로 쓰고 이래도 밍소 한다	미워하는 중이 고깔을 바로 써도 미운데 오히려 모로 빼딱하게 쓰고 이렇게 엇을 부렸는데도 미운가 하고 묻는다는 뜻으로, 미운 것이 더욱더 미운 짓만 골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3	밤에 패랭이 쓴 놈 보일라	저녁밥을 너무 일찍 먹으면 밤중에 배가 너무 고파서 패랭이 쓴 환상이 보이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4	병거지 시울 만지는 소리	애매하고 모호해서 알 수 없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5	병거지 시울을 만진다	말이 막히어 어색하고 무안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46	병거지 조각에 콩가루 묻혀 먹을 놈	털로 만든 병거지 조각에 아무리 콩가루를 묻혀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을 먹는다는 뜻으로, 못할 짓을 하여 재물을 남몰래 빼앗아 가는 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7	부서진 갓모자가 되었다	사람이 남에게 꾸지람을 듣고 무안을 당하였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8	부아가 상투 끝까지 치밀어 오르다	부아가 몹시 치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9	사내가 우비하고 거짓말은 가지고 다녀야 한다	남자가 비 올 때 쓸 우비와 급할 때 돌려달 거짓말을 갖추고 다녀야 한다는 뜻으로, 남자가 처세하려면 거짓말도 필요함을 이르는 말.
50	사내자식 길 나설 때 갈모 하나 거짓말 하나는 가지고 나셔야 한다	남자가 처세하려면 거짓말도 필요함을 이르는 말.
51	사모 바람에 거드럭거린다	나쁜 짓을 하고도 벼슬아치라는 배짱으로 도리어 남을 야단치고 뽐내며 횡포를 부린다는 말.
52	사모 쓴 도둑놈	갓가지 세금과 뇌물 따위로 남의 재물을 탐하는 벼슬아치나 양반을 욕하는 말.
53	사모에 갓끈 ^[영자]	끈이 필요 없는 사모에 갓끈이나 영자를 달았다는 뜻으로, 차림새가 제격에 어울리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4	사주에 없는 관을 쓰면 이마가 벗어진다	1. 타고난 운명에 없는 벼슬을 하면 이마가 벗어진다는 뜻으로, 제 분수에 넘치는 벼슬을 하게 되면 도리어 괴롭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제 분수에 넘치는 일을 억지로 이루어 놓으면 나중에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5	삿갓을 씌우다	손해를 입히거나 책임을 지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6	삿갓에 새자질	차림새가 제격에 어울리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7	상감님 망건 사리 가는 돈도 써야만 하겠다	감히 손댈 수 없는 임금의 망건 살 돈조차도 우선 쓰고 봐야 하겠다는 뜻으로, 나중에 어떤 벌을 받을지라도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하여야 하겠다고 단정하여 이르는 말.
58	상투 위에 올라앉다	상대를 만만하게 보고 기어오르는 행동을 이르는 말.
59	상투를 잡다	(속되게) 가장 높은 시세에 주식을 매입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0	상투를 틀다	총각이 장가들어 어른이 됨을 이르는 말.
61	상투밑을 치다	상투밑의 머리털을 돌려, 면도하듯 뽀뽀 밀어 깎는 것을 이르는 말.
62	아저씨 아니어도 망건이 동난다	1. 아저씨가 사지 않더라도 망건 사 갈 사람은 많다는 뜻으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도 도와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탐난다는 말.
63	얇은뺨이의 망건 뜨기	궁상스럽고 웅색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4	어떻게 된 감투끈인지 모른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
65	연주창 앓는 놈의 갓끈을 활겠다	하는 짓이 몹시 인색하고 더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6	열없는 색시 달밤에 삿갓 쓴다	정신이 흐려져 망령된 짓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7	열이 상투 끝까지 오르다	매우 화가 났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8	영감의 상투	보잘것없이 작은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69	영감의 상투 굽어서는 무엇을 하나 당줄만 동이면 그만이지	실속 있게 적당하면 되지 그 이상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다는 말.
70	영감의 상투가 커야 맞이나	실속 있게 적당하면 되지 그 이상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다는 말.
71	오뉴월 자주 감투도 팔아먹는다	1. 먹을 것이 궁한 때인 오뉴월에는 팔 수 없는 자주 감투까지 판다는 뜻으로, 물품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집안 살림이 궁하여 도무지 무엇 하나 팔아먹을 만한 것이 없다는 말.
72	오소리 감투가 둘이다	어떤 일에 주관하는 자가 둘이 있어 서로 다툼이 생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3	오입쟁이 헌 갓 쓰고 똥 누기는 예사다	방탕한 오입쟁이라 헌 갓을 쓰고 똥을 누는 따위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되지 못한 자가 못된 짓을 하여도 놀랄 것은 아니라는 말.
74	우장을 입고 제사를 지내도 제 정성	몸에 걸칠 것이 없어서 벗짚으로 엮은 우장을 입고 제사를 지내도 정성만 지극하면 된다는 뜻으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마음임을 이르는 말.
75	이미 씌워 놓은 망건이라	남이 한 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6	자비가 짚 병거지	겉으로 자비로운 체하나 사실은 그렇지 못함을 이르는 말.
77	장옷 쓰고 엇 먹기	겉으로는 점잖고 양전한 체하면서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에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8	저 중 잘 달아난다 하니까 고깔 벗어 들고 달아난다	거짓으로 칭찬한 말을 곧이듣고 신이 나서 쓸데없는 용기를 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9	저 모립 쓰고 물구나무를 서도 제멋이다	갓 쓰고 박치기를 하여 갓이 망가지게 되는 것도 제멋으로 하는 짓이란 뜻으로, 남이 어떤 짓을 해도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을 이르는 말.
80	주먹 맞은 감투라	1. 아주 꾸그려져서 다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된 모양을 이르는 말. 2. 잘난 체하다가 핀잔을 듣고 무안하여 아무 말 없이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1	중놈은 장長이라도 죽으니 무덤이 있나 사니 상투가 있나	중의 우두머리라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조차 가지지 못한다고 중을 업신여겨 이르는 말.
82	중의 망건	몹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3	중의 망건 사러 가는 돈이라도	일이 궁박하면 염치를 돌보지 않고 무슨 방법이라도 하여 힘쓰겠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4	중의 망건값 안 모인다	필요 없는 지출을 아니 하면 돈이 모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아니하다는 말을 이르는 말.
85	중의 상투	몹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6	철 목은 색시 가마[승교] 안에서 장옷 고름 단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정작 일이 닥쳐서야 당황하여 다급히 서두르는 경우를 비꼬아 이르는 말.
87	초립동이 장님을 보았다	길에서 장님을 만나면 재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린 장님을 만나면 더욱 그렇다는 데서, 매우 불길한 경우를 이르는 말.
88	촌 영감 망건만 쓰면 어데 가냐고 묻는다	여간해서 옷을 차려입지 않는 촌사람이 망건만 써도 어디 나들이 나가느냐고 묻듯이, 색다르게 옷을 차려 입었다고 하여 바깥나들이 가는 줄로 여기는 경우에 비겨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89	큰 병거지 귀 짐작	병거지가 아무리 커도 귀에는 걸려서 흘러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뜻으로, 짐작으로 한 어떤 일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거나 짐작으로 어떤 일을 대충 처리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0	탕건 쓰고 세수한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그다음에 망건을 쓰는 법인데 망건을 먼저 쓰고 세수를 한다는 뜻으로, 일의 순서를 바꾸어 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91	파총 벼슬에 감투 걱정한다	하찮은 파총 주재에 감투 걱정을 한다는 뜻으로, 별로 대단치 아니한 일을 말고도 시끄럽게 자랑하고 다니며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2	패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	아주 가난하여 떠돌아다니며 얻어먹을 정도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3	하라는 파총에 감투 걱정한다	대단하지 아니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 공연히 지나친 걱정을 자랑삼아 한다는 말.
94	한더위에 털감투	1. 제철이 지나 쓸데없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격에 맞지 아니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5	한집에 감투쟁이 셋이 변변	무슨 일에 나서서 주장하는 사람이 많으면 도리어 일이 잘 안된다는 말.
96	할아버지 감투를 손자가 쓴 것 같다	의복 따위가 너무 커서 보기에 우스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7	현 갓 쓰고 똥 누기	체면을 세우기는 이미 끝났으니 좀 염치없는 짓을 한다고 하여도 상관없다는 말.
98	후처에 감투 벗어지는 줄 모른다	후처에게 반하여서 체면도 돌보지 아니함을 비꼬는 말.

상의

1	개 발에 토시작	웃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기생의 자릿저고리	1. 기생의 자릿저고리는 기름때가 묻고 분 냄새가 나는 더러워진 것이라는 뜻으로, 외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말씨가 간사스러운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 2. 요란히 분 냄새가 풍기는 비단 저고리이기는 하나 낡고 꼬깃꼬깃해져 불품이 없는 기생의 자릿저고리처럼, 이름은 요란하나 실상은 현 너마와 같이 전혀 쓸모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단삼 적삼 벗고 은가락지 낀다	격에 맞지 않은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떡 삶은 물에 중의中衣 데치기	1.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겸하여 해치움을 이르는 말. 2. 버린 물건을 이용하여 소득을 봄을 이르는 말.
5	여름 난 중의中衣로군	여름내 입어 명색만 남은 중의처럼, 형편없이 됐으면서 장담만 남아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적삼 벗고 은가락지 낀다	격에 맞지 아니한 짓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중의中衣 벗고 환도 차는 격	군사가 복장을 다 갖추어 입은 다음에 겹에 환도를 차게 되어 있는데 벌거벗은 알몸에 환도를 차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 매우 어색하게 보임을 이르는 말.
8	중의中衣 벗은 아이 마구 풀 끌어 넣듯	음식을 마구 먹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털토시를 끼고 게 구멍을 쑤셔도 제 재미라	좋은 털토시를 끼고 게 구멍을 쑤시는 곳은일을 하더라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면 그만이라는 뜻으로, 제 뜻대로 하는 일은 남이 참견할 것이 아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홀중의에 겹 말	홀겹으로 만든 중의에 겹으로 된 말기를 단다는 뜻으로, 격에 맞지 아니하고 너무 지나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값이 같거나 같은 노력을 한다면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한다는 말.
2	고의 가랑이를 뜯어 적삼을 꿰맨다	일이 급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추어 일하거나 행함을 이르는 말.
3	개 발싸개 같다	보잘것없이 허름하고 빈약한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
4	곱다고 안아준 애기 바지에 똥싼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도리어 해를 입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남의 다리에 행전 친다	1. 기껏 한 일이 결국 남 좋은 일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른 채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남의 바지 입고 새 벤다	남의 덕택으로 거저 이익을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남의 바지 입고 춤 추기	남의 덕택으로 거저 이익을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	남의 발에 감발한다	1. 기껏 한 일이 결국 남 좋은 일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른 채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동지선달에 배 잠방이를 입을망정 다듬이 소리는 듣기 싫다	1. 다듬이질 소리는 매우 듣기 싫은 소리임을 이르는 말. 2. 들볶이면서 대접을 받느니 고생스러워도 마음 편안히 지내는 것이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똥싼 누덕 바지 추키듯	남을 자꾸 추어주는 모양을 이르는 말.
11	물 묻은 치마에 땀 묻는 걸 꺼리랴	물이 묻어 젖은 치마에 땀방울이 묻는 것을 새삼스레 꺼리겠느냐는 뜻으로, 이왕 크게 잘못된 처지에서 소소하게 잘못된 것을 꺼릴 필요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물 보기 전에 바지부터 벗는다	물도 보기 전에 물에 들어갈 채비로 바지를 벗는다는 뜻으로, 조급한 나머지 순서를 가리지 못하고 덤비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미친년의 치맛자락 같다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벌리고 다니는 미친 여자의 치맛자락과 같다는 뜻으로, 자기의 몸을 깨끗이 거두지 못하고 늘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 사람의 옷차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4	바지 벗고 장도칼 차다	격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함을 비웃어 이르는 말.
15	바지가랭이에서 비파 소리가 난다	1. 어찌나 빠르게 걷는지 무릎을 꿇을 사이도 없이 마치 바짓가랑이에 자개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걷는다는 뜻으로, 매우 빨리 걷는 모양을 이르는 말. 2. 매우 바빠 진행되거나 움직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	바지가랭이에서 자개바람이 인다	1. 어찌나 빠르게 걷는지 무릎을 꿇을 사이도 없이 마치 바짓가랑이에 자개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걷는다는 뜻으로, 매우 빨리 걷는 모양을 이르는 말. 2. 매우 바빠 진행되거나 움직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바지까지 벗어 주다	도저히 내어 줄 수 없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넘겨줌을 이르는 말.
18	변연히 알면서 새 바지에 똥 찌다	사리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	새 바지에 똥 찌다	1. 염치없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잘된 것을 만져서 도리어 못 되게 그르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	색시 그루는 다홍치마 적에 얹혀야 한다	1. 아내나 새 며느리를 길들이고 법도를 세우려면 다홍치마를 입는 새색시 때부터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 2. 못된 버릇을 고치고 좋은 버릇을 들이려면 못된 버릇을 처음부터 다잡아서 길들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	생쥐 발싸개만 하다	물건이 아주 작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22	술독에 치마 두르듯	불품없이 자주 덧감고 동인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3	아내 행실은 다홍치마 적부터 그루를 얹힌다	1. 아내나 새 며느리를 길들이고 법도를 세우려면 다홍치마를 입는 새색시 때부터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 2. 못된 버릇을 고치고 좋은 버릇을 들이려면 못된 버릇을 처음부터 다잡아서 길들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4	얻는 것이 잠방이라	남에게 얻은 것이 그리 신통할 것이 없다는 말.
25	여름 솜바지저고리 생각하듯 한다	도와 줘야 할 사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
26	열두 폭 말기를 달아 입었나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참견함을 비꼬는 말.
27	열두 폭 치마를 돌렸나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참견함을 비꼬는 말.
28	잠방이에 대님 치듯	어떤 일을 할 실력도 자신도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덤비는 경우를 비꼬는 말.
29	제 옷 벗어 남의 발에 감발 쳐 준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남을 위한다고 내주거나, 남이 별로 필요로 하지도 않는 일에 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0	좁은 입으로 말하고 넓은 치맛자락으로 못 막는다	말은 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서 하라는 말.
31	짚신감발에 사립[사립짝] 쓰고 간다	어울리지 아니하고 어색하여 보기가 흉한 경우를 이르는 말.
32	치마 밑에 키운 자식	과부의 자식이라는 말.
33	치마가 열두 폭인가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참견함을 비꼬는 말.
34	치마에서 비파 소리가 난다	아주 바쁘게 싸대어 조금도 앉아 있을 겨를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5	치마짜리가 똑똑하면 승전[承傳]막이 같까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할 일 못할 일이 따로 있다는 말.
36	치마폭이 넓다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참견함을 비꼬는 말.
37	치마폭이 스물네 폭이다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참견함을 비꼬는 말.
38	평양 병정의 발싸개 같다	물건이 더럽거나 행동이 천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9	햇바지에 똥 찐 비위	비위가 매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0	헌 바지에 개 대가리 나오듯 한다	무슨 물건이나 사람의 얼굴이 뼈죽이 내민 모양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41	황희 정승네 치마 하나 가지고 세 어이딸이 입듯	청빈한 황희 정승의 아내와 두 딸이 치마가 없어 치마 하나를 번갈아 입고 손님 앞에 인사하였다는 데서, 옷 하나를 여럿이 서로 번갈아 입음을 이르는 말.
1	가진 놈의 겹철릭	한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겹쳐서 가지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거지 베 두루마기 해 입힌 셈 친다	1. 거지에게 자선을 베풀어 새 옷을 한 벌 입혀 준 셈 친다는 뜻으로,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줌을 이르는 말. 2.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거나,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았을 때 자기 위한 삼아 이르는 말.
3	남의 두루마기에 밤 주워 담는다	아무리 하여도 남 좋은 일만 한 결과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겉옷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4	도포 입고 눈 찢기	격에 맞지 않아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도포를 입고 눈을 갈아도 제 멋이다	도포를 입고 진흙투성이인 눈에 들어가 일을 해도 제가 좋아서 하면 그만 아니냐는 뜻으로, 사람은 저마다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는 말.
6	저 중 잘 땀다니까 장삼 벗어 걸머지고 땀다	거짓으로 칭찬한 말을 곧이듣고 신이 나서 쓸데없는 용기를 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춘포 창옷 단벌 호사	춘포로 지은 옷 한 벌밖에 없어 입고 나가면 늘 호사한 것같이 보이나, 실상은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	허리띠가 길양식	길 가는 사람이 배가 고파 허리띠를 졸라매고 간다는 데서, 허리띠가 길 가는 데 양식을 대신한다는 말.
2	허리띠 속에 상고장 ^{上告狀} 들었다	보기에는 허름한 벼주머니에 기밀한 서류가 들었다는 뜻으로, 사람이나 물건이 외모를 보아서는 허름하고 못난 듯하나 실상은 비범한 가치와 훌륭한 재질을 지녔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	고쟁이를 열두 벌 입어도 보일 것은 다 보인다	1. 아무리 여러 번 감싸도 정작 가릴 것은 못 가렸다는 뜻으로, 요점을 얻지 못했다는 말. 2. 일을 서투르게 하면 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는 말.
2	그 속옷이 그 속옷이다	1.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는 뜻으로,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한패가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명칭은 다르나 따져 보면 한가지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나 하는 입은 입쌀 ^{흰쌀} 한 말 들어 속곳 ^{속옷} 하나에 풀하여도 풀이 안 선다	하는 일이 매사에 보람 없이 헛수고로 돌아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더부살이가 주인 마누라 속곳 베 걱정한다	머슴이 주재님께 주인집 일을 걱정한다는 뜻으로,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를 비꼬는 말.
5	딸이 여럿이면 어미 속곳 벗는다	딸을 시집보내는 부담이 매우 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똥 묻은 속옷을 팔아서라도	일이 궁박하면 염치를 돌보지 않고 무슨 방법이라도 하여 힘쓰겠다는 말.
7	머슴보고 속곳 묻는다	1.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요긴한 일을 엉뚱하게 물어보나, 그가 알 리가 없다는 말. 2. 남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생소한 사람에게 자기만의 일을 말함을 이르는 말.
8	미친년의 속곳 가랑이 빠지듯	미친 여자가 옷을 입을 때 매고 여미고 하는 것을 단정하게 못하여 속곳이 겹으로 비어져 나온다는 뜻으로, 옷매무시가 단정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삼 년 묵은 새댁이 고콜불에 속곳 밀 말려 입고 간다	어떤 일을 기다리기만 하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선달에 들어온 머슴이 주인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머슴이 주재님께 주인집 일을 걱정한다는 뜻으로,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를 비꼬는 말.
11	세방살이군이 주인 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면서 제 옷도 변변히 못 입는 형편에 주인집 마누라의 속곳 마련할 걱정을 한다는 뜻으로, 주재님께 남의 일에 대하여 걱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대

속옷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2	속곳 벗고 은가락지 낀다	격에 맞지 않는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속곳 벗고 함지박에 들었다	속곳 벗고 알몸이 된 채 몸뚱이 하나 가릴 수 없는 함지박 속에 뛰어들었다는 뜻으로, 움짇달싹 못하고 낭패를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4	속곳 열둘 입어도 밀구멍은 밀구멍대로 다 나왔다	숨기려고 애를 써 보아도 숨길 수가 없어서 아무 소용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5	속옷까지 벗어 주다	1. 지나치게 선심을 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안 될 구차한 형편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	속저고리 벗고 은반지	격에 맞지 않는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시어미 속옷이나 며느리 속옷이나	모두 한 집안 식구의 것이라는 뜻으로, 구태여 내 것 네 것 가릴 필요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8	아이 낳는데 속옷 벗어 달란다	바쁘고 힘든 사람에게 부당한 청구를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	첫날밤에 속곳 벗어 메고 신방에 들어간다	매사에 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엄치없는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	촌년이 늦바람 나면 속곳 밑에 단추 단다	어수룩한 사람이 어떤 일에 한번 혹하게 되면 도리어 정도를 지나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	칠월 더부살이가 주인 마님 속곳 걱정한다	머슴이 주재님께 주인집 일을 걱정한다는 뜻으로,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를 비꼬는 말.
22	하룻저녁에 단속곳 셋 하는 여편네 속곳 벗고 산다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지내는 수가 많다는 말.

신발

1	가을에는 대부인 마누라도 나무 신 째 가지고 나온다	1. 가을건이 때는 일이 많아서 누구나 바빠 나서서 거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가을에는 부지깥이도 덩병인다는 것을 이르는 말.
2	갓 마흔에 첫 버선[보살]	오래 기다리던 일을 마침내 이루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개 발에 버선	웃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	속되게 여자가 사귀던 남자와 일방적으로 헤어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과부의 버선목에는 은이 가득하고 홀아비의 버선목에는 이가 가득하다	과부는 살림살이가 알뜰하여 규모 있게 생활하므로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지만, 홀아비는 생활이 곤궁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구두 신고 발등 긁기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면 긁으나 마나라는 뜻으로, 요긴한 곳에 직접 미치지 못하여 안타까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꿀을 베어 신을 삼겠다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갚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	나막신 신고 대동선 좇아간다	사람이 요량 없이 터무니없는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나막신 신고 뚫단배 빠르다고 원망하듯	자기가 뒤떨어진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남이 빨리 나아가는 것만 원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숙답·관용구	내용
10	나을 적에 봤다면 짚신짜으로 틀어막을걸	저렇게 못한 사람이라면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게 짚신짜으로 틀어막을걸 잘못했다는 뜻으로, 지지리 못한 사람을 핀잔하는 말.
11	남산골샌님은 뒤지하고 담뱃대만 들면 나막신을 신고도 동대문까지 간다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외출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남의 발에 버선 신긴다	1. 기껏 한 일이 결국 남 좋은 일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른 채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남이야 삼승버선을 신고 못자리를 밟든 말든	남이야 무슨 짓을 하건 상관할 필요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4	넷물은 보이지도 않는데 신발부터 벗는다	하는 짓이 턱없이 성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5	노파리가 나다	노파리가 신인 것과 ‘신이 나다’의 신이 서로 소리가 같다는 데에서, 신이 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	막 삼아도 짚신	아무렇게 해도 자기의 본바탕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됨을 비겨 이르는 말.
17	말 삼은 소 신 ^(짚신) 이라	말이 삼은 소의 짚신이라는 뜻으로, 일이 뒤죽박죽되어 못쓰게 되었다는 말.
18	말 태우고 버선 걷는다	미리 준비를 해 놓지 않아서 임박해서야 허둥지둥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	머리털을 베어 신발을 삼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가 입은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	목화 신고 발등 긁기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면 긁으나 마나라는 뜻으로, 요긴한 곳에 직접 미치지 못하여 안타까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	발이 편하려면 버선을 크게 짓고, 집안이 편하려면 계집을 하나 뒤라	침을 두면 집안이 편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2	버선 신고 발바닥 긁기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면 긁으나 마나라는 뜻으로, 요긴한 곳에 직접 미치지 못하여 안타까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3	버선목에 이 잡을 때 보아야 알지	지금은 모르더라도 장차 거지가 되어 버선목에서 이를 잡는 처지가 되어 보아야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 잘 산다고 너무 자랑하고 뽐내지 말라는 말.
24	버선목이라 오장을 뒤집어 보이지도 못하고	버선목처럼 뒤집어 보일 수도 없어 답답하다는 뜻으로, 아무리 해명을 해도 상대편이 수궁을 하지 않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5	버선목이라 뒤집어 보이나	버선목처럼 뒤집어 보일 수도 없어 답답하다는 뜻으로, 아무리 해명을 해도 상대편이 수궁을 하지 않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6	비 오는 날 나막신 찾듯	몹시 아쉬워서 찾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7	뺨 잘 때리기는 나막신 신은 걱정이라	뺨 잘 때리기로는 나막신 신은 걱정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되지 못하고 비열한 자가 도리어 잘난 체하며 남을 몹시 학대한다는 말.
28	살갑기는 평양 나막신	1. 신기에 편안한 평양 나막신처럼 불임성이 있고 사근사근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안쪽이 넓은 평양 나막신처럼 몸은 작는데 음식은 남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을 비웃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29	색시 짚신에 구슬 감기가 웬일인고	1. 색시가 신는 하찮은 짚신에 구슬을 감다니 이게 무슨 꼴이냐는 뜻으로, 격에 어울리지 아니하게 많은 치장을 하면 도리어 보기에 어색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너무 과분하게 호사하게 된 경우를 비꼬는 말.
30	석새짚신에 구슬 감기	거칠게 만든 하찮은 물건에 고급스러운 물건을 사용한다는 뜻으로, 격에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나 차림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1	세코짚신에는 제날이 좋다	짚신의 씨가 짚이면 날도 짚이 좋다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분수에 알맞은 것이 가장 좋다는 말.
32	신 벗고 따라도 못 따른다	어떤 사람의 재주나 능력이 뛰어나서 아무리 힘을 써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3	신 속에 똥을 담고 다니나 키도 잘 자란다	키가 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4	신 신고 발바닥 긁기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면 긁으나 마나라는 뜻으로, 요긴한 곳에 직접 미치지 못하여 안타까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5	신발에 귀가 달렸다	쓸데없는 것이 덧붙어서 격에 맞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6	신을 거꾸로 신고	반가운 사람을 맞으러 허둥지둥 정신없이 행동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
37	아무리 쫓겨도 신발 벗고 가라	아무리 급한 경우라도 체면을 차릴 것은 차려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8	얼음 위에 나막신 신고 다니기	얼음판 위로 미끄러지기 쉬운 나막신을 신고 다닌다는 뜻으로, '어느 순간에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를 만큼 아주 조심스럽게 위태로운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9	연못 곶 나막신을 신긴다	면전에 있는 사람을 치켜세움을 이르는 말.
40	오이 밭 지날 때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 지날 때 갓을 고쳐 쓰지 말라	남의 혐의를 받을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1	의주를 가려면서 신날도 안 껴왔다	큰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조금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2	잘 되면 버선이 세 켄레고 못 되면 참뽕줄이 세 개다	결혼 중매는 잘하게 되면 버선을 세 켄레 얻어 신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 참뽕줄에 묶여서 매를 맞게 됨을 이르는 말.
43	지네 발에 신 신긴다	발 많은 지네 발에 신을 신기려면 힘이 드는 것처럼, 자식을 많이 둔 사람이 애를 쓴다는 말.
44	진날 나막신	평소에는 돌아보지도 아니하다가 아쉬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찾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5	짚신도 제 날이 좋다	짚신의 씨가 짚이면 날도 짚이 좋다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분수에 알맞은 것이 가장 좋다는 말.
46	짚신도 제짝이 있다	보잘것없는 사람도 제짝이 있다는 말.
47	짚신에 국화 그리기	거칠게 만든 하찮은 물건에 고급스러운 물건을 사용한다는 뜻으로, 격에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나 차림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8	짚신을 거꾸로 꼰다	반가운 사람을 맞으려고 허둥지둥 정신없이 뛰어나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9	짚신을 뒤집어 신는다	짚신을 오래 신기 위하여 골고루 헤어뜨리려고 뒤집어서 신는다는 뜻으로, 몹시 인색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50	짚신장이 현 신 신는다	어떠한 물건이 흔하게 있을 듯한 곳에 의외로 많지 않거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1	첫 사위가 오면 장모가 신을 거꾸로 신고 나간다	1. 처가에서 첫 사위를 대단히 반갑게 맞이함을 이르는 말. 2. 장모는 첫 사위를 매우 귀하게 여긴다는 말.
52	촌년이 아전 서방을 하더니 초장에 길청 문밖에 와서 갓신 사 달라 한다	변변치 못한 사람이 조그만 권력이라도 잡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잘난 체하며 몹시 아니꼽게 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3	털을 뽑아 신을 삼겠다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꼭 갚겠다는 말.
54	피는 짚신 삼으면서 잡아야 다 잡는다	논의 피는 아무리 뽑아 버려도 한 없이 나는 것이므로 그것이 다 없이 하려면 그 피를 뽑아 짚신을 삼으면서 자꾸 뽑아 내야 한다는 말.
55	현 짚신도 제짝이 있다	보잘것없는 사람도 제짝이 있다는 말.
56	현신짝 버리듯	요긴하게 쓴 다음 아까울 것이 없이 내버리는 것을 이르는 말.

장신구

1	같은 값이면 은가락지 낀 손에 맞으랬다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을 경우라도 이왕이면 덕 있고 이름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좋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개발에 주석 편자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1.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어떤 사물은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금관자 서술에 큰 기침 한다	나쁜 짓을 하고도 벼슬아치라는 배짱으로 도리어 남을 야단치고 뽐내며 횡포를 부린다는 말.
5	남이 은장도 차니 나는 식칼을 낀다	자기 주권이 없이 남이 한다고 덩달아 따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닷새를 굶어도 풍잡 멋으로 굶는다	체면 때문에 곤란을 무릅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대모관자 같으면 되겠다	쓸모가 많아서 여러 방면에서 자주 찾아 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
8	대모관자 같으면 뛰겠다	대모관자라도 너무 자주 매었다 풀었다 하면 끊어지겠다는 뜻으로, 사람을 너무 자주 부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댕기 끝에 진주	매우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10	더벅머리 댕기 치레하듯	바탕이 좋지 않은 것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친 걸치레를 하여 오히려 더 흉하게 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	동곳을 빼다	힘이 모자라서 복종하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12	동정 못 다는 머느리 맹물 발라 머리 빗는다	일을 할 줄 모르는 주제에 멋만 부리는 입살스러운 행동을 비꼬는 말.
13	돼지에 진주목걸이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물도 아무 소용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4	되지 못한 풍잡이 갓 밖에 어른거린다	좋지 못한 물건이 흔히 잘 나타나 눈에 띄어 번쩍인다는 말.
15	망나니짓을 하여도 금관자 서술에 큰기침한다	나쁜 짓을 하고도 벼슬아치라는 배짱으로 도리어 남을 야단치고 뽐내며 횡포를 부린다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6	머리 없는 놈 땡기 치레한다	본바탕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걸만 꾸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뺨을 맞아도 은가락지 낀 손에 맞는 것이 좋다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을 바에는 권위 있고 덕망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8	성은 피가 皮骨라도 옥관자 맛에 다닌다	성은 비록 양반이 못 되는 피씨 성을 가졌을지라도 옥관자를 망건에 단 멋에 우쭐대며 다닌다는 뜻으로, 본바탕은 변변치 않은 사람이 겉모양을 뽐내며 거들먹거리는 경우를 비꼬는 말.
19	중다버지는 땡기치레나 하지 ^[한대]	자기의 모자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억지로 채우려 한다는 말.
20	중의 관자 구멍이다	중에게는 망건에 다는 관자 구멍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소용없게 된 물건이나 쓸데없는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1. 정당한 근거와 원인을 밝히지 아니하고 제게 이로운 대로 이유를 붙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보는 입장에 따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2	포도군사 은동곳 물어 뽑는다	1. 도둑이 포졸에게 잡혀가면서도 포졸의 상투에 꽂힌 은동곳을 뽑는다는 뜻으로, 도둑질하는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도둑질하는 솜씨가 매우 날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3	포션 뒤에서 엇 먹는 것 같다	겉으로는 점잖고 안전한 체하면서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에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4	행사 후에 비녀 빼어 갈 놈	불량하고 의리가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머리모양

1	귀밑머리를 풀다	처녀 때 땋았던 귀밑머리를 푼다는 뜻으로, 여자가 시집감을 이르는 말.
2	귀밑머리 풀어 엇다	여자가 귀밑머리를 풀고 쪽 찌고 시집감을 이르는 말.
3	귀밑머리 풀어 준 남편	처녀로서 정식 결혼을 하여 맞은 남편을 이르는 말.

직물

1	가난도 비단 가난	아무리 가난하여도 몸을 함부로 가지지 않고, 본래의 자체와 체통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
2	가는베 낳겠다	가늘고 고운 베를 잘도 짜겠다는 뜻으로, 솜씨가 없고 무덤을 비웃는 말.
3	각전 시정 통비단 감듯	장사치가 솜씨 있게 통비단을 감듯 한다는 뜻으로, 무엇을 줄줄 익숙하게 잘 감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갯에서 좀 난다.	1. 가족을 쏘아 먹는 좀이 가족에서 생긴다는 뜻으로, 화근이 그 자체에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가족에 좀이 나서 가족을 다 먹게 되면 결국 좀도 살 수 없게 된다는 뜻으로, 형제간이나 동료끼리의 싸움은 양편에 다 해로울 뿐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겨울에 배웁이다	추운 겨울에 삼베옷은 입어도 춥듯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말.
6	굵은베가 옷 없는 것보다 낫다	아주 없는 것보다는 하찮은 것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는 말.
7	굵으면 아낄 것 없어 통 비단도 한 끼다	1. 호화롭게 살다가도 구차하게 되면 아무리 귀중한 것도 밥 한 끼와 바꾸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한번 몰락하기 시작하면 건잡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8	노닥노닥해도 비단일세	지금은 낡았지만 처음에는 좋았다는 뜻으로, 본디 소중한 물건이었고 아직도 그전의 모습이나 가치가 남아 있음을 이르는 말.
9	닷 돈 보고 보리밭에 갔다가 명주 속옷 찢었다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 도리어 큰 손해를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돈으로 비단을 살 수 있어도 사람은 살 수 없다	남녀 간의 참다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르는 말.
11	명주 고름 같다	성질이 매우 곱고 보드랍다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12	명주 자루에 개똥	겉치장은 그럴듯하나 실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
13	명주웃은 사촌까지 댁다	가까운 사람이 부귀한 몸이 되면 그 도움에 일가에게까지 미침을 이르는 말.
14	모시 고르다 베 고른다	1. 처음에 뜻하던 바와는 전연 다른 결과에 이름을 이르는 말. 2. 좋은 것을 골라 가지려다가 도리어 좋지 못한 것을 차지하게 됨을 이르는 말.
15	비단 대단 곱다 해도 말 같이 고운 것 없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씨에 따라서 얼마든지 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	비단 방식에 앉다	매우 훌륭하고 보람 있는 지위나 자리를 차지한다는 말.
17	비단 보자기를 씌우다	속은 보잘것없는데 겉만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는 말.
18	비단 울이 품을 추니 베 울도 춤을 춘다	자기는 도저히 할 만한 처지가 아닌데도 남이 하는 짓을 덩달아 흉내 내다가 웃음거리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	비단 한 필을 하루에 짜려 말고 한 식구를 줄여라	수입을 늘리려고 무리하게 일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뜻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현명한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	비단결 같다	매우 곱고 부드러운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	비단보에 개똥[똥 찐다]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번드르르하나 내용은 흉하거나 추잡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2	비단에 수결[手決]이라	광채가 있고 모양도 좋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3	비단옷 속에 눈물이 핀다	겉으로 잘사는 것 같지만 이면에 눈물겨운 괴로움이 있음을 이르는 말.
24	비단옷 입고 밤길 가기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걸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생색이 나지 않는 공연한 일에 애쓰고도 보람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5	비단옷을 입었더니 사촌까지 뜨시다고 한다	비단옷은 촉감도 좋을 뿐 아니라 매우 따뜻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
26	비단이 한 끼라	1. 호화롭게 살다가도 구차하게 되면 아무리 귀중한 것도 밥 한 끼와 바꾸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한번 몰락하기 시작하면 건잡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7	비렁뱅이 비단 얻은 것[적]	1. 자기 몸 하나도 돌보기 어려운 거지가 건사하기 힘든 말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뜻으로, 괴로운 중에 더욱 괴로운 일이 생겼음을 이르는 말. 2.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을 얻어 가지고 자랑함을 비웃는 말.
28	석새베에 씨도 안 든다	일솜씨가 매우 거칠고 엉성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9	석새베에 열새 바느질	1. 굵은 베천에 섬세하게 바느질을 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허름한 것이라도 솜씨가 좋고 정성이 있으면 훌륭한 물건을 만들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솜씨는 좋은데 재료가 나빠 서로 어울리지 아니할 때에 솜씨가 아까움을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30	석새에서 한 새 빠진 소리 한다	석새에서 한 새가 빠졌으니 가운데가 비었다는 뜻으로, 실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를 비꼬는 말.
31	없는 놈이 비단이 한 때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호화롭게 온몸을 감쌀 수 있는 비단조차도 그것을 팔아 한 때 끼니를 잇는 데에 불과하다는 말.
32	없어서 비단 치마	넉넉해서 좋은 것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귀중한 물건이지만 할 수 없이 쓰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3	제 옷감을 제가 찢는다	자기 일을 스스로 그르치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화장

1	얼레빗 참빚 품에 품고 가도 제 복 입으면 잘산다	친정이 가난하여 입은 옷과 머리빗밖에는 가지고 간 것이 없지만 잘살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산다는 뜻으로, 예장禮葬을 많이 하여야 잘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
2	절간에서 빚 찾기	사람 또는 물건 따위가 있을 수 없는 데에 가서 엉뚱하게 그것을 찾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제 얼굴 더러운 줄 모르고 거울만 나무란다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만 탓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제 얼굴 못나서 거울만 깬다	자기 얼굴 못생긴 것은 생각지 못하고 못나 보이는 것이 거울 탓인 것처럼 여기면서 거울만 깨뜨린다는 뜻으로,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한 화풀이를 엉뚱한 데 하면서 아까운 물건만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중의 빚	몹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참빚으로 훔듯	남김없이 살살이 뒤흔드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갈무리

1	눈 온 뒤에는 거지가 빨래를 한다	눈이 온 다음 날은 거지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빨아 입을 만큼 따뜻하다는 말.
2	떡 삶은 물에 풀한다	1.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겸하여 해치움을 이르는 말. 2. 버린 물건을 이용하여 소득을 봄을 이르는 말.
3	바지랑대로 하늘 재기	빨랫줄을 받치는 바지랑대로 높은 하늘의 높이를 재려 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빨래 이웃은 안 한다	빨래할 때 가까이 있으면 구정물이나 튀지 좋은 일은 없다는 말.
5	상전의 빨래에 종의 발뒤축이 희다	상전의 빨래를 하여 주면 제 발뒤축이 깨끗하게 된다는 뜻으로, 하기 싫어 마지못해 하는 남의 일이라도 해 주고 나면 얼마간의 이득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십 리 강변에 빨래질 갔느냐	십 리나 되는 강변까지 갔다 오느라고 얼굴이 탔느냐는 뜻으로, 얼굴이 까맣게 그은 사람을 보고 이르는 말.

바느질

1	골무는 시어미 죽은 녀이라	바느질하다가 빼어 놓은 골무는 얼른 다시 찾아지지 않고, 일어서서 옷이나 일감을 털어야 나온다는 말.
2	급하면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	일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것이므로, 아무리 급해도 순서를 밟아서 일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3	딸의 시앗은 바늘방석에 앉히고 며느리 시앗은 꽃방석에 앉힌다	딸은 귀하게 여겨 어떻게 하든지 그 시앗을 없애려 하나, 며느리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며느리가 시앗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을 도리어 통쾌하게 여긴다는 말.
4	떡갈나무에 회초리 나고, 바늘 간 데 실이 따라간다	두 가지 사물의 관련성이 썩 긴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바늘이 가는 데 실이 항상 뒤따른다는 뜻으로,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바늘보다 실이 굵다	바늘에 꿰야 할 실이 바늘보다 굵다는 뜻으로, 커야 할 것이 작고 작아야 할 것이 커서 사리에 어긋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상침을 놓다	박아서 지은 겹옷이나 보료, 방석 따위에 상침질하는 것을 이르는 말.
8	시누 하나에 바늘이 네 짝	시누이가 올케에게 심하게 대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실 엉킨 것은 풀어도 노 엉킨 것은 못 푼다	작은 일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도 큰일은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실이 와야 바늘이 가지	1. 베푸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도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조건이 성숙되어야 일이 성사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한다	아무리 급하다 하여도 꼭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어야 일을 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여복이 바늘귀를 꿰다	눈먼 여자 장님이 바늘에 실을 꿰는다는 뜻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렵치고 한 일이 우연히 잘 맞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조선 바늘에 되놈 실 꿰듯	섬세한 조선 바늘에 무딘 호인(胡人)의 손으로 실을 꿰려고 애쓴다는 뜻으로, 되지도 아니할 일을 애써 하는 경우를 비꼬는 말.
1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 들기 때문에 여간해서도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가림은 있어야 의복이라 한다	가려야 할 데를 가려야 비로소 의복이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맡은 구실을 온전히 다 해야만 그에 마땅한 대우를 받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가마 타고 웃고름 단다	미리 준비를 해 놓지 않아서 임박해서야 허둥지둥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개를 친하면 옷에 흠칠을 한다	못된 사람과 친하면 해로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거지 옷 해 입힌 셈 친다	1. 거지에게 자선을 베풀어 새 옷을 한 벌 입혀 준 셈 친다는 뜻으로,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줌을 이르는 말. 2.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거나,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았을 때 자기 위안 삼아 이르는 말.
6	군복을 벗다	군에서 제대함을 이르는 말.
7	군복을 입다	군에 입대함을 이르는 말.
8	남의 옷 얻어 입으면 겉꺾감만 남고 남의 서방 얻어 가면 송장치레만 한다	남이 입던 현옷을 얻어 입으면 얼마 안 가서 헤어져 못 입게 되고 홀아비에게 개가하여 사노라면 얼마 안 가서 사별하게 된다는 뜻으로, 그런 일은 할 짓이 못 된다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9	누더기 속에서 영웅 난다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자라난 사람이 후에 영웅이 된다는 뜻으로, 가난하고 천한 집에서 인물이 나왔을 때 이르는 말.
10	당채런 바지저고리	지저분하고 더러운 헛 옷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	돈이 많으면 장사를 잘 하고 소매가 길면 춤을 잘 춘다	모든 일이 잘되려면 그 소재가 좋고 풍족하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돼지 밥을 잇는 것이 네 옷을 대기보다 낫다	한참 장난이 심한 사내아이 옷이 못 입게 됨을 이르는 말.
13	판 주머니를 차다	1. 다른 속셈을 가지거나 일을 꾀하는 것을 이르는 말. 2. 돈을 빼서 따로 보관하는 것을 이르는 말.
14	마음씨가 고우면 옷 앞섶이 아문다	아름다운 마음씨는 그의 걸모양에도 나타난다는 말.
15	물에 빠져도 주머니밖에 뜰 것 없다	가진 돈이 한 톨도 없다는 말.
16	바지저고리만 다닌다앉았다	사람의 몸뚱이는 없고 바지저고리만 걸어 다닌다는 뜻으로, 사람이 아무 속이 없고 뻣뻣한 데가 없이 행동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사람은 헛 사람이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사람은 헛[때론은] 사람이 좋고 옷은 새 옷이 좋음을 이르는 말.
18	소매 긴 김에 춤춘다	우연히 운 좋은 기회에, 하려던 일을 해치우는 것을 이르는 말.
19	소매 속에서 놀다	손으로 하는 동작이나 행위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이루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
20	소매가 길면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으면 장사를 잘한다	수단이나 밑천이 든든하면 성공하기 쉽다는 것을 이르는 말.
21	소매를 걷다	어떤 일에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이르는 말.
22	소매를 두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
23	아이를 예뻐하면 옷에 똥칠을 한다	못된 사람과 친하면 해로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4	영감님 주머니 돈은 내 돈이요 아들 주머니 돈은 사돈네 돈이다	남편이 버는 돈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아들이 버는 돈은 며느리가 주관하므로 어찌할 수 없다는 말.
25	오다가다 옷깃만 스쳐도 전세의 인연이다	인간이 살면서 부딪치는 사소한 만남이라도 불가에서 말하는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다는 뜻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
26	오지랖이 넓다	1.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에도 참견하는 면이 있음을 이르는 말. 2. 염치없이 행동하는 면이 있음을 이르는 말.
27	옷은 나이로 입는다	1. 옷차림 따위의 모든 일을 나이나 경우에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는 말. 2. 몸집은 좀 작더라도 나이 든 사람은 옷을 더 크게 입는다는 말.
28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오래 사귀어 서로를 잘 알고 정분이 두터워진 사람이 좋다는 말.
29	옷은 시집을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옷은 시집을 때 가장 잘 입을 수 있고 음식은 한가위에 가장 잘 먹을 수 있다는 뜻으로, 언제나 잘 입고 잘 먹고 싶다는 말.
30	옷을 격해 가려운 데를 긁는다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면 긁으나 마나라는 뜻으로, 요긴한 곳에 직접 미치지 못하여 안타까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31	옷이 날개고 밥이 분이다	옷을 잘 입어야 풍채가 좋아지고 밥을 잘 먹어야 신수가 좋아진다는 말.
32	의복이 날개라	옷을 잘 입으면 누구나 돋보인다는 말.
33	의붓자식 옷 해 준 셈	해 주어서 별 보람 없고 보답받지 못할 일을 남을 위하여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4	젓년도 모르고 조복해매을 마른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일을 하려고 함을 이르는 말.
35	주머니 끈을 조르다	돈을 몹시 절약하는 것을 이르는 말.
36	주머니 사정이 나쁘다	쓸 자금이나 돈의 형편이 좋지 않음을 이르는 말.
37	주머니 사정이 좋다	쓸 자금이나 돈의 형편이 넉넉함을 이르는 말.
38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이라	선하거나 악한 일은 숨겨지지 아니하고 자연히 드러남을 이르는 말.
39	주머니 털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없다	아무리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숨겨진 허점은 있다는 말.
40	주머니를 털다	1.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놓음을 이르는 말. 2. 강도질을 함을 이르는 말.
41	주머니가 가볍다	가지고 있는 돈이 적음을 이르는 말.
42	주머니가 넉넉하다 ^[돈돈하다]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하게 있음을 이르는 말.
43	주머니가 비다	가진 돈이 없음을 이르는 말.
44	주머니돈이 째째	이러나 저러나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라는 말.
45	중이 미우면 가사도 밍다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에 딸린 사람까지도 밍게 보인다는 말.
46	체 보고 옷 짓고 꼴 보고 이름 짓는다	몸의 치수에 맞게 옷을 짓고 모양에 맞게 이름을 붙인다는 뜻으로, 모든 것이 저마다 제격에 맞게 되도록 처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7	치수 맞춰 옷 마른다 ^[짓는다]	앞뒤를 잘 살펴보고 빈틈없게 계획을 세운 다음 격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8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친구는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두텁고 깊어서 좋다는 말.
49	헌 옷 속에 옥 들었다	외양은 허술해도 속에는 귀중한 것을 지니고 있음을 이르는 말.
50	헌 옷이 있어야 새 옷이 있다	헌것이 있어야 새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을 이르는 말.

색인



기역

가락바퀴	638
가례	496, 662, 739
가례도감의궤	89, 226, 227
가례발기	176
가례집람	614
가르마	712
가리개	700
가리마	20, 104, 113, 601
가면극	680
가발	105
가사	21, 486
가슴띠	113
가족	23
가족감태	23
가족감티	25
가족버선	23, 24
가족신	557, 583, 733
가체	25, 104, 307, 592, 624, 652
가체금지령	106
가체신금절목	647
각정	110
간단복	27
갈굴종이	32, 254
갈모	28, 242
갈몸빼	254
갈무리	30
갈옷	32
갈적삼	32
갈종이	32
감물	34
감발	35
감신총	132
감투	36
갑사	37
갑신의제개혁	39
갑오개혁	50, 627, 628, 702
갑오의제개혁	40, 264, 609
갑주	98
갓	42, 86, 209, 696
갓끈	46

강령탈춤	680
강복	662
강사포	46, 285, 551, 611, 621, 688
강화도조약	716
갓신	100
개구리참지	658
개구명바지	709
개당고	213, 277, 475
개두	48, 133
개두포	656
개량복	49
개량한복	51
개량화	50
개신교복	52
개오기	53
개짐	54
개항	193
개화기	542
개화파	513, 537, 712
거가잡복고	106, 137, 175, 508
거들지	104
거들치마	55
거북무늬	119
거북흉배	119
건	56
건궤	57, 105
겉옷	255, 592, 698, 701
겨울철	139
격몽요결	614
격자무늬	116
견뢰도	92, 432, 463, 646, 676
견마기	63, 104, 112, 472, 589
견사	560
견직물	37, 207, 227, 228, 432, 440, 442, 461, 484, 559, 569, 638, 642, 711, 723, 737
결혼	553
경국대전	23, 88, 118, 125, 152, 167, 184, 215, 302, 304, 492, 506, 508, 517, 611, 621, 642, 657, 660, 661, 662
경대	58
경도잡지	166, 196, 467, 582, 607, 684

경사	60, 553, 570, 638, 723, 737
경성방직	89
경제화	545
경찰복	61, 608, 609
결마기	63
계	65
계급장	495
계례	65
계례복	65
계림유사	237
고	66
고금	712
고깔	67, 298, 478, 681
고단	68
고려도경	78, 132, 135, 167, 226, 238, 240, 528
고려사	109, 167, 214, 241, 246, 296, 542, 625, 651
고무신	69, 583, 645, 690
고무옷	726
고분벽화	57, 116, 299, 310, 453, 487, 645, 651, 671, 717
고사	70
고의	71
고이댕기	71
고쟁이	72, 475, 672
곤룡포	73, 80, 450, 565, 649, 657, 702, 758
곤충무늬	76
골무	272
공단	77, 230, 250
공복	78, 304, 611, 743
공양사	716
공자가어	661
공작홍배	128
공정책	75, 80
과대	81
과두	82
과실무늬	83, 235
과판	82
관례	453, 556, 621
관례복	86, 304

관모	42, 197, 220, 239, 242, 437, 443, 453, 478, 556, 565, 624, 670, 674, 683, 747
관복	151, 252, 490, 593, 701, 713, 743, 745, 747
관사	87
관자	88, 215, 580
광고	509
광다회	136, 469, 559, 598, 657
광목	89, 115, 575, 641
광사	90
광수의	636
괘자	97, 602, 676
괴화	91
교구	82
교복	92, 610, 690
교염	96
교직물	638
교힐	96
구군복	61, 96, 599
구당서	105, 106, 207
구두	98, 232
구름무늬	301, 546, 570
구별짓기	95
구장복	630
국가정체성	609
국민복	94, 100, 254, 610
국사	101
국어학습도보	97
국조상례보편	49
국조오례의	168, 661
국조오례의서례	109
국학도감	97
국혼정례	90, 153, 226, 227, 688
국화	435
국화꽃무늬	101
군복	96, 598, 602, 608, 757, 758
굴갓	284
굴레	102, 619
굿	259
궁녀복	103
궁보	127

궁중발기	47, 89, 136, 160, 167, 175, 176, 191, 193, 201, 236, 258, 262, 295, 309, 432, 458, 472, 476, 546, 550, 642, 685, 687, 730, 746, 753
궁중복식	442
궁중정재	673
궐계	105
귀갑문	117
귀걸이	108
귀고리	106, 579
귀새문	117
규	109, 222, 552, 594, 743
규합총서	30, 53, 161, 273, 527, 529, 533, 547, 569, 587, 654, 684, 707, 750, 754
근대화	157, 517
금관	244, 621
금관조복	612, 621
금관총	82, 107, 623, 694
금기	147
금동신발	110
금령총	107, 111, 300
금박	310
금시계	233
금실	310
금우관	623
금조총	107
급제	518
기녀복	112
기녀복식	112
기린홍배	118, 760
기마민족	108
기모직물	558
기산풍속도	305
기생	99
기술	503
기저귀	115, 709
기하무늬	116, 629
길상무늬	434, 619, 753
길상어문	267
길짐승무늬	118
김활란	230, 652

깃	589
까치두루마기	71, 120
까치설빔	120
꼬리치마	568
꼭두서니	121, 673
꽃무늬	642
꽃버선	679
꾸민족두리	624
꿩무늬	128

나은

나막신	122, 557, 606
나비무늬	76
나사	123
나인	103, 456
나일론	124, 297, 706
나장	57, 279
난삼	125
난초	435
난초무늬	435
날염	127, 568
날짐승무늬	128
날짐승홍배	760
남당초고	186
남바위	130, 307
남색	645
남성	233, 711
남전	131, 278
납방염	132
납염	132
납힐	132
낭도	576
내명부	103
내의	219
내의녀	20
너른바지	66, 276
너울	133, 227, 583, 661
넥타이	134
노걸대언해	121
노동복	32, 254

노리개	104, 135, 576, 580
노방주	137
노의	90, 630
노파리	138
녹원삼	104
녹피해	139
놋신	557
농악	446
농악대	68
농악복식	139
누비치마	672
누에	229, 440
눌재집	159
뉴동	143
늑골복	609
능	143
능목면	144
능직	638, 710
니람	131
니람법	645

다

다듬이질	145
다리	25, 106
다리미	272
다리미질	147
다리속곳	148
다회	136, 148, 469
단	150
단내의	90
단령	79, 98, 126, 151, 451, 490, 611, 637, 666, 667, 698, 702
단령삼	78
단령포	701
단발령	92, 155, 217, 455, 560, 563, 632, 712
단발머리	157, 231
단삼	158, 549
단속곳	66, 159, 276, 309, 475
단오빔	664

단원풍속도첩	643
단의	554
단직물	230
단체복	610
단추	616
단호	119
단호홍배	761
단화	99
달마티카	656
닭의장풀	160
담복	161
담호	162, 202, 279, 602, 657, 676, 698, 702
당고의	472
당서	180
당의	66, 104, 164, 482, 703
당초문	132
당향라	166, 724
당혜	114, 123, 166, 685
대	78, 167
대공	662
대구	169
대나무	435
대대	222, 552, 593, 596, 697
대동야승	669
대란치마	485
대렴금	482, 667
대례	220
대례복	42, 221, 263, 266, 437, 561, 603, 748
대륜식입식관	170, 299
대마	440
대명회전	73, 152, 508, 621
대비	464
대삼	173, 594
대선금구	82
대수	173, 579
대숨치마	174, 673
대의	579
대자	176
대전통편	302, 509
대전회통	98, 167, 184

대창	648
대래도	123
대한예전	109, 177, 508, 621
대한제국의제개혁	177
대한화사전	97
댓개비	626
댕기	179, 580, 616
댕기머리	231, 652
더그레	181, 602, 676, 682
더블브레스티드	609
더비햇트	631
덕온공주	64, 687, 751
덕혜옹주	458
덧신	220, 468, 692
덧옷	290
데일리한복	720
도롱이	182, 606, 686
도사	716
도시화	514
도염	645
도인	716
도토리	184
도투락댕기	184, 713
도포	186, 282, 556, 611, 622, 631, 634, 650, 655, 666, 698
돌띠	120, 188
돌모	103
돌복	189, 303, 437, 619
돌옷	296
동경잡기	647
동곳	191
동국세시기	467
동국이상국집	622
동다리	97, 192, 303, 598, 599, 602
동동구리무	193
동사강목	237, 238
동의대	194
동의보감	533
동자무늬	194
동파관	196, 607
두건	86, 197, 556
두렁치마	198, 618, 673

두루마기	92, 120, 199, 303, 459, 582, 611, 656, 666, 676, 698, 702
두루주머니	628
둘레머리	653
동구니신	220, 644
뒤꽂이	201, 574
드림댕기	619
등거리	202
디자인한복	720
딸깍발이	123
땡은머리	103, 203
떠구지	204, 678
떨잠	206, 574

리을

라	207, 724
라사	124
레이온	208, 297
립	681

미음

마고자	208, 617
마름질	273
마미두면	209
마전	211
마직물	638, 716
마포	638
마혜	735
막치	644
만기요람	101, 123, 547, 604, 625
말군	211
말뚝댕기	204, 213
말뚝이	682
말액	214, 651
말총	282, 626
망건	88, 214, 282, 580, 683
매듭	134, 149
매듭단추	291

매염제	216, 228, 544, 676, 754
매화	435
맥고모자	217, 606
머리모양	57, 453, 456, 498, 519, 520
머리쓰개	653
먹물	218
메리야스	219
메이지시대	711
역목	482, 667
역신	220
면관	209, 222
면류관	220
면복	109, 130, 222, 285, 464, 611, 621, 630, 756
면사	128, 226
면사포	226
면주	227
면직	674
면직물	257, 638, 705, 716
면포	638
명반	92, 228
명복	593
명주	227, 228, 674, 704, 707
모관	656
모단	230
모던걸	230
모던보이	233
모란	435
모란꽃	234
모란무늬	234, 435, 629, 753
모본단	236
모선	439
모슬린	236
모시	73, 237, 440, 704, 707
모자	239, 443, 555, 696, 757
모직물	65, 246, 638, 710
목걸이	247, 579
목공단	249
목도리	250
목판깃	637
목판맹기	204, 213, 251
목판염	132

목혜	122
목화	252, 258, 559, 599, 626, 657, 740
몸빼	94, 100, 254
몽도리	256
몽두리	66, 255, 256
몽두의	255, 256
몽수	256
묘제	614
무관	599
무궁화무늬	609
무녀	260
무늬	433, 434
무늬염	127
무당	68
무당내력	259
무두질	228
무령왕릉	82, 107, 110, 694
무명	115, 257, 287, 440, 704, 707
무문사	432
무문하부다이	711
무문항라	724
무복	259, 722
무속인	260
무수리	20, 104
무예도보통지	36
무용수	149
무족이	262
무지기치마	262, 673
문공가례	497
문관대례복	263
문관복	609
문관복식	609
문관복장규칙	263, 265, 609
문무백관	285, 450, 612, 732, 743, 745, 747
문사	432
문자무늬	267, 629
문항라	724
문화	717
물결무늬	571
물소중이	725, 728
물웃	727
물적삼	727

물질	724
물푸레나무	269
미사리	443
미암일기	159, 309, 691
미용실	270
미투리	123, 271, 680
민저고리	590
민족두리	624
민항라	724
밀화	281

비읍

바느질	272, 585
바늘	272, 638
바늘집노리개	137
바지	211, 254, 275, 309, 575, 710
바지저고리	698
박가분	277
박쥐무늬	129
반가	164, 175, 522, 737
반물	278
반물법	645
반비	202, 279, 676
반지	280, 579
반희장저고리	71
받침옷	637
발기	64, 86, 461, 472, 484, 559, 569
발긋	215, 484, 539
발립	43
발막신	123
방갓	284, 655
방건	282
방격문	116
방관	282
방립	283
방모직물	558, 710
방심곡령	222, 285, 612, 619
방아다리노리개	137
방염	127, 132, 286
방취제	228

방한모	130, 501, 618, 708, 757
방한용	139, 182, 250
방한용품	307
배내옷	288
배넛저고리	199, 286, 294
배두렁이	198
배싸개	82
배씨댕기	289
배자	66, 202, 290, 616
백라관	292
백립	626
백명주	227, 229
백반	293
백분	750
백사모	438
백의	70, 293
백의민족	293
백일옷	294
백피화	763
백한홍배	760
버선	222, 295, 465, 584, 605, 666
벌립	605, 686
벌무늬	76
법락	548
법복	221, 593, 713
법의	487, 548, 578
병거지	97, 296, 681, 686
베일	226
베짜기	239
베틀	239
벨벳	297, 640, 690
벽사	188, 541
변형모	298
별기군	41
병와집	255
보공	277, 665
보배무늬	116, 300, 572
보부상	696
보석반지	233
보울러해트	631
보자기	226
보조무늬	301

보타이	134
보호대	738
복	558
복건	86, 120, 302, 459, 482, 666, 736
복두	78, 126, 214, 303, 437, 565
복식개량운동	70
복식금제	304, 305
복식제도	560
복온공주	129, 604, 752
복인	447
복장규칙	609
복장제식	609
본생경	118
본초강목	161, 541, 572, 674
불끼	307, 708
불싸개	308
봇뒤창옷	288
붕디	66
봉산탈춤	68, 680
붕지	66, 309
붕첩지	658
붕황	309
붕황무늬	309
붕흥배	759
부네	681
부녀자	26
부들신	644
부부총	107
부포상모	447
복사	180
불교복식	578
블라우스	124
비	700
비녀	204, 206, 311, 574, 579, 580, 592, 740
비단	674, 704
비로드	297
비취	281
빗	313, 579
빨래	31, 470
빨래터	472

시
웃

사	432, 716
사계삼	86
사계절꽃무늬	235, 433
사군자무늬	235, 434
사규삼	303, 436, 736
사당제	614
사대부	532, 715
사라사	127
사례편람	65, 163, 176, 290, 303, 436, 452, 578, 614, 661, 662
사모	243, 305, 437, 490, 565, 666
사모관대	438, 739
사방건	674
사방관	282
사복번제절목	702
사색공복제도	78
사선	439
사시제	614
사신총	107
사자무늬	119
사제	655
사조롱보	758
사폭바지	71
삭모	97
산고모	632
산동주	440
산림경제	91
산업화	514, 531
산호	281
살롱화	100
살창고쟁이	72
삼국사기	65, 91, 96, 120, 214, 246, 304, 311, 585, 625, 664
삼국유사	91, 120, 222, 240, 304, 659
삼국지	638
삼다무늬	83
삼베	73, 284, 440, 441, 482, 575, 662, 674, 704
삼삼기	440
삼원무늬	83

삼작노리개	136
삼재도회	255, 296, 607, 657, 669
삼팔주	442, 641
삼회장저고리	112, 591, 682
삼혜	734
삿갓	284, 443, 601
상	443, 552, 596
상고머리	713
상관	445
상례	479, 662
상류층	139, 542
상모	446, 600
상민	696
상방정례	48, 89, 109, 133, 153, 159, 175, 210, 226, 230, 276, 535, 547, 559, 572, 578, 588, 598, 604, 625, 661, 691, 746
상변통고	606
상복	266, 437, 447, 450, 562, 655, 662, 743
상염	544
상의	222, 539, 588, 592
상의원	279, 517, 625, 642, 669
상제	696
상주	445, 447
상투	88, 214, 282, 453
상투관	455, 675
새무늬	128
새앙머리	103, 456
색동	116
색동저고리	120, 457
색동치마	457
색복장려운동	459
색의	459
생고사	70, 461
생냉이	441
생수	90
생원	125
생항라	724
생활한복	462, 720
샤머니즘	108
서구복식	562

서구식	177, 178
서구화	158, 514
서민	701
서양	525
서양사	463, 716
서양식	493, 510, 514, 537, 540
서양항라	724
석	222, 464
석류무늬	85
석회	216, 465
선매염	122, 216, 466, 573
선염	466, 706
선풍도골	716
선화봉사고려도경	180, 235, 627, 671
설빔	467, 664
설피	25, 468
섬유	567, 587, 597, 638, 706
성균관	125
성인식	66, 86
성직자	52, 655
성호사설	91, 186
설	589
세조대	469
세종실록지리지	121
세탁	211, 470, 587, 706
소고의	472
소공	662
소렴금	482
소례복	266, 437, 442, 486, 561, 748
소매	722
소매배래	287
소모플라노	710
소방목	473
소비문화	234
소사	432
소사중단	593
소요건	80
소창의	194, 474, 588, 635
속곳	66, 672
속대전	153
속속곳	276, 475

속웃	148, 159, 176, 219, 475, 477, 617, 697
속잠방이	697
속저고리	475, 476, 721
속적삼	475, 476
속치마	262, 476, 477, 569, 618
솔기	287
숨죽두리	624
숨치마	672
송낙	478
송남잡지	648, 691
송사	180
송연	218
송진	132
수	596
수교집록	306
수단	656
수대	656
수의	31, 441, 479, 665
수자조직	230, 236, 693
수자직	638
수자홍배	762
수초혜	734
수트	710
수화자	97, 252, 584, 604
수화주	483, 641
숙고사	70, 484
숙관사	87
숙성법	645
숙주	229
숙향라	724
순화공첩초	137
스란단	485
스란치마	485, 672
스키타이계	169, 170, 247, 298, 554, 623, 693
스타킹	124
스트링타이	134
스파이크식	110
습신	482, 584
습의	82, 303, 479, 496
승려	21, 67, 478, 486, 701
승려복식	21

승립	478
승복	486
승정원일기	649
시경	125
시계	488
시농	652
시마	662
시보리	96
시복	437, 490
식리총	82
신	252, 545, 557
신목	112
신발	307
신분제도	610
신생활복	101
신선	716
신식군복	493
신여성	93, 99, 230, 232, 697
신울	734
신한복	720
실내화	138
심의	87, 125, 303, 482, 496, 607, 611, 666, 674, 698, 702
십장생무늬	118, 629
쌍계	498
쌍동계	75, 80
쌍영총	647
쌍호	119
쌍호홍배	761
쓰개	48, 67, 80, 226, 239, 243, 256, 445, 446, 499, 555, 564, 582, 601, 654, 669, 683, 747
쓰개치마	499, 601, 673

이응

아량주	641
아암	113, 501, 618
아연각비	629, 676
아크릴	125
아학	252

악수	482, 667
악학궤범	112, 197, 236, 305, 311, 506, 545, 573, 722, 736, 746, 748, 762
안경	502
안경집	503
안릉신영도	113
안악 3호분	721
안울림빙거지	297
암각화	116
앞댕기	72, 195
애스콧타이	134
액주름	698
액주름포	505
앵삼	126
야자대	506
약재	160
양관	507, 612
양관북	621
양말	509
양반	680
양반가	139, 166
양복	510, 710, 741
양복점	513
양사	716
양산	231, 232, 233
양장	231, 514, 691
양주별산대놀이	682
양태	517, 626
어깨허리	51, 476, 617, 672, 690, 709
어사화	304, 518
어여머리	104, 206, 312, 519, 647, 678
어여미	104
어영청등록	96
엷은머리	106, 312, 520, 573
얼레빗	313
엄짚신	644
여령	748
여립모	133
여성	713
여성복식	27
여우목도리	232
여유당전서	96, 687

여직	723
연거북	650, 674
연꽃넙쿨무늬	695
연꽃무늬	235, 301, 523, 753
연려실기술	626
연미북	263, 525
연암집	691
연원직지	504
연지	526, 745, 749
연화대	112
염료	293, 473, 526, 527, 532, 533, 534, 543, 546, 567, 572, 743, 754
염색	286, 306, 466, 527, 568, 573, 587, 706, 732, 755
염습구	482, 665
염습의	635, 649
염의	479, 532
염착	216
염포	482
영노	682
영대	655
영락	110
영친왕비	295
예관	624
예기	496
예기주소	496
예복	175, 187, 193, 311, 496, 525, 547, 549, 553, 556, 577, 578, 583, 592, 593, 603, 630, 700, 713, 722
예장용	185
오건	716
오광대	680
오낭	482, 667
오매	532
오목다리	679
오목이	679
오미자	216, 533, 744
오방색	681
오방장두루마기	120, 458
오배자	534
오복제도	661
오사모	78, 438

오얏무늬	609
오주연문장전산고	25, 88, 91, 105, 123, 186, 196, 502, 517, 522, 626, 642, 648, 660, 670, 708
오페라백	232
옥	281, 696
옥대	534
옥양목	115, 536, 569, 642
옥판	109
옥팔찌	694
옥혁명대	593
온혜	734
웃감	585, 703, 707
웃고름	287
와이셔츠	537
왕	464, 469, 758
왕골	284
왕골신	644
왕비	464, 472
왕세손	450, 464, 469, 758
왕세손빈	464
왕세자	450, 464, 469, 758
왕세자빈	464, 472
왕실	737
왕회도	107, 299, 623
왜바지	94
왜사	538
왜증	539
왜항라	724
외투	539
요대	83, 598
요람	279
요선철릭	658, 702
요질	452, 541
요패	82
용무늬	74, 541
용보	758
용잠	740
용재총화	519
우단	298
우뚝기	543
우모	29

우장용	182
운동화	544
운두	112
운안홍배	128
운학홍배	129, 760
운혜	114, 545
울금	546
웃웃	286
웃치마	104
웅비홍배	760
원불교복	547
원삼	90, 104, 267, 311, 482, 549, 579, 603, 630, 667, 703, 739, 751
원앙무늬	128
원유관	48, 285, 551, 611
원유관복	47, 464, 630, 756
월경	54
월자	25
웨딩드레스	552, 741
웨이브	692
위령미사	657
위사	65, 553, 570, 638, 705, 723
원저노트	135
유	554
유건	454, 555
유교	161, 500, 518, 532
유니폼	608, 710
유문항라	724
유생	125
유소	136, 149
유학생	230
유학자	303, 496
유혜	557
육군복	609
윤달	482
윤	246, 558, 710
윤복	98, 558, 598, 603, 626, 649, 657, 698, 758
은령총	111
은장도	576
은조사	559
을미개혁	459

을미의제개혁	99, 264, 560, 609
을사늑약	177, 265, 610
음양오행사상	116
음양오행설	306
응고제	228
의대발기	38, 90, 123, 175, 176, 479, 642, 687
의례	532, 701
의례복	558, 611
의복	662
의복금제	112
의복발기	90, 175, 176, 463, 616
의양단자	188
이등체강	177, 507
이발소	563
이불	653
이암	757
이엄	130, 564, 599
이응해	724
이중관	651
이중직	638
이화학당	617, 690
익냉이	441
익선관	73, 565, 649
익조직	71, 101, 432, 638, 643
인견	208, 566
인끈	756
인두	272
인디고	645
인염	127, 567
인조견	208, 567
일성록	693
임원경제지	161, 211, 239, 258, 474, 529, 572, 588, 607, 653, 674, 688, 754
임원십육지	186, 283
임하필기	20, 97, 122, 187, 192, 296, 306, 723
입식	46
입신양명	519
입양	43
입영	46
입자	443
입제	443

자락치마	568, 689
자립	626
자미사	569
자수무늬	753
자연산수무늬	570
자적항라	724
자초	572
작업복	724
잠	573
잠방이	575
잠수	724
잠옷	710
잠자리무늬	76
장갑	113, 575
장도	576
장도노리개	137
장백의	656
장삼	486, 577, 630
장식	696
장식물	700
장식품	251, 600
장신구	137, 191, 201, 247, 280, 311, 573, 577, 579, 658, 693
장악원	112
장옷	582, 741
장의	648
장화	583
재궁의대	163, 187
재단	585
재물보	228
재봉	585
재봉틀	272
재최	662
젯물	587, 646
쟁치마	672
저고리	194, 208, 287, 457, 472, 555, 588, 593, 616, 671, 722
저항라	724
적관	591
적삼	71, 592, 593

적석	464
적의	128, 311, 464, 591, 593, 594, 603, 630, 697, 713, 756
전	597
전각복두	304
전대	598, 602
전도부인	617
전례복	655
전립	97, 113, 259, 296, 446, 598, 599, 602, 606, 686
전모	601
전복	97, 303, 598, 599, 602, 631, 676, 736
전시체제	510, 512, 515
전통	717
전통식	177
전통한복	720
전행웃치마	603, 673
절기	164
절풍	298, 651
정	604
정동별립	605
정복	662
정애식	692
정자관	196, 606, 674, 680
정재복	255
정창원	96, 218, 246, 527, 598
제갈량	716
제관	565
제복	61, 221, 548, 561, 608, 611, 630, 731, 743, 756
제비부리댕기	615
제용감	645
제의	656
제혜	735
조경일록	604
조관	565
조끼	202, 602, 616
조끼허리	617, 690, 709
조바위	308, 459, 618, 619
조복	46, 561, 611, 630, 731, 743, 756
조삼	87

조선상식	199, 214, 628, 635, 676
조선여속고	167
조선왕조실록	196, 226
조선재봉전서	71, 73, 102, 120, 616, 619, 654
조선휘보	101, 123, 137, 236, 569, 642
조우관	300, 622
조짐머리	104, 647
족두리	66, 104, 113, 312, 624, 647, 659, 739
종교개혁	655
종교복식	259, 577
종이기저귀	115
종종머리	289
주	625, 723
주교관	656
주립	626
주머니	576, 581, 627
주사	629
주술력	644
주역	498
주의	702
주자	496
주자가례	499, 614, 674
주자관	607
주작	310
주케토	656
주향	724
준	700
줄무늬	723
중국복식의관대사전	227
중단	222, 552, 612, 630
중매염	588
중머리	712
중묘조서연관사연도	722
중백의	656
중산모	217, 631
중의	630
중절모	217, 605, 632
중치막	474, 482, 634, 666
증보문헌비고	109, 179, 196, 508, 660
증보산림경제	131, 211
지붕유설	125, 133, 189, 502

지요	482
지치	572
지혈제	228
지환	280
직금	310
직령	611, 635, 666, 698, 702
직령교임식포	636
직물	228, 249, 440, 553, 569, 587, 638, 705
직물금제	306
직업복	610
진사	125
진사고모	266
진연의궤	253
진주사	642
진찬의궤	164, 253
징신	557
짚신	123, 643, 681
쪽	278, 466, 645
쪽머리	113, 201, 311, 573, 647, 653, 658

치

차선	705
차양머리	653
착수의	636, 702
참빛	313
참최	662
창옷	474, 635
창의	482, 622, 631, 634, 648, 666, 698, 715
채상모	447
채회염	127
책	650
챙머리	231, 651
처네	653
처용무	682
천공개물	91, 527, 533, 588
천금	482
천마총	82, 110, 300
천신	716

천의	653
천인	696
천주교복	655
천초	121
철경록	91
철릭	279, 559, 598, 603, 626, 657, 666, 698, 702
철매염	122
철사법	640
철장액	676
첨모직	638
첨지	580, 658
첨지머리	659
청금	92, 125
청동팔찌	694
청라관	292
청라의	619
청루소일	113
청말	465, 593
청삼	126
청색	645
청석	464, 593
청성잡기	296
청연군주	128, 665
청울치신	644
청장관전서	106, 296
초립	660, 661, 696
초산일기	635, 649
최상	661
최승희	231
최신전국대표직물	717
최의	662
추관지	306, 521
추상무늬	116
추석빔	664
축구화	112
축융	711
축음기	234
춘관통고	508, 535
출토복식	570, 582, 591, 665
출토유물	665
충이	482

충정관	196, 607, 669
치마	55, 443, 568, 603, 671, 729
치마저고리	291
치마허리	568
치자	92, 673
치포관	456, 674
칠장복	80
침염	675

키
읃

칼깃	637
콩줍	676
쾌자	71, 202, 602, 676, 681
크라바트	134
크레이프	629
큰댕기	740
큰머리	204, 206, 678

티
읃

타래버선	120, 679
택지정례	314
택지준절	68, 90, 101, 123, 137, 230, 529, 547, 559, 630, 723
탈춤복식	680
탐라순력도	725
탕건	683
탕건장	608, 684
태극무늬	609
태극성	89
태사감	685
태사혜	120, 123, 684, 733
털배자	291
털병것	297, 686
테왁	725
토끼무늬	118
토수	576, 687
토시	687
토주	688

통영오광대놀이	681
통전	643
통천관	551, 688
통천관복	630, 756
통치마	51, 93, 230, 477, 617, 672, 689
투혜	691
트레머리	231, 652

피
읃

파나마모자	218, 605
파라핀	132
파마	653
파마머리	231, 232, 270, 692
파수	650
판댕기	251
판염	567
팔길상무늬	301
팔뚝댕기	103
팔리움	656
팔사단	693
팔선무늬	302
팔찌	579, 693
패	552
패랭이	241, 660, 696
패물	577
패영	559
패옥	222, 593, 696
팬티	476, 697
페도라	633
편복	209, 470, 606, 657, 698, 701, 715
편복관	242
편복포	648
편삼	577
편상화	99
평량자	681, 696
평상복	437
평조직	723
평직	536, 625, 638, 642, 710, 723
평직물	711
평천관	80, 220

폐면용	133, 499, 501
페슬	222, 593, 612, 622, 700
폐양자	696
포	505, 698, 701
포구악	112
포대기	653
포도무늬	83
포목점	703
포선	439, 705
포인핸드	134
포플린	705
폴리에스테르	125, 297, 560, 706
표백	239
폴먹이기	706
풍차	130, 708
풍차바지	71, 120, 199, 618, 709
프록코트	266, 631
플라노	710
플란넬	710
플레이스커트	94

히읇

하부다이	137, 711
하상	222
하이칼라	633, 711
하이칼라머리	711
하이힐	231
하피	594, 713
학봉집	506
학생모	92
학생복	100
학창의	303, 631, 698, 715
학홍배	128
한랭사	716
한복	462, 717, 741
한산모시	238
한삼	476, 588, 590, 593, 721
한서	638
한양가	20, 86, 101, 123, 135, 484
한원	96, 106, 638

함박꽃	234
합당고	277, 475
합사	723
합사주	723
합성섬유	125
항라	723
해너	725
해녀복	724
해동역사	179
해모수	622
해산물	724
해치홍배	119, 761
핸드백	231
햇빛가리개	606
행진	681, 728
행주치마	729
향갑	730
향낭	135, 730
향노리개	137
허리띠	149, 176, 280, 470, 506, 534, 731
허리말기	477
혁대	222, 621, 697, 731
협수	97, 598, 599, 602, 676
협힐	732
혜	733
혜원전신첩	643
호건	120, 459, 736
호랑이	736
호랑이무늬	118
호로무늬	83
호박단	737
호복고	169
호슬	737
호우총	694
호조낭관계회도	112
호표홍배	760
혼례	438, 439, 624, 705, 739, 748
혼례복	31, 50, 72, 550, 553, 665, 739, 751, 758
혼수품	587
혼인	739
홀	78

홀치기	96
흙질	287
홍광대	626
홍단령	491
홍떡	744
홍장삼	753
홍화	121
홀바지	71, 72
화	79, 252, 745
화관	66, 312, 659, 739, 747
화관계계	106
화문사	432
화문주	570
화사주	641
화산양로연도	112
화신미용	692
화양건	716
화엄경	117
화장	58
화장대	60
화장법	749
화장재료	750
화장품	277, 750
활옷	195, 703, 739, 751
황남대총	107, 110, 300, 623, 694
황련	754
황벽	92, 754
황초삼	255
해나무	92
회남자	169
회문	116
회별신굿탈놀이	680
회염	127, 755
회장저고리	104, 590
회화나무	91
후수	222, 593, 622, 756
후한서	105, 643
훈국등록	96
훈국총요	96
훈몽자회	604
휘갑치기	287
휘양	757

휘향	757
홍배	119, 572, 758
흑단령	87, 263, 490, 621, 758
흑령	125
흑립	42, 242, 559, 660
흑사모	438
흑석	464
흑원삼	104
흑피리	614
흑피혜	735
흑피화	622
흑혜	735
흑화	78, 253, 490, 604
흰옷	293
히사시가미	651
힐염	127

필자

IV

강선정 姜先貞 화엄사 성보박물관	
가사	21

강순제 姜淳弟 가톨릭대학교	
갯	42
모자	239

고부자 高富子 단국대학교	
가족버선	24
갈옷	32
감물	34
까치두루마기	120
몸빼	254
배넛저고리	286
백의	293
색복장려운동	459
정동벌립	605
출토복식	665
털범것	686
해녀복	724

곽경희 郭京熹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녹피혜	139
당혜	166
역신	220
목화	252
투혜	691

권혜진 權惠珍 이화여자대학교	
웨딩드레스	552
포션	705
활옷	751

금종숙 琴鍾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바느질	272
용복	558
잠방이	575
재봉	585
철릭	657
행주치마	729

김경실 金京實 한국궁중복식연구원	
면류관	220
몽두리	255
한삼	721

김경열 金炅烈 홍염장	
개오기	53
오미자	533
홍화	743

김명자 金明子 안동대학교	
설빔	467
추석빔	664

김문자 金文子 수원대학교	
건	56
과대	81
귀고리	106
금동신발	110
나막신	122
대구	169
대륜식입식관	170
목걸이	247
문자무늬	267
반비	279
백라관	292
변형모	298
복식금제	305
유	554
조우관	622
팔찌	693

김선영 金宣伶 국립고궁박물관	
규	109
대수	173
옥대	534

김소현 金素賢 배화여자대학교	
궁녀복	103
담복	161
염의	532
전행웃치마	603

김시덕 金時德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감발	35
계례복	65
관례복	86
유건	555
최상	661
최의	662

김용문 金容文 강릉원주대학교	
땡은머리	203
상투	453
새양머리	456
쌍계	498
엷은머리	520
쪽머리	647
첩지머리	659

김은영 金銀暎 매듭장	
다회	148

김은정 金恩姘	가톨릭대학교
감투	36
공정책	80
동파관	196
방건	282
방립	283
전모	601
충정관	669
탕건	683

김은정 金垠呈	전남대학교
무복	259
액주름포	505
장삼	577
적삼	592

김정아 金廷兒	이화여자대학교
두렁치마	198
색동저고리	457
장갑	575
조끼	616
조끼허리	617
타래버선	679
풍차바지	709
호건	736

김지연 金知娟	이화여자대학교
개두	48
고깔	67
퀘계	105
남바위	130
목도리	250
아얌	501
이엄	564
적관	591
풍차	708
화관	747

김지희 金芝希	자연염색박물관
교힐	96
납힐	132
매염	216
방염	286
선매염	466
선염	466
우뒹기	543
치자	673
침염	675
협힐	732
황련	754
황벽	754

김현경 金炫京	원광대학교
단발머리	157
미용실	270
이발소	563
파마머리	692

김혜순 金惠順	김혜순한복
원불교복	547

남경미 南瓊美	원광대학교
간단복	27
국민복	100
단발령	155
맥고모자	217
메리야스	219
시계	488
양말	509
외투	539
운동화	544
중산모	631
중절모	632
하이칼라머리	711

노무라 미찌요 野村美千代	장안대학교
경찰복	61

노수정 盧洙正	국립민속박물관
스란치마	485
어사화	518
토시	687

박가영 朴嘉玲	송의여자대학교
동다리	192
전대	598
전복	602
괘자	676

박경자 朴京子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뉴종	143
능목면	144
레이온	208
모슬린	236
벨벳	297
포플린	705
폴리에스테르	706
플란넬	710
하부다이	711
한랭사	716

박선희 朴宣姬	이화여자대학교
넥타이	134
양복점	513
포목점	703
학창의	715

박성실 朴聖實 단국대학교	
강사포	46
소창의	474
적의	593
중치막	634
창의	648
하피	713
호슬	737

박윤미 朴允美 단국대학교	
관사	87
광목	89
기하무늬	116
당항라	166
동자무늬	194
모시	237
목공단	249
옥양목	536
왜사	538
왜증	539
융	558

박종민 朴鍾珉 국립산악박물관	
경대	58
빚	313
휘양	757

배영동 裵永東 안동대학교	
삼베	440

백영자 白英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머니	627
향갑	730

소황옥 蘇晃玉 중앙대학교	
도토리	184
떨잡	206
먹물	218
명반	228
물푸레나무	269
반물	278
백반	293
비녀	311
사선	439
석회	465
소방목	473
연지	526
오매	532
젓물	587

송미경 宋美京 서울여자대학교	
단삼	158
답호	162
더그레	181
두루마기	199
등거리	202
배자	290
수의	479
저고리	588

심연옥 沈蓮玉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단	68
공단	77
능	143
단	150
라	207
모단	230
모본단	236
무명	257
팔사단	693
항라	723

안명숙 安明淑 광주대학교	
대	167
세조대	469
혁명대	731
홀	742

안애영 安愛英 난사전통복식문화재연구소	
단속곳	159
대숨치마	174
대자	176
무지기치마	262
버선	295
속적삼	476
속치마	477

연규홍 延圭鴻 한신대학교	
개신교복	52

염정하 廉貞夏 전라북도문화컨텐츠산업진흥원	
구군복	96
병거지	296

오선희 吳宣希 이화여자대학교	
관자	88
노리개	135
동곳	191
뒤꽃이	201
반지	280
잠	573
장도	576
장신구	579
첩지	658

유효순 柳孝順 숙명여자대학교	
사규삼	436
전립	599
주립	626

윤양노 尹良老 중부대학교	
과화	91
꼭두서니	121
염색	527
한복	717

윤을요 尹乙堯 동덕여자대학교

안경	502
안경집	503

윤지원 尹智媛 제이원랩

갈무리	30
다듬이질	145
다리미질	147
세탁	470
쓰개치마	499
탈춤복식	680
풀먹이기	706

이경미 李京美 한경대학교

고무신	69
문관대례복	263
문관복장규칙	265
신식군복	493
양복	510
연미복	525
와이셔츠	537
제복(制服)	608

이관호 李官浩 국립민속박물관

미투리	271
짚신	643

이명은 李明恩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가리마	20
과두	82
동의대	194
복건	302
붕지	309
소고의	472
조바위	618
천의	653

이민정 李旼靜 서울대학교박물관

교복	92
구두	98
양장	514
자락치마	568
챙머리	651
통치마	689

이민주 李民周 한국학중앙연구원

고	66
곤룡포	73
공복	78
난삼	125
방심곡령	285
원유관	551
익선관	565
제복(祭服)	611
통천관	688
편복	698

이은주 李恩珠 안동대학교

결마기	63
도포	186
떠구지	204
볼끼	307
상복(常服)	450
시복	490
야자대	506
어여머리	519
장옷	582
정	604
큰머리	678
홍배	758

이은진 李銀眞 경상대학교

노방주	137
면주	227
명주	228
보배무늬	300
산동주	440
수화주	483
주	625
토주	688
합사주	723

이주영 李珠英 동명대학교

직령	635
포	701

이호정 李祐姪 성균관대학교

고이댕기	71
댕기	179
도투락댕기	184
말뚝댕기	213
목판댕기	251
배씨댕기	289
제비부리댕기	615

임경화 林景花 창작 스튜디오 놀자

건귀	57
초립	660
패랭이	696

임린 任漣 전남대학교

삿갓	443
송낙	478
승복	486

장경희 張慶姬	한서대학교
마미두면	209
망건	214
양태	517
정자관	606

장정윤 張楨允	단국대학교
조복	619

장현주 張賢珠	제주대학교
가족	23
계	65
나일론	124
모직물	246
삼팔주	442
인견	566
전	597
호박단	737

전현실 全炫室	가톨릭대학교
두건	197
말액	214
책	650

정관채 鄭官采	염색장
쪽	645
콩즙	676

정미숙 鄭美淑	경기도박물관
곤충무늬	76
굴레	102
길짐승무늬	118
날짐승무늬	128
너울	133
말군	211
봉황무늬	309
용무늬	541
자연산수무늬	570
족두리	624

정연학 鄭然鶴	국립민속박물관
설피	468

정혜경 鄭惠敬	경남대학교
개량복	49
개량한복	51
생활한복	462
심의	496

조미숙 曹美淑	이화여자대학교
날염	127
남전	131
닭의장풀	160
마전	211
오배자	534
울금	546
인염	567
자초	572
회염	755

조선희 趙鮮姬	한서대학교
노파리	138
신발	491
운혜	545
유혜	557
장화	583
태사혜	684
혜	733
화	745
흑피화	762

조우현 趙又玄	성균관대학교
복두	303
사모	437
상관	445
상복(喪服)	447
상장	452
요질	541
천주교복	655
행전	728

조효숙 趙孝淑	가천대학교
갑사	37
경사	60
고사	70
과실무늬	83
광사	90
국사	101
나사	123
모란무늬	234
사	432
사계절꽃무늬	433
사군자무늬	434
생고사	461
서양사	463
속고사	484
연꽃무늬	523
옥사	535
위사	553
은조사	559
자미사	569
주사	629
직물	638
진주사	642

조희진 趙熙眞	안동대학교
가체	25
개집	54
고의	71
고쟁이	72
기저귀	115
다리속곳	148
돌띠	188
동동구리무	193
박가분	277
백일옷	294
속옷	475
팬티	697
화장법	749
화장재료	750

최연우 崔然宇	단국대학교
갑신의제개혁	39
갑오의제개혁	40
대한제국의제개혁	177
면복	222
상	443
상투관	455
석	464
을미의제개혁	560
중단	630
치포관	674
패옥	696
폐슬	700
후수	756

최은수 崔銀水	국립민속박물관
갈모	28
단령	151
도롱이	182
돌복	189
모던걸	230
모던보이	233
바지	275
양관	507

최정 崔楨	원광대학교
기녀복	112

추은희 秋銀姬	중부대학교
농악복식	139
상모	446

홍나영 洪那英	이화여자대학교
거들치마	55
당의	164
대삼	173
마고자	208
면사	226
몽수	256
원삼	549
치마	671
혼례복	739

관내자문 김영재
 최은수

관외자문 고부자(단국대학교)
 금기숙(홍익대학교)
 김명자(안동대학교)
 김문식(단국대학교)
 김문자(수원대학교)
 김시덕(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남경미(원광대학교)
 박성실(단국대학교)
 송미경(서울여자대학교)
 윤양노(중부대학교)
 이경미(한경대학교)
 이문현(한국고전학연구소)
 이민주(한국학중앙연구원)
 이은주(안동대학교)
 장인우(인천대학교)
 조효숙(가천대학교)

감수위원 강순제(가톨릭대학교)
 박성실(단국대학교)
 유송옥(성균관대학교)